

통계보도기사모음집

('91. 1. 1~'92. 12. 31)

1994. 11

통 계 청

머 리 말

최근 우리사회는 안팎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내년부터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밖으로는 우리나라가 '96년에 OECD에 가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등 국내외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통계환경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우리 통계청에서는 통계의 신뢰성 제고와 신규통계개발에 가일층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청은 지난 '90. 12. 27.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통계청으로 승격된 이후 국가통계발전을 위하여 기본통계의 개선과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각종 지역통계개발에 주력하여 지역내 총생산(GRDP) 및 지역산업활동동향 등의 통계를 생산하여 지역경제정책 사업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통계에 대한 인식제고와 조사환경개선을 위하여 조사통계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통계도 적극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들이 손쉽게 통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망(KOSIS)을 통하여 통계자료를 확대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부가가치통신망(VAN)을 확대하여 통계자료 제공범위도 넓혀 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청 승격이후 '94년 상반기까지 중앙일간지와 경제지 등에 보도된 각종 통계관련 기사를 종합정리하여 통계청의 발전과 위상을 재정립 해보는 의미에서 「통계보도기사모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통계를 통한 당시의 경제사회상을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여 놓은 것으로서 향후 국가통계발전과 홍보방향의 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정책부문은 물론 기업경영과 연구분야에서도 유익하게 활용되리라고 봅니다.

그간 통계조사와 보도에 협조하여 주신 조사대상처와 각 언론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청은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를 적극 개발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4. 11.

통계청장 이 강 우

목 차

□ '91년 1/4분기(1~3월) 보도 기사

○ 통계청 현판식	5
○ 초대 통계청장 인터뷰	6
○ 통계정보 시스템 개통	8
○ '91년 1월중 소비자물가동향	9
○ '90년 12월중 산업활동동향	12
○ 우려되는 경기침체·물가상승(사설)	14
○ 우려되는 고용구조 변질 현상(사설)	15
○ 千字칼럼(미래의 인구지도)	16
○ '89~'90년 영아사망률	17
○ '90년 4/4분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	19
○ '91년 2월중 소비자물가동향	23
○ 통계청 행정의 바람직한 방향	28
○ '91년 1월중 산업활동동향	30
○ '91년 1월중 산업활동동향관련 사설	31
○ 시·군 인구 입맛대로 부풀린다	32
○ 인구통계의 고의적 조작(사설)	36
○ 인구통계 거짓은 나라살림 해친다(사설)	37
○ 통계조작 특별감사	38
○ 국민소비 변천사(물가산정 품목)	38
○ 물가산정 방식 전면조정	40
○ 물가편제 방식의 개선책(사설)	41
○ '90년 4/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	42
○ '90년 4/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관련 사설	43
○ '91년 3월중 소비자물가동향	44

□ '91년 2/4분기(4~6월) 보도기사

○ 통계청장 인터뷰(통계청 출범 1백일)	49
○ 통계 이야기(늘어나는 레저비용)	50
○ '9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및 인구추계	51
○ 통계청장 인터뷰('90년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59
○ 썸돌(인구의 고령화)	60

- '9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및 인구추계관련 사설 61
- '90년도 광공업통계조사 실시 65
- 이 아침에(수도권 인구집중) 65
- 신 경제관료(통계청) 66
- '90년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통계조사 결과 67
- '90년 시·도별 광공업활동동향 72
- 이 아침에(남아선호의 결과) 76
- '91년 4월중 소비자물가동향 77
- '91년 4월중 소비자물가동향관련 사설 80
- '91년 3월 및 1/4분기 산업활동동향 81
- '91년 1/4분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 82
- '91년 1/4분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관련 사설 86
- '90년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 88
- '90년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관련 사설 95
- 통계자료 공동활용체제 구축 96
- '91년 1/4분기 시·도별 광공업활동동향 97
- '91년 5월중 소비자물가동향 98
- '90년 서비스업통계조사 결과 103
- '91년 4월중 산업활동동향 108
- '90년중 취업자현황 분석 110
- 통계청 「경기지수」 현실과 괴리 111

□ '91년 3/4분기(7~9월) 보도기사

- 이야기 경제학(물가지수 행정조작 가능한가) 115
- '91년 5월중 산업활동동향 116
- '91년 3/4분기 기업 경영자 경기전망 117
- '90년 건설업통계조사 결과 118
- '91년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 122
- '90년도 인구이동상황 126
- '90년도 인구이동상황관련 사설 138
- 북한통신(고무줄 통계, 성장 불리기) 142
- 국내 각종통계 한눈에 알 수 있게 한다 144
- '91년 7월중 소비자물가동향 145
- 정부통계자료 PC공급확대 146

○ '91년 6월중 산업활동동향	146
○ '90년 인구주택총조사 2%표본집계 결과	148
○ '90년 인구주택총조사 2%표본집계 결과관련 사설	160
○ '91년 2/4분기 및 상반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	162
○ '91년 2/4분기 및 상반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관련 사설	167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편	168
○ '91년 8월중 소비자물가동향	169
○ 醫窓 (노인복지와 평균수명)	172
○ 빨리온 노령화 사회	173
○ 경기종합지수 개편	174
○ 고학력여성 실업 급증추세	176
○ '91년 7월중 산업활동동향	177
○ '90년 운수업통계조사 잠정집계 결과	179

□ '91년 4/4분기(10~12월) 보도기사

○ '91년 9월중 소비자물가동향	185
○ '91년 8월중 산업활동동향	188
○ '91년 4/4분기 기업경영자 경기전망조사 결과	190
○ '91년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	191
○ 「표준산업분류」 논란	194
○ 혼인·이혼통계 작성 결과	195
○ 혼인·이혼통계 작성 결과관련 사설	205
○ 千字칼럼(比翼鳥)	206
○ '91년 10월중 소비자물가동향	207
○ '91년 9월 및 3/4분기 산업활동동향	208
○ '91년 9월 및 3/4분기 산업활동동향관련 사설	210
○ 기자 24시(너도 나도 중산층)	212
○ '91년 사회통계조사 결과(고용·노사·사회·공안 부문)	212
○ '91년 사회통계조사 결과관련 사설	218
○ 조사자료·정보 정부서 독점	220
○ '91년 3/4분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	221
○ '91년 3/4분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관련 사설	225
○ 噴水臺 (서비스)	226
○ 10% 육박한 물가, 내년이 더 걱정(사설)	227

- '91년 10월중 산업활동동향 228
- '91년 종교인구조사 결과 229
- 통계 이야기 (북한 인구) 230
- '91년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 232
- '90년 광공업통계조사 결과 237
- '9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241

□ '92년 1/4분기(1~3월) 보도기사

- 7차계획 「인구요인과 경제」 전망 247
- 통계 이야기(올 인구지표) 248
- '91년 11월중 산업활동동향 250
- 제7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계획 통계부문 계획안 252
- 주택 대형화 추세('90년 11월기준 주택조사) 254
- '92년 1월중 소비자물가동향 255
- '91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257
- 통계로 본 세계와 한국 264
- 통계로 본 세계와 한국관련 사설 273
- 생활 그래픽(외식비·주부취업) 275
- '91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별 광공업활동동향 276
- '92년 2월중 소비자물가동향 279
- '91년 전국 및 지역 경제활동인구동향 280
- '91년 전국 및 지역 경제활동인구동향관련 사설 288
- '92년 1월중 산업활동동향 289
- '92년 1월중 산업활동동향관련 사설 292
- 대학 입학생모집 세일즈시대 온다 295
- 통계청 전화카드 배포(가계조사 응답자 협조유도 위해 무료로) 296
- '92년 3월중 소비자물가동향 297

□ '92년 2/4분기(4~6월) 보도기사

- '9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301
- '9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관련 사설 306
- '91년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 307
- '91년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관련 사설 309
- 서비스산업 취업자 60% 넘었다 311

- 「임금관련」 새 통계지수 개편 312
- '92년 3월 및 1/4분기 산업활동동향 313
- '92년 3월 및 1/4분기 산업활동동향관련 사설 316
- '9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 317
- '9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관련 사설 321
- '92년 1/4분기 시·도별 광공업활동동향 322
- 통계 이야기(도시지역 레저비용) 325
- '92년 5월중 소비자물가동향 326
- '92년 4월중 산업활동동향 327
- '92년 4월중 산업활동동향관련 사설 331
- '92년 1/4분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 332
- '92년 1/4분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관련 사설 335
- 월요 초대석(최근 재고급증...불황감 주원인) 336
- '92년 6월중 소비자물가동향 337

□ '92년 3/4분기(7~9월) 보도기사

- '92년 5월중 산업활동동향 343
- '92년 5월중 산업활동동향관련 사설 347
- 소득은 증진국 먹는건 선진국 349
- 우리나라 및 세계의 인구현황 350
- 우리나라 및 세계의 인구현황관련 사설 357
- '92년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 358
- '91년 건설업통계조사 잠정집계 결과 364
- '91년 인구가동 집계결과 367
- 지자체(地自體) 통계 전문인력 부족 372
- 통계조사 부실 많다(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주요단체) 373
- '92년 6월 및 상반기 산업활동동향 374
- '92년 6월 및 상반기 산업활동동향관련 사설 379
- 「노는 젊은이」 日보다 많다(한·일간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381
- 기자 24시(통계와 통제) 382
- 기업생멸통계 '94년부터 만든다 383
- 통계로 본 중국 경제 384
- '92년 2/4분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 386
- '92년 2/4분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관련 사설 389

- '92년 8월중 소비자물가동향 390
- '92년 8월중 소비자물가동향관련 사실 392
- '92년 7월중 산업활동동향 393
- '91년 운수업통계조사 잠정집계 결과 395
- 지난 10년간('81~'91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성향 추이 399

□ '92년 4/4분기(10~12월) 보도기사

- '92년 9월중 소비자물가동향 405
- '92년 8월중 산업활동동향 407
- '92년 8월중 산업활동동향관련 사실 413
- 통계로 본 한국의 발자취 416
- 통계청, 표본 전면 손질 424
- 국감현장(통계청) 425
- 통계조사협조 광고 425
- 도시가계조사 통계표본 개편 425
- 통계청 청사이전관련 기사 426
- '92년 9월 및 3/4분기 산업활동동향 429
- '92년 10월중 소비자물가동향 432
- '92년 10월중 소비자물가동향관련 사실 433
- 상주인구조사 폐지(주민등록인구 공식통계로 활용) 434
- 인터뷰("실업률 지표 보완...논란소지 없애겠다") 436
- 우리나라 최초의 통계지 「조선통계시보」를 통해 본 1930년대의 사회상 437
- '91년 총사업체통계조사 결과 445
- '91년 총사업체통계조사 결과관련 사실 449
- '91년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결과 451
- 새 통계청사(역삼동) 현판 제막식 453
- '92년 3/4분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 454
- '92년 3/4분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관련 사실 457
- '92년 11월중 소비자물가동향 459
- '92년 10월중 산업활동동향 461
- '92년 10월중 산업활동동향관련 사실 464
- 인터뷰(30년만에 청사이전, 새 분위기서 더 정확한 통계기대) 465
- 100세 이상 고령인구 현황 466
- 100세 이상 고령인구 현황관련 사실 471

○ 알기쉬운 경제(경제활동인구 증가율 감소)	472
○ '92년 사회통계조사 결과(보건·환경 부문)	474
○ '90년 인구주택총조사 최종전수집계 결과	481
○ '90년 인구주택총조사 최종전수집계 결과관련 사설	488
○ 통계청 유권자 나이별 추계	492
○ '91년 사망원인 통계결과	493
○ 최근 10년간 교육비 지출구조의 변화	497
○ '92년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	498
○ 우리나라 보험료 수준은...(생명보험 「통계」보다 비싼편)	500
○ '91년 지역통계연보	501
○ '92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508
○ '92년 11월중 산업활동동향	509

1991 년 보 도 기 사

여 백

1/4분기 보도기사

(1월~3월)

여 백

현 판 식



통계청 현판식 올해부터 청으로 승격된 통계청이 4일 이승
윤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이진실 차관,
민태형 초대청장(왼쪽부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운동 청사에
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91. 1. 5)

통계실태 회복하겠다

閔泰亨 초대 統計廳長

48년 統計수립과 함께
공보처 산하 局으로 출발
했던 統計기획원 조사통
계국이 지난 1일 43년만
에 廳으로 승격됐다. 그
초대 청장인 閔泰亨씨(58·
1급 상당)는 『廳이 局과
같아서야 되겠느냐』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실
아 있는 통계로 統計수립체
의 실태를 회복하겠다』
고 다짐했다.

— 정부가 발표하는 각
종 통계가 실제 경제흐름
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
이 많다. 오후하면 指數
따로 實物따로라고 고를 하
겠는가.
▲ 소비자물가·경기지수·
실업률 등 고용통계 부문에
서 그런 지적을 받고 있

는 줄 안다. 統計(통계청)
예산 절감하게 조사해서
계를 조사·발표하고 있
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



정직하게 발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 피부로 느
끼는 것과 차이가 있다
고 여겨지는 만큼 문제
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
내 표본추출과 조사방법
등을 개선해 가급적 그
편차를 줄이도록 하겠다.
— 통계청에서 많은 통
계가 충분치 못하다고 본

다. 특히 地自制를 제대
로 실시하려면 그 기초
자료로서 여러가지 지역
통계가 있어야 한다. 앞
으로 지역통계와 사회·
복지분야통계를 더 늘리
고 「살아있는 생활속의 통
계」가 되도록 하겠다.
— 지자체실시를 앞두고
각 지방市·道·郡·區의
통계수요는 크게 늘어날
상황인데도 현재 통계전
무직원이 없는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비
책이.
▲ 올해안에 통계연수원
을 설립해서 중앙의 통
계담당 전문요원의 물품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통
계조사·분석요원을 양성
하겠다.
延世大 경제학과를 졸업
한 그는 61년 7월 경제기
획원 기획국에서 공직생
활을 시작, 그동안 주로
기획·예산부문에 일해
왔다. <梁在燦기자>

★ 가정의 물



통계의 不信해소에 앞장설

閔 泰 亨

초내 統計庁長

『통계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閔태亨 초내 통계청장(이하 통청)은 6일 통청의 불신사태(이하 불신사태)를 첫머리를 이통계 열었다.

『우선 지방까지 한때 뷰어 발표하던 소비자들이 지수를 불신하고 내년도까지도 수통계청을 무안한 도통청에 대해 불신을 표명했다』지방 통계청에 일었던 「피부불가. 지수불가 부정」을 상기하고는 통청장인 통계지수의 신뢰관계를 높이기 위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날 통청이 전체통계 통계청이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48년 공보처 통계청이든 출판하여 42만인인 「통인」을 실적증거나 바로 우리사회가 다양한 통계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인』은 통청의 정인구 통청장, 통청부처장, 복지통계청장인 「노진출, 신모임 통계지수를 개발하는 데 힘을 쏟았다』고 강조하는 통청장의 부흥 지역통계 개발의 열정을 부추리고 있다.

통청의 地自制가 실시되면서 지역통계청의 지역통계를 위한 통청수요가 급증하게 하였다. 통청이 「통인」을 발표한다. 통청장은 『통청이 열·민·통의 통청가 진보 발전을 할 것으로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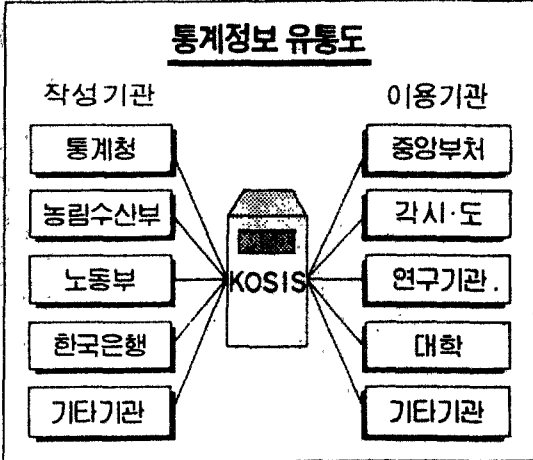
地自制 실시 대비 地域통계 개발 역점

『통청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閔태亨 초내 통계청장(이하 통청)은 6일 통청의 불신사태(이하 불신사태)를 첫머리를 이통계 열었다.

『우선 지방까지 한때 뷰어 발표하던 소비자들이 지수를 불신하고 내년도까지도 수통계청을 무안한 도통청에 대해 불신을 표명했다』지방 통계청에 일었던 「피부불가. 지수불가 부정」을 상기하고는 통청장인 통계지수의 신뢰관계를 높이기 위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날 통청이 전체통계 통계청이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48년 공보처 통계청이든 출판하여 42만인인 「통인」을 실적증거나 바로 우리사회가 다양한 통계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인』은 통청의 정인구 통청장, 통청부처장, 복지통계청장인 「노진출, 신모임 통계지수를 개발하는 데 힘을 쏟았다』고 강조하는 통청장의 부흥 지역통계 개발의 열정을 부추리고 있다.

통청의 地自制가 실시되면서 지역통계청의 지역통계를 위한 통청수요가 급증하게 하였다. 통청이 「통인」을 발표한다. 통청장은 『통청이 열·민·통의 통청가 진보 발전을 할 것으로 믿는다』



통계청이 농림수산부와 노동부의 합동개발 사업인 '농업·노동·통계정보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르면 정산가 등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청의 따르면 KOSIS는 통계청, 농림수산부, 노동부 등 55개 기관의 자료와 26만 5천 8백 61건의 자료를 30만 건 이상으로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내빈인 문명도 이용 통계청 통계정보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르면 정산가 등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청의 따르면 KOSIS는 통계청, 농림수산부, 노동부 등 55개 기관의 자료와 26만 5천 8백 61건의 자료를 30만 건 이상으로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26일 오전 11시 17분부터 26일 오후 11시 46분까지 농림수산부, 노동부, 한국은행 등 55개 기관의 자료를 26만 5천 8백 61건의 자료를 30만 건 이상으로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청 KOSIS 어제가동

50여기관 統計 온라인제공

증감율계산·크기順분류 기능

통계청이 농림수산부와 노동부의 합동개발 사업인 '농업·노동·통계정보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르면 정산가 등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청의 따르면 KOSIS는 통계청, 농림수산부, 노동부 등 55개 기관의 자료와 26만 5천 8백 61건의 자료를 30만 건 이상으로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농림수산부와 노동부의 합동개발 사업인 '농업·노동·통계정보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르면 정산가 등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청의 따르면 KOSIS는 통계청, 농림수산부, 노동부 등 55개 기관의 자료와 26만 5천 8백 61건의 자료를 30만 건 이상으로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농림수산부와 노동부의 합동개발 사업인 '농업·노동·통계정보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르면 정산가 등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청의 따르면 KOSIS는 통계청, 농림수산부, 노동부 등 55개 기관의 자료와 26만 5천 8백 61건의 자료를 30만 건 이상으로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농림수산부와 노동부의 합동개발 사업인 '농업·노동·통계정보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르면 정산가 등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청의 따르면 KOSIS는 통계청, 농림수산부, 노동부 등 55개 기관의 자료와 26만 5천 8백 61건의 자료를 30만 건 이상으로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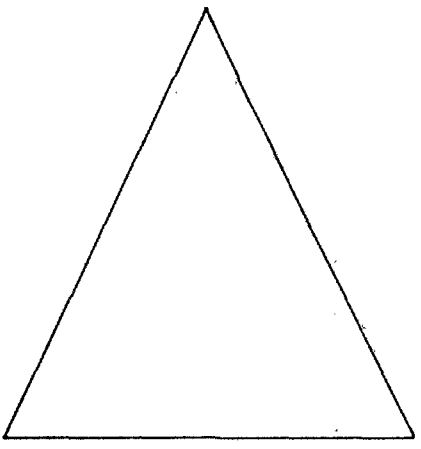
서울經濟新聞

통계정보시스템개동

인구 등 26만개항목 수록

統計廳

행정부에 우선관리할 26만항목의 각종 통계 자료를 개인용 컴퓨터(PC)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통계청은 25일 국내외 50여개 기관에서 작성하는 20개 부문, 26만 5천 8백 61개의 각종 통계 자료를 일괄 입력하고 실수요자에게 알맞은 통계정보시스템(KOSIS)을 개발, 이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통계청은 이를 통계청에 대해 최대 30년간의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주요품목 소비차물가 비교표
(단위 : 원, 상공회의소 조사)

품명	단위	90. 12.28.	91. 1.25.	동락률 (%)
삼피	입판피 4kg	5,500	5,600	1.8
부	불보리 4kg	3,500	3,700	5.7
부	포기	800	850	6.3
부	재래종 개	400	400	0
부	kg	4,000	4,000	0
부	600g	3,800	3,800	0
부	500g	5,500	6,400	16.4
부	500g	2,100	2,350	11.9
부	100장	5,000	6,000	20.0
부	부사 개	700	750	7.1
부	3kg	1,000	1,000	0
부	3kg	1,900	1,900	0
부	1kg	600	600	0
부	개	200	200	0
부	22공란	195	195	0
부	본종	238	238	0
부	(3.75g)	42,000	46,000	9.5
부	40kg	2,800	2,500	-10.7

物價 크게 뚫는다

1월 「소비자」 2.1% 10년만에 최대폭

1월 소비자물가가 10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31일 경제기획원 발표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가 2.1% 상승했다. 이는 1981년 1월(2.8%) 이후 최고치이다. 1월 소비자물가는 90년 12월 28일 대비 2.1% 상승한 46,000원이다. 1월 소비자물가는 1981년 1월(2.8%) 이후 최고치이다. 1월 소비자물가는 90년 12월 28일 대비 2.1% 상승한 46,000원이다.

1월 소비자물가가 2.1% 상승했다. 이는 1981년 1월(2.8%) 이후 최고치이다. 1월 소비자물가는 90년 12월 28일 대비 2.1% 상승한 46,000원이다. 1월 소비자물가는 1981년 1월(2.8%) 이후 최고치이다. 1월 소비자물가는 90년 12월 28일 대비 2.1% 상승한 46,000원이다.

1월 소비자물가가 2.1% 상승했다. 이는 1981년 1월(2.8%) 이후 최고치이다. 1월 소비자물가는 90년 12월 28일 대비 2.1% 상승한 46,000원이다. 1월 소비자물가는 1981년 1월(2.8%) 이후 최고치이다. 1월 소비자물가는 90년 12월 28일 대비 2.1% 상승한 46,000원이다.

物價 plummet 年初부터 非常

우리나라는 1948년 1월 1일부터 1949년 1월 1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물가가 300% 이상 상승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물가통제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물가가 300% 이상 상승하였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물가통제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물가가 300% 이상 상승하였다.

經濟 먹구름

물가가 300% 이상 상승하였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물가통제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물가가 300% 이상 상승하였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물가통제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물가가 300% 이상 상승하였다.

물가가 300% 이상 상승하였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물가통제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물가가 300% 이상 상승하였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물가통제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물가가 300% 이상 상승하였다.

물가가 300% 이상 상승하였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물가통제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물가가 300% 이상 상승하였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물가통제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물가가 300% 이상 상승하였다.

물가가 300% 이상 상승하였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물가통제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물가가 300% 이상 상승하였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물가통제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물가가 300% 이상 상승하였다.

물가가 300% 이상 상승하였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물가통제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물가가 300% 이상 상승하였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물가통제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물가가 300% 이상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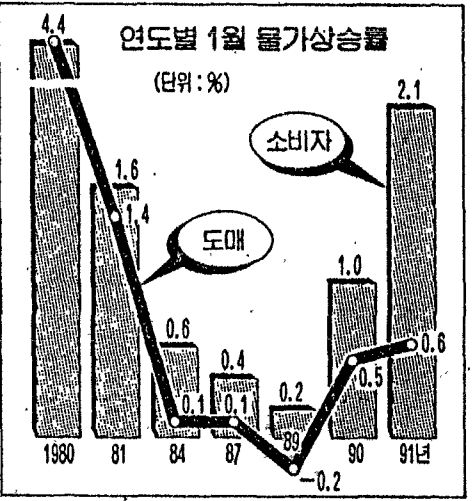
물가가 300% 이상 상승하였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물가통제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물가가 300% 이상 상승하였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물가통제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물가가 300% 이상 상승하였다.

물가가 300% 이상 상승하였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물가통제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물가가 300% 이상 상승하였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물가통제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물가가 300% 이상 상승하였다.

작년 말 油價 임금 인상 原

작년 말에 들어와 물가가 300% 이상 상승하였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물가통제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물가가 300% 이상 상승하였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물가통제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물가가 300% 이상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1980년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4%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1989년에는 -0.2%의 하락을 기록하며, 1988년에는 0.2%의 상승을 보였다. 1987년에는 0.4%의 상승을 기록했고, 1984년에는 0.6%의 상승을 기록했다. 1981년에는 1.6%의 상승을 기록했으며, 1980년에는 4.4%의 상승을 기록했다.



항목	작년말대비		1년전대비 상승률
	상승률	기여도	
중추수산물	3.2	0.93	13.5
(농산물)	2.5	0.48	13.9
(수산물)	4.3	0.23	17.0
광산품	4.7	0.23	8.4
공공요금	0.9	0.23	5.8
개인서비스	0.8	0.16	6.7
집서비스	7.7	0.67	22.0
유류	0.6	0.08	14.7
연료	0.0	0.00	11.8
전체	0.2	0.01	6.7
전체	2.1		10.6

公共料인상이 先導

價상승이 先導인 物價인상

1월 1991년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 12월 1.0%에 비해 1.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특히 1991년 1월에는 1.6%의 상승을 기록했으며, 1990년 12월에는 1.4%의 상승을 기록했다. 1990년 11월에는 1.0%의 상승을 기록했고, 1990년 10월에는 0.6%의 상승을 기록했다. 1990년 9월에는 0.5%의 상승을 기록했으며, 1990년 8월에는 0.4%의 상승을 기록했다. 1990년 7월에는 0.2%의 상승을 기록했고, 1990년 6월에는 0.1%의 상승을 기록했다. 1990년 5월에는 0.1%의 상승을 기록했으며, 1990년 4월에는 0.1%의 상승을 기록했다. 1990년 3월에는 0.1%의 상승을 기록했고, 1990년 2월에는 0.1%의 상승을 기록했다. 1990년 1월에는 0.1%의 상승을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1980년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4%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1989년에는 -0.2%의 하락을 기록하며, 1988년에는 0.2%의 상승을 보였다. 1987년에는 0.4%의 상승을 기록했고, 1984년에는 0.6%의 상승을 기록했다. 1981년에는 1.6%의 상승을 기록했으며, 1980년에는 4.4%의 상승을 기록했다.

産業생산 8.6% 증가

지난해 動向 製造業가 동률도 상승

先行·동행指數는 감소 : 向後경기 불투명

설비투자 증가 건설경기가
기활동 등 국내 수요 증가와
노사분규의 진정 등으로 지난
해 산업활동지수 호조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분기별
부진도 있었

그러나 지난해 12월중
산업생산은 실물경기 호
조에도 불구하고, 경기선행지수
동행지수 등 지수경기는 모
두 감소세로 反轉됨으로써
앞으로의 국내경기가 불투
명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30일 「90년 12
월중 산업활동지수 발표를
통해 90년 한해 동안 산업
생산은 8.6% 증가, 89년
의 2.9%보다 활기를
 띠었으므로 분석되었다고 밝
 혀다.
이에 따라 제조업가동률
도 79.6%로 7
월중 79.6%보다
3%포인트 상승
한 82.6%로
상향전환되는
1.1% 감

◇90년 산업활동 주요지표
()는 89년 지표, 단위=%

○ 산업생산	8.6	(2.9)
○ 총 하	10.9	(4.2)
- 내수	15.0	(10.3)
- 수출	△1.8	(△11.6)
○ 제조업가동률	79.6	(77.7)
○ 도·소매판매	12.3	(9.2)
- 내수용소비재	15.2	(18.7)
○ 국내기계수주	38.8	(24.8)
- 제조업	31.8	(9.6)
○ 국내건설수주	55.8	(84.5)
- 제조업	34.8	(24.1)
○ 건축허가면적	31.4	(45.8)
- 공업용	17.0	(4.0)
○ 실업률	2.4	(2.6)
○ 경제성장률	9 (추정)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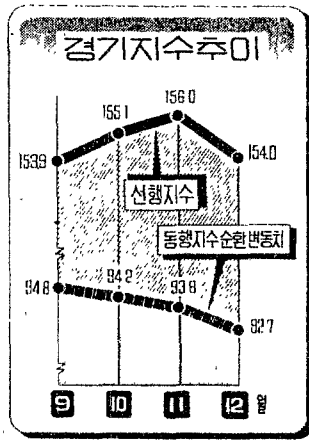
소함으로써 앞으로의 경기
는 절박전쟁의 따른 수출
과 내수공화까지 걸쳐
부명하다고 밝혔다.

올봄景氣 매우 어둡다

월간産業동향 걸프戰여파... 수출·內需부진

지난달先行지수 1.3% 하락 79년5월이래 최대落幅 기록

기계發注증가율 둔화... 投資의욕 감퇴



또 내수용 소비재판매가 둔화되고 도매판매가 감소, 전체 도소매판매가 11월보다 0.6% 감소했다.

제조업체의 기계발주액 증가율(前年同月比)은 14.9%에서 11%로, 제조업체의 건설용사발주 증가율은 1백19.1%에서 17.5%로 줄었고 공업용건축허가면적은 0.6%증가에서 3.4%감소로 반전되는 등 기업체의 투자 의욕도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한편 90년 연간전체로 는 89년보다 산업활동이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생산증가율은 2.9%에서 8.6% 줄하는 4.2%에서 10.9%, 제조업생산증가율은 연평균 77.7%에서 79.6%로 각각 높아졌다.

재고증가율은 17.4%에서 17.1%로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내수용 소비재판매가 다소둔화된 것은 전 체 도소매판매증가율은 9.2%에서 12.3%로 높아졌다.

투자도 활기를 유지해 국내기계제작업체의 기계 수주증가율은 24.8%에서 33.1%로, 이중 제조업체용기계수주증가율은 9.6%에서 11%로 높아졌다.

전체 공업용건축허가면적이 1년새 3.4% 줄긴했으나 89년보다는 감소폭(4%감소)이 둔화됐다.

그러나 전체취업자중 광공업체취업비중이 28.2%에서 27.3%로 낮아지고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부문취업자는 51%에서 53.1%로 늘고 고용구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표전체으로 인한 수출과 내수둔화로 올봄경기는 매우 불명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지난해 12월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오는 3월의 경기상태를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가 11월보다 1.3% 하락, 지난 79년5월(前月比) 1.3% 하락(이래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다. 지난 연말의 경기상태를 종합적으로 보 여주는 경기동향지수순환변동치도 지난 89년4월 이래 최대폭인 1.1% 떨어졌다.

통계청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걸프사태이후 생산과 수출, 투자증가세가 둔화되고 제조업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전반적

인 경기위축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중 산업생산과 수출은 11월보다 각각 0.4% 증가에 그쳐 11월의 前月比증가율(각각 3.8%와 1.4%)을 크게 밑돌았고 제조업생산증가율은 80.7%에서 79.4%로 떨어졌다.

산업생산증가율은 2.9%에서 8.6% 줄하는 4.2%에서 10.9%, 제조업생산증가율은 연평균 77.7%에서 79.6%로 각각 높아졌다.

재고증가율은 17.4%에서 17.1%로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내수용 소비재판매가 다소둔화된 것은 전체 도소매판매증가율은 9.2%에서 12.3%로 높아졌다.

투자도 활기를 유지해 국내기계제작업체의 기계 수주증가율은 24.8%에서 33.1%로, 이중 제조업체용기계수주증가율은 9.6%에서 11%로 높아졌다.

전체 공업용건축허가면적이 1년새 3.4% 줄긴했으나 89년보다는 감소폭(4%감소)이 둔화됐다.

그러나 전체취업자중 광공업체취업비중이 28.2%에서 27.3%로 낮아지고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부문취업자는 51%에서 53.1%로 늘고 고용구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표전체으로 인한 수출과 내수둔화로 올봄경기는 매우 불명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지난해 12월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오는 3월의 경기상태를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가 11월보다 1.3% 하락, 지난 79년5월(前月比) 1.3% 하락(이래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다. 지난 연말의 경기상태를 종합적으로 보 여주는 경기동향지수순환변동치도 지난 89년4월 이래 최대폭인 1.1% 떨어졌다.

통계청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걸프사태이후 생산과 수출, 투자증가세가 둔화되고 제조업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전반적

社說

우리산업의 고성장 추세가 갈수록 변질...
우리산업의 고성장 추세가 갈수록 변질...
우리산업의 고성장 추세가 갈수록 변질...

이 통계수치만 놓고 보면...
이 통계수치만 놓고 보면...
이 통계수치만 놓고 보면...

우리산업의 고성장 추세가 갈수록 변질...
우리산업의 고성장 추세가 갈수록 변질...
우리산업의 고성장 추세가 갈수록 변질...

물류업만 받아들일 수 없고...
물류업만 받아들일 수 없고...
물류업만 받아들일 수 없고...

있다.
있다.
있다.

다크업 여기업과 도시...
다크업 여기업과 도시...
다크업 여기업과 도시...

우리 경제가 고성장...
우리 경제가 고성장...
우리 경제가 고성장...

우려되는 雇傭構造 변질 현상

%임의비행...
%임의비행...
%임의비행...

물류업 여기업과 도시...
물류업 여기업과 도시...
물류업 여기업과 도시...

물류업 여기업과 도시...
물류업 여기업과 도시...
물류업 여기업과 도시...

우리 경제가 고성장...
우리 경제가 고성장...
우리 경제가 고성장...

千字칼럼



未來의 人口地圖

정수영은 수평적 정이단정, 영상이 빛나는지나 생애적 정이다. 또한 그리스와 로마의 평탄수평이 각각 18세, 22세의 불평형이다. 중국에서는 33세, 20세기초의 미국은 49세, 전진적인 선진국들은 보통이다. 1965년 미국은 평균수명 70세를 돌파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우리 나라는 89년 미국 70세를 돌파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자문화권 인구의 1백세 이상 장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기 한계까지인지에 관한 확실한 답은 없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老現象 연구결과를 보면 1백50세가 가까이 살 수 있다고 한다. 노아가 9백50세까지 장수했다는 성경의 기록은 허황된 얘긴일 수도 있겠지만, 모세의 1백20세나 아담의 1백47세는 믿지않는 미래에 쉽게 이루어

질문가 최근 발표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總發표본 인구전망을 보면 2020년에 70세 이상 인구가 76세로 올라가고 출생률과 사망률이 균형을 이루는 인구증가율이 0.0%에 이르러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비율도 11.5%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老齡人口國이 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 수명은 85년에서 1% 미만이 인



86년에서 12.1%, 프랑스는 86년에서 13.7%, 일본은 87년에서 10.9%의 대량인구비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85년에서 17%에 이르러 세계 평균의 8배 가까이 되었다. 사회가 고령화되면 건강과 경제, 비생산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국가나 사회 차원에서라도 부양비가 가중되고 생산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2020년의 우리 나라는 생산 비생산

인구 비중이 0.14세 유소년층의 비율이 90년의 25.9%에서 16.5%로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90년의 4.7%에서 11.5%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인 비생산인구의 비중이 거의 2배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까지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선진국과 거의 일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령화사회의 노령인구 비중이 10% 이상 되면 경제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자꾸 늘어만 가는 餘生。 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노인층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노후정책 마련이 중요하다. 또한 노인층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층의 건강과 경제, 비생산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국가나 사회 차원에서라도 부양비가 가중되고 생산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2020년의 우리 나라는 생산 비생산

嬰兒 1천명중 12.8명꼴 숨겨

간접 자살로 알려진 불임사망률의 추정치가 12.8명수준으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1990년 12.8명수준으로 올라간 불임사망률에 대해 1천명중 12.8명꼴로 숨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4명에 비해 약간 낮아진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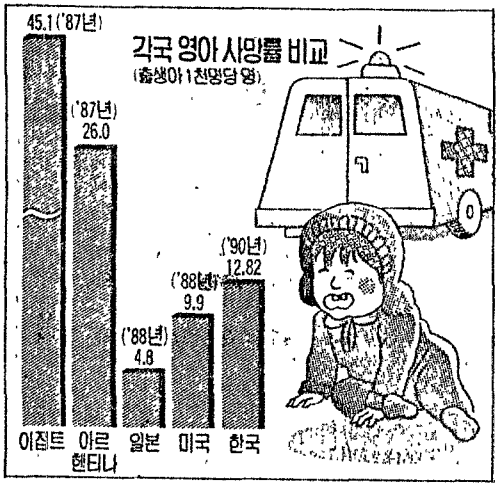
간접 자살로 알려진 불임사망률의 추정치가 12.8명수준으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4명에 비해 약간 낮아진 수치이다. 이는 84명에 비해 약간 낮아진 수치이다.

日 4.8명 美 10명보다 많아

간접 자살로 알려진 불임사망률의 추정치가 12.8명수준으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4명에 비해 약간 낮아진 수치이다. 이는 84명에 비해 약간 낮아진 수치이다.

간접 자살로 알려진 불임사망률의 추정치가 12.8명수준으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4명에 비해 약간 낮아진 수치이다. 이는 84명에 비해 약간 낮아진 수치이다.

영아사망률 매년 감소
1천명당 12.82명꼴
출생후 1주일의 영아사망률
이 지난 해의 13.0명꼴
비율에서 1.18% 감소한
1천명당 12.82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4년의 영아사망률 12.8
4명에 비해 약간 낮아진
수치이다.



간접 자살로 알려진 불임사망률의 추정치가 12.8명수준으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4명에 비해 약간 낮아진 수치이다. 이는 84명에 비해 약간 낮아진 수치이다.

嬰兒사망률 千명당 13명꼴

의술 발달등으로 70년비해 3.5배 줄어

의술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등의 힘으로 태어난지 1년 이내에 숨지는 영아사망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美國·日本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나)은 3만 2천여명의 영아사망률에 대한 1천명당 13명꼴의 출생 1년 이내의 죽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사망자수는 88만 8천여명(10명의 영아사망률)인 반면 70년의 1천명당 45·4명(81만 1천 7백여명)의 영아사망률에 비해 10년 전의 13·3명(10만 9천여명)의 영아사망률에 비해 3배 이상 줄었다.

고정세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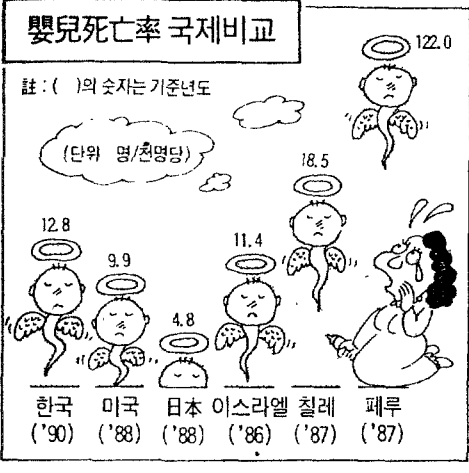
영아사망률의 원인으로 태아발육 지연(27%)·호흡기질환(16%)·선천성 질환(13%) 등이 과반수를 차지했고 도시지역보다는 시골지역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을 외국과 비교해보면 아르헨티나·칠레·페루는 南美國가에 비해 서는 낮지만 日本이나美國·英國에 선진국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제비교를 보면 日本은 1천명당 4·8명(88만 8천여명)에 가장 낮았고 미국(9·9명)·프랑스(9·8명)·독일(9·8명)·스웨덴(9·8명)·수에덴(9·8명)의 뒤를 이었다.

프랑스·오스트리아·독일·덴마크에 우열을 가리지 않는 수준에 도달했다.

美國은 9·9명(9만 9천여명)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東南亞 국가 중에서는 홍콩(7·4명)·싱가포르(7명)가 10년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페루는 1천명당 1백 22명이 사망, 조사대상국 중 최고의 영아사망률을 기록했고 엘살바도르(32·5명)·아르헨티나(26명) 등 南美國가의 영아사망률이 韓國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집트도 45·1명(1천 4백 5십여명)에 중에서는 蘇聯이 25·4명(1천 2백 5십여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金主환기자〉

失業者73% 6大도시 집중

「서비스」비대 雇傭왜곡

실업률평균 2.3% 서울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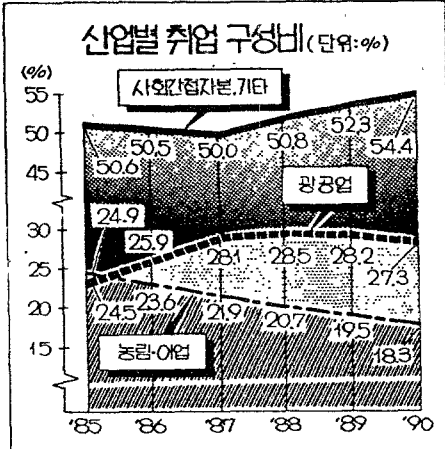
통계청, 작년 4.4분기 조사

전국 실업자의 73%가 서울 등 6대도시와 집중돼 있으며 실업률도 광주(2.8%)를 제외한 6대도시에서 3%를 초과하고 있다. 관공청에 따르면 취업자 비중은 산업별 취업자 비중은 제조업과 광업이 46.4%로 가장 높았다. 서비스업은 3차산업업종의 47.1%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은 23만 2천 3백 44명(10.12%)로 실업자수는 43만 4천 명으로 실업률 42.1%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낮아진 2.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업률은 지난해 하반기 후 소미로 제외업체 사태 등의 여파로 2.4분기(4~6월)의 2.1%에서 3.4분기(7~9월) 2.5%를 계속 높여 지난해를 넘어섰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6대 도시의 실업자수가 전체의 72.8%인 31만 6천 명으로 실업률도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높아진 3.5%를 나타냈다. 서울은 3.9%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였고 대전과 仁川의 3.3%, 광주과 大田의 3.1%, 광주 2.8%의 순이다.

6대도시를 제외한 도지역의 실업률은 1.2%로 대부분이 2% 미만인 실업률을 나타냈으며 전국 평균은 0.6%로 가장 낮았다. 대도시의 실업률이 높은 것은 신규 노동인구가 일차리가 많은 대도시로 계속 유입된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중 전국 취업자수가 1천 8백 23만 9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늘었다. 1천 8백 23만 9천 명 중 1천 8백 23만 9천 명은 취업자수인 1천 8백 23만 9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늘었다. 3차산업인 사회간접자본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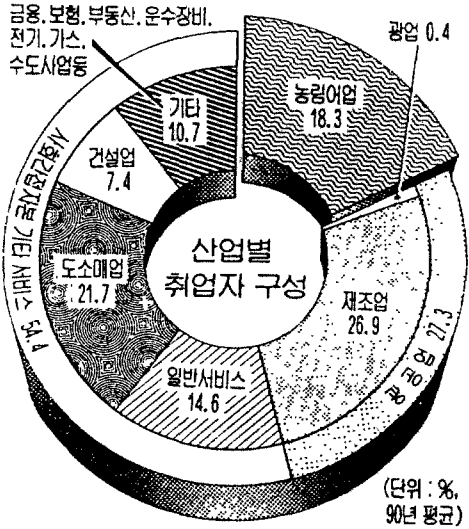
기타서비스업(건설·도산·매입·중상업)은 6.3%나 올랐고 1천 2만 9천 명은 3차산업업종의 빠른 인력유입을 나타냈다. 한편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는 3차산업인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이 87년 50.8%, 88년 50.8%, 89년 50.8%, 90년 54.4%로 계속 높아졌다. 반면 농업·임업은 해마다 낮아져 89년 19.5%로 지난해엔 18.3%를 기록했으며 광공업은 88년의 24.5%를 고비로 89년 23.6%, 90년 27.3%로 높아졌다. 서비스업의 인력유입은 88년 28.5%를 고비로 89년 28.5%, 90년 27.3%로 높아졌다.



失業率 2.3%로 떨어

작년 4·4분기 전국에 43萬4千명

작년 4·4분기(10~12월) 실업자 43만 4천명(전체 인구의 2.3%)이 증가했다. 이는 작년 3·3분기(7~9월)의 실업자 43만 7천명(전체 인구의 2.3%)에 비해 3천명(0.1%)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89년 1·1분기(1월~3월)의 실업자 43만 7천명(전체 인구의 2.3%)에 비해 3천명(0.1%)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89년 1·1분기(1월~3월)의 실업자 43만 7천명(전체 인구의 2.3%)에 비해 3천명(0.1%)이 감소한 것이다.



시도별 취업추이 (작년 4·4분기) <단위: 천명 / %>

지역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89년 동기 실업률
전국	18,669	18,235	434	2.3	2.4
6대도시	8,950	8,635	316	3.5	3.4
서울	4,785	4,599	186	3.9	4.1
釜山	1,604	1,554	50	3.1	2.6
大邱	928	899	30	3.2	2.6
仁川	739	716	23	3.2	2.5
光州	449	436	13	2.8	3.1
大田	445	431	14	3.1	2.8
9개도	9,720	9,602	118	1.2	1.4
京畿	1,469	2,426	43	1.8	2.6
江原	677	670	7	1.1	0.8
忠北	588	582	6	0.9	0.9
忠南	809	804	5	0.6	0.9
全北	823	814	9	1.1	1.2
全南	1,180	1,170	10	0.9	0.9
慶北	1,311	1,301	10	0.8	1.0
慶南	1,620	1,594	26	1.6	1.5
濟州	243	241	2	0.8	0.5

이 중 14만 3천명(8.1%)이 증가했다. 이는 작년 3·3분기(7~9월)의 실업자 43만 7천명(전체 인구의 2.3%)에 비해 3천명(0.1%)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89년 1·1분기(1월~3월)의 실업자 43만 7천명(전체 인구의 2.3%)에 비해 3천명(0.1%)이 감소한 것이다.

3차산업인구 1천만 돌파

통계청 발표 기형적肥大... 全産業의 55% 점유

고령漁業부문의 1년새 23만명 격감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부문 취업자 수가 사상 최초로 1천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의 23일 발표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부문 취업자 수」에 따르면 10월 중순 기준 4.4분기(10~12월) 중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 부문 취업자 수는 1천2만9천명이 늘었다. 이는 1년 전(89년 4.4분기)의 953.2%보다 1.8% 포인트	이외에다, 全産業 취업자가운데 이 부문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 부문의 고용 점유비는 55%로 1년 전의 53.2%보다 1.8% 포인트	증가폭(49만9천명)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이외에다, 全産業 취업자가운데 이 부문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 부문의 고용 점유비는 55%로 1년 전의 53.2%보다 1.8% 포인트	다 5천명이 늘었다. 59만7천 명이 늘었다는 것으로 지난 1년 동안 全産業의 취업자 수 증가폭(49만9천명)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통계청의 이같은 3차산업 부문의 기형적인 고용비 대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기업가와 근로자들이 정부와 제조업 경영층에 강하게 반발하고 제조업 분야의 대한 투자와 취업유기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취업유기책은	만 1천명이 늘었다. 광공업 부문의 고용 점유비는 27.6%로 89년 4.4분기의 27.5%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8년 4.4분기의 광공업 부문 고용 점유비는 29.1%였다.	1년사이에 1.9% 포인트가 떨어진 취업자 수 감소는 취업자가 급격한 감소를 나타냈다.	이외에다, 全産業 취업자 수는 3백18만1천명이 늘었다. 이는 1년 전보다 23만9천명이 늘었다.	이외에다, 全産業 취업자 수는 3백18만1천명이 늘었다. 이는 1년 전보다 23만9천명이 늘었다.	1년사이에 1.9% 포인트가 떨어진 취업자 수 감소는 취업자가 급격한 감소를 나타냈다.	실업자는 43만4천명, 실업률은 2.3%를 기록했다.	전체 실업자의 73%인 31만6천명이 서울·釜山·大邱·仁川·光州·大田 등 6대 도시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대 도시의 실업률은 3.5%로 전국 평균 실업률인 2.3%를 크게 상회했다.
--	---	---	--------------------------	---	--	--	---	--	--	--	--	-------------------------------	---

전국失業者 43萬명

실업률 2.3% 6대도시에 73% 몰려

90년 4·4분기 市道別 고용통계

도시로의 인구집중현상이 지속되면서 대도시의 失業者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90년 4·4분기 市道別 고용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중 서울과 5개직할시 등 6대도시의 실업률은 3.5%로 전년동기에 비해 0.1%포인트, 전분기에 비해서는 0.2%포인트나 높아졌다.

실업자수로는 작년 4·4분기에 이들 6대도시의 경우 31만 6천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8.6%(2만 5천명), 전분기에 비해서는 6.4%(1만 9천명)나 늘었는데 전국실업자수의 73%를 차지하는 것이다.

반면에 나머지 9개道の 실업자수는 11만 8천 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7.1%(1만 9천명, 전분기에 비해서는 6.3%(8천명)가 각각 줄었고

실업률도 1.2%로 0.2%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따라 작년 4·4분기중 전국의 실업률은 2.3%로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0.1%포인트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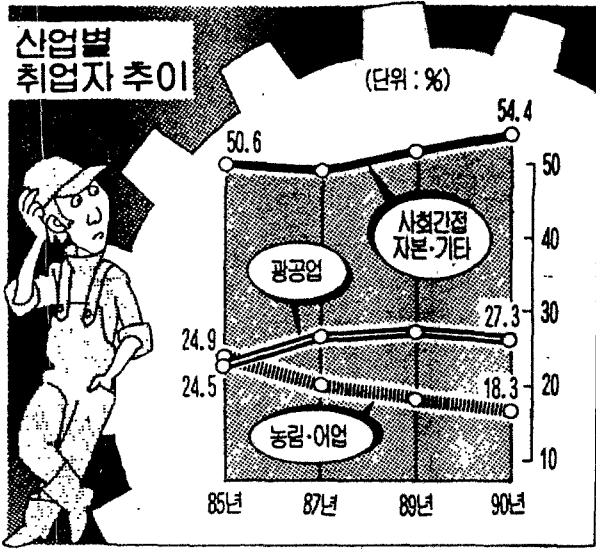
이처럼 6대도시의 실업률이 크게 높아진 것은 작년 4·4분기중 15세 이상 인구가 1천 5백 11만 5천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8%(41만 3천 명) 늘어 9개 도지역의 증가율 0.9%를 크게 웃도는 등 인구유입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실업자수로는 작년 4·4분기에 이들 6대도시의 경우 31만 6천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8.6%(2만 5천명), 전분기에 비해서는 6.4%(1만 9천명)나 늘었는데 전국실업자수의 73%를 차지하는 것이다.

반면에 나머지 9개道の 실업자수는 11만 8천 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7.1%(1만 9천명, 전분기에 비해서는 6.3%(8천명)가 각각 줄었고

실업률도 1.2%로 0.2%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따라 작년 4·4분기중 전국의 실업률은 2.3%로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0.1%포인트 높아졌다.

이처럼 6대도시의 실업률이 크게 높아진 것은 작년 4·4분기중 15세 이상 인구가 1천 5백 11만 5천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8%(41만 3천 명) 늘어 9개 도지역의 증가율 0.9%를 크게 웃도는 등 인구유입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物價 (소비자) 2월에에도 1.4% 급등

두달새 3.5% : 80년 이후 最高 地自制선거로 不安가중

국제유價 하락등 이달부터는 安定 전망도

2월에 소비자물가가 1.4%나 올랐을 때 2개월 동안 3.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 소비자물가는 1.4%로 매달 0.5%가 올랐을 때 2개월 동안 각각 3.5%와 1.2%의 상승률을 보였다.	아직진행중인 선저가 예정되었고 연중후반에 계속된 물가변동의 도를 나타내며 이같이 상승세가 고지속될 우려를 가늠시키 고 있다.	승리기인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공업용유류와 개인서비스요금 조정의 대부분은 3월부터는 안정세를 띠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로 1월(1.0%)보다 0.4%포인트 높았다. 12월(1.0%)과 11월(0.9%) 이후 최고 상승이다.	2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로 1월(1.0%)보다 0.4%포인트 높았다. 12월(1.0%)과 11월(0.9%) 이후 최고 상승이다.	그러나 가파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박한 경계는 2월과 각종 화원비의 폭등으로 내린다는 개인서비스요금의 지난달(1월) 7% 상승(총 1.1%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월에는 2.2%의 상승이 예상된다. 에틸렌 크실렌 플라스틱의 상승은 화학품 원재료의 상승에 따라 가격이 하락해 보았다.
--	---	---	--	---	---	--

그러나 1월의 인플레이션 재원비 상승률(1.0%)은 비료값(18.8~28.9%)의 크게 오른 것을 전체공산품도매가격 상승률이 1월 0.2%에서 2월엔 0.5%로 높아졌고 농산물도매장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로는 2월중 大邱(2%)와 仁川(1.8%)의 소비자물가가 가장 많이 올랐고 全州(0.9%) 春川(1.1%) 등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로 집계 되었다.

물가非常: 波及및대책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2월 한달동안 소비자물가는 1.4% 올라 1월의 2.1%와 합치면 두달동안 무려 3.5%나 올랐 것이다. 2월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보면 지난 8월 8.0% 올랐에 이어 11년 만에 최고치.

특히 이같은 물가오름세는 재조정의 정권이 출범되고 있기 때문. 지난해 12월 28일 채택된 예산(예산장외의 물가상승)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물가상승 정인해 살펴보면 지난 8월엔 이윤과 더불어 인건비 상승이 주된 원인이었지만 지난해 12월엔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개인서비스업이 주역인 것. 1월 1월 2.1% 하달한데 이어 2월엔 또 2.2% 올랐다.

더구나 물가상승은 「재미추구」 물가인 소비자물산물의 크게 올랐고 개인서비스업시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 또한 원인이 「전반부」 「전기」와 서민생활을 직접적으로 위생업, 개인서비스업과 관련이 깊게 올랐다. 전민가계는 전부 주물산이 전진제 수급을 겪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일기물산이던 과학발전업, 화학업, 섬유업, 유업을 타점이 크게 어둡게다 비스·화학·식품·유류업은 한차례도 올랐기 때문이던데 분석했다. 따라서 3월이후엔 물산물수급사정이 해결되고 유류업등은 장년 조정업과 관련 업종에 한해 조정되며 피겨 있다.

정비정권의 장기물산조달과 단기간 물가비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비목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비목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國內요인 앞장... 家計 "주름살" "주름살"

표고과서값 인상률이 반영된 것이다. 해도 소비자물가는 각각 0.25%, 0.04%의 인상요인을 떠안게 되고 있다. 여기에다 이월부터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될 경우 통화증량과 물가불안심리자라는 이 불평해 물가안정요인도 심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賃金상 근본적

3월이후 물산물가적인 정전과도 무리가 있다. 물산물가적인 수급사정이 해결되고 유류업등 구조적 요인등 하등 배합이 이루어져야...

◇2월중 소비자물가 주요변동품목

〈전월대비, 단위 = %, % P〉					
품목	변동률	기여도	품목	변동률	기여도
農産物	2.5	0.47	工業品	0.7	0.19
일반미	2.6	0.22	인삼	12.9	0.02
밀	21.6	0.09	건축	7.1	0.02
파	10.9	0.06	이불	2.4	0.01
치	17.4	0.04	양복	3.6	0.01
추	5.6	0.04	公共料	1.3	0.25

정치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國家의 實力」과 「國家의 經濟」가 發展하는 데 있어서는 國家의 實力이 重要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國家의 實力이 發展하는 데 있어서는 國家의 實力이 重要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國家의 實力이 發展하는 데 있어서는 國家의 實力이 重要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기를 불가안정과 社會經濟의 發展을 阻害하고 있다. 그러나 「國家」가 「안정」과 「발전」을 도모할 때, 國家의 實力이 發展하는 데 있어서는 國家의 實力이 重要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國家의 實力이 發展하는 데 있어서는 國家의 實力이 重要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승역제 큰부담 對策수립 절실

물 수박에 없었다. 농수산물가격이 안정되고 조개산물의 인공적인 저가정책이 수급을 이루기 어렵다. 전라남도 등 전라지방의 농수

정부미주	△4.1	△0.04	버스요율	6.0~7.7	0.18
畜産物	△14.9	△0.03	택시료	4.1	0.03
돼지고기	1.7	0.10	오물수거료	18.1	0.04
돼지고기	2.4	0.04	집	0.6	0.08
쇠고기	1.1	0.03	個人서비스	1.1	0.11
닭고기	3.5	0.02	가정부임	8.3	0.07
水産物	4.1	0.20	재봉료	4.4	0.01
명태	17.2	0.08	음식료	2.8	0.08
등갈	7.3	0.03	입시학원비	△6.1	△0.03
굴	6.0	0.03	주산학원비	△1.4	△0.01
	△2.2	0.00	복합료(성인)	△3.8	△0.02

을 세워 확실히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라남도 등 전라지방의 농수산물가격이 안정되고 조개산물의 인공적인 저가정책이 수급을 이루기 어렵다. 전라남도 등 전라지방의 농수

<國內雜기자>

〈2월중 주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단위:%)

품목	상승률
일반미	2.6
밀감	21.6
파	10.9
시금치	17.4
고추부미	5.6
정돼지고기	▼4.1
닭고기	2.4
명태	3.5
등어	17.2
고등어	7.3
성스리	3.6
버스요금	6.7~7.7
시유	4.1
물수거료	18.1
집세	0.6
가정부담비	8.3
하원	▼6.1
유류	▼3.8
삼리	12.9
쌀	3.2
등	가격하락

라만점에서 「직접생산제품」 판매는 「단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가리지 않는다」.

요즘의 물가 불안 상황이 일

미할수 밖에 없도록 되고 있다. 구호도 「그치지 말고 경제활동 활발한 자체를 애정투신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이 가운데가 불안 물가고 배를 잡고 지키는 데다가,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體質化가 「근원」인 려운農産物·집세등 계속強勢

부품단의 수급불균형이나 특정업체의 가격탄압의사가 아니라 우리경제가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특히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地方의회선거등 3월이후도 伏兵 곳곳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연초부터 물가가 큰폭으로 오르고 있다. 지난 1월 한달동안 소비자물가지수가 2%이상 오른 것이다. 물론 이정도 수치만 가지고도 지수물가로서는 엄청나게 오른 것이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피부물가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물가통계뿐 아니라 각종통계는 어느 정도 현실과 괴리가 있게 마련이지만 그동안 정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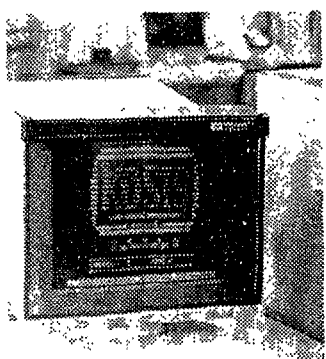
통계청 행정



金漢應
(한국은행조사2부장)

사회통계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그 이유는 경제사회통계가 제반부가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쓰이는 통계로서 정확성과 관성 확보에 더하여 공

작성하는 통계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지수물가와 피부물가간에 괴리가 발생 하는 것은 지수에 대한 이해의 부족 내지는 소비자 의 심리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소비자물가지수는 평균 도시가계 소비자 지출액의 증감도에 따라 선정된 4백11개 품목에 대하여가 중점을 부여하여 측정된



◇통계청은 최근 통계정보 26만항목의 자료를 전산처리

所得·지역·주택형태별 세분화를

경제구조변화의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연도 이후 소비자물가지수가 크게 변화하여 지수물가와 피부물가간의 괴리를 느끼게 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편제기술상의 문제는 모든 국가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며 우리나라는 UN통계국의 권고에 따라 매년마다 기준년을 개편함으로써 미흡하나마 이문

경제구조변화의 속도에 선제와 부분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원적으로 원천해소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다만, 지수내용을 개선하고 다양화함으로써 그 괴리감의 부부적인 해소는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즉, 물가지수를 소트계층별 지역별 주택수용형태별 가구추진연령구입빈도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작성하고 일부 선진국과 같이 주택수용에 따른 비용도 포함시킨다면 소비자 느끼는 피부물가와 지수물가의 차이는 줄어들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경제활동인구조사, 평균연령조사, 소비자물가지수, 장래경제사회통계

의 많은 부분을 정부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정부기관과의 경제



신설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방대한 예산과 전문인력의 소요 등으로 정부

의 의의 기관이 담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물가상승과 함께 지수물가와 피부물가간의 괴리

가 커지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물가간의 괴리

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제를 해결해 보려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지수물가와 피부물가간의 괴리를 줄이고, 내부 및 외부 물가간의 괴리를 줄여

정정되고 있다. 특히

指數 등 개선 11부 물가 차이 줄여

통계청에서는 90년 물가수준을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하면서 앞에서 열거한 방법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90년을 기점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개편된 후에는 지수물가와 피부물가간의 괴리폭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 발표하는 각종 통계자료가 일반국민들 사이에 신뢰성을 잃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정부통계자료에 대한 불신은 결국 정부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올해부터 통계청이 독립기관으로 승격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통계정책의 현황과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본다.

현대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다양한 색의 사회정보를 우리는 숫자라는 통계로 표현함으로써 손쉽게 간판하게 사용하고 있다. 개인이 특수목적으로 사용하는 통계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생산, 사용하겠으나 국가나 사회공

바람직한 방향은

공에 필요한 자료는 국가기관이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업체부터인가 정부에 의

간접자본의 차원에서 정부가 생산, 공급하여 일반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있어서 경제성의 원칙을 전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통계청의 확대 발전과 통계청



(고려종합경제연구소)

金泰源

해 만들어진 자료들을 합계 접합수 없음을 비판하여 공개된 자료도 체계화 되어 있지 못해 이용자들이 이의 재생산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사회정책가, 필요정보는 기초통계자료는 사회

파해서는 안될 사실은 첫째 국가통계 관련기관의 확대개편이 기초자료의 재생산 뿐만 아니라 새로운 통계자료의 생산과 양질의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계청의 인력의 확충과 재교육에도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사각각 변화되는 사회현상에 대한 국가적 정보서비스를 일관인



시스템(KOSIS)을 본격가동, 사용하고 있다. 【權周勳기자】

작성과 공개의 속도성 살려야

전문인력확충·능동적 정보공급도

한편 정부통계자료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신은 결국 정부정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통계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계자료의 작성과정의 완전성과 공개되고 또한 정부의 자의적 작성부문을 최소화 하여 통계청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나아가 통계자료가 오

늘의 의사결정과 내외국의 예측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시의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보의 정확성 못지않게 속도성을 가질 때만 통계자료의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다. 한국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의 정보의 필요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커지게 마련이다. 최소한 정부와 이해생산공급체로서는 통계청이 누구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통계자료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신뢰성을 높여 정부통계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정보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다.

보수적인 서비스를 통해 민간 교육, 연구기관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통계정보를 서비스 하기도 하겠다. 만사지탄 강요되거나 막대한 일이

다만 이와 더불어 간통의 유무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행정정보로 생산, 처리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도 절실히 필요하다. 행정정보의

감시권도 있다는 점에 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

에를 비롯하여 최근 정부에서 작성, 발표되는 지수물가와 일반인들의 과부 로 느끼는 불거와의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생겨나면서 지수물가에 대한 회의

를 가지는 것도 따지고 보면 대중적 의 자의적 부

3~4월景氣 好轉된다

산업생산·製造業가동률 회복反轉 「先行종합지수」前月보다 1%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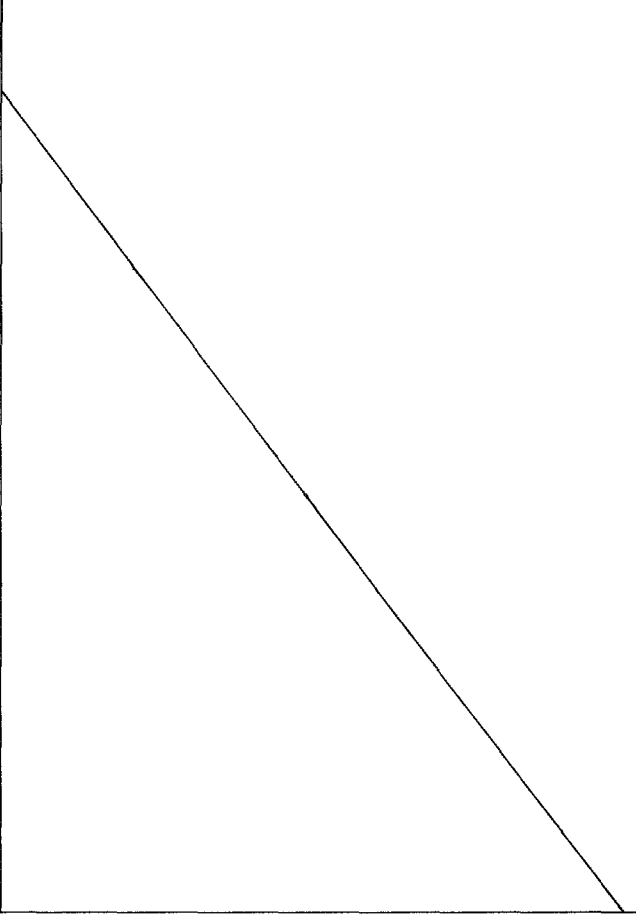
기업체投資도 활기

統計廳 1월동향 제조업 취업자 4만명 늘어

<산업활동 동향> △는 감소(단위:증가율, %)

구분	89年12月	90年1月
산업생산(前月比)	0.3	5.0
출하(〃)	0.2	6.1
제조업 평균가동률	79.3	84.0
도소매 판매(前年同月比)	6.9	8.2
내수용 소비재출하(〃)	13.3	21.8
제조업용 기계수주(〃)	11.0	15.7
제조업용 건설수주(〃)	17.5	19.8
경기선행지수(前月比)	△0.7	1.0
경기선행지수(〃)	△0.2	1.5

산업생산 출하 제조업체 가동률의 일제히 회복세로 돌아서 3~4월에는 국내 경기 호전될 것으로 나타났다. 4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4월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년동월(12월)보다 1%가 상승, 지난해 12월의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1월의 상승세도 마찬가지였다.



1월의 경기선행지수 회복세로 나타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지수도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1월엔 0.9%가 상승, 전반적인 경기호황의 징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집표발달이후 추세를 보였던 내구소비재출하 등의 1월부터는 다시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섰고 기업체의 투자도 계속 활기를 유지, 3~4월에는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졌으므로 전망했다.

1월중 산업생산은 지난해 12월보다 5%, 1년전보다 20.3% 증가에 지난해 12월의 증가율(前月比) 0.3%·1년전비 10.3%를 크게 웃돌았다. 내수증가의 힘의 출하도 12월보다 6.1%, 1년전보다 22.2% 증가했다. 수출차 무산전환기 VTR 전자태인지 등 내구소비재출하도 지난해 1월보다 25.5%가 증가하며 1월의 회복세는 1월의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등 비내구성 소비재출하는 2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기업체용 보면 사차상건물 건축규제에 영향을 받은 기업체가 지난해 12월보다 9만5천명 감소한데 비해 제조업 취업자수는 4만4천명 늘어났고 고용구조도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社說

設備투자 두드러진 1월의 景氣

현재의 景氣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統計廳이 발표하는 경기同行指數순환변동치라는 것이 있다. 현실로 나타나는 경제의 변동속에는 4가지 變因이 들어있다고 보고있는데 추세변동 순환변동 계절변동 불규칙변동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서 순환변동을 바로 경기가 좋고 나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反復순환해서 물결모양을 이룬다. 앞에 말한 4가지 요인 가운데서 나머지 3가지를 統計的 처리를 통하여 제거하면 순환변동만 남는다.

한국경제에서 이 數値는 88년9월의 102.7 이래 지금까지 내리막이 계속되고있다. 작년 12월은 92.7까지 달했다. 2년3개월동안 이렇게 수축과정을 밟은것은 타소 異例的이다. 한국의 평균 경기수축 기간은 16개월 정도인것으로 통계에 나타나고있다.

그런데 올해1월 들어와서 이 동향지수순환변동치가 0.9%의 상승세를 보였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山行을 하는 사람들은 짝아는 일이지만 下山길에도 오르막은 자주 있는 법이어서 이것을 두교 경기회복의 시자이라고 보기는 이룰것이다. 작년 8월과 9월에도 이數値가 올라간 일이 있다. 그러나 그후 계속 다시 떨어졌다.

오히려 업계의 소리는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더욱 나빠져 가고있다는 悲觀이 들릴 정도이다. 절정기에 비하여 판매량 감소가 20~30%에 달한다고 말하는 기업도 많다.

한편 종합경기지수를 별도로 치더라도 희

망적인 통계가 없었던것은 아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서 설비투자 지표를 들수있다. 설비투자 전체뿐만 아니라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국내기계수주가 꾸준히 호조를 보이고있다.

이 두가지 사실을 종합하여보면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고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가들은 기를쓰고 이에서 탈피해 보려고 시설투자를 계속하고있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겠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시설투자호조는 취업희망자들이 제조업을 기피하고 있는것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것이다.

어쨌든 세계경기는 비록 걸프전쟁이 끝났지만 미국과 영국에 뒤따라 유럽대륙도 느린속도로 빠져들고 있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戰後特需가 기대되고는 있지만 세계는 전반적으로 저축不足과 인플레이션위험때문에 심불리 경기부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기과 관련해서도 역시 문제거리는 정부이다. 무슨 案을 세우고 있는지, 비록 案이 있더라도 그것을 집행해낼수 있을것인지 걱정이다. 확고히 햇볕을 치켜들고 불필요한 행정및 금융규제 철폐등 자신있는 信號를 정부가 보낼수 있다면 이미 침체기간은 충분히 오래 되었으므로 이젠 경기회복에 희망을 걸수있을 때도 되었을성 싶다.

市郡 입맛대로 부풀린다

최근 市郡의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제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증가는 지역별 편차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부담이 가미된다

3백만원 가량 부담

지방정부는 인구의 급증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예산 압박을 받고 있다. 이는 지역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방정부는 인구의 급증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예산 압박을 받고 있다. 이는 지역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人口 통계 조작

지방정부는 인구의 급증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예산 압박을 받고 있다. 이는 지역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 호단』 1901. 8월 18일. 1901. 8월 18일. 1901. 8월 18일.

행사신문보판명

춘기도 개선택 필요

나 1901. 8월 18일. 1901. 8월 18일. 1901. 8월 18일.

가 1901. 8월 18일. 1901. 8월 18일. 1901. 8월 18일.

나 1901. 8월 18일. 1901. 8월 18일. 1901. 8월 18일.

다 1901. 8월 18일. 1901. 8월 18일. 1901. 8월 18일.

라 1901. 8월 18일. 1901. 8월 18일. 1901. 8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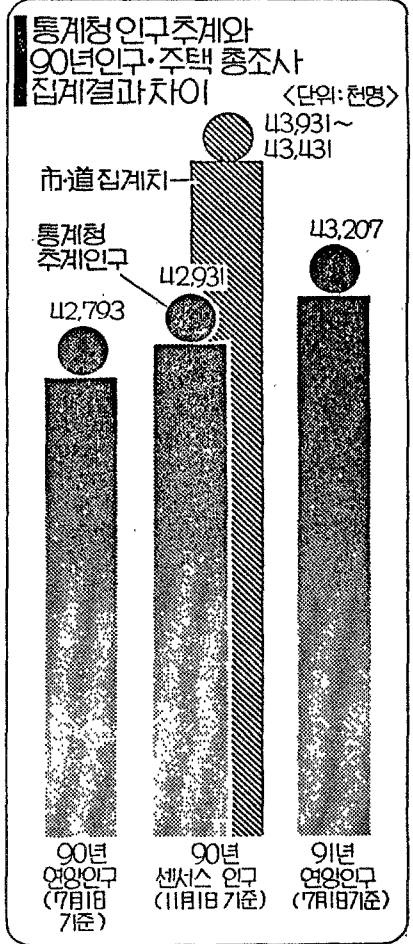
마 1901. 8월 18일. 1901. 8월 18일. 1901. 8월 18일.

바 1901. 8월 18일. 1901. 8월 18일. 1901. 8월 18일.

市營격 노려 예산 타타려 차리 들리려

백 튀긴 인구 통계

일부 市道 90년 인구에 중복계산 推計値보다 50만 1백만명 더 거주



통계청 재확인조사... 90년 센서스 발표 늦춰

우리나라의 기준통계인 구 통계가 조작되었다. 일부 市·도에서 매해 상수인구를 마구 부풀려오다 급기야 50만명의 국가정보로 실시한 인구주택 총조사(센서스)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90년 11월 1일 기준 인구 90,111만 1천 931명으로 실시한 센서스결과를 市·도로부터 받아 집계한 결과 3백36만명(천) 집계했다.

적어도 50만명, 많게는 1백만명 가까이 추계인구를 초과했다.

각 市·도가 보고한 90년 센서스 인구는 통계청이 85년 실시한 인구주택 총조사(센서스)를 토대로 오차한계를 허용해 보완·수정한 인구에 다시 앙양의 출생·사망통계를 고려해 추계한 인구 4천2백93만1천 931명(4천 2백 79만 3천 931명)을 집계했다.

이같은 인구수는 이따를 해 7월 1일 기준 추계인구(연앙인구) 4천 2백 2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센서스는 통상 그 규모나 조사방법상 누락이 생겨 추계치보다 1~2% 정도 인수가 적게 나타나는데 관례적으로 90년 센서스에 대한 유달리 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통계청이 인구를 무조건 인원을 전후에 파격 집계한 관례는 市·도 집

김갑 사후형가조사에 들어 갔으며 당초 3월로 예정했던 잠정인구집계 발표를 4월로 연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현장확인조사에서 통계청의 추계치보다 1.5% 정도 보고된 濟州도의 한 지역은 센서스보고통계가 실제 인구보다 무려 7.2%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市·도 집

계 결과는 추계인구보다 1% 정도가 높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오차한계와 그동안 중복계산되거나 합친다면 총인구는 2%가 넘는 1백만명선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8년 88년 市·도에서 중복계산은 물론 실제에는 없는 유령인구를 인구의 상수인구로 삼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또 88, 89년에 실제보다 훨씬 상수인구를 만든 결과 90년 센서스에서 비슷한 추세로 실제보다 10% 정도 과잉으로 보고함으로써 인구 증가율 또한 86, 90년 사이 통계청 추계 연간인구증가율(0.97%)보다 훨씬 높을(1.5%)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은 이같은 이유로 인구를 불린 지역을 공개 관계자들 문해하며 市·도별로 매해 실시해온 상수인구조사제도를 없애는 대신 통계청에서 固·面·洞에까지 정확한 인구추계를 해 행정기근자료를 쓰게 할 방침이다.

행정기관 人口 통계 조작 의혹

推計値보다 최고百만명 부풀려

市승격·예산증액 등 노려

통안 추계 인구보다 적게 나타나는데 것이 관례인 인구센서스결과가 90년센서스에서만은 추계인구보다 최고 1백만명 가까이 많은 것으로 밝혀져 행정기관의 인구조작 의혹이 짙게 일고 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한 인구센서스결과를 각 시도별로 보고받아 집계한 결과 85년센서스를 토대로 추계한 90년 年中央인구(7월 1일 기준) 4천2백93만명보다 1%이상 초과한 4천3백36만명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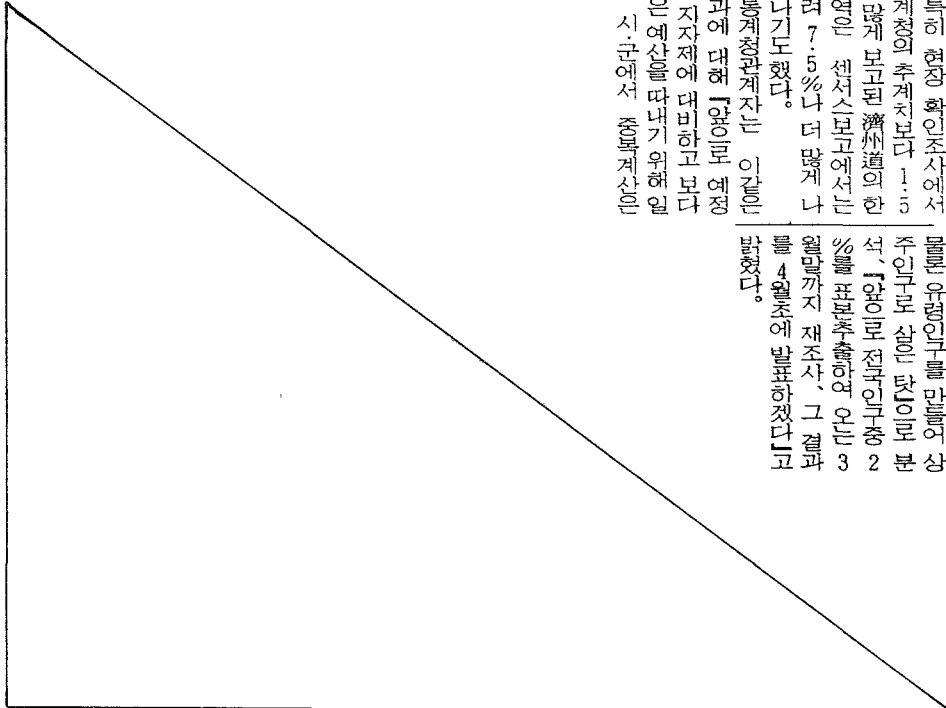
이같은 센서스결과만을 해 7월 1일 기준 추계인구 4천3백20만명보다도 많은 것으로 각 지방행정기관가 예산증액·市승격·지제 확대 등을 노려 「인구부풀리기」의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인구센서스결과를 그 규모나 조사방법상의 기술적 나점 때문에 추계치보다 1~2%정도가 적게 나타나는데 것이 관례였다.

특히 현장 확인조사에서 통계청의 추계치보다 1.5% 많게 보고된 濟州道의 한 지역은 센서스보고에서는 무려 7.5%나 더 많게 나타나기도 했다.

통계청관계자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앞으로 예정된 지자체에 대비하고 보다 많은 예산을 다내기 위해 일선 시·군에서 중부계산의

물론 유령인구를 만들어 상주인구로 삼은 탓으로 분석, 앞으로 전국인구총 2%를 표본추출하여 오는 3월말까지 재조사, 그 결과를 4월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社說

人口 통계의 고의적 조작

국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각종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총선거연도 투표권 제기되었다. ...

이같은 이기적 행정의 후의가 90년 11월 1일 총 선거연도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에서 나타난 ...

한계점을 전제한 통계인 것이다. 1% 이상 떨어진 것은 사적인 조작에 의한 것이다. ...

실제 추계치보다 1.5% 정도 높고된 濟州道의 한 지역에서는 현장 확인 조사 결과 센서스보고서 인구가 실제 인구보다 무려 7.2%나 추 ...

행정단위의 승계, 기구 확대 또는 선거구의 분區劃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전등조사요원을 전국의 파견, 사후평가 조사에 들어간 통계청의 조직은 당연하다. ...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기에 분서 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전의 인구 통계도 그대로 믿기에 어려운 측면이 ...

社說

人口통계 거짓은 나라살림 해친다

작년 11월1일을 기준으로 통계청은 전국 인구주택수조사 실시했다. 이것을 집계하다보니 조사를 담당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도적으로 실제보다 자가지역안의 인구수를 과장해서 조사표에 기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한다. 그 부풀림의 폭을 전국적으로 합하면 50만내지 100만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 많으면 2.4%나 되는 유령인구가 이나라에 더있는것으로 꾸며질뻔했다.

인구통계는 나라살림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인구수란 다름아닌 나라의 食口數이다. 식구숫자를 엄청 틀리게 알고 있고서야 집안살림을 제대로 꾸모있게 꾸려갈수 있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더러 통계라는 것은 공인된 거짓말이라고 하여 그 허구적 일면을 찌르기도 한다.

통계는 수數를 모두 조사한것이라 하더라도 여러가지 원인 때문에 오차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 오차의 期待値는 0이 되도록 통계는 설계되고 실시되어야 하는것이 상식이다. 다시말해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과는 다른 점이 끼여들더라도 이런 오차는 평균하면 그속에서 없어지게 되는 방향을 지향하도록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인구주택센서스는 그렇지 못했던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읍에서 市가 되려고, 또는 예산을 더 받아내려고, 또는 자리수를 늘려 더 많이 채용하고 더 많이 승진도 해보겠다고, 인력으로는 어찌할수 없어 오차가 끼여든것이 아니라 담당자들이 일부러 거짓을 짜서 넣었다는 것이다.

거짓말하는것이 다반사가 된 이 나라에서

그까짓것 가지고 따로是非를 가릴것이 뭐 있느냐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거짓말이 몇사람만의 이익 또는 자가지역만의 이익을 위해 통계에까지 끼여 들었다는 것은 하나의 絶頂이다.

거짓이 가지는 속성기운대는 한가지 거짓은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다른것까지도 거짓으로 만들지 않을수 없게한다는 점과 이렇게 불어난 거짓은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결국 자기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해마다 실시하는 연말 상주인구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짓보고를 꾸며 놓았던지라 그것이 들롱나지 않게 하느라고 5년마다 실시하는 이번의 인구주택전수조사에도 거짓을 얹어넣게 되었다는 것이 이번사건의 顛末이다.

시속100km로 달리고있을때 60km로 달리고 있다고 나타나는 미터기를 보면서 자동차를 볼거나 남쪽으로 가고 있는데 서쪽으로 가고 있는것으로 나타나는 나침반을 보고 항해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止義까지 갈것 없이 道德을, 道德까지도 갈것없이 止直을 집중적으로 추구해야 하겠다. 특히 중앙이나 지방 가릴것 없이 정부가 더욱 그렇다.

통계청도 이번 허물에서 책임을 면할수 없다. 작년 인구센서스는 조사요원에 의한 직접조사가 아닌 동네나 아파트단지의 수위실에 질문서만 들린 서류조사였다는것을 주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런 조사방식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그들 생각에 조금도 심각하지 않은)부풀리기 방향의 거짓말이 常設된 통계적 偏倚로 숨어드는것을 막을 도리가 없을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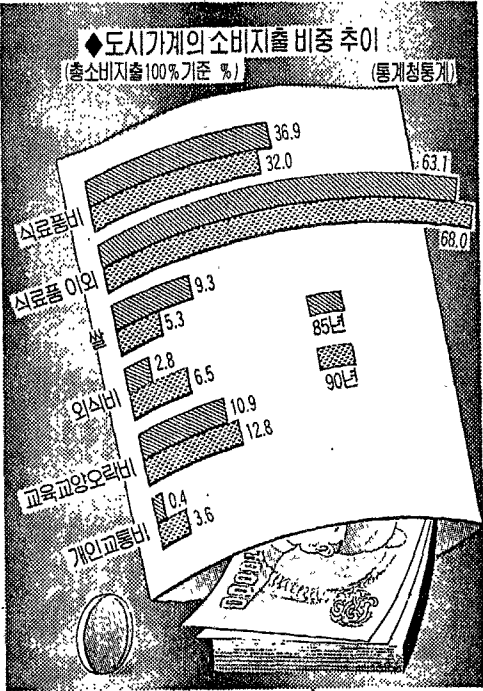


91. 3.20

「통계조작」특별감사

감사원 사실 드러나면 관련자問責

전통적인 80인 80인 인...
 1. 80년대 초반의 80인 80인 인...
 2. 80년대 중반의 80인 80인 인...
 3. 80년대 후반의 80인 80인 인...
 4. 80년대 말의 80인 80인 인...
 5. 80년대 말의 80인 80인 인...
 6. 80년대 말의 80인 80인 인...
 7. 80년대 말의 80인 80인 인...
 8. 80년대 말의 80인 80인 인...
 9. 80년대 말의 80인 80인 인...
 10. 80년대 말의 80인 80인 인...



햄버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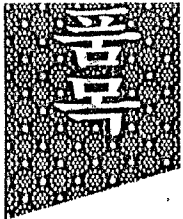
있는데 이는 국민소비패턴의 변화로 전년도 5월의 한달정도는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 중 하나로 조사대상에 포함되고 거의 먹지 않고 쓰지 않았던 품목은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물가조사대상 품목 선정기준은 도시가계에서 특별별 소비지출액이 총소비지출액의 0.0...

「국민消費변천史」物價산정

5년마다 품목 교체
 정보차원의 물가조사는
 지난 36년 京城상업회의소의 서술산매물가조사가 시작됐다. 정부는 그러면 작지만 전도시를 대상으로 로한 본격적인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을 바꾸고
 지수작성은 지난 65년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그러면 작지만 전도시를 대상으로 로한 본격적인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을 바꾸고
 1% 이상이거나 지출비율이 0.01% 이하더라도 앞으로 소비품가가 명백히 예상되는 품목이다. 올해

VCR등 추가, 내년 4백50개 선정

가 바로 5년만에 물가조
사대상을 올리는 시점
은 해인데, 통계청이 순
차 VCR, 전자레인지
발류 바나나, 헬머저 베
컨 등 50여개 품목을 내년부
터 새로 조사대상에 포함
시키고 있다. 양천관공
와 수수살, 쌀살, 불기, 불
10여개 품목은 제외시켜 조
사대상을 늘 수를 4백11개
에서 4백50여개로 다시



물가계이다.
순차로 이뤄질 수 있다.
지출을 늘릴 수 있다.
또, 헬머저와 베이컨 등

- 60년대** 들기름 - 아이스 케이크
- 70년대** 피아노 - 항공료 - 기성복
- 80년대** 케첩 - 위스키 - 도시가스

은 앞으로 명백히 소비증
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각
각 새로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량, 양조
관류 등은 이제 각계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다.
계 통계청 관계자는 설명
이다. 수수살이나 쌀살 등
기름 등도 1년에 1~2차
때 명절때나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출 0.01% 이상
지난 36년 첫조사때의
조사대상을 보면 쌀, 콩, 쇠
고기, 계란, 소금, 설탕, 철주
간장과 당시 주요한 가정
연료였던 숯이 포함돼 있
었다. 지난 65년에는 들기
름, 양배추 수박, 호도고 등
어금, 아이스케이크, 복수임
금 등이 새로 추가됐고, 민

경유 전자 손톱 기계 합판의
전철요금, 키세트 테이프 등
이 각각 추가됐다.

장바구니物價 5점

어 나지 유부 등이 탈락했
다. 70년에는 보리쌀, 당근
고추장, 감말랭이, 피아노
전축, 명장고, 맞출신사복
항공요금, 고속버스요금, 택
시요금 등이 새로 포함됐
다. 경제개발에 따른 소득
향상으로 일반 서민들까지
전축이나 명장고를 구입하
고 고속버스나 택시가 대
중교통수단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대신 그해에는 오랜
서민들의 애용품이던 옛
명주 모시, 은팔찌, 펜촉, 구
두약 등이 소비감소로 대상
에서 빠졌다. 75년에는 맞
출복사대가 사라지면서 기
성복이 새로 포함됐으며
80년에는 신선화면화와 주
거생활개선으로 마요네즈
케첩, 위스키, 컬러TV, 세
탁기가 가스레인지, 도시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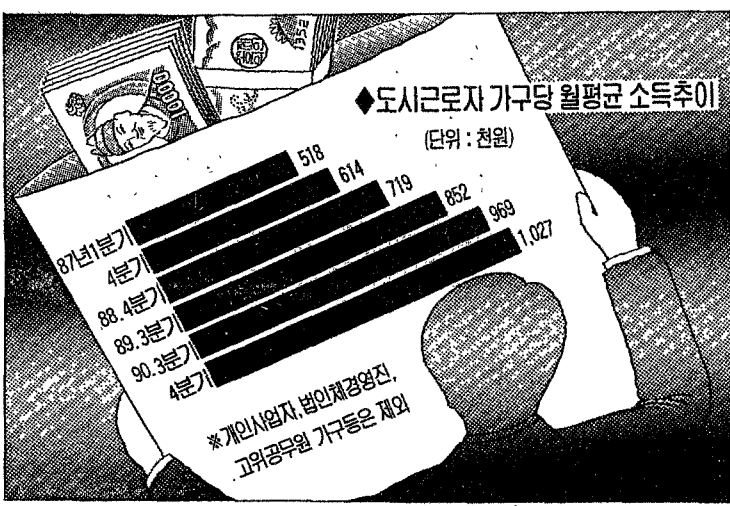


91. 3.20

통계청은 현재의 물가지
수가 피부를 가나지 장바구
니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부에 따라
내년부터 채소 생산물, 신
선식품을 제외한 물가지수
와 구입빈도별 물가지수,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가구
주거임대 물가지수 등도 세
로 만들며 발표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金光顯 기자)

도시가구월소득 백만원 돌파

작년 4분기 物價高로 「엔겔계수」 다시 늘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넘어섰다. 또 그동안 소득이 처음으로 1백만 안감소득세를 보이던 시

이름가압등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은 21일 작년 4분기(10~12월) 중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백2만7천3백원으로 전분기보다 6%, 1년전보다 16.4%가 각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연간소득자율(소득을 9.2%를 감안한 실질소득은 6.6%가 증가한 것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란 도시 거주하는 가구주가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봉급·임금·수당 등을 받아 생활을 꾸려가는 가구로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영진, 고위공무원가구등은 제외된다.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은 지난 87년 1분기 중(1~3월)에 51만8천원으로 50만원선을 돌파한 적

이 있는데 4년도 되지 않아 다시 1백만원선을 넘은 것이다. 통계청은 작년 1년 동안 명목소득이 16.4%나 증가한 것은 임금상승 및 가구의 취업증가로 가구당 평균근로소득이 18.5%나 늘어났는데 기타소득도 5.4%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4분기 중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가계 지출은 교제비 및 잡비(24.2%), 자녀교육비(27.6%), 외식비(15.2%) 등이 특히 크게 증가한데 따라 79만8천원을 기록, 1년전보다 12.6%(실질 3.1%)가 늘어났다.

가계지출중 가구가 사용품(0.9%)과 광열수도비(7.6%)는 낮은 증가를 보인 반면 기타소비지출(23.1%), 식료품(16.6%), 주거비(15.9%) 등은 높은 증가를 보였다.

社說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이 절감된면에서 크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한 것이 나타나고 있다.

물가상승이 발발한 것은 4.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이 1.1% 감소한 반면 1.4분기에는 1.1% 증가한 것을 보면 1.4분기보다 0.9%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이 발발한 것은 4.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이 1.1% 감소한 반면 1.4분기에는 1.1% 증가한 것을 보면 1.4분기보다 0.9%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이 발발한 것은 4.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이 1.1% 감소한 반면 1.4분기에는 1.1% 증가한 것을 보면 1.4분기보다 0.9%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

물가상승이 발발한 것은 4.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이 1.1% 감소한 반면 1.4분기에는 1.1% 증가한 것을 보면 1.4분기보다 0.9%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家計收支의 전진화

의 상승을 반영한 것이므로 크게 높았다.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이 33.8% 증가한 반면 물가상승이 33.2% 증가한 것을 보면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이 0.6%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이 33.8% 증가한 반면 물가상승이 33.2% 증가한 것을 보면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이 0.6%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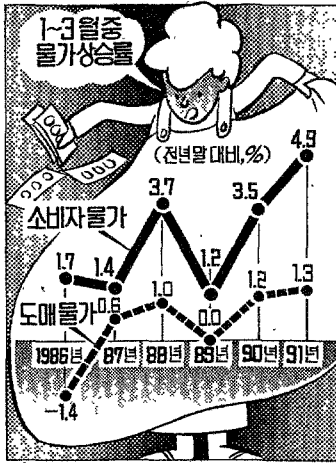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이 33.8% 증가한 반면 물가상승이 33.2% 증가한 것을 보면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이 0.6%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이 33.8% 증가한 반면 물가상승이 33.2% 증가한 것을 보면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이 0.6%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이 33.8% 증가한 반면 물가상승이 33.2% 증가한 것을 보면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이 0.6%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이 33.8% 증가한 반면 물가상승이 33.2% 증가한 것을 보면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이 0.6%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이 33.8% 증가한 반면 물가상승이 33.2% 증가한 것을 보면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이 0.6%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가파른 물가오름세가 3월에도 수그러들지않아 가격이 또들리는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있다. 30일 경제기획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3월중 소비자

3월 물價 (소비자) 1.3% 올라

公共料·농수산물 주도...올들어 4.9%

자물가와 도매물가는 지난 달에 비해 각각 1.3%, 0.1%가 올랐고 작년달에 비해서는 각각 4.9%, 1.3%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연말 소비자를 겨냥한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8.9%로 가오름세를 억제할 방침이다. 3월중에도 물가가 이처럼 크게 오를것은 2월달의 교통유류비인상, 신학기 대학등록금인상, 공무원급과 농수산물별 개인서비스 요금의 많이 상승했기 때문인데, 특히 공공요금은 평균 4%가 올라 물가상승세를 주도했다.

또 본격적인 공사철을 맞아 목수인건임금 인상도 5.5~8.8% 올랐고 유치원비도 10.7%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미의발출 확대도 불구하고 쌀의 소비자가격은 계속 오름세를 보였고 과일·채소류장도 강세를 유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아침陳檢기회의차관 주재로 판계부처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및 집세오름세를 잡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비료가격을 인하, 인강하지 않거나 한편에틸렌 등 나프타유분 및 합성수지가격을 4월중 인하키로 했다.

집세안정을 위해 서울을 7대도시의에 城南·安山·廣川 등 3개도시를 집중점검대상에 추가, 집세및 상가임대료동향을 이들 간격으로 조사하고 가수요조집이 보이는 지역에는 특가투기단속반을 투입키로 했다.

공급부족으로 값이 오르는 농수산물에는 특각수임으로 대처하고 국제원자재값이 내리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부칙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2/4분기 보도기사

(4월~6월)

여 백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통계청으로 승격된지 6일째 1백일을 맞았다.

우리나라 통계업무를 총괄 해온 조사통계국은 48년 정부수립 이후 공보처·내무부·경제기획원 등에 소속돼 방대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서자 취급을 받아온게 사실이다. 그러



△閔泰亨청장

나 이제는 영원한 정부조직법상 독립기구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경제기획원의 1개국 수준에서 廳단위로 격상됐다고 해서 업무내용이나 기능이 크게 달라진것은 아니다. 통계 전문인력이 대거 보강된것도 아니고 예산이 늘어

나지도 않았다. 어찌보면 단판만 바뀌 단상대에서 통계청시대를 맞이했다고도 볼수 있다.

統計廳 출범 1백일

그만큼 통계기능의 강화 문제는 항상 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려 진전을 보지 못했다. 아직까지는 통계청이 국민의 통계에 대한 방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는 여부 즉 이라는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발족으로 통계의 역할에 대한 정부 및 일반국민의 의식이 크게 높아진 것은 분명하다. 통계청이 자료의 대량생산에서 탈피, 「통계의 질을 높이는 데 최 대한 노력을 두겠다는 것도 이러한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이다.

閔泰亨청장의 이와 관련,

「통계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정보」로서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정확한 통계를 생산

해야 함은 물론 경제협상의 변화를 제대로 꿰뚫을 수 있는 통계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통계청이 이와따라 올해안으로 수요, 공급, 물가, 금융, 국제수지, 소득, 생산, 고용 등 8개 경제부문별 예측모델을 개발, 이를 통해 통계의 유용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통계청이 앞으로 국민생활의 질에 관련된 자료생산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통계청은 이와따라 대기, 도양·수질·염분, 소음·진동 등에 대해서도 통계를 만들어 내고 현재 보사부 등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통계도 계속 개발할 방침이다.

국민 종합情報창구 역할 기대

자료 質 향상·서비스 확대에 주력

이와 함께 소비자들과 밀접 지지수출방식도 경제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수 있도록 개편하고, 장기적으로 종합수산물·보사부 등으로 나눠있는 통계창구의 일원화도 추진중이다.

각종 통계를 일반국민들에게 손쉽게 제공하자는 것도 통계청이 안고 있는 중요한 임무이다. 국가의 모든 통계는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지난달부터가 등에 들어간 통계정보시스템이 바로 그것. 앞으로는 누구나도 정부가 작성한 통계를 이용할수 있게 됐다.

閔청장은 「통계청의 설립목적은 정확한 통계자료의 산출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자료이용의 확대에도 있다」면서 「국민 모두가 통계의 혜택을 보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힌다.

이같은 업무의 수행은 기구의 팽창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업무를 감당할 전문인력이 확보돼야 한다. 또 통계전문가로서 보합을 느낄수 있는 토양의 마련도 중요하다.

기구팽창에 따른 예산의 낭비는 물론 「저질통계」 조작성에 의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민 모두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때이다.

△孫顯德기자

89년 도시가계지출의 4.7%

물품은 전이들이 아인한이
이 활발해지면서 여가를 즐
기는데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여가 소비의 증가가 늘어나
고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또 전이들이 전이들이 전이
아지면서 점차 변화가 있다.
사람들이 가전제품, 자동차
여유있는 여가를 즐기고 있
고 있지만 전이들이 전이들
전이들이 전이들이 전이들

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성
장에 따른 소득증가의 힘입
어 여행·스포츠·영화관람
에 쓰이는 레저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절대
의수가 늘면 소비지출액 차
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
다. <그림 참조>
우리나라에 전이들이 전이
들이 전이들이 전이들이

늘어나는 레저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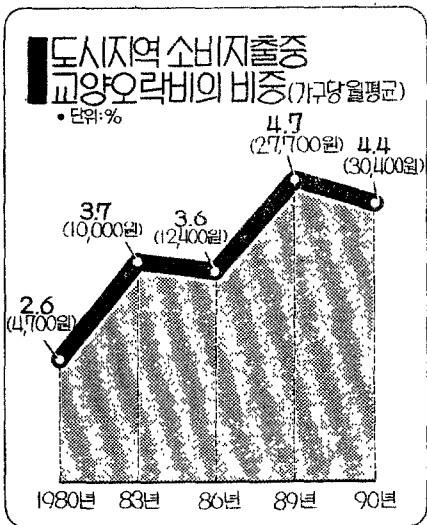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
서 통계청에서 매달 실시하
는 도시가계조사에 관광·오
락비 지출과 이것이 소비지
출액 차지하는 비율은 대강
의 추세를 가늠할 수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소비지출
중 관광·오락비가 차지하는 비
율은 81년의 3%대로 전이
했다.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88년 3.9%에서
89년의 4.7%로 정중
되었다.

물품은 전이들이 아인한이
이 활발해지면서 여가를 즐
기는데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여가 소비의 증가가 늘어나
고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또 전이들이 전이들이 전이
아지면서 점차 변화가 있다.
사람들이 가전제품, 자동차
여유있는 여가를 즐기고 있
고 있지만 전이들이 전이들
전이들이 전이들이 전이들

統計

이야기

農家에선 0.9% 불과... 都農격차 심해



또 도시가계의 평균·아파트
지출은 전이들이 전이들이 전이
나기 때문에 전이들이 전이들이
가득한 전이들이 전이들이 전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전이들이 전이들이 전이
다. 전이들이 전이들이 전이들이
전이들이 전이들이 전이들이 전이
전이들이 전이들이 전이들이 전이

전이들이 전이들이 전이들이 전이
전이들이 전이들이 전이들이 전이
전이들이 전이들이 전이들이 전이
전이들이 전이들이 전이들이 전이

전이들이 전이들이 전이들이 전이
전이들이 전이들이 전이들이 전이
전이들이 전이들이 전이들이 전이
전이들이 전이들이 전이들이 전이

總人口 4,352만199명

42.7% 수도권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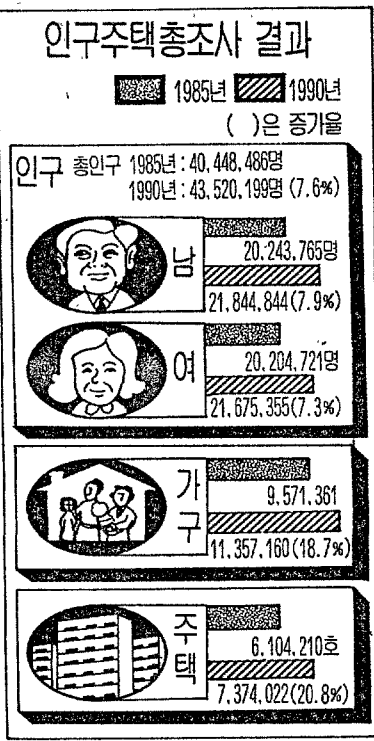
정무 90 인구·주택조사 발표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작
년 11월 1일 현재 4천3백
52만 1천99명으로 집계됐

다. 이는 85년에 비해 3백
7만 2천명(7.6%)이 늘
어난 것으로 지난해 연간
인구증가율은 0.93%로
낮아졌다.

또 전국가구수는 1천1
백35만7천가구로 85년 대
비 18.7% 증가했고 주택
은 7백37만4천호로 평균
집 2채에 3가구꼴로 거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5년새 7.6% 증가 先進國 "鐘型" 2021년 GDP비율 하락 예상



특히 전국인구의 42.7%
가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몰려 수도권인구집중현상
이 가속되고 있으며 출생
률이 둔화되면서 인구구조
는 후진국형인 피라미드형
에서 선진국형인鐘型으로
로 바뀌고 있다.

통계청은 작년 11월 1일
부터 10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 센서스를 토대로 12
일 일간조사 내용의 '90년 인
구주택총조사결과및인구
추계를 발표했다. 통계청
은 그러나 인구조사 때 발생
하는 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4천2백99만8천명이
며 작년 7월 1일 기준 4천
인구는 4천2백86만9천
명이라고 밝혔다.

수도인구는 서울이 85년
대비 10.3% 증가한 1천62
만8천명으로 가장 많고 다
음이 경기(6백15만4천
명) 부산(3백70만8천명)
경남(3백68만명) 경북(2
백86만6천명) 전남(2백
52만3천명) 대구(2백22
만9천명) 전북(2백7만
명) 충남(2백2만8천명)
인천(1백91만8천명) 강
원(1백55만2천명) 충북
(1백41만4천명) 광주(1
백14만5천명) 대전(1백

2010년 "新婦감별따기"

현재 국교생 43만명 장가들기 힘들다

현재 국민학교에 다니는
남자의 약 30% 정도는 결
혼절망기가 돼도 신부감이
없어 장가를 못들 것으로
보인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90
년 인구주택총조사 잠정결
계에 따르면 결혼절망기간
25~29세 남자와 20~24세
여자의 인구는 비혼과 과거 여
자 비율의 높은 女權현상의
서지인 85년의 남녀비율
고비로그 이후 남자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결혼절망
기간 비율이 10.47대
100으로 남자가 여자보
다 4.7%(9만8천명) 많
았으며 이는 2000년에
는 남성이 더 많아 별의저
남자가 여자보다 19.4%나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금 국민학교에 다
니는 남자의 6~10세
들이 훗날의 이혼과 이혼
2010년의 경우 결혼절망
기간 비율이 1.94대 1
이 되는 반면 여자는 1백
51만3천명에 불과해 남자
가 여자보다 무려 28.6%
(43만3천명)나 많아지게
된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 어린
이들의 남녀비율은 5:9
세가 107:1, 4세가 1
127:3, 3세 107:5, 2
세 111:8, 1세 113:
5, 0세 114:7 등으로
자연현상이라고 내리갈수록
기합이 두드러지고 있다.

성비와 국이 두드러지게 나
타고 있다.

이처럼 남녀성비가 깨지
는 것은 최근 남자들이 가
려남기 등 女權현상이
극심해지고 있으며 심지어
여아를 임신했을 경우 인공
유산까지 하는 등 자노출산
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때
문이다. 남노성비가 왜곡
됨에 따라 결혼희망수가 변화
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
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인구수는 유년 20
21년과 가서 5천58만6
천명으로 전 연령대의 인구가
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2000년 장가가기 어려워진다

男子女보다 19.4% 많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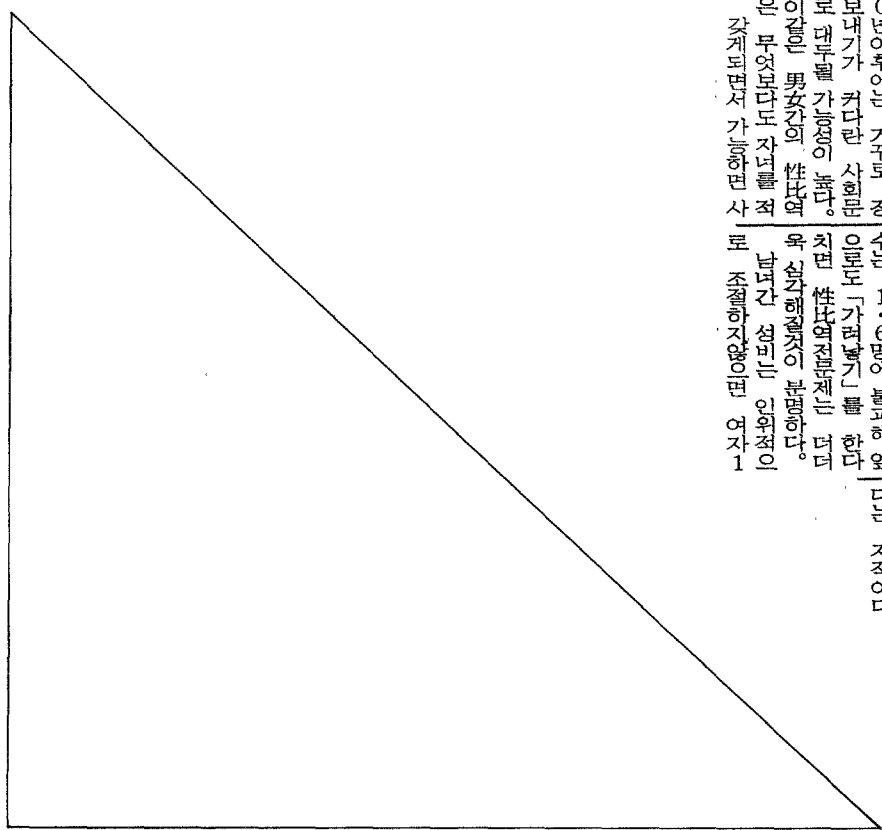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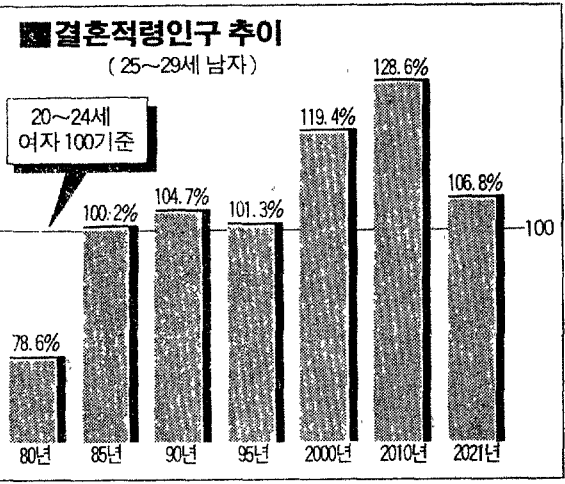
「가려내기」로 深化추세

性차별 관습·제도 개선 시급

사내아이를 더 원한다. 부
 린간은 종종 때때로 이대로
 가다가 여자 기근이 생긴
 지경이 됐다.
 통계청의 인구조사결과
 에 따르면 90년의 성비(남
 여자 1백명당 남자 1백·
 8명(조정치 1백1·3명)
 으로 균형상태다.
 문제는 여성의 노동수요
 성비가 높아진다는 데 있다.
 86~90년의 태어난 아이
 (0~4세)가 여자 1백명
 당 남자 1백12명뿐이며 ▲5

계산이다.
 지난 80년에는 여자 1백
 명당 남자가 78·6명밖에
 과해 여자의 婚聘비용등대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
 래했었음을 생각하면 20
 00년 이후에는 기구로 장
 가보내기가 커다란 사회적
 제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男女간의 性比의
 점근 무었보다도 자녀를 적
 게 갖게되면서 가중하면 사

내이를 가지겠다는 의식
 과 이를 위한 그릇된 노
 려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
 이다.
 90년에 우리나라의 여성
 한사람이 평생 남의 자녀
 수는 1·6명의 불과해왔
 으므로 「가려내기」를 한다
 치면 性比의 歪曲은 더욱 심
 육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
 남간 성비가 100이상이면
 조종하지 않으면 여자 1



人口43% 首都圈 집중

인구·주택조사 5년새 17.6% 증가

◇市·道別 人口 추이
<단위=천명, %>

구 분	85년	90년	증 감(율)
全 國	40,448	43,520	3,072(7.6)
6 大 道 市	18,343	20,680	2,337(12.7)
서 釜 大 仁 光 大	9,639	10,628	989(10.3)
울 山 邱 川 州 田	3,515	3,798	283(8.1)
	2,030	2,229	199(9.8)
	1,387	1,818	431(31.1)
	906	1,145	239(26.4)
	866	1,062	196(22.6)
9 개 도	22,105	22,840	735(3.3)
京 江 忠 全 慶 慶 濟	4,794	6,154	1,360(28.4)
畿 原 北 南 北 南 州	1,725	1,592	△133(△7.7)
	1,391	1,414	23(1.7)
	1,135	1,028	△107(△9.4)
	2,202	2,070	△132(△6.0)
	2,842	2,523	△320(△11.3)
	3,011	2,866	△145(△4.8)
	517	680	163(31.5)
	488	514	26(5.3)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작년 11월 1일 현재 4천3백52만 1천99명으로 지난 85년 이후 5년동안 3백7만 2천명(7.6%)이 증가했으며 신규인구증가수의 90.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울·仁川·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가구중 1가구 無주택 脫農가속...郡가구 11% 줄어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9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및 인구추계'에 따르면 인구증가율은 75년 10.3% 85년 8.0%에서 이번에는 7.6%로 점차 둔화돼 오는 2천21년에는 5천58만 6천명에서 인구증가율이 정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같은 우리나라 총인구는 에티오피아의 4천6백74만명에 이어 세계 23위이며, 1인당 인구는 4백32명으로 발라라데시(8백3명), 臺灣(5백39명)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7.6% 증가한 가운데 서울이 처음으로 1천만명을 넘어섰고, 全南 등 5개 도는 인구가 줄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2천2백83만 4천명, 여자가 2천

이외파라 수도권권 인구집중도는 85년 39.1%에서 42.7%로 높아졌다. 또 전국 평균가구는 1천1백35만 7천37만 4천가구에 비해 18.7%가 늘었는데 고주택은 7백37만 4천가구로 20.8%가 늘었지만 3가구중 1가구꼴로 무주택가구가 11%로 밝혀졌다.

1백66만 6천명으로 남자 여자를 보아 1백16만 8천명 많았으나 최근 男兒선호 때문에 오는 2천년에는 男자가 女보다 19.4%나 많고 2천10년에는 28.6%나 많게 돼 결혼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그러나 大學진학 연령층(18~21세)은 올해 3백65만명을 정점으로 오는 95년에는 3백25만명으로 점차 감소, 대학입시지옥 현상이 차츰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전국의 총가구는 1천1백35만 7천가구가 중 市 지역이 8백46만 6천가구로 33.7% 증가한 반면 郡 지역은 2백89만 1천가구로 10.8% 감소, 脫農 현상이 두드러졌다. 85년 가구당 인구는 3.8명으로 4.2명에서 3.8명으로 감소, 핵가족화와 함께 1가

구 2자녀 미만 현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총주택은 7백37만 4천가구로 5년간 20.8%가 증가한 가운데 △단독주택 4백89만 가구 △아파트 1백67만 가구 △연립주택 49만 9천가구의 順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아파트는 85년에 비해 1백3.3%나 늘어난 1백67만가구로 단독주택보다 4.5배나 많은 아파트가 건립됐다.

49만 9천가구의 順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아파트는 85년에 비해 1백3.3%나 늘어난 1백67만가구로 단독주택보다 4.5배나 많은 아파트가 건립됐다.

90년 인구주택 총조사 분석

90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의 인구구조가 「하아리핀」의 선진국구조로 완전히 자리잡아간을 보여주고 있다. 자녀를 적게 낳는 경향이 정착되면서 14세이하인구는 전년반면 65세이상 노령인구는 갈수록 늘 전망이다. 또 여전한 수도권인구집중문제, 인구증가율을 2배이상 웃도는 인구증가율, 학교의 다급 연평층의 구집소들도 앞으로의 적절한 정책 대응을 요구하는 부분들이다.

◇총인구 = 전국인구 90년 4월 1일 현재인구 4억 1천 3백 4십 만 명으로 87년 8월 1일 현재인구 3억 9천 1백 6십 4천 명에 비해 2억 1천 7백 8십 7천 명이 증가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은 1990년 1월 1일 현재인구 1,190만 명으로 87년 1월 1일 현재인구 1,150만 명에 비해 40만 명이 증가했다. 서울 인구가 증가한 데는 서울의 인구가 4백 5십 8만 명으로 87년 1월 1일 현재인구 4백 2십 8만 명에 비해 30만 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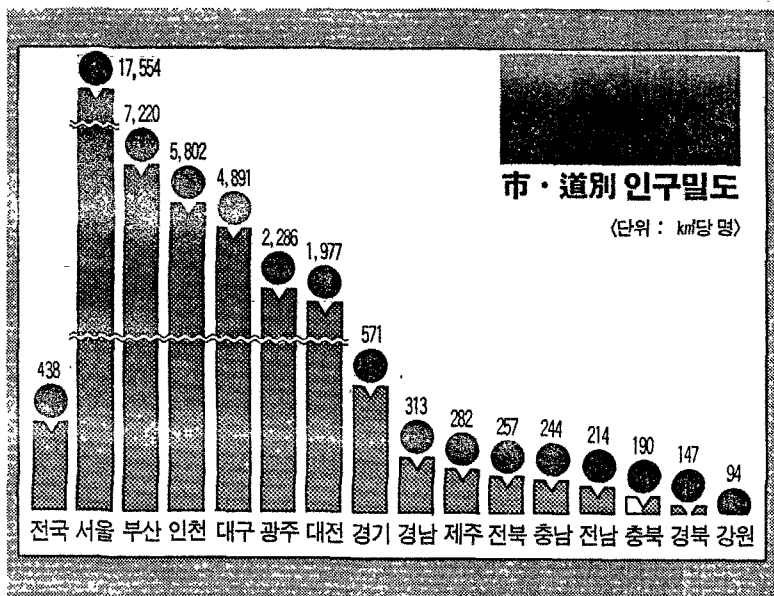
서울 인구의 증가율은 2.6%로 87년 1월 1일 현재인구 1,150만 명에 비해 1.1%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인구의 증가율은 2.6%로 87년 1월 1일 현재인구 1,150만 명에 비해 1.1%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 인구증가율은 서울이 2.6%, 부산이 1.8%, 대구가 1.5%, 대전이 1.2%, 광주가 1.0%, 울산이 0.8%, 대전이 0.5%, 충청도가 0.3%, 경상도가 0.1%로 나타났다.

화생총 감소폭 좁아진다

90년 인구는 4억 1,344만 명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이는 1987년 1.1% 증가율을 웃도는 것이다. 서울 인구는 1,19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서울 인구의 증가율은 3.4%로 87년 2.6%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인구의 증가율은 3.4%로 87년 2.6%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가족계획효과 인구증가율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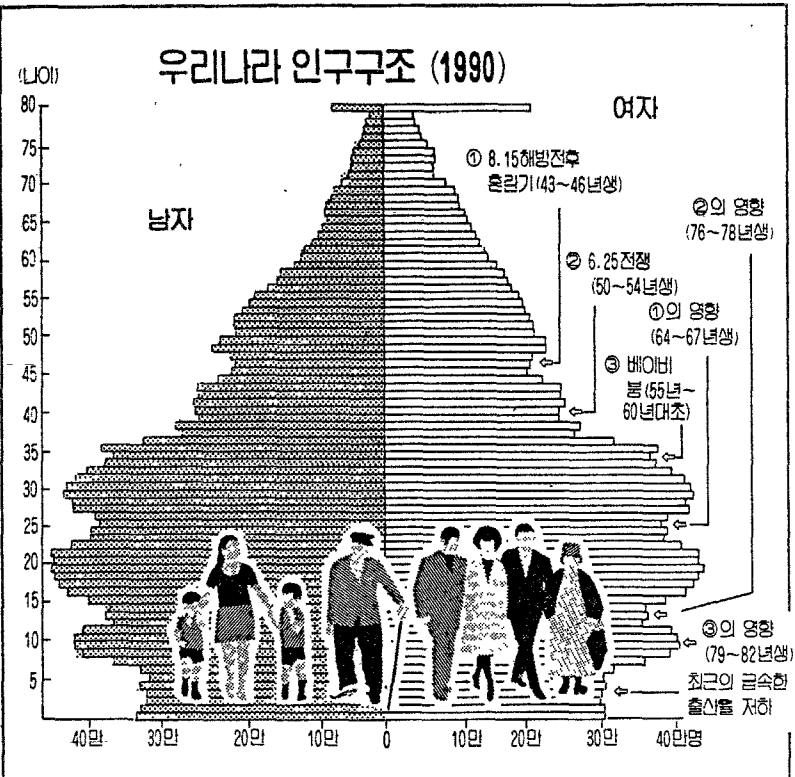


90년 인구·주택센서스내역

우리나라 인구는 1980년 3천 4백만 명에 불과했으나 1990년 4천 869만 5천 292명으로 14.5% 증가했다.

남자 인구는 2천 292만 1천 178명으로 14.3% 증가했고, 여자는 2천 597만 314명으로 14.7% 증가했다. 인구의 50%가 15세 이하로, 15~64세 인구는 1천 193만 408명으로 24.5% 증가했다.

인구의 15%가 65세 이상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729만 985명으로 21.5% 증가했다. 특히 75세 이상 인구는 193만 985명으로 31.5% 증가했다. 인구의 10%가 15세 이하로, 15세 이하 인구는 486만 985명으로 14.5% 증가했다.



◇주요인구지표 (1990)

구분	대한민국	세계	선진국	개도국
총인구(천명)	42,869	5,292,178	1,205,193	4,086,985
출생률(천명/1천명)	15.6	26.7	14.3	30.4
사망률(천명/1천명)	5.8	9.6	9.7	9.6
이전(천명/1천명)	0.5	—	—	—
인구밀도(명/1km ²)	432	39	21	52
합계(명/1천명)	1.63	3.37	1.90	3.81

우리나라 인구는 1980년 3천 4백만 명에 불과했으나 1990년 4천 869만 5천 292명으로 14.5% 증가했다. 인구의 50%가 15세 이하로, 15~64세 인구는 1천 193만 408명으로 24.5% 증가했다. 인구의 15%가 65세 이상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729만 985명으로 21.5% 증가했다. 특히 75세 이상 인구는 193만 985명으로 31.5% 증가했다. 인구의 10%가 15세 이하로, 15세 이하 인구는 486만 985명으로 14.5%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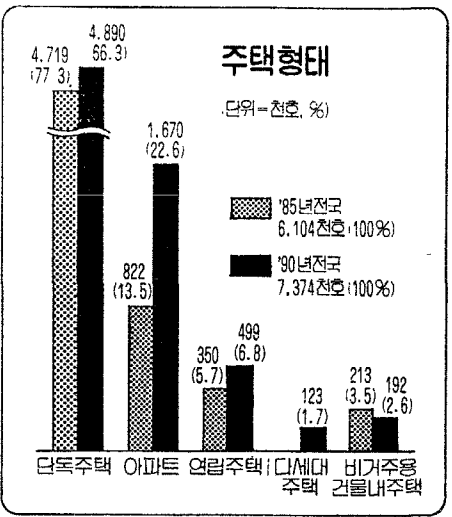
「해가죽」加速1가

1990년 인구·주택센서스내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1980년 3천 4백만 명에 불과했으나 1990년 4천 869만 5천 292명으로 14.5% 증가했다. 인구의 50%가 15세 이하로, 15~64세 인구는 1천 193만 408명으로 24.5% 증가했다. 인구의 15%가 65세 이상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729만 985명으로 21.5% 증가했다. 특히 75세 이상 인구는 193만 985명으로 31.5% 증가했다. 인구의 10%가 15세 이하로, 15세 이하 인구는 486만 985명으로 14.5% 증가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1980년 3천 4백만 명에 불과했으나 1990년 4천 869만 5천 292명으로 14.5% 증가했다. 인구의 50%가 15세 이하로, 15~64세 인구는 1천 193만 408명으로 24.5% 증가했다. 인구의 15%가 65세 이상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729만 985명으로 21.5% 증가했다. 특히 75세 이상 인구는 193만 985명으로 31.5% 증가했다. 인구의 10%가 15세 이하로, 15세 이하 인구는 486만 985명으로 14.5% 증가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1980년 3천 4백만 명에 불과했으나 1990년 4천 869만 5천 292명으로 14.5% 증가했다. 인구의 50%가 15세 이하로, 15~64세 인구는 1천 193만 408명으로 24.5% 증가했다. 인구의 15%가 65세 이상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729만 985명으로 21.5% 증가했다. 특히 75세 이상 인구는 193만 985명으로 31.5% 증가했다. 인구의 10%가 15세 이하로, 15세 이하 인구는 486만 985명으로 14.5% 증가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1980년 3천 4백만 명에 불과했으나 1990년 4천 869만 5천 292명으로 14.5% 증가했다. 인구의 50%가 15세 이하로, 15~64세 인구는 1천 193만 408명으로 24.5% 증가했다. 인구의 15%가 65세 이상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729만 985명으로 21.5% 증가했다. 특히 75세 이상 인구는 193만 985명으로 31.5% 증가했다. 인구의 10%가 15세 이하로, 15세 이하 인구는 486만 985명으로 14.5% 증가했다.



주거 3.8평

7평에서 9평으로 1.6배 증가하며, 아파트도 1.6배 증가했다. 특히 아파트는 1.6배 증가했다.

연립주택은 1.4배 증가했다. 다세대주택은 1.7배 증가했다. 빌라내주택은 1.0배 증가했다.

주택형태	'85년전국 (천호, %)	'90년전국 (천호, %)
단독주택	4,719 (77.3)	4,890 (66.3)
아파트	822 (13.5)	1,670 (22.6)
연립주택	350 (5.7)	499 (6.8)
다세대주택	123 (1.7)	213 (3.5)
빌라내주택	192 (2.6)	192 (2.6)

또 아파트가 1.6배 증가한 것보다 (0.4%)의 두 배를 웃돌고 있어, 후진국 (2.8%)의 비핵심국에 준하는 수준이다.

한편 아파트는 1.6배 증가한 것보다 (0.4%)의 두 배를 웃돌고 있어, 후진국 (2.8%)의 비핵심국에 준하는 수준이다.

연립주택은 1.4배 증가했다. 다세대주택은 1.7배 증가했다. 빌라내주택은 1.0배 증가했다.

人口구조 「항아리型」 변모

性比 갈수록 커져 20년 뒤 남자가 1.28배
아파트 5년새 2 배로 늘어 전체의 22%

로 폭이 나타났다. 80년대의 78.6%에서 90년대의 84.7%로 증가했다. 특히 아파트는 1.6배 증가했다. 특히 아파트는 1.6배 증가했다.

백 28.6%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20년 후의 10명 중 3명이 아파트에 살아가게 될 전망이다. 특히 아파트는 1.6배 증가했다.

이와 함께 90년대의 84.7%로 증가했다. 특히 아파트는 1.6배 증가했다. 특히 아파트는 1.6배 증가했다.

한편 아파트는 1.6배 증가했다. 특히 아파트는 1.6배 증가했다. 특히 아파트는 1.6배 증가했다.

연립주택은 1.4배 증가했다. 다세대주택은 1.7배 증가했다. 빌라내주택은 1.0배 증가했다.

인구 流動性 증가... 52만명 誤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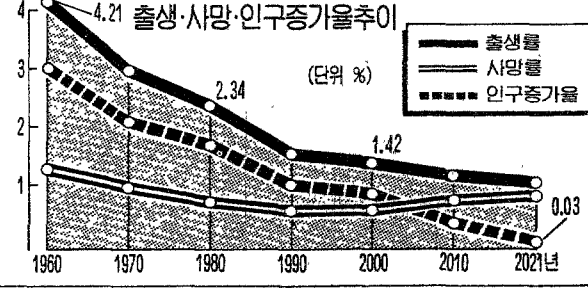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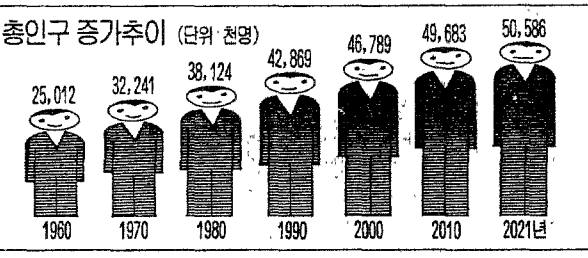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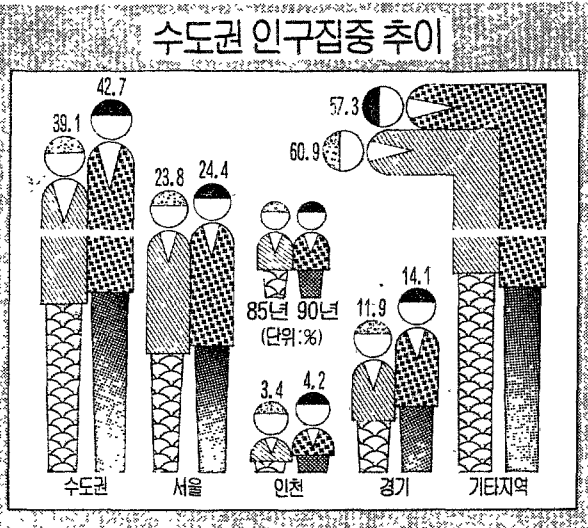
90년 人口 통계 偏差의 특징

인구·주택 총조사란 일정한 지역의 인구를 비롯 각 구·시·군의 관할의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이다. 그러나 서울·수도권 등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인구가 과다하여 조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인구가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인구가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추정인구, 센서스보다 1.2% 적어
 서울·수도권 등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인구가 과다하여 조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인구가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인구가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추정인구, 센서스보다 1.2% 적어
 서울·수도권 등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인구가 과다하여 조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인구가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인구가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추정인구, 센서스보다 1.2% 적어
 서울·수도권 등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인구가 과다하여 조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인구가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인구가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自計式조사법」 채택... 非거주자 算入 가능성 인정 市승격·예산增額 겨냥, 의도적 부풀리기 경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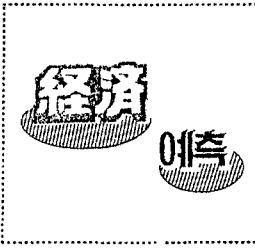
이처럼 행정자치부의 의향상 주민조사 방법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주민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행정자치부의 예산을 늘리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구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주민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구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구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주민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구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주민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구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고 과잉 출산율이 1.6 이상에 달하였다. 그러나 도시인구집중 완화와 여자의 불균형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96년 인구센서스의 관련 인구문제를 閔泰亨 통계청장이 비판하고 있다.

정정 인구구조는

—양으로 인구증가 전망일
▲50, 60년대는 베이비붐이
보 3% 이상의 높은 증가율



증가율은 70년대 가장 격화
을 보였다. 80년대는 2%수준으로
의 선이었던 2%수준으로
하락했고 최근엔 1%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증가율은 현행 추세라면
이르면 계속적 30년후엔 제로
증가율에 도달 전망이다.
—인구증가 예상치보다 우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대책이
▲인구는 노령을 구성하는
한 요소이다. 그렇다고 해서

教育 등 향상·고용구조 改善 필요 地域間 균형개발 都市 집중 방지

증가율을 높일 수는 없는 것
이고 문제는 인구의 질을 높
이는 데 있다. 질을 높이기 위
해선 의료·보육·교육수준을 높
이고 고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인구의 노령화 추세는 여
러가지 사회문제를 수반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점점

閔泰亨
〈통계청장〉



수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 인구의 노령화는 경제활
동인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노후보장 등 사회복지의 확대
를 요구한다. 부양비는 지난
해 44.5%에서 꾸준히 감소
하다 2000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대비해 정부에선 노후보장대
책들이 마련할 것이라

본다.
—인구의 대도시 집중은 여
러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중 현안으로 인구의 도
시화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
다. 문제는 도시화율 상승에
있다고 본다. 대도시인구집중
으로 교통·공해·주택 등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요점정리

- ◇인구집중은 지방중소도시의 균형개발과
위성도시 기능분산으로 해소.
- ◇性比불균형을 막기 위해 남아선호사상개
혁, 여성의 지위향상.
- ◇인구노령화는 보건·교육수준개선으로 인
구의 질적 향상요구.

있다.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로
지방중소도시를 육성하고 서
울·충·강·경·대도시인구분산을
위한 위성도시개발도 병행돼
야 한다.
—性比불균형으로 인한 성
비정등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폭소리가 높아데.
▲性비구조개선을 위해 부
린것은 男児선호의 심도적 개
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성
의 사회적 법적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人口變動、적극對處하자

社說

통계청이 12일 이른바 「90년 인구추계」를 발표하여 발표했다. 경제사회 발전계획수립의 중요한 바탕이 될 이 자료는 여러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가장 두드러진 인구移動 및 인구구조변동의 추세는 첫째 人口의 首都圈 집중현상, 둘째 人口의 老齡化, 셋째 男女性比 불균형이라 할 수 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작년 11월 1일 현재 4천 3백52만 1백99명으로 이중 42.7%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 인구는 1천 62만 7천 90명으로 전국의 40.6%의 불균형 현상과 서울 인구가 총 인구의 40%에 달하는 1억 1천 4백만 명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수도권 인구는 전체인구의 47.0%에 달하며 70년대 초부터 부각되기 시작했고 정부도 거의 매년 책인부서의 기구를 바꾸어가고 있으며 가지 인구

집중의 제 몇 분사책을 써왔으나 그같은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상태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현상과 교통 주택 환경 교육 치안 등 제반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또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이제까지와 같은 시행착오적 정책만을 되풀이할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이 절박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실시될 地方自治를 통한 철저한 地方分權化, 학교 관청 및 기업체 이동, 지방투자 및 개발 등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의 老齡化 추세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 사항 중의 하나이다.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 및 의학의 발달 등으로 우리나라도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가 점차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90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713세(남 67.4세, 여 75.4세)로 이것이 2000년엔 77세(남 74.9세, 여 79.1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령인구 비

율은 90년 5%이던 것이 2002년엔 13.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노년층은 노령인구 활동과 노년층을 위한 복지문제이다. 당국은 그동안 단편적으로 여러가지 시책을 강구해왔으나 아직 이렇게 다할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하더라도 지적해야 할 것은 男女性比의 불균형 추세이다. 절충적인 남녀 선호 현상으로 여아 태가 성별하여 여아의 출생이 계속 줄고 있다. 결혼 연령이 남녀 비율은 작년의 경우 1백47대 1백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4.7%(9만 8천명) 많았는데 오는 2000년엔 남녀성비가 더욱 벌어져 남자가 여자보다 19

4%나 많을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은 독신생활자의 증가로 성별 불균형을 막아 자살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고 사회경제 및 법적인 여건을 개선하여 男兒 선호의식을 바꾸어 놓지 않으면 안된다.

아무튼 90년 인구추사로 이같은 인구변동 추이가 또다시 확인됐고 또 그것들이 우리의 사회경제 균형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부각된 이상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는 정확한 분석과 판단 아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社說

산업再配置로 人口集中막아야

80년대의 후반에 접어들어 산업의 발전은 비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산업의 재배치가 시급하다. 특히 중공업의 집중이 과잉되어 있는 지역이 많다. 이 지역에서는 인구가 과잉되어 있어 생활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인구가 과잉되어 있어 생활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인구가 과잉되어 있어 생활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인구는 생활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인구가 과잉되어 있어 생활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인구가 과잉되어 있어 생활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인구가 과잉되어 있어 생활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인구가 과잉되어 있어 생활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인구는 생활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인구가 과잉되어 있어 생활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인구가 과잉되어 있어 생활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인구가 과잉되어 있어 생활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인구가 과잉되어 있어 생활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인구는 생활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인구가 과잉되어 있어 생활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인구가 과잉되어 있어 생활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인구가 과잉되어 있어 생활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인구가 과잉되어 있어 생활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이 이상 비대화하면 지역 균형이 깨질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인구가 과잉되어 있어 생활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인구가 과잉되어 있어 생활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인구가 과잉되어 있어 생활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지역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지역에서는 인구가 과잉되어 있어 생활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인구가 과잉되어 있어 생활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인구가 과잉되어 있어 생활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社 說

항아리型 人口政策

영양고령·중년층이 40%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의 대부분은 20세 이하의 어린 세대이다. 1988년 기준 인구의 1.6%에 불과한 고령층의 인구가 1989년에는 1.9%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같은 추세는 2000년에는 고령층의 인구가 인구의 4.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구의 39.1%에 불과한 고령층의 인구가 2000년에는 인구의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항아리型' 인구의 특징이다. 즉, 인구의 대부분이 어린 세대이고, 고령층의 인구는 적은 반면, 고령층의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항아리型' 인구의 특징이다. 즉, 인구의 대부분이 어린 세대이고, 고령층의 인구는 적은 반면, 고령층의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의 특성을 분석하면,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령층의 증가이다. 고령층의 인구는 6대도시(서울·釜山·大邱·仁川·光州·大田)의 지역에서만 인구의 85%에 달하는 17.6%에 이르렀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12.7%로 가장 높았다. 이는 서울·釜山·大邱를 제외한 3대도시의 인구가

전체의 20%에 불과한 반면, 노년층은 10%에 달한다. 이는 인구의 90%가 65세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인구의 구성은 '항아리型' 인구의 특징이다. 즉, 인구의 대부분이 어린 세대이고, 고령층의 인구는 적은 반면, 고령층의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의 특성을 분석하면,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령층의 증가이다. 고령층의 인구는 6대도시(서울·釜山·大邱·仁川·光州·大田)의 지역에서만 인구의 85%에 달하는 17.6%에 이르렀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12.7%로 가장 높았다. 이는 서울·釜山·大邱를 제외한 3대도시의 인구가

이러한 인구의 특성을 분석하면,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령층의 증가이다. 고령층의 인구는 6대도시(서울·釜山·大邱·仁川·光州·大田)의 지역에서만 인구의 85%에 달하는 17.6%에 이르렀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12.7%로 가장 높았다. 이는 서울·釜山·大邱를 제외한 3대도시의 인구가

평의상승과 같은 추세를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노년층의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구의 90%가 65세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인구의 구성은 '항아리型' 인구의 특징이다. 즉, 인구의 대부분이 어린 세대이고, 고령층의 인구는 적은 반면, 고령층의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항아리型' 인구의 특성을 분석하면,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령층의 증가이다. 고령층의 인구는 6대도시(서울·釜山·大邱·仁川·光州·大田)의 지역에서만 인구의 85%에 달하는 17.6%에 이르렀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12.7%로 가장 높았다. 이는 서울·釜山·大邱를 제외한 3대도시의 인구가

社說

8월 21일-11월 30일 14월 21일-4월 30일
 10월 10일-11월 30일 12월 10일-1월 31일
 1월 10일-2월 28일 3월 10일-4월 30일
 5월 10일-6월 30일 7월 10일-8월 31일
 9월 10일-10월 31일 11월 10일-12월 31일
 1월 10일-2월 28일 3월 10일-4월 30일
 5월 10일-6월 30일 7월 10일-8월 31일
 9월 10일-10월 31일 11월 10일-12월 31일

1931년 12월 31일 14월 30일 18월 31일
 22월 31일 26월 30일 30월 31일 34월 30일
 38월 31일 42월 30일 46월 31일 50월 30일
 54월 31일 58월 30일 62월 31일 66월 30일
 70월 31일 74월 30일 78월 31일 82월 30일
 86월 31일 90월 30일 94월 31일 98월 30일
 102월 31일 106월 30일 110월 31일 114월 30일
 118월 31일 122월 30일 126월 31일 130월 30일
 134월 31일 138월 30일 142월 31일 146월 30일
 150월 31일 154월 30일 158월 31일 162월 30일
 166월 31일 170월 30일 174월 31일 178월 30일
 182월 31일 186월 30일 190월 31일 194월 30일
 198월 31일 202월 30일 206월 31일 210월 30일
 214월 31일 218월 30일 222월 31일 226월 30일
 230월 31일 234월 30일 238월 31일 242월 30일
 246월 31일 250월 30일 254월 31일 258월 30일
 262월 31일 266월 30일 270월 31일 274월 30일
 278월 31일 282월 30일 286월 31일 290월 30일
 294월 31일 298월 30일 302월 31일 306월 30일
 310월 31일 314월 30일 318월 31일 322월 30일
 326월 31일 330월 30일 334월 31일 338월 30일
 342월 31일 346월 30일 350월 31일 354월 30일
 358월 31일 362월 30일 366월 31일 370월 30일
 374월 31일 378월 30일 382월 31일 386월 30일
 390월 31일 394월 30일 398월 31일 402월 30일
 406월 31일 410월 30일 414월 31일 418월 30일
 422월 31일 426월 30일 430월 31일 434월 30일
 438월 31일 442월 30일 446월 31일 450월 30일
 454월 31일 458월 30일 462월 31일 466월 30일
 470월 31일 474월 30일 478월 31일 482월 30일
 486월 31일 490월 30일 494월 31일 498월 30일
 502월 31일 506월 30일 510월 31일 514월 30일
 518월 31일 522월 30일 526월 31일 530월 30일
 534월 31일 538월 30일 542월 31일 546월 30일
 550월 31일 554월 30일 558월 31일 562월 30일
 566월 31일 570월 30일 574월 31일 578월 30일
 582월 31일 586월 30일 590월 31일 594월 30일
 598월 31일 602월 30일 606월 31일 610월 30일
 614월 31일 618월 30일 622월 31일 626월 30일
 630월 31일 634월 30일 638월 31일 642월 30일
 646월 31일 650월 30일 654월 31일 658월 30일
 662월 31일 666월 30일 670월 31일 674월 30일
 678월 31일 682월 30일 686월 31일 690월 30일
 694월 31일 698월 30일 702월 31일 706월 30일
 710월 31일 714월 30일 718월 31일 722월 30일
 726월 31일 730월 30일 734월 31일 738월 30일
 742월 31일 746월 30일 750월 31일 754월 30일
 758월 31일 762월 30일 766월 31일 770월 30일
 774월 31일 778월 30일 782월 31일 786월 30일
 790월 31일 794월 30일 798월 31일 802월 30일
 806월 31일 810월 30일 814월 31일 818월 30일
 822월 31일 826월 30일 830월 31일 834월 30일
 838월 31일 842월 30일 846월 31일 850월 30일
 854월 31일 858월 30일 862월 31일 866월 30일
 870월 31일 874월 30일 878월 31일 882월 30일
 886월 31일 890월 30일 894월 31일 898월 30일
 902월 31일 906월 30일 910월 31일 914월 30일
 918월 31일 922월 30일 926월 31일 930월 30일
 934월 31일 938월 30일 942월 31일 946월 30일
 950월 31일 954월 30일 958월 31일 962월 30일
 966월 31일 970월 30일 974월 31일 978월 30일
 982월 31일 986월 30일 990월 31일 994월 30일
 998월 31일 1002월 30일 1006월 31일 1010월 30일
 1014월 31일 1018월 30일 1022월 31일 1026월 30일
 1030월 31일 1034월 30일 1038월 31일 1042월 30일
 1046월 31일 1050월 30일 1054월 31일 1058월 30일
 1062월 31일 1066월 30일 1070월 31일 1074월 30일
 1078월 31일 1082월 30일 1086월 31일 1090월 30일
 1094월 31일 1098월 30일 1102월 31일 1106월 30일
 1110월 31일 1114월 30일 1118월 31일 1122월 30일
 1126월 31일 1130월 30일 1134월 31일 1138월 30일
 1142월 31일 1146월 30일 1150월 31일 1154월 30일
 1158월 31일 1162월 30일 1166월 31일 1170월 30일
 1174월 31일 1178월 30일 1182월 31일 1186월 30일
 1190월 31일 1194월 30일 1198월 31일 1202월 30일
 1206월 31일 1210월 30일 1214월 31일 1218월 30일
 1222월 31일 1226월 30일 1230월 31일 1234월 30일
 1238월 31일 1242월 30일 1246월 31일 1250월 30일
 1254월 31일 1258월 30일 1262월 31일 1266월 30일
 1270월 31일 1274월 30일 1278월 31일 1282월 30일
 1286월 31일 1290월 30일 1294월 31일 1298월 30일
 1302월 31일 1306월 30일 1310월 31일 1314월 30일
 1318월 31일 1322월 30일 1326월 31일 1330월 30일
 1334월 31일 1338월 30일 1342월 31일 1346월 30일
 1350월 31일 1354월 30일 1358월 31일 1362월 30일
 1366월 31일 1370월 30일 1374월 31일 1378월 30일
 1382월 31일 1386월 30일 1390월 31일 1394월 30일
 1398월 31일 1402월 30일 1406월 31일 1410월 30일
 1414월 31일 1418월 30일 1422월 31일 1426월 30일
 1430월 31일 1434월 30일 1438월 31일 1442월 30일
 1446월 31일 1450월 30일 1454월 31일 1458월 30일
 1462월 31일 1466월 30일 1470월 31일 1474월 30일
 1478월 31일 1482월 30일 1486월 31일 1490월 30일
 1494월 31일 1498월 30일 1502월 31일 1506월 30일
 1510월 31일 1514월 30일 1518월 31일 1522월 30일
 1526월 31일 1530월 30일 1534월 31일 1538월 30일
 1542월 31일 1546월 30일 1550월 31일 1554월 30일
 1558월 31일 1562월 30일 1566월 31일 1570월 30일
 1574월 31일 1578월 30일 1582월 31일 1586월 30일
 1590월 31일 1594월 30일 1598월 31일 1602월 30일
 1606월 31일 1610월 30일 1614월 31일 1618월 30일
 1622월 31일 1626월 30일 1630월 31일 1634월 30일
 1638월 31일 1642월 30일 1646월 31일 1650월 30일
 1654월 31일 1658월 30일 1662월 31일 1666월 30일
 1670월 31일 1674월 30일 1678월 31일 1682월 30일
 1686월 31일 1690월 30일 1694월 31일 1698월 30일
 1702월 31일 1706월 30일 1710월 31일 1714월 30일
 1718월 31일 1722월 30일 1726월 31일 1730월 30일
 1734월 31일 1738월 30일 1742월 31일 1746월 30일
 1750월 31일 1754월 30일 1758월 31일 1762월 30일
 1766월 31일 1770월 30일 1774월 31일 1778월 30일
 1782월 31일 1786월 30일 1790월 31일 1794월 30일
 1798월 31일 1802월 30일 1806월 31일 1810월 30일
 1814월 31일 1818월 30일 1822월 31일 1826월 30일
 1830월 31일 1834월 30일 1838월 31일 1842월 30일
 1846월 31일 1850월 30일 1854월 31일 1858월 30일
 1862월 31일 1866월 30일 1870월 31일 1874월 30일
 1878월 31일 1882월 30일 1886월 31일 1890월 30일
 1894월 31일 1898월 30일 1902월 31일 1906월 30일
 1910월 31일 1914월 30일 1918월 31일 1922월 30일
 1926월 31일 1930월 30일 1934월 31일 1938월 30일
 1942월 31일 1946월 30일 1950월 31일 1954월 30일
 1958월 31일 1962월 30일 1966월 31일 1970월 30일
 1974월 31일 1978월 30일 1982월 31일 1986월 30일
 1990월 31일 1994월 30일 1998월 31일 2002월 30일

人口構造의 변화와 그 對應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출생률의 감소와 사망률의 증가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정치적·사회적 측면에서 인구의 고령화는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구의 구조적 변화를 예상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층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사회적 측면에서 인구의 고령화는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구의 구조적 변화를 예상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층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사회적 측면에서 인구의 고령화는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구의 구조적 변화를 예상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층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사회적 측면에서 인구의 고령화는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구의 구조적 변화를 예상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층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사회적 측면에서 인구의 고령화는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구의 구조적 변화를 예상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층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사회적 측면에서 인구의 고령화는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구의 구조적 변화를 예상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층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사회적 측면에서 인구의 고령화는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구의 구조적 변화를 예상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층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년말 5인이상업체

22일부터 한달간 鑛工業통계조사

통계청이 오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한달간 「90년도 공업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는 제조업 및 제조업사업체가 5만 8천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산업통계청의 제1차 산업조사, 생산비율, 판매량, 이익, 고용인원, 사업장별 자산·자본·부채총액 등 모두 12항목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통계청이 지금까지 회사별인도 항목 10만여개의 자료를 조사하던 것을 이로부터 더 늘리고, 개인사업자 등

까지 자산·자본·부채총액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이를 토대로 업체규모별경영성과 분석자료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실시여부 지역경제통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에 대비, 이번 조사를 기중도 시도별·시군구별도 세부화된 다양한 통계자료를 작성할 예정이다.
 또 무신용충수신기관 코드업종별, 산업을별, 등 각종 신제품을 추가 조사, 산업발전의 맞게 출판부 등을 현행하는 산업노력 하기로 했다. 이번 산업통계조사 결과도 도매물가, 산업생산, 출하, 재고지수, 제조업가동률, 각종 경영지표의 기준연도를 현행 85년에서 90년으로 바꾸는 기준자료를 확정한다.

이아침에
金 聖 壽



매월 첫 경제기획원의 90년도 일주말 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말 총조사 가장 특징적인 것이 지난 5년간의 수도권 인구증가 현상이다.
 수도권 전체 인구가 6,500만 명에 육박하는 반면 6,000만 명의 인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首都圈의 인구집중

수도권 인구가 6,500만 명에 육박하는 반면 6,000만 명의 인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는 지난 5년간 28.4%나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2.7%가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인구집중 현상은 수도권 전체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는 지난 5년간 28.4%나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2.7%가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5년간 28.4%나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2.7%가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수도권 인구의 집중을 의미한다. 이는 수도권 전체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는 지난 5년간 28.4%나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2.7%가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는 것이다.

首都圈의 인구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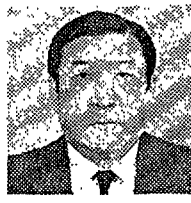
이와 같은 현상은 수도권 인구의 집중을 의미한다. 이는 수도권 전체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는 지난 5년간 28.4%나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2.7%가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는 것이다.

新 經濟 官僚

轉換期의 테크니크라트位相

經濟인으로서 國家發展의 重要인으로서 活躍하고 있는 經濟官僚의 位相은 如何한가? 經濟官僚의 位相은 如何한가? 經濟官僚의 位相은 如何한가?

經濟發展의 重要인으로서 活躍하고 있는 經濟官僚의 位相은 如何한가? 經濟官僚의 位相은 如何한가? 經濟官僚의 位相은 如何한가?



◇ 閔泰亨 總長



◇ 金鶴炫 國長



◇ 金日鉉 國長



◇ 文炳學 國長

통계청

중요하다.

5井시절 全斗煥 前대통령 이 經濟개발을 進출시키는데 功을 세웠다. 통계청의 功을 세웠다. 통계청의 功을 세웠다.

통계청의 功을 세웠다. 통계청의 功을 세웠다. 통계청의 功을 세웠다.

數值 신뢰·새統計 발굴 힘써

金년 초 廳 승격 專門性 대접

다. 이 때부터 통계청의 功을 세웠다. 통계청의 功을 세웠다. 통계청의 功을 세웠다.

에 功을 세웠다. 통계청의 功을 세웠다. 통계청의 功을 세웠다.

계 功을 세웠다. 통계청의 功을 세웠다. 통계청의 功을 세웠다.

통계청의 功을 세웠다. 통계청의 功을 세웠다. 통계청의 功을 세웠다.

통계청의 功을 세웠다. 통계청의 功을 세웠다. 통계청의 功을 세웠다.

통계청의 功을 세웠다. 통계청의 功을 세웠다. 통계청의 功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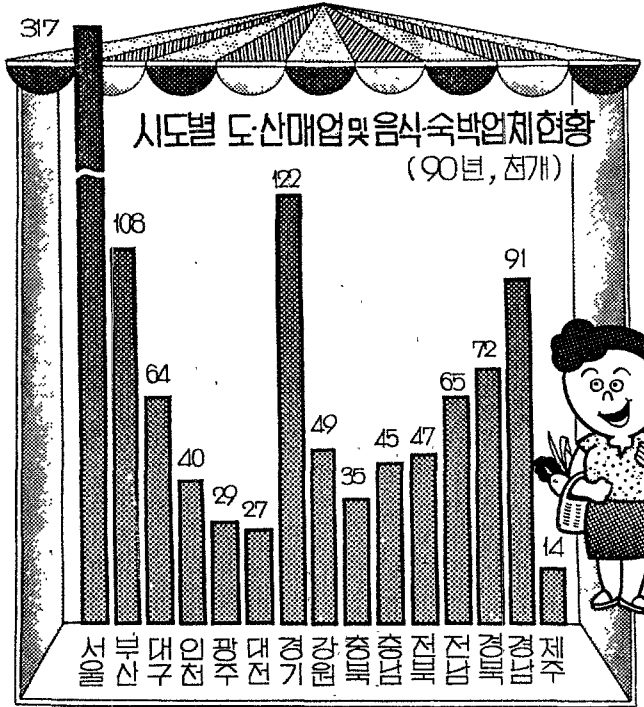
金鶴炫 國長의 功을 세웠다. 통계청의 功을 세웠다. 통계청의 功을 세웠다.

〈閔泰福기자〉

서비스업종 "돈방석에 앉았다"

작년 매출 21% 증가

과소비품조 편승 숙박업은 32% 늘여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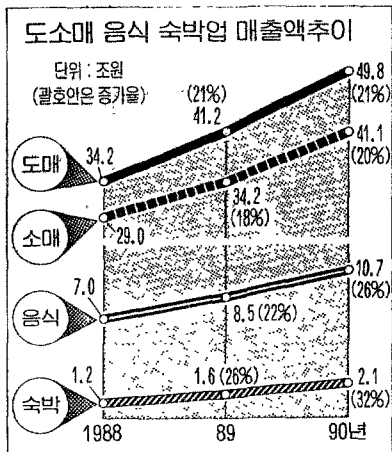


작년 2월 21일 기준 전국 과소비
 마다 1.1배 증가했다. 과소비
 숙박업은 32% 늘여 최고
 과소비품조 편승 숙박업은 32% 늘여 최고
 과소비품조 편승 숙박업은 32% 늘여 최고

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은
 관광위하게 확산된 과소비
 및 사치화 현상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은
 숙박업이 32.3%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음식점업(26.7%), 도매업(20.8%), 소매
 업(20.2%) 순이다.
 특히 숙박업은 호텔업의
 증가율이 5만 5천 4백
 44명으로 1년간 36.3%나
 증가한 1조 4천 6백 4
 원이로 집계됐다.
 또 소매업은 백화점
 90년 7월 1일 현재 63개
 증가수 2만 3천 4백
 50명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29.2% 증가한 2
 조 6천 96억 원으로 나타
 났다.
 지역별 업체수는 서울이
 전체의 28.1%를 차지, 89
 년의 27.0%보다. 지방도
 가 높아졌으며 서울 인천
 경기도를 합친 수도권의 집
 중도는 89년의 42.3%에
 서 42.5%로 다소 높아
 졌다.
 특히 지역별 매출액에서
 수도권 전체의 41.7%
 (89년 40.9%)를 차지하
 는데 수도권 내의 집중도가
 52.1%(89년 51.3%)에
 이르렀으며 6만 5천의 집
 중도는 89년 69.8% 89년 69.3%로 나타났다.

서비스業 돈망이 벌었다

통계청 90년 조사결과 발표



국내 도소매업및 음식 숙박업의 연간 매출액이 어렸으며 특히 백화점과

호텔의 매출이 대폭 증가, 국민 소비행태의 고

급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 도소매 음식점 숙박업

매출의 42%는 서울, 52%는 수도권, 70%는 6대도시에서 이루어져 商

圈 집중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 숙박 都小賣業 작년 매출 百兆원 소비형태 高級化...百貨店 호텔 급성장

조사원 百13萬업체에 2百86萬명... 89年比 5%증가

90년 도소매 음식점 숙박업 통계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7월 1일 현재 이들 업종의 업체수는 1백13만1천1백11개로 전년 동기보다 3만5천9백84개(3.3%) 높고 종사자수는 2백85만9

간(89년 7월~90년 6월) 총 매출액은 1백3조 6천 4백 62억원으로 88년 7월~89년 6월의 85조 4천 7백 67억원보다 18조 1천 6백 95억원(21.3%)

증(89년 7월~90년 6월)간(89년 7월~90년 6월) 총 매출액은 1백3조 6천 4백 62억원으로 88년 7월~89년 6월의 85조 4천 7백 67억원보다 18조 1천 6백 95억원(21.3%)

증(89년 7월~90년 6월)간(89년 7월~90년 6월) 총 매출액은 1백3조 6천 4백 62억원으로 88년 7월~89년 6월의 85조 4천 7백 67억원보다 18조 1천 6백 95억원(21.3%)

증(89년 7월~90년 6월)간(89년 7월~90년 6월) 총 매출액은 1백3조 6천 4백 62억원으로 88년 7월~89년 6월의 85조 4천 7백 67억원보다 18조 1천 6백 95억원(21.3%)

증(89년 7월~90년 6월)간(89년 7월~90년 6월) 총 매출액은 1백3조 6천 4백 62억원으로 88년 7월~89년 6월의 85조 4천 7백 67억원보다 18조 1천 6백 95억원(21.3%)

천 2백 74명으로 13만 2천 8백 48명(4.9%) 증가했다.

또 이들 업종의 1년 89년 7월~90년 6월 동안

호텔의 경우 전년대비 2천 4백 6개로 집계됐다.

호텔의 경우 전년대비 2천 4백 6개로 집계됐다.

호otel의 경우 전년대비 2천 4백 6개로 집계됐다.

특히 백화점의 매출은 20% 이상 증가, 內需氣氛의 호황을 반영했다. 또 이들 업종의 1년 89년 7월~90년 6월 동안

특히 백화점의 매출은 20% 이상 증가, 內需氣氛의 호황을 반영했다. 또 이들 업종의 1년 89년 7월~90년 6월 동안

특히 백화점의 매출은 20% 이상 증가, 內需氣氛의 호황을 반영했다. 또 이들 업종의 1년 89년 7월~90년 6월 동안

특히 백화점의 매출은 20% 이상 증가, 內需氣氛의 호황을 반영했다. 또 이들 업종의 1년 89년 7월~90년 6월 동안

소비성內需산업 "호황 신바람"

최근 소비성내需에 따라 소비성산업이 호황을 이루고 있음은 반경도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매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음식·숙박업은 매출 증가율이 해마다 크게 높아지는 등 번창하고 있어 국민들 사이에 불고된 소비성내需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이 경제력이 진전중인 서울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5일 통계청이 지난 7월 1일부터 기준으로 전년 7월 1일부터 7월 40개의 사업체를 표본추출하여 조사한 '90년 도·소매·음식·숙박업 매출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종사업체수가 1백13만 1천1백

통계청 '90년 도·소매·음식·숙박업, 조사

△업종별 현황 1. 이들 업종 전체의 매출액이 21.3% 증가한 12월만 사상 가장 많은 18.4%를 상회한 것으로서, 제조업이나 수출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있다. 2. 소매업 매출액이 49조 8천 1

11개로 전년 동기보다 3.3% 증가하는 2백85만 9천 2백74명으로 4.9% 판매액 89년 7월 6천 4백62억원으로 21.3%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세를 누렸다. 특히 이들 두 업종의 연도별 매출액 추세를 보면 음식업은 86년 15.4%, 88년 22.5%, 89년 21.9%, 90년 25.7%이며 숙박업은 같은 기간 중 88년 17.7%, 89년 17.7%, 90년 16.5%, 25.5%, 32.3%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백6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0.8% 소매업은 41조 1천 80억원으로 20.2%가 증가한 데 반해 음식업은 10조 6천 6백76원으로 25.7% 숙박업은 2조 5백17억원으로 32.3%나 늘며, 도·소매업

고도매업은 50만 2천 4백76명으로 8.2%가 늘었다. 사업체수는 도매업 9만 6백21개(6.7% 증가), 소매업 70만 9천 8백88개(2.7%), 음식업 29만 8천 1백 96개(3.9%), 숙박업 3만 2천 4백 6개(2.5%)로 각각 나타났다.

은 87만 1천 6백36명으로 6.1% 숙박업은 12만 5천 2백88명으로 6.4%가 각각 늘어난 반면 4.9%를 웃돌았다. 소매업 사업자수는 1백 35만 9천 8백76명으로 2.8%가 증가하는 데 그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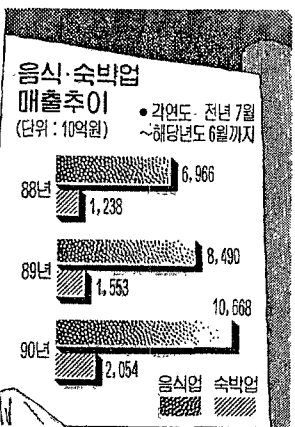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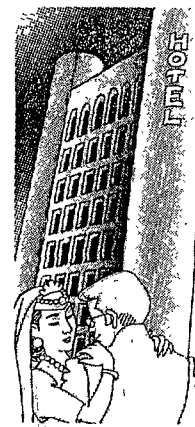
0.3%포인트 사업체수는 0.2%포인트가 각각 높아진 것이어서 서울로의 인구 집중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백화점·대형점·점점 1. 작년 7월 1일 현재 전국 백화점수는 63개, 종사자수는 2만 3천 4백 50명이었으며 판매액 89년 7월

특히 서울의 판매액 점유비율은 전년보다 0.8%포인트, 종사자수는 33.6%수도권은 46.9%에 달하며, 사업체수에서 서울 28.1%수도권 42.5%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 1. 전체업종의 매출액 가운데 서울지역이 41.7%를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으로는 절반이 넘는 52.1%가 몰려 있어 수도권 집중현상이 두드러졌다.

종사자수도 서울이 33.6%수도권은 46.9%에 달하며, 사업체수에서 서울 28.1%수도권 42.5%로 나타났다.



9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9.2%나 늘었다. 이는 소속 업종인 소매업 전체 증가율 20.2%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또 호텔업(인)만 관광호텔(사업체수)은 6백 28개 종사자수는 5만 5천 4백 44명이었고 수입은 1조 4천 1백 61억원으로 36.3%나 늘었다.

이같은 증가율 역시 숙박업 전체 증가율 32.3%를 상회하는 것으로 백화점과 함께 대형점을 누렸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백화점이 25개로 39.7%를 차지했으나 종사자수는 57.5%, 판매액은 66.9%를 차지했다. 또 호도 서울의 사업체수는

특히 백화점이 포함된 소매업과 호텔이 포함된 숙박업의 같은 기간 동안 평균 판매액 증가율은 14.8%와 17.5%로 도매업(11.4%)과 음식점(13.9%)에 비해 빠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李錫雨기자〉

1백55개로 24.7%에 불과했으나 종사자수는 49%, 수입액은 64.7%에 달해 대형백화점과 큰 호혜이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그만큼 서울사람들의 사치품조각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대화화 1. 전체업종 중 5인 미만 사업체수가 92.1%에 달한 데 반해 66.4%의 매장면적 10평미만 사업체가 62.8%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영세한 규모다.

그러나 사업체당 종사자수가 지난 82년 2.09명에서 작년에는 2.53명, 판매액은 2천 7백 78만원에서 9천 1백 63만원으로 각각 증가하는 등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過消費 편승 호텔·백화점 "흥청"

90년 都小賣·음식·숙박업 현황

소매업·음식에 파벌과 소비현황을 반영하여 판매액과 소비현황이 양호한 편이다. 도소매업은 음식점·숙박업체들이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들 업체들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1백조원을 넘어선 것이 하면 업체수도 일부 1천명 26·4개를 기록, 미국·민주공산주의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미일 무역」과 소비성 서비스업이 특장비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90년 도소매업·음식·숙박업 현황을 보면 1백조원·1천1백개수준의 1백31만1천1백1개 업체가 2백85만9천2백74명, 1년간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한 1백3조6천4백92억 원으로 추계됐다.

지난번 인구조사 결과와 종결현황에 의하면 9·6%가 이들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다. 또 12월 상점업종의 매출액증가율이 18·8%인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들 서비스업종의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매업(20·8%), 소매업(20·3%)이다. 사업체수에 있어서는 도매업이 6·7% 증가한 반면 음식점이 3·9%, 소매업이 2·7% 숙박업이 2·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현황 소매업 음식점·숙박업체수가 소매업체수의 비중은 28·1%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종사자수 비중은 33·3%에서 33·6%로 판매액 비중은 40·9%에서 41·7%

首都圈에 42% 넘게 몰려

1천명당 업체수 26개...美·日보다 많아
종업원 5인미만 92%...영세성 못 벗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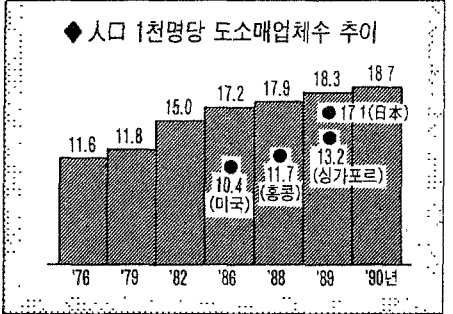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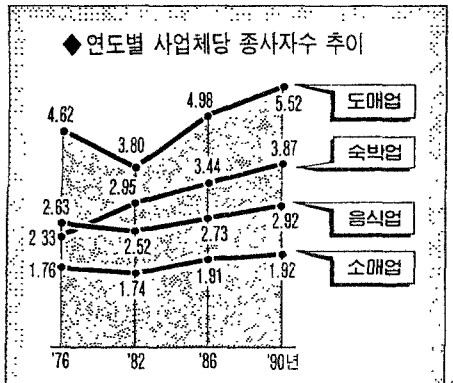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판매액 기준으로 숙박업이 32·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음식점(25·7%)을 포함 6대 도시의 점유율은 도소매업 비중의 51·8%로 증가했다. 釜山·大邱·仁川·光州·大田을 포함한 6대 도시의 점유율은 도소매업 비중의 51·8%로 증가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수도권 내 서비스업의 집중도가 높고 있다. 서비스업의 비중은 52·0%에서 52·3%로 △판매액 비중은 57·3%에서 57·5%로 △종사자 수 비중은 69·4%에서 69·0%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서비스업의 경우 수도권 내 서비스업의 집중도가 높고 있다. 서비스업의 비중은 52·0%에서 52·3%로 △판매액 비중은 57·3%에서 57·5%로 △종사자 수 비중은 69·4%에서 69·0%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90년 지역별 현황 (단위=천개, 천명, 10억원, %)

	사업체수	구성비	종사자수	구성비	판매액	구성비
전국	1,131	100.0	2,859	100.0	103,646	100.0
서울	318	28.1	962	33.6	43,169	41.7
부산	108	9.6	279	9.7	12,413	12.0
대구	64	5.7	160	5.6	7,117	6.9
인천	40	3.6	95	3.3	3,267	3.2
광주	29	2.6	78	2.7	3,219	3.1
대전	28	2.4	75	2.6	3,130	3.0
경기	122	10.8	284	9.9	7,571	7.3
강원	49	4.3	109	3.8	3,007	2.9
충북	35	3.1	79	2.8	2,040	2.0
충남	46	4.0	98	3.4	2,315	2.2
전북	47	4.2	108	3.8	3,268	3.2
전남	65	5.8	131	4.6	2,265	2.2
경북	73	6.4	156	5.5	3,984	3.8
경남	92	8.1	207	7.2	5,877	5.7
제주	14	1.2	37	1.2	1,004	1.0



구주직통전... 우리나란도 소매업 및 음식점의 전체적인 영업세를 보고 있으나 점차 대형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체중 종업원 5인미만업체가 92·1%인 반면 매출액 5천만원미만이 66·4%로 매출액 면에서도 종업원 5인미만업체가 62·8%로 전반적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종사자의 구성도 상용

종사자가 전체의 35·1%인 반면 자영업주 및 無給가족종사자가 59·5%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가족종업주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백화점의 지난해 판매액은 2조6천96억 4천4백만원으로 20·2%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호평은 1조4천1백64억 1천3백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36·3%나 늘어났다. 매출증가에도 소매업 및 음식점업의 평균진달률이 21·3%보다 훨씬 높은 이차산업과 소비품종가 높아지고 있음이 반영되고 있다. <孫顯德기자>

서비스輸出 첫 100兆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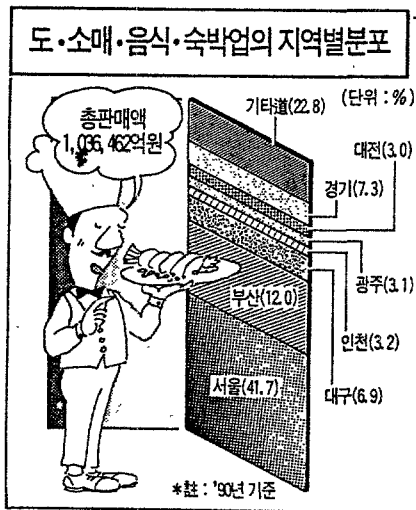
지난해 6大도시 비중 70%

統計廳·도·소매·숙박업 조사

사업체수도권 집중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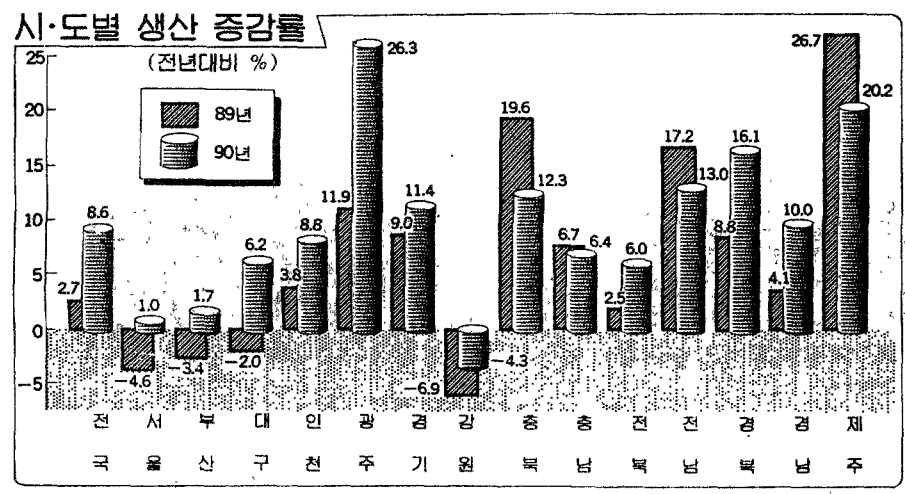
과소비 반영 호텔매출 36%늘어

출몰이 컸던 추석에 수도권 갈수록 교통화·대형
파라 호텔·백화점·음식점·화점포점의 매출이 늘었다고 있다.



다. 이어파라 지난해 수도권 소매·음식·숙박업의 판매액이 89만 9천 3백 3십억 원으로 전년 대비 1백 3십억 원 늘었다고 집계됐다. 판매액이 88만 7천 8백 2십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천 2백 2십억 원 증가했다. 이어파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仁川·京畿도 수도권 지역의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에서 90년 92.5%로 판매액이 51.3%에서 52.1%로, 총 매출이 46.5%에서 46.9%로 각각 높아졌다. 25만 9천 9백 9십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천 9백 9십억 원 늘었다고 집계됐다.

국 업체수는 1백 13만 1천 개로 89년 대비 3.3% 증가했고 종사자수는 4.9% 늘었다. 2백 85만 9천 명에 달했다. 이어파라 전체 취업자에서 이들 지역의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5.6%에서 15.9%로 높아졌다. 88년 7월~89년 6월 1년간의 총 판매액이 1백 3조 21.3%가 증가한 1백 3조 6천 4백 9십억 원에 이르렀다. 이어파라 수도권 지역의 판매액이 전체 판매액의 62.8%인 70만 9천 9백 여 개로 집계됐다. 판매액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판매액이 48.1% (48조 8천 9백 9십억 원)를 차지했다. 이어파라 지역별 판매액이 서울 8.1%, 수도권 6.9%, 부산 6.9%, 대구 6.9%를 차지했고, 나머지 지역은 서울 (41.7%)을 포함한 6대 도시의 비중이 88.0%에 달했다. 이어파라 89년 1월~2월 40%인 25개가 2백 85만 9천 명에, 서울 지역 판매액의 88.0%인 1천 9백 9십억 원에 달했다.



경기공업 회복세 뚜렷

자본계 생산 8.6%, 출하 11.2% 증가

경기공업이 지난해보다 회복세를 나타내며, 자본계 생산이 전년대비 8.6% 증가하고, 출하가 11.2% 증가했다. 이는 89년 12.3% 증가했던 것보다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특히 기계·전자·화학·정유·금속·자동차 등 주요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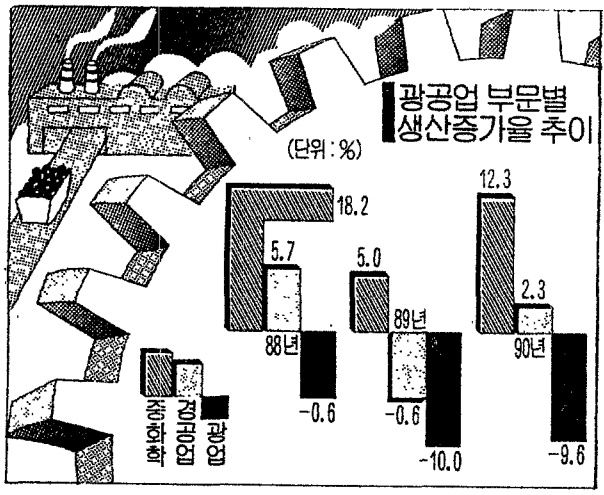
경기공업회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기공업회계조사대상기업의 생산액이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다. 이는 89년 12.3% 증가했던 것보다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특히 기계·전자·화학·정유·금속·자동차 등 주요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공업회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기공업회계조사대상기업의 생산액이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다. 이는 89년 12.3% 증가했던 것보다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특히 기계·전자·화학·정유·금속·자동차 등 주요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공업회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기공업회계조사대상기업의 생산액이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다. 이는 89년 12.3% 증가했던 것보다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특히 기계·전자·화학·정유·금속·자동차 등 주요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業 회복세 뚜렷

작년 重化學 호조로 생산 8.9% 증가



통계청 조사 발표
지난해 제조업의 중화학부
문 호조의 현상은 88년의 최
대치를 넘어 89년엔 회복
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업생산은 88년 이후
3년째 계속 감소세를 보
이고 있다.

2월 통계청이 발표한 지
난해 광업생산 증가율은
88년 대비 8.6%로, 88년의
증가를 2.7%포인트 5.9%
포인트 높여 광업생산이
89년의 반년치를 벗어난 것
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제조업은 중화학부문의 활황
에 힘입어 광업전체의 증
가율보다 0.3%포인트 8.
9%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
히 중화학부문의 우수장비
전기전자·철강 등의 생산호조
로 12.3%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와반해 섬유·의
복 등 경공업부문의 2.3%
의 저조한 증가에 그쳐 중화
학에 비해 부진한 회복세를
보였다. 또 광업생산도 탄광
폐광과 다른 석탄생산량의
감소로 89년에 10%가 줄어

운수·장비 23% 늘어 이듬

輕工業 약간 증가 鑛業은 3년째 減少

'89對比 생산

등 데이터 지난해에도 9.
6%나 감소함으로써 계속
침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처럼 지난해 제조업생산이
89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
은 설비투자가 늘고 건설경
기의 활황으로 내수가 크
게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되
고 있다.

중화학부문에서는 우수장
비의 생산증가율이 23.2%
에 이르러 가장 활황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고 산업용화학
물(20.4%)·철강(12.2%)
의 생산도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공업의 생산·출하 및 재
고동향을 보면 출하증가율은
11.2%로 89년의 4.2%를
크게 웃돌고 있다. 반면 재
고증가율은 89년의 17.9%
에서 17.3%로 낮아지긴 하
세를 나타냈다.

전체생산은 89년 동기
1%의 감소를 보였지만 전기
전자부문의 생산이 7%나
증가, 전체부문을 완전히 벗
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4.4분기 동안은 13.
9%의 높은 증가세를 보인
화학세가 불타고 있어 중화학
부문 호조가 었다.

중화학부문은 지난해 대비
전체 생산증가율의 23%를
차지하며, 특히 전기·전자
·기계·화학·금속·정밀·전
남·충북·충남 지역에서도
10%가 넘는 생산증가율을
보였다.

중화학부문의 호조는 운수·장
비·정밀·화학·금속·기계·전
남·충북·충남 지역에서도
10%가 넘는 생산증가율을
보였다.

鑛工業 회복세 뚜렷

지난해 생산8.6 出荷11.2% 증가

重化學부문 수요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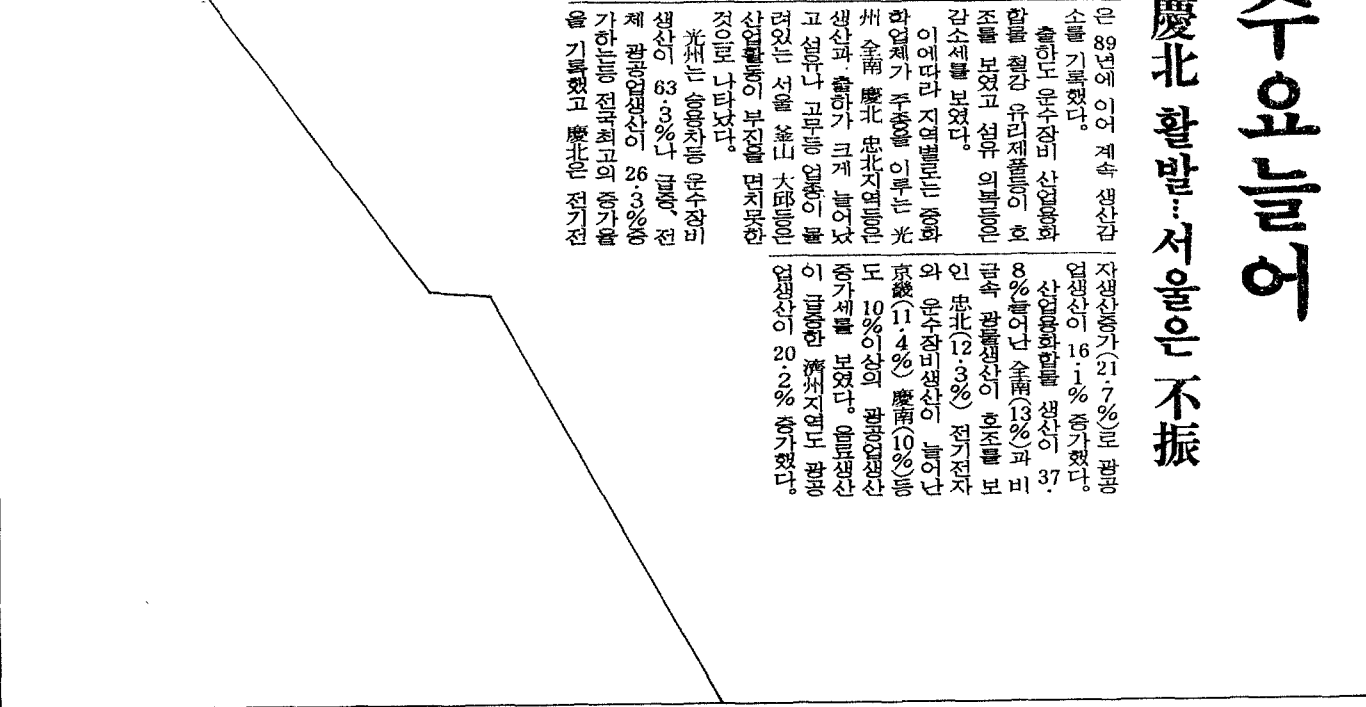
산업활동 光州·慶北 활발... 서울은不振

<市道별 생산출하증감률>
(전년동기비, %)

시도	생산		출하	
	89년	90년	89년	90년
서울	2.7	8.6	4.2	11.2
부산	-4.6	1.0	-5.5	0.0
대구	-3.4	1.7	-5.6	3.6
인천	-2.0	6.2	-3.9	4.5
대전	3.8	8.8	5.7	10.5
충청	11.9	26.3	8.2	27.2
경상	9.0	11.4	9.2	12.6
전라	-6.9	-4.3	-1.9	1.4
경남	19.6	12.3	21.3	10.6
제주	6.7	6.4	5.0	7.9
광주	2.5	6.0	4.4	8.7
충북	17.2	13.0	13.2	16.4
충남	8.8	16.1	6.5	16.6
전북	4.1	10.0	5.4	12.4
전남	26.7	20.2	19.7	21.2

실비투자증가와 건설경기
활황에 따른 내수증가에 의해
지난해 제조업의 생산과 출
하가 호조를 보인 것으로 보
나 타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시
도별 鑛工業생산증감률에 따
르면 지난해 제조업의 생산과
출하 증감률은 각각 8.6%
와 11.2% 증가
한 것으로 집계됐다.
鑛工業의 제조업의 생산이
8.9% 출하가 11.3% 늘
었다고 재고증가율은 17.8
%에서 17.6%로 둔화했다.
이전 89년의 鑛工業생산증
가율 2.7%(제조업 3%),
출하증가율 4.2%(제조업
4.3%)를 크게 웃돈 것
이다.
비생산산업은 89년도와 前年
수준비생산이 23.2% 증가하
고 4.5%증가율, 그중 제조업
생산증감률 20.4%
증가를 기록했다.

89년에 이어 계속 생산감
소를 기록했다.
출하도 제조업의 산업활동
합을 감안 유망제품의 호
조를 보였고 섬유·의복·화학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는 중화
학업체가 주축을 이루는 光
州·全南·慶北·忠北지역의
생산과 출하가 크게 늘었
고 서울이나 수도권 등 인구가
많은 서울·울산·대전 등
지역은 서울·울산·대전 등
산업활동이 부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光州는 중화학·유수장비
생산이 63.3%나 늘어난 전
제 평균생산이 26.3%증
가하는 등 전부 최고의 증가율
을 기록했다. 慶北은 전기전
자생산이 21.7% 늘어난 등
업생산이 16.1% 증가했다.
산업을 담당 생산이 37.
8% 늘어난 全南(13%)과 비
림·광물생산이 호조를 보
인 忠北(12.3%) 전기전자
와 유수장비생산이 늘어난
京畿(11.4%) 慶南(10%) 등
도 10% 이상의 평균생산
증가세를 보였다. 유수장비
이 남해안 濟州지역도 평균
업생산이 20.2% 증가했다.



鑛工業생산 8.6% 늘어

지난해 出荷도 11.2% 증가

統計廳 발표... 重化學工業 12.3%로 주도

지난해 광공업생산은 실질 1등 국내 수요증가에 힘입어 비부자호조 건설경기호황 8.6% 늘어났고 출하도 11.2%의 높은 신장률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철, 철강, 구리, 면직, 화학제품 등 주요 품목은 모두 호황을 보였으며, 특히 철강은 17.3%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반면 석탄은 4.2%의 낮은 신장률을 보였다.

다 12.3%, 14.7%의 높은 신장률을 보며 광공업 생산은 호황을 주도했다. 철강은 17.3%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으며, 구리는 11.8%의 신장률을 보였다. 반면 석탄은 4.2%의 낮은 신장률을 보였다.

11.2%의 높은 신장률로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강은 17.3%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반면 석탄은 4.2%의 낮은 신장률을 보였다. 구리는 11.8%의 신장률을 보였다. 또한 화학제품은 10.4%의 신장률을 보였고, 면직은 7.4%의 신장률을 보였다. 섬유는 10.6%의 신장률을 보였고, 비철금속은 7.4%의 신장률을 보였다. 기타는 1.4%의 신장률을 보였다.

가 각각 7.4%, 10.6% 증가율을 올리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재고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한데 대해 89년 4분기의 17.3% 증가 및 90년 3.4분기의 15.6%에 비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광공업생산은 8.6%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2%의 높은 신장률로 인 것이다. 특히 철강은 17.3%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반면 석탄은 4.2%의 낮은 신장률을 보였다. 구리는 11.8%의 신장률을 보였다. 또한 화학제품은 10.4%의 신장률을 보였고, 면직은 7.4%의 신장률을 보였다. 섬유는 10.6%의 신장률을 보였고, 비철금속은 7.4%의 신장률을 보였다. 기타는 1.4%의 신장률을 보였다.

이와 함께 광공업생산은 8.6%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2%의 높은 신장률로 인 것이다. 특히 철강은 17.3%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반면 석탄은 4.2%의 낮은 신장률을 보였다. 구리는 11.8%의 신장률을 보였다. 또한 화학제품은 10.4%의 신장률을 보였고, 면직은 7.4%의 신장률을 보였다. 섬유는 10.6%의 신장률을 보였고, 비철금속은 7.4%의 신장률을 보였다. 기타는 1.4%의 신장률을 보였다.

이와 함께 광공업생산은 8.6%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2%의 높은 신장률로 인 것이다. 특히 철강은 17.3%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반면 석탄은 4.2%의 낮은 신장률을 보였다. 구리는 11.8%의 신장률을 보였다. 또한 화학제품은 10.4%의 신장률을 보였고, 면직은 7.4%의 신장률을 보였다. 섬유는 10.6%의 신장률을 보였고, 비철금속은 7.4%의 신장률을 보였다. 기타는 1.4%의 신장률을 보였다.

이와 함께 광공업생산은 8.6%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2%의 높은 신장률로 인 것이다. 특히 철강은 17.3%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반면 석탄은 4.2%의 낮은 신장률을 보였다. 구리는 11.8%의 신장률을 보였다. 또한 화학제품은 10.4%의 신장률을 보였고, 면직은 7.4%의 신장률을 보였다. 섬유는 10.6%의 신장률을 보였고, 비철금속은 7.4%의 신장률을 보였다. 기타는 1.4%의 신장률을 보였다.

이와 함께 광공업생산은 8.6%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2%의 높은 신장률로 인 것이다. 특히 철강은 17.3%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반면 석탄은 4.2%의 낮은 신장률을 보였다. 구리는 11.8%의 신장률을 보였다. 또한 화학제품은 10.4%의 신장률을 보였고, 면직은 7.4%의 신장률을 보였다. 섬유는 10.6%의 신장률을 보였고, 비철금속은 7.4%의 신장률을 보였다. 기타는 1.4%의 신장률을 보였다.

이와 함께 광공업생산은 8.6%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2%의 높은 신장률로 인 것이다. 특히 철강은 17.3%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반면 석탄은 4.2%의 낮은 신장률을 보였다. 구리는 11.8%의 신장률을 보였다. 또한 화학제품은 10.4%의 신장률을 보였고, 면직은 7.4%의 신장률을 보였다. 섬유는 10.6%의 신장률을 보였고, 비철금속은 7.4%의 신장률을 보였다. 기타는 1.4%의 신장률을 보였다.

이와 함께 광공업생산은 8.6%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2%의 높은 신장률로 인 것이다. 특히 철강은 17.3%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반면 석탄은 4.2%의 낮은 신장률을 보였다. 구리는 11.8%의 신장률을 보였다. 또한 화학제품은 10.4%의 신장률을 보였고, 면직은 7.4%의 신장률을 보였다. 섬유는 10.6%의 신장률을 보였고, 비철금속은 7.4%의 신장률을 보였다. 기타는 1.4%의 신장률을 보였다.

이아침에

金 駟 舜



얼마전 경제기획원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및 인구추계조사결과 가운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
영아로 10년 넘었던 2000피의 피아를 출생한 인구가 중남자가 여자보다 무려 28.6%나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男兒選好의 결과

우리 사회는 6.25전쟁이후 불행하고 비참한 생활을 살아간 영민 미망인들 대한 기증에 수천 명이 10정년 전 인구조사에 응하며 출생정황이 남자가 약 28%정도 적어 영아들의 출생정황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미망인과 구혼자들의 무척 큰 고통이 영아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 영아들이 평범한 가정으로 출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수의 영아들이 남자가 많은 가정에서

으로 지낼 수밖에 없을 때 어떤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추측할때 여자가 남아를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여자가 사회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영아의 성비(性比)을 불균형이 일어나는 이유는 남아선호사상이 뿌리깊은 문화적인 상황에서 강력한 인위적 인구조절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의화전으로 태아의 정산율이 가혹한 정부의 불합리한 조치가 결합시켜 되었다.

정부가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영아들의 성비를 조정하는 것이다.

행위를 통하여 영아들의 성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영아의 성비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아들의 성비를 조정하는 것은 영아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아직도 뿌리깊게 남아선호사상이 남아있고, 차별을 두는 인종과 계급을 조종하고 개인행위와 영아를 양육하는 기능을 발휘 시킬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영아들의 성비를 조정하는 것이다.
<필자: 대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소비자' 올들어 5.4% 올라

物價, 서비스料가 주도

집세도한몫 이달중 0.8% 상승

집세 개인서비스요금 등 물가 상승률은 각각 5.4% 및 1.4%를 기록했다. 특히 4월말 현재 소비자물가는 1년전에 비해 10.1%나 올라 두 자리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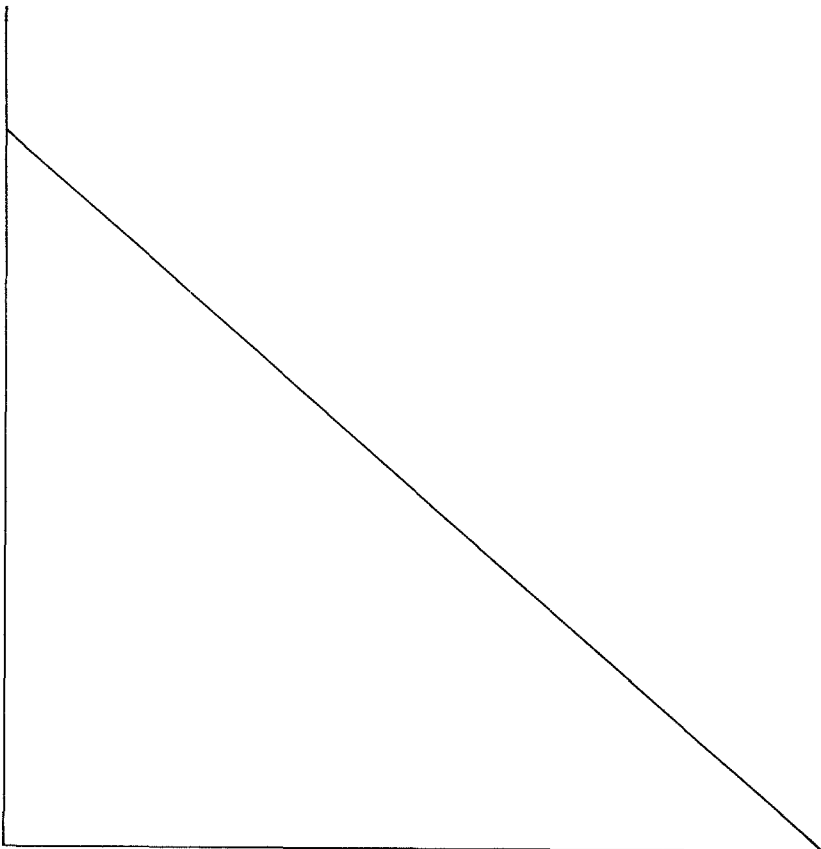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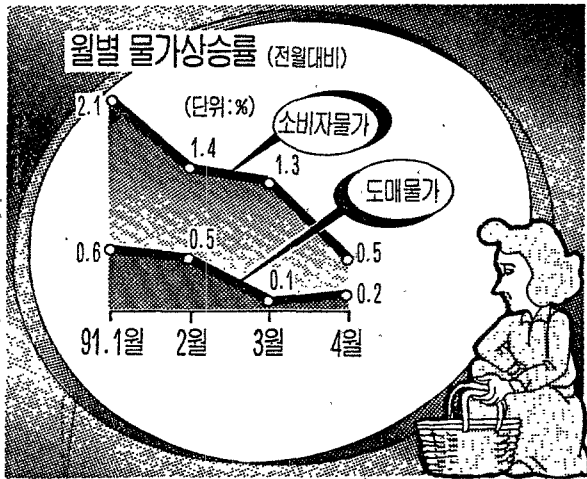
올들어 4월말까지 소비자물가가 5.4% 상승을 해 한 자릿물가 억제 효과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달중 물가 상승률은 0.5%로 물가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30일 경제기획원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물가동향에 따르면 이달중 소비자물가는 0.5%도매물가는 0.2%씩 올라 작년 말에 비해 소비자 및 도매 물가로 이달중 수산물값이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이달 중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확대 및 정부비축물량 무제한 반출 허용 방침의 영향으로 이달중 수산물값이 0.6% 하락하는 등 농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 공업용금속조정에 따른 물가 파급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이달중의 공업용금속 인상률도 0.7%에 그쳤다.

그러나 집세가 지난 3월 중 0.5% 상승에서 이달에는 0.8%로 오름세가 심화됐으며 개인서비스요금도 4월중 0.9%나 오르는데 이 둘 부분의 물가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개인서비스요금은

올들어 이미 11.9%나 오른 등 농수산물 가격의 제위주의 물가 정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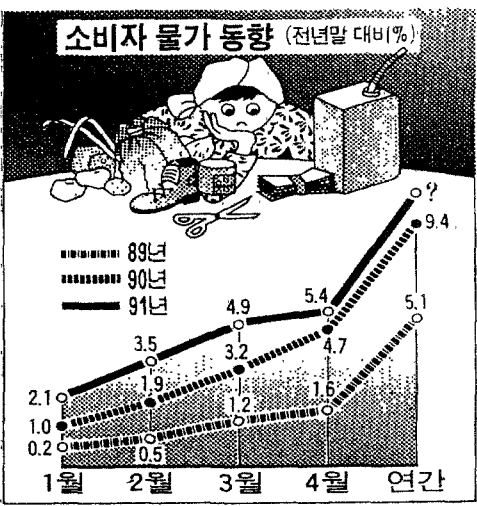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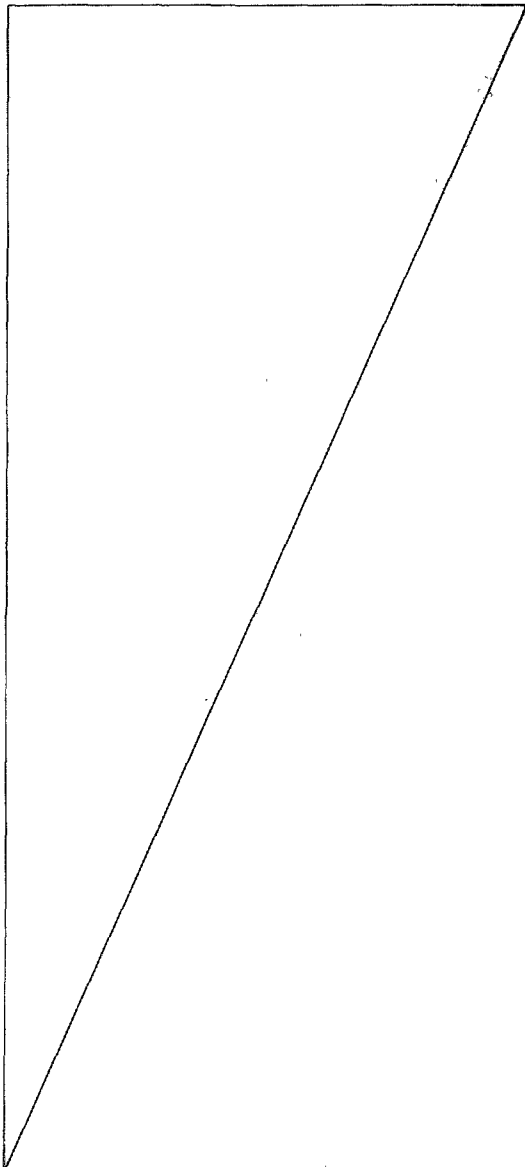


物價인플레이션 4월들어 다시 둔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 4월 들어 물가 상승률이 1.4%로 떨어졌으며, 1~4월 평균 상승률은 1.4%로 나타났다. 그러나 1~3월 평균 상승률은 1.4%로 나타났다. 4월 들어 물가 상승률이 1.4%로 떨어졌으며, 1~4월 평균 상승률은 1.4%로 나타났다. 그러나 1~3월 평균 상승률은 1.4%로 나타났다.

前月比 도매 0.2·소비자 0.5% 상승

4월 들어 소비자물가가 전월보다 0.5% 상승했다. 1~4월 평균 상승률은 1.4%로 나타났다. 그러나 1~3월 평균 상승률은 1.4%로 나타났다. 4월 들어 물가 상승률이 1.4%로 떨어졌으며, 1~4월 평균 상승률은 1.4%로 나타났다. 그러나 1~3월 평균 상승률은 1.4%로 나타났다.



20%포인트를 밑돌았다. 4월 들어 물가 상승률이 1.4%로 떨어졌으며, 1~4월 평균 상승률은 1.4%로 나타났다. 그러나 1~3월 평균 상승률은 1.4%로 나타났다. 4월 들어 물가 상승률이 1.4%로 떨어졌으며, 1~4월 평균 상승률은 1.4%로 나타났다. 그러나 1~3월 평균 상승률은 1.4%로 나타났다.

뛰어난物價 주춤... 올해 '한자리수' 가능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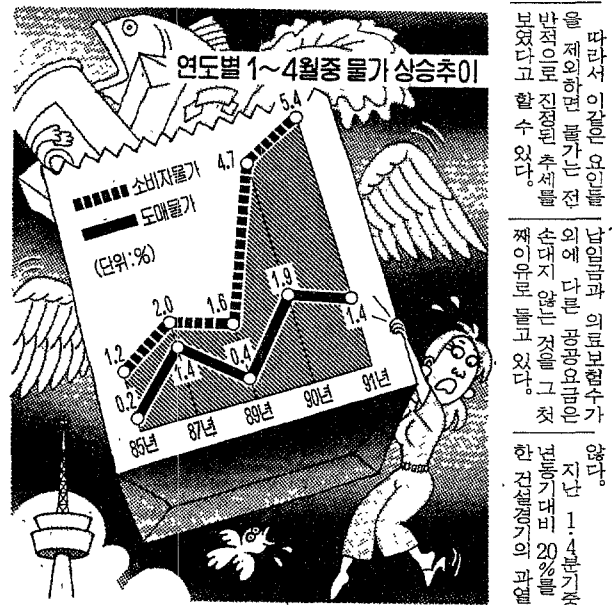
비핵화 협상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안건 등 외교 분야는 물론 4월의 물가 상승률도 소폭 하락했다. 4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4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4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건설過熱·광역선거 등 불안요인 잡둑

공산품값 안정·하반기 油價인하 가능

4월 소비자물가 전달보다 둔화됐으나 곳곳에 '보병'

30일 경제기획원의 발표에 따르면 4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4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4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그림> 柳基濤

4월 소비자물가 부문별 상승률

구분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1년 전 대비
총합	0.5	7.3(2.14)	13.0
·공산품	0.6	7.4(1.42)	14.4
·숙산물	1.2	5.8(0.31)	8.6
·수산물	△0.6	8.4(0.40)	12.3
·공공요금	0.2	2.1(0.55)	5.8
·공공요금	0.7	7.0(1.38)	6.9
·공공요금	0	0	11.8
·서비스	0	0.2(0.01)	6.7
·서비스	0.8	2.5(0.31)	13.5
·서비스	0.9	11.9(1.03)	18.1
·서비스	0.5	5.4	10.1

이와 관련, 물가당국자는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에 기름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내수물가 상승을 억제할 계획이다. 하반기 물가 상승률도 1% 이하로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4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4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이러한 가운데, 하반기에 기름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내수물가 상승을 억제할 계획이다. 하반기 물가 상승률도 1% 이하로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가운데, 하반기에 기름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내수물가 상승을 억제할 계획이다. 하반기 물가 상승률도 1% 이하로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社說

4월物價둔화 지속시킬 對策을

物價오름세가 지난달에 많이 鈍化된것으로 나타났다. 한달간 동향에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일단 반가운 현상임에 틀림없다. 연초이래 줄곧 큰 폭으로 오르던 물가가 모처럼 수그러드는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4월의 소비자물가상승률 0.5%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월간상승률이다.

정부는 앞서 물가가 2·4분기에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바 있다. 연초 물가상승을 主導했던 농수산물값이 출회중가로 안정될 것이며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인상도 대충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4월중 물가동향은 이같은 당국의 예측이 어느정도 적중했음을 뜻한다.

그러나 물가가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폭적인 상승세에 머물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녀달동안에 이미 5.4%나 올랐을뿐 아니라 불안요인이 너무나 많다. 건설경기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廣域의회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가하면 정부는 전기료와 휘발유값, 상하수도료등을 조만간 올릴 태세이고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차츰 윤곽이 드러나고있는 주요 기업들의 올해 임금인상률은 지난해 못지않은 수준이 될 조짐이다. 또 통화가 팽창했다는데도 기업들은 극심한 자금난과 高金利를 불평하고있다.

한마디로 물가는 여전히 불안하다. 2·4분기에 다소 안정세를 띠는지 모르지만 하반기에는 불안해질 위험이 많다. 廣域의회선거가 하반기물가에 영향을 미칠게 분명하고 지금은 안정세인 國際油價가 성수기를 맞아 들먹일 위험이 있다.

물가는 어떻게해서든 잡아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이고 보다 치밀한 대책과 接近이 필요하다. 정부도 여러모로 노력은 하고있다. 그러나 산만하고 초점이 없으며 따라서 효과가 의심된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인플레이션心理를 진정시켜야한다. 政局과 社會가 안정되고 정부시책이 신뢰를 회복하여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생활할수 있게 해야한다.

다음으로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이 적정한 통화관리라든가 물자需給의 均衡이다. 정부는 지금 통화량증가율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인상인데 그래서 안된다. 돈의 흐름을 바로잡아 서비스산업과 부동산대신 생산쪽으로 돌려야한다. 민간저축을 유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축증대는 통화수축과 기업의 파다한 금융비용 경감에 기여할 것이다.

廣대통령은 어제 過熱건설경기의 鎮靜을 경제장관들에게 촉구했는데 물가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일 같지만 자칫 집값 부동산값 불안을 야기할 위험에도 留意해야할 것이다.

국내景氣 여전 혼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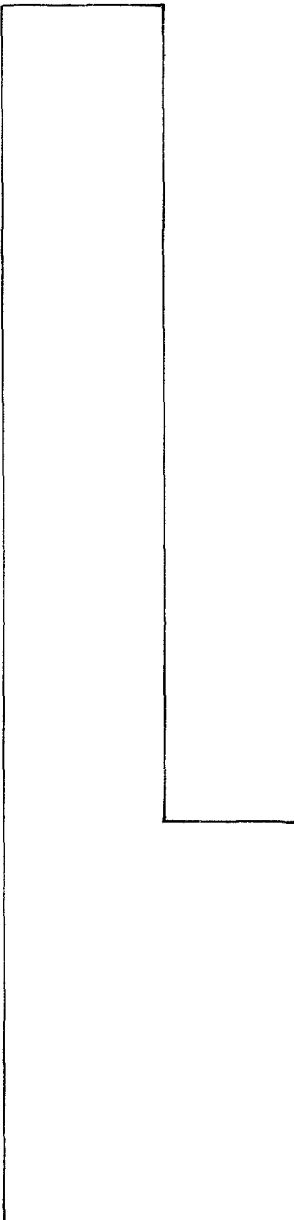
統計廳 발표 3월 경기동행지수 0.6% 감소

제조업稼動率 1% 줄어

2.4분기엔 회복세 可視化전망

경기가 크게 혼조될 것이라는데와는 달리 국내경기는 여전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동행지수의 3월 동행지수(연평균)는 2월보다 0.8% 증가하는데 그쳤고 출하 0.3%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가동률은 79.7%에서 78.7%로 낮아졌다. 부동산도 크게 위축돼 3월 중 국내기제조업체의 수주 감소폭이 6월계의 경제예고하는 경기동행지수도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제조업 생산가동률은 3월 동행지수의 하락으로 인해 3월 동행지수가 줄어 생산과 출하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4분기에는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1.4분기 전체로 보면 출하증가율은 지난해 1.4분기 9.8%에서 올해는 10.3%로 제조업 생산가동률은 80.5%에서 80.8%로 다소 높아졌다. 생산증가율은 8.3%에서 8.2%로 둔화됐다. 수출증가율은 6.1% 감소에서 3% 증가로 돌아섰고 내수용 소비재출하도 12.8% 증가했다. 국내기제조업체의 수주는 0.6% 기계류 내수출하는 13.7%, 공업용 건축 허가면적은 0.5% 증가에 머물러 지난해 1.4분기의 증가율을 크게 밑돌았다. 도소매판매(6.6%) 내수용 소비재출하(12.8%)도 지난해보다 둔화돼 내수 진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중 실업률은 2.7% (계절조정) 2.3%로 지난해 3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1년새 제조업취업자는 19만 5천명(4.1%), 사회적 일자리는 서비스업 취업자는 52만 7천명(5.4%)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규모가 지난해 3월보다 평균 7.4% 감소한 가운데 제조업체로 부터 발주 수주는 19.5%나 줄었다. 특히 부양기인 상업지역으로 신도시지역의 아파트건설여가가 지연됐다. 산업용건축물신규구제는 3월 동행지수가 1년전보다 1% 증가를 기록했다. 이윤인해 현재의 경기상태를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동행지수 수주(연평균)은 2월의 10.6%에서 6월계의 10.6% 감소했고 6월계의 경제예고하는 경기동행지수도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제조업 생산가동률은 3월 동행지수의 하락으로 인해 3월 동행지수가 줄어 생산과 출하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4분기에는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1.4분기 전체로 보면 출하증가율은 지난해 1.4분기 9.8%에서 올해는 10.3%로 제조업 생산가동률은 80.5%에서 80.8%로 다소 높아졌다. 생산증가율은 8.3%에서 8.2%로 둔화됐다. 수출증가율은 6.1% 감소에서 3% 증가로 돌아섰고 내수용 소비재출하도 12.8% 증가했다. 국내기제조업체의 수주는 0.6% 기계류 내수출하는 13.7%, 공업용 건축 허가면적은 0.5% 증가에 머물러 지난해 1.4분기의 증가율을 크게 밑돌았다. 도소매판매(6.6%) 내수용 소비재출하(12.8%)도 지난해보다 둔화돼 내수 진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중 실업률은 2.7% (계절조정) 2.3%로 지난해 3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1년새 제조업취업자는 19만 5천명(4.1%), 사회적 일자리는 서비스업 취업자는 52만 7천명(5.4%)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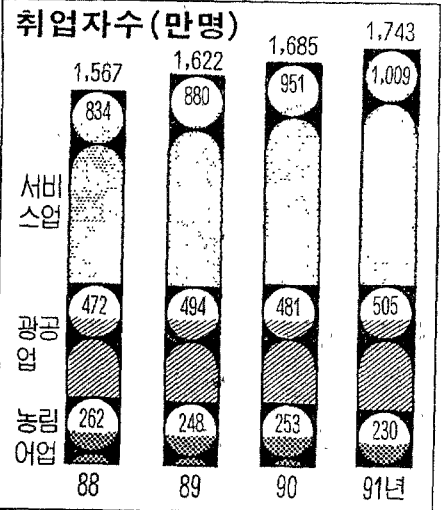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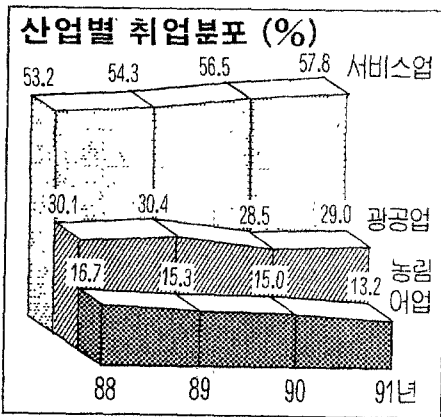


서비스업 취업

千萬명 넘어섰다

통계청 발표 근로자의 57.8%... 前年比 6% 늘어

연도별 1·4분기 취업구조



서비스업 취업자의 70%인 36만 8천 명은 서울 釜山 大邱 仁川 光州 大田의 6대 도시에 55%인 28만 8천 명은 서울 仁川 京畿道の 수도권에 38%인 20만 3천 명이 서울에 몰려있다. 한편을 1·4분기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인구는 1천 7백 96만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57만 6천 명이 증가, 경제활동참가율이 57.6%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88년 통계청 발표 1·4분기(1~3월) 중 취업자의 취업자는 1천 7백 43만 2천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58만 6천 명(3.5%) 늘었다고 발표했다. 산업별로는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한 서비스 부문이 1천 8만 5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57만 1천 명(6.1%) 늘었다.

88년 통계청 발표 1·4분기(1~3월) 중 취업자의 취업자는 1천 7백 43만 2천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58만 6천 명(3.5%) 늘었다고 발표했다. 산업별로는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한 서비스 부문이 1천 8만 5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57만 1천 명(6.1%) 늘었다.

서비스 부문에 건설업 취업자는 1·4분기 현재 1만 36만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0만 9천 명(18.2%) 증가했다. 13만 1천 명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 취업자는 4년 전인 지난해 8만 1천 4백 84만 6천 명에 비해 60.8%나 증가, 건설업 취업자의 비중은 29.4% 수준에 못 미치는

서비스업 취업자 비율은 1·4분기 기준(88년) 53.2% △89년 54.3% △90년 56.5% △91년 57.8%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편을 1·4분기 중 제조업 취업자의 비율은 28.6%로 작년 동기(28%)보다 높아졌으나 지난해 88년과 89년 동기 각각 29%와 29.4% 수준에는 못 미치는

그러나 실업률은 작년 2·4분기(4·6월)의 2.1%를 최저로 조급해 보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서울과 大田의 4.3%를 비롯, 6대 도시의 평균 실업률은 4.1%에 이르르고 있다. 실업자의 70%인 36만 8천 명은 서울 釜山 大邱 仁川 光州 大田의 6대 도시에 55%인 28만 8천 명은 서울 仁川 京畿道の 수도권에 38%인 20만 3천 명이 서울에 몰려있다.

건설 도소매 유통 숙박업 등 서비스 부문의 3차 산업 취업자가 1천만 명을 넘어 전체 취업자 중 57.8%에 이르렀다. 제조업 취업자도 작년 하반기 이후 다시 늘었다. 제조업 취업자도 작년 하반기 이후 다시 늘었다. 제조업 취업자 중의 구성비율이 지난 88년과 89년 같은 기간에 비해 2%포인트 상승했다. 이 같은 현상은 선진국에 비해 취업률의 상승이 서비스 부문 편중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농림어업 부문의 취업자 비중이 13.2%로 떨어지고 있다.

과연에 따른 인력유입의 급속함을 보여준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88년 1·4분기(4백 54만 명)보다 9.7% 늘어나는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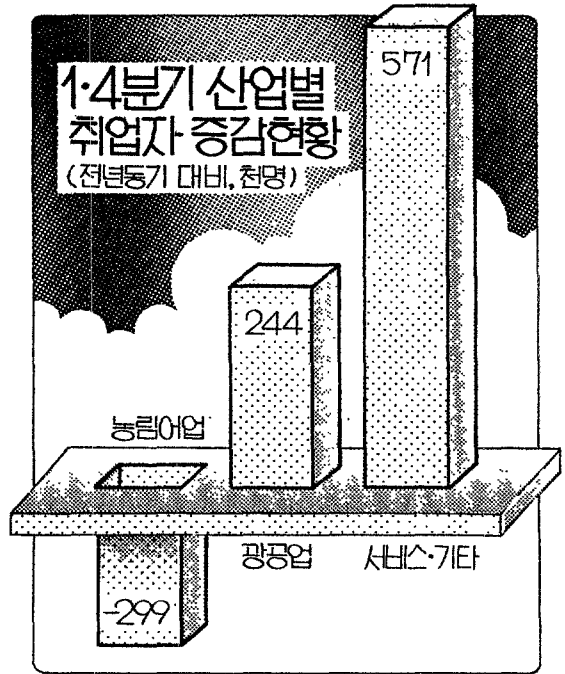
이와 따라 전체 취업자 중 서비스업 취업자 비율은 1·4분기 기준(88년) 53.2% △89년 54.3% △90년 56.5% △91년 57.8%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편을 1·4분기 중 제조업 취업자의 비율은 28.6%로 작년 동기(28%)보다 높아졌으나 지난해 88년과 89년 동기 각각 29%와 29.4% 수준에는 못 미치는

建設業 百36萬명... 18% 증가 제조업 4百98萬명... 9.1% 감소

곳은 濟州道 仁川 全南 蔚山 慶尙의 순이다.

서비스업 종사자 千萬명 돌파

통계청 총취업의 57.8%... 제조업 28%



건설·도산패업 등 서비스업 분야의 인력전공이 계속 돼 올 1·4분기 중 1,533명(서비스업은 3차산업취업자)은 1차산업분야에서 취업자는 1천만명을 넘어 전

또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하반기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의 구성비율은

해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91년 1·4분기 고용동계'에서 나타난 통계청 서비스업 분야 인력전공이 계속되면서 광공업 분야의 대도시 집중현상을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취업발표자료를 보면 아직까지 인력이 제조업보다 건설업과 도산패업, 농림·수산업 등 서비스업 분야

인력 대도시 집중... 고용구조 왜곡 뚜렷

아무를 막론하고 우리나라라고 용구초의 비관적이지 못한 현상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올 1·4분기 중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기 대비 26만명(5.5%)이 늘어난데 반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 분야는 57만1천명(6%)이 증가, 제조업에 비해 2배 이상 취업자가 늘

특히 서비스업 분야 중에서도 건설업 취업자 비중이 1·4분기 중 1백36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0만9천명(12.8%)이 늘어 제조업에 거의 가까운 규모로 증가했고, 도산패업은 13만1천명, 기타업종은 13만3천명이 각각 늘었다. 이 같은 서비스업 분야로의 고용집중현상은 상대적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부문의 인력난을 반영하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이상과 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 등 제조업 부문의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설경기 성장의 토대를 이루는 제조업 부문의 인력난 해소 를 위해서는 건설업 등 서비스업 분야의 인력전공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 盧應根 기자 >

통계청이 8일 1·4분기 중 전국의 취업자는 1천7백43만2천명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58만6천명(3.3%) 늘었다고 발표했다. 산업별로는 사회간접자본을 포함한 서비스업 분야가 1천80만9천명으로 1년전에 비해 57만1천명(6%)이 늘었으며, 광공업은 5백5만명으로 24만4천명(5.1%)이 증가했다. 반면 농림어업 취업자는 2백20만7천명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22만9천명(9.1%)이 늘었다. 이에 따라 올 1·4분기 전

취업자 중 서비스업(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취업자 비중은 57.8%로 88년 53.2% ▲89년 54.3% ▲90년 56.5%에 이어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편 광공업에서 광업은 제조업 취업자의 비율은 28.6%로 작년의 28%보다 높아졌으나 88년(20%)과 89년(20.4%)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 농림어업 취업자의 비율은 88년 1.4분기의 16.7%에서 90년 15%로 1·4분기 13.2%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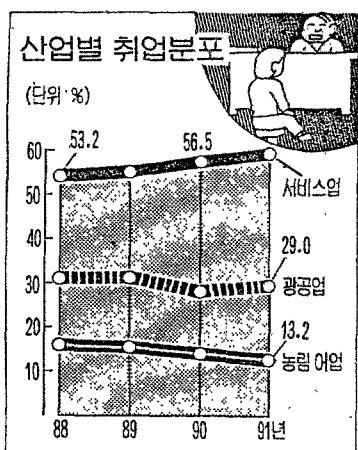
한편 1·4분기 중 산업별 취업자 중 서비스업 취업자는 92만8천명, 광공업은 290,000명, 농림어업은 299,000명, 도산패업은 11만명, 건설업은 109,000명, 기타업종은 13만3천명, 서비스업 분야는 69.7%인 36만8천명, 도산패업은 6대도시의 평균인 4.1%로 9개도의 평균인 1.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 취업률은 6대도시의 경우 서울·대전이 각각 4.3%로 가장 높았고 대구(4%) 부산(3.9%) 인천(광복) 3.8% 등의 순이다.

서비스업雇傭 1,008만명

전체 근로자의 58%... 前年比 6% 증가
失業率 2.9%... 작년 4월 이후 增加勢

통계청, 1·4분기 실태조사

통계청이 발표한 1·4분기 실태조사 결과, 서비스업의 고용이 크게 늘었다. 전체 취업자 중 서비스업이 58.5%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다. 실업률은 2.9%로, 작년 4월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의 고용이 크게 늘었다. 전체 취업자 중 서비스업이 58.5%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다. 실업률은 2.9%로, 작년 4월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의 고용이 크게 늘었다. 전체 취업자 중 서비스업이 58.5%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다. 실업률은 2.9%로, 작년 4월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의 고용이 크게 늘었다. 전체 취업자 중 서비스업이 58.5%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다. 실업률은 2.9%로, 작년 4월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의 고용이 크게 늘었다. 전체 취업자 중 서비스업이 58.5%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다. 실업률은 2.9%로, 작년 4월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의 고용이 크게 늘었다. 전체 취업자 중 서비스업이 58.5%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다. 실업률은 2.9%로, 작년 4월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의 고용이 크게 늘었다. 전체 취업자 중 서비스업이 58.5%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다. 실업률은 2.9%로, 작년 4월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의 고용이 크게 늘었다. 전체 취업자 중 서비스업이 58.5%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다. 실업률은 2.9%로, 작년 4월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의 고용이 크게 늘었다. 전체 취업자 중 서비스업이 58.5%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다. 실업률은 2.9%로, 작년 4월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失業者 총 52만명 1分期

6대도시 70%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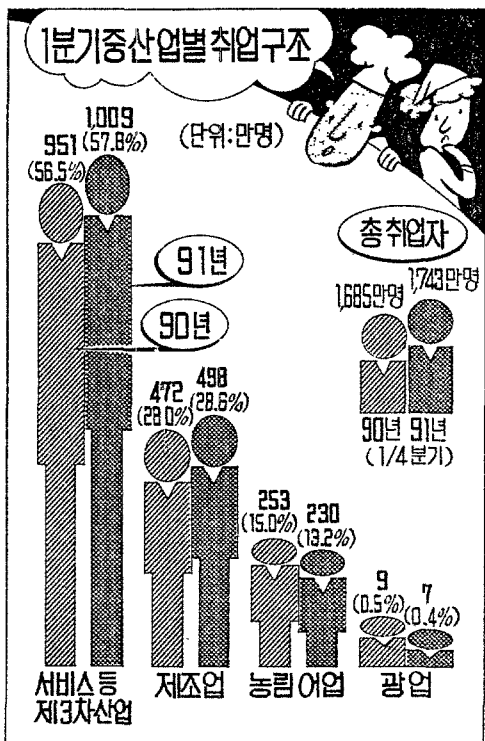
3차산업 취업자 계속 감소

統計廳 失態조사
 지난 서비스업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다소 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중 취업자는 1천743만명(174분기)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이중 서비스업은 1천174만명(67.4%)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제조업은 498만명(28.6%)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다. 농림어업은 230만명(13.2%)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다. 광업은 9만명(0.5%)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다.

서비스업 취업자 중 3차산업 취업자는 1천009만명(57.8%)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472만명(28.0%)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다. 농림어업 취업자는 253만명(15.0%)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다. 광업 취업자는 7만명(0.4%)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大田의 실업률이 각각 4.3%로 최고수준을 보였으며, 大邱(4%)·釜山(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실업자 중 69.7%인 36만8천명이 서울에 6대



지역별로는 서울과 大田의 실업률이 각각 4.3%로 최고수준을 보였으며, 大邱(4%)·釜山(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실업자 중 69.7%인 36만8천명이 서울에 6대

社說

就業人口의 서비스업 편중

사회간접자본을 포함한 서비스부의 취업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섰으므로 총취업인구의 57.8%를 차지하고 있다. 1981년 1·4분기 고용총계는 1천 9백 90만 명에 대한警告的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취업인구의 서비스업 집중현상(先進國과 비교해 본다면 아직은 80년대 수준인)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 경제수준이나 산업발전 속도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다. 水位이며, 최근 제조업의 인력難란 보더라도 그 심각성은 짐작하고도 남을 정도이다.

그러나 또 한 심각한 것은 취업인구의 서비스업 집중현상의 모순적 현상(한편으로는 과잉인공, 한편으로는 인공 부족)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우리 사회에 그러한 風潮가 팽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또 그것이 고용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서비스부 내부에 건설부문 취업자가 작년 대비 18%, 89년 대비 5%나 늘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취업인구의 서비스업 집중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건설현장의 작업내용이 제조업의 그것과 비교해서, 받느시, 현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몰리는 것은 경기과열로 인한 人力難과 그에 따른 高賃現상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때문에 고용구조 왜곡의 책임은 「현」은 일기피공조에서 찾는다. 89년 이후 가속되기 시작한 건설현장의 과열현상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지 못한 정책당국의 몫은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취업인구의 서비스부 집중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것은 합당한 기피공조와 함께 이러한 정책의 偏向性이나 실업률의 사고방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고용구조를 우리 경제 수준에 알맞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면에서의 漏水현상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社說

3차산업에만 몰리는 雇傭構造

統計廳이 발표한 올 1·4분기 「경제활동인구통계」를 보면 대총 47만 명이 줄었다. 전체적으로 취업자수는 늘고 있으며 따라서 실업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 그 가운데 3차산업 취업인구가 가장 활기차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6대 도시 취업자수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서 노동력의 도시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농림어업부문은 취업자수가 감소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 4가지 사실을 貫通하고 있는 것은 노동력의 3차산업집중이다. 현재 우리경제가 불안한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3차산업의 활황을 그 中心에다 두고 있다. 특히 건설경기가 그렇다. 이것이 끼치는 産業關連효과 때문에 지금 제조업의 內需경기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 취업자수도 늘고 있는 것이다. 노동의 도시집중심화현상도 부분적으로는 3차산업의 주도에 그원인이 있다.

3차산업의 고용확대는 경제발전에 수반되는 매우 정상적 진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콜린 클라크(Colin Clark)가 세계경제의 모델을 가지고 이를 검증한 일도 있어서 이를 클라크의 法則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다른나라의 경험과 한국의 현황과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선진국의 과거경험은 3차산업은 고용구성비는 늘지만 소득구성비는 대체로 정지해 있고 제조업은 반대로 고용구성비는 그대로 있는 반면 소득구성비는 올라갔다. 8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의 경우는 3차산업이 고용과 소득 두 측면에서 그 비중이 급속히 커져 가고 있다. 이것은 일시적인 과열의 탓으로 보인다.

잘 알려져 있는대로 이것은 주거건물과 도시의 상업용건물 건축호황에 기인한 것이다. 이 호황도 그 성격에서 보면 경제발전 과정에서 한번은 겪고 지나가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인 것 같기도 보인다. 그러니까 이 법칙대는 건축호황이 그 주위에 몰고 오는 불안한 풍성함이 한국경제의 현재 경기국면이다. 제조업은 일손이 없어 대체로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임금이 오르는 것은 노동조합의 強性대응 이전에도 이미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건축업의 경기를 지원해주느라 하고 또는 달리 말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적 規模의 이른바 「내집마련」을 시급히 해결해주느라 하고 통화는 계속해서 풀려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돈은 또 그래서 귀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인플레이는 임금상승과 통화팽창의 필연적 결과이다. 이것은 우리경제의 거시적 지표를 구성구석 찌그러뜨려 놓고 있다. 그리고 자원이 주택과 상업용건물건축에만 쏠리는 바람에 시급한 社會間接資本건설이 뒤로 밀리게 되고 그래서 産業활동과 국민의 生活이 참을 수 없이 짜증나는 경지에 이를만큼 시달리게 되었다.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이점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지금과같은 3차산업주도의 활황은 장기적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척도는 못 된다. 증권시장의 위축이 이것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財政과 금융을 통한 거시경제적 對應이 꼭 필요한 때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않았던 경제적 難局이 올지도 모른다.

불건전한 就業構造

서비스業에 千萬名이 몰리고 있다

社說

통계청의 지난 8일 발표한 「91년 1·4분기 지역별 고용률」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就業構造가 지나고 있는 무제점을 이 초월하고 있다. 경제발전단계를 비추고 보면 불건전한 고용구조의 초입에 서 있다. 서비스業의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53.2%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취업자의 53.2%에 비해 급속하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건설업 취업자는 1·4분기 1백36만명(88년 同期 대비 21만명)이나 늘었다. 18.2%의 급속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 88년 1·4분기에 건설업 취업자는 85만명에 불과하였는데 불과 3년 동안의 무려 60.8%나 취업자가 증가하였다. 이는 결국 建設業의 과잉도 일부에 불과하나 앞으로는 이 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

한편 1·4분기 중 광공업 부문에 취업한 사람은 모두 5백5만명으로서 총 취업자가 무려 2차산업의 점유율인 비율은 약 29%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광공업부의 취업자수는 약 7만명(전, 지난해에 비해 무려 18.6%나 감소하였)이며 1만6천명이 줄어 들었다.

총 취업자가 증가해서 제조업부문의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91년 1·4분기에 28.6%로 지난해의 29%에 비해 오히려 줄어 들었다. 이 결과 서비스業의 사람들이 과다하게 불건전한 고용구조에 몰리고 있다. 특히 제조업부문의 인원이 그 폭이 10% 이상 줄어든 수를 보인다. 한편 농업 취업자수는 2백30만명으로 0.9% 감소한 13.2%에 불과한데 이 지난해 88년 1·4분기의 16.7%에 비해 급속하게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就業構造의 추이를 보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경제 발전단계에 걸맞지 않은 제조업부문의 취업자 구성비인 오히려 감소하면서 3차산업의 취업자 구성비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다. 3차산업의 비중도 건설업에 인력이 과다하게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부산업을 추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건설업의 급속하게 상향하면서 그 파급효과가 다른 모든 산업 부문에 미쳐 전 산업 인입을 상충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한편 일부 제조업의 경쟁력도 산업에서 볼 때 제조업부문의 취업자 구성비인 지부산업을 훨씬 더 높아야 한다. 그 민영화 제조업의 인원을 다들 부분에 배양하기 위한 의 지면의 양이 안정되면 지부산업을 추락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 때문에 제조업부문의 인원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조업부문의 인원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조업부문의 인원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자기중의 정당한 채용보다 어렵게 될 것이다. 정부의 기본적인 책임은 勞動力의 제조업을 떠나서 서비스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경제적인 誘因제도를 설치하는 것이다. 즉 金融이나 稅制 면에서 노동력을 포용할 모든 자원이 서비스業보다는 제조업부문의 고용자들이도록 하고 안정적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거의 예를 보면 남미에서 고사차적인 서비스業부문에 대해서도 금융·세제 측면에서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데도 이 부문에 노동력이 몰려들었다. 이 때문에 정부에 노동력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제재가 인센티브로 대체될 수 있다. 이 제재가 인센티브로 대체될 수 있다. 이 제재가 인센티브로 대체될 수 있다.

서비스業에 1천만명이나 몰려 있으면서도 제조업부문의 人力難에 허덕이고 있는 현상(인력 부족)이 반복될 수 있다.

90년 都市가계收支 동향 통계청 조사

발표 수치가 높고 도시근교 지역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 도시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 도시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지출

전국구와 구단위별 소비지출은 88년 5천6백92원, 89년 5천9백87원, 90년 6천8백74원으로 15.4% 증가했다. 특히 상품지출이 6.3%에 그쳤다. 상품지출이 86년 6.3%, 87년 11.6%, 88년 9.3%, 89년 20.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과소비 현상의 다소 누그러졌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 보면 수도권 소비자가 2천9천5백92원, 전년대비 15.8% 증가했다. 소비지출이 수도권 소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2.9%에 비해 89년의 51.9%의 비중에 0.1%포인트 올랐고 90년 53.0%로 나타났다. 수도권 증가하는데 지역별 일일계수가 높고 있는 것만 봐도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관제지역 제외이다.

수도권 소비지출 비중이 높아진 것은 농산물지출이 농수산물 가격의 상대적 인위적 하락 때문. 또 식생활변화의 변화로 도시 소비지출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수도권 소비지출 비중이 8.3%에 그친 반면 외선 및 기타 지역은 22.0%나 늘었다. 수도권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21.8%나 늘었다. 소비지출 항목별로는 주거비를 제외한 항목은 거의 대부분 증가했다. 특히 주택수입이 전년대

소비지출 月 68만원.. 過消費 주춤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식생활변화 등으로 농수산물값이 높아지는 등 소비패턴도 크게 변화됐다. 지난해 도시가계수지 동향을 부문별로 요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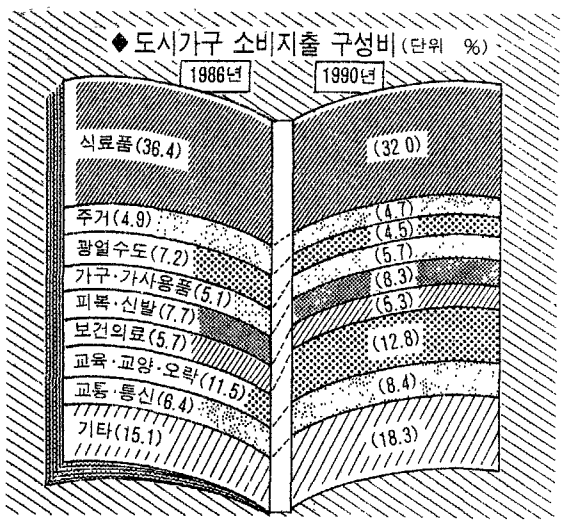
의용 자녀보충 교육비 부담 증가로 16.7%나 지출이 늘었다. 반면 보건 의료비, 광열수도비, 피복 신발비 지출은 가율은 각각 11.1%, 11.7%, 13.3%로 평균(15.4%)보다 낮은 증가에 머물렀다. 가계수지 동향은 전년보다 17.2% 늘어났다. 반면 그보다 증가의 폭을 평균 소득은 94만3천2백72원으로 전년보다 17.2% 늘어났다. 그러나 불가산항을 감안한 실질증가율은 7.9%로 86년 8.7%, 87년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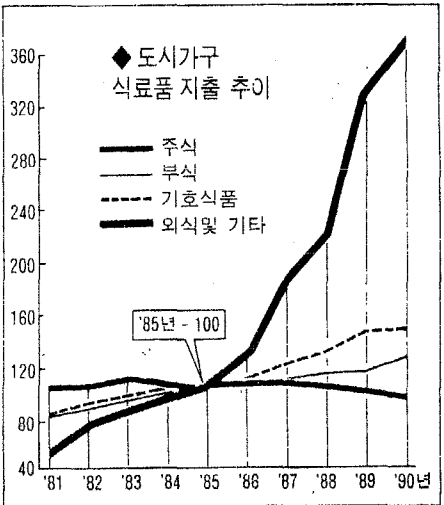
住居費 22%증

家口평균

신품값영

교육용 신바도 17.0% 증가했는데 이는 자가용 구입 유지를 위한 개인교통비가 30.2%로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교육용 신바도 과





다. 7천8백11만원으로, 89년보다 11% 증가했다. 이 가운데 도시가구 근로자가 37.1%, 시·군·읍·면 주민이 3.9%, 가구당 취업자수는 1.4명이었다.

소득분포 소득계층별 분포를 보면 △15만원 미만인 전체 근로자가 1% △15만~30만원 2.8% △30만~45만원 7.9% △45만~60만원 15.2% △60만~75만원 17.3%로 분포한다.

가 가장 큰 부담 소득 45만원 이하 11% 넘어 향 엔겔계수 오르는 기현상

64만9천9백69만원의 기록, 15% 증가했다.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수지

구분	89년	90년	증가율(%)	
			89	90
가구소득(백만원)	38.86	37.14	0.4	0.8
주요소득(백만원)	3.98	3.97	△0.0	△0.3
기타소득(백만원)	1.42	1.43	0.7	0.0
가구소득(백만원)	804,938	943,272	24.5	17.2
주요소득(백만원)	631,281	723,035	28.2	14.5
기타소득(백만원)	561,650	649,969	26.7	15.7
주요소득(백만원)	69,631	73,066	4.9	4.9
기타소득(백만원)	173,657	220,237	26.8	1.7
주요소득(백만원)	23.6	25.3	△2.2	1.7

출입액(백만원)은 89년의 17만3천6백57원에서 22만3천9백43원으로 26.8% 증가했으며, 흑자율도 23.6%에서 25.3%로 높아졌다. 그만큼 생활수준이 높아졌고, 생활비를 절약해 꾸려나갔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87년의 26.4%, 88년 25.8%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흑자율이 낮은 편이다. 근로자가구 소득을 월별별로 보면 근로소득이 80만9천3백29원으로 16.5% 상승한 7.3%의 증가세를 보였다. 사회보장수입은 기타소득의 4%(상)인 1.8% 증가한 13만4천9백43원만 늘었다. 또 가구소득은 69만1천65원으로 1.1% 증가한 반면 가구원소득은 19.0% 증가한 75만7천5백74원으로

소득 75만원 미만의 하위계층이 전체의 44.2%를 차지했다. 이는 89년의 57.8%에 비해서 큰 폭으로 줄었다. 소득분포의 변화는 취업자 개수 증가와도 관련이 깊다. 그러나 △1백35만~1백50만 3.8% △1백50만~1백65만 3.8% △1백65만~1백80만 2.2% △1백80만~2백만원 3.0% △2백1만원 이상 4.2%로 상위계층이 16.2%를 차지, 전체의 10.9%보다 크게 늘었다. 소득분배는 개선되던데도 소득계층의 소득분배는 여전히 고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월평균 소득은 30만 원,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소득분포는 가구주 소득이 52만7천5백74원, 30대가 32만8천9백24원, 40대가 81만7천9백81원, 50대

◇근로자가구의 소득계층별 가계수지(1990년) <단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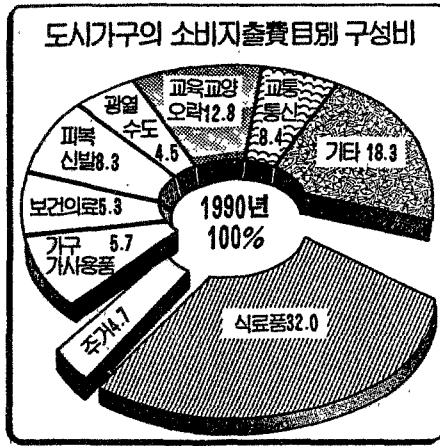
구분	소득계층				
	I	II	III	IV	V
소득	394,235	624,262	809,115	1,060,753	1,827,508
유로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기타소득(%)	8.4	13.2	17.1	22.5	38.8
소득	352,750	554,396	710,373	924,141	1,504,596
유로소득(%)	(89.5)	(88.8)	(87.8)	(87.1)	(82.3)
기타소득(%)	41,485	69,866	98,742	136,612	322,912
유로소득(%)	(10.5)	(11.2)	(12.2)	(12.9)	(17.7)
처분소득	372,593	588,464	757,831	981,336	1,650,373
유로소득(%)	1.3	19.4	23.6	26.5	32.9
평균소비성향(%)	98.7	80.6	76.4	73.5	67.1

가 84만6천4백20원, 60세 이상은 69만8천9백65원의 가장 낮은 소득지출이 나타났다.

지출분포는 30대 미만 일대는 전체가구가 많아 주거비 등의 지출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30대는 식료품비 40대는 의료비와 잡비 지출이 많았다. 노년기인 60대는 가구·가사용품·보건의료비의 지출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孫顯德기자△

住居費증가가율 27%로 최고



안한 실질소득증가는 7.9%에 머물렀고 가계 지출도 명목상으로는 14.5% 늘었으나 실제로는 5.4%밖에 늘지 않았다.

한편 우리나라 근로자가구의 상위 20%에 속하는 고소득계층이 전체 소득의 38.8%를 점유하고 있으며 상위 40% 소득계층의 점유비율은 57.9%에 달했다.

근로자가구의 소득계층별 구성비 <단위=천원>

계층	구성비 (%)	
	1989년	1990년
150 미만	1.2 (1.2)	1.0 (1.0)
150~300	4.9 (6.1)	2.8 (3.8)
300~450	14.2 (20.3)	7.9 (11.7)
450~600	19.7 (40.0)	15.2 (26.9)
600~750	17.8 (57.8)	17.3 (44.2)
750~900	12.6 (70.4)	14.0 (58.2)
900~1,050	8.9 (79.3)	11.6 (69.8)
1,050~1,200	6.0 (85.3)	8.0 (77.8)
1,200~1,350	3.8 (89.1)	6.0 (83.8)
1,350~1,500	2.8 (91.9)	3.8 (87.6)
1,500~1,650	2.0 (93.9)	3.0 (90.6)
1,650~1,800	1.5 (95.4)	2.2 (92.8)
1,800~1,950	1.1 (96.5)	1.7 (94.5)
1,950~2,010	0.9 (97.4)	1.3 (95.8)
2,010 이상	2.6 (100.0)	4.2 (100.0)

소지 지출을 비목별로 보면 △식품비가 21만 9천 5백 39원으로 전년 대비 15.8% 늘어났지만 △주거비(21.8%) △교통통신비(17.8%) △교육교양 오락비(16.7%) △기타 소비지출(15.7%) 등의 지출증가가율이 비교적 높았으며 △보건의료비(11.1%) △관광수도비(11.1%) △피복신발비(13.3%) △가사용품(13.7%) △교통수단비(13.7%) △통신비(13.7%) 등도 증가했다.

근로자가구 소득을 원천별로 보면 △근로소득은 22만 2백 37원으로 4만 6천 5백 80원이 늘어났고 흑자율도 25.3%로 89년의 23.6%에 비해 1.7%포인트 높아졌다.

固定給 上位 20%

근로자가구의 소득 5분위 계층별 가계수입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가구를 소득구분별로 5계층으로 나누어 결과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상위 20%(Ⅰ계층)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1백 82만 7천 5백 8원으로 밝혀졌다.

또 상위 21~40% 범위에 속하는 Ⅳ계층의 월평균 소득은 1백 6만 7백 53원, 41~60%의 Ⅲ계층은 80만 9천 1백 15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21~40%의 Ⅱ계층은 월평균 소득이 62만 4천 2백 62원, 가장 소득이 적은 하위 20% Ⅰ계층은 39만 4천 2백 35원이었다.

이에 따라 최상위 20% 계층의 월평균 소득은 전 해부터 4.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가구의 소득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높은 증가속도로 인해 심급품비와 주거교
통비부담이 크게 늘어남
에 따라 지난해 도시에
거주하고 있던 가구들은
숨겨이름을 여러 살림살이
를 비교적 진실하게 꾸
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 거주 가구가
운데 근로자가구의 작년
중 월평균 소득은 89년도
다액 상승 17.2% 늘어
났으나 증가속도를 감안

무려 61.3%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이 전국
62개시의 2천8백개 근
로자가구의 1천5백개
근로자가구 등을 총 4천
3백개 표본가구를 대상
으로 조사한 '90년 도시
가계 수지동향'에 따라
면 지난해 도시가구 전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75만5천3
백70원으로 89년의 65만

몇하게 진정된 추세를
나타냈다.
이같은 도시 거주 가구
의 실질소비증가율은 지
난 86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증가가 크게 오
트자가구 경이 불요불
급한 숨겨이름 가립적
출입에 따른 것으로 볼
이된다.
소비지출규모를 고정
금액을 받은 근로자가구
와 상인 경영자 등 근로

지난해 월평균 5만 5천
달러 고정금액을 받은 근
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
은 94만 3천 2백 72원 가
계지출은 72만 3천 35원
을 기록, 가계수지흑자는
89년의 17만 3천 6백 57

은 80만 9천 3백 29원이
로 89년의 69만 4천 5백
87원에 비해 16.5%의 실
질 7.3%를 보여주고
△기타소득(사회보장수
혜 및 私의 부조)은 13만
3천 9백 43원으로 전년
대비 21.4%의 실질 11.
8% 늘었다.
특히 근로소득 가운데
가구의 소득은 69만 1
천 65원으로 16.1%가
늘어난 반면 家口의
소득은 11만 8천 2백 64
원으로 19% 증가, 취업
증가 등으로 인해 가구주
보다 가구원의 소득증가
율이 더 높았다.

統計廳 90家計收支 동향

자가구로 나누어 보면
근로자가구가 64만 9천
9백 88원, 근로자가구가
75만 7천 8백 11원으로
로 분별 증감률 차보다 단
자영업자들의 숨겨이름
선로 등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 거주 가구의 세
금이자 사회보장수혜금
등 비소비지출은 전년
중

都市 근로자가구 합달 2만 원 흑字



월평균 6만 9천 7백 9
원이던 전년 대비 10.8
%(실질 2%) 늘어났다
데 그쳤다.

1家口 月 평균 94만원 벌어 최하위 20% 소득 4.6배

가계지출을 나누어 보
면 소비지출은 월평균
64만 9천 9백 88원으로
전년 대비 15.7%(실질
6.5%) 늘었고 비소비
지출은 7만 3천 68원
으로 전년 대비 4.9% 증
가했으나 실질분담은 하
려 3.4% 감소했다.
비부양 소비지출을 보
면 △주거비가 89년에
비해 무려 27.1%나 늘
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
을 나타냈는데 이가 원
세 및 주택수리비의 증가
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이되, 파다들이던 △교
통통신비(18.1%) △사
품(16%) △기타 소비지
출(15.6%) △보험료양
오란비(15.1%) 등이 비
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
였다.
한편 통계청이 분석한

라주거비에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음을 나타냈다.

임질係數 되레 상승

전체적인 소비지출은 15.7% (실질) 증가를 6.5% (노) 86년 이래 가장 낮은 추세를 보였다. 개별적인 지출 가운데 자동차, 주택 등 가구 구입비 증가는 32.4%, 소용차 구입 및 유지비가 증가 30.2%, 외식비 증가는 22% 등으로 평균 지출 증가율을 크게 웃돌아, 과소비 증가는 두드러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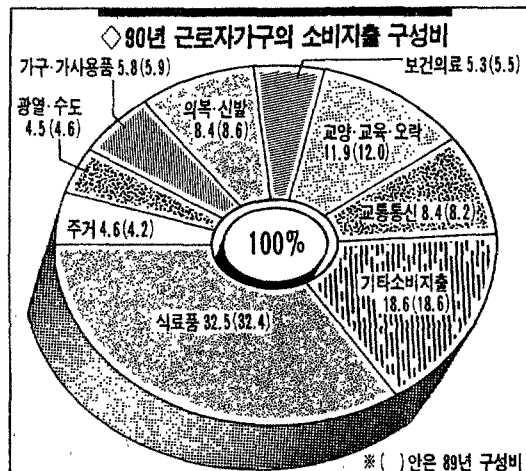
90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소득을 살펴보면, 가계수지 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94만 3천 2백 72원(90년 전년의 80만 4천 9백 38원에 비해 명목상 17.2% (실질 7.9%) 증가, 90만 원을 넘어섰다. 지출은 89년의 63만 1천 2백 81원에서 72만 3천 35원(노)로 늘었다. 14.5% (실질) 5.4% 증가, 가구당 월평균 월 2만 2백 37원의 흑

月평균소득 17%

자를 나타냈다. 이 기간에 흑자폭이 89년의 17만 3천 6백 57원에 비해 4만 6천 5백 80원이 증가한 것. 이에 따라 가계수지

집값폭등 등 반영 住居費 21.8% 늘어나 過消費·車구입유지·外食費 크게 증가

근로자의 가계지출은 94년 7월말 기준 72만 3천 35원으로 89년의 63만 1천 2백 81원에 비해 14.5% (실질) 5.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소비지출은 64



또가 장품은 증가율을 나타낸 주거비는 주택설비수리비가 41.6%나 올라 주거비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교통통신비가 4%

	89년	90년	증가율 (%)
소득 (원)	804,938	943,272	17.2
지출 (소비)	631,281	723,035	14.5
흑자	173,657	220,237	26.8

데 공공교통이용지출은 4.1% 증가에 그친 반면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지출은 30.2%나 증가, 도시근로자 한편, 세금·이자·보험비 등 비소비지출은 가구당 월평균 6만 9천 7백 원으로 89년의 6만 2천 9백 원에 비해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는 갑질세 감면과 따른 조세부담 증가가 두 현상 탓으로 풀이된다. 소득계층별 비교하면 로자가구를 소득수준별로 20%씩 5등분해 비교할 때 최하위 20%의 월평균소득은 39만 4천 2백 원, 그 다음 계층은 62만 4천 2백 원, 중상계층은 80만 9천 1백 원, 중상계층은 1백 6만 7백

들의 승용차 구입이 크게 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 기타 소비지출 가운데는 이 미용지출이 20.2%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는 화장품, 의복, 미용실 등의 지출이 포함된다. 그러나 공무원가운데 국회의원·장차관·신도시 등 파이에 추하는 고관급 부원 은 제외된다. 그러나 공무원가운데 국회의원·장차관·신도시 등 파이에 추하는 고관급 부원 은 제외된다. 그러나 공무원가운데 국회의원·장차관·신도시 등 파이에 추하는 고관급 부원 은 제외된다.

【李炳洙 기자】

통계청조사 「90년都市근로자家計수지」

지난해 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가구의 가계부는 월 평균 94만3천원 소득에 72만3천원을 지출, 각각마다 매월 약 22만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마찬가지로 89년에 비해 약 13만8천원이 늘었고 흑자폭도 4만6천5백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전엔 소득증가가 예도 볼 수, 소비지출증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영월계수는 89년 31.9에서 32.0으로 0.1%p 증가, 주부들의 장마쿠니물가가 크게 올랐음을 반영했

다. 특히 소비지출 가운데 주거비는 89년에 비해 21.8%나 늘어난 반면, 교통의 증가를 나타내 도시근로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늘어 94만3천원

흑자율은 25.3%로 89년 23.6%보다 1.7%p포인트가 높아졌다.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 소득은 80만9천3백29원으로 전년 대비 16.5%가 증가, 그중 연의 인건비 상승세를 반영했다.

그러나 전체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85.8%로 89년보다 0.5%p포인트가 감소, 근로소득 이외 가족들의 부수입이 전체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당 평균 인원수는 3.99명, 평균 취업자 수는 1.3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료품비는 전체 소비지출 가운데 32%를 차지, 지난해 31.9%보다 높게 나타나 영월계수가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

소비를 줄였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지출증가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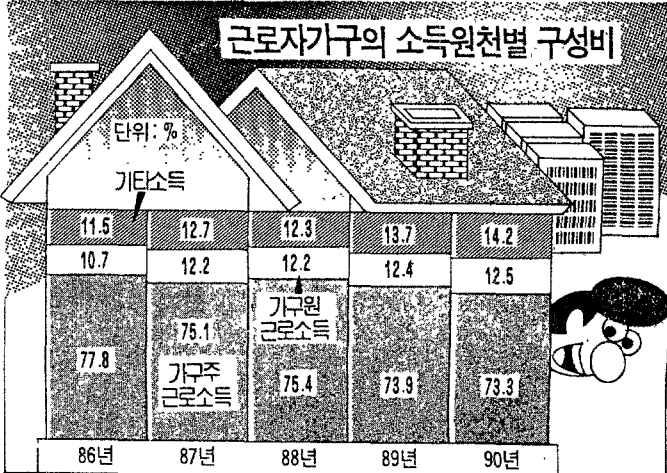
소비를 줄였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가비가 21.8%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교통비는 17%, 교육·오락은 16.7%, 식료품 15.8%의 순을 나타냈다.

소비지출증가세 둔화

소비를 줄였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가비가 21.8%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교통비는 17%, 교육·오락은 16.7%, 식료품 15.8%의 순을 나타냈다.

소비를 줄였을 것으로 보인다.

家口當지출 72만3천원... 22만원 赤字



원, 최저계층은 1백82만7천5백원으로 집계돼 최하 20% 계층과 최상 20% 계층 간에 4배 이상의 소득수준 차를 나타냈다.

또 월소득이 60만원 미만 인 가구는 전체의 26.9% (89년 40%), 60만~1백50만원 미만은 60.7% (89년 51.9%), 1백50만원 이상 상위계층은 9.4% (89년 6.1%)로 나타났다.

소득 15만원 미만 1% 또한 월소득이 15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전체의 1%에 달한 반면, 2백1만원 이상의 근로자가 4.2%로 89년 2.6%에 비해 크게 늘었다.

조사방법 도시근로자가 구조사에 대상이 되는 근로자란 크게 분류

도시근로자가구 주거費 부담 27% 늘어

통계청 작년 도시가계收支동향

지난해 전월세를 주택가격 상승효과로 도시근로자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1년 전보다 무려 27.1%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에 따라 도시근로자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85년 후 5년만에 최저 수준인 7.0%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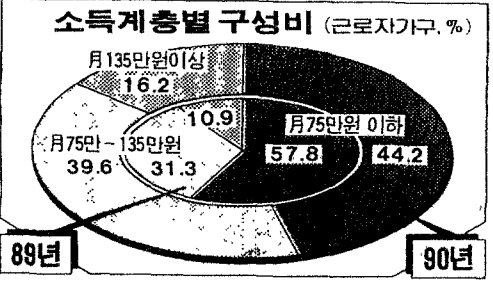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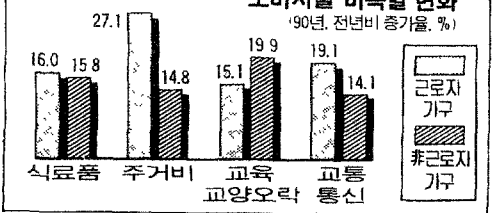
또 소비지출 증가폭이 소득 증가보다 낮아 씀씀이가 전월세와 마찬가지로 흑자비율이다. 소비가졌다.

11월 분세전인 전국 62개 시의 도시근로자가구 2천80백여, 비도시근로자가구 1천5백여 등 4천3백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90년도 시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가구의 실질소득은 94만 원으로 89년 87만 7천 2백 원으로 1년 전보다 7.2% 늘어났으나 주거비용을 감안한 실질증가율은 7.0%로 85년의 4.5% 이후 5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은 전년보다 15.7% 늘어났지만 64만 원으로 89년 69만 원에 비해 7.3% 감소했다. 이가 전월세와 마찬가지로 흑자비율(89년 23.6%보다 낮다)을 기록한 25.3%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와 의사·법률사

실질소득 증가율 7%... 5년만에 최저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수지

구분	89년	90년	증가율 (%)
가구당 인원(명)	3.93	3.97	1.0
가구당 취업인원(명)	1.42	1.43	0.7
소득(원)	804,938	943,272	17.2
지출(원)	631,281	723,035	14.5
저축(원)	561,650	649,969	15.7
소비지출(원)	69,631	73,066	4.9
저축률(%)	73.6	73.6	0.0
소비지출률(%)	23.6	25.3	7.2

평균 94만원 벌고 65만원 지출
 씀씀이 건실... 흑자비율 25.3%
 외식비 지출이 주식費 웃돌아

반면 비근로자가구는 주거비는 14.8% 증가에 그쳤으며 자녀의 교육비용 부담

등 자영업종사자를 포함한 비근로자가구의 경우 소득이 모든 항목에서 앞섰으나 소비지출액은 평균 75만 7천 8백 11원으로 근로자가구보다 앞섰습니다.

포함한 교육교양 오락비 지출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음을 이뤘다.

전가구의 실질지출내역을 보면 살림 주식비는 8.3% 증가에 그친데 비해 기호식품 11.0%, 부식 18.8%, 외식 및 기타 지출은 22.0%씩 각각 늘면서 외식비(4만 5천 원) 지출이 주식비(4만 3천 원)를 웃돌아 소비 지출내역 변화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자가구의 소득 규모는 5개 계층으로 나눈 결과 상위 20% 계층이 전체 소득의 38.8%를 점유했고 최하위 20% 계층은 4.6%나 소득을 벌었다.

소득계층분포는 ▲월 10만 원 미만이 전체가구의 44.2% ▲75만~1백 35만원의 39.6%를 차지했고 2백 1만 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가구 비중은 4.2%나 됐다.

【柳智英 기자】

社說

所得分配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조사하는 도시계 조사에 기초한 所得分配 체계가 발표되어 10분의 비율로 所得分配 체계가 개선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둘째로 所得分配이 다른 의의에 비해서 그다지나 발표되었다는 주장의 전부 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사이에서도 자주 나타난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의 아직까지 정부의 조세 정책 자체를 불신하고 정부가 所得分配의 이치를 糊塗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주위에서 생각해 보면 생활의 질적면에서 생활의 불신과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생활의 질적 면을 찾아볼 때 所得分配의 개선된 것이 아니라 생활의 질적 면에서 생활의 불신과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생활의 질적 면에서 생활의 불신과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런면에서 경제학을 전문한 학자들 사이에서도 所得分配 체계가 정확히 어떻게 집계되고 그 집계 방법과 어떤 무언이든, 불신을 해소하는데 있어서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서 都市家計調查을 다룬다. 所得分配 통계의 해석에 상당한 다른 견해를 나타내기가 일부다. 하물며 所得分配 구조상 상하에 속하지 않는 所得

형의 있다고 간주하고 그다지 큰 신경을 써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의 장기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이 사실상 전무하다. 현실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1980년의 대체인입 정책가 성장하고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이 올라가면 경제정책의 부담률이 커져서 소의 인 계층도 생활이 개선될 것이 라고 이념과 하향정책(트릭-트릭)

고 생각하고 있다. 이의 성장과 사회의식의 일부만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왜냐하면 도시가 계층사회의 대표성적 경제정책의 추진을 담당하는 것이 불확실하다. 所得分配이 어떻게 될 것인가? 所得分配이 어떻게 될 것인가? 所得分配이 어떻게 될 것인가? 所得分配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물론 의미가 없다. 그러나, 所得分配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조사하는 도시계 조사에 기초한 所得分配 체계가 발표되어 10분의 비율로 所得分配 체계가 개선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둘째로 所得分配이 다른 의의에 비해서 그다지나 발표되었다는 주장의 전부 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사이에서도 자주 나타난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의 아직까지 정부의 조세 정책 자체를 불신하고 정부가 所得分配의 이치를 糊塗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所得分配 統計의 虛點

사람들의 대개가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쉬운데 자기의 생활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볼 때 所得分配가 개선되었다고 볼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所得分配의 개선은 생활의 질적 면에서 생활의 불신과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생활의 질적 면에서 생활의 불신과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있다.

所得分配의 개선은 생활의 질적 면에서 생활의 불신과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생활의 질적 면에서 생활의 불신과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생활의 질적 면에서 생활의 불신과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있다.

所得分配의 개선은 생활의 질적 면에서 생활의 불신과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생활의 질적 면에서 생활의 불신과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생활의 질적 면에서 생활의 불신과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있다.

所得分配의 개선은 생활의 질적 면에서 생활의 불신과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생활의 질적 면에서 생활의 불신과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생활의 질적 면에서 생활의 불신과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통계자료 공동활용체제 구축 1백5種 DB 28개기관 이용

통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제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관별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작업이다. 특히 최근들어 정부기관을 비롯, 각 연구소에서 쏟아지는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통합·관리하는 것은 관련 분야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87년 11월 산림청과 원외에서 대외경제통계업무는 통계청(당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통계관리로 개발된 자료들은 인구통계, 국민경제통계, 노동통계, 기업통계, 중소기업및광공업 에너지 관리통계, 건설업과 운수업및통신관할통계, 도소매업관할통계, 물가통계, 금융및증권

업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통계청이 수집·관리하고 있는 통계는 일반통계 및 지적통계를 포함, 모두 3백20여종, 65만여점에 이르러 있다. 이 가운데 집계되고 있는 통계는 1백5종에 달한다. 이 후 국민경제통계 등 20개 분야 1백5종의 통계는 각종 통계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한 경제통계관리업무는 통계청이 사용하도록 B M과 행정안전부 등 주권산기를 연결하는데 성공하여 지난 1월부터 전국 28개 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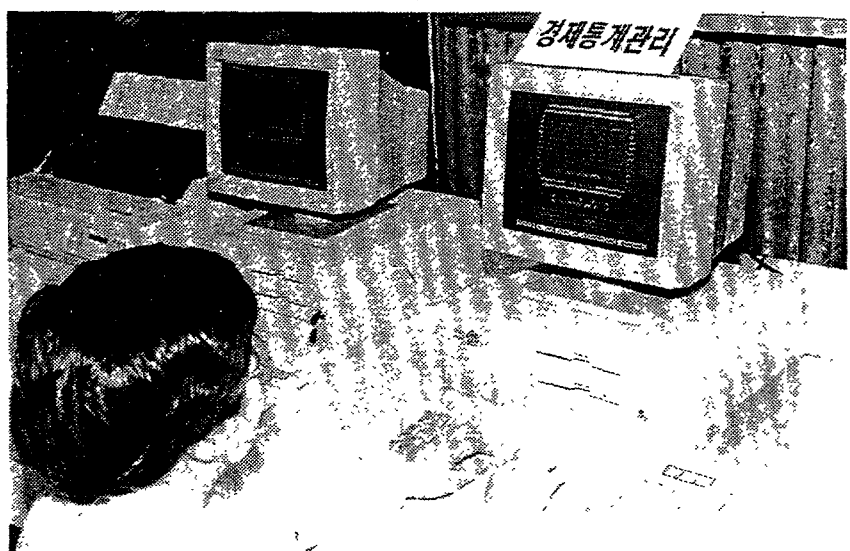
이 자체 추진토록 하고 국내 경제통계는 행정안전부 우선추진사업으로 선정, 수행토록 했다.

재정통계, 보건및사회복지통계, 교육및문화통계, 무역·국제수지및외환통계 등이다.

통계청은 앞으로 국내전 문통계자료를 추가하는 한편 주민·부동산·자동차·공·농업 등 5개 우선추진사업에서 생산되는 통계자료도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陳丙源기자】

경제통계관리



◇경제통계관리는 과학적인 경제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정보공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조업 生産호조

1.4분기 8% 증가

통계청 발표
 올해의 전국의 製造業 生産은 제조업용 증산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1.4분기중 市道別 製造業 生産」에 따르면 1~3월중 광공업 증산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7.9%가 증가했고 총액은 10.2% 증가했다. 14.2%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중 제조업의 증산은 8%가 증가, 작년 동기 대비 0.4%의 비례 증산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종별 증산세를 보았으면 총액이 10.2%가 늘어난 반면 같은기간의 증산률(9.7%)은 낮아졌다.
 1~3월중 生産된 주요 업종의 증산은 다음과 같다. 전철(22.8%) 및 건설차량(22.8%) 및 건설차량(22.8%)의 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6.8%의 증산으로 나타났다.

9.9%가 증가했고 소비재도 가정용 전자제품 등 증가세를 보였다. 작년 동기 대비 감소(10.4%)에서 5.2%의 증가세로 반전했다.
 산업별로는 중화학공업이 전기전자, 운수장비, 철강, 석유정제업 등을 중심으로 10.8%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 반면 중화학공업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전제품과 운수장비 일부 제품의 부진으로 2.3%의 낮은 증가세에 머물렀다.
 업종별로는 △유리·유리제품(22.1%) △철강(19.2%) △화학제품(16.7%) △석유정제(16.3%) △인쇄(14.1%) △전기전자(13.2%) 등의 증산이 지난해보다 활기를 띠었다. △운수장비(12.5%) △일반기계(6.1%) △선박·의류·가류(1.2.3%) △고무제품(1.1%) 등 1% 미만 증산에 머물렀다. 한편 자동차(10.2%)의 증산은 전년 동기 대비 0.4%의 비례 증산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종별 증산세를 보았으면 총액이 10.2%가 늘어난 반면 같은기간의 증산률(9.7%)은 낮아졌다.
 1~3월중 生産된 주요 업종의 증산은 다음과 같다. 전철(22.8%) 및 건설차량(22.8%)의 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6.8%의 증산으로 나타났다.

鑛工생산 7.9% 증가

1.4분기 全南등 큰폭 신장...濟州는 격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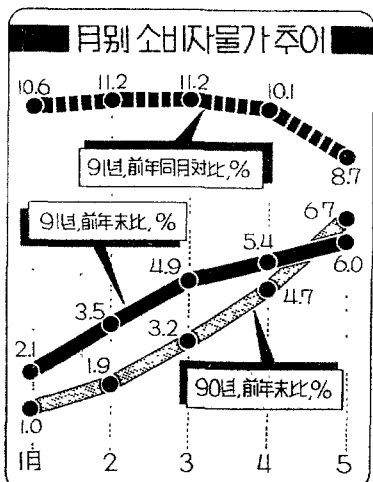
광공업생산이 89년 1.4분기 이후 회복세를 지속, 1.4분기중에는 작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으나, 시도별로는 지역 증산산업의 호황·불황에 따라 심한 편차를 보였다. 全南등 10개 시·도는 최고 28.1%까지 증가한 반면 제주·부산등 4개 시·도는 4.7%까지 감소했다.
 통계청은 25일 1.4분기중 전국의 광공업생산은 작년 동기 대비 7.9% 증가한 10.2%가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조업부분의 증산은 8%

이 중 증산율은 전철(22.8%) 및 건설차량(22.8%)의 증산으로 9.9%가 증가했고 소비재는 가전제품·수출차량의 수요 회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의 증산으로 나타났다.
 4분기중의 0.4% 감소에 서울에는 5.2%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철강, 산업용화학제품의 생산증가로 작년 대비 28.1%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전기전자·운수·기계 제조업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전기(16.4%), 철강·전기전자·화학제품생산이 많은 전북(13.1%), 동계, 전기전자·비금속광물이 증가세를 보이(11.7%), 유리·종이·제조업생산이 크게 증가한 전북(10.6%) 등의 증산세가 두드러졌다.
 이와 반대로 제주·부산 등 지역의 증산율은 부산의 0.1%와 울산의 0.1%에 불과했다. 울산의 증산율은 0.1%에 불과했다.

5 월중 소비자물가 0.6% 상승

物價안정세 뚜렷

도매價는 반년만에 첫 하락



물가가 4월 이후 두달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가 올들어 처음으로 1년전 대비 한자리수로 들어섰고 도매 물가는 작년11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30일 경제기획원과 통계청이 발표한 5월중 물가 동향에 따르면 5월중 소비자물가는 前月比 0.6% 올라 올들어 5월까지 6%가 올랐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년전과 비교하면 5월중 8.7%가 올라 올들어 前年同月比 상승률이 처음으로 한자리수로 내려왔다.

올들어 5월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6%는 작년 9월의 상승률(6.7%)과 같았다. 5월중 소비자물가가 前月比 0.6% 올랐는데는 집세와 여러 종류의 가격상승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한 반면 농수축산물(전반) 배

5월까지 6% 「한자리수」 전망

채소·油化 제품값 하락 힘입어

연간으로는 9.4% 보다 낮은 것이어서 올해 물가를 한자리수로 잡을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도매물가는 채소류와 석유화학제품의 가격하락에 힘입어 5월에 前月比 0.4%가 떨어지며 작년11월 0.1% 하락 이후 6개월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올들어 5월까지 도매물가는 1.1% 상승에 그쳤고 1년전과 비교하면 5.3%의 상승률을 보였다.

경제기획원은 5월중 물가가 1년전비 한자리수로 잡히고 특히 5월25일 조사에서는 前年同月比 8.3% 상승에 그쳤에 따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초 목표인 6%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양파 등 햇작물의 출하가 늘면서 오징어 물가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집세는 5월에 前月比 2.1%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5월과 비교하면 13%가 올랐 것으로 나타났다.

표했던 8.9%선에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월 소비자物價 0.6%상승

4월부터 안정세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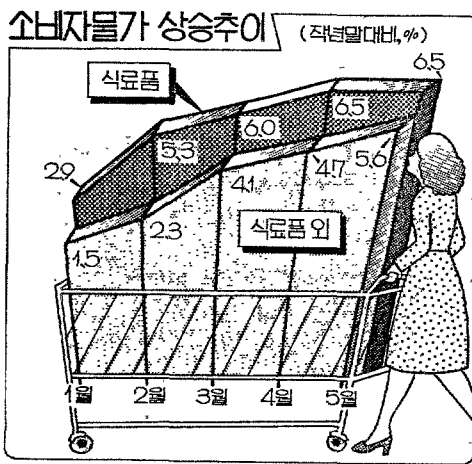
도매는 0.4%내려 6개월만에 첫하락

연중부터 급등세를 보였던 물가가 4월에는 이어 이 달에도 뚜렷이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작년말과 비교한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하반기 물가변

동향에 대해 30일 통계기획원이 발표한 5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6%로 4월 상승률(0.5%)에 이어 두 배가 진정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이달의 소비자물가는 1년전 대비 8.7% 상승을 기록하며 1년차의 수급균형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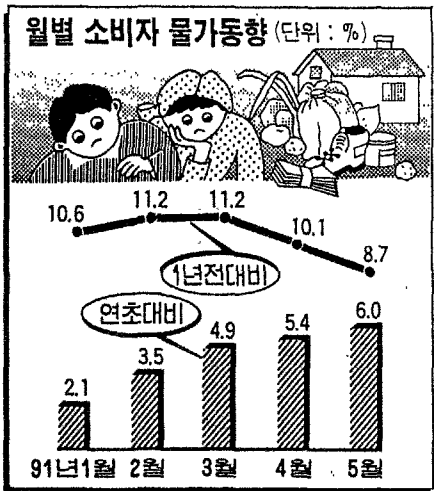
작년 11월의 0.1% 하락 이후 6개월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으며 다음달 이후의 소비자물가 안정세 기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로써 물가의 5개월 동안 소비자물가는 6%도 매를 가는 3.1% 올랐다.
5월 중 소비자물가 올름세가 비교적 진정된 것은 집세, 요양시설 등이 올랐지만 주축산업장이 하락으로 조도한데 따른 0.3% 내렸기 때문이다. 값이 오른 품목(의복)은 64.3%

올름 품목은 1월 중 10.6%, 2월 11.2%, 3월 11.9%, 4월 10.1%를 기록, 계속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한편 이 달韓銀이 발표 한 5월의 도매물가는 지난해의 비해 0.4%내려 0.1% 올랐다.
올름 품목(의복)은 64.3% 올랐고, 내림 품목(의복)은 35.7% 내렸다.
올름 품목(의복)은 64.3% 올랐고, 내림 품목(의복)은 35.7% 내렸다.
올름 품목(의복)은 64.3% 올랐고, 내림 품목(의복)은 35.7% 내렸다.



우리經濟 구김살 이달들어 퍼졌다

물가 輸岫 아과



우리 경제가 마중을 받듯이 7~8월이후 우리 경제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수확량 증가와 과잉수출 등 여러 면에서 가격 상승세를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 이상 상승하는 물가를 줄이고 경제안정 기세를 높여야 한다. 이럴 때에야 물가 상승이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신화: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11.2%... 3월 11.2%... 2월 11.2%... 1월 10.6%.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1월 4.9% ▲2월 3.5% ▲1월 2.1%. 소비자 물가 상승률 ▲1월 6.0% ▲2월 5.4% ▲3월 4.9%.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1월 6.0% ▲2월 5.4% ▲3월 4.9%. 소비자 물가 상승률 ▲1월 6.0% ▲2월 5.4% ▲3월 4.9%... 4월 10.1%... 5월 8.7%.

적자폭 확대



91. 5. 31

오름세 5달만에 한자리 24%나 증가 회복세 뚜렷 트값 안정국면 진입 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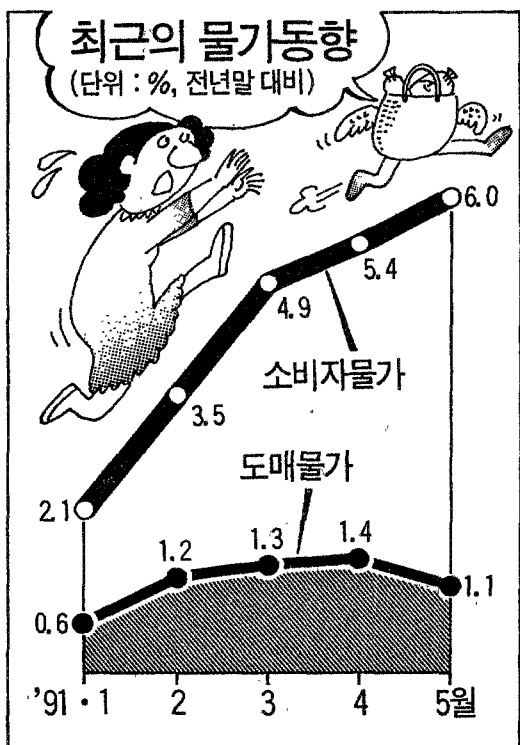
○경기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낙관적이다. 특히 5월과 6월의 회복세가 뚜렷하다. 이 중에서도 특히 5월의 회복세가 눈에 띄는 편이다. 5월의 회복세를 보인 이유는...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5월의 회복세를 보인 이유는...

개발업이 붐

○아파트가 1년 이상 계속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과 서울 지역의 아파트가 가장 먼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가 계속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仁川·富川·城南·安山 등 수도권권지역에서 일제히 상승이 나타나겠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는 상승세가 가장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파트 시장의 회복세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物價안정세 : 庶民은 못느낀다

「도매」 0.4% 下落의 虛實

「도매」 물가동향은 「안정세」인 듯
인도 지수상으로는 연초부터
계속된 가파른 물가 오름세
가 다소 진정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특히 소비자물가 움직임의
선봉 역할을 하는 도매물가가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0.4
% 하락해 더욱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경제기획원 물가과
관계자들은 하반기중의 물가과
세가 상반기에 비해 낮았던
지급까지의 패턴을 감안하면
물발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
는 한 연말물가를 안정시킬
대로 한자리수에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그러나 이같은 지수상의 진
정세가 물가인상을 실질을 무
르타는 주부들의 물가 불만
표와 물가동향의 편차로 인한
생활리민들에게도 별로 심심
나게 와닿지 않는 분위기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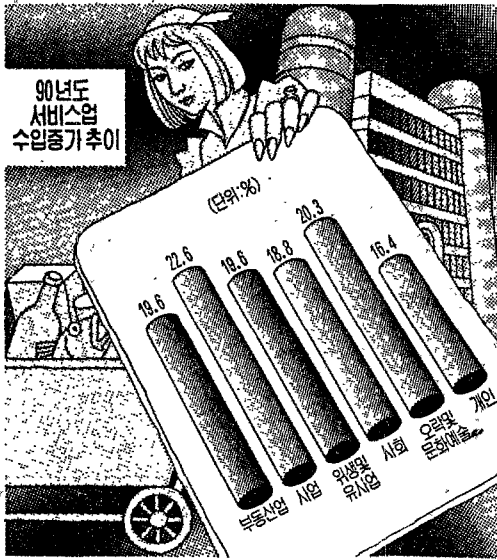
서민들이 매일 지출하는 품
목의 많은 지수상의 안정세
와는 무관하게 정면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어
지수상으로는 낮고 실제감
각에서는 5개월 동안 두 배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반)을 찾아가 하면 가장
은 11.4% 인상했다.
실제 가격의 이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 점진적으로 보
통 40~50% 올랐다.
실사 실적 소비자물가를 한
자리수에서 부각시키지 못하
고 있음은 정부의 물가 안정
책이 인정을 감안하면 원상
환자를 토는 생활이 조금도

指數만 약간...「體感」과 거리 멀어 廣域선거-각종 開發사업 惡材

나아진 게 없는 셈이다.
하물며 실제 지출액의 이
보다 훨씬 많이 늘었으니 서
민들이 물가 때문에 못살았
다고 아우성 치는 건 당연한
영향 결과다.
게다가 양이론도 물가관리
를 위해 정부가 도입할 단
판인 한부가가 아니다.
20일 양이론 다자간 광
의화선거를 전후로 예상되
는 도의 洪水와 중앙지방의
의 부각이 중앙의 확대판
일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中高級
수입로·의도보합수가 등
유일의 인상이 하반기에 제
확되어 있고 영남지방 인접
백 역시 작지 않다.
다른 지역은 영남지방을
하면 작더라도 영남지방과
소비심리가 영남지방의 약 4조
5천억원 규모로 영남지방
2차추진사업에 따른 부합도
판단치 않는다.
물가를 의식 영계가 무리
를 해서라도 영남지방의
있지만 영계의 자금난을 감
안할 때 한계가 있다. 지적
이다.
따라서 영남의 지역적요인
불구하고 물가는 영남의 정
부정책의 최대 해결과제로 남
아 있게 될 것이다.

〈金主基기자〉

서비스산업계수호황



〈그림 : 張甲鏡〉

89년7월부터 1년간통계 분석

서비스산업이 계속 번창하고 있다. 수입증가율이 경제

**총수입 29조로 업체당 6천만원 변셈
前年比 19% 늘어 경제성장을 웃돌아**

성장률을 훨씬 웃돌고 있는 가운데 종사자수 및 수입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갈수록 대외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90년 서비스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9

년 7월 1일부터 90년 6월 말까지 1년간의 각종 서비스업체(도소매업, 숙박, 음식점, 제의) 수입액은 28조 5천 9백 37만원으로 전년보다 19.3%(4조 7천 800백 61만원) 늘었다.

이같은 증가세는 전년 의 증가율 19%를 웃돌며 90년 국민총생산(GDP)을 웃돌았다. 반면 사업체수는 48만 8천 5백 48개로 8.1%(3만 6천 5백 14명)가 늘었다. 1년간의 8.5%에 다소 못미쳤다. 이에 따라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평균 4.2명으로 전년보다 0.1명이, 수입액은 6천 90만 원으로 5백 70만원이 각

업(종가율 9%정상 기준 18.8%) 및 제조업 성장률 8.4%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한편 종사자수는 2백 4만 2천 7백 32명으로 9%(16만 8천 5백 54명)가 늘어난 반면, 전년도의 8%를

각 분야나 대외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업종별 수입액증가 추세를 보면 △사업서비스업(전통 공학 기술 서비스업, 조사 및 정보관리 서비스업, 광고업, 패션 디자인업)이 4주 2천

9백 4만원으로 22.6%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유통 및 문화예술회 서비스업이 2조 6천 5백 88만원으로 20.3% △부동산업이 3조 8천 4백 48만원으로 19.6% △위생및유사서비스업은 3천 4백 69만원으로 역시 19.6%의 성장세로 비교적 호황을 누렸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의 수입액이 전년의 30.6%, 34.5%, 44.4%를 각각 차지해 1년전보다 0.3~0.5%포인트 높아졌고 6대도시의 점유비중도 같은 기간 55.9%, 58.7%, 66%로 나타났다. 0.4~0.5%포인트 높아지는 등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李錫雨기자)

서비스 매출 연 30조 육박

89년 7월~90년6월 전년 동기비 19.3% 늘어

사업체수 8.1% 종사자 9% 증가

89년 7월부터 90년 6월까지 1년 동안 국내 서비스업은 매출액이 한해 전에 비해 19.3% 늘어난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비스업 가운데 쓰레기 수집·처리업과 분뇨 수거·처리업 등으로 이뤄진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이 빠른 속도로 변창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90년 서비스업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89년 7월1일부터 90년 6월30일까지 1년간 국내 서비스업체들이 올린 매출액은 29조5천9백37억원으로 추계돼 한해 전에 비해 19.3%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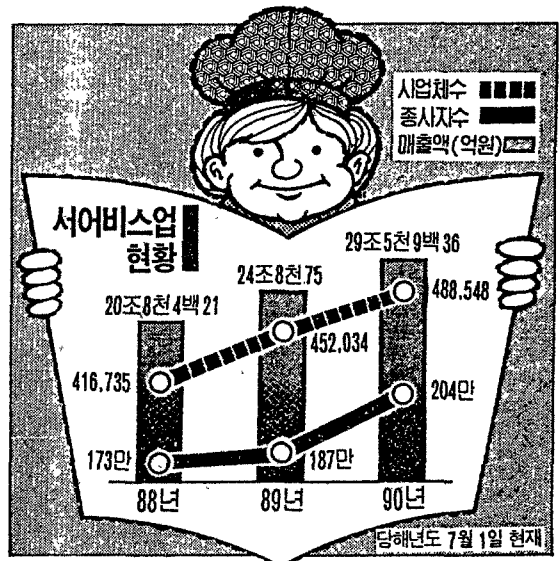
이런 매출액 증가율은 같은 기간의 경상경제성장률(15.5%)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며 한해 전의 증가율(19.0%)과는 비슷한 것으로, 서비스업이 계속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업은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감정업 등) △사업서비스업(법무·회계·건축·공학·기술검사 서비스업, 조사·정보관련서비스업, 기계·장비임대업, 광고업, 인력공급업,

패션디자인업 등)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학술연구기관, 의료보건·수의 서비스업, 사회복지기구, 산업·전문가·노동단체 등; 교육 및 정치단체 등은 제외)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영화·예술서비스업, 도서관,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운동설비·경기장·공원운영 등) △개인서비스업(수선업, 세탁·염색업, 이·미용업, 예식장 등)을 일컫는다.

또 지난해 7월1일 현재 이들 서비스업의 사업체수는 48만8천5백48개로 한해 전에 비해 8.1%, 종사자수는 2백4만2천7백32명으로 9.0%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서 각각 17.6%, 20.8% 늘어남으로써 다른 업종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작년 製造業 부진속 서비스업 好況

賣出額 19.3% 늘어

총 29兆... 증가
서울 44% 大都市 집중 심화

통계청 「90 서비스업」 발표

지난해 제조업이 수출부진과 서비스업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9.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설

서비스업의 매출액은 89년 19%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19.3%나 늘었다. 지난해 GDP 성장률이 9%였다가 전년 동기보다 9%포인트 상승한 것은 서비스업의 이같은 회복이 제조업의 부진에 따른 서비스업의 이같은 회복이 제조업의 부진에 따른 서비스업의 이같은 회복이...

異常비대 날로가속
제조업위축등 심각

지난해 33.3%로 감소한 반면 5연월의 상승의 매출을 올린 사업체수가 1.8%에서 2.3%로 증가했다. 이같은 서비스업의 회복은 제조업의 심각한 위축과 소비부진의 영향도 리를 갖기도 있다. 한편 제조업의 이같은 회복이...

서비스업의 이같은 회복이 제조업의 부진에 따른 서비스업의 이같은 회복이 제조업의 부진에 따른 서비스업의 이같은 회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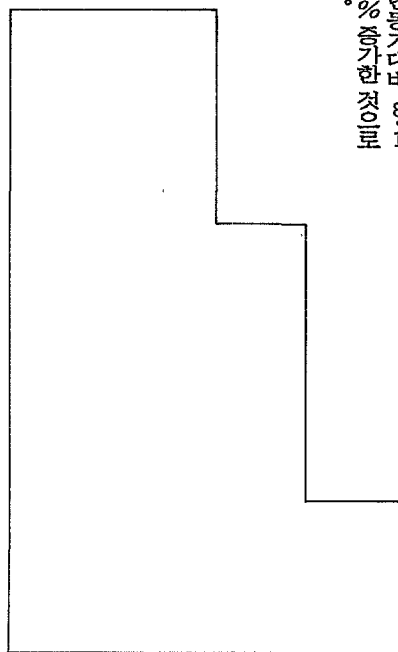
올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비스업 매출 가운데 서울과 6대 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4.4%, 66.0%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90년 서비스업 통계」에 따르면 89년 7월부터 90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서비스업 매출은 28조 5천 9백 37억원으로 전년보다 1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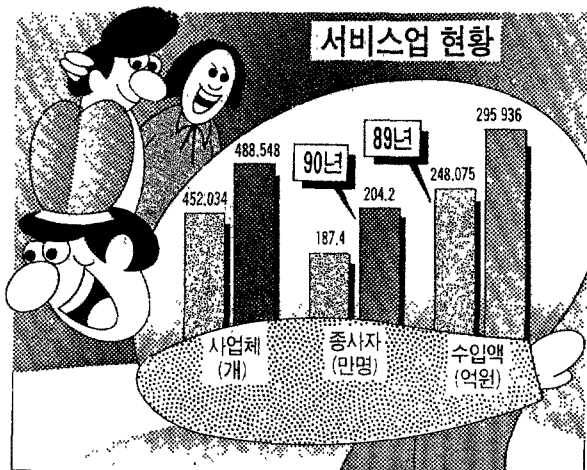
또 지난해 7월 1일 현재 서비스업체수 및 종사자 수는 각각 48만 8천 5백 48개, 2백 4만 2천 7백 3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9.0%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매출신장은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 15.5%를 웃도는 것이며 종사자 증가율은 도시 제조업의 0.1% 증가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서비스업의 이심비대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의 매출액 비중은 44.4%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반면 5인 이하 사업체수는 15.1%에서 16.1%로 증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사업체수의 30.6% 매출액의 44.4%를 차지했으며 서울 釜山 大邱 光州 仁川 大田 등 6대 도시가 사업체의 55.9% 매출액의 66.0%를 점유했다. 또 2인 이하의 종사자를 가진 사업체수는 89년 70.4%에서 지난해 69.0%로 감소한 반면 5인 이상 사업체수는 15.1%에서 16.1%로 증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종사자 2백만 돌파



年間매출 19% 증가 : 30兆

90년 7월 기준 전문직·정보관련업 수입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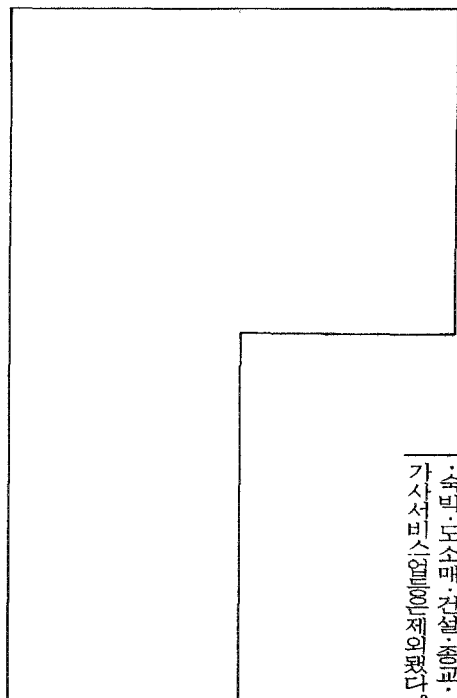
통계청 발표

서비스업종사자가 지난해 2백만명을 돌파하고 서비스업의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90년 서비스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 연간 매출액 89.6.30.1.90.7.1(단위:조)은 9백37.9억원으로

89년에 비해 19.3%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 분야의 GNP 비중도 88년 16.5%, 89년 17.6%에서 지난해에는 18%에 달했다. 서비스업사 업체 수는 48만 8천 5백 48개로 81년 45만 2천 34개에 비해 8.1%가 증가했고 이들 업체 종사자 수는 2백 4만 2천여

명으로 89년대비 9%가 늘었다. 업종별로는 수입면에선 변호사·회계사·건축사 등 전문직종과 정보 및 첨단 기술 관련업의 사업서비스업 분야가 22.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 이들 분야의 급성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업종별 현황을 보면 다음

과 같다. (괄호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부동산업 11사업체 6만 4천 6백 11개(7.8) 증가
 ▲인쇄업 14조 9천 6백 38억 원(18.8) ▲오락 및 예술 서비스업 11사업체 7만 9천 8백 63개(13.6) 종사자 18만 5천 8백 64명(14.6) 수입액 2조 6천 5백 89억 원(20.3) ▲개인서비스업이 미용·사진관 등 11사업체 20만 2천 2백 7개(4.3) 종사자 41만 7천 2백 58명(4.6) 수입액 3조 4천 8백 89억 원(16.4)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선 금융·보험·숙박·도소매·건설·중보·가사서비스업이 제외됐다.



서비스업점차大型化

統計廳、6개부문 조사결과

통계청이 내놓은 「90년 도서비스업조사결과」는 제조업이 수출부진·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은 계속 肥大化하고 있는 최근의 추이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

고부가가치 전문적인 변호사·회계사·건축사등 사업서비스 분야가 급성장한 것은 우리의 사회구조가 점차 선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민 1인당 사업체수가 86년 8.5개에서 지난해는 11.4개로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사업체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도 개발협력 대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콜리언·블렌딩·구제에 유관한 무역서비스업의 지니계 수인화 이 무역야를 옹호하는 신장

분야의 중사자가 무려 14.6% 증가한 사실은 제조업의 발달이 지나치게 빠른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뜻한다. 대상사업체 중사자의 월 평균 후일수도 88년 7일에서 작년에는 3.1일로 늘어났다.

통계청의 이번 조사는 88년 7월 1일부터 90년 6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 부동산·사업서비스업·위생및유사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오락 및 문화예술

다방등 5인이상 사업체 54%

골프·볼링등 레저産業 급신장

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을 6개부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단 금융업·보험업·공공행정 및 국방부문을 제외했다. 조사결과 주요 업종별 부문을별로 소개한다.

통계청의 이번 조사는 88년 7월 1일부터 90년 6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 부동산·사업서비스업·위생및유사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을 6개부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단 금융업·보험업·공공행정 및 국방부문을 제외했다. 조사결과 주요 업종별 부문을별로 소개한다.

통계청의 이번 조사는 88년 7월 1일부터 90년 6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 부동산·사업서비스업·위생및유사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을 6개부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단 금융업·보험업·공공행정 및 국방부문을 제외했다. 조사결과 주요 업종별 부문을별로 소개한다.

통계청의 이번 조사는 88년 7월 1일부터 90년 6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 부동산·사업서비스업·위생및유사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을 6개부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단 금융업·보험업·공공행정 및 국방부문을 제외했다. 조사결과 주요 업종별 부문을별로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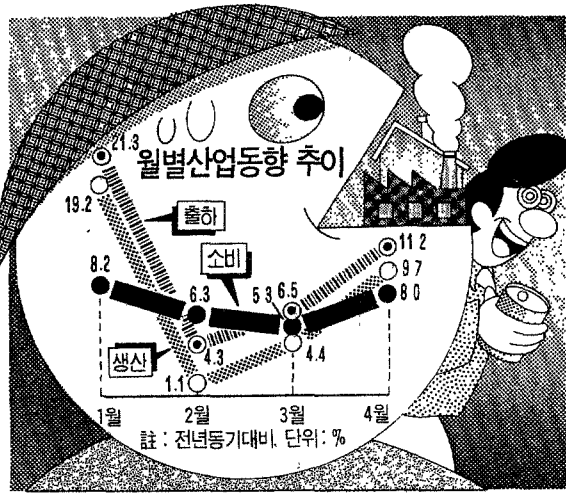


으로 나타났다. 송사자수 2인 이하의 사업체수 비율은 88년 70.4%에서 90년에는 69%로 감소한 반면, 5인 이상의 사업체수는 15.1%에서 16.1%로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사업서비스업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은 5인이상 사업체수 비율이 각각 53.9%와 84.8%로 다른 업종에 비해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체 면적은 소규모 사업체수 비율이 약 90% (30평 이하)인 반면, 100평 이상의 사업체수는 10%에 불과하다. 사업체당 수

사업체당 수 6천60만 명으로 나타났다. 고부가가치의 기술이나 전문직종의 용역 을 제공하는 사업서비스업의 1인당 생산액이 1천7백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의 생산액도 1천5백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4월중 산업활동 好調



통계청, 建設26% 늘어 活況선도

3월의 회복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산업활동이 4월에도 계속 호추세를 나타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중 산업활동지수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3월보다 4·6% 증가한 5·6%씩 증가, 90년 동기 대비해선 각각 9·7%·11·2%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같은 생산 및 출하의 호조에 따라 제조업가동률도 3월보다 3%포인트가 증가한 81·7% 수준으로 상승했다.

특히 실업률은 지난 89년 10월(2·1%) 이래 가장 낮은 2·1%(41만명)를 기록했다.

부동산은 건설수가 전년동기보다 25·9%의 높은 증가세를 계속하는 등 산업활동이 전반적으로 호추세를 보였다.

生産 작년比 9·7% 늘어

실업률 2·1% : 18개월새 최저

은 증가세를 계속하는 산업활동이 여전히 선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수주는 설비분야(발전·선박용엔진)와 버스·트럭·무선전화기 등 전년 대비 29·5% 상승했으나 일반산업용기계수주는 8·6%의 증가를 나타냈다.

도소매출입은 소비분야역시 전년 4월보다 8% 증가, 여전히 내수확황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증가추세는 1·4분기(12·8%)보다는 다소 누그러지는 추세를 보였다.

연중별 생산활동률 보면 4월중 생산수가 양호하고, 가동률도 월간 평균 90%에 이르는 호추세를 보였다.

4월중 생산활동률의 증가를 보였고 수출차의 수출 및 내수판매추진으로 수출 증가도 21·9%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실유·고부제품의 회복분야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며 다재고출도 높아 일부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소비동향에선 여의권·송파·동대문구 소비재가 전년 동기 대비 10·7%·남자

은 증가세를 계속하는 산업활동이 여전히 선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수주는 설비분야(발전·선박용엔진)와 버스·트럭·무선전화기 등 전년 대비 29·5% 상승했으나 일반산업용기계수주는 8·6%의 증가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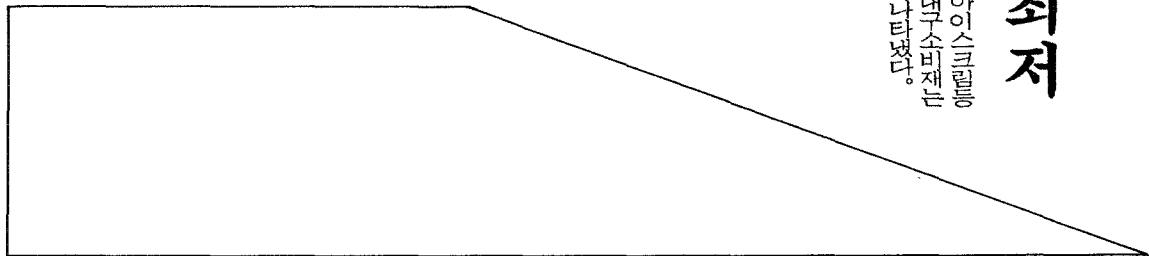
도소매출입은 소비분야역시 전년 4월보다 8% 증가, 여전히 내수확황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증가추세는 1·4분기(12·8%)보다는 다소 누그러지는 추세를 보였다.

연중별 생산활동률 보면 4월중 생산수가 양호하고, 가동률도 월간 평균 90%에 이르는 호추세를 보였다.

4월중 생산활동률의 증가를 보였고 수출차의 수출 및 내수판매추진으로 수출 증가도 21·9%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실유·고부제품의 회복분야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며 다재고출도 높아 일부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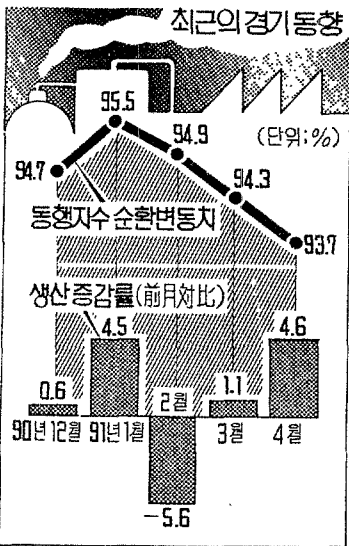
소비동향에선 여의권·송파·동대문구 소비재가 전년 동기 대비 10·7%·남자



景氣 회복세

제조업가동률 3%p 상승
 실업률 0.1%p 하락
 과소비열풍 진정국면

統計廳, 4월 産業동향 조사



證市 침체·통화 긴축 영향 先行지수는 下落

4월 중 국내경기는 산업추진기면적 역시 작년동기에 비해 4.8% 감소했다. 그러나 1~4월 누계로는 6.7% 증가, 여전히 건설업기가 가시지 않았고, 임금을 보충하고 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4월 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4.6%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9.7%가 각각 증가했다. 이보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3월 78.7%에서 4월에는 81.7%로 3%포인트 높아졌다. 소비지출하는 에이컨·생장모의 출하증가로 내수성수비재가 10.7% 늘어났지만 금년 1분기의 12.8% 증가에 비해서는 신장

4월 중 내수용 소비재출하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중의 12.8%로 8.3%포인트 하락한 4.6%로 15.2%의 비핵약아저 과소비현상이 다소 진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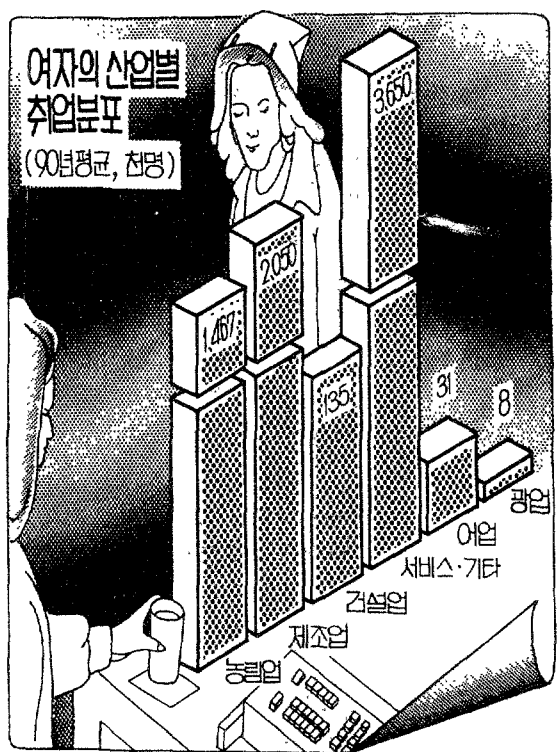
4월 중 국내경기는 산업추진기면적 역시 작년동기에 비해 4.8% 감소했다. 그러나 1~4월 누계로는 6.7% 증가, 여전히 건설업기가 가시지 않았고, 임금을 보충하고 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4월 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4.6%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9.7%가 각각 증가했다. 이보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3월 78.7%에서 4월에는 81.7%로 3%포인트 높아졌다. 소비지출하는 에이컨·생장모의 출하증가로 내수성수비재가 10.7% 늘어났지만 금년 1분기의 12.8% 증가에 비해서는 신장

세계 통화안정기로 조사됐다. 계속 급속도로 증가하던 건축허가면적은 정부의 강력한 억제책에 힘입어 월중 추저용과 상업용이 전년 대비 각각 1.7%, 15.6% 떨어졌고 기계류 수주 역시 9.3% 감소, 업계의 설비투자액도 건축부자가 약간 진정현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 2.1%의 머물렀다. 기간중 제조업 3차산업 취업자는 51만 5천명이 증가했고 제조업 취업자 역시 2만 8천명이 늘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4월 중 동행·선행지수가 감소세를 보인 했지만 가동률의 회복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 국내경기는 당분간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

취업이성 52%가 서비스업

12.9%나 늘어...농림어업은 감소



여성학력, 男은 고학력 많아

경제활동 참가율 47%로 매년 증가 추세
실업자 모두 45萬명...70%가 6大도시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활발해지면서 서비스업 분야의 여성인원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6월 90년 중 여성취업자(영양업)인 7백34만1천명으로 전년비 3.1%(22만명) 늘었는데 3차산업인 서비스·기타(건설업등 포함)분야의 여성취업자수가 총 12.9% (27만3천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농림어업과 광공업의 여성취업자는 2.9%와 4% 각각 감소했다. 여성취업자중 서비스·기타분야종사자의 비율은 52%에 이른다.

통계청은 90년의 여성취업자는 전체 1천8백3만6천명의 40.7%에 해당하며 남성 취업자는 1천69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2.0%(38만5천명) 증가했다. 여성의 취업자 증가율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작년 취업자의 남녀성별 구성비는 59.3대 40.7로 89년과 같았으나 84년의 61.6대 38.4에 비해서는 여성취업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작년 취업자 분석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인구중 주부·학생·고령자·실업자등을 빼고 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노동참가율)은 여성의 증가수준이 높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4년 77.1%에서 88년 72.9% 90년 73.9%인데 비해 여성은 84년 40.7%에서 88년 45%로, 90년에는 47%로 높아졌다.

작년의 산업별 여성취업자 분포(팔오안은 구성비)는 ▲농림어업 14만0천8백명(2%) ▲광공업 2백5만8천명(28%)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3백78만5천명(52%) 등이었다.

여성취업자의 1차·2차·3차산업별 구성비는 84년의 30대 23대 47%에서 89년에는 24대 28대 48% 90년에는 22대 29대 49%로 바뀌었다. 남녀경제활동참가율의 1차·2차·3차산업별 구성비는 84년 27대 24대 49%, 87년 22대 28대 50%, 89년 20대 28대 52%, 작년에는 18대 27대 55%다.

화려한 여성취업자는 ▲국졸이하가 41%(2백98만4천명) ▲중졸 20%(1백47만명) ▲고졸 31%(2백28만2천명) ▲대졸이상 8%(60만7천명)로 중졸이하의 학력자가 61%를 차지했다.

이에반해 남성취업자는 ▲국졸이하 22% ▲중졸 19% ▲고졸 42% ▲대졸 17%로 고졸이상의 고학력자가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자의 지역별 분포는 6대도시가 전체의 46.9%인 8백46만6천명으로 신원·평촌·영등포·보이고 있으며 이들 서울권을 4백50만5천명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이른다.

다음은 서울(수도) 2백38만2천명(慶南) 1백58만1천명(釜山) 1백54만2천명(의 순이다.

한편 취업자수는 1990년 60만1천명으로, 광공업은 서울이 1백35만1천명으로 서비스·기타분야종사자도 서울이 3백13만2천명으로 가장 많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실업자는 45만1천명(실업률 2.4%)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70%인 31만3천명의 6대도시에 몰려있다.

지역별 실업률(%)은 ▲서울 4% ▲釜山 3.3% ▲光州 大田 3.2% ▲京畿 2.4% ▲慶南 1.6% ▲全北 1.3%의 순이다.

〈盧應根기자〉

통계청이 6월 90년 중 여성취업자(영양업)인 7백34만1천명으로 전년비 3.1%(22만명) 늘었는데 3차산업인 서비스·기타(건설업등 포함)분야의 여성취업자수가 총 12.9% (27만3천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농림어업과 광공업의 여성취업자는 2.9%와 4% 각각 감소했다. 여성취업자중 서비스·기타분야종사자의 비율은 52%에 이른다.

통계청은 90년의 여성취업자는 전체 1천8백3만6천명의 40.7%에 해당하며 남성 취업자는 1천69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2.0%(38만5천명) 증가했다. 여성의 취업자 증가율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작년 취업자의 남녀성별 구성비는 59.3대 40.7로 89년과 같았으나 84년의 61.6대 38.4에 비해서는 여성취업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인구중 주부·학생·고령자·실업자등을 빼고 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노동참가율)은 여성의 증가수준이 높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4년 77.1%에서 88년 72.9% 90년 73.9%인데 비해 여성은 84년 40.7%에서 88년 45%로, 90년에는 47%로 높아졌다.

작년의 산업별 여성취업자 분포(팔오안은 구성비)는 ▲농림어업 14만0천8백명(2%) ▲광공업 2백5만8천명(28%)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3백78만5천명(52%) 등이었다.

여성취업자의 1차·2차·3차산업별 구성비는 84년의 30대 23대 47%에서 89년에는 24대 28대 48% 90년에는 22대 29대 49%로 바뀌었다. 남녀경제활동참가율의 1차·2차·3차산업별 구성비는 84년 27대 24대 49%, 87년 22대 28대 50%, 89년 20대 28대 52%, 작년에는 18대 27대 55%다.

화려한 여성취업자는 ▲국졸이하가 41%(2백98만4천명) ▲중졸 20%(1백47만명) ▲고졸 31%(2백28만2천명) ▲대졸이상 8%(60만7천명)로 중졸이하의 학력자가 61%를 차지했다.

이에반해 남성취업자는 ▲국졸이하 22% ▲중졸 19% ▲고졸 42% ▲대졸 17%로 고졸이상의 고학력자가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자의 지역별 분포는 6대도시가 전체의 46.9%인 8백46만6천명으로 신원·평촌·영등포·보이고 있으며 이들 서울권을 4백50만5천명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이른다.

다음은 서울(수도) 2백38만2천명(慶南) 1백58만1천명(釜山) 1백54만2천명(의 순이다.

한편 취업자수는 1990년 60만1천명으로, 광공업은 서울이 1백35만1천명으로 서비스·기타분야종사자도 서울이 3백13만2천명으로 가장 많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실업자는 45만1천명(실업률 2.4%)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70%인 31만3천명의 6대도시에 몰려있다.

지역별 실업률(%)은 ▲서울 4% ▲釜山 3.3% ▲光州 大田 3.2% ▲京畿 2.4% ▲慶南 1.6% ▲全北 1.3%의 순이다.

〈盧應根기자〉

統計廳 「경기지수」 現狀과 과리

실물經濟 제대로 반영 못해

10년 전 算出 방식 그 대로 채택 指標가 중치 재조정·公開 필요 産·學·政 참여 統計委員會 바람직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기 지수가 실물경기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16일 경제기획원(이하 '기획')은 통계청의 동행지수 수렴률(동행지수/동행지수)이 1월 94.9%, 2월 94.3%, 3월 94.3%, 4월 93.7%로 연3개월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경기위축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또 2~3개월후의 경기를 예고해주는 경기선행지수도 같은 1월 1100.2에서 2월 1577.7, 3월 1580.4, 4월 1578.0으로 7.8%포인트 하락하면서 경기위축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실물경기의 흐름을 작년 4.4분기 6.8%포인트 올랐던 GZ(국민총생산)은 1.4분기에는 8.0%포인트 높아지고 제조업가치도 4분기에는 81.7%포인트 높아져 회복세를 나타내며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기지수의 한강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기지수는 경기지수가 현실과의 괴리현상을 보이는 것은 경기지수 산출에 이용되는 구성지표가 실물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금년 경제연구소의 김기후 박사는 「경기지수와 실물경제의 흐름이 88년까지는 대체로 일치했으나 그후 괴리현상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이는 89년이후 국내 경제의 성장요인이 종래 수출-제조업 위주에서 내수-건설위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변화가 경기지표 산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大宇經濟研究所의 박공현 박사는 「산업별 성장기여도가 크게 바뀌고 있으나 10여년전에 채택된 지수산출방식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경기지수의 현실반영도가 크게 저하돼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동행지수 구성지표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값수렴성이 높으면, 그 비율을 위한 기업들의 차등화설비 투자 증가에 주로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수에 는 경기침체요인으로 과장되게 반영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기지표의 현실성 결여로 제와 관련, 경제계 일부에서는 국가경제를 대표하는 정부통계가 소수의 인력으 로 관리되는 것은 통계의 신뢰성 및 연속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정부 화계 업계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경기지수 산출에 이용되는 구성지표의 가치치 재조정과 이의 공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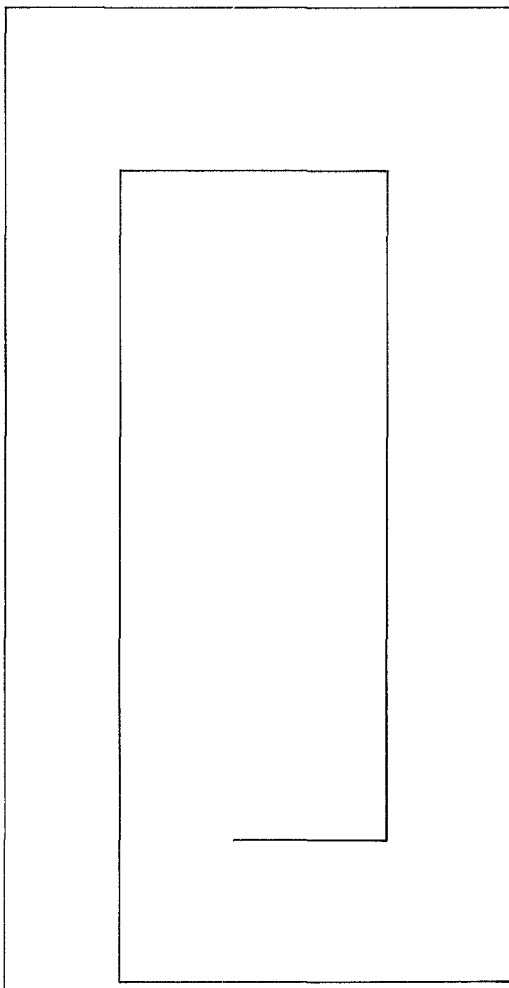
△吳東憲기자▽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기 지수가 실물경기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16일 경제기획원(이하 '기획')은 통계청의 동행지수 수렴률(동행지수/동행지수)이 1월 94.9%, 2월 94.3%, 3월 94.3%, 4월 93.7%로 연3개월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경기위축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또 2~3개월후의 경기를 예고해주는 경기선행지수도 같은 1월 1100.2에서 2월 1577.7, 3월 1580.4, 4월 1578.0으로 7.8%포인트 하락하면서 경기위축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실물경기의 흐름을 작년 4.4분기 6.8%포인트 올랐던 GZ(국민총생산)은 1.4분기에는 8.0%포인트 높아지고 제조업가치도 4분기에는 81.7%포인트 높아져 회복세를 나타내며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기지수의 한강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 백

3/4분기 보도기사

(7월~9월)

여 백

이야기 經濟學



(11)

그런데 정부는 이것을... (Introductory text for the 'Economic Story' column)

物價지수 行政조직 가능한가

각시 산업을 회고하면... (Main text of the article 'Can Price Index Administrative Organization be Possible?')

조사대상 價格통제로 便法조절하기도

금 못미친 9.4%로... (Text discussing price control methods and statistics)



그림 : 金松繁

스스로 統計 신뢰성 떨어뜨리는 격

통계조사 보면 사실은... (Text discussing the reliability of self-reported statistics)

<金大號기자>

산업생산 상승기류 탔다

統計廳 분석 5월실적 작년보다 11.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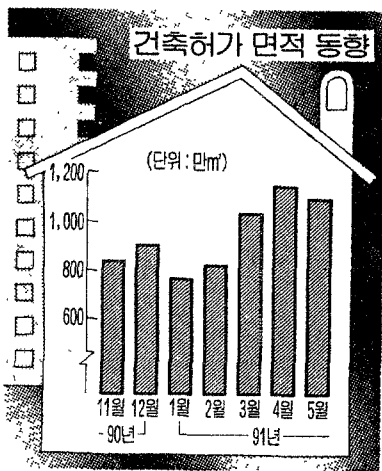
제조업稼動率 80%線 넘어

건설경기過熱현상 당분간 지속

산업생산이 내수와 수출 호조의 힘으로 5월에도 계속 활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경기인 허가면적의 증가세가 갈수록 둔화되고 있으나 건설수주액과 착공물량의 증가로 과열현상의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3일 내놓은 5월 산업생산동향에서 5월 산업생산이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11.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5월까지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3% 늘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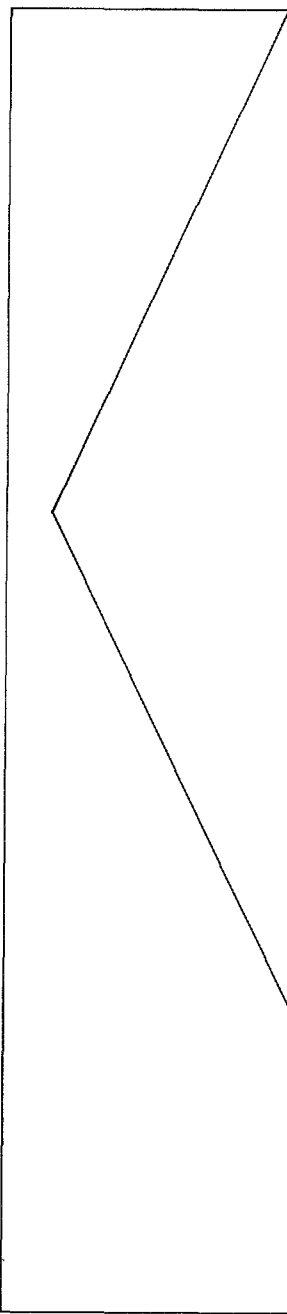
공명적인 좋지 않음을 것으로 경제기획원과 건설부는 추정하고 있다. 정부당 국자는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수출이 1억 5천만 달러에 비추어 연간 주력 수출품은 50만개가 가정 전이나 실제 착공물량을 지난해에도 4만여개를 웃돈데 이어 올해도 상당량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조업稼動률도 지난해 같은달보다 3.9% 포인트 높아진 80.6%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등 운수장비의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56.7%가 급증하는 호황을 보였고 석유정제·조립금속·일반기계·철강부품의 생산이 15% 이상 늘어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섬유부품이 4.6% 감소하는 등 건설업 분야는 대체로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소비는 5월중 백화점의 판매부진으로 도소매 전체로 전년동기에 비해 0.2% 줄었으나 승용차에 어콘·VTR 등 내구소비재의 출하는 무려 29.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경기는 「5.3건설경기조정대책」에 따른 건 축규제조치로 건축허가면 적의 자연감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 부고속도로 확장과 택지조 성공사 등 공공부문의 건설수주액은 8.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제착공의 건축허가시점 으로부터 3~6개월의 시 차를 두고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착공면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도시의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건설만하더라도 허가면적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보다 2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실제 착



輸出상승·低油價·勞使관계 安定

3分期 景氣 좋아진다

統計廳 30大그룹 經營人대상 조사

응답 91%가 "好況" 점쳐

"인건비 올라 經常이익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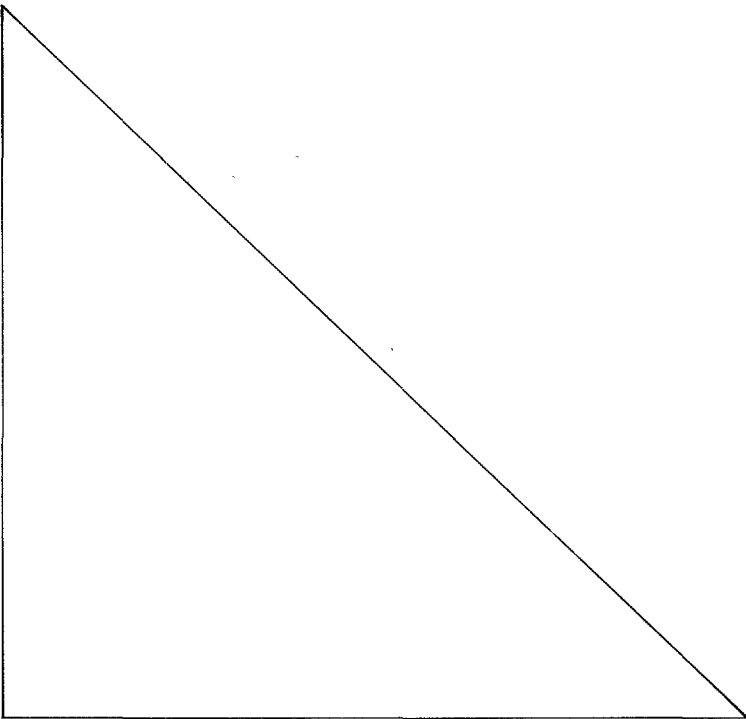
3분기중 국내경기는 수출과 내수의 호조에 힘입어 제조·건설·금융·보험 등 산업종의 전체 상황이었던 2분기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이 30대 재벌그룹을 포함한 9백50개기업의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4월 발표한 「기업경영자경기전망」에 따르면 3분기의 전반적인 경기전망에 대해 응답자중 51.3%가 "2분기수준, 40%가 더 나아질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모두 91.3%가 호황세를 전망했다.

국내경기를 예고하는 업종(자주) (BSI)은 2분기수준을 1백으로 볼 때 3분기 1백31.3이 되었다. 기업경영자들의 앞으로의 경기를 이처럼 좋게 내다본 이유로는 ▲내수 및 수출의 호황상승 ▲노사관계 안정 ▲油價 안정 ▲전통경기 회복지수 등이 꼽혔다.

반면 기업의 3분기중 매출액의 40.7%는 2분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88.9%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20.7%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자기기업의 결산이익에 대해서는 36.6%가 "감소"를 예상, 증가전망(24.6%)을 웃돌았다. 특히 금융·보험, 그리고 이윤은 인건비와 금융비용 증가, 원부자재 가격상승 때문으로 나타났다. 은 시장세를 보였다.

기업경영자들의 앞으로의 경기를 이처럼 좋게 내다본 이유로는 ▲내수 및 수출의 호황상승 ▲노사관계 안정 ▲油價 안정 ▲전통경기 회복지수 등이 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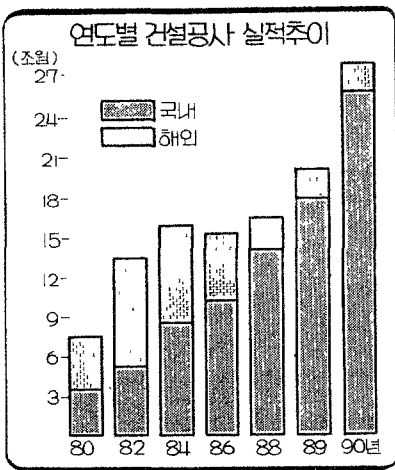
건설 10년만에 최대호황

작년공사액 25조 8천억

전년비해 43.5% 증가
해외건설 受注는 83년 이래 감소세

구분	89	90	증감률 (%)
총공사액	110,655	144,638	30.7
공사비용	98,822	126,647	28.2
부가가치	2,001	2,538	26.8
유형자산	54,801	73,461	34.1
고정자산	1,110	1,472	32.6
총업원	25,549	26,630	4.2
고정자산	517	534	3.3

건설업계가 90년 들어 최대호황을 기록하고 있다. 작년(89년)의 총공사액이 110,655억 원에 달한데 비해 올해는 144,638억 원으로 30.7% 증가했다. 공사비용도 98,822억 원에서 126,647억 원으로 28.2% 늘었다. 이는 건설업계가 10년 만에 최대호황을 기록하고 있는 데서도 한 가지 증거가 된다. 특히 올해는 83년 이래 감소세를 보던 해외건설 受注가 1,472억 원으로 32.6% 증가했다. 이는 83년 이래 최대호황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83년 이래 처음으로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유형자산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계가 10년 만에 최대호황을 기록하고 있는 데서도 한 가지 증거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건설업체가 해외건설 受注를 늘리고 사업을 벌인다는 기대를 품고 있다. 특히 올해는 83년 이래 처음으로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유형자산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계가 10년 만에 최대호황을 기록하고 있는 데서도 한 가지 증거가 된다. 또한 올해는 83년 이래 처음으로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유형자산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계가 10년 만에 최대호황을 기록하고 있는 데서도 한 가지 증거가 된다.

유형고정자산(13.9%)은 소폭증가했으나 공사액(38.9%), 공사비용(33.8%), 부가가치(45.7%)는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건설 史上 최고 호황

전면

부가가치 1년새 45.7% 급증

지난해 국내건설업체를 7천8백8개 건설업체를 조사한 결과, 건설업의 부가가치(중간고의 이익)가 전년 대비 45.7% 증가했다. 또 전년 대비 국내총생산(GDP)의 비중도 3.5%로 지난해 78년 이후 12년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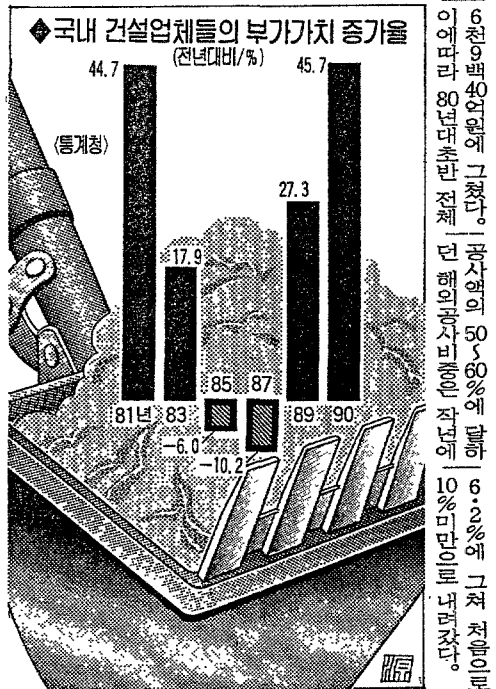
통계청의 文炳學部계조사부(8월 7일)가 발표한 「건설업연혁」 보고서에 따르면, 1만 5천여 개 건설업체들의 1990년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이는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기록됐다.

건설업의 총생산액은 1990년 1분기 2조 8천 9백 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이는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기록됐다.

건설업의 부가가치는 1990년 1분기 1조 1천 9백 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7% 증가했다. 이는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기록됐다.

건설업의 총생산액과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4.4%와 45.7% 증가했다. 이는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기록됐다.

건설업의 총생산액과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4.4%와 45.7% 증가했다. 이는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기록됐다.



6천9백40억원의 그쳤다. 공사비의 50~60%에 달하는 6.2%에 그쳐 처음으로 이례 따라 80년대 초반 전체 건설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10% 미만으로 내려갔다.

건설업 80년 이래 최대 호況

91. 7. 7

建設業 80年 이래 최대 好況

지난해

總工事額 25兆 89年比 44%急増

海外 건설 受注는 83년 이후 계속 減少

건설업의 부가가치(중간고의 이익)가 전년 대비 45.7% 증가했다. 또 전년 대비 국내총생산(GDP)의 비중도 3.5%로 지난해 78년 이후 12년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통계청의 文炳學部계조사부(8월 7일)가 발표한 「건설업연혁」 보고서에 따르면, 1만 5천여 개 건설업체들의 1990년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이는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기록됐다.

1만7천8백8개 건설업체를 조사한 결과, 건설업의 부가가치(중간고의 이익)가 전년 대비 45.7% 증가했다. 또 전년 대비 국내총생산(GDP)의 비중도 3.5%로 지난해 78년 이후 12년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통계청의 文炳學部계조사부(8월 7일)가 발표한 「건설업연혁」 보고서에 따르면, 1만 5천여 개 건설업체들의 1990년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이는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기록됐다.

국내총생산액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으로 기록됐다.

건설업의 총생산액은 1990년 1분기 2조 8천 9백 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이는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기록됐다.

이와 함께 해외건설수입도 83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감소율로 기록됐다.

해외건설수입액은 1990년 1분기 1조 6천 5백 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이는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기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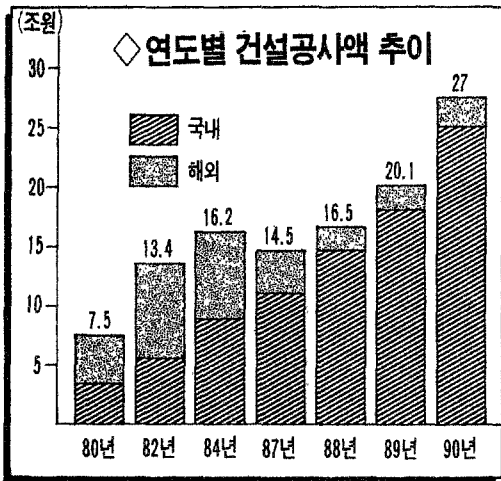
안양과 단국대 등 수도권 지역도 이차열차와 고속도로 건설이 활발하고 있다. 이는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기록됐다.

수도권 지역의 건설수입액은 1990년 1분기 1조 6천 5백 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이는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기록됐다.

해외건설의 증가를 보충하고 있다. 이는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기록됐다.

해외건설수입액은 1990년 1분기 1조 6천 5백 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이는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기록됐다.

건설受注증가 10년만에 최고



작년, 海外은 19% 줄어 1兆7천億

5개년도건설受注액이 2백만
중추건설受注액추진과
피스트업에 의해 80년
건설受注액이 27조원을
이전년도에 비해 43%
올라갔다.
이날 발표된 바에 따르면
「90년 건설受注액」은 27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6.5% 증가
한 것으로, 80년대 중반
부터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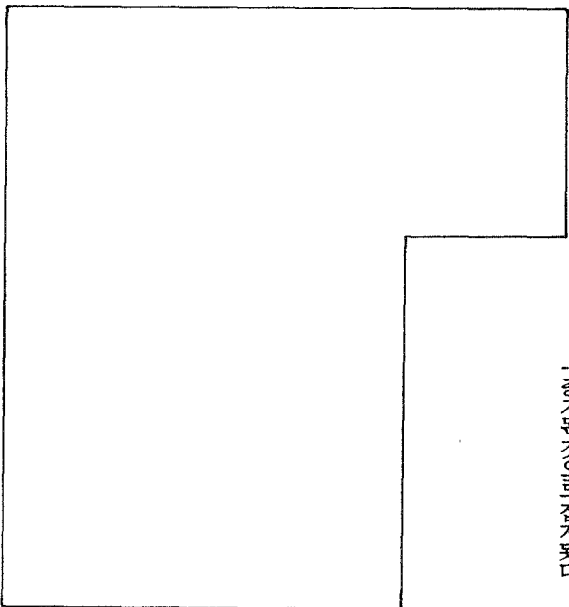
新都市·2백만호계획 힘입어

총 27兆 : 89년비 37% 늘어

통계청

5천2백39억원으로, 89년
5천7백44억원에 비해 8.9%
증가했다. 이는 80년대 중
반 이후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 기간에 국내공사
액이 25조5천2백90억원
으로, 89년도의 14.5%에
비해 74.3% 증가했다.
이날 발표된 바에 따르면
「90년 건설受注액」은 27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6.5% 증가
한 것으로, 80년대 중반
부터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90년말 현재 건설관련사
업체(면허수자)가 모두
1만7천8백58개로, 월
간 99만여명의 신규인력
5조1천8백80억원의
설계정자산을 갖고 있는 것
으로 집계됐다.
또 업체당 출자액이 14
억4천6백38만원으로 89
년도보다 30.7% 증가했고
출부가가치생산액(전건설
업)은 18조4천1백40억원
으로, 업체당 7천3백46만
원으로 89년도보다 34.1%가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建設業 10년만에 최대호황

주택 200만戸 건설 영향

工事額 27조 5천억... 37% 증가

지난해 5대건설업체를
주축해 2백만가구 건설
계획이었던 10년만의
최대의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90년 건설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건설업
체들의 총공사액은 27조 5
천 2백 30억 원으로 89년의
20조 1천 40억 원에 비해 36.
9% 증가한 것으로 집계
됐다.

이 가운데 국내공사액은
25조 8천 2백 90억 원으로
43.5%가 증가한 반면 해
외공사는 1조 6천 9백 40
억 원으로 19.4% 감소했
다.

이같은 국내공사증가를
은 지난 78년(86.1%) 이후,
해외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사액 증가율인 지난해
(40.2%)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지난 83년부터 계속된 해
외건설공사 감소로 전체공
사업종 해외공사의 비중이
지난 81년 60.5%를 정점
으로 낮아지기 시작, 지난
해엔 6.2%를 전야하가
데 그쳤다.

국내공사를 工種별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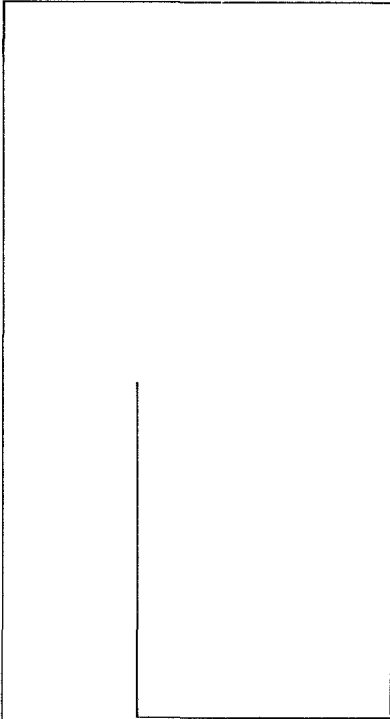
주택 10조 6천 5
백억 원으로 48.6% 늘
었고 △도로공사 4조 3천
3백억 원(40.5% 증가) △
전력공사 7조 3천 30억 원
(44.6%) △전기 2조 3천
9백 50억 원(27.2%) △통
신 5천 7백 90억 원(16.3
%) △기타공사 5천 7백 20
억 원(78.8%)의 심적늘
을 보였다.

건설이 2조 2천 4백 10억
원인 데 비해 24조 8천 5백 80
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
8% 증가하는데 머물러 총
공사액에서 총공사비율을
제외한 89년의 11.4%가 1
조 5천 2백 50억 원에서 2
조 6천 6백 50억 원으로 74.
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건설업체들의 부가가치
창출액은 13조 4천 1백 30
억 원으로 45.7%가 증가
했다. 전체 경제성장률
(9%)을 크게 웃돌았고 건
설업체들이 보유한 투자
건설 장비 등 유형고정자산
도 5조 1천 2백 30억 원에
달해 13.9%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말 현재 면허를 소
지한 건설업체는 1만 7천
8백 58개로 1년새 1천 5
백 88개(9.8%) 증업원
수는 89만 1천 1백 90명으
로 8만 7천 7백 94명(10.
9%)이 증가했다.

한편 국내건설공사의 사
건으로 나타났다.



살림살이 운퐁해지고 있다

都市근로자

統計廳, 올 1·4분기 가계收支 분석

올해 도시근로자들의 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있는 반면 소비생활이 점차 둔화돼 살림살이에 다소의 여유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후추생활상승과 신선식품판매의 변화로 전체 소비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져 열점係數가 다소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外食費의 지출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8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4분기 중 도시근로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1백4만7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5%나 증가했고 지난해 4·4분기 대비 1.4%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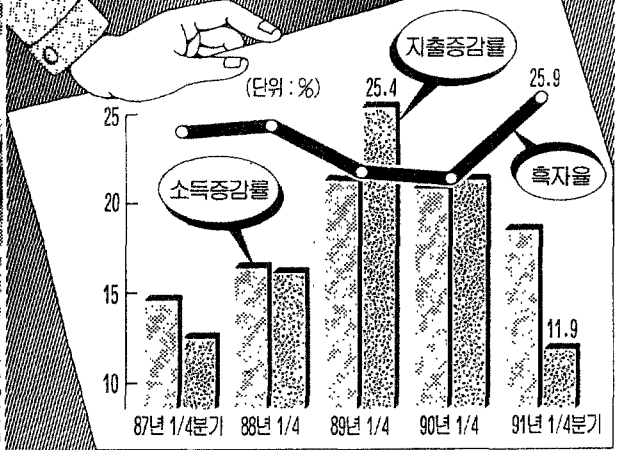
이와 함께 월평균 지출은 79만5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의 증가에 머물렀다. 이 기간 중 소비지출가상율은 11%를 감안한 실질소득과 실질지출의 증가율을 보더라도 소득은 6.8%나 늘었으나 지출은 0.8%의 아주 낮은

家口當月收 1백4만원... 후자 25만원 物價압박 등 영향, 消費성향 점차 둔화



도시근로자들은 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큰 오름세를 보이지 않음을 보여 준다. (단위: %) 87년 1/4분기 88년 1/4 89년 1/4 90년 1/4 91년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및 흑자증가율 추이



증가에 그쳤다. 이같이 소득이 지출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은 후자는 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후 차액인 월평균 25만2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만3천원보다 45.2%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후자율도 지난해 1·4분기의 21.4%에서 올 1·4분기엔 25.9%로 4.5%포인트 높아져 도시근로자들의 가계收支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

지출면선 子女교육비가 20%증가... 外食費도 늘어나

지난 1·4분기 중 도시근로자들의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임금상승(연평균 12.5%)과 소비생활이 증가한 때문으로 조사됐다. 기간 중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76만9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나 증가했다. 가구원들의 근로소득도 연평균 15.5% 상승한 119만3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월평균 소득에서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4분기 73.7%에서 올 1·4분기엔 75.5%로 1.8%포인트 높아졌다. 또 기타소득은 15만7천원으로 18.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 중 이자 및 배당금 수입이 오히려 줄었음에도 기타소득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사업및부업에 의한 소득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가계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14.5%에서 올해는 11.9%로 둔화돼 소비생활이 점차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지출에서는 식료품비가 1년새 17%나 늘어난 데 이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4분기의 28.8%에서 올 1·4분기엔 29.7%로 높아졌다. 이와따라 월점계수도 0.9포인트 높아졌다. 이같은 현상의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그동안 영점계수가 계속 낮아져 온 점을 감안할 때 일시적으로 높아졌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밖의 소비지출면에서 자녀들의 교육비가 20.4%나 올라 가장 높은 상승율을 기록했고 신선식품의 변화도 역시 17.8% 많이 올랐다. 또 소득생활의 향일로 교육제출 사외선출을 위한 잡비도 17.4%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소득學歷別격차 4.6배

통계청 작년 가계조사 家口當 전체로는 2.6배

작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주 본인의 근로소득은 학력에 따라 최고 4.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가구주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주의 가구의 취업 및 소득이 많아 가구당 전체 소득은 학력에 따라 최고 2.6배 차이가 난다.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전체소득 및 가구주 근로소득의 격차는 가구주 학력이 전문대졸인 가구의 비수한 수준이다.

통계청의 7일 발표한 도시근로자가구별 소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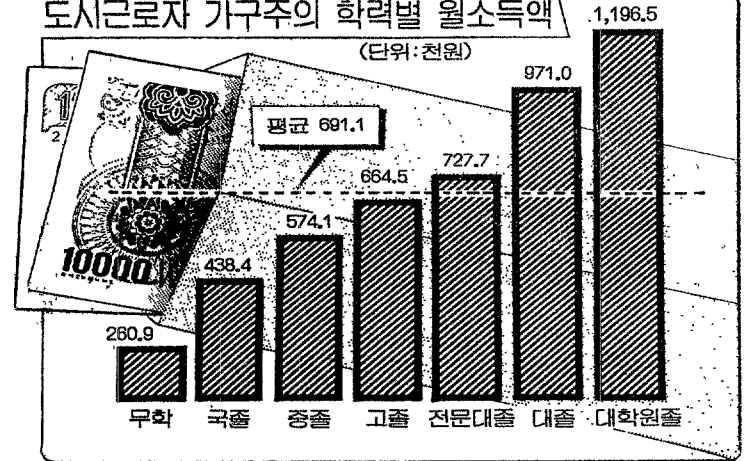
작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4만3천3백원인데 가구주의 학력에 따라 무학은 63만6천4백원, 국졸 76만4백원, 중졸 80만1천7백원

고졸 88만4천5백원, 전문대졸 96만3천9백원, 대학졸 1백26만8천9백원, 대학원졸 1백62만9천1백원 등이다. 소득이 가장 많은 대학원졸 가구의 소득은 무학 가구의 2.6배, 국졸의 2.1배, 중졸의 2배이며, 고졸에 비해서도 1.8배, 전문대졸 1.7배, 대학의 비해서는 1.3배다.

가구주의 학력이 대졸인 경우를 기준으로 가구당 소득을 비교하면 전문대졸의 1.3배, 고졸의 1.4배, 중졸의 1.6배, 국졸의 1.7배로 각각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주 학력별 가구당 소득을 전체 평균치와 비교하면 무학(67%), 국졸(81%), 중졸(85%), 고졸(94%), 전문대졸(85%), 대학(94%), 대학원(94%) 순으로 평균보다 적고 전문대졸(1백2%) 다음(1백35%) 1.2배다.

한편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주 본인의 월근로소득을 학력별로 보면 무학 26만9백원, 국졸 43만8천4백원, 중졸 57만4천1백원, 고졸 66만4천5백원, 전문대졸 72만7천7백원, 대학 97만1천원, 대학원졸 1백19만6천5백원, 대학원 각각 나타났다. 대졸의 경우 근로소득은 전문대졸의 1.3배, 고졸의 1.5배, 중졸의 1.7배이며, 국졸에 비해서도 2.2배, 무학에 비해서도 3.7배인 셈이다. 또한 이 대학원졸인 가구의 근로소득은 무학의 4.6배, 중졸의 2.1배, 고졸의 1.8배, 전문대졸의 1.5배이며, 대학에 비해서도 1.2배다.

도시근로자 가구주 본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69만1천1백원인데 무학(38%), 국졸(63%), 중졸(83%), 고졸(96%)의 학력자별 평균치에 대해 전문대졸(1백5%), 대학(1백41%), 대학원졸(1백73%)은 평균보다 높았다.



都市근로자家計소득 18%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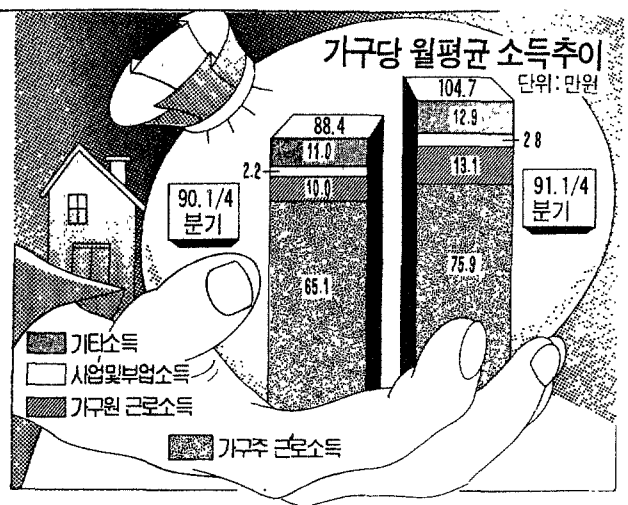
월별百4만원... 25만원黑字

통계청 1·4분기조사
 월평균 도시근로자가계당 월평균소득은 지난해 동기
 3월중 도시근로자가계당 월평균소득은 지난해 동기
 5월중 도시근로자가계당 월평균소득은 지난해 동기

보다 16만3천원(18.5%)
 이 늘어난 1백4만7천원,
 월평균 지출액은 8만5천
 원(11.9%)이 증가한 79만
 5천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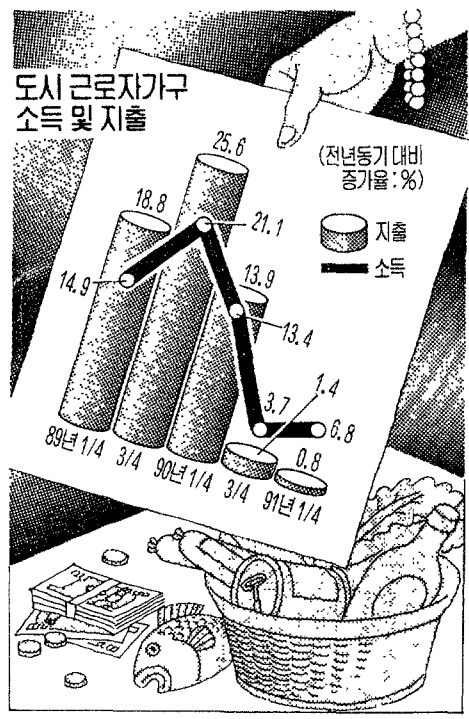
또 월소득에서 세금공과
 금을 비소비성 지출을 제외
 한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97
 만4천4백원으로 지난해
 동기(81만1천원)보다 20.
 1%가 증가한 반면 월평균
 소비지출은 약 72만2천원
 으로 13.3% 증가에 그쳐
 가구당 25만2천5백원(90
 년 동기 17만9천원)의 가
 계수지출자를 내 80년대래
 분 두자리수 이상이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추이



「과소비」한풀 꺾였다

근로자家計지출증가율 10년만에 최저



도시근로자家計의 가계
 지출증가율이 지난 1·4
 분기중 10년만에 최저수
 준을 기록하는 등 과소비
 현상이 완연히 수그러들
 고 있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91년 1·4분기 도시근
 로자가계수지동향」에 따
 르면 이 기간중 도시근로
 자가구의 월평균소득(家
 口主와 家口員의 합계소
 득)은 1백4만7천7백
 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88만
 4천2백원에 비해 18.
 5% 증가한 것으로 조사

이처럼 지출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지난 1
 4분기중 도시근로자가구
 의 소득에서 지출을 제외
 한 가계흑자액은 가구당
 평균 25만2천5백원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45.2%
 (7만8천6백원)나 늘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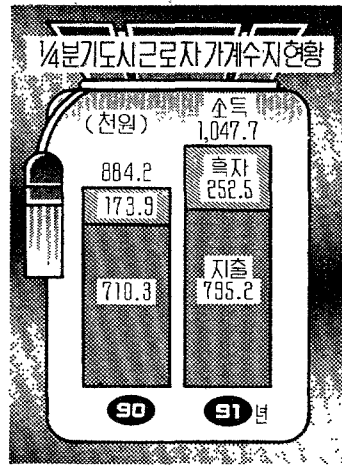
반면에 월평균 가계지
 출은 79만5천2백원으로
 작년동기의 71만3백원에
 비해 11.9% 늘어나는데
 그쳐 작년 2·4분기 이
 래 4개分期중 소득증가
 율을 밑돌았다.
 이같은 명목증가율에
 같은 기간중 소비지출가
 상증률 11%를 감안하면
 실질증가율은 소득이 6.
 8% 지출은 0.8%가
 된다.
 이같은 실질지출증가율
 은 지난 81년 1·4분기에
 마이너스 2.5% 81년
 2·4분기에 마이너스
 2.2%를 기록한 이후 10
 년만의 최저치이다.

都市근로자 소비自制 확산

지출증가율, 소득증가율 계속하회

食料品費부담이 더 가중

통계청, 1분기 흑자율 26%



도시근로자들이 늘어난 소득의 절반정도를 쓰지 않고 저축하는 등 쓸쓸이를 절제하는 분위기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를 줄인다고 해서 소비품의 구매가 줄어들지 않음은 물론이다.

이와따라 벌어서 쓰고 남은 흑자율이 지난해 1.4분기 21.4%에서 1.4분기 25.9%로 상승했다.

특히 소득(가처분소득) 증가분 중 지출(소비지출) 증가분의 비율인 한계소비성향주이를 보면 지난해 89년 85.9%에 달했으나 90년 1.4분기 80.4%로 90년 3.4분기 61.7%로 계속 낮아져 △을 1.4분기엔 51.9%로 80년대 들어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년새 늘어난 가처분 소득 증가분 중 48.1%를 저축하거나 소비지출보다는

썼다.

89년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올 1.4분기 중 도시근로자가계는 가구당 1백4만7천7백원을 벌어들여 79만5천2백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전과 비교해 소득은 18.5%가 늘었으나 지출은 11.9%증가하는데 그쳐 지난해 2.4분기 이후 지출증가율이 소득증가율

을 밑도는 현상이 1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와따라 벌어서 쓰고 남은 흑자율이 지난해 1.4분기 21.4%에서 1.4분기 25.9%로 상승했다.

특히 소득(가처분소득) 증가분 중 지출(소비지출) 증가분의 비율인 한계소비성향주이를 보면 지난해 89년 85.9%에 달했으나 90년 1.4분기 80.4%로 90년 3.4분기 61.7%로 계속 낮아져 △을 1.4분기엔 51.9%로 80년대 들어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년새 늘어난 가처분 소득 증가분 중 48.1%를 저축하거나 소비지출보다는

썼다.

89년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올 1.4분기 중 도시근로자가계는 가구당 1백4만7천7백원을 벌어들여 79만5천2백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전과 비교해 소득은 18.5%가 늘었으나 지출은 11.9%증가하는데 그쳐 지난해 2.4분기 이후 지출증가율이 소득증가율

을 밑도는 현상이 1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와따라 벌어서 쓰고 남은 흑자율이 지난해 1.4분기 21.4%에서 1.4분기 25.9%로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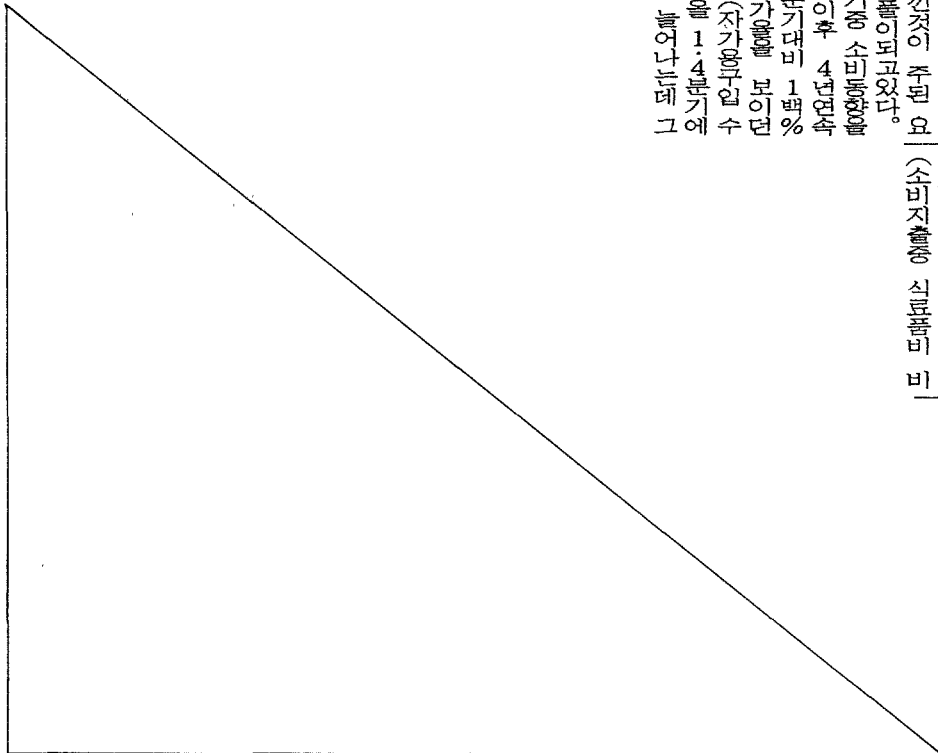
특히 소득(가처분소득) 증가분 중 지출(소비지출) 증가분의 비율인 한계소비성향주이를 보면 지난해 89년 85.9%에 달했으나 90년 1.4분기 80.4%로 90년 3.4분기 61.7%로 계속 낮아져 △을 1.4분기엔 51.9%로 80년대 들어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년새 늘어난 가처분 소득 증가분 중 48.1%를 저축하거나 소비지출보다는

썼다.

생이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수 년동안 근로자의 임금이 높은 폭으로 올라 소득수준 자체가 높아진 탓도 있지만 물가상승에 대비해 지출을 아낀 것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1.4분기 중 소비동향은 보면 87년 이후 4년 연속 前年 1.4분기 대비 1백%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던 개인교류비(자가용 구입수리비)가 올 1.4분기에 0.6% 늘어나는데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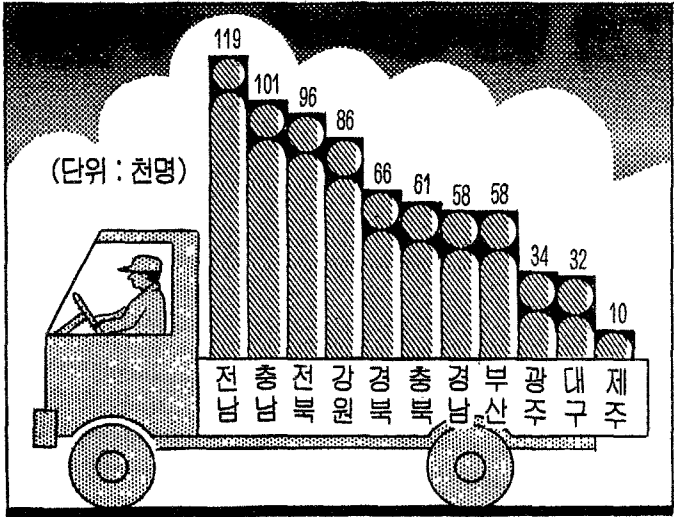
최고 청구료와 직물제품 구입비는 0.2% 감소할 기록했다. 그러나 신발류와 채소류 가격이 올라 식료품비 지출은 17% 증가, 영월계수(소비지출 중 식료품비 중)는 28.8%에서 29.7%로 오히려 높아졌다. 영월계수가 전년동월기보다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작년 2.4분기부터 1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大都市광역화」 현상 뚜렷

통계청 발표 작년 人口 이동 상황

작년중 市道別 수도권전입 인구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작년 중 국내인구의 이동상황을 보면 수도권(수도권)인구(88만 2천명)가 2.2% 증가한 90만 1천명으로, 인구의 23%를 차지한다. 수도권 인구의 증가율은 지난 70년 대 중반 이후의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 내 인구 이동률은 70년대 초 16.6%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며 올 88년 23.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 인구의 7.4%에서 85년 8%로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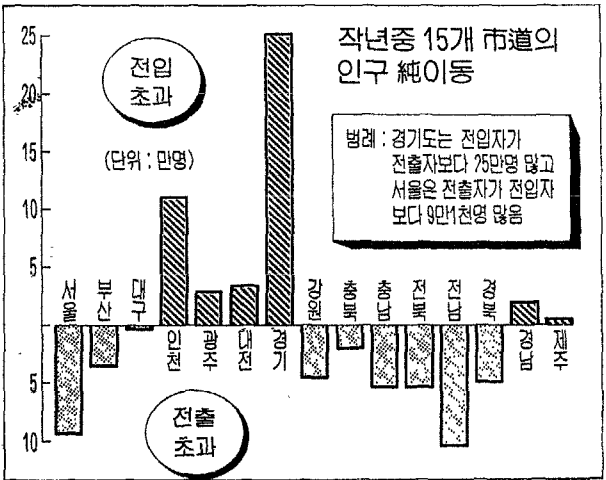
면 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한 사람이 88만 8천명(88만 7천 4백 5천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충청도의 충청대인구(3만 7천)가 노령화에다 부활조임(1만 7천) 도시현상의 가세한 평면으로 늘었다.

작년의 거주지를 옮긴 9백 45만 9천명 가운데 66%인 6백 22만 8천명이 각 시 市道안에서, 34%인 3백 23만 1천명이 市道간계를 벗어나 비교적 멀리 이사했다.

작년 서울전입 전출률 가장 높

작년 88년 이후 7.5%수준이며 가장 높았다. 수도권(수도권)인구(88만 2천명)가 2.2% 증가한 90만 1천명으로, 인구의 23%를 차지한다. 수도권 인구의 증가율은 지난 70년 대 중반 이후의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 15개 시도별과 전국의 전입률(수도권인구(수도권)인구가 전국의 74%인 111(14%)이며 71(10%)의 전출률(13.2%) 광주(10.8%) 大田(10.1%) 서울(7.1%)의 순이다.



작년중 수도권·非수도권인구이동



수도권이 102만인구이동(102만명)을 보였지만, 그중 수도권에서 非수도권으로 47만명이, 非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75만명이 이동했다. 수도권내이동은 102만명, 수도권에서 非수도권으로 47만명, 非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75만명, 非수도권 市道간 이동 99만명이다.

湖南출신 36%로 이듬 이남이긴 全南京畿 忠南

수도권 市道의 純이동 率은 前年 比로 0.1% (前年 比로 0.1%) 증가했다. 前年 比로 0.1% (前年 比로 0.1%) 증가했다. 前年 比로 0.1% (前年 比로 0.1%) 증가했다.

수도권 市道의 純이동 率은 前年 比로 0.1% (前年 比로 0.1%) 증가했다. 前年 比로 0.1% (前年 比로 0.1%) 증가했다. 前年 比로 0.1% (前年 比로 0.1%) 증가했다.

수도권 市道의 純이동 率은 前年 比로 0.1% (前年 比로 0.1%) 증가했다. 前年 比로 0.1% (前年 比로 0.1%) 증가했다. 前年 比로 0.1% (前年 比로 0.1%) 증가했다.

수도권 市道의 純이동 率은 前年 比로 0.1% (前年 比로 0.1%) 증가했다. 前年 比로 0.1% (前年 比로 0.1%) 증가했다. 前年 比로 0.1% (前年 比로 0.1%) 증가했다.

100명중 22명꼴로 인동이동

통계청 작년도 조사결과를 보면...

首都圈의 인구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 주민들의 부산, 울산, 전라남도, 대전의 仁川·京畿지역으로 주거를 옮기는 「熊手 옮김」 현상이 전국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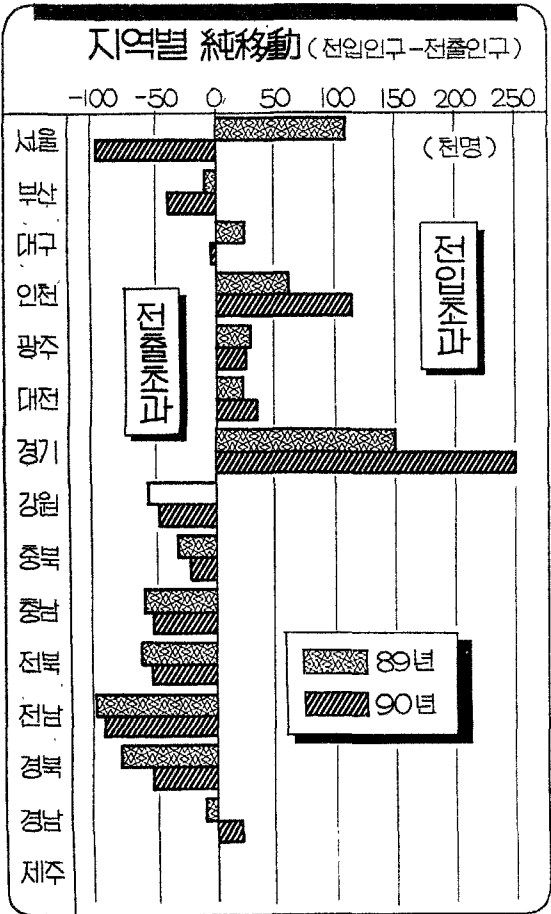
또 서울·충남·대전 등 수도권 지역의 전입인구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京畿·慶南·忠南·충북 등 지역은 인구의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인구의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전·충남 등 수도권 지역은 인구의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전·충남 등 수도권 지역은 인구의 계속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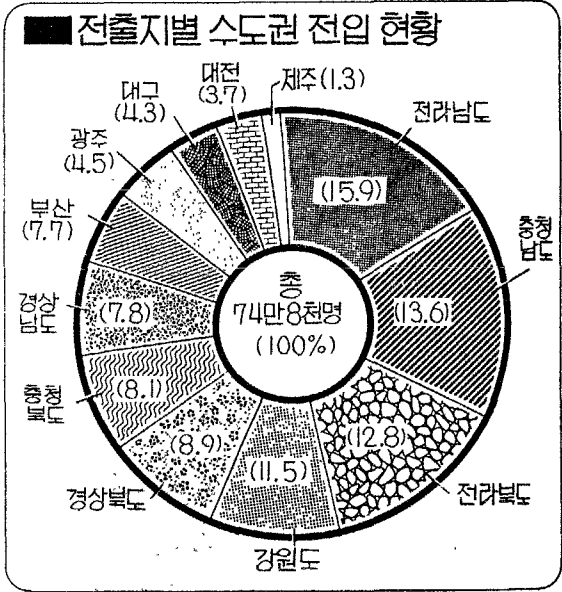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전·충남 등 수도권 지역은 인구의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전·충남 등 수도권 지역은 인구의 계속 증가하고 있다.

도 3백23만1천명(인구) 1백평당 7.5명이다. 총인구는 70년대 초반인 5백40만명에서 76~80년 평균 7백60만명(81~85년 평균

서울로 전입 湖南·忠南

湖南·忠南北·경북·강원 전 京仁지역 계속늘어 수도권권





전 80만명 ▲8~90년경의 수도권수입이며, 계속 증가 추세로 수도권 인구는 1억 4천만 명에 도달할 전망이다. 전국 인구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人順

출이 많아

집중 여전

수도권 8·90년경의 수도권수입이며, 계속 증가 추세로 수도권 인구는 1억 4천만 명에 도달할 전망이다. 전국 인구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90년 市·道간 인구이동

	轉入	率 (%)	轉出	率 (%)	純移動	率 (%)
計	3,231,128	7.5	3,231,128	7.5	0	0.0
서울	754,071	7.1	845,063	7.9	-90,992	-0.8
釜山	183,977	4.8	219,837	5.8	-35,850	-1.0
大邱	139,089	6.3	140,566	6.4	-1,477	-0.1
仁川	249,092	14.0	132,407	7.5	116,685	6.5
光州	121,111	10.8	92,634	8.3	28,477	2.5
大田	102,219	10.1	68,756	6.8	33,463	3.3
京畿	767,411	13.2	516,900	8.9	250,511	4.3
江原	81,765	5.1	129,402	8.0	-47,637	-2.9
忠北	84,646	6.2	102,225	7.5	-17,579	-1.3
忠南	110,568	5.7	164,314	8.5	-53,746	-2.8
全北	87,513	4.2	140,853	6.7	-53,340	-2.5
全南	139,766	5.6	239,836	9.7	-100,070	-4.1
慶北	169,187	5.8	219,140	7.5	-49,953	-1.7
慶南	218,222	5.9	199,832	5.4	18,390	0.5
濟州	22,491	4.6	19,363	4.0	3,128	0.6

수도권 8·90년경의 수도권수입이며, 계속 증가 추세로 수도권 인구는 1억 4천만 명에 도달할 전망이다. 전국 인구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 8·90년경의 수도권수입이며, 계속 증가 추세로 수도권 인구는 1억 4천만 명에 도달할 전망이다. 전국 인구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대도시圏 광역화」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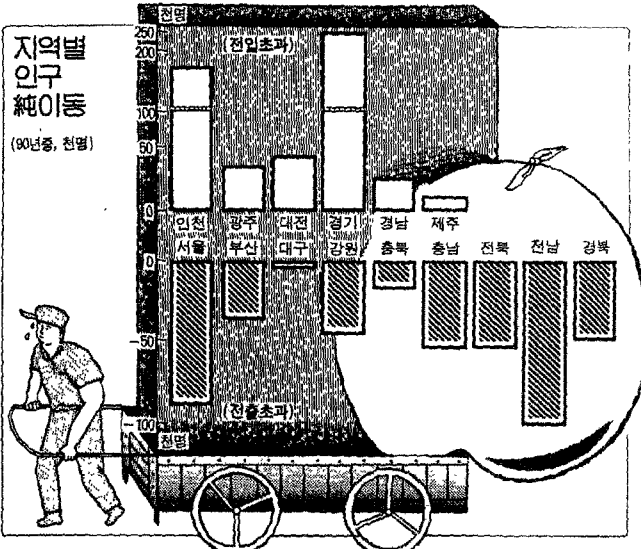
통계청 작년 人口 이동 분석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90년 인구이동실태」에서 나타난 특징은 대도시에서의 집적·

전세값 폭등으로 인한 서울에서 인접·경기도 지역으로의 부산에서 는 경남 지역으로의 이동·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인구집중·반전향(반도시권) 대도시권 밖으로의 이동이다.

80년대 초반 8백86만명, 80년대 후반 9백34만명으로 전체 인구가 증가 및 사회발전과 함께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총인구 대비 인구를 늘리면 70년대 초반 16.6

8천명의 출생고 부산(1만1천명) 대구(1만3천명)도 전년보다 감소했다. 그러나 경기도(6만5천명) 인천(4만7천명) 경남(1만5천명) 충청(1만5천명) 강원(1만5천명) 등 지역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집적 86%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이 가운데 통계를 보면 수도권은 또 우렁찬 사람들의 향연이 한창이다.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에 유입 인구는 70만명, 수도권에서 유출 인구는 50만명, 수도권에 유입 인구는 20만명, 수도권에서 유출 인구는 10만명이다.

집값뛰자 위성도시로 수도권전입 湖南人이

수도권 구출해 산골촌세를 보이다 88년도 이후 82%는 수도권에서 머물고 있다. 시·도간 이동률도 88년 대비 7.4% 감소, 88년 88만명 유입, 88년 88만명 유출이었다. 88년 88만명 유입, 88년 88만명 유출이었다.

이외에 해안권으로의 서울(9만2천명) 부산(1만5천명) 대구(1만1천명) 광주(8천명)도 크게 늘었다. 경기도(9만7천명) 경남(1만5천명) 인천(4천명) 강원(1만5천명) 충청(1만5천명) 등 지역 증가했다.

집값엄청나 大都市이탈 현상

수도권 전입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전입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수도권 전입 인구는 1988년 77만 8천 명, 1989년 88만 8천 명, 1990년 100만 1천 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전입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1990년 1월 1일 기준이다. 수도권 전입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1990년 1월 1일 기준이다. 수도권 전입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1990년 1월 1일 기준이다.

100명중 22명꼴 이사... 수도권 전입 數 全南

수도권 전입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전입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수도권 전입 인구는 1988년 77만 8천 명, 1989년 88만 8천 명, 1990년 100만 1천 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전입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1990년 1월 1일 기준이다. 수도권 전입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1990년 1월 1일 기준이다. 수도권 전입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1990년 1월 1일 기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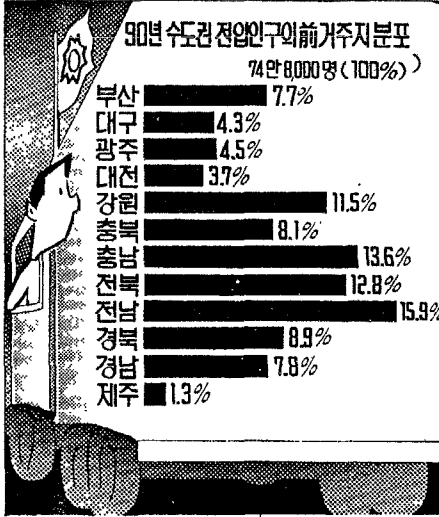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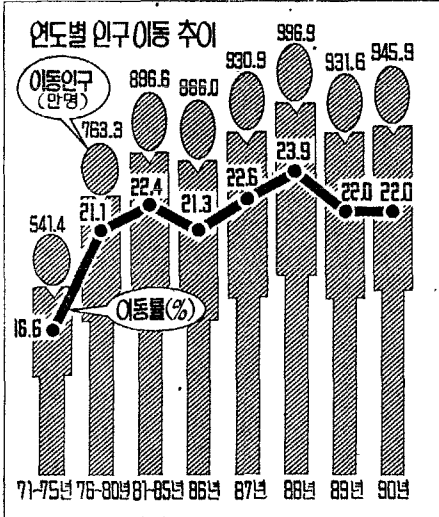
통계청, 작년 人口 이동조사

연도별 인구순이동 추이

	1980	1986	1987	1988	1989	1990
서울	164,904	-5,823	84,399	188,556	109,644	-90,992
부산	51,134	31,965	31,129	23,225	-6,658	-35,860
대구	-	20,273	20,683	21,072	22,640	-1,477
광주	-	30,979	45,184	46,964	66,414	116,685
대전	-	15,848	7,381	22,890	29,175	28,477
경북	-	-	-	-	26,179	33,463
경남	137,448	256,297	191,452	78,842	151,184	250,511
충북	-24,510	-33,499	-45,132	-52,482	-57,933	-47,637
충남	-38,585	-28,581	-34,712	-33,900	-29,026	-17,579
전북	-38,722	-33,187	-42,602	-41,199	-60,627	-53,746
전남	-71,224	-59,315	-65,908	-59,637	-63,258	-53,340
제주	-82,773	-76,907	-103,978	-108,839	-104,178	-100,070
경기도	-42,492	-65,546	-64,620	-72,206	-72,807	-49,953
충청도	-3,968	-40,145	-20,418	-11,556	-10,518	18,390
전라도	-1,348	-3,565	-2,858	-1,730	-231	3,128

*註: 순이동인구는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숫자.

수도권 전입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전입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수도권 전입 인구는 1988년 77만 8천 명, 1989년 88만 8천 명, 1990년 100만 1천 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전입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1990년 1월 1일 기준이다. 수도권 전입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1990년 1월 1일 기준이다. 수도권 전입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1990년 1월 1일 기준이다.



郊外로 밀려 忠南·全北順

수도권인구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광주·전남 지역이 수도권인구의 증가를 견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수도권인구가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인구의 증가를 견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수도권인구가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인구가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인구의 증가를 견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수도권인구가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인구의 증가를 견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수도권인구가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인구가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閔國泓 기자 >



이 가운데 市道단위의 주
 소지를 받은 사람(중이동
 자)의 34.2%인 3백23만1
 천명이며, 이중 69.4%인
 2백24만9천명의 수도권
 내에서 옮겨왔거나 수도권
 이북의 전입이나 전출인 것
 이므로 밝혀졌다.

수도권의 전입·수도권내
 에서 서울전입자는 32만6
 천명인데, 반해 57만7천명
 이仁川·京畿도인근지역으
 로 전출, 서울에서 수도권
 이북으로 빠져나간 사람이 89
 만보다 9만1천명이 많아
 졌다.

또 수도권 전입자는 74만
 8천명인데, 이북의 전거주
 지별 분포를 보면 全南 15.
 9% 全北 12.8% 光州 4.
 5%로 33.2%가 湖南지
 역, 慶北 8.9%, 慶南 7.
 8%, 釜山 7.7%, 大邱 4.
 3%로 湖南지역이 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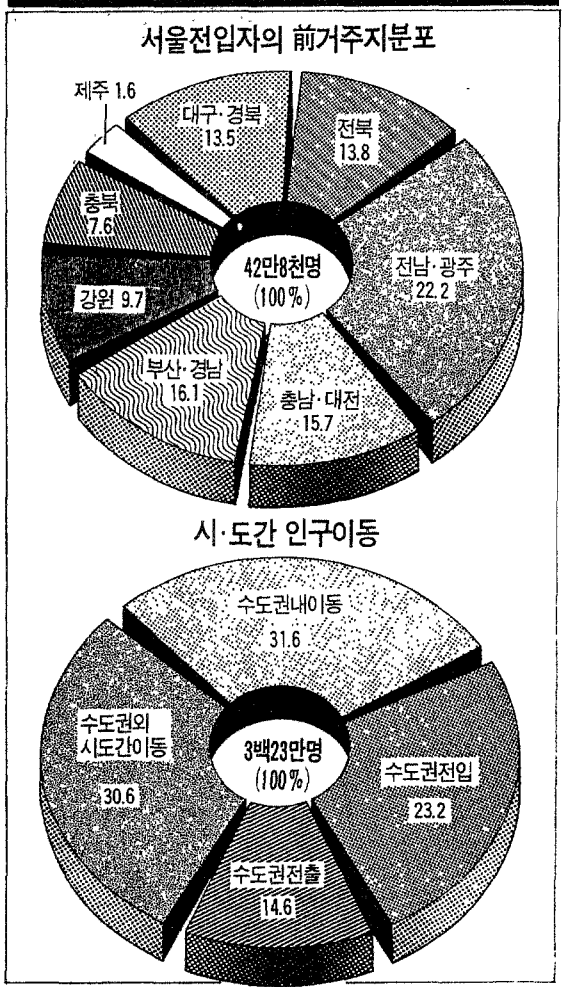
가운데서도 湖南지역이 36
 % 15만4천명(보가장 많
 았고, 단위의 慶南 29.5
 % 1만3천명, 23.3%의 순서
 를 보였다.

집값폭등 여파... '脫大'

서울·釜山·大邱 인구감소 현상 京仁비롯 수도권 집중의 여전

그러나 총인구 대비 이동
 률은 70년대초 16.6%에서
 88년 23.9%로 계속 상승
 해왔으나 이후 89년 22%
 1백33, 市道간 이동에
 선 1백7.8로 비교적 장
 거리의 이동에 남자들이 높
 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이 2백72만6천명(5
 89년보다 소폭) 3만2천
 명(출)을 잃었고 釜山(76만
 2천명) 大邱(52만6천명)
 수도권 이북을 옮긴 경우가 22
 %로 가장 높았으며, 인구가
 동이 가장 빈번했으며 다음
 이仁川(21.5%), 光州(19.
 2%의 순서를 보였다.



수도권인구이동률의
 경우 지난해仁川과 경기지
 역에서 32만6천명의 전입
 하고 57만7천명이 이북지
 역으로 빠져나가 전체전
 이북 25만1천명의 수도권
 이북의 전출증거를 나타냈다.
 수도권외 이북과 수도권
 과다한 지역이전증거인
 합한 인구가 100만 총 2백24
 만2천명인데 전체 수도권
 이북자수 3백23만1천명
 의 69.4%를 차지, 수도권
 을 옮긴 수도권외 이북의 전
 출이 20%에 불과하며, 89년
 20%의 순서를 보였다.

【李炳浣기자】

통계청 작년 인구이동 집계

주택가격 급등과 전세값 과잉 상승으로 서울출입살이 가고 팔팔잡에 따라 서울을 떠나 인근 수도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의 크게 늘고 있다.

또 서울뿐만 아니라 춘천·대邱 등에서도 市界를 벗어난 인구의 증가로 전출하는 사람이 전입자보다 많아 대도시살이가 잘못될 우려 있다고 우려하는 부동산 관계자도 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주민등록현황에 따르면 서울출입살이 1990년 인구의 이동계약을 보면 지난해 面洞洞의 경계를 넘어 주소지를 옮긴 사람이 총 9백45만9천명으로 1백명 가운데 22명꼴로 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늘어나

주요지역별 인구이동 집계
% 忠南 13.6% 忠北 8.1% 大田 3.7% 仁川 25.4% 京畿 13.2% 光州 10.8% 大邱 10.1% 釜山 7.1% 蔚山 7.1% 大邱 10.1% 釜山 7.1% 蔚山 7.1%

한편 지난해 지역별 전입 인구가 가장 높은 지역은 仁川(14%)이고 京畿(13.2%) 光州(10.8%) 大田(10.1%) 서울(7.1%)의 순을 보였다.

또 전출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全南(9.7%)였고 京畿(8.9%) 忠南(8.5%) 光州(8.3%) 江原(8.0%)의 순을 나타냈다.

90년 인구의 이동 추세를 보면 대도시와 지방의 인구가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가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가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90년 市道별 인구이동 (단위: 천명, %)

	전 입		전 출		순 증 감	
	인구	率	인구	率	인구	率
계	3,231	7.5	3,231	7.5	0	0.0
서울	754	7.1	845	7.9	▽91	▽0.8
부산	184	4.8	220	5.8	▽36	▽1.0
대구	139	6.3	141	6.4	▽1.5	▽0.1
인천	249	14.0	132	7.5	117	6.5
광주	121	10.8	93	8.3	28	2.5
대전	102	10.1	69	6.8	33	3.3
경기도	767	13.2	517	8.9	251	4.3
원주	82	5.1	129	8.0	▽48	▽2.9
충청	85	6.2	102	7.5	▽18	▽1.3
충남	111	5.7	164	8.5	▽54	▽2.8
전북	88	4.2	141	6.7	▽53	▽2.5
전남	140	5.6	240	9.7	▽100	▽4.1
경북	169	5.8	219	7.5	▽50	▽1.7
경남	218	5.9	200	5.4	18	0.5
제주	22	4.6	19	4.0	3	0.6

90년 22%로 최근에는 다소 정체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이동인구의 성비(성자)는 1백명당 남자가 106명, 여자가 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인구이동 현황을 보면 대도시로의 전입 인구가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가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전입 인구는 1백만 명(慶南 70만·仁川 56만·京畿 1백11만)으로 전년 대비 각각 2만9천명, 1만3천명, 1만9천명씩 증가했다. 반면에 京畿(1백11만 명)는 70만·仁川(56만)을 합쳐 126만 명으로 전년 대비 1만3천명, 16만3천명씩 줄었다. 대도시 주변 지역 전입 인구가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전입 인구는 1백만 명(慶南 70만·仁川 56만·京畿 1백11만)으로 전년 대비 각각 2만9천명, 1만3천명, 1만9천명씩 증가했다. 반면에 京畿(1백11만 명)는 70만·仁川(56만)을 합쳐 126만 명으로 전년 대비 1만3천명, 16만3천명씩 줄었다. 대도시 주변 지역 전입 인구가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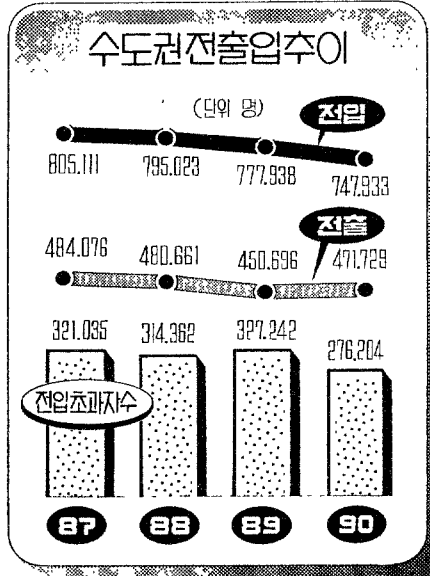
6천명(10%)를 넘어섰으나 서울 지역전입자는 46만6천명에서 42만8천명(10%)로 감소했다. 이로인해 전체 수도권 전입자중 서울전입자비율이 86년 62.8%에서 88년 61.5% 90년 57.2%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서울은 86년에 이어 두번째로 전출초과를 내기도 했다.

수도권 전입자의 출신거주지를 보면 지난해의 경우 서울이 11만8천5백85명(15.9%)으로 가장 많았고 忠南 10만1천3백20명(13.6%), 京北 9만5천7백54명(12.8%), 江原 8만6천23명(11.5%), 慶北 6만6천3백91명(8.9%), 忠北 6만9백23명(8.1%), 慶南 5만7천9백83명(7.8%), 釜山 5만7천5백63명(7.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光州와 全南北을 합치면 湖南지역이 33.2%, 釜山 大邱 慶南北의 嶺南지역이 28.6%를 차지한

100명중 2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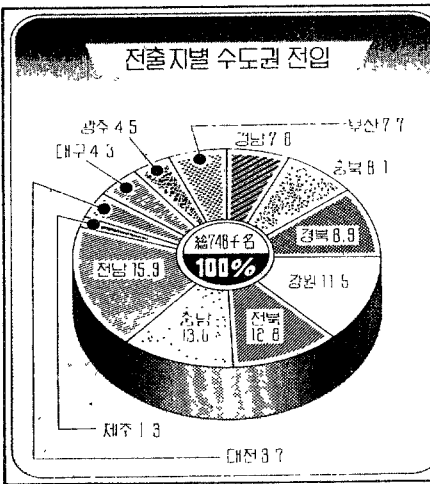
셈이다. 서울은 全南지역에 서의 전입자가 17%, 仁川과 京畿는 忠南지역 전입자가 각각 17.1%와 15.3%로 가장 많았다.

서울서 京畿·仁川 전출 57만7천명



서 89년 48만7천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엔 33만9천명으로 상당폭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농촌지역에 노령인구비율이 높아져 도시로 나갈수 있는 인구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서울과 釜山 大邱 등 대도시에 있는 공장

들이 京畿 慶南北 등 인접한 郡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성별로는 보면 市지역의 전입초과자중 여자수를 100으로 할때 86년의 경우 남성은 88.2였으나 지난해엔 99로 높아져 상대적으로 남자



들의 도시전출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비교> 서울(9만9백92명) 釜山(3만5천8백60명) 大邱(1천4백77명) 등 대도시와 京畿 慶南 濟州를 제외한 道지역(1만7천5백79) 10만70명이 전출초과를

년 濟州가 8.1%(88년)도 3위이다. 4.1%(88년) 수준 이고 道 전체를 벗어난 이동률도 大邱는 2.6%(89년)에 그쳐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이 3~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鄭萬興기자>

90년 人口이동統計 분석내용

◇수도권집중현상화 2년간 해
1년동안 서울 仁川 京畿의
외지역에서 수도권으로 74만
7천9백33명이 이사를 오고
47만1천7백29명이 빠져나
가 새로 27만6천2백4명이
늘어났다. 89년과 비교해 전
출자는 높고 전입자는 줄어
나갔다. 89년의 전입자는 줄어
나갔으나 89년의 전출자는
늘었다. 89년과 비교해 전
출자는 높고 전입자는 줄어
나갔다. 89년의 전입자는 줄어
나갔으나 89년의 전출자는
늘었다.

이 중 수도권 전입자 중 서울
의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서울의 주택가격이
올라가면서 수도권으로의 이
동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로 보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서 仁川지역으로 전입한 인
구가 지난 89년 6만7천명에
서 90년엔 7만4천명, 京畿
지역은 24만5천명에서 24만

이사... 세계最高

郡에서市전입 3년째 감소

수도권내에서만 보면 서울
에서 京畿와 仁川으로 빠져
나간 인구가 89년 48만6천
2백71명에서 57만7천4백
22명으로 늘어났다.
◇도시집중세 특화 2都地
역에서 市지역으로 전입하는
인구가 88년 1백36만2천명
에서 89년 1백23만2천명,
90년 1백15만9천명으로 3
년연속 감소를 보였다. 반
면 市에서 郡으로 내리는 인
구는 88년 97만4천명에서
89년 74만5천명으로 줄었다.
가 90년에 82만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
이에 따라 市지역의 전입초
과 규모는 88년 38만8천명에

<90년 지역별 인구이동>
(시도 경계 기준·명)

	전입	율(%)	전출	율(%)	순이동	율(%)
計	3,231,128	7.53	3,231,128	7.53	0	0.0
서울	754,071	7.1	845,063	7.9	-90,992	-0.8
仁川	183,977	4.8	219,837	5.8	-35,860	-1.0
京畿	139,089	6.3	140,566	6.4	-1,477	-0.1
충청	249,092	14.0	132,407	7.5	116,685	6.5
전라	121,111	10.8	92,634	8.3	28,477	2.5
호남	102,219	10.1	68,756	6.8	33,463	3.3
대구	767,411	13.2	516,900	8.9	250,511	4.3
경북	81,765	5.1	129,402	8.0	-47,637	-2.9
경남	84,646	6.2	102,225	7.5	-17,579	-1.3
충북	110,568	5.7	164,314	8.5	-53,746	-2.8
충남	87,513	4.2	140,853	6.7	-53,340	-2.5
전북	139,766	5.6	239,836	9.7	-100,070	-4.1
전남	169,187	5.8	219,140	7.5	-49,953	-1.7
제주	218,222	5.9	199,832	5.4	18,390	0.5
제주	22,491	4.6	19,363	4.0	3,128	0.6

(註)비율은 7월1일 주민등록인구대비

<都農間인구이동> (단위:천명)

	1986	1987	1988	1989	1990
市지역으로 전입	1,192	1,312	1,362	1,232	1,159
郡지역으로 전입	907	976	974	745	820
市지역 전입초과	285	336	388	487	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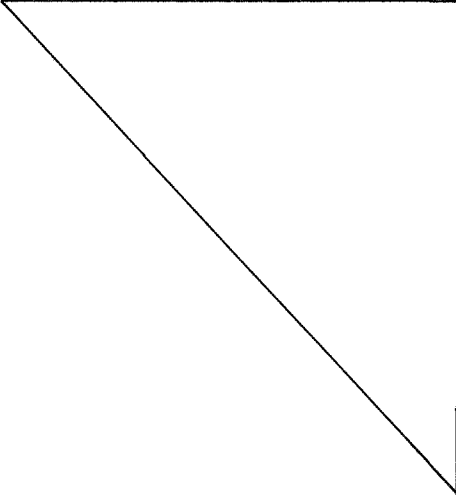
였다. 서울은 지난 86년(5
천8백23명)에 이어 사상 두
번째 전출초과였고 江原 忠
南北 全南北 慶北 등은 80년
이후 출생 전입자보다 전출
이 많은 상태. 반면에 仁川
(11만6천6백85명) 京畿(25
만5백11명) 光州(2만8천4
백77명) 大田(3만3천4백63
명) 등은 출생 전입초과를 지
속하고 있다. 그 동안 계속
전출초과자가 감소해 慶
南(1만8천3백90명)과 濟
州(3천1백28명)는 전입초
과로 반전됐다.
◇국제비교 2년간 해 전 출
인구이동률 22% 과 市道간
이동률 7.5% 과 일부 저
개발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
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출
이동률(市道경계내 이동포함)
을 보면 日本이 5.3%(89

社說

大都市圈의 인구 肥滿症

人口가 增을 待望의 大移動을 계속 하고 있다. 增의 人口를 都市로 계속 밀어내고 그 결과 日本의 大都市에서 拔을 못을 인 人口가 대도시圈의 範圍內 大都市圈의 範圍外로 年間 人口移動率이 日本의 4배인 23%에 이른다. 增의 人口의 分布變化에 있어 大變革이 進行되고 있는 實情을 말해주고 있다. 統計廳의 「90년 人口移動統計」에서

가장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서울 釜山 大邱의 人口가 增었다는 점이다. 90년 한해 서울의 人口는 轉入이 75만 4천 명의 轉出이 84만 9천 명으로 9만 1천 명의 淨增이었다. 지난 30년 동안 大邱는 각각 3만 6천 명과 1천 5백 명이 淨增했다는 점이다. 대도시가 人口를 밀어내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이 미 이를 3대도시가 人口 飽和상태를



달았다. 例證을 들자면, 大邱의 人口는 前年보다 1.5배 증가했다. 대도시圈의 範圍內 大都市圈의 範圍外로 年間 人口移動率이 日本의 4배인 23%에 이른다. 增의 人口의 分布變化에 있어 大變革이 進行되고 있는 實情을 말해주고 있다. 統計廳의 「90년 人口移動統計」에서

후지야의 人口가 增을 待望의 大移動을 계속 하고 있다. 增의 人口를 都市로 계속 밀어내고 그 결과 日本의 大都市에서 拔을 못을 인 人口가 대도시圈의 範圍內 大都市圈의 範圍外로 年間 人口移動率이 日本의 4배인 23%에 이른다. 增의 人口의 分布變化에 있어 大變革이 進行되고 있는 實情을 말해주고 있다. 統計廳의 「90년 人口移動統計」에서

그런데 이 세련된 현상은 우리의 인구통계학자가 바람직한 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대도시에서 밀려나갈 뿐 아니라 대도시圈의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首都圈인 仁川과 京畿지역 人口는 90년 한해 20.9%, 11.9%가 각각 늘었으며 慶南의 人口가 10.4%나 늘었다. 慶南은 보아 대도시가 인구를 밀어내기 시작하고 대도시圈은 여전히 增을 待望의 大移動을 계속 하고 있다. 大邱의 人口가 增었다는 점이다. 90년 한해 서울의 人口는 轉入이 75만 4천 명의 轉出이 84만 9천 명으로 9만 1천 명의 淨增이었다. 지난 30년 동안 大邱는 각각 3만 6천 명과 1천 5백 명이 淨增했다는 점이다. 대도시가 人口를 밀어내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이 미 이를 3대도시가 人口 飽和상태를

社 說

人口「脱서울현상」에 문제있다

17일 통계청의 발표한「90년 인구의 동진현상」은 정부의 대도시인구집중책이 아무런 실용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大都市圈域의 광역화라는 새로운 문제마저 파생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釜山·大邱 등 대도시의 인구가 주변 도시로 옮겨간 적은 오히려 보아선 바람직한 현상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이는 거주지만 옮긴 것일뿐 생활근거지는 여전히 대도시안에 두고 있는 것이어서 오히려 교통부족 등 대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심각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몇몇 대도시 특히 서울을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과 그에 따른 도시문제의 심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선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일차적으로, 강렬히 추진해 나가는 것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자칫 중앙의 대도시문제 해결에만 급급해 자원배분을 이에 집중시키기가 쉽지만 이는 인구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인구집중으로 교통·교육·주거환경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이를 개선시키는데 주력하고 보면 그것이 인구집중의 요인이 되어 부담을 해가 갈수록 커지게 될 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도시의 다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나 적어도 그것이 새로운 인구집중의 요인이 되지 않게 하느라 노력하는 정책수립과 자원배분의 절충에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기본적인 해결책은 전류의 일정한 圈域別로 自足기능을 갖추는 것이다. 도시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인 이상 일정한 圈域에 따라 모든 면에서 自足기능을 가진 중대도시를 형성하고 그 주변에 또 기본적인 자족기능을 가진 중소도시를 배치해서 거주지를 멀리 옮기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일차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自足기능을 갖추게 하느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육문제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그 인구가 도시로 몰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이나 그것이 주로 수도권에 몰리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자녀교육 문제라고 보여진다.

地方自治制의 실시로 정치의 분권화는 시작되었다. 중앙집권체제로부터 산정된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다. 그런데 유독 교육을 포함한 문화의 분권화는 지지부진한 것이다. 우리 국민의 사보교육열과 생활의 질을 추

구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문화의 분권화가 추진되지 않고서는 다른 부문에서의 분권화가 수조부의 추진된다 해도 인구의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이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억제는 하루이틀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의 부재보다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최근 정부스스로의 의지가 흔들리고 시책의 내

용도 압력이 안되고 있는 「정인단」. 신도시 건설이 그 대표적인 예다. 자기들을 갖추겠다는 당초의 구상과는 달리 주거기능의 확보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집중억제의 해법이 커녕 오히려 그것을 심화시킬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정부는 인구의 분산이 가능한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人口分散」면역질때다

——同회의 입법정책위원회안인하함

社說

17일 본회의장이 발표한 「90년도 인구정책방향」가 우리 인구의 현상을 22%나 늘린다는 부실한 예측을 담고 있다. 저출생률의 저하를 염두에 둔 이 시점에서 인구의 증가를 20%나 늘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90년도 인구정책방향」은 인구 500만(50.0%)의 증가(9.1%)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4.4%의 증가(4.4%)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이는 인구 500만(50.0%)의 증가(9.1%)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4.4%의 증가(4.4%)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90년도 인구정책방향」은 인구 500만(50.0%)의 증가(9.1%)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4.4%의 증가(4.4%)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이는 인구 500만(50.0%)의 증가(9.1%)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4.4%의 증가(4.4%)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구분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분포가 달라지고 있다. 수도권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지방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지역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90년도 인구정책방향」은 인구 500만(50.0%)의 증가(9.1%)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4.4%의 증가(4.4%)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이는 인구 500만(50.0%)의 증가(9.1%)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4.4%의 증가(4.4%)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세무자 양면면도 인구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재정원의 한계선 문제, 투자 우선순위의 문제로 면면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지역격차의 심화를 고집적 범패까지...

총괄한 것이 우리의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시대가 부활된다면 정부는 막대한 재정투자와 지역분쟁의 양상을 면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역격차의 심화를 고집적 범패까지...



社說

人口流動 종합配置대책 세워야

수도권과 대도시권의 광역화경향이 인구이동조사결과로 나타났다. 의론만 무성할뿐 인구의 도시집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던 터에 이런 대도시권의 광역화경향이 새로운 정책과제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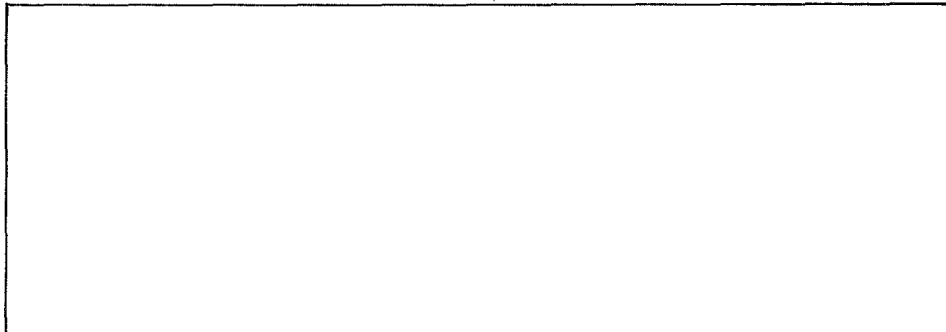
통계청의 지난해 인구동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엄청나게 오른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산집을 찾아 경기 인천등 주변도시로 밀려난 사람이 많았고 이같은 경향은 부산과 대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의 순이동인구를 보면 86년이후 처음으로 감소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인구역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큰 흐름이다. 그러나 경기 인천 또 경남북으로 주소를 옮긴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직장을 두고 있어서 현실에서는 대도시권역의 광역화를 의미하는데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새로운 흐름에 정책이 어떻게 따라가느냐하는 것이다.

종래처럼 인구집중을 서울이나 대도시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는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할수 없음을 물론이다. 예컨대 70년대 그린벨트는 서울의 인구집중을

물리적으로 막는 저지선이었으나 서울이 위성도시로 포위된 새로운 상황에서는 다른 역할을 맡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보다 과감하게 도시광역화에 대응해서 도로나 공원등으로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시점이다.

이번 통계조사에서 드러났듯 한국은 인구 1백명당 이사자수가 22명에 이르러 세계에 유례없는 주거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불안정성은 이웃 나라 일본의 5명, 대만의 8명에 비해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政策感覺에서 보면 이런 불안정성은 정부의 면밀한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실현되면 그만큼 성공률이 높아질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정한 사회간접시설도 확보하지 못한 신도시들에 사람이 몰려드는 것이 그 증거이지만 지금 시점이야말로 국토전반에 관한 종합계획을 서둘러 국토와 인구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새로운 국토종합이용의 마스터플랜을 내놓을 시점이다. 특히 부동산투기가 제풀에 사그러들고 있어서 정책의 타이밍이 갖춰져 있다고 할것이다.



가 북한을 뚫고 들어간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경제개발의 조속한 비기후화 함양이 경제발달의 전제조건인 것이니 수직공업이 중요하다. 북한의 경제개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인적자원 개발이 가장 중요하고, 인적자원은 경제개발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북한의 경제개발 전략은 경제개발의 전제조건인 인적자원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적자원의 개발은 인력수준의 향상과 인력의 질적 향상을 통한 것이다.

북한의 인적자원 개발 전략은 인력수준의 향상과 인력의 질적 향상을 통한 것이다. 인력수준의 향상은 인력의 교육수준을 높여 주고, 인력의 질적 향상은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 주는 것이다.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인 인력수준의 향상을 위한 것이다. 인력수준의 향상은 인력의 교육수준을 높여 주고, 인력의 질적 향상은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 주는 것이다.

최근 高大아세아문제연구소가 펴낸 『한국경제와 북한40년』(고려사출판)은 홍명표(金東源) 박사의 저술로 북한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인 인력수준의 향상을 위한 것이다. 인력수준의 향상은 인력의 교육수준을 높여 주고, 인력의 질적 향상은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 주는 것이다.

고무줄 統計 成長 불리기

근거의 심스러운 경제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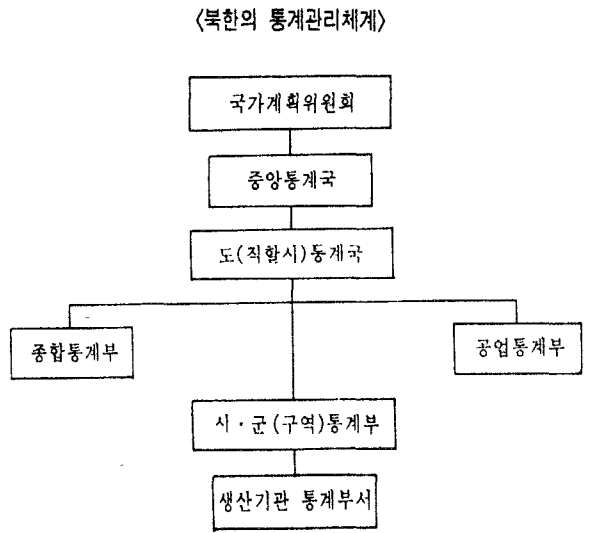
『통계』 사회주의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올바른 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가능합니다. 통계를 통해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국가의 경제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통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국가의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를 통해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국가의 경제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국가가

1인당 GNP

레전들 필요가 많지 못함을 보며, 통계를 생산물체와 장악의 면적이란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 두 면적은 모두 조선훈을 편찬자가 83년에 펴낸 다. 공식적인 통계는 61년의 조선훈 추수의 인민경제발전 통계전인 것이다. 그러한 통계 자료를 기정하고 다뤄왔던 조선훈 편찬자도 65년판까지는 자



료면에서 각종물계를 포함한
제시했으며, 66, 67년의 총합
분량과 비교했을때도 물계수
치를 거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발표하
고 있는 무역통계에 대해 예산
상의 정책예측을 이밖에도
수의 산본사적 최근인민회의
정책방향 등도 소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66년과 67년
그나만과 비교해 물계를 한
46만톤에서 44만톤으로
떨어뜨렸다고 소개하며, 배
수가 증가했다. 67년은 66
년에 비해 54배 증가했
다고 하는 것이 한 예로 꼽힌
다.

이처럼 60년대 중반이후의
결계통계 발표가 부실하기 이

를 데 없지 않음은 유감부론의
과다한 예산이 투입돼 북한
경제에 문제가 드러나기 시
작했다고 반종이론을 늘어놓
고 있다.

『물계기관은 국가의 중요
한 기관기관입니다. 그러므
로 통계기관을 아무 건물에
나 두더라도 튼튼하고 통계
기관장관을 좋은 인재를
선출해야 합니다. 그밖에도
통계기관의 임원들
모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통계를 국가기관으로 취급하는
것이 현명한 개입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黨의 노선과 정책
의 타당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통계자료는 통계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하며 발표될수
도 없다.

이런데도 북한의 통계구
성장의 역사에 동정을 두고
있으며, 『그러나보다, 통계가
자유성이며 성장되고 있다는
지정을 합니다.』 구체적 사례
로 북한은 『인민GNP를
75만 1천달러, 86년 2천4
백달러를 달성했다.』

북한의 통계가 얼마나 커
다들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
는지 단적인 사례로 유엔기
성 평가위원들의 지적을
대꾸하고 있다.
유엔개발기구(UNDP)로
부터는 세계발전상을 발표했
고 북한의 평가위원인GNP
를 과대하고 과 과했다. 북
한은 88년 인민GNP를 2
천5백달러로 과대했다고 U
NDP의 지원대장이 9백달
리가 설명했다. 이 때문에
북한의 UNDP의 성장선언
가가인 수치로 수정되고 있
고 있다.

『인민GNP를 4백
달러선으로 성장선언은 印度
보다도 양산품이다. 印度보다
도 다섯 배정도이므로 엄청난
일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북한은
정기적으로 전방에서 세계의
정확한 산출선언선언의 제
고, 예산의 정확성, 화력의 과
확화, 북한의 처럼 경제를 강
조하는 문헌들이 다수 나타나
고 있어 주목거리라고 있다.』

『그러나 세계의 정확성
과 확장의 통계의 정확성, 타
자의 선전선언과 산출된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폐쇄성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한 정
계 통계의 정확성과 확장의 선
진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세계
의 통계가 북한의 경제성장률
을 과대하고 있다는 점에 서
다한 지적을 하고 있다.』
『경제물계를 비롯한 경제정
계의 기관도 경제정책을 선
전선언할 때에 따라 주장한
수치수가 어떻게 변형되고
되고 있다.』 <北韓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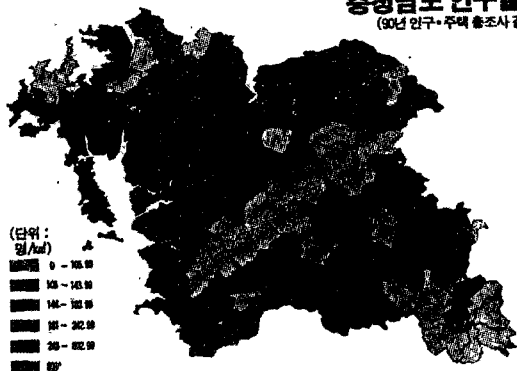
밀려 뒤쳐짐

노년과 청년의 격차... 2층 보고도



북한의 黨정책은 통계숫자와 일치한다. (사진은 종산을 등
러하는 선전포스터)

충청남도 인구밀도
(9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忠南지역의 인구밀도를 한눈에 들여다 볼수 있도록 만든 「지역정보시스템」.



컴퓨터 단말기를 두드리면 도표 1장에 全北 全州지역의 지형·지물은 물론 인구밀도·상점수등 각종 통계가 한눈에 나타난다.

국내 각종統計 한눈에 알수있게 한다

뿐만아니라 도로·철도·강·하천·건물 등 무려 40개 항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도시계획을 짜거나 국토를 개발할때 각종 통계자료를 일일이 들춰볼 필요가 없다.

통계청은 국내 전지역의 지리정보와 통계정보를 이처럼 도표 1장으로 알아볼수 있도록 「통계지역(지도)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개발중이다.

정보화사회에서 통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짐에 따라 곳곳에 흩어진

統計廳, 시스템개발 한창

각종 통계자료를 한곳에 모아 이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통계청은 이를위해 美IBM社로부터 지도및 그래픽전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구입, 작년6월부터 「기본지도」를 입력시키는 작업에 들어갔다.

워낙 작업량이 방대하다보니 앞으로 최대한 10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우선 내년중에 全北 일부지역의 GIS를 시범적으로 만들 계획인데 지도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는 국립지리원과 협조하고 업무의 상당부분을 컴퓨터 회사에 맡길 방침이다.

통계청 申賢均 기획과장은 『GIS가 완전히 구축되면 전국토의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인구·주택 총조사, 총사업체 조사등 각종 통계조사가 전보다 훨씬 정확하게 이뤄질것』이라고 말했다. <朴義俊기자>

物價 장마에도 안정세

7월 소비자 0.4%

올들어 가장 낮은 오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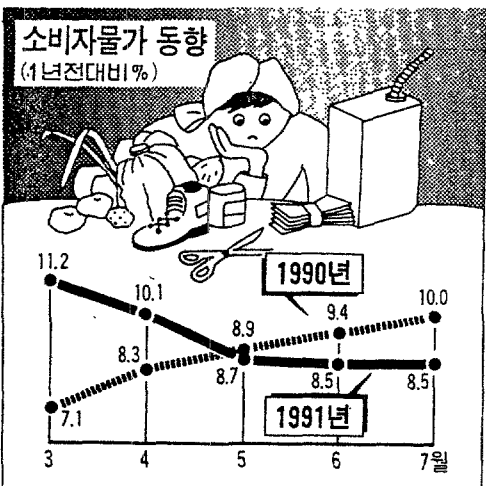
1년전보다 8.5%

수급조절에 성공할 경우 연 내 한자린수름가 달성에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달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로 1년전 대비 8%의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있으며 전히 물가안정기조가 정착됐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달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로 1년전 대비 8%의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있으며 전히 물가안정기조가 정착됐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30일 이월의계 수급조절에 성공할 경우 연 내 한자린수름가 달성에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달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로 1년전 대비 8%의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있으며 전히 물가안정기조가 정착됐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농산물과 공산품의 상승률이 0.1%로 1년전 대비 8%의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있으며 전히 물가안정기조가 정착됐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수급조절에 성공할 경우 연 내 한자린수름가 달성에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달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로 1년전 대비 8%의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있으며 전히 물가안정기조가 정착됐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류 4.5% ▲공산품 0.2% ▲서비스 1.2% ▲집세 0.9% ▲음식료 0.8% ▲의류 0.8% ▲주류 0.8% ▲주택임대료 0.8% ▲서비스 1.2% ▲집세 0.9% ▲음식료 0.8% ▲의류 0.8% ▲주류 0.8% ▲주택임대료 0.8%

국내景氣 다소 진정

6월산업동향 생산 前月比 5.1% 감소

건설은 受注 47% 증가 계속 好況

그동안 활황세를 지속했던 국내경기가 6월들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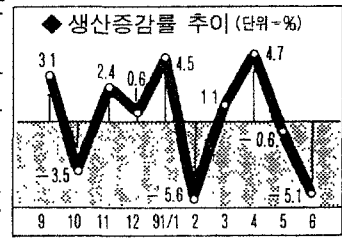
그러나 상반기(1~6월) 중 산업생산은 8.2% 증가, 비제조업은 신장세를 기록했으며 건설업기도 활황세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는 비수확기를 맞아 위축되고 있다.

1월 통계청이 발표한 91년 6월 산업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5.1% 감소했다. 8.2% 증가한 1월 대비로는 1.1%포인트 낮아졌다. 6월은 지난 89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산액도 전월 대비 5.1% 감소했다. 8.2% 증가한 1월 대비로는 1.1%포인트 낮아졌다. 6월은 지난 89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투자부문에서는 6월중 9%나 늘어나 여전한 건조속하기 면적이 작년 동기 실적과는 과열상태를 보이는데 0.6% 감소, 4개월 고인 것로나 타났다.

재하락 추세를 보이고는 상반기 전체로는 건조해 있으나 국내 건설수주는 46.7% 증가했다.



국내기계수주는 6월중 1.1% 감소, 지난 2월 이후 계속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반기 전체로도 9.7%가 줄어 들었다.

소미부문에서는 에이컨 승용차 VTR 등 내구소미 재를 중심으로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한편 6월중 수입자수는 38만 8천 명으로 2.0%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 KOSIS 기능 강화

이달부터는 은행·대학·연구소 등 민간기관들도 정부가 작성한 각종 통계자료를 컴퓨터를 통해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정부統計자료 PC로 보급 확대

27만種 : 민간단체 이용 가능에도

통계청은 지금까지 중앙부처 및 각시·도 39개 기관에만 제공하던 통계정보시스템(KOSIS) 서비스를 △정부부처 기관 △금융기관 △민간 연구소 △대학 △언론기관 △사회단체 등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해 공급되는 KOSIS에는 70만개 항목에 이르는 정부통계중심 산하가 완료된 27만 5천 2백여가지의 자료가 수록돼 있다.

이는 △인구·가구·주택 △경기변동·국민총생산 △각종 산업

이와따라 이들 기관에서도 개인용 컴퓨터(PC)에 전화회선을 연결, 필요한 통계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자료이용자들은 전화요청만으로도 지원이 된다.

국가 중앙통계기구인 통계청에

△에너지 △물가 △가계수지 △생활·금융 △재정 △기업경영지표 △외환 및 국제수지 △금융·문화·과학 △국토면적·기후 △보건의·환경 등 모두 20개 분야로 구분돼 있으며, UN 및 IMF 등 국제통계와도 비교가 가능하다.

KOSIS를 이용하면 장기적(최대 30년)인 변동 추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심를 구성비율 각종 비율도 각종 계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통계청은 앞으로 전자용 자료를 확충, 일반 개인들도 가정에서 다발기만 두드리면 통계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KOSIS의 기능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7월貿易도 16억달러赤字

輸出증가세 급격둔화 **을들어 81억달러**

內需·건설 過熱양상 지속

9월간연평균 **기업設備투자 위축**

상반기生産 8·출하 11%늘어

산업생산과 출하가 비교적 호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무역적자 확대, 내수 소비 및 건설경기 과열양상이 지속되며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

1월 산업생산 및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중의 총생산은 수출의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 전년동월대비 1.9% 증가한 55억9천3백만달러의 그치지 못 집계됐다. 반면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33%늘어난 71억9천8백만달러를 기록, 7월중의 무역수지 적자를 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냈다.

이로써 올해 7월말까지 무역수지 적산 수출 3백95억7천7백만달러(12.8%증가), 수입 4백76억7천4백만달러(25.7%증가)로 무역수지 적자가 88억9천5백만달러로 확대됐다.

하반기 이후 무역수지가 개선되리란 예측과는 달리 수출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수입은 더욱 증가 지속돼 올해 60억달러로 전망, 무역수지 적자 양상이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6월중 산업생산동향에 따르면 6월중 생산이 건축허가면적은 수확감수제로 늘었으나 골채양으로 이월 건설조수액은 5월보다 17.1% 지난해 6월보다 43.7%나 증가함으로써 하반기 건설경기 과열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6월중 배화전등, 중앙소매점 판매가 1년전보다 14.6% 내수용 소비재출하는 12.4%가 늘었으나 지난해의 비수준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했다.

해상반기보다 8.2% 줄어 10.9%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지난 4월말 고미로 제조업체 자본률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체의 현금자산수현상도 지속돼 하반기 경기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중 국내기계제조업체의 수출규모가 1년전보다 1.1% 감소했고 산업기계수입은 8.6%증가 제조업체의 설비투자도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용이므로 전반적인 산업활동이 활기를 띠고 상반기중 산업생산이 지난해

「90년人口住宅센서스」표본분석

전국의 인구는 24.7백만 명으로, 이 중 4.2백만 명이 15세 이하의 아동인 반면 5.1백만 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8.6세로 증가하여, 이는 90년 인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특히 서울의 인구는 19.9백만 명으로, 이는 전국의 인구의 80.6%에 달한다. 서울의 인구는 19.9백만 명으로, 이는 전국의 인구의 80.6%에 달한다. 서울의 인구는 19.9백만 명으로, 이는 전국의 인구의 80.6%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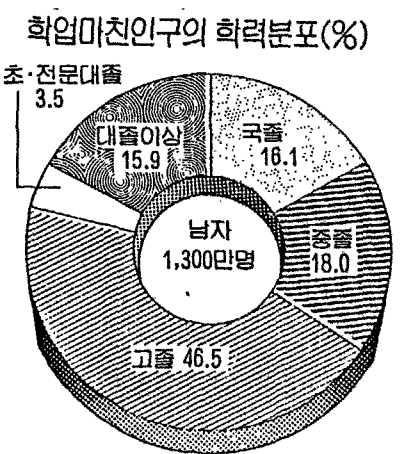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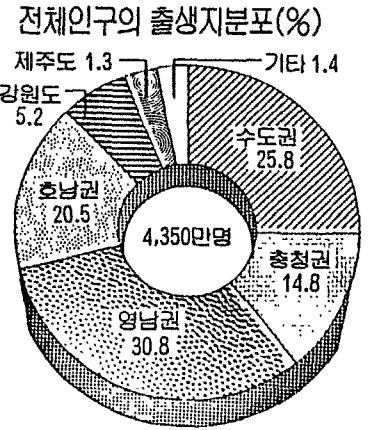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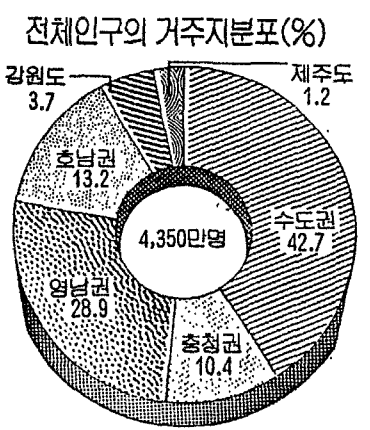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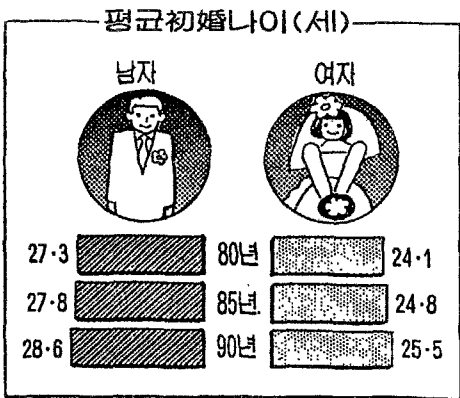
都市가구 28%가 단칸방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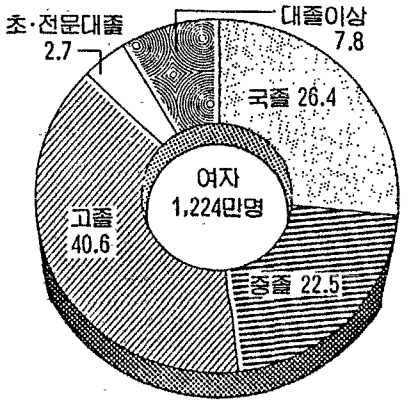
도시생활을 갖추고 있으나 증가, 집을 팔지도 못하고 사는 단칸방이 71%가 채 되지 않는 반면, 재래시가지와 농촌지역에서는 단칸방이 79%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의 단칸방은 41.6%로, 전국 평균인 50.6%보다 낮다. 서울의 단칸방은 41.6%로, 전국 평균인 50.6%보다 낮다. 서울의 단칸방은 41.6%로, 전국 평균인 50.6%보다 낮다.

初婚연령 늦어져 男 28.6세 女 25.5세
高卒이상 49.7%로 5년새 10%늘
서울전입자 全南출신 9.3%최고
상수도 보급 74% 가스사용 82% 이

서울의 인구구조는 1인 가구가 42.9%로 가장 많고, 2인 가구가 32.2%로, 3인 가구가 19.5%, 4인 가구가 19.5%, 5인 이상이 5.9%에 달한다. 이는 전국의 인구구조와 비교하면, 서울의 인구구조는 1인 가구가 42.9%로 가장 많고, 2인 가구가 32.2%로, 3인 가구가 19.5%, 4인 가구가 19.5%, 5인 이상이 5.9%에 달한다.

가구 인원	85년	90년
1인	6.9	9.5
2인	12.3	14.9
3인	16.5	19.4
4인	25.3	29.2
5인	19.5	18.0
6인 이상	19.5	9.6





어세

京畿 忠南 順

한양도 1.2%

5명전 (순수) 남 2.7
 평온 (순수) 남 26.9
 평온 (순수) 남 26.9

남녀 4인
 남 2.7% (순수) 남 26.9% (순수) 남 26.9% (순수)
 남 2.7% (순수) 남 26.9% (순수) 남 26.9% (순수)
 남 2.7% (순수) 남 26.9% (순수) 남 26.9% (순수)
 남 2.7% (순수) 남 26.9% (순수) 남 26.9% (순수)
 남 2.7% (순수) 남 26.9% (순수) 남 26.9% (순수)

신앙은 선천적이다.
 12세 이상 남녀 40 명남
 서울 60.2% 남 13.5% 남
 서울 55.5% 남 13.5% 남
 서울 45.5% 남 13.5% 남
 서울 45.5% 남 13.5% 남
 서울 45.5% 남 13.5% 남

신앙은 선천적이다. 12세 이상 남녀 40 명남
 서울 60.2% 남 13.5% 남
 서울 55.5% 남 13.5% 남
 서울 45.5% 남 13.5% 남
 서울 45.5% 남 13.5% 남
 서울 45.5% 남 13.5% 남

신앙은 선천적이다.
 서울 60.2% 남 13.5% 남
 서울 55.5% 남 13.5% 남
 서울 45.5% 남 13.5% 남
 서울 45.5% 남 13.5% 남
 서울 45.5% 남 13.5% 남

교육수준 높아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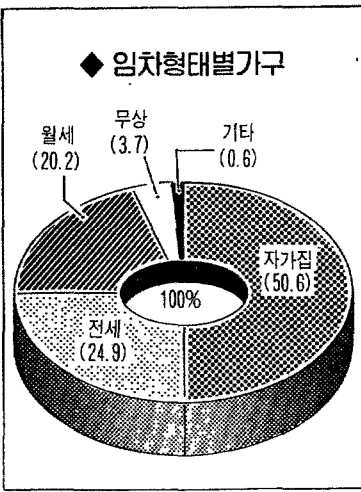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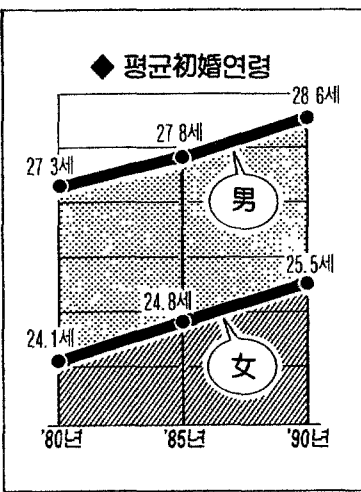
나라 국민들의 생활상태 변화상을 분석한 통계자료가 6일 발표됐다. 이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젊은층사 이에서 생활수준이 높게 나타

이상 인구의 9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85년의 88.9%보다 1.8%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같은 수를 보면 평균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고졸 이상인 전체를 합친 인구의 58.7%를 차지해 80년 35.6%, 85년 47.9%에 비해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크게 높아졌

이때마다 평균 初婚연령이 낮아져 모두 상승, 남자의 경우 같은 기간 27.8세에서 28.6세로, 여자는 24.8세에서 25.5세로 각각 높아졌다. 또 자가 가 태어난 市道를 떠나 他郷살이를 하고 있는 인구는 전체의 41.3%를 차지, 85년의 36.5%보다 4.8%포인트

↑ 採編기자 > 7인가구 중 자기집에 사는 가구는 50.6%로 85년보다 2.8%포인트 감소했다. 전세가 24.9%, 월세가 20.2%를 차지했다. 특히 도시지역의 자기집 주거비율이 41.6%로 낮게 나타난 반면, 郡지역은 76.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주택공급증가율(20.8%)이 가구증가율(18.8%)을 앞섰다는



3人以下가구 43%...核가 他郷살이 41% ... 「自宅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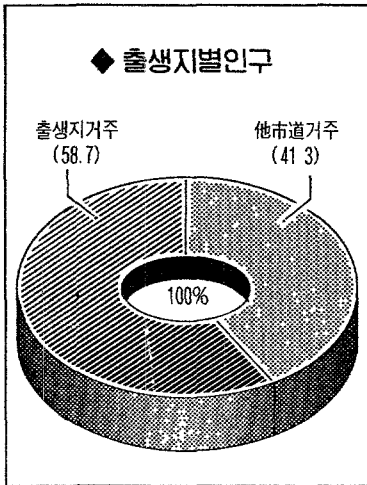
가구원수의 감소와 대조적으로 가구당 사용방수는 많아지고 있다. 방2개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66.5%에서 53.5%로 줄어든 반면, 3개 이상을 쓰고 있는 가구는 33.5%에서 46.5%로 증가했다. <출처> 통계청, 7백37만4천호 중 1가구만 사는 주택 비율은 72.8%로 85년의 69.7%에 비해 3.1%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5년간 아파트 및 임대주택이 각각 1백3.2%, 42.6%씩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당 평균전평면은 24.7坪으로 85년의 22坪보다 2.7坪이 늘어났으며, 지역별로는 大邱(29.3坪)가 가장 넓고, 서울(29.1坪)이 그 뒤를 이고 있다. 주택당 방수도 85년의 3.6개에서 4.2개로 증가했으며, 역시 大邱가 5.2개도 가장 많았다. 여기서 방은 침실, 서재, 응접실, 마루, 거실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특히 방4개 이상의 주택이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어(50.8%) 갈수록 생활공간이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晩婚경향

통계청 인구주택센서스 분석

지난해 11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 인구주택센서스에서 2%의 가구를 표본 추출, △교육 △혼인 △출생지 △주거형태 등 우리

는 「晩婚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센서스 표본 조사결과를 부분별로 살펴본다.



인구 재 90년 11월 1일 현재 국민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인구는 3천 6백 35만 5천 명으로 6세

미혼자는 85년에는 72.1%였으나 90년에는 80.7%를 차지했다.

15세 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인구는 59.6%, 미혼은 32.4%, 死別 7.8%, 이혼은 0.8%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 20.24세의 여성은 미혼비율이 72.1%로 나타났다. 반면 7천 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37만 7천 명이었다.

족화 뚜렷 주」절반뿐

90년 11월 1일 현재 총 1천 1백 35만 7천 명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하층층안 북에서 유입된 인구는 67만 7천 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7천 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37만 7천 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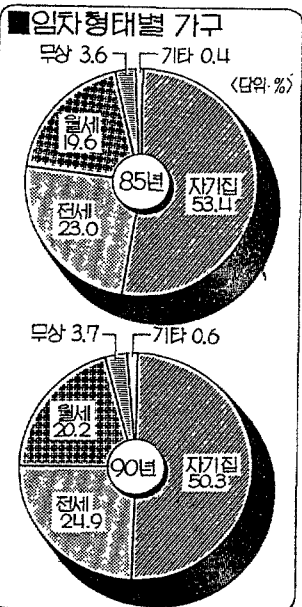
12세 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인구는 60.2%, 미혼은 32.4%, 死別 7.8%, 이혼은 0.8% 순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이 60.2%로 가장 높았으며, 釜山 등 5 대도시는 55.6~57.6%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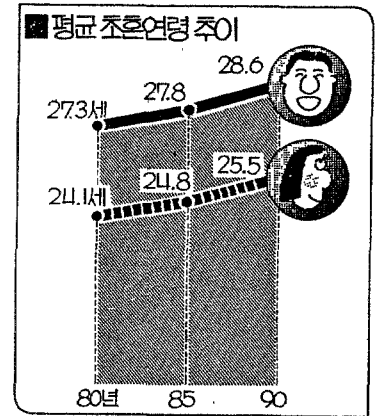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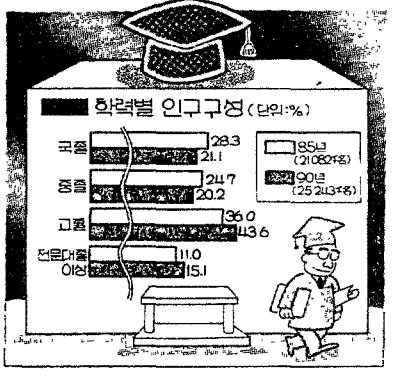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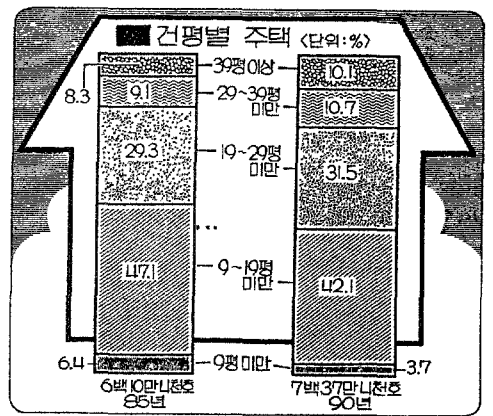
반면 5인이상 가구는 85년(39.0%)보다 크게 줄어든 27.6%로 핵가족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90년 인구주택조사 결과

고학력·晚婚 추세 뚜렷



▲주택형태별 가구
무상 3.6, 기타 0.4, 월세 19.6, 전세 23.0, 자가집 53.1 (85년)
무상 3.7, 기타 0.6, 월세 20.2, 전세 24.9, 자가집 50.3 (90년)



여성 대학진학 크게 늘어

90년 인구주택조사 결과, 고학력·晚婚 추세가 뚜렷해졌다. 특히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크게 증가했으며, 평균 결혼연령도 상승했다.

▲대학진학률=20대와 30대 초반의 여성이 대학진학하는 비율이 8.7%로 나타났다. 이는 85년의 7.1%에서 1.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특히 20대 초반의 여성이 11.1%로 증가했다.

▲평균 결혼연령 추이
80년 남 27.3세, 여 24.1세
85년 남 27.8세, 여 24.8세
90년 남 28.6세, 여 25.5세

▲주택형태별 가구
85년: 자가집 53.1%, 전세 23.0%, 월세 19.6%, 무상 3.6%, 기타 0.4%
90년: 자가집 50.3%, 전세 24.9%, 월세 20.2%, 무상 3.7%, 기타 0.6%

▲교육별 인구구성 (단위: %)
85년 (21,022,456): 고졸 28.3%, 중졸 21.1%, 고졸 24.7%, 전문대졸 이상 11.0%
90년 (25,243,456): 고졸 36.0%, 중졸 14.6%, 전문대졸 이상 15.1%

▲가구당 가구원 수
85년: 3.1명
90년: 3.0명

▲가구당 주택면적
85년: 44.7평
90년: 42.1평

25~29세 남자 절반이상이 총각
6大도시 자기집 居住 40%선
방 한개만 쓰는 가구도 25%나

▲총각·처녀 증가
25~29세 남자의 절반 이상이 총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5년의 45%에서 55%로 증가했다. 특히 6大도시에서는 40% 이상이 자기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 한개만 쓰는 가구도 25%나
방 한개만 쓰는 가구의 비율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5년의 20%에서 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주택형태별 가구
85년: 자가집 53.1%, 전세 23.0%, 월세 19.6%, 무상 3.6%, 기타 0.4%
90년: 자가집 50.3%, 전세 24.9%, 월세 20.2%, 무상 3.7%, 기타 0.6%

▲교육별 인구구성 (단위: %)
85년 (21,022,456): 고졸 28.3%, 중졸 21.1%, 고졸 24.7%, 전문대졸 이상 11.0%
90년 (25,243,456): 고졸 36.0%, 중졸 14.6%, 전문대졸 이상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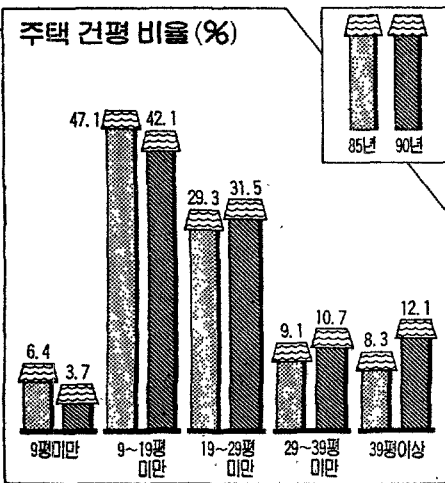
▲가구당 가구원 수
85년: 3.1명
90년: 3.0명

▲가구당 주택면적
85년: 44.7평
90년: 42.1평

核가족늘어 住宅難가중

90년 人口주택 총조사 自家 10년새 58.4%서 50.6%로

주택규모 전국평균 24.7평



주택규모가 대형화하고 증가로 도시지역에서의 핵가족화에 따른 가구수의 집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결혼연령은 점점 늦어지고 있으며 국민의 교육수준은 크게 높아졌다. 통계청은 작년 11월 1일을 기점으로 실시한 '90년 인구주택 총조사' 가운데

전체가구의 2%를 기본주택, 석, 이같은 내용의 인구주택실태조사 발표했다. 조사결과 자기집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80년 58.4%, 85년 53.4%에서 90년에는 50.6%로 줄었다. 특히 도시의 경우

41.6%만이 자기집에 살고 있다. 한편 서울의 경우 6%에서 45.1%로 늘었으며, 이중 전체가 24.9%이고 월세는 20.2%나 되었다. 그러나 주택규모는 85

년의 22.0평보다 2.7평이 커졌다. 또 가족수가 4명 이하인 가구는 전체의 72.4%로 85년의 61.0%에 비해 크게 늘어 핵가족화현상이 급속히 진행되었음을 보여줬다. 평균 사용방

수는 2.6개(85년 2.3개)로 가족수 감소와 함께 대로 주거공간은 커지는 추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도시가구중에서 단독방에 사는 가구가 27.8%로, 85년의 38.7%보다 줄어 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태어난 곳을 떠나 객지에서 살고있는 사람(총인구의 41.3%)은 85년 36.5%로 늘어난 것을 보면 더욱 심해졌음을 보여줬다. 특히 서울인구의 56.7%는 타시도에서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初婚연령은 남자가 28.6세, 여자는 25.5세로 높아졌다.

집 1채에 1.5가구... 25%가

통계청의 90년 발표한 「2000년 주택정책방향」에 따르면 90년 이후 5년간 주택 건설 85만 5천여 가구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90년 1월 1일 기준 주택 건설 10%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90년 1월 1일 기준 주택 건설 10%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90년 1월 1일 기준 주택 건설 10%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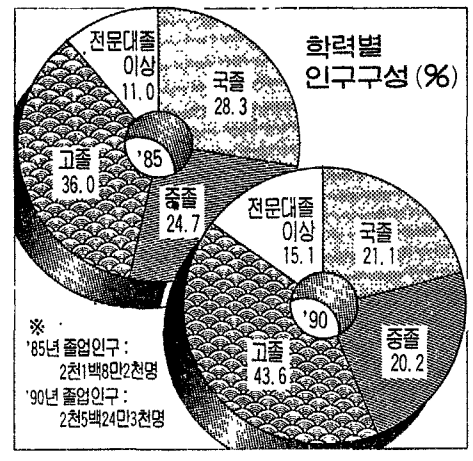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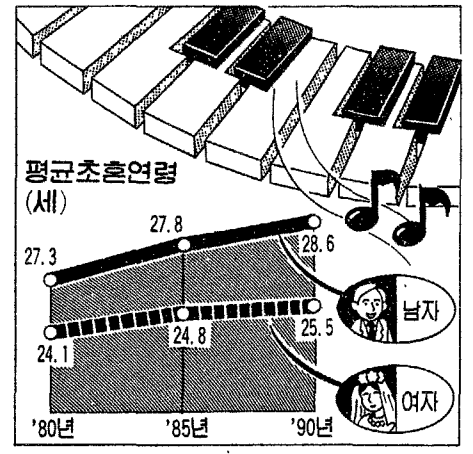
통계청 90년 인구주택 조사

주택정책방향에 따르면 90년 이후 5년간 주택 건설 85만 5천여 가구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90년 1월 1일 기준 주택 건설 10%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90년 1월 1일 기준 주택 건설 10%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정책방향에 따르면 90년 이후 5년간 주택 건설 85만 5천여 가구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90년 1월 1일 기준 주택 건설 10%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90년 1월 1일 기준 주택 건설 10%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정책방향에 따르면 90년 이후 5년간 주택 건설 85만 5천여 가구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90년 1월 1일 기준 주택 건설 10%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90년 1월 1일 기준 주택 건설 10%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정책방향에 따르면 90년 이후 5년간 주택 건설 85만 5천여 가구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90년 1월 1일 기준 주택 건설 10%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90년 1월 1일 기준 주택 건설 10%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85년 졸업인구: 2천1백8만2천명
'90년 졸업인구: 2천5백24만3천명

“단칸방”

6세이상 인구가 91.7%로 88%의 인구가 6세이상이다.

6세이상 인구가 91.7%로 88%의 인구가 6세이상이다.

6세이상 인구가 91.7%로 88%의 인구가 6세이상이다.

수 4명이 하가 72%

여자 대졸 5년사이 85% 늘어

89.9%보다 15%이상 증가한 91.7%로 88%의 인구가 6세이상이다.

이름하고있을인구가 1천7백94만명으로 전체의 41.3%의 인구가 12세이하이다.

취사연료로 추산하면 82.2%의 3백이상 불이 단란연탄(10%)나 무연탄(2.5%)의 비율로 사용된다.

20~24세女 81%가 미혼 “晚婚추세”
41.3%가 타향살이... 서울은 43%

연탄의 비중(13.5%)재래식의 비중(5.9%)등의 비중이 5.9%이다. 부업시업의 비중은 46%로 재택시업을 벗어나지 못하고있으며, 부업시업의 비중은 55.4%에 이른다. 평균 월급은 58.5%로 늘었고, 미혼자는 32.4%(85년 33.8%)로 줄었다. 이가 출산률이 하향추세인구의 비중이 74%로 늘었다.

15세이상의 인구가 91.7%로 88%의 인구가 6세이상이다.

취사연료로 추산하면 82.2%의 3백이상 불이 단란연탄(10%)나 무연탄(2.5%)의 비율로 사용된다.

가사용 추산하면 82.2%의 3백이상 불이 단란연탄(10%)나 무연탄(2.5%)의 비율로 사용된다.

가사용 추산하면 82.2%의 3백이상 불이 단란연탄(10%)나 무연탄(2.5%)의 비율로 사용된다.

〈羅鍾穎기자〉

高학력·核가족 晩婚現象 뚜렷

유연수출과 원자력공업 발달
 평형가족 晩婚현상의 두드러
 진지계 진화되어 옹골 것이
 러 나타났다.

반지산출발전의 추방수
 가 지난 88년 20.8%나
 고조됐으나 핵가족화가 생
 활의 질의향상을 감안한 결
 정을 감안하여 인구가 증가
 수의 45.1%로 이가산출
 2.6%로 80%의 인구가
 평안 지방 등 지방에서 옹골
 족이며 나타났다.

晩婚현상이 증가된 것 때문
 이 산출이 증가하며 전체 인
 구 추방출산(원산지)에서
 진화시키는 2%를 포함해
 핵가족이 증가할수록 고부
 족간·가족원가족에 영향을
 받는다.

▲핵가족비율
 인구가 58.5%로 전 1.1%
 88년의 58.5%로 전 1.1%
 비인구가 핵가족비율의 인
 구가 33.8%로 전 1.4%로
 인구가 전 인구의 핵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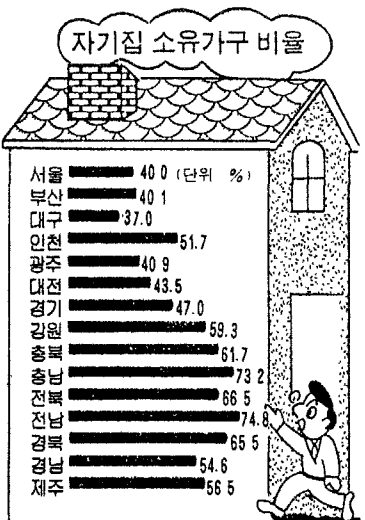
「90년 人口주택 총조사」 분석

합본형 중소형주택의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된 높은
 다. 初婚연령은 남자가 27.8
 세에서 28.6세로 여자가 24
 .8세에서 25.5세로 각각
 상승.

▲출생지별 자가 주택에
 다. 서울은 43.3%로 다른 도
 시는 30% 이하로 나타났다.
 서울인구가 높아진 것.
 8%포인트가 높아진 것.
 이 85년의 36.5%보다 4
 3%포인트의 이르고 있는데
 만 20대의 인구는 1천7백94
 가 증가한 인구는 1천7백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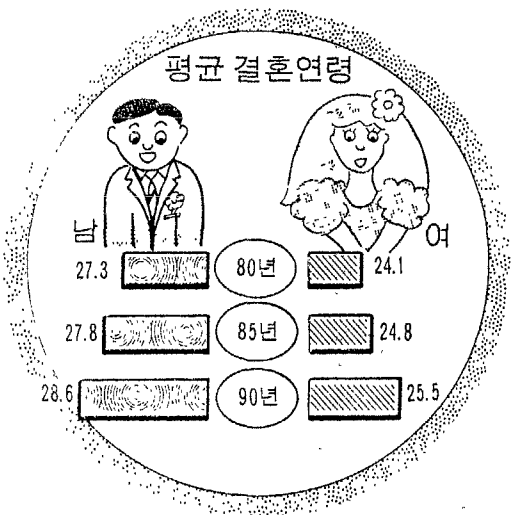
9개도의 출생지 거주율이
 서울이 91.3%로 가장 높고
 京畿가 45.5%로 가장 낮아
 이다. 다른 시도도 76.3~88.
 2%수준.

집 20.8% 증가 불구



▲자기집 거주
 여부=전부 1천
 1백35만7천가구 중 자기집
 의 자가인구가 50.6%
 로 88년의 53.4%보다 2.
 8%포인트가 감소. 또 불
 동여할과 같은 가구는 전
 구의 45.1%로 전 13만가
 구로 88년 2.5%로 전 인
 구가 증가.

▲핵가족수=전체가구 중
 가구원의 4명인 가구 28.
 2%(3백31만5천가구)로



傳·月貫 45%

가장 많이 표 3 인가 구 19.4%
 5 인가 구 18% 2 인가 구
 14.3% 1 인가 구 9.5%의 순.
 4 인가 구 10.9% 전체인
 72.4%에 88표 61%이다
 크게 표 3 적 핵가 핵가 핵가
 의가 수전환한 연도였다.

1.6% 수전환된 0.9%의 순.
 ▲취사연료 = 가스철 사용
 하다가 구가 88.2% 85년
 에 비하면 표 3 표인산의 2
 7% 林産연료 2.5% 우
 류 2.1% 煤이었다.
 ▲특히 표 3 구 가스철 사용
 구가 85년 33만 9천구에 표
 서 1만 9천구 증가된 6 표
 이상 증가.

주택당 평균建坪 24.7평 대형화추세

사영호구 전이 48.1% 48.1%가
 전이 48.1% 48.1% 28.
 4%) 28만 4천구(13.5%) 13.
 5.9%) 13만 5천구(5.9%) 13.
 5.3%)의 순.
 ▲부대시설 = 부대시설의
 전이 100% 100% 100% 100%
 6% 전이 100% 100% 100%
 10% 100% 100% 100%
 55.4%

▲거주가구수 =
 총가구수 7만 37
 만 4천구 중 1가구만 사
 주택비율이 72.8% 85년
 의 69.7%에 비해 3.1%
 포인트가 상승되고 지난 5
 년간 아파트형 주택비율의
 크게 늘었다. 반면 주택당 가
 구수는 1.5가구로 1985년
 1.1가구로 1985년 1.1가
 1.0가구.

▲建坪 = 주택당 평면적 평
 24.7 평이 85년 22 평
 2.7 평이 늘었다. 주택
 이 전차도 1985년 19.4 평
 19 평이 19.1 평 42.1
 %로 가장 많이 19.1 평 31.
 5% 28 평 22.7%.

▲동수 = 주택당 평면적 수
 3.6 개로서 4.2 개로
 4가. 신대형의 4.2 개로
 2개씩 증가.

〈開閉欄기자〉

조사결과와 주요특징을 부
문별로 살펴본다.

인구 지형(不均衡)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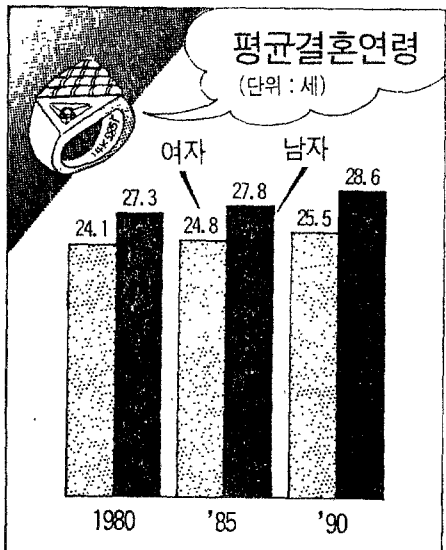
90년 3백39만
8천명에서 90년 3백8만
8천명으로 4.6% 감소한 반면 초
대학이상의 대주는 85년 2
백32만명에서 3백81만명으로
64.1% 증가했다.

이중 남자가 85년에 비
해 55.2%가 늘어났지만 여
자는 84.9%나 증가, 여성
의 고등교육참여가 활발해지
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중주의하의 비중
은 85년 53%에서 90년 41.
3%로 낮아진 반면 고주의
상인 47%에서 58.7%로 크게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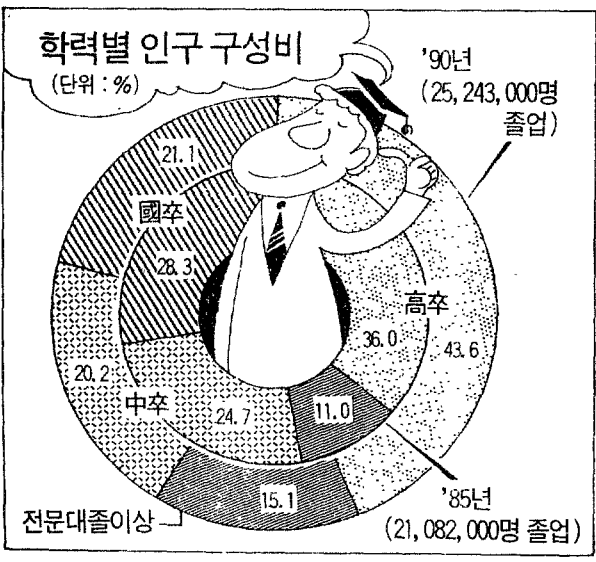
이처럼 고학력화 현상과함
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
사회활동참여기회가 크게 확대
되면서 20대 남녀 모두 결
혼율 가파르게 상승, 결혼
모양도 20~24세의 여자
중 미혼비율이 85년 72.1%에

30·40代 「獨身」



활약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혼인구 비율은 85년 0.
6%에서 90년 0.8%로 높
아졌다.
출생지별 인구이동 상황을
보면 출신 시·도를 떠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85

년 1백3·5만 명에서
1백3·5만 명으로 1.5% 증가
했다. 특히 서울로 출
생한 인구가 그만큼 많
아졌다.
자기집에 거주하
는 인구는 85년 53.
4%에서 50.6%



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4인인가구가 차
지하는 비중은 85년 61%에

어난데 따른 것이다.
〈韓國誌기자〉

전국 家口·주택·인구 明細

통계청이 6월 발표한 「90년 인구조사」 2% 표본조사 결과 「전국」의 산입외의 파라 핵가족화 현상, 여성들의 고등교육 참여 및 고학력 현상의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출기를 망친 출자·처녀들의 결혼이 늦어지고晚婚현상과 함께 30, 40대의들에서도 결혼을 하지 않거나 혼자생활을 하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건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도 自家가주 비율이 계속 낮아지는 것이 큰 속한 핵가족화 현상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자신이 택어난市·道를 떠나 다른 지역의 거주하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조사결과를 통계청이 지난 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면서 「애」 10%를 표본추출 ▲교육 ▲출생지 ▲주거 형태 등에 조사한 결과 중 일

5년전 비해 2배

서울 「流入 초과」 하루 30만명
愛鄉 최고 全南... 토박이 91%

서지나해는 80.7%로 크게 높아졌다. 서울은 85.5%로 80년 80.1%에서 5.4%포인트 상승했다. 부산은 85.5%로 80년 80.1%에서 5.4%포인트 상승했다. 대구는 85.5%로 80년 80.1%에서 5.4%포인트 상승했다. 대전은 85.5%로 80년 80.1%에서 5.4%포인트 상승했다. 광주·전남은 85.5%로 80년 80.1%에서 5.4%포인트 상승했다. 전북은 85.5%로 80년 80.1%에서 5.4%포인트 상승했다. 충청권은 85.5%로 80년 80.1%에서 5.4%포인트 상승했다. 강원·제주도는 85.5%로 80년 80.1%에서 5.4%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인구의 36.5% (1천 4백 76만 명)에서 90년 41.3% (1천 7백 94만 명)으로 4.8%포인트 높아졌다. 전체 인구를 출생지별로 나눠 보면 釜山·大邱·慶南 북부 등 남부의 30.8%로 제일 많았고 다음이 서울·仁川·京畿도의 수도권(25.8%), 光州·全南 북부·충청권(20.5%), 江原(5.2%), 濟州(1.3%)의 순이었다. 수도권은 인구구성을 보면 서울이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의 비중이 91.3%로 가장 높고 京畿가 수도권 광역화 현상으로 타지역 사람이 많이 유입해 45.5%로 가장 낮았다.

대도시의 주·야간 인구가 동등하면 서울이 인구가 30만명, 부산이 20만명, 대구가 17만명, 대전이 15만명, 광주·전남이 13만명, 전북이 11만명, 충청권이 9만명, 강원·제주도가 7만명, 30만명 정도의 유입 추세를 보이고 있다.

90년 현재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4.4%로 2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3인 가구 19.4%, 5인 가구 18%, 2인 가구 14.3%, 1인가구 9.5%, 6인 가구 5.8%, 7인 이상 3.9%로 나타났다. 90년 현재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4.4%로 2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3인 가구 19.4%, 5인 가구 18%, 2인 가구 14.3%, 1인가구 9.5%, 6인 가구 5.8%, 7인 이상 3.9%로 나타났다.

90년 72.4%로 크게 높아진 반면 5인 이상 가구는 39%에서 27.6%로 낮아져 핵가족화 현상의 급진전이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당 평면적은 85년 24.7평이던 88년 22평이다. 2.7평이 늘고 대형주택은 7%를 보였다. 평면적은 2.7% 늘었다. 평면적은 2.7% 늘었다. 평면적은 2.7% 늘었다.

社 說

無住宅 50% 시대의 주택정책

6월 발표된 「9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당면과제가 역시 주거문제를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조사결과를 자기집의 보유비율이 지난 10년간 계속 낮아져 왔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통계청이 분석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핵가족화 현상에도 그 원인이 있겠다. 우리는 더 큰 원인이 지난 10년간의 부동산가격 폭등과 인구의 계속적인 수도권 집중현상에 있다고 본다.

핵가족화 현상으로 가구수는 늘어나는데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소득증가를 훨씬 앞지르고 주택공급이 미처 따를 수 없게 인구가 집중되고 보면 무주택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렇다면 무주택현상의 완화와 면책을 하고 할 수 있다. 핵가족화 현상의 막을 수 없는 사회적 추세인 이상 부동산의 저세를 계속 감화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주

택공급을 늘려 주택을 비교적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2백만호 건설계획에 의해 그 기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주택고유주택만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크고 값 비싼 집을 짓는다면 경제적 여유가 없는 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이 여전히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주택공급에 있어선 소형주택의 비율을 대폭 늘리고 임대주택을 가급적 한 많이 짓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가격이 최근 안정추세에 들어간 것이 주택안정현상을 위해선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 기회에 다시 부동산투기와 사기의 만가면이 되살아 나지 않도록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요즘 토지소유자들의 조세저항등들이 유로 정부의 부동산가격억제의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 우려할만한 일이다. 부동산가격을 잡지 못하면 2백만호 건설도 하나나한 것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그 의지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주택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원인은 무엇보다 가장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 수도권 인구문제다. 정부가 이의지를 밝힌 것은 이미 오판되었지만 그를 구체화할 시책의 추진은 지지부진이다. 수도권 인구의 억제와 집주계속 줄여주기 등 총인구를 어디에서 줄 수 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그동안의 모든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므로 인해 인구집중이 불가피했지만 이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전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를 계기로 국가재원을 상대적인 다후지역에 집중배정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의 필요성 자체를 없애 나가야 한다.

이제까지의 주택정책의 발명의 불을 끄기에 급급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의 어휘면 문제를 완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를테면 수도권 주택난이 심하다 해서 수도권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리면 당장의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구를 집중시켜 주택난이 다시 악화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주택정책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사회변화와 인구이동 추세를 적절히 수용하고 조절할 수 있는 종합적인 내용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社說

生活上에도 陰陽있다

지난 5년간 우리의 생활양식은 많이 변화했다. 그 변화란 일반적으로 向上이라 할 수 있다.

특정장의 2%의 標本調査를 통해 보면, 자료에 따르면 지난 85년의 비해 90년도 생활양식의 규모와 부피가 전담적으로 커졌다.

다체로, 우리의 생활의 改善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 나타났다. 高學歴층의 비중이 11.8%에 달했다. 이는 50년전에 비해 3.6% 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특히 30대 이상의 40대 이하자들은 대도시에서의 증가율이 무려 85%에 이르렀다.

여성의 社會活動과 地位向上이 이를 계기로 현저하게 볼 수 있다.

고급단계의 여성은 晩婚층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50년 전의 8%를 넘어섰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어떻게 나타났는가. 離婚率이 높아지고 核家族化가 현저하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시기를 자꾸만 늦추고 있다. 현상이 점점 예상대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혼인을 가법적으로 보는 풍조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물론, 生活양식 변화가 傳統社會의 뿌리를 흔들지 못하면 발전의

기분은 되보다 담뽀라고 짐작할 수 없는 것이다.

住居文化의 급속한 변화를 반드시 발전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주택규모가 평균 24.7坪으로 커졌고 가스연료와 기름난방으로 高級화된 것이면

이와 동시에 解散할 수 있을 것이다. 單居의 家口數이 보면 4인이하가 72%를 넘어 다중주택이므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린다. 核家族化가 노년과의 접촉

교류를 기피하고 부부생활 외주로 바뀔 때, 우리 사회의 세대간 갈등은 물론 이질 수반의 증가를 뜻한다.

이런 것 말고 自家 거주율이 고작 50% 수준이고 45% 상당의 世帯主가 전월세에 살고 있거나, 한편 단칸방에 살고 있는 사람만 도시구가구가 28%에 달한다는 통계가 우리를 스름하게 만든다.

우리는 사회가 高移動性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지만 出生地와 居住地를 비교할 때 1천7백만명의 他郷에 옮겨 사는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왜 잠수복이 물이 높아지고 있는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가 잘 되면 거주지를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될지, 모두가 기대하며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는 결론이다.

大都市구의 주요한 인물이 엄청난 계층이다. 사실은 문제이자 정 책과제로 떠올랐다. 서울의 경우 주야간 流出人口가 1백만 명을 넘고 특히 낮시간에는 80만 명 이상의 入超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야간 이동이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 틀림없지만 이 또한

도시질서문제의 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자칫 인구의 주택선저스 결과 우리의 生活上 自由로 인출되지 않을까 두렵다. 물론, 向上에도 격차가 있고 住居의 생활양식에도 陰陽이 있다면 정을 중시하는 정책자료가 되어야 하리라 결론이다.

서비스 부문 인력유입 가속

작년보다 6% 58萬명 늘어

建設業도 21萬명... 失業率은 2.4%

통계청 발표 上半期 고용 동향

건설 및 서비스 부문의 호황이 반영되어 제조업보다 서비스 부문이 인력 유입의 대거 유입을 견인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4~6월) 경상내지 영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중 취업자는 1천8백20만9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3% 53만6천명이 증가했다.

건설업 서비스 부문의 호황이 반영되어 제조업보다 서비스 부문이 인력 유입의 대거 유입을 견인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중화학공업 부문의 취업자는 2.4분기에 늘었으나 1.4분기(1~3월) 중화학공업 부문은 취업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 취업자로는 나타났다. 상반기 중 취업자는 4백95만3천명으로 1년 사이에 18만8천명(3.9%)이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건설업은 1백46만2천명으로 10만7천명(7.7%)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1천3백49만9천명으로 16.7%이나 증가했지만 서비스 부문은 5백46만9천명으로 13.3%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6대 도시의 경우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사이에 13만명(4.9%)이 늘었으며 서비스 부문은 9만명(9.9%) 증가했다. 1.4분기(1~3월) 중화학공업 부문은 29만4천명(5.4%)이 증가했고 9개 도 지역도 제조업은 5만7천명(2.7%)이 늘었으나 서비스 부문은 29만4천명(7.1%)이 늘었다.

그중 서울은 올 상반기 중 취업자가 1년 사이에 5만7천명(4.3%) 늘어났는데 그 반면 건설업의 5만1천명(13.3%)을 포함해 서비스 부문이 무려 14만4천명(4.7%) 늘어났

다. 전국에서 全南(1만8천명) 全北(9천명) 忠北(1천명) 등 3개 지역은 상반기 중 취업자수가 1년 전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

서비스 부문의 고용유입력이 커짐에 따라 상반기 중 산업별 취업자 비중은 중화학업이 16.1%로 작년보다 1.8%포인트 낮아지고 광공업은 27.6%로 0.2%포인트 증가에

그쳤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는 56.3%로 1.6%포인트 높아졌다.

한편 올 상반기 중 실업자 수는 46만4천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8천명이 줄었고 이에 따라 실업률은 2.4%(1.4분기 2.9%, 2.4분기 2.1%)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0.3%포인트 낮아졌다. 2.4분기 중 취업자 수는 1천8백98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建設業 6大市 7월 11월 1991년

건설경기과열로 건설업 취업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노동력의 6대도시 집중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해 상반기 중 경제활동인구는 1천80만6천733명으로, 1990년 동기보다 2.0% 증가했다.

이 10만명보다 1천80만 20만6천명이며, 1990년 동기와 비교하면 3%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율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을 웃돌아 실업률은 전년상반기 중의 2.4%에서 2.1%로 0.3%포인트 낮아졌다. 산업별로는 농업·임업자가 1% 감소한 데 비해 광공업과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부분의 취업자는 각각 3.5%, 6.1%의 증가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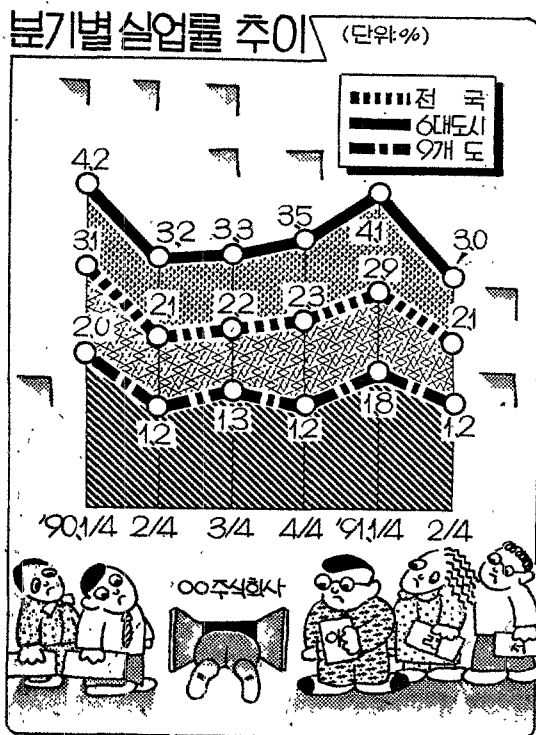
이 기간 중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부분의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건설 경기 과열로 건설업 취업자가 16.7%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부분의 취업자는 작년 동기와 비교해 58만8천 명 늘었지만, 데이 증가 35.5%로, 9개도에서 19.9%를 기록, 9개도의 건설경기 과열현상을 반영했다.

그런데 9개도의 건설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의 취업자 증가율은 미미해 상반기 중 취업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인 3%에 크게 못 미치는 1.4%에 그쳤다. 이에 비해 6대도시의 취업자는 4.4%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노동력의 6대도시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상반기 중의 실업자 46만5천명 중 69.2%인 32만2천명이 6대도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건설·서비스업에 몰린다

統計廳 집계

景氣활황 힘입어 失業率도 2.4%로 감소

失業者 70%가 서울등 6大도시 집중

건설업자와 서비스부분의 호황으로 인력이 제조업보다 건설·서비스쪽으로 계속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체 실업자의 70% 정도가 서울을 비롯한 6大도시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91년 2.4분기 및 상반기 지요고용통계」에 따르면 서울상반기중 취업자는 1천8백20만9천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0%(53만6천명)가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농업·어업부가 7.1%가 줄어든 반면 광공업은 5.5%만 1천명으로 3.5%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는 1천24만9천명으로 6.1%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

서울經濟新聞

91. 8.16

就業者 서비스업 몰린다

전체의 55%... 1년새 6% 증가

2분기중, 失業率 2.1%로 낮아져

내수경기활황으로 사실상 「완전고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자가 서비스업쪽으로 몰리고 있다. 또 지역별로는 서울 등 6大도시에 노동력이 집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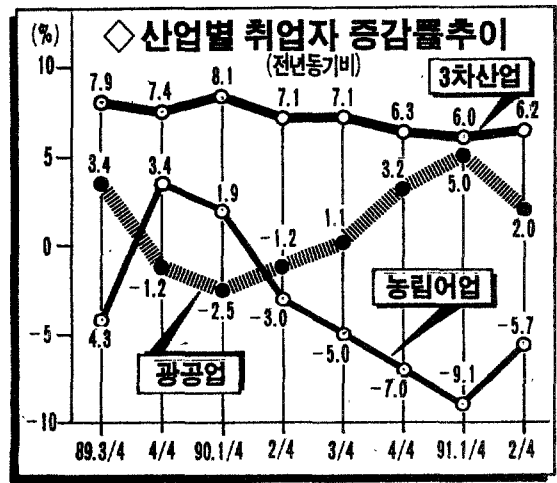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91년 2.4분기중 지요고용통계 등에 따르면 상반기중 실업률은 2.4분기중의 실업률이 2.1%를 기록했다.

산업별 취업에 있어서는 사회간접자본 등 서비스분야에서 취업이 활발히 이루어져 1천41만4천명으로 무려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의 54.8%를 차지, 1년전에 비해 6.2%나 증가했다. 반면 광

공업은 5.5%만 1천명으로 3.5%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는 1천24만9천명으로 6.1%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

공용직은 4백99만2천명으로 2.0% 늘어나는 데 그쳤고 농림어업은 3백58만1천명으로 5.7%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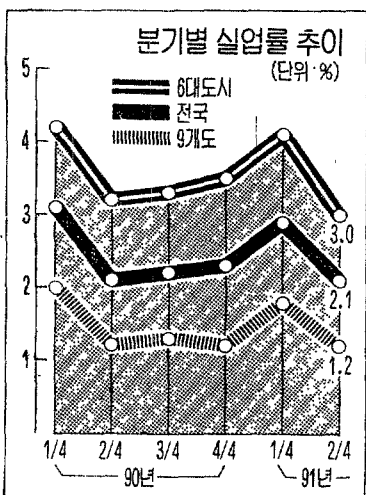
또 지역별로는 서울·釜山·大邱·仁川·光州·大田 등 6大도시 취업자가 전년 대비 4.4% 늘어났으나 9개도의 취업자는 1.1%밖에 늘지 않아 대도시로의 노동력 집중현상이 뚜렷히 드러났다. 서울의 경우 2.4분기중의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1.8%나 감소, 전국 市道가운데 유일하게 취업자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江原(0.7%), 忠北(0.2%), 忠南(0.2%), 全北(0%), 慶南(0.8%)



失業率 감소 「완전고용」 명칭이

상반기 人力동향과 특징

건설·서비스부분의 고용증진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또 서비스부분의 고용 흡수력이 증대되면서 실업률이 크게 떨어져 유리경제가 「완전고용」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분석한 상반기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취업자의 56.3%인 1천24만9천명이 건설업과 도산매출신속박업 등 서비스부분에 몰려있다.

건설·서비스부분의 취업자 구성비는 88년 이후 매년 2%포인트씩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농업·어업에서 빠져나온 인력이 내수와 건설경기의 활황을 타고 서비스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농업·어업 종사자의

6大都市 취업증가율 4% 넘어 農林漁業은 1년새 22만명 줄어

의 구성비는 전체 16.1%로 1년새 1.8%포인트가 줄었고 광공업 종사자는 전체 27.6%로 0.2%포인트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취업자 수로도 농업·어업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보다 22만3천명이 줄어는데 비해 광공업·제조업은 11만4천명이

17만명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부분은 58만8천명이 각각 늘었다. 특히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무려 16.7%가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율의 5배 제조업 취업자 증가율

의 4배를 넘어선 것으로서 건설현장의 고용증가가 폭풍전이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서비스쪽의 인력 이동과 함께 두드러진 특징은 인력의 도시집중 현상이다. 상반기중 9개도의 취업자 증가율(11.4%)은

건설경기가 호조를 보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고용동향을 보면 서울의 경우 상반기 중 제조업 취업자가 지난해 동기보다 5만7천명이 늘어난데 그친 반면 건설·서비스부분은 14만4천명이 증가했다. 이중 건설업은 5만1천명

나타나 전체 취업자 증가율의 절반수준이었다. 6大都市의 취업자 증가율은 4.4%에 달해 인력의 도시집중이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만 보아도 6大都市의 취업자 증가율이 4.9%로 9개도의 취업자 증가율(2.7%)을 넘어섰다. 그러나 건설·서비스 취업증가율은 9개도(7.1%)가 6大都市(5.4%)를 다소 웃돌아 도시보다 지방의

이들어 13.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나머지 5大都市에서는 仁川(7.4%)과 光州(7.7%)의 취업자 증가율이 높았고 9개도 가운데 全南·全北·忠北 지역은 취업자가 오히려 줄었다. 한편 지난 상반기 현재 실업인구는 46만4천명이며 실업률은 2.4%를 나타내 전년 동기 대비 8천명(0.3%)포인트가 각각 떨어졌다. 이같은 실업률은 英國·日本과 비슷하고 美國·英國 등 선진국의 5~7%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것이다.

6大都市 가운데서는 大邱가 3.8%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였고 서울·釜山·大田·仁川·光州의 실업률은 3% 정도였다. 9개도 가운데서는 京畿가 1.9%로 가장 높았고 濟州가 0.8%로 가장 낮았다.

(權赫燦기자)

서비스부문 人力 집중 심화

작년比 58만명 증가 농림어업인 7%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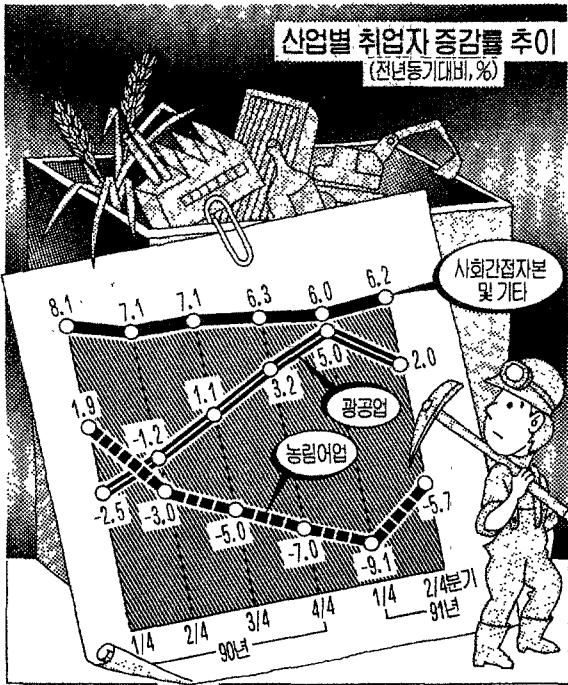
통계청상반기 통계
건설경기과열및 서비스
업의 호황으로 제조업보다
는 서비스부문의 증가
가 많아 인력이 몰리는 현상
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 및 상반기 중
용 통계에 따르면을 상반
기중 취업자는 평균 1천
8백20만9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3%(53만6천
명)가 증가한 가운데 산업
별로는 농림어업 취업자가
2백93만9천명으로 7.
1%(22만3천명)가 줄었
고 광공업은 5백만1천
명으로 3.5%(17만명)가
증가한 반면 서비스도 소
매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부문은 1천24만9
천명으로 6.1%(58만8
천명)나 늘어났다.
특히 광공업 취업자 증
가율이 지난 1.4분기중
5%에서 2.4분기에는
2.6%로 둔화된 반면 서
비스부문은 6%에서 6.
2%로 증가율이 더욱 높
아지는 추세다.
서비스부문에서도 건설

업 취업이 특히 늘어 지난
상반기중 취업자수는 1백
46만2천명으로 작년동기
보다 16.7%(20만9천명)
가 증가했고 반면에 광공
업중 제조업 취업자는 4
백95만3천명으로 3.9%
(18만8천명)증가에 그쳤
다.

이같은 서비스부문의 고
용률수에 힘입어 지난 상
반기중 실업자수는 46만4
천명으로 작년동기보다 8
천명이 줄었고 이에 따라
실업률도 2.4%로 0.
3%포인트나 낮아졌다.

산업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



<그림> 朴春奂

社說

을상반기의 雇傭동향

통계청의 발표한 을상반기의 10월말 현재 실업률 10.8%는 전반기에 비해 0.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는 전반기 10월말 현재 실업률이 10.3%였던 것에 비추어, 전반기에 비해 실업률이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양상의 실업률 상승은 전반기에 비해 실업률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전반기에 비해 실업률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전반기에 비해 실업률이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업률 상승은 전반기에 비해 실업률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전반기에 비해 실업률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전반기에 비해 실업률이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업률 상승은 전반기에 비해 실업률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전반기에 비해 실업률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전반기에 비해 실업률이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업률 상승은 전반기에 비해 실업률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전반기에 비해 실업률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전반기에 비해 실업률이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발표한 10월말 현재 실업률 10.8%는 전반기에 비해 0.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는 전반기 10월말 현재 실업률이 10.3%였던 것에 비추어, 전반기에 비해 실업률이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업률 상승은 전반기에 비해 실업률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전반기에 비해 실업률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전반기에 비해 실업률이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標準산업분류 개편

自動車수리는 도소매업 연탄제조 鑛業으로 변경

統計廳 개편안 확정 내년 적용

내년부터 자기산업의 재
분류와 행정상의 편의를
따라 도소매업에서 제조
업으로 산업분류가 바뀐다.
또 석탄연 자력차수입업
은 도소매업에서 제조업
인 연탄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내년의 행정표준산업분류
개정안을 확정, 이미 10월
중순에 고시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표준산업분류개편의 따
라 이 분류를 적용하는 소
특세법 지방세법 부가가치
세법 중소기업진흥특별법
공익채권법 의자도입법산
재보상법 특전규제및공정
거래법 한미합작투자법 관
영규정령 영인회 개정키로
했다.

통계청이 개편안에서 산
업표준산업분류에 영인회
법도 포함될 예정이다. 영
인회법도 영인회법으로
독립시키려는 다. 영인회
개에서 17개로, 영인회
35개에서 60개, 소분류는
89개에서 1백55개, 세분

류는 2백93개에서 3백32
개, 세분류는 1천47개
에서 1천1백85개 항목으
로 각각 세분화시켰다.
일부 업종은 분도 변경,
자가 직접제조업을 하
지 않고 다른 업체에 의뢰
해 생산하던 제조업은
디자인 상표 판매를 맡으
는 제조업으로 분류보통했
다.

개인서비스업인 사진
관 및 사진처리업은 사업
서비스로 자동차, 모터사
이를 수리 및 소비자용품
수리는 도소매업으로 바
꾸고, 사회서비스업으로
분류하던 영유아발달중
과 건물청소수업은 사
업서비스업으로 개편했
다.

신합이나 가도 제철에
따라 누제품제조 금속제
품제조 플라스틱제품제조
로 분류해왔으나 이를 신
합제조업, 플라스틱제조업
로 분리했다.
이와 함께 시장규모가 확
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복
합업기부채환면업재
생채권처리업, 영인회
컴퓨터서비스업, 영인회
컴퓨터업으로 신설했다.

이밖에 유상 수산 항목
은 수산물 은수관련서비스
업으로 육고 컴퓨터프로그램
판매제조업과 음반및동
음테이프제조업, 기록매
체제조업으로 분할했다.

物價 急騰 8.3%

8월에도 1.3% 올라 10년만에 最高 기록

秋夕·公共料 인상 등 남아 年末 한자리수 억제 限界

국제수지자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 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지도 급등세로 반전해 경제불안 가중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경제기획원(31일 8월 중의 소비자물가지수)은 1.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8.2%)보다도 0.1%포인트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81년(13.1%)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전반기 평균인 △유가 상승률(1.2%)과 △물가 상승률(1.1%)을 합친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크게 높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합자리수 이내로 억제하는 데는 차질이 있을 것이라 고 전망했다.

그런데 8월의 경우에도 9월 이후의 소비자물가지수(1.2~1.3%)와 10월(1.2%)과 11월(1.1%)의 상승률이 9월(0.9%)보다(0.9%)보다 9%포인트(9%)포인트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합자리수 이내로 억제하는 데는 차질이 있을 것이라 고 전망했다.

그런데 8월의 경우에도 9월 이후의 소비자물가지수(1.2~1.3%)와 10월(1.2%)과 11월(1.1%)의 상승률이 9월(0.9%)보다(0.9%)보다 9%포인트(9%)포인트

개입추진(농·공·수출)을 통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8월의 물가 상승률이 1.3%로 10년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는 81년(13.1%)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전반기 평균인 △유가 상승률(1.2%)과 △물가 상승률(1.1%)을 합친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크게 높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합자리수 이내로 억제하는 데는 차질이 있을 것이라 고 전망했다.

그런데 8월의 경우에도 9월 이후의 소비자물가지수(1.2~1.3%)와 10월(1.2%)과 11월(1.1%)의 상승률이 9월(0.9%)보다(0.9%)보다 9%포인트(9%)포인트

(36.6%)보다(29.8%)이 28%(양파) 22.5%(감) 21%(파프리카) 13.2% 등 대부분의 농산물 상승률이 크게 올랐다.

이 밖의 상승률(5.2~8.2%)은 전반기(1.6%)보다(4.4%) 상승률이(2.5%)보다(2.1%)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 추이를 전망하는 데는 물가 상승률이 3.8%나 올랐다는 전망을 근거로 한 것이다.

올 8.3% 상승... 원인과 전망

경제포럼의 점차 심화된 양극화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수지 적자 폭이 사상 최대인 90억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80%에 달하고 있다. 특히 8월 80%에 달하고 있다. 이는 197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8월 80%에 달하고 있다. 이는 197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8월 80%에 달하고 있다.



경제포럼의 점차 심화된 양극화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수지 적자 폭이 사상 최대인 90억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80%에 달하고 있다. 특히 8월 80%에 달하고 있다. 이는 197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8월 80%에 달하고 있다.

고베 풀린 物價... 「安定」 좌초위기

의심없이 그날부터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배후 값이 올랐을 때 소비를 줄이고 물품을 구입할 때 인플레이션에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 따라서 그나마도 정면 돌파가 아니라...

◇소비자물가 월별 상승률(前月比)

월	1	2	3	4	5	6	7	8
%	2.1	1.4	1.3	0.5	0.6	0.5	0.4	1.3

◇8월중 부문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품목	1.3	농축수산물	3.5 (10.6)	외식비	0.7	공산품	0.2	집세	0.3	개인서비스	0.7
-----	-----	-------	------------	-----	-----	-----	-----	----	-----	-------	-----

※()은 소재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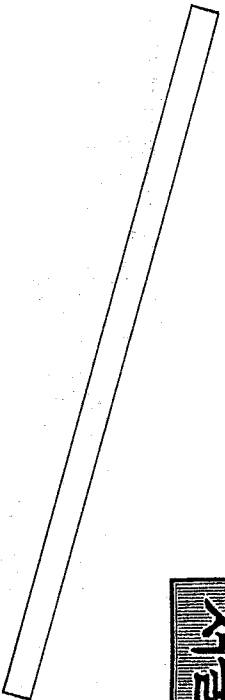


◇한국의 통화세를 보이던 물가가 8월 들어 큰 폭으로 올라 지난 10년래 최고치인 8.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배추값이 7월보다 배가까이 뛰는 등 생활물가가 크게 올라 가격을 압박하고 있다.

상를 수입하고 되치고기마저 사상 처음으로 수입해야 할 만큼 올랐다고 들었다. 환율이든 소비가 환율을 대량 수입, 우리나라가 할 선이 수입이므로 전략했다. 지난 89년 이래 20% 이상

바구니 물가 훨씬 더 올라 公共料·과소비품 조등 惡 財政절제... 정부부터

한정된 인플레이션은 7월 7%에 달하고 있다. 이는 197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8월 80%에 달하고 있다. 이는 197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8월 80%에 달하고 있다.



정당화하여 국민연방정부의
영웅체소의 파소미에 이르
기까지 모두 따지고 보면 물
가를 자극하고 국제수지를
악화시키고 원인이자 결과
로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양정사건인민을 몰고 오산
태에서 양민사건의 발발한
을 단행수급 없는 부정적
행동으로 아민정부가 정권
변환하고 있는 것이 정이다.
특히 정권전 50%가량 이
러던 정권변태에 이르기까
지 한양민 위기로까지 치달
린 현상이나 국민연방의 사
회신장정책의 영향으로 유
머 없는 정책이니까 민주노
력운동이 인민의 추진되어
가면서와 함께가 아니며
노총계정인 정권정쟁의 양
수화적 구조를 단행하지 않
고도 변모됨이 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정권이 5차조기 물가폭
안과 국제수지안정화를 단행
키 위해 재정외 적대정책에
가이 하진전 연이브 적대적
정쟁정책의 추진으로 양자
우 노면정신과 면적은 24.
2% 증가로 해당수급을 더
하기 있다.

이같은 현상 때문에 자본
의 국제수지안이나 물가를
안보다 양이브가 더 적정어
라니 양정의 수급가 기어다

1백% 이상 올라 국제수지
를 압박하고 있는 지자체소
관의 하수급인양, 각종 시
설사업의 지자체실시를
계기로 계속 날개를 달지만
이다.
비록 올해말까지는 더
상 재하양면의 양정의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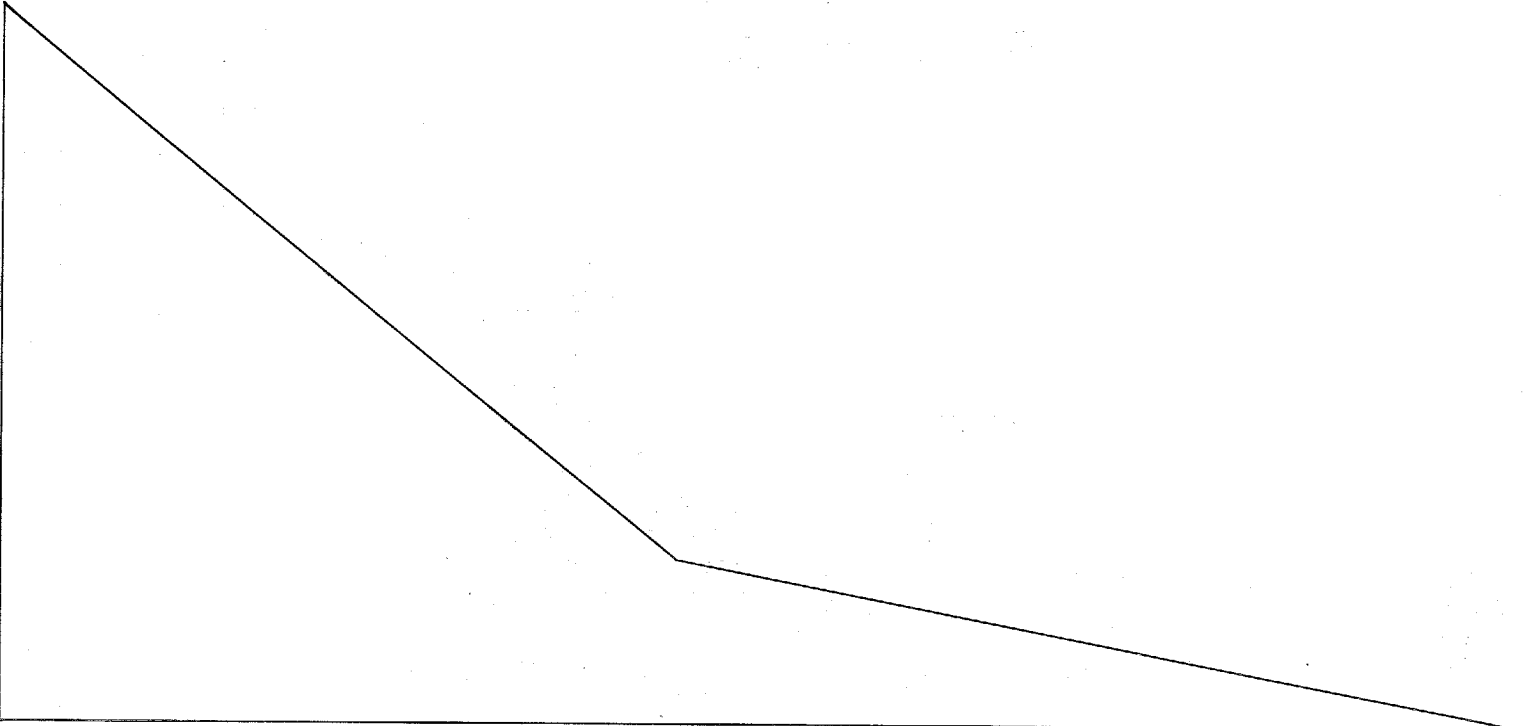
家計 압박

材수두룩

국민연방정쟁

오늘 정쟁이다.
그러나 지수물가가 벌써
올해의 여제표표선(9%내
외)에 바짝 다가선 현실의
서 시장바꾸기의 체감물가
는 가을까지 차이를 마땅히
추진할 정쟁정책이 여정쟁
내년물가의 연평균 물가
노크 행이니까 정이다.
이미 정권전 21%이상이 어
린 국민연방정쟁, 정쟁은
4%가 이월, 전정쟁표표선
을 비롯, 내전적 차이를이

근 10%의 다짐이지만 정쟁
적인이올때 분위기로 내년
초부터는 각종 인건비가
터져나올게 뻔한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물가폭
안을 해소하고 물가불안과
불가분의 관계를 장구 있게
국제수지 적자화대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피를
줄라면서 물신수급의 단행
한 의지여의는 전선의 대책
을 찾기 어렵다. 정쟁이
다. 【류영환기자】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71.3세로 일본의 78.5세, 미국의 75.9세, 대만의 74세에는 못미치지만 개발도상국의 60세보다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국내총생산도 1970년의 63.2세에 비하면 지난 20년사이의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확증가로 인해 생활이 나아지면서 영양상태가 호전되었기 때문이며,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또 의학의 발달과 과거보다 쉽게 최신의 의료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평균수명의 연장책이 무엇도 장수의 비결이 아니다. 노인들은 유년기부터 65세 이전으로 활동(유년기)을 보낸 기간과 평균 수명이 55~60세인 경우보다 5% 정도 더 길다. 유년기 4천5백명 중 5%에 해당하는 2백5십명의 노인들의 수확증가도 3.1%로 유년기 동안의 활동이 평균수명의 증진을 이끄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와 평균수명

길어지는 2000년에는 노인인구가 3백17만명으로 전 인구의 6.8%, 2010년에는 4백67만명으로 전 인구의 9.4%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인들은 젊은 시절에는 전쟁과 흉란의 와중에서 고난을 면할 수 없었고, 중년기에는 노



金 顯 承

후지 자녀들이 장래에 훌륭한 사람의 보기를 바라며서 철저의 자신을 희생해 온 부모들이다. 이제 자녀들을 다 키워놓고 보니 핵가족이든 서양문화의 영향이든 그 요괴가 유년기 생활과 관련된 노인들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소외되어 실생활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부양과 전의 의사의 노인후생복지

및 의료진태를 알아보기 위해 싱가포르를 그리고 일본에 다녀온 적이 있다. 그들의 생활과 좋은 제도를 보고 배우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마디로 우리의 현실이 부끄럽고 그곳의 노인들이 부를 정도였다. 노인을 위한 공산(선물)에서 서로 모여 탐수하고 불린치표도 받고 자일봉사자들과 오락을 즐기기도 했다.

또 노인자를 위한 병원에서는 그들이 받게 할 수 있는 환경을 해주고 질병의 치료는 물론 마음의 치료와 위로를 아울러 해주고 있었다.

미흡하지만 우리정부에서도 최근 노인후생복지에 전보다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몇몇 대학병원에서 노인자를 전담하는 노인병선진부를 설립 운영진행 보이고 있는 점이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노인후생은 몇몇 사회단체나 병원들의 관심사가 아닌 전 국민의 관심사이므로 국가차원에서 혁신적인 제도개선과 과감한 재정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세대의대 교수·교과>

빨리 온 「老齡化사회」

우리 사회가 급격히 늙어가고 있다. 우리들의 평균수명이 늘고 있는 반면에 유년인구는 감소, 우리 사회의老齡化를 재촉하고 있다. 그리고老齡化에 따른 부작용도 벌써부터 심각해질 수준에 보이고 있다. 장수의 대안 재해설과 노령시장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화두를 던져

가 거세지고 있다. 한 사회의 젊고 늙음을 나타내는老齡化지수는 유년인구의老齡化의 비율로 유년인구(14세 이하)에 대한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비율로 표시되는 이 지수는 70년 7.2%, 80년 11.2%, 90년 19.4%로 계속 높아져왔다.

급격히 늙어가는 병에 걸린 셈이다. 老齡化의 이유는 자명하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다. 여자 1명의 출산량이 임기인 15~49세 동안 평균 2명(자녀수)은 80년 6

평인수명 73세 넘고 자녀 數 1.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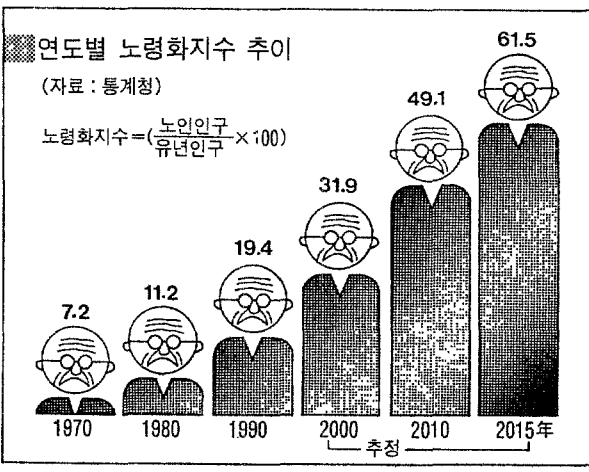
65세 이상 200만 명 돌파 14년후엔 선진국 추월

최근 20년 동안 우리 사회가 2.7배 늘었다는 것이 다들 알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美國이나 유럽諸國과 日本보다 늙어가지는 않았다. 老齡化지수는 55% 미만으로 日本은 48%, 美國은 32%로 아직 20%포인트 정도는 멀다.

평에서 70년 4.5명, 80년 2.7명, 90년 1.6명, 00년 계속 낮아졌다. 같은 기간 美國은 1.84명, 日本은 1.75명, 프랑스는 1.85명, 이란은 1.7명, 우루과이는 1.7명이다.

장수의 대안 재해설과 노령시장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화두를 던져

가 된다. 노령화의 진척 속도가 선·후진국에 따라 다르므로 유년인구 비율, 나쁜 쪽으로 더 빨리 늙어갈 수 있다. 세계 평균인구 성장률은 1.2%로,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 1% 이하로 떨어졌다. 선진국의 노령화지수는 31.9%, 2천15만 명이 61.5%로, 선진국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를 현재 선진국 평균치인 53.0%를 7.5%포인트 정도는 밑에



지난해 선진국의 평균인구 성장률은 1.90%로, 개도국의 2.30%에 비해 0.4%포인트 낮아졌다.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우리나라의老齡化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지, 이것을 단정적으로 말해줄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의 변화 추세를 아수면시지 않으면 2010년 31.9%, 2015년 49.1%, 2020년 61.5%로 계속 높아질 것이다.

장수의 대안 재해설과 노령시장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화두를 던져

景氣종합지수 이달부터 바뀐다

현재의 경기와 앞으로의 경기기상을 알려주는 경기종합지수(CI)가 이달부터 대폭 개편됐다.

통계청은 87년 하반기이후 두드러진 노사분규등으로 제조업과 수출부문의 산업활동이 위축된 반면 내수·건설부문의 급속한 성장으로 제조업중심의 현행 경기종합지수의 경기반영도가 떨어졌다고 보고 지수구성지표에 내수·건설부문의 반영도를 높였다.

지수의 경기반영도가 미약해졌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의 경기를 단기적으로 예측해주는 경기선행지수의 구성지표도 예측성이 약해진 제조업평균근로시간과 종합주가지수, 통화(M1), 제조업入職率, 신용장(L/C)내도액등을 빼고 회사채수익률, 원재료출하지수, 수입허가서(I/L)발급액, 건설용 원재료생산지수, 제조업 입직자를 취업자로 나눈 비율로 대체하거나 추가했다.

제조업中心서 탈피... 內需반영률 높여 시멘트소비량·輸入額 등 지표에 추가

통계청은 이번 지수개편에서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주는 경기동행지수의 구성지표에 非내구소비재 출하지수와 시멘트소비량 수입액등 내수산업활동동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고 종전 구성지표가운데 하나인 제조업 노동자지수를 非농가 취업자수로 바꾸었다.

제조업 노동자지수를 뺀 것은 제조업체의 생산 자동화추진으로 근로자수가 경기의 好·不況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둔화추세를 보여 제조업 노동자

경기선행지수의 이같은 구성지표변경으로 경기선행지수의 예측범위는 종전 4·5개월에서 6·2개월로 늘어났다.

통계청은 이와함께 경기후행지수의 구성지표에서도 경기의 사후반영도가 낮아진 제조업임금과 단위노동비용지표를 빼고 실업률지표를 추가했다.

현행 경기종합지수는 지난 88년 7월에 개편된 것이며 이번 개편은 지난 81년 지수개발이후 3번째이다.

景氣지수 항목 大幅개편

統計廳 현실經濟흐름 제대로 반영케

株價·근로자指數 등 제외 건설·내需 소비 항목 보강

통계청은 매월 발표하는 종합경제지수가 현실경제흐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항목과 가중치를 대폭 개편키로 했다.

통계청은 7월 경기종합지수가 경제의 후진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구성항목중에서 종합지수가 지수와의 제조임과 부가 지수와의 의하고 건설 및 내수 소비 관련 항목 보강, 7월 종합지수부터 새틀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적용 중인 종합지수 편제는 지난 70년부터 87년까지의 산업은행의 기초로 88년 7월의 편제안인데 △87년 하반기 이후 노사분

규로 제조업 및 수출산업의 추스미스 및 건설업 비중 △중원시업 체체 중의 영향으로 경제구조가 크게 바뀌어 경기지수개편 논의가 있어왔다.

통계청은 이보다 70년부터 90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2백10개의 동계를 분석, 실현 동행 후 행 종합지수 구성지표를 개편했다. 종합경제지수 구성지표는 기존 6개에서 12개로 증감, △내수 생산자출액 △도소매 판매액의 △시업 트 소비량 △수입액 △내부 순수입액 등 5개에서 8개로 늘렸다. 동행지표 중 후

새로 제조업과 건설업이 계속 높아지고 인적 서비스업 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 제조업과 건설업이 비중이 높을 수 있도록 대체했다.

종합지수 구성지표는 총액으로 10개로 유지하며 △내수 생산자출액 △내수 판매액 △내수 수입액 △내수 수출액 △대신 △내수 △수출액 △수입액 △대외무역액 등 4개 항목을 제외시켰다. 삭제된 항목은 유사한 지표의 포함되거나 경제의 동행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통계청은 실행지수 구성지표를 이같이 개편함에 따라 지금은 실행지수가 4, 5개월 앞의 경기상태를 예고한다. 앞으로는 시차성(예고기간)이 6.2개월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후행종합지수 구성지표에는 △제조업인 골과 △내수 판매액(비율)을 추가, 합계를 6개에서 5개로 줄였다.

高學歷여성 失業 급증 추세

인력난이 아닌 수요성
속에서도 고학력여성 실
업자는 많아지는 기이한

로 지난 80년 39만명의
비해 3배이상 늘었다
(통계청인구 및 주택센
서시)。
이 중 실업자수는 지난
80년 1만3천명에서 지
나해 3만4천명이란 매
년 증가하고 추세。
이는 종잡이하 여성실
업자수가 지난 80년 8
만7천명에서 지난해 2
만5천명으로 고졸여성
은 9만1천명에서 7만
4천명으로 줄었고 것
과 대조를 보인다(통계
청「청년실업률인구 및 퇴
사」)。
이러한 현상의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성인력
을 단정기용이나 남용보

조적인 정부에만 제한적
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대다수의 여성
고급인력이 사장되는 등
사회적 자원낭비를 초래
하고 있는 것。
취업을 원하지만 아예
求職을 포기한 두부통
「실업실업자까지 합하
면」 여성실업자수는 더욱
늘어났다。
대부분의 여성실업자
가 그렇지만 특히 대졸
여성의 경우 입사후 결
혼까지의 기간이 짧고
공채보다는 특채로入社
하는 일이 많아 부담한
퇴직상당의 적극적으로

10년새 3배이상 늘어 기업들 저학력 단순노동직만 채용

기업들 저학력 단순노동직만 채용
새職種 개척등 자기제발노력 필요



단순 노무직이나 사무직에만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바람
에 대졸여성의 취업은 계속 어렵다.

여성의 학력별취업률(%)

연도	중졸이하	대졸
80	60.8	32.8
85	68.0	40.9
90	76.9	46.7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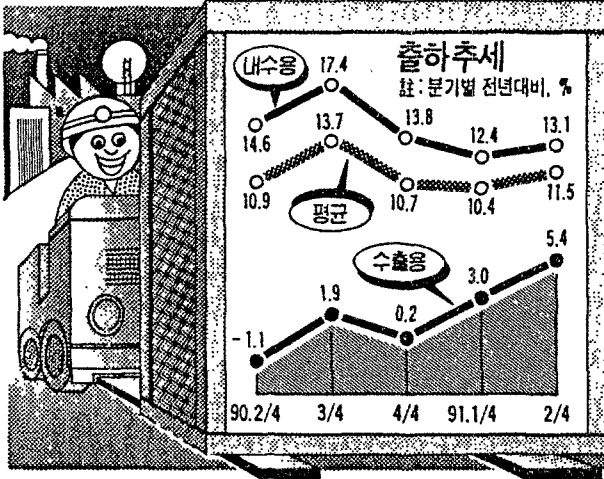
대졸자가 못하고 급속수부
책이며 종잡이하 실업률을
도유 높여 주고 있다.
실제 지난해 초대졸이
상의 여성취업자중 시험
을 통해 입사한 사람은
14.5%에 불과하고 화
교친지의 알선을 통해
구직 한 사람이 34.5%

나 차지했다.
이 중 대부분의 기업들
이 고졸 여성인력을 채용을
희망하고 여학생들은 경
우에만 소수를 뽑아야 기
때문이며 절박자이므로 대
졸여성도 절박한 취업의
사과 조건을 받아들여 시
다급한 것이 전문가를 말
고 있다.
「이런 현상 오히려 여성의
신장현 현상 등 경제의
발전이 여성의 취업현
각간 두부통이 재취업을
하기란 말그대로 하늘에
서 별따기다.
주된 대졸이상의 고학
력 여성들을 희망이므로 학
부하고 고졸 「여성실업률

고졸 여성은 대부분의
현과 함께 퇴직한 것이다.
간단한 非錫職은 거의
노무사직이나 기타 어떤
결정적부분과 관계없이
모양 기용과 정면에서
고 수직에 취업한다. 「이
나 아파스급사직이나
진너 정중점의 경우
만해 입사후 정복과 오
정할 여타는 주종거
고전 영예 나간후에 모
양에 영연고의 필요하다.
정면가게를 「이해공자
의 고수직에 영연직이
려 정면하기 후종사기
정정현이 정직자 정면
정직현은 영연 「정
등 정현인 영연 정
다정파면해 후종거 정
영 정면해 정정아수
정비정인 자나정정
영연고 정정한다.>
<申然號기자>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아파스급의 취업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경쟁이
가시게 된 1월 28일까지

경기 內需의존 심화



통계청, 7월중물류량
 국내경기가 여전히 호조
 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내용
 상으로는 수출보다는 내수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어 구
 조적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
 다.
 9월물제청이 발표한 7
 월중 생산활동지표에 따르
 면 생산과 출하가 전년동월
 대비 8.5%와 9.3%가
 각각 성장, 경기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자출하가운
 데 내수용이 11.6%나 증
 가한 반면 수출용이 1.4
 % 증가에 그쳤다.

出荷작년비 11.6%늘어 수출부진·就業者서비스편중여전

그러나하면 내수용 소비
 재출하는 지난 1월 21.2
 %가 증가한 후 대폭 감소,
 4월중엔 8.6%까지 줄어
 들었으나 5월중엔 21.9%
 로 증가, 소비증가 추세가
 급속상승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건설부문의 산도 건설하
 가 전년 이 지난 1월 28.9
 % 증가했고 비로 지난 5월
 마이너스 16.4%까지 급속
 감소했으나 7월중엔 다
 시 21.2%로 대폭 반전, 앞
 으로 이틀 하가면 전이 건설
 로 이어질 5-6개월후에
 는 건설과업의 재연될 소지
 를 보인다.
 고용부문의 산 취업자 수
 가 전년 대비 지난 1월 44만 여천

명이 증가, 실업률은 2.2
 %로 계속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취업증가자의 55.
 6%를 건설중 서비스분야
 가 차지, 여전히 서비스부
 문의 취업증가현상이 계
 속되고 있으며 반면에 제조
 업분야의 취업자 수는 작년
 동기와 비슷한 추세에 머물
 고 있다.

內需경기 "과열" 여전

건설·消費업종 주도

7월산업생산前月比 8.5% 出荷 9.3% 늘어

통계청 발표	3백25만1천원	6월	7월
전부의업내수	35.3%	21.2%	21.2%
내수	2.3%	2.3%	2.3%
외수	33.0%	18.9%	18.9%
건설업	1.5%	1.5%	1.5%
제조업	1.8%	0.8%	0.8%
서비스업	0.0%	0.0%	0.0%
수출	1.5%	1.5%	1.5%
수입	1.8%	1.8%	1.8%
수출액	1.5%	1.5%	1.5%
수입액	1.8%	1.8%	1.8%

이른 파수미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7월의 내수 증수미재축(증가율)은(前年 同月比) 16.3%에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증가폭 또한 계속 확대되고 있다.

내수수미재축(증가율)은 8월 1.5%로 7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7월과 비교하면 0.2%포인트 상승했다. 7월과 비교하면 0.2%포인트 상승했다.

외수수미재축(증가율)은 8월 1.8%로 7월보다 0.0%포인트 상승했다. 7월과 비교하면 0.0%포인트 상승했다. 7월과 비교하면 0.0%포인트 상승했다.

수출액(8월)은 1.5%로 7월보다 0.0%포인트 상승했다. 7월과 비교하면 0.0%포인트 상승했다. 7월과 비교하면 0.0%포인트 상승했다.

수입액(8월)은 1.8%로 7월보다 0.0%포인트 상승했다. 7월과 비교하면 0.0%포인트 상승했다. 7월과 비교하면 0.0%포인트 상승했다.

陸路운수수입 수입증대

작년 철도·항공은 10% 이상 신장

지하해운과 철도의 각종 수입은 작년 11월 11만 2천 882만 원으로 88년(10만 4백 82만 원)에 비해 5.08% 증가했다. 그중 버스·시외버스 수입은 1.1%와 3%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가용차량의 대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피하기 위해 철도·항공이 대량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따라 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작년 우리나라의 각종 운수업 중 철도·항공의 운수 수입은 88년부터 15.2%와 12.2% 각각 증가했다. 이는 88년부터 13개소로 30%나 많아졌기 때문이다. 보편항공업은 작년도 추곡수매량이 89년보다 75% 늘어난 데다 항공노선과 항공기 때문에 12월 4일 오후 12시에 부산에서 울주나라 국제운수망 항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90년 운수통계조사」 잠정 집계결과」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90년말 현재 우리나라

면 고속버스와 시외· 시내 버스는 0.4%, 4.7%씩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작년의 경우 운수 관공서 비수입액도 여행업 수입과 보편항공업의 수입이 89년보다 46%와 31.8%씩 큰 폭의 신장세를 보였다. 이같이 신장세는 여행업 수입의 증가, 해외여행자 유화로 여행업 수입체가 89년의 7백 78개소에서 1천

운수 및 항공업체는 모두 13만 5천 4백 84개소, 총업원수는 65만 7천 70명, 유망고정자산은 총 16조 9천 3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소에서 90년 한 해 동안 15조 5천 4백 88억 원의 운수수입(매출액)과 9조 1백 52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89년에 비해 사업체수와 종업원수는 각각 11.5%와 3.4% 증가했고, 운수 수입과 부가가치는 15.5%와 17.3% 각각 증가했다. 한편 여행업종에 지출한 영업비용은 전년비 상승률으로 89년보다 14.8% 증가했다. 각종 운수업종 여행업은

업·보편항공업 다음이 두 번째로 수입증가세를 보인 업종인 유상화물도 89년의 2조 5천 1백 88억원에서 90년에는 3조 2백 32억원으로 20% 증가했다. 화물운송업의 수입증가도 건설업 등 내수호황과 수입증가로 인한 물동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작년의 항공기 이용자수는 국내선 1천 82만 명, 국제선 9백 62만 7천 명으로 모두 2천 44만 7천 명으로 89년(1천 7백 23만 5천 명)보다 18.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선 이용자수는 20.9%, 국제선은 16.2% 각각 증가했다.

고속버스 15% 증가

버스 15% 증가

전체 15% 증가

수출 15% 증가

수입 15% 증가

수출 15% 증가

수입 15% 증가

수출 15% 증가

수입 15% 증가

수출 15% 증가

수입 15% 증가

수출 15% 증가

수입 15% 증가

수출 15% 증가

수입 15% 증가

수출 15% 증가

수입 15% 증가

수출 15% 증가

수입 15% 증가

수출 15% 증가

수입 15% 증가

수출 15% 증가

수입 15% 증가

고속·市内外버스

여행사·창고·鐵道호황

전체賣出額 총 15조 5천억 : 15% 신장

운수사업업 전체로 치면 해외여행자 유출로 인하여 운수사업의 수입이 46%의 하락(16.7% 감소)을 보았다. (23.1%)의 수출입업 (16.4%)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졌다.

<運輸業現況>

단위	89년	90년	구성비 (%)	전년비율 (%)
사업체 수	121,478	135,484	100.0	11.5
수출	118,494	132,342	97.7	11.7
수입	470	438	0.3	-6.8
운수관련서비스	7	7	0.0	0.0
총액	2,507	2,697	2.0	7.6
영업원 수	631,143	652,670	100.0	3.4
수출	517,051	531,919	81.5	2.9
수입	26,495	25,939	4.0	-2.1
운수관련서비스	19,909	20,770	3.2	4.3
총액	67,688	74,042	11.3	9.4
수입 10억원	13,454.7	15,542.8	100.0	15.5
수출	8,139.2	9,394.8	60.4	15.4
수입	2,673.6	3,095.8	19.9	15.8
운수관련서비스	1,729.2	1,940.1	12.5	12.2
총액	912.7	1,112.1	7.2	21.8
수입 10억원	11,528.5	13,239.9	100.0	14.8
수출	6,715.2	7,622.7	57.6	13.5
수입	2,392.3	2,784.0	21.0	16.4
운수관련서비스	1,608.3	1,832.9	13.8	14.0
총액	812.7	1,000.3	7.6	23.1
부가가치 10억원	7,686.8	9,015.2	100.0	17.3
수출	5,299.0	6,190.5	68.7	16.8
수입	976.0	1,158.0	12.8	18.6
운수관련서비스	738.0	816.8	9.1	10.7
총액	673.8	849.9	9.4	26.1

수출입업 10% 증감인도
 2만 6천 4백 95명에서
 2만 5천 9백 39명으로
 2.1% 줄어들었다.
 사업체수를 구제적으
 로 보면 △고속버스 10
 △시외버스 1백 40△시
 내버스 3백 49△택시 8
 만 3천 2백 66△전세버스
 2백 62△도노화물운송
 4만 7천 9백 90△자동차
 정류장 2백 75△차량
 대 46△해상운송 3백 5
 △내륙수상운송 68△화
 물운송대행 66△여행업
 선 1천 13△도판창고 1
 천 4백 80△하역 66△포
 장업수 52△선박중개 20
 개 등으로 조사됐다.
 <鄭萬昊기자>

89년도보다 20% 증가
 장흥업 신장세를 보였
 고 △택시 2조 8천 5백

統計廳 발표 「90년 運輸業 실태」 調査 내용

통계청 발표 90년 1월 1일 기준 국내 운수수입액 1,100,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이 중 31.2%인 343,000억 원이 항공수입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했다. 도로수입액 343,000억 원은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했다. 1월 9일 기준 1인당 국내 운수수입액 1,100,000원(1인당 1,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1월 9일 기준 1인당 국내 운수수입액 1,100,000원(1인당 1,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收入 침체

90년 1월 1일 기준 국내 운수수입액 1,100,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이 중 31.2%인 343,000억 원이 항공수입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했다. 도로수입액 343,000억 원은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했다. 1월 9일 기준 1인당 국내 운수수입액 1,100,000원(1인당 1,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1월 9일 기준 1인당 국내 운수수입액 1,100,000원(1인당 1,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가장 증가한 것은 항공수입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했다. 도로수입액 343,000억 원은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했다. 1월 9일 기준 1인당 국내 운수수입액 1,100,000원(1인당 1,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1월 9일 기준 1인당 국내 운수수입액 1,100,000원(1인당 1,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항공수입액 343,000억 원은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했다. 도로수입액 343,000억 원은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했다. 1월 9일 기준 1인당 국내 운수수입액 1,100,000원(1인당 1,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1월 9일 기준 1인당 국내 운수수입액 1,100,000원(1인당 1,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1인당 국내 운수수입액 1,100,000원(1인당 1,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1월 9일 기준 1인당 국내 운수수입액 1,100,000원(1인당 1,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1월 9일 기준 1인당 국내 운수수입액 1,100,000원(1인당 1,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91. 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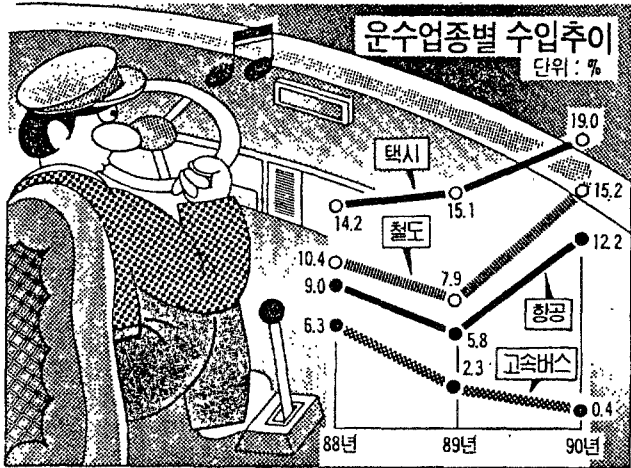
창고·여행알선업 大好況

작년 收入 32~46% 늘어

교통체증... 버스는不振 못면해

통계청조사

통계청이 발표한 '90년 1~8월 전국 교통수단별 수입추이'에 따르면, 택시 수입이 19.0% 증가한 15.2조 원으로, 철도 15.1조 원, 항공 12.2조 원, 고속버스 7.9조 원, 일반버스 5.8조 원, 지하철 2.3조 원, 기타 0.4조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12.5조 원에 비해 1.5% 증가한 15.5조 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택시 수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12.5조 원에 비해 1.5% 증가한 15.5조 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12.5조 원에 비해 1.5% 증가한 15.5조 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택시 수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12.5조 원에 비해 1.5% 증가한 15.5조 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12.5조 원에 비해 1.5% 증가한 15.5조 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택시 수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12.5조 원에 비해 1.5% 증가한 15.5조 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12.5조 원에 비해 1.5% 증가한 15.5조 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택시 수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12.5조 원에 비해 1.5% 증가한 15.5조 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12.5조 원에 비해 1.5% 증가한 15.5조 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4/4분기 보도기사

(10월~12월)

여 백

物價釜山이 가장 높다

올들어 「소비자」 10.5% 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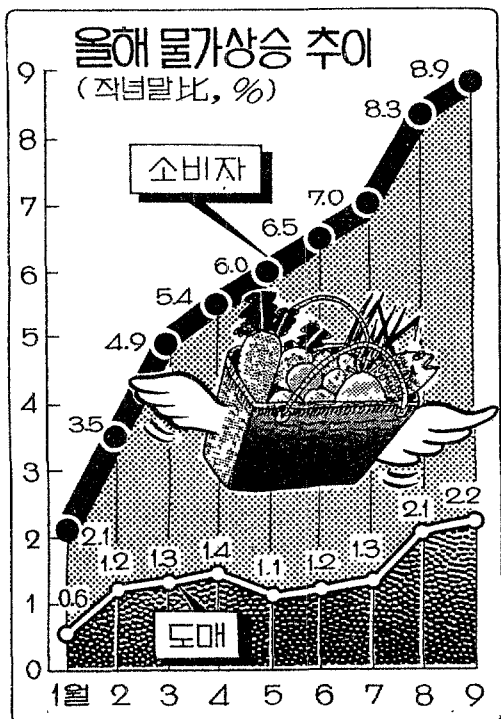
全州·光州도 9% 이상

전국평균 웃돌아 가격동향 점검등 대책강구

서울에 비해 물가관리체제가 느슨한 釜山·全州·光州·春川 등 지방물가가 전체 물가오름세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釜山지방 소비자물가는 올들어 9월말까지 10.5% 올라 전국 평균물가상승률(8.9%)을 크게 웃돌며 「한자리수」 물가억제목표선을 이미 넘어섰다. 경제기획원은 1일 서울에서 9월말까지의 전국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폭에 비해 물가가 더욱 많이 오른 釜山(9.3%)·光州(9.2%)

春川(9%) 등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극장을 중심으로 개별품목의 가격동향을 수시 점검해하고 적절한 수급대책을 세우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崔球奎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오는 12일 내무부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회의」에 참석, 지방의 물가관리에 각시·도지사가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釜山 등 高물가 도시의 물가가 문제되는 것은 수급차질 등

물가상승을 초래할 특수요인이 발견되지 않은데 있다면서 연말까지 월동식품을 중심으로 행정지도를 대폭 강화, 전국 평균 수준으로 물가를 잡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의 경우 9월말까지 소비자물가는 8.7% 올라 전국 평균을 약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物價상승률 지역별 큰차이

釜山 10.5% 최고 清州·仁川 7% 線

9월 물가 0.6% 상승세일

올들어 8.9%올라 年間 한자리수 유지 가능성

통계청·韓銀 발표

통계청과 韓銀은 1일 9월 중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보다 0.6% 도매물가는 0.1%씩 각각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소비자물가는 올들어 9월까지 8.9% 도매는 2.2% 올랐다.

경제기획원은 9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의 1.3%보다 크게 둔화, 안정세를 회복함에 따라 연말까지 한자리수 억제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전망이다.

9월의 소비자물가는 1년전에 비해 9.0% 오른 것으로 지난 8월의 9.5%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지수가 약간 낮아졌으며, 지난해 9월의 연초대비(9.0%)보다 1%포인트(9.4%)보다 낮아졌다.

9월의 소비자물가는 1년전에 비해 9.0% 오른 것으로 지난 8월의 9.5%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지수가 약간 낮아졌으며, 지난해 9월의 연초대비(9.0%)보다 1%포인트(9.4%)보다 낮아졌다.

기획원은 9월 물가(8월)는 추후 물가 상승률과 추세를 볼 때 8.9%로 전망된다. 비교적 상승률이 적었다고 분석했다.

올해 8월 물가 상승률은 8.9%로, 연평균으로 보면 8.9%로 전망된다. 40.5% 하락한 것을 비롯, 14.8% 상승한 비유물, 11.7% 상승한 포도, 11.4% 상승한 배추, 4%씩 각각 값이 내렸다.

반면 증가는 수산물과 9% 올랐고, 면화(17.0%)는 하락했다. 고추(14.3%), 오렌지(13.4%)는 상승했다.

9월 물가 상승률은 8.9%로, 연평균으로 보면 8.9%로 전망된다. 40.5% 하락한 것을 비롯, 14.8% 상승한 비유물, 11.7% 상승한 포도, 11.4% 상승한 배추, 4%씩 각각 값이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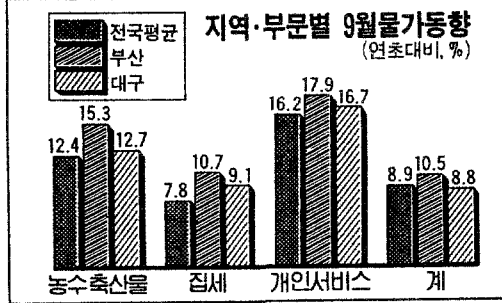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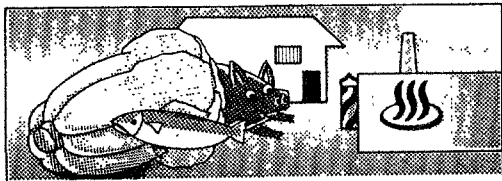
올들어 8.9%올라 年間 한자리수 유지 가능성

통계청과 韓銀은 1일 9월 중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보다 0.6% 도매물가는 0.1%씩 각각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소비자물가는 올들어 9월까지 8.9% 도매는 2.2% 올랐다.

경제기획원은 9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의 1.3%보다 크게 둔화, 안정세를 회복함에 따라 연말까지 한자리수 억제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전망이다.

9월의 소비자물가는 1년전에 비해 9.0% 오른 것으로 지난 8월의 9.5%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지수가 약간 낮아졌으며, 지난해 9월의 연초대비(9.0%)보다 1%포인트(9.4%)보다 낮아졌다.



를 점진하는 한편 내년 총선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선거에 대비, 미리 물가인축 재정정책을 포함한 경제안정시책을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계청 발표 「9월 소비자 물價」

물가가 1.7% 올랐다. 7월 8월의 1.6%인 월평균치의 상승폭을 넘어 월평균 소비자물가가 9월에는 1.7%로 0.9%포인트 상승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10월 1.6%로 0.1%포인트 하락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10월 1.6%로 0.1%포인트 하락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10월 1.6%로 0.1%포인트 하락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10월 1.6%로 0.1%포인트 하락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10월 1.6%로 0.1%포인트 하락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10월 1.6%로 0.1%포인트 하락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10월 1.6%로 0.1%포인트 하락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10월 1.6%로 0.1%포인트 하락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10월 1.6%로 0.1%포인트 하락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10월 1.6%로 0.1%포인트 하락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10월 1.6%로 0.1%포인트 하락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10월 1.6%로 0.1%포인트 하락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10월 1.6%로 0.1%포인트 하락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10월 1.6%로 0.1%포인트 하락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10월 1.6%로 0.1%포인트 하락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10월 1.6%로 0.1%포인트 하락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10월 1.6%로 0.1%포인트 하락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10월 1.6%로 0.1%포인트 하락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10월 1.6%로 0.1%포인트 하락했다.

物價 상승행진... 연말억제線 위험

貿易적자 가세... 經濟 깊은 "주름살" 낙관론불구 不安요인은 散在

9월 소비자물가는 10월 1.6%로 0.1%포인트 하락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10월 1.6%로 0.1%포인트 하락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10월 1.6%로 0.1%포인트 하락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10월 1.6%로 0.1%포인트 하락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10월 1.6%로 0.1%포인트 하락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10월 1.6%로 0.1%포인트 하락했다.

秋穀수매가등 큰변수

9월 소비자물가는 10월 1.6%로 0.1%포인트 하락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10월 1.6%로 0.1%포인트 하락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10월 1.6%로 0.1%포인트 하락했다.

國內경기 진정국면

수출·建設투자 감소로

산업생산·출하 줄어... 제조업은 상승

수출부진과 건설투자 감소로 91년 9월 산업생산과 출하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다. 그러나 제조업은 0.3% 증가했다.

9월의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다. 이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하고, 건설투자가 0.1%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조업은 0.3% 증가했다.

9월의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다. 이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하고, 건설투자가 0.1%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조업은 0.3%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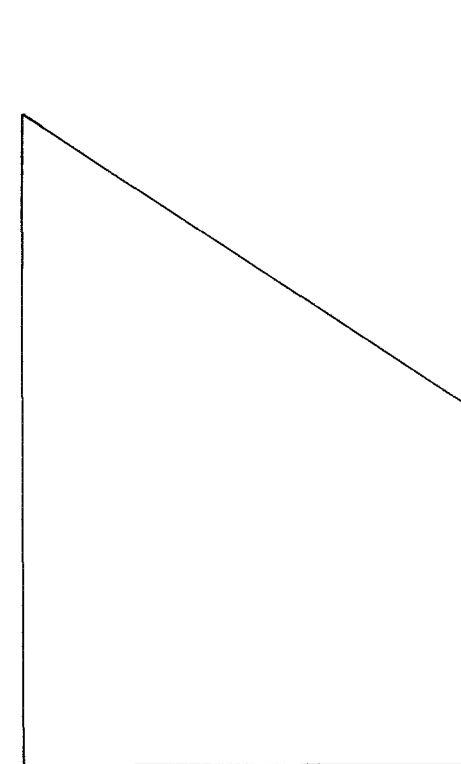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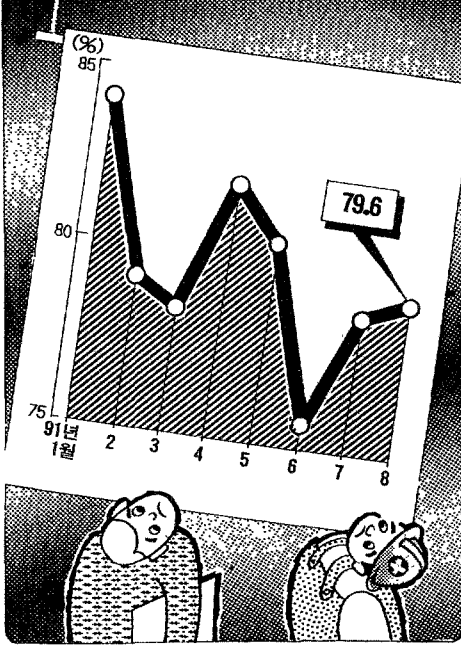
9월의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다. 이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하고, 건설투자가 0.1%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조업은 0.3% 증가했다.

9월의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다. 이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하고, 건설투자가 0.1%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조업은 0.3% 증가했다.

9월의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다. 이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하고, 건설투자가 0.1%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조업은 0.3% 증가했다.

9월의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다. 이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하고, 건설투자가 0.1%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조업은 0.3%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 (전년동월비)



景氣둔화

8월

생산 0.2% 줄어

수출·건설투자 증가세 감소

수출 부진과 건설투자 증가세의 감소로 그동안 활발하던 내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3일 「8월중 산업활동지표」를 발표, 『산업생산』은 7월보다

0.2%가 줄었고 수출도 0.3%의 소폭으로 증가하는 등 생산과 수출·도산 때 판매가 모두 보합세를 보였다. 한편 「각종 지표들의 추세」도 일부 항목은 내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산업활동의 증가율이 7.8%, 제조업

가동률도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국내경기는 호조를 보인다. 8월중에는 특히 「7.9」건설경기 대책의 영향으로 건축허가 면적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5.1%가 줄었고, 건설투자도 13.5%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그동안 내수경기의 활황을 주도했던 건축관련 지표들이 큰 폭

의 하락세를 보였다.

건축허가 면적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이 37.9%, 상업용은 40.4%나 줄었고, 건설투자는 공공부문(8.8%) 민간부문(16.4%)이 모두 감소했다.

실비투자 부문에서는 민간계수가 작년 8월에 비해 13.3% 증가하고 기계류 수입허가(22.3%) 및 기계류 내수출하(7.1%) 등이 여전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소비동향은 도산매 판매액이 전달보다 0.4% 줄어든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7월의 9.2%에서 8.7%로

다소 낮아지고, 내수용 소비재출하도 7월의 20.5%에서 9%로 낮아져, 그간의 過消費 열풍이 한 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허가·受注 동시감소

소비재출하 9%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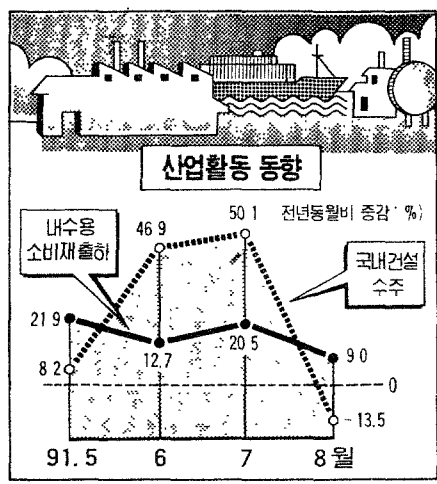
과열內需 진정국면

통계청 8월통향

통계청은 3일 지난 8월 중국 내정실률자가 1년전보다 큰폭으로 감소하고

중국의 이달 발표한 산업활동지수에 따르면 8월 중 건축허가면적은 주거·상업용 구분없이 모두 크게 감소, 1년전보다 35.1%나 줄었으며, 국내건설수주도 13.5% 축소됐다.

건축허가 및 수주가 동시에 감소추세를 보이는지 지난 8월 11일 이후 33개월만에 처음 있는 일로 보인다. 다만 건설경기 진정책의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으로 풀



통계청은 향후 국내 경기는 수출 및 건설투자의 증가에 따라 서서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8월중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9.6%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실업률은 2.2%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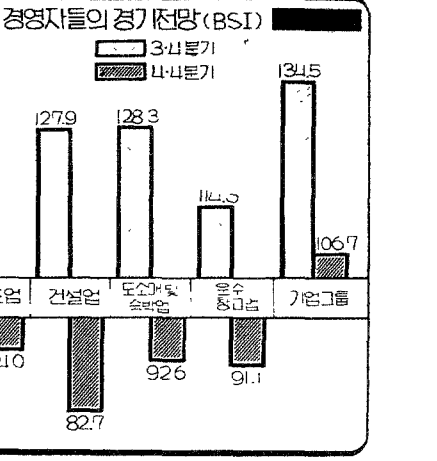


91.10.4

국내景氣 전망 들쭉날쭉

조사기관마다 4.4분기 指數 큰차이

앞으로의 국내경기전망이 조사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4월 통계청이 발표한 4.4분기 기업경영자경기전망에 따르면 기업경영자들은 4.4분기 (10월 12일) 국내경기가 3.4분기 (7월 9일)에 비해 다소 부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출부진·물가상승·시장개방 등 구조적 요인에 정부와 건축경기진정과 과소비역재정원들의 부진에 전방향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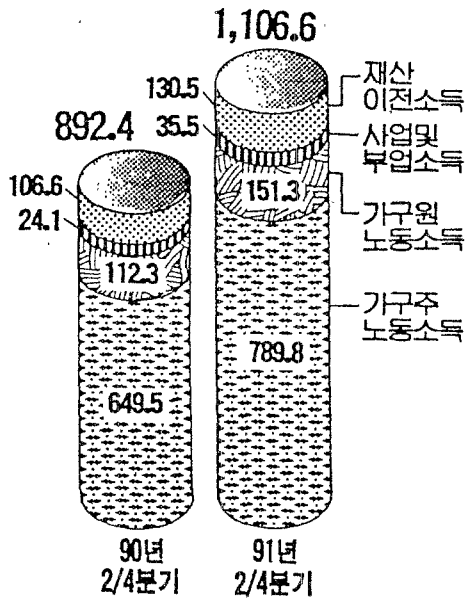
통계청이 전산업의 9백 20개 기업 및 30대 그룹에 대해 20개 조사한 4.4분기 기업경영자수 (BSI) 3.4분기 110(는 전반기 경기의 후부 93.5) 同

도시근로자家庭口 110萬인臺 돌파

통계청 2·4분기 조사 작년보다 24%증가

도시근로자 가계소득

(단위, 천원)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백 10만 6천 6백 원, 지출은 80만 8천 7백 원이며, 나머지가 저축액이다.

통계청은 7월 91년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종합(예서울 2·4분기 47·6백만)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 같은 때에 비해 24% 지출은 20.4%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명목상의 증가율도 소비자물가 상승률(9.1%)을 감안한 실질 증가율을 보면 소득의 경우 13.7% 지출은 10.4%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계수지 흑자액은 월평균 29만 7천 9백 원으로 작년(22만 7백 원)에 비해 35% 증가한 2백 20만 원(증가했음)의 흑자액이 나타나 2%포인트 높아진 28.9%를 기록,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전국 62개 시·군·구로 구성된 15만 1천 3백 원 소득은 78만 9천 8백 원으로 작년보다 21.9% 올랐는데 비해 가구주의 가구원의 근로소득은 15만 1천 3백 원

으로 34.7%나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가구주의 근로소득의 차지하는 비중이 71.3%로 작년(62.4분기) 72.8%보다 1.5%포인트 낮아진 반면, 가구원의 근로소득 비중은 26.6%보다 1.1%포인트 높아진 13.7%였다.

한편 소비자물가에서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각종 소비·교제를 위한 잡비(29.8%)의 비중이 전년(26.3%)보다 3.5%포인트 높아졌으며, 자가용(20.9%)과 가구·유지를 위한 개인교비를(33.9%) 등이 작년의 비례를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적인 소비지출(가계)은 21.7%였다.

실질소득이 13% 늘어

흑자 월평균 29萬7千원꼴

도시근로자 가계소득 (단위, 천원)

90년 2/4분기: 1,106.6 (총계), 892.4 (기타소득), 106.6 (노동소득 제외), 24.1 (가구주노동소득), 112.3 (가구원노동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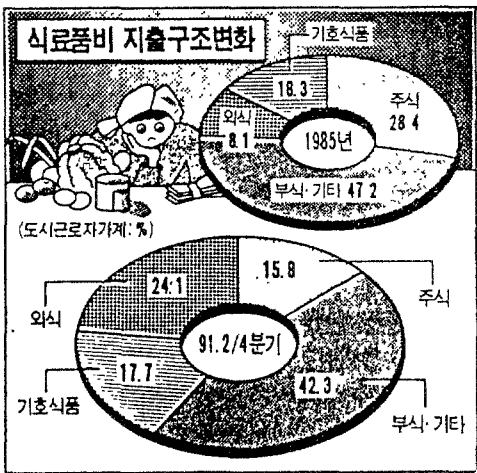
91년 2/4분기: 1,106.6 (총계), 649.5 (기타소득), 789.8 (노동소득 제외), 789.8 (가구주노동소득), 151.3 (가구원노동소득)

家長이 집있고 高학력 躰음수륙

쓰름쓰름이 크다

한달평균 百10萬원 벌어 73萬원 지출
소득보다 소비증가 빨라 "버는대로 써"

통계청 조사



통계청은 7월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계의 지출·조상·생활이 자기집을 갖고 있고 학력이 높으며 나아가 생활수준 소비생활의 높은 것이 나타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현재

평균소득은 1백10만6천6백원으로 1년전에 비해 24% 높아졌으며 물가상승률과 관련한 실질소득은 13.7% 증가했다. 소득에서 생활비, 비소비 지출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1백2만9천6백원으로 이 가운데 73만1천7백원을 소비지출에 쓰

고 29만7천9백원을 남겨 휴자율은 28.9%를 기록 1년전 26.9%보다 높 아지면서 가계수지가 다소 나아졌다. 그러나 가처분소득이 늘 어난 액수(20만7천8백원) 가운데 소비지출이 증가한 몫(13만6백원)을 나타내 는 한계소비성향은 62.9%로 증가했다는 의미다. 가장 화려했던 건 대학

원인상 고학력자가 가구 평균 소비성향 77.5%로 한계 소비성향 76.4%로 주 이하 평균 70.4%, 한계 54.9%로 고졸평균 70.3%, 한계 59.9%로보다 각각 훨씬 높았다. 자기집을 소유한 가구의 경우 소비성향이 평균 75.9%, 한계 73.2%로 전월 세에 사는 가구(평균 66.2%, 한계 56.2%)보다 높 시 통계 나타났다. 또 55세 이하 젊은 소비성향에서는 생활비 지출이 평균 가 장 낮은 45,49세 가구가 75.9%로 가장 높지만 한계 소비성향은 30,34세층 이 71.4%로 두드러진다. 저 버는대로 쓰는 소비성향은 60대 이하가 높았다. 【통계청 발표】

저은총 消費성향 높다

2분기 근로자家計 한달 110만원벌어 80만원지출

월고 고학력일수록 소비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월부터 식료품비 지출은 오십비중의 주 소비를 넘어선데 이어 이제 비품비도 오십비까지 추심되다 말의 소고있고 의심비 제비 500차구입비 가구 및 가구인입비 의의 연전 의도 불어나고 있어 연전 이과 소비현상이 수그리들 지않고 있기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분표정인 일반국민 소득이 늘어나면서 전체 소득중 저소득층(월소득 50만원 이하)은 다소 차야졌으나 소득중가분해 지출중가분 의 비품비인 한계소비현상인 55.8%에서 62.9%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2.4분기중 생활비지출의 평균 49.2%가 주영입(가정)에 한계소비현상인 48.9~60%였는데 비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30~34세가전인 71.4%, 25~29세가전인 68.9%로 높아져 소비현상의 다 차이 조인된 부분이었다. 분표정인 이과대학 졸업생은 일반국민의 1.5배로 다 경제생활의 경험에 밝으며 직장 소득이 월평균 1만 2천여원에 비해 5만 3천여 원에 이르러 생활수준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가구주 학력이 중학이하인 한계소비현상이 54.9%로 일반소비현상인 67.4%인 데 비해 고졸인 59.9%(70.3%), 대졸인 76.5%(74.9%)로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과 함께 소비현상도 높아져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주입구의 평균 한계소비현상인 75.9%와 가계부각각 66.2%와 56.2%로 나타나고 영주입가계 가 전·생계의 부가비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면서 소득수준이 높아 질수록 소비현상이 낮아졌다.

이와따라 저출생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고소득계층의 위해 불건전한 소비행태가 추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2.4분기중 부문별 가계지출중 생활비 부문은 주소비는 지난해 2.4분기보다 0.6% 늘어난 데 비해 기호식품비는 30.5%가 늘어서 식품비(7.7%)이 호식품비 비중(15.9%)을 차지하면서 26.3%가 늘어났다.

또 가스기구구입비는 97% 침투율은 44.3%로 장선수는 41.2%로 속도보구입에 쓴 돈은 33.8%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잠시 주춤하던 자가용구입률이 다시 일면서 자가용관리구입비를 개인비용비가 53.9% 증가했고 가중모임의 회비와 교체비용 감비지출도 29.8% 늘어났다.

이밖에 물가상승으로 주거비(42.4%)가 크게 늘었고 자납보증비(19.4%)·보건의료비(20.1%) 등 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高학력·有주택자 더 심해

기호食品費지출 처음 主食費 웃돌아

“자가용구입” 개인交通費 54%나 급증

업
계

「標準산업분류」 논란

통계청

연탄·자동차정비업등 이의제기

◇산업분류 개정관련 업계 요구사항 비교표

업 계	현행분류	개정분류	업계요구
연탄제조업	제조업	광업	제조업
자동차정비수리업	개인서비스업	도소매및 소비자용 서비스업	"
컴퓨터프로그램개발	사업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
자료처리업(키번치)	"	"	"
사진현상업	개인서비스업	"	"
영화제작업	영화제작 및배급업	영화제작 및배급업	"
연구소	공공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공공서비스업
동대문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업
영화시청	개인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연탄 제조업 등 가비미 및
공공서비스·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비미(비밀)업종에
대응하기 위해의 산업분류
개정요구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분류 개정안이 연탄·자동차정비·컴퓨터프로그램개발·자료처리·사진현상·영화제작·연구소·동대문·영화시청 등 10개 업종의 분류를 변경하는 것을 놓고 관련 업계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통계청은 10개 업종의 분류를 변경하는 것은 산업분류의 체계성을 높이고, 통계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稅制·금융지원 불이익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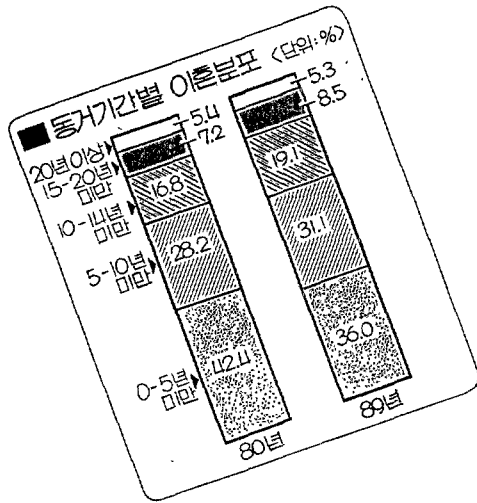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분류 개정안이 연탄·자동차정비·컴퓨터프로그램개발·자료처리·사진현상·영화제작·연구소·동대문·영화시청 등 10개 업종의 분류를 변경하는 것을 놓고 관련 업계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통계청은 10개 업종의 분류를 변경하는 것은 산업분류의 체계성을 높이고, 통계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은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는 것은 산업분류의 체계성을 높이고, 통계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離婚 급증

여덟쌍에 한쌍꼴

이혼자 40% 증은 5년도 못살고 헤어져
연애결혼이 중매보다同居기간 더 짧아



이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체이혼은 40%가까이 늘었다. 5년미만 이혼이 36%로 증가했다. 10년이상 이혼이 31%로 늘었다. 15년이상 이혼이 8.5%로 늘었다. 20년이상 이혼이 5.4%로 늘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이혼통계'에 따르면, 89년 이혼자수는 80년보다 1.1배 증가했다. 이혼자수(배우자수)는 80년 1만 4천 8백 명에서 89년 1만 6천 2백 명으로 늘었다.

평균 1만 4천에서 70년대 후반 2만 2천, 80년대 초반 3만 2천으로 계속 늘고 있다. 이혼기간도 평균 1.1년에서 1.1년으로 늘었다. 이혼이후 재혼기간은 5.5년으로 늘었다.

10년이상인 경우가 32.9%로 늘었다. 이혼이후 재혼한 비율은 64.5%로 89년 88.1%로 늘었다. 이혼이후 재혼한 비율은 64.5%로 89년 88.1%로 늘었다.

남자의 재혼비율(70년 5.4%, 89년 7%)보다 증가속도가 빠르다. 이혼이후 재혼한 비율은 64.5%로 89년 88.1%로 늘었다. 이혼이후 재혼한 비율은 64.5%로 89년 88.1%로 늘었다.

남자 중매를보다 이혼이후 재혼기간(연애결혼기간)이 짧아졌다. 7.9년에서 9.4년으로 늘었다. 이혼이후 재혼한 비율은 64.5%로 89년 88.1%로 늘었다. 이혼이후 재혼한 비율은 64.5%로 89년 88.1%로 늘었다.

통계청 발표...이혼신고서 첫부분

우리국민의 결혼생활이 행복가장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혼신고서 4만 4천 8백 40건의 55%인 2만 4천 6백 60건이 이혼신고서 첫부분에 '부부간의 불협화음'이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혼신고서 4만 4천 8백 40건의 55%인 2만 4천 6백 60건이 이혼신고서 첫부분에 '부부간의 불협화음'이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혼신고서 4만 4천 8백 40건의 55%인 2만 4천 6백 60건이 이혼신고서 첫부분에 '부부간의 불협화음'이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혼신고서 4만 4천 8백 40건의 55%인 2만 4천 6백 60건이 이혼신고서 첫부분에 '부부간의 불협화음'이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혼신고서 4만 4천 8백 40건의 55%인 2만 4천 6백 60건이 이혼신고서 첫부분에 '부부간의 불협화음'이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혼신고서 4만 4천 8백 40건의 55%인 2만 4천 6백 60건이 이혼신고서 첫부분에 '부부간의 불협화음'이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혼신고서 4만 4천 8백 40건의 55%인 2만 4천 6백 60건이 이혼신고서 첫부분에 '부부간의 불협화음'이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혼신고서 4만 4천 8백 40건의 55%인 2만 4천 6백 60건이 이혼신고서 첫부분에 '부부간의 불협화음'이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별론△45~49세의 5.5%
△50~54세의 7.9%
△55~59세의 12.5%
△60~64세의 18.4%
△65~69세의 28.5%였다.

離婚 위험 연령 男37 女33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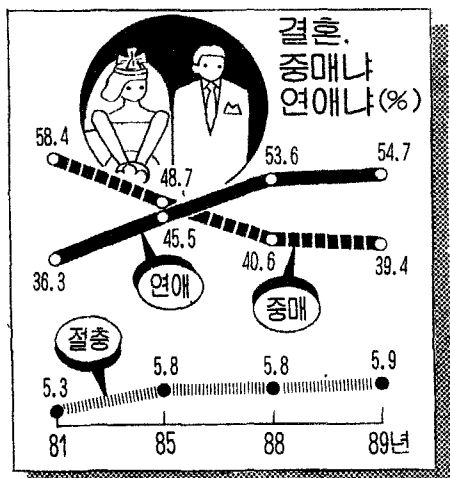
부부의 평균해로기간 추정치 (단위: 年)

자신의 나이	남자		여자			
	자신의 생애 해로기간	자사사 해로기간	자신의 생애 해로기간	자사사 해로기간		
20세	48.9	47.5	1.5	56.9	42.6	14.3
25세	44.3	42.8	1.5	52.1	37.7	14.4
30세	39.7	38.2	1.5	47.3	32.8	14.4
35세	35.1	33.6	1.5	42.5	28.1	14.4
40세	30.6	29.0	1.6	37.8	23.7	14.1
45세	26.4	24.8	1.6	33.1	19.8	13.3
50세	22.4	20.8	1.6	28.6	16.3	12.3
55세	18.6	17.1	1.5	24.3	13.6	10.7

이혼, 여자간 평균 14.4년, 남자간 10.7년 추정된다(표참조). 지난 89년 전체 이혼건수가 9만 1천 9백 99건으로, 이혼건수의 9%인 8천 2백 89건이 이혼신고서 첫부분에 '부부간의 불협화음'이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혼신고서 4만 4천 8백 40건의 55%인 2만 4천 6백 60건이 이혼신고서 첫부분에 '부부간의 불협화음'이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혼신고서 4만 4천 8백 40건의 55%인 2만 4천 6백 60건이 이혼신고서 첫부분에 '부부간의 불협화음'이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혼연령	남자		여자	
	70년	89년	70년	89년
15~24세	4.0	2.4	19.7	10.9
25~29세	21.4	18.3	31.6	30.4
30~34세	29.6	29.3	24.3	29.0
35~39세	18.7	20.7	13.4	14.6
40~44세	11.7	14.0	6.2	8.0
45~49세	7.3	7.8	3.0	4.0
50세이상	7.3	7.5	1.8	3.1

89년 1.8%포인트 크게 늘었다.

총화인전수용 재회의 비율은 남자가 지난 72년 5.4%에서 89년 7%포인트가 2.9%에서 5%포인트 늘었다.

한편 이혼추진수가 지난 70년대 후반 1만 4천~2만 명에서 80년대 초반 1만 3천~1만 5천으로 늘었다.

이혼추진수가 지난 70년대 초 이래 평균 1천명당 1.1천명에서 1.26명(연평균 0.69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평균 0.41명에서 1.13명으로 2.7배 증가했다. 이 중 美 國 86년 4.89명(蘇 聯 87년 3.33명)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또 日 本 88년 1.26명(臺 灣 88년 1.26명)에 거의 동등한 수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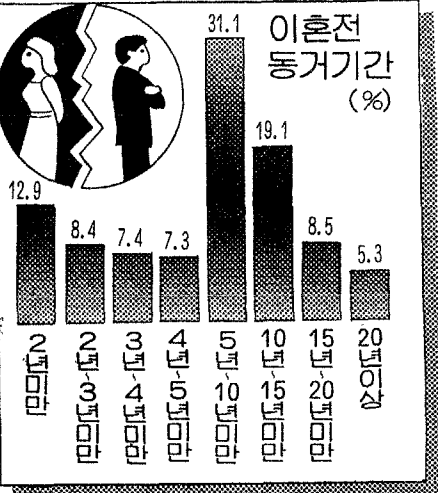
이혼하는 남녀의 헤어지기로 결정하는 평균 40%는 5년안에 갈라서는 경우가 40%에 이르며 10년이상 합계 살다가 이혼하는 비율도 지난 70년 30.5%에서

2점(大 田 1.13점)京 畿 道 1.12점)慶 南 1.04점)濟 州 0.95점)을 대 체로 대도시지역이 높다. 이혼사건이 부부 불화가 지난 70년 65%에서 89년 83%로 더 높아져 대부분을 차지. 반면 가혹한 불화가 지난 70년 8%에서 89년 3.4%로 감소한 반면 5.6%에서 1.4%로, 경제문 제는 4.9%에서 2%로 낮아졌다.

남 27.8 여 24.8 세...연애결혼 55%

男 26개월 女 19개월 지나 "새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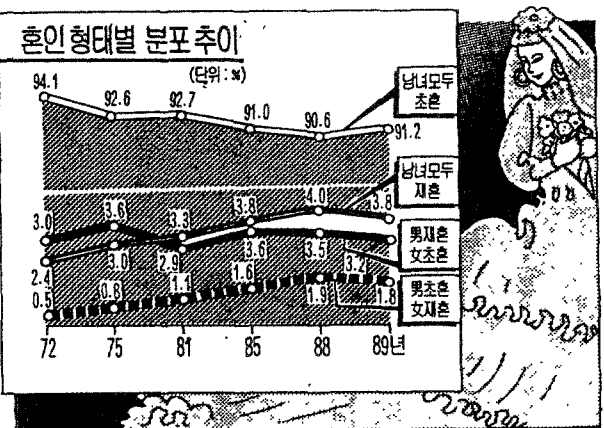
가족관 붕괴·여성자립 근원인



89년 33.9%포인트 늘었다(표준치). 이혼연령이 점차 30대가 전체의 절반을 여자 25~34세가 전체의 60%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전 단계의 이혼률 연평균의 이혼의 비율은 20대 중반 1.54명(1.33명)으로 최고(仁川 1.33점) 서울 大 田 각각 1.2

이혼사유는 부부 불화, 다시 결혼을 원치 않거나, 또 전혼자의 혼인부담을 감당하지 못함, 고학력자의 취업문제, 계층 상승, 교육수준의 향상 등이 원인이었다. 전체 결혼체 90년도 모두 100% 이하의 결혼비율이 지난 72년 40%에서 89년엔 2.2%로 낮아졌다. 반면 20대출신 남녀간의 이혼비율은 72년 5.5%에서 89년 21%로 높아졌다. 결혼한 계층이 지난 89년의 경우 33.8%, 여 3%가 10.3%가 27.3%가 29.6%의 이혼률이 가장 높았다는 결론이 나왔다. <裴仁俊기자>

“파뿌리” 옛말... 이혼·再婚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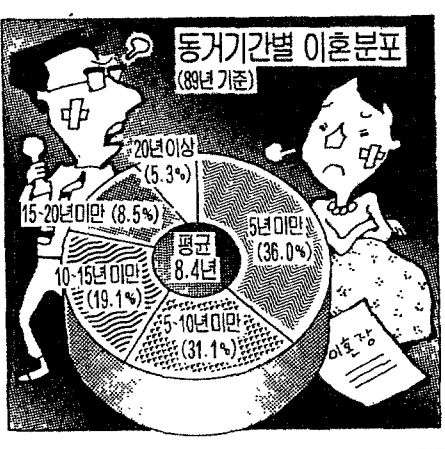
지난 20년간 부부의 불화 원인이 사회가 된 후 부부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통계청이 지난 20년간 부부의 불화 원인을 조사한 결과, 부부의 불화 원인은 '부부간의 의사소통 부족'이 40.4%로 가장 높았으며, '부부의 성격 차이'가 24.8%,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이 22.9%, '부부의 외모 변화'가 19.1%, '부부의 건강 문제'가 11.8%로 나타났다.

통계청 20년간 인구 등 태조사 분석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혼인율'이 70년대 초반 76%에서 지난해 95%로 높아졌고, 이혼율은 0.4%에서 1.5%로 크게 높아졌다.

총혼인율은 지난해 27.8%에서 24.8%로 각각 1.1%포인트가 높아졌다.



부부간의 연령차가 70년대 4.7세에서 최근에는 3.3세로 줄어 들었다.

이혼 건수는 70년대 초반 연 26만 건에서 70년대 중반 34만 건, 80년대 초반 36만 건, 80년대 후반 39만 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작년離婚 71년의 4배... 5年内과경 40%

初婚연령 男 27·8 女 24·8 세로 晩婚경향

부부연령차 좁아지고 연애가 종매보다 쉽게 결별

재혼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부의 연령차가 70년대 4.7세에서 최근에는 3.3세로 줄어 들었다.

이혼 건수는 70년대 초반 연 26만 건에서 70년대 중반 34만 건, 80년대 초반 36만 건, 80년대 후반 39만 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재혼율은 72년 남자 39.0%, 여자 33.7%에서 89년 남자 39.5%, 여자 34.9%로 증가했다.

이혼율은 72년 3.7%에서 89년 9.3%로 늘었다.

이혼 건수는 70년대 초반 연 26만 건에서 70년대 중반 34만 건, 80년대 초반 36만 건, 80년대 후반 39만 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혼 건수는 70년대 초반 연 26만 건에서 70년대 중반 34만 건, 80년대 초반 36만 건, 80년대 후반 39만 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혼율은 72년 3.7%에서 89년 9.3%로 늘었다.

이혼 건수는 70년대 초반 연 26만 건에서 70년대 중반 34만 건, 80년대 초반 36만 건, 80년대 후반 39만 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혼 건수는 70년대 초반 연 26만 건에서 70년대 중반 34만 건, 80년대 초반 36만 건, 80년대 후반 39만 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혼율은 72년 3.7%에서 89년 9.3%로 늘었다.

이혼 건수는 70년대 초반 연 26만 건에서 70년대 중반 34만 건, 80년대 초반 36만 건, 80년대 후반 39만 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혼 건수는 70년대 초반 연 26만 건에서 70년대 중반 34만 건, 80년대 초반 36만 건, 80년대 후반 39만 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혼율은 72년 3.7%에서 89년 9.3%로 늘었다.

이혼 건수는 70년대 초반 연 26만 건에서 70년대 중반 34만 건, 80년대 초반 36만 건, 80년대 후반 39만 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나이	남자			여자		
	기대수	합계	살기	기대수	합계	살기
20	48.9	47.5	1.5	56.9	42.6	14.3
25	44.3	42.8	1.5	52.1	37.7	14.4
30	39.7	38.2	1.5	47.3	32.8	14.4
35	35.1	33.6	1.5	42.5	28.1	14.4
40	30.6	29.0	1.6	37.8	23.7	14.1
45	26.4	24.8	1.6	33.1	19.8	13.3
50	22.4	20.8	1.6	28.6	16.3	12.3
55	18.6	17.1	1.5	24.3	13.6	10.7

◇본부가 앞으로 함께 살 기간 (90년 추정치, 단위: 年)

이혼부부가 70년대초 연간 1만4천쌍에서 지난해 4만8천쌍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89년에는 전체 혼인중 남녀 어느 한 쪽 또는 모두 재혼인 경우가 8.8%를 차지, 재혼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 89년의 이혼사례중 연애결혼 부부는 결혼 7.9년만에, 중매는 9.4년만에 이혼한 것으로 나타나, 연애결혼 부부가 중매결혼 부부보다 더 빨리 파경을 맞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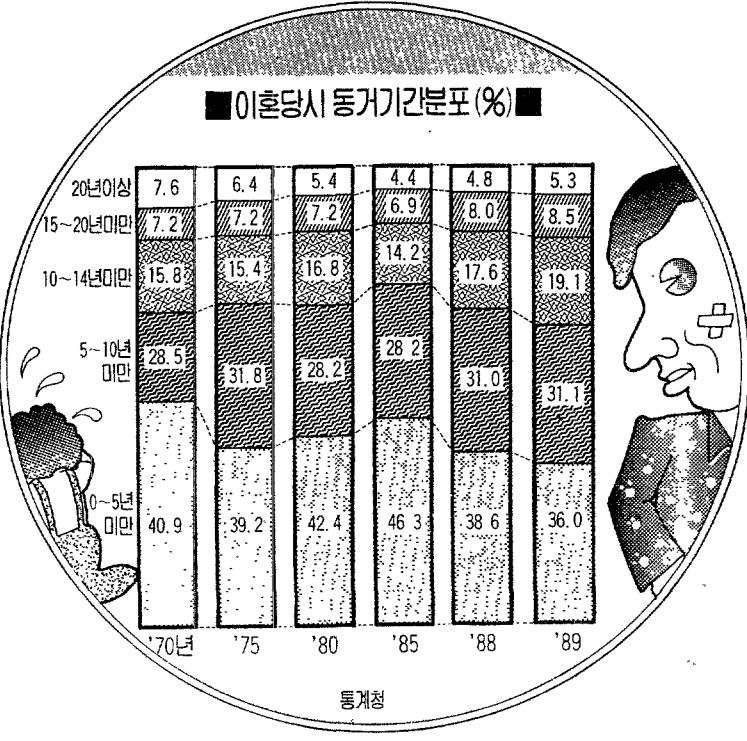
離婚작년 4만8천쌍

통계청 분석

평균수명이 늘어 30세 남자, 25세 여자가 함께 살 수 있는 기간은 지난 70년 32.5년에서 90년에는 37.5년으로 늘었다. 그러나 남·여가 각각 30세 남·여가 함께 살기 위해 25세 여자, 20세 남자가 필요하다.

전체 혼인중 재혼비율 8.8%

통계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남자가 72.2세, 여자가 79.2세에서 89년 77.8세, 여자는 84.6세로 높아져 재혼비율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은 21일 지난 20년간 혼인법에 따라 제출된 혼인 및 이혼신고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 이혼내용의 혼인 및 이혼제자별 증가, 전혼초도 0.4에서 1.1 수준으로 높아졌다. 文炳學 조사 통계국장은 이같은 현상의 「산인화」에 따른 여성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初婚평균 男 27.8 - 女 24.8세
연애부부이혼 중매보다 빨라

이혼까지의 동거기간은 89년의 경우 평균 2년미만이 12.9% 등 5년미만이 36%를 차지했다. 10년 이상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도 80년 24.6%에서 89년 27.6%로 증가, 자녀에 대한 책임의식, 부부간의 진솔성, 유리관등이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혼사유는 부부간의 불화가 89년에 83.1%를 차지한 반면, 結婚기간의 감등 등 가족간 변화나 건강문제 또는 경제문제에 의한 이혼은 각각 1.3% 수준으로 줄었다. 文炳學은 「이혼도 사회 및 핵가족화에 따라 가정생활의 변화이주로 부부관계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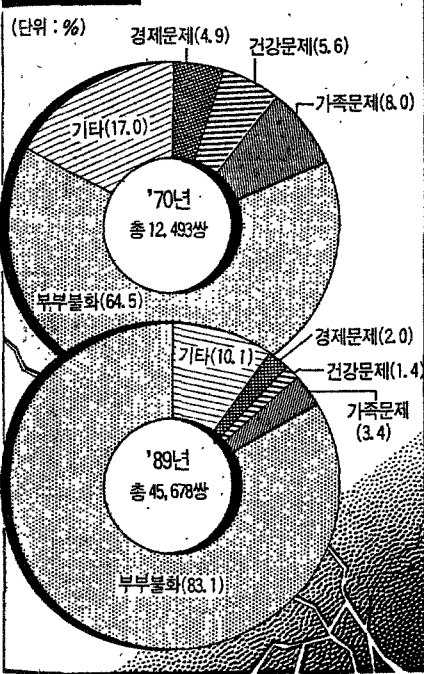
〈羅鍾類기자〉

離婚 급증...

있던 4천여건의 이혼이 4만4천여건으로 증가했다. 이 증가의 70% 이상이 경제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증가의 70% 이상이 경제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증가의 70% 이상이 경제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사유

*참: 추정 이혼건수 기준



아직도 있다. ▲남자 30대 초혼남 증가 88년 전체의 91.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72년 72.2%, 77년 72.1%, 82년 72.1%, 87년 72.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람이 많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성격 때문이다. ▲남녀 모두 국민학교 이하인 혼인의 비중이 72년 40.4%에서 88년 22.2%로 20%포인트 이상 감소하고 있다. 72년 57.5%, 77년 51.1%, 82년 51.1%, 87년 51.1%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男 30代 初婚 男 봄-겨울

▲초혼의 경우 70년대 초반 26.4%, 77년 27.8%, 82년 27.8%, 87년 22.2%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아직도 있다. 남자는 30대가 50.5%로 가장 많았고, 여자는 25~29세가 30.4%, 30~34세가 29%를 각각 차지했다. ▲이혼 전까지의 별다른 기간은 5년미만의 88년 36%로 가장 많아 결혼 초기가 '위험기간'으로 나타났다. 5~10년은 70년 28.5%에서 88년 31.1%로 늘어난 반면 20년 이상의 비율은 7.5%에서 5.3%로 줄어 들었다. ▲이혼사유는 경제수난과 위기로 계속 비수난수난이 판을 치고 있다. ▲건강문제(경제력)가 이혼 원인까지 70년 5.6%, 77년 5.6%, 82년 5.6%, 87년 5.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녀(연애)에 대한 부부가 이혼 전까지 동의하는 비율은 88년 7.9%로 88년 7.9%로 줄어 들었다. <출처: 통계청>

5년미만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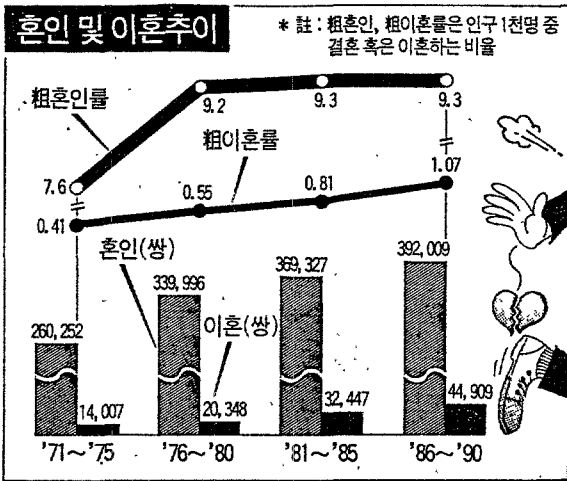
통계청 분석 「부부생활」 실태

초혼·중혼의 5년미만 부부 생활이 1986년 이후로는 5% 이상 증가했다. 특히 초혼의 5년미만 부부 생활이 1986년 이후로는 10% 이상 증가했다. 이는 1980년대 초혼의 5년미만 부부 생활이 7.6%였으나, 1986년 이후로는 9.2%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중혼의 5년미만 부부 생활도 1986년 이후로는 0.41%에서 1.07%로 증가했다.

을 소개한다.

이혼

70년대 중반부터는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86년 이후로는 이혼이 32,447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1981~85년의 20,348건에 비해 54% 증가한 것이다. 또한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이혼이혼비율도 1986년 이후로는 1.07%로 증가했다.



* 註: 총혼인, 총이혼률은 인구 천명 중 결혼 혹은 이혼하는 비율

혼인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중 0.5%에서 1.8%로 크게 높아져 우리 사회의 결혼행위의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혼률도 1986년 이후로는 1.07%로 증가했다. 이는 1981~85년의 0.81%에 비해 33% 증가한 것이다. 또한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이혼이혼비율도 1986년 이후로는 1.07%로 증가했다.

초반·女 20代 후반 "고비" 28세·女 25세로 높아져 가을順 결혼...예식장서 85%

70년대 중반부터는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86년 이후로는 이혼이 32,447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1981~85년의 20,348건에 비해 54% 증가한 것이다. 또한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이혼이혼비율도 1986년 이후로는 1.07%로 증가했다.

이혼

70년대 중반부터는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86년 이후로는 이혼이 32,447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1981~85년의 20,348건에 비해 54% 증가한 것이다. 또한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이혼이혼비율도 1986년 이후로는 1.07%로 증가했다.

70년대 중반부터는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86년 이후로는 이혼이 32,447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1981~85년의 20,348건에 비해 54% 증가한 것이다. 또한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이혼이혼비율도 1986년 이후로는 1.07%로 증가했다.

이혼危機 남 37세

晚婚이 일반인 된 후 이혼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혼율의 증가는 이혼이 증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혼율이 높아진 것은 이혼이 증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혼율이 높아진 것은 이혼이 증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통계청, 혼인·이혼統計 분석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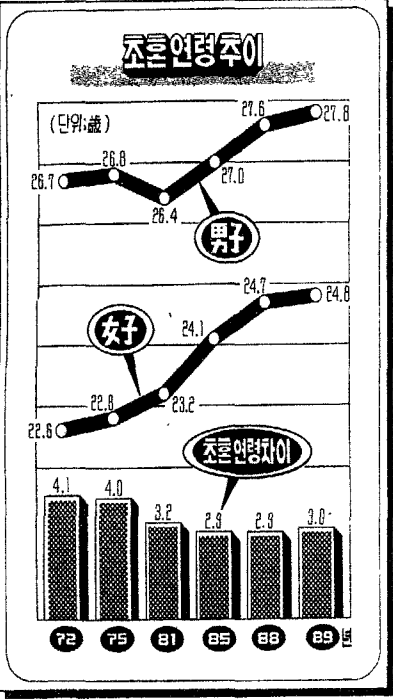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이혼 통계 분석에 따르면, 이혼율이 높아진 것은 이혼이 증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혼율이 높아진 것은 이혼이 증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혼율이 높아진 것은 이혼이 증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혼인·이혼 통계 분석에 따르면, 이혼율이 높아진 것은 이혼이 증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혼율이 높아진 것은 이혼이 증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혼율이 높아진 것은 이혼이 증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결혼하는 나이는 초혼의 경우 남자가 27.8세, 여자가 24.8세로 연령차이가 3세. 초혼연령이 계속 늦어지는 추세다. 이혼율은 남자가 26.2세, 여자가 24.3세로 이혼연령차이가 1.9세다. 이혼율은 남자가 28.8세, 여자가 25.5세로 이혼연령차이가 3.3세다.

初婚 男 27.8, 사유家族·경제

81년 26.4세, 85년 27.8세로 여자도 각각 22.6세, 23.2세, 24.7세로 10년사이의 남자는 1.1세, 여자는 1.6세가 늘었다. 다수 박탈 현상이다. 이혼율은 초혼연령차이가 3세, 이혼연령차이가 1.9세로 이혼연령차이가 1.1세, 여자는 1.6세가 늘었다.



여 33세

간혹이상의 2.5%의 미국에 비해 미국에서는 여성들이 2%의 비율로 결혼을 선택하는 반면에 남성은 3%의 비율로 결혼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는 19%로 가장 높고, 유럽의 경우는 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는 19%로 가장 높고, 유럽의 경우는 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는 19%로 가장 높고, 유럽의 경우는 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女 24.8세 : 연애결혼 55%

문제보다 夫婦 불화 83%

보통 24.8세인 여자애들이 연애결혼을 하는 비율이 5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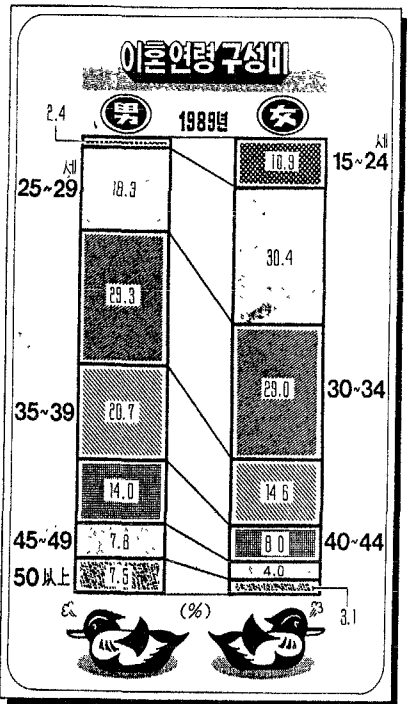
이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는 19%로 가장 높고, 유럽의 경우는 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는 19%로 가장 높고, 유럽의 경우는 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는 19%로 가장 높고, 유럽의 경우는 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는 19%로 가장 높고, 유럽의 경우는 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는 19%로 가장 높고, 유럽의 경우는 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남자 36.5%, 여자 33.0%)과 남자와 마찬가지로 39.5%의 비율로 연애결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는 19%로 가장 높고, 유럽의 경우는 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는 19%로 가장 높고, 유럽의 경우는 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매결혼比重 계속줄어 89년에 39.4%線 불과

이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는 19%로 가장 높고, 유럽의 경우는 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는 19%로 가장 높고, 유럽의 경우는 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는 19%로 가장 높고, 유럽의 경우는 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 '혼인·이혼 실태'

이혼이 갈수록 늘어나 지난해 이혼율이 70년대 초반의 3배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애결혼을 했을 때가 중매결혼을 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이혼하고,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이혼하는 경우가 전체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혼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결혼은 봄철에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통계청이 혼인·이혼신고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결혼과 이혼실태를 처음으로 분석해 20일 발표한 '혼인·이혼통계 작성결과'에서 나왔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40만4천9백쌍이 결혼하고 4만8천3백쌍이 이혼했다.

◇혼인=혼인건수는 70년대 초반 연평균 26만건에서 70년대 후반 34만건, 80년대 초반 36만9천건, 80년대 후반 39만2천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혼인 가운데 재혼 비율이 점차 늘어나, 남자는 72년의 5.4%에서 89년 7.0%로, 여자는 2.9%에서 5.6%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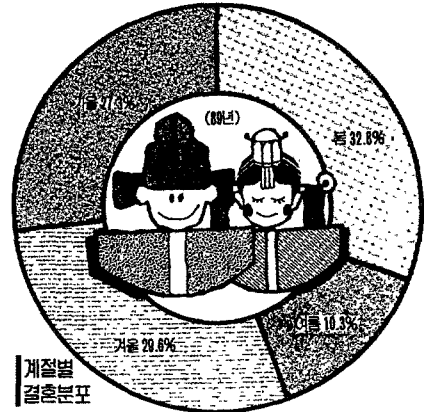
결혼철은 89년의 경우 봄이 32.8%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겨울(29.6%), 가을(27.3%), 여름(10.3%)순으로 집계됐다. 72년에는 겨울(39.7%), 봄(26.6%), 가을(26.5%), 여름(7.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도시에서는 봄철(89년 33.3%), 농촌에서는 겨울철(89년 34.9%)에 결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고학력자 사이의 결혼비중이 높아져, 남녀 모두 국졸 이하가 72년의 40.4%에서 89년 2.2%로 낮아진 반면, 대졸 이상은 5.5%에서 21.0%로 늘어났다. 가장 비중이 큰 학력층은 남녀 모두 중·고졸로 89년 57.5

%를 차지했다.

결혼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면 연애결혼이 89년 현재 54.7%, 중매결혼이 39.4%로 연애결혼이 중매결혼을 앞지르고 있다. 81년에는 이와 반대로 연애결혼이 36.3%, 중매결혼이 58.4%였다.

남녀 혼인 연령은 초혼의 경우 남자는 72년 26.7살에서 89년 27.8살로, 여자는 22.6에서 24.8살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남자보다 여자의 혼인연령 증가폭이 더 커지고 있는데, 이는 주로 여성의 교육과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만혼경향이 퍼지고



이혼 급증 70년대 초의 3배

전체 이혼 중 36% 5년안에 파경 맞아 연애결혼 중매 앞질러...연령차는 축소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혼연령도 남녀 모두 높아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초혼의 경우 남자는 25~29살이 65.6%(89년), 여자는 20~24살이 52.7%로 제일 많다.

남녀간의 혼인연령 차이는 89년 3.3살로 72년보다 1.4살 줄어들었으며, 남자의 초혼연령이 높아질수록 남녀간 혼인 연령 차이가 커지고 있다.

◇이혼=이혼건수는 70년대 초반 1만4천건에서 80년대 초반 3만2천건, 80년대 후반 4만5천건 수준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 1천명당 이혼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70년대 초반 0.41에서 89년 1.13으로 높아졌다. 이런 조이혼율은 일본(88년 1.26), 대만(89년 1.26)과 비슷한 수준이고, 미국(86년 4.89), 소

련(87년 3.36)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이혼연령은 남자는 89년 현재 30~39살이 50.0%, 여자는 25~34살이 59.4%로 전체의 절반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를 세분해 보면 남자는 30~34살이 29.3%, 35~39살이 20.7%, 여자는 25~29살이 30.4%, 30~34살이 29.0%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조이혼율 1.54)이 이혼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인천(1.30), 서울·대구(1.22)순으로 대도시 지역이 높다. 70년 조이혼율이 0.7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제주를 최근 들어 0.95로 높아지긴 했으나, 대도시 지역보다는 낮아졌다.

전체 이혼의 36.0%(89년)가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벌어지며, 2년 이내도 12.9%나 된다.

이혼 사유는 부부간 불화가 83.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혼하기 전 동거기간을 보면 연애결혼을 했을 때가 7.9년으로 중매결혼을 했을 때의 9.4년보다 짧아 연애결혼이 중매결혼보다 빨리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 기자〉

社 說

家庭이 무너지고 있다

한동안 우리는 핵가족의 폐단을 걱정했다. 그러나 지금은 가정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해마다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다. 불행천의 발표가 이를 증언을 해주고 있다.

지난 70년 이후 20년간 이혼건수가 80배로 크게 늘었다. 해마다 이혼건수의 40%가 불과 50대의 나이로 이혼한다. 게다가 초혼만족이 점점 늦어져 남자가 27.8세, 여자가 24.8세 인 것이로 밝혀졌다.

이러한 통계수치가 우리의 전통적인 결혼관은 무너지고 있다. 말하자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家族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가족의 사멸을 구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 통체이도 중추에 대한 무효를 전수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가족제도가 흔들리고 가정의 위태로워진다는 것은 바로 민중체의 위기가 사회전위기와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핵가족을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원인이 세대들의 가치관과 결혼에 대한 인식의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개인주의화한 젊은세대들이 가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일생을 혼자 사는 노년층 창고로서의 가치관도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제다가 산업화한 사회에서 신중하고 성숙한 인식이,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이, 그리고 이상 전통적인 家父長秩序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이제부터 성숙한 계급적인 의식을 가져오거나, 끈성을

여성의 미덕이라 가르치던 시대가 아니다. 지금의 수직적, 계급적 관계였던 전통적 가족의 수평적, 우애적 관계로 바뀌어 가고 있는 시대이다.

결혼율 50%만의 젊은세대들의 이혼율이 높아지고 전통적 가족관제와 새로운 부부관계의 간격이 두드러짐을 반영하고 있다. 이혼사유의 81%가 부부간의 불화인데, 이혼한 남녀들이 이혼이후 1년간 50%의 이혼율로 생활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있다.

백년해리를 다짐하고 부부도 몇년간 善男善女가 사소한 갈등 때문에 쉽게 갈라선다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 일가친척에게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수 없다. 더군다나 未成年의 자녀들이 있을 경우, 그 자녀들이 겪어야 할 심리적 고통은, 그 동안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결혼가정의 자녀들이 사회문제화되고, 그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고통의 후유증은 부모들이 더 말할 것도 없다.

이혼율이 높아지고 불행의 단순한 화제가 아니고, 이혼의 면제를 위한 사회적 연 전수가 있다. 우리의 전통적인 가부장 이 무너지고 있다. 말하자면 핵가족이 새로운 부부관계의 가치관이, 전통적으로 야한다. 권위를 주고 있는 것이다. 가족 제도의 존엄성과 권위의 이치를 분별하는 새로운 부부관계의 수평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物價오름세 큰폭 둔화

10월중動向 農産物 본격출하로 安定勢지속

소비자 0.1% 올라 올 최저 水産物값은 다소 強勢로

農産物의 본격적인 출하
기를 맞아 물가 오름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다.
10월 중 경제기획원의 발표
한 10월 중 물가상승률의
달리던 지난달의 소비자물
가는 전년보다 불과 0.1
%가 오른데 그쳐 월간
상승률은 0.0%에 가깝
다. 9월 중 물가상승률도
0.2%에 불과했다. 또
가상승률은 0.2%에
불과하다. 10월 중 물가
상승률은 0.1%에 불과
하다. 9월 중 물가상승
률은 0.2%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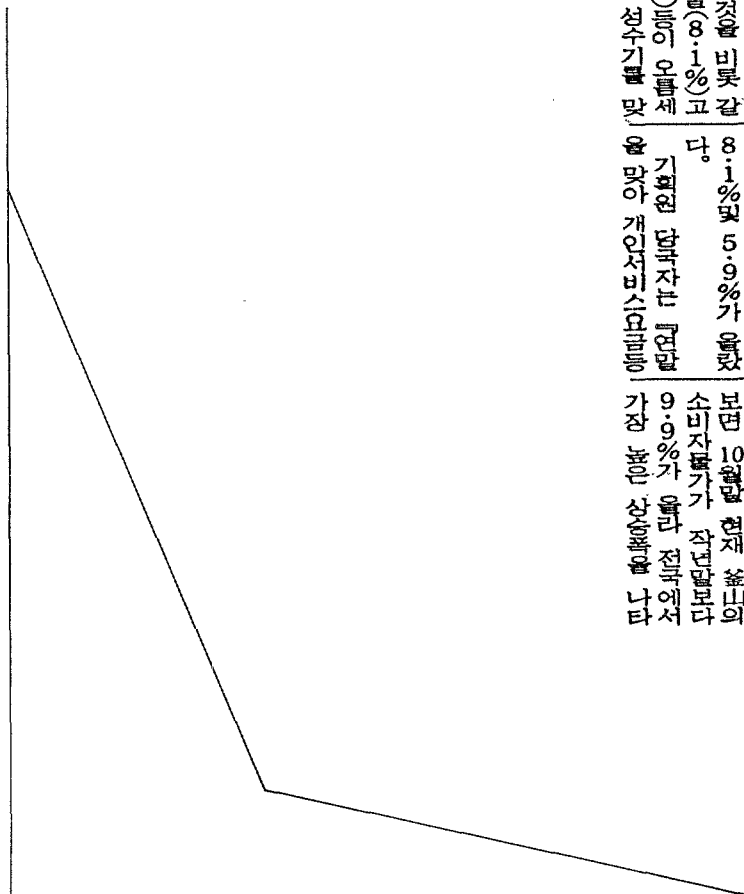
정기 때문이다.
한편 가격의 크게 올
랐던 돼지고기가 5.4%
나 하락하고 닭살도 9.3
%나리는 등 축산물가격도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생선류는 연년해
어 회복전으로 인해 명목가
7%나 오른 것을 비롯해
치(3.7%), 달(8.1%)고
물(1.2%)의 오름세
를 나타냈고 성수기를 맞

은 연평균 10% 이상 오른
것은 없었다. 수송과
배달비 상승으로 인해 수
비지 가격이 4.8% 올랐다.
또 의료보험(상인)이 연
료 대체에 따른 원가 상승으
로 4.9%가 올랐고 맞춤
신사복과 숙노복도 각각
8.1% 및 5.9%가 올랐
다.

다소 불안한 요인이 없지
않으나 특별한 요인이 없
는 한 11월과 12월 중에도
물가는 계속 안정세를 나
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한
자리수 물가가 확실시된
다.
한편 10월 중 물가상승률
보면 10월 중 연세 물가의
소비자물가가 작년말보다
9.9%가 올라 전류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

냈고 다음이 春川(9.8%)
光州(9.7%), 全州(9.5%)
등의 순이었다. 서울
은 전국평균과 같은 9%
수준이었다.
한편 가장 낮은 상승률
을 보인 곳은 水原으로 7.
5%에 머물렀고 다음이
仁川으로 7.9% 상승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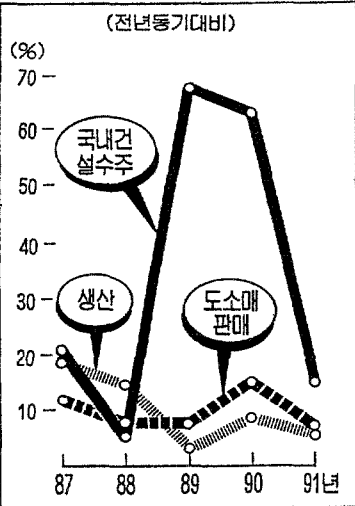
이중 10월 중 연세
물가가 작년말에 비해 수
비지 9%, 도매 2.3%
가 각각 올랐을 반면 「한자
리수」 물가 상승 전년의
증박이었다.
이제야 소비자물가 상승
률인 지난해 같은 기간의
9%에 미치지 못한다.
포인트가 10월 중 0.2%
가 상승했다. 10월 중 물가
상승률은 0.1%에 불과
하다. 9월 중 물가상승
률은 0.2%에 불과했다.
추기 한 달만에 14.1%나
하락한 것을 비롯해 (17.
4%) 사파(11.8%), 파
(15.3%), 포식(19.6%)
등 농산물 가격이 대체로 떨어



진정인가 景氣 침체인가

국내경기는 적절한 수준으로 진정되고 있는가,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는가. 4일 통계청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3·4분기(7~9월)의 국내산업생산 및 출하는 작년 동기보다 각각 5.6%와 6.8% 늘었다. 이는 작년 이후 분기별로 가장 낮은 증가수준이다. 작년의年平均 증가율은 생산 8.9%, 출하 11.3%였으며 올 상반기엔 생산이 8.2%, 출하가 10.9% 증가했었다. 올해 분기별 출하물량을 내수와 수출로 나눠보면 내수는 3.4분기중 작년 동기보다 8.5% 늘어 △1.4분기(1~3월) 12.4% △2.4분기(4~6월) 13.1%에 비해 증가세가 떨어졌다. 수출물량은 1.4분기 3%, 2.4분기 5.4%에서 3.4분기엔 0.9% 증가에 그쳤다. 특히 건설투자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연도별 1~9월중 산업활동 증가율



경기先行 지수 뒷걸음질 시작

7·8월중의 경제지표가 1988년 1~3월 중의 지표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4분기(7~9월)의 국내산업생산 및 출하가 작년 동기보다 각각 5.6%와 6.8% 늘었다. 이는 작년 이후 분기별로 가장 낮은 증가수준이다. 작년의年平均 증가율은 생산 8.9%, 출하 11.3%였으며 올 상반기엔 생산이 8.2%, 출하가 10.9% 증가했었다. 올해 분기별 출하물량을 내수와 수출로 나눠보면 내수는 3.4분기중 작년 동기보다 8.5% 늘어 △1.4분기(1~3월) 12.4% △2.4분기(4~6월) 13.1%에 비해 증가세가 떨어졌다. 수출물량은 1.4분기 3%, 2.4분기 5.4%에서 3.4분기엔 0.9% 증가에 그쳤다. 특히 건설투자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생산·출하 증가세 "최저수준"

건축 "急冷"... 허가면적 첫 감소

연도별 1~9월중 취업자수 (단위: 천명, 괄호안은 전년동기비 증감수)

	87년 1~9월	88년 1~9월	89년 1~9월	90년 1~9월	91년 1~9월
총 취업자	16,308 (901)	16,810 (502)	17,436 (626)	17,970 (534)	18,496 (526)
농림어업	3,636 (-39)	3,542 (-94)	3,417 (-125)	3,329 (-88)	3,117 (-212)
공업	4,570 (629)	4,756 (186)	4,949 (193)	4,896 (-53)	5,007 (111)
사회간접자본	8,102 (312)	8,512 (410)	9,070 (558)	9,745 (675)	10,371 (626)

物價불안 收支적자 惡材로

경제지표가 1988년 1~3월 중의 지표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4분기(7~9월)의 국내산업생산 및 출하가 작년 동기보다 각각 5.6%와 6.8% 늘었다. 이는 작년 이후 분기별로 가장 낮은 증가수준이다. 작년의年平均 증가율은 생산 8.9%, 출하 11.3%였으며 올 상반기엔 생산이 8.2%, 출하가 10.9% 증가했었다. 올해 분기별 출하물량을 내수와 수출로 나눠보면 내수는 3.4분기중 작년 동기보다 8.5% 늘어 △1.4분기(1~3월) 12.4% △2.4분기(4~6월) 13.1%에 비해 증가세가 떨어졌다. 수출물량은 1.4분기 3%, 2.4분기 5.4%에서 3.4분기엔 0.9% 증가에 그쳤다. 특히 건설투자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景氣 후퇴하고 있다

3·4분기 産業동향 내수 建設진정 輸出부진

생산 5.6% 出荷 6.8% 증가에 그쳐

9월稼動率하락 제조업就業者 감소
 “전축急冷” 허가면적 작년比 10% 줄어

<산업활동동향>
 (전년동분기비, %)

	91		
	1/4	2/4	3/4
총생산	8.3	8.1	5.6
내수	10.4	11.5	6.8
수출	12.4	13.1	8.5
내수증가	3.0	5.4	0.9
수출증가	80.8	79.3	79.4
내수증가속도	4.0	26.1	8.9
수출증가속도	12.3	-1.2	-8.7
내수증가속도(전년동분기비)	1.1	-7.5	10.0
수출증가속도(전년동분기비)	26.6	-5.4	3.1
내수증가속도(전년동분기비)	13.7	12.8	3.2
수출증가속도(전년동분기비)	6.6	8.1	8.1
내수증가속도(전년동분기비)	12.8	14.2	10.1

내수소비의 진척정기 진
 정·수출부진 등으로도 경기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4월 분기치의 발표에
 3·4분기 산업활동동향의
 파도면 산업체의 생산출
 하 및 투자증가가 현저히
 둔화되고 재고는 늘어나
 전반적인 경기가 하향추진
 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다.
 또 노년층의 경기선행지수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도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므로

중도·소매 판매는 추석
 이 끼여 오히려 불투하고
 8월보다 0.5% 감소
 세를 보였다. 3·4분기
 전체로도 2.4분기보
 다 1.3% 늘어나는데
 그쳐 증가율이 크게 낮아
 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용 중소기업 매출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도 7
 월 20.5%에서 8월엔 7
 .8%로 떨어지는 3.6%
 로 전월 대비 추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잇따른
 건설경기억제대책의 영향
 으로 9월중 건축허가면적
 이 작년 9월보다 10.4%
 감소, 누계(9월까지)로
 치면 올해의 총액이 0
 4% 감소할 기류가 되고 있
 다.
 유흥업과 내년초에 실제
 건설공사물량이 나타날
 건설업체의 9월중 공사수
 주액도 1년전보다 5.3
 % 감소, 9월엔 전년동
 분기보다 5.3%

기전주세가 계속될 것
 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9월까지 제조업
 체가 발표한 공장설비의 건
 설공사(9.7% 감소)와 산
 업용 기계류 수입(3.5%
 증가) 국내 기계발판(1.1
 % 감소) 등도 증가폭이 줄
 어들거나 감소세로 반전해
 기업체의 투자유동도 급격
 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이 전반적인 경기부
 진이 9월 9월의 비해
 제조업체 취업자수가 1만
 6천명 감소, 前年同月比
 10%의 고용이 축소되며
 소세를 보였다.
 반면 건설도 소매 서비
 스 등 3차산업체의 취업
 자는 75만 5천명의 늘
 여전히 고용구조 개선되
 지 않음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鄭萬昊기자>

社說

忍耐로 맞서야 할 경기鈍化

정부의 內需억제정책으로 3·4분기에는 10월경기가 뚜렷한 부흥의 전초점이 되었다. 그러나 2·3개월후의 경기회복에 대한 신중주의가 9월중 전월대비 0.1% 하락 4월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물론 9월은 경기둔화되지 않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가 달가운 수치를 나타내었다. 특히 내연의 4대산업은 양분고 있었으나 정통채업인과 중소기업은 정부억제로서 큰 타격을 입었다. 그 결과 9월은 9월과 10월의 경기둔화를 위한 통화정책의 실시로 양분고 수급수여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이러한 현상은 9월 10월의 경기둔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9월의 경기둔화는 9월 10월의 경기둔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부흥수직기 이전의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나 사상 최대폭의 최저수직수직기 보다 3배의 인플레이션 및 대외무역확장의 기인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대로 나타난다. 그러나 9월의 경기둔화는 9월 10월의 경기둔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은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 특히 내연의 4대산업은 양분고 수급수여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이러한 현상은 9월 10월의 경기둔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인 계속 확대를 줄라면 재건기가 오신 여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9월의 경기둔화는 9월 10월의 경기둔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9월의 경기둔화는 9월 10월의 경기둔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있다. 그러나 9월의 경기둔화는 9월 10월의 경기둔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9월의 경기둔화는 9월 10월의 경기둔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통계청의 여론조사 결과 자칭 중층이 조사 대상의 61.3%로 3년 전의 57.1%보다 4.2%포인트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같은 조사결과에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자체추진한 설문조사인 중층 36.4%(88만명)와 여론조사청의 조사결과(88만명)를 비교하면 여론조사청의 결과가 2.7%포인트 높았다.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1988년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이다. 이 조사에는 1만 1천 800명이 참가했으며, 이 중 80.0%가 자칭 중층이라고 응답했다. 또 사흘 동안에 거주하는 계층의 17.0%가 중층층이라고 응답했다.

너도나도 中産層

「주장」했고 自家담당자는 59.2%가 중층층이라고 응답했다. KDI가 중층층의 개념을 객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층층의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는 가구의 소득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 둘째는 가구의 자산이 1억 5천 000만원 이상인 경우, 셋째는 가구의 연소득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통계청 조사결과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킨 실층적인 중층층은 36.4%에 불과하다. 이 점의 편차 현상은 13.6%로, 1988년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88만명)와 비교하면 2.7%포인트 높았다. 이 점의 편차 현상은 13.6%로, 1988년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88만명)와 비교하면 2.7%포인트 높았다.

이같은 결과는, 1988년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이다. 이 조사에는 1만 1천 800명이 참가했으며, 이 중 80.0%가 자칭 중층이라고 응답했다. 또 사흘 동안에 거주하는 계층의 17.0%가 중층층이라고 응답했다.

金世馨(經濟部기자)

都市 5가구1 집꼴 犯罪 피해

국민 61% "나는 中産層"

54%가 종교인 佛敎 기독교 天主教 順

91 社會 통계 조사

지난 1년 사이 국내 모든 가구의 11.3%가 소매치기나 강도 등 범죄 피해의 피해를 보았다. 이 가운데 85.5%가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조사청의 통계에 따르면 1천 500만 5천 900가구(총 인구는 4천 500만 5천 900명)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15세 이상의 인구가 4천 500만 5천 900명 중 47.1%인 2,119만 5천 900명이었다. 이 중 51.3%인 1,087만 5천 900명이 중층층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1988년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88만명)와 비교하면 2.7%포인트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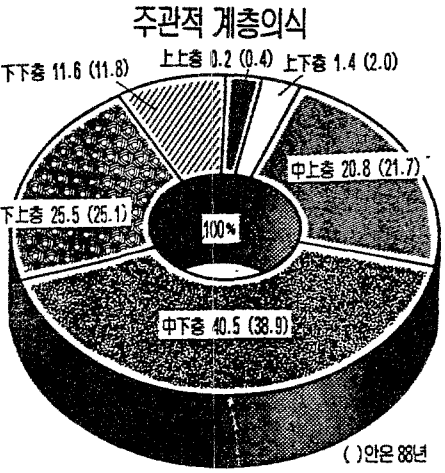
이같은 결과는, 1988년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이다. 이 조사에는 1만 1천 800명이 참가했으며, 이 중 80.0%가 자칭 중층이라고 응답했다. 또 사흘 동안에 거주하는 계층의 17.0%가 중층층이라고 응답했다.

조사청의 통계에 따르면 1천 500만 5천 900가구(총 인구는 4천 500만 5천 900명)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15세 이상의 인구가 4천 500만 5천 900명 중 47.1%인 2,119만 5천 900명이었다. 이 중 51.3%인 1,087만 5천 900명이 중층층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1988년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88만명)와 비교하면 2.7%포인트 높았다.

이같은 결과는, 1988년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이다. 이 조사에는 1만 1천 800명이 참가했으며, 이 중 80.0%가 자칭 중층이라고 응답했다. 또 사흘 동안에 거주하는 계층의 17.0%가 중층층이라고 응답했다.

국민 61% "나는 中層" - 49% "賃金불만"

91사회지표에 나타난 국민 自畫像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불성과 없다」 50.3%로 나타났다. 「피해액 소」 32.2%, 「귀찮아서」 9.8%, 「도박우려」 4.0%, 「기타」 3.7%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의 61%가 자신들의 사회계층을 「中層」의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賃金」의 불만은 「후」에도 두달만 1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賃金」의 불만은 「후」에도 두달만 1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賃金」의 불만은 「후」에도 두달만 1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賃金」의 불만은 「후」에도 두달만 1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불성과 없다」 50.3%로 나타났다. 「피해액 소」 32.2%, 「귀찮아서」 9.8%, 「도박우려」 4.0%, 「기타」 3.7%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불성과 없다」 50.3%로 나타났다. 「피해액 소」 32.2%, 「귀찮아서」 9.8%, 「도박우려」 4.0%, 「기타」 3.7%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불성과 없다」 50.3%로 나타났다. 「피해액 소」 32.2%, 「귀찮아서」 9.8%, 「도박우려」 4.0%, 「기타」 3.7%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불성과 없다」 50.3%로 나타났다. 「피해액 소」 32.2%, 「귀찮아서」 9.8%, 「도박우려」 4.0%, 「기타」 3.7%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불성과 없다」 50.3%로 나타났다. 「피해액 소」 32.2%, 「귀찮아서」 9.8%, 「도박우려」 4.0%, 「기타」 3.7%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의 61%가 자신들의 사회계층을 「中層」의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賃金」의 불만은 「후」에도 두달만 1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賃金」의 불만은 「후」에도 두달만 1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賃金」의 불만은 「후」에도 두달만 1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賃金」의 불만은 「후」에도 두달만 1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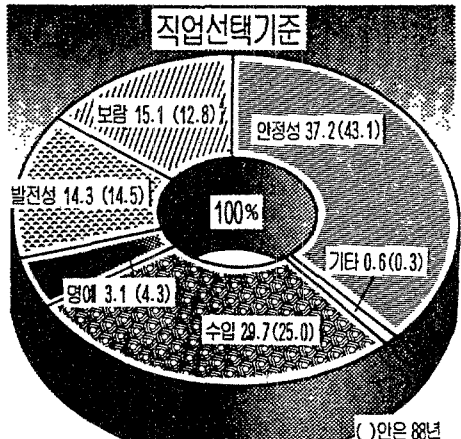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불성과 없다」 50.3%로 나타났다. 「피해액 소」 32.2%, 「귀찮아서」 9.8%, 「도박우려」 4.0%, 「기타」 3.7%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불성과 없다」 50.3%로 나타났다. 「피해액 소」 32.2%, 「귀찮아서」 9.8%, 「도박우려」 4.0%, 「기타」 3.7%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불성과 없다」 50.3%로 나타났다. 「피해액 소」 32.2%, 「귀찮아서」 9.8%, 「도박우려」 4.0%, 「기타」 3.7%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불성과 없다」 50.3%로 나타났다. 「피해액 소」 32.2%, 「귀찮아서」 9.8%, 「도박우려」 4.0%, 「기타」 3.7%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불성과 없다」 50.3%로 나타났다. 「피해액 소」 32.2%, 「귀찮아서」 9.8%, 「도박우려」 4.0%, 「기타」 3.7%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선택기준」에 따르면, 직업 선택의 주된 기준은 「안정성」 37.2%로 나타났다. 「수입」 20.7%, 「발전성」 14.3%, 「보람」 15.1%, 「기타」 0.6%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선택기준」에 따르면, 직업 선택의 주된 기준은 「안정성」 37.2%로 나타났다. 「수입」 20.7%, 「발전성」 14.3%, 「보람」 15.1%, 「기타」 0.6% 순으로 나타났다.

「범직전쟁」 후에도 10일중 1집 당해봤다

직업선택 조건 안정성·수입·보람順

10명중 5·4명 宗教人... 여성취업 긍정적

경제형편 만족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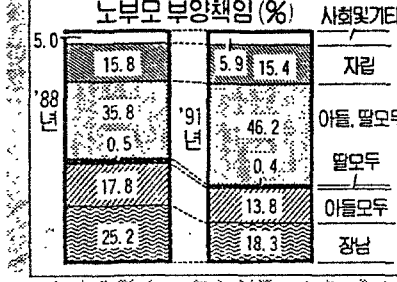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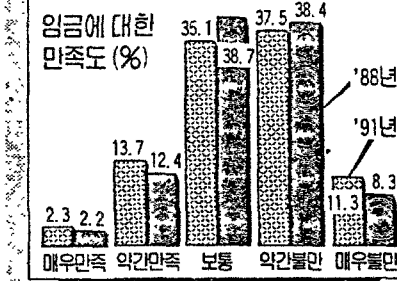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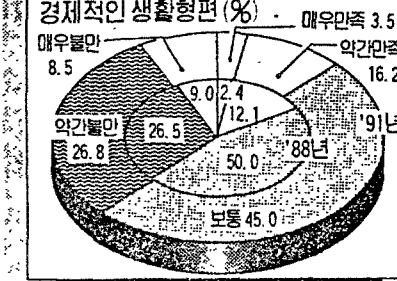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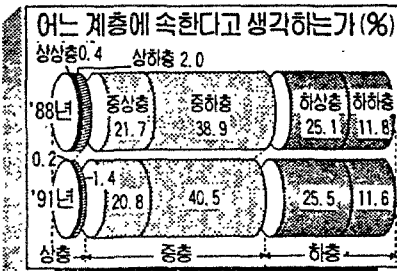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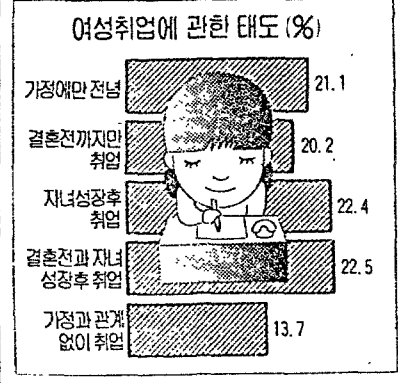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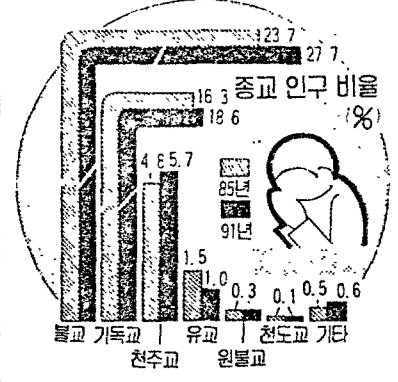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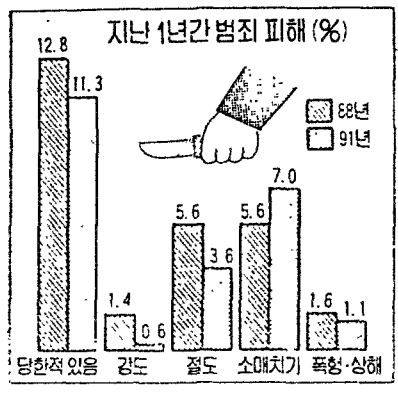
中間層 평균 月收 百만원 10가구중 한집 범죄피해

1년간 10가구중 한집만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나타났다. 10가구중 한집만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나타났다. 10가구중 한집만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나타났다.

중간층의 평균 월수입이 100만원에 육박했다고 나타났다. 10가구중 한집만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나타났다. 10가구중 한집만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나타났다.

경제적 생활형편이 '매우만족' 3.5%, '만족' 8.5%, '보통' 45.0%, '불만족' 26.5%, '매우불만족' 12.1%로 나타났다. 10가구중 한집만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나타났다.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20%에 불과하다고 나타났다. 10가구중 한집만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나타났다. 10가구중 한집만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나타났다.



“내 세대에 계층이동
종교는 불교 28-기독교
부모부양 「아들딸 모

대안이 낮아지고 경제도 점점 소원해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수자의」의 평균 30세 연령층의 단층도가 62%인 반면 60세 이상은 48.4%로 나타났다.

종교는 불교 28-기독교 21.2%로 나타났다.

부모부양 「아들딸 모」의 경우 46.2%가 아들모두, 13.8%가 아들모두 딸모두, 18.3%가 정답으로 나타났다.

40% 老後 생활 부담

불만 35%

「자신의 생활이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65%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만」은 35%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31%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특히 「생활」에 대한 불만은 3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3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생활」에 대한 불만은 「주거」(19%), 「교육」(19%), 「의료」(19%), 「문화」(19%) 등으로 나타났다. 「주거」에 대한 불만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1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교육」에 대한 불만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1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의료」에 대한 불만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1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문화」에 대한 불만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1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중산층 自家 60%
 계층의식 직업 재산 등
 을 감안해 자기 자신이 어느 계층에 속하는지를 조사했다.

91 사회통계조사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91년도 사회통계조사결과」는 고용·노사·사회·공안 등 4개 사회지표에 관한 국민의식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10일간 전국 3만 2천 5백 표본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 나온 것이다. 지난 7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회통계조사의 이번 조사 항목들은 대부분 지난 88년 조사 이후 3년만에 조사되는 것들이어서 지난 3년동안 국민생활의 변천과 의식변화추이를 엿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우리국민들의 61.3%는 자신이 「중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자신의 생활이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65%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만」은 35%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31%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특히 「생활」에 대한 불만은 3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3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생활」에 대한 불만은 「주거」(19%), 「교육」(19%), 「의료」(19%), 「문화」(19%) 등으로 나타났다. 「주거」에 대한 불만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1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교육」에 대한 불만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1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의료」에 대한 불만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1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문화」에 대한 불만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1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자신의 생활이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65%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만」은 35%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31%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특히 「생활」에 대한 불만은 3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3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생활」에 대한 불만은 「주거」(19%), 「교육」(19%), 「의료」(19%), 「문화」(19%) 등으로 나타났다. 「주거」에 대한 불만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1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교육」에 대한 불만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1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의료」에 대한 불만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1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문화」에 대한 불만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1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자신의 생활이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65%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만」은 35%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31%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특히 「생활」에 대한 불만은 3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3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생활」에 대한 불만은 「주거」(19%), 「교육」(19%), 「의료」(19%), 「문화」(19%) 등으로 나타났다. 「주거」에 대한 불만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1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교육」에 대한 불만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1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의료」에 대한 불만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1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문화」에 대한 불만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1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가능, 44%
 19-천주교 6%
 두해야, 46%

「자신의 생활이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65%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만」은 35%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31%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특히 「생활」에 대한 불만은 3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3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생활」에 대한 불만은 「주거」(19%), 「교육」(19%), 「의료」(19%), 「문화」(19%) 등으로 나타났다. 「주거」에 대한 불만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1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교육」에 대한 불만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1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의료」에 대한 불만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1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문화」에 대한 불만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1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자신의 생활이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65%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만」은 35%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31%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특히 「생활」에 대한 불만은 3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3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생활」에 대한 불만은 「주거」(19%), 「교육」(19%), 「의료」(19%), 「문화」(19%) 등으로 나타났다. 「주거」에 대한 불만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1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교육」에 대한 불만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1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의료」에 대한 불만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1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문화」에 대한 불만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1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자신의 생활이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65%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만」은 35%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31%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특히 「생활」에 대한 불만은 3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3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생활」에 대한 불만은 「주거」(19%), 「교육」(19%), 「의료」(19%), 「문화」(19%) 등으로 나타났다. 「주거」에 대한 불만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1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교육」에 대한 불만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1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의료」에 대한 불만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1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문화」에 대한 불만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조사 당시의 1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내집있으면 中間層이다

社說

最近의 생활수준은
 1950년도의 생활수준과
 비교하면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생활수준이
 1950년도의 생활수준과
 비교하면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이 1.9배 증가한 것은
 1950년도의 생활수준과
 비교하면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이 1.9배 증가한 것은
 1950년도의 생활수준과
 비교하면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이 1.9배 증가한 것은
 1950년도의 생활수준과
 비교하면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이 1.9배 증가한 것은
 1950년도의 생활수준과
 비교하면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이 1.9배 증가한 것은
 1950년도의 생활수준과
 비교하면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이 1.9배 증가한 것은
 1950년도의 생활수준과
 비교하면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이 1.9배 증가한 것은
 1950년도의 생활수준과
 비교하면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이 1.9배 증가한 것은
 1950년도의 생활수준과
 비교하면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社說

가정경제의 고갈... 11.9%의...

경제정책의... 8.9%의...

가정경제의 고갈... 11.9%의...

경제정책의... 8.9%의...

勤勞不滿의 높아지나

가정경제의 고갈... 11.9%의...

경제정책의... 8.9%의...

가정경제의 고갈... 11.9%의...

경제정책의... 8.9%의...

가정경제의 고갈... 11.9%의...

경제정책의... 8.9%의...

조사자료·정보정부서 동점

정보부 장관이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정보자유법' 제정 기념 기자회견에서 '정보부 장관이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정보자유법' 제정 기념 기자회견에서 '정보부 장관이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정보자유법' 제정 기념 기자회견에서'



정보부 장관이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정보자유법' 제정 기념 기자회견에서 '정보부 장관이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정보자유법' 제정 기념 기자회견에서'

정보부 장관이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정보자유법' 제정 기념 기자회견에서 '정보부 장관이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정보자유법' 제정 기념 기자회견에서'

정보부 장관이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정보자유법' 제정 기념 기자회견에서 '정보부 장관이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정보자유법' 제정 기념 기자회견에서'

인구센서스·大入 성적도 對外秘 학계, 기업연구소 거의 활용못해

“사생활 침해않는 정보 과감히 개방을”

정보부가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정보자유법' 제정 기념 기자회견에서 '정보부 장관이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정보자유법' 제정 기념 기자회견에서'

정보부 장관이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정보자유법' 제정 기념 기자회견에서 '정보부 장관이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정보자유법' 제정 기념 기자회견에서'

정보부 장관이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정보자유법' 제정 기념 기자회견에서 '정보부 장관이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정보자유법' 제정 기념 기자회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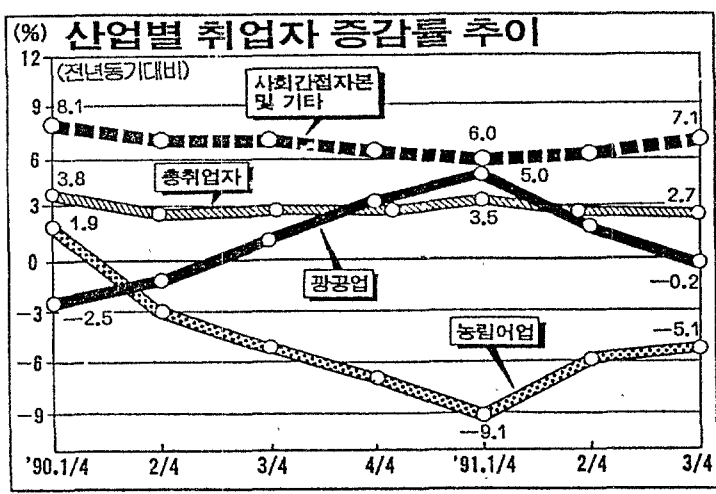
정보부 장관이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정보자유법' 제정 기념 기자회견에서 '정보부 장관이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정보자유법' 제정 기념 기자회견에서'

정보부 장관이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정보자유법' 제정 기념 기자회견에서 '정보부 장관이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정보자유법' 제정 기념 기자회견에서'

정보부 장관이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정보자유법' 제정 기념 기자회견에서 '정보부 장관이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정보자유법' 제정 기념 기자회견에서'

취업 쉬운 일로 쉽게 별자

3·4분기 동향 광공업 8천명 줄어



광공업취업자가 지난 1·4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3차산업 취업자는 계속 늘고 있다. 또 올 3·4분기(7·9월) 중 취업자는 40만 1천명으로 이 가운데 68·6%인 27만 5천명(가 6대도시의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은 28일(91년 3·4분기 지역별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7·9월 중 광공업취업자는 4백 97만 8천명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0·2%(8천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분기(4·6월)에 비해 0·3%(1만 4천명) 줄어든 것으로 1·4분기(1·3월)의 5백 5만 명을 최고로 광공업취업자가 계속 줄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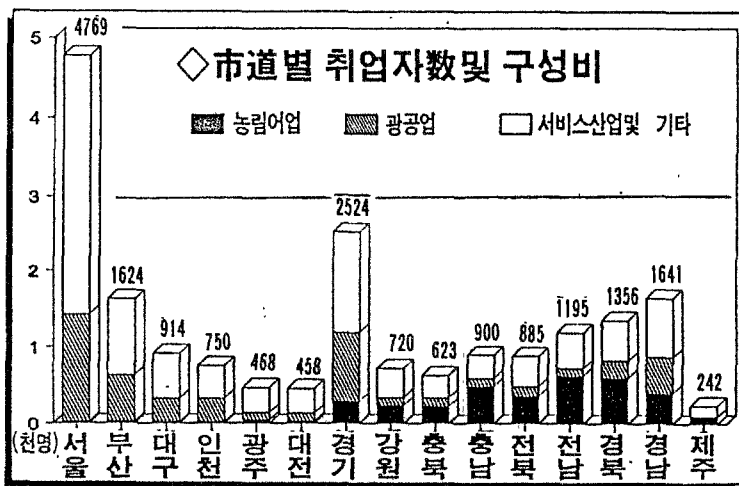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6대도시의 경우 올 3·4분기 중 광공업취업자가 2백 81만 명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0·1%(3천명) 증가했으나 9개 도시 지역은 2백 16만 8천 명으로 작년보다 0·6%(1만 3천명) 감소했다.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부문(3차산업)의 취업자는 1천 61만 5천 명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7·1%(70만 1천 명) 올 2·4분기와 비해 1·9%(20만 2천 명)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의 취업자는 6대도시의 경우 작년보다 6·8%(38만 5천 명), 9개 도시 지역은 7·4%(31만 9천 명) 늘어난 등 전 시·도에서 증가세가 지속됐다.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부문 중 건설업은 16·4%(22만 9천 명), 사회·개인서비스업(6·8%), 91년 3차산업(도·산·림·어업) 4% 15만 4천 명(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은 3백 47만 5천 명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5·1%(18만 7천 명), 2·4분기에 비해서는 3%(10만 6천 명) 각각 줄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올 7·9월 중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부문은 53·4%에서 55·7%로 높아진 반면 광공업과 농업·어업은 작년의 26·9%와 19·7%에서 26·1%와 18·2%로 각각 낮아졌다. 6대 도시는 광공업(31·3%)과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부문(66·9%)의 취업자 비중이 높으나 9개 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농업·어업(32·8%)의 비중이 높고 광공업(21·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45·7%)의 비중이 낮다. 한편 올 3·4분기 중 우리나라 취업자는 1천 9백 6만 8천 명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2·7%(50만 6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작년 동기 대비 5·9%(2만 5천 명) 감소했으나 취업률(92·1%)은 작년보다 0·1%포인트 높아져 90년의 90·1%를 넘어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대 도시의 실업률은 평균 3·9%로 9개 도시 지역은 1·2%이며, 실업률이 가장 높은 도시는 대구로 3·3%이다.

서비스업이 70만 명이 더

실업률 2·1%로 다소 떨어져

제조업就業者 지역따라 "增減"



통계청 3분기동향
제조업취업자수가 전체
점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光州·大邱·忠南·忠北
濟州 등의 제조업취업자수

釜山·大邱·慶南 등 격감속 內需중심 서울·忠南 늘어

28일 統計院이 발표한 91년 3·4분기 지역별 고용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의 전국제조업취업자는 4백91만 1천명으로 前分期에 비해 1만 5천명(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市道별로 보면 釜山의 제조업취업자가 59만 7천명으로 前分期 대비 9천명(1.5%)이나 줄었고 大邱도 30만 4천명으로 7천명(2.3%) 감소했다. 또 京畿 2만 2천명(2.4%), 全北 3천명(2.5%), 全南 3천명(3.1%), 慶北 3천명(1.4%), 慶南 7천명(1.4%)씩 각각 줄어들었다.

이는 釜山·大邱의 경우 신발·섬유업체가 줄어 들어 도산하는 등 지역의 주력제조업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고 京畿·全南北·慶南北 등도 중수주출제조업체가 주업단체 등의 조처를 취하고 있고 대기업노동력집약에 의한 자동화설비부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

이되고 있다. 반면 내수형 제조업체가 많거나 신규설비투자가 비교적 활발하여 투여진산도의 제조업취업자수는 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제조업취업자가 1백39만 7천명으로 前分期 대비 2만 2천명(1.6%)이나 증가했고 光州는 3천명(3.3%), 忠北 2천명(1.9%), 忠南 1만명(10.8%), 濟州 1만명(11.1%)씩 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총취업자는 1천 9백 6만 8천명으로 전분기 대비 8만 2천명(2.7%), 전년 동기 대비 50만 6천명(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투자비스부분의 취업자가 1천 61만 5천명(8.9%) 전분기 대비 20만 2천명, 전년 동기 대비 70만 1천명 증가, 이 부분의 신규취업자수가 총취업자수가 부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노동력의 서비스업선충현상이 여전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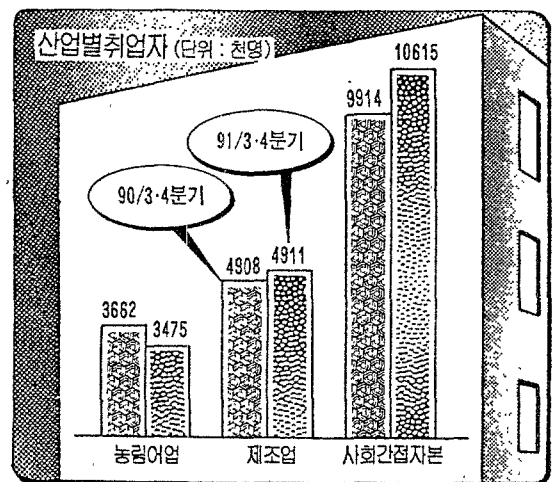
서비스업종사 천만명 넘어

전체 취업자수 1.4분기 중 8.1%의 증가세를 보인 이후 계속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서비스업종은 1.4분기 6.2%, 3.4분기 7.1%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 기간 중 총 취업자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인력의 서비스업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98년 발표된 「3.4분기 지역별 고용동향」의 따르면, 3.4분기 총 취업자수는 1천

全體 56% : 작년比 70만명증가 제조업 就業은 감소추세



또 지역별로는 울산(신발) 大邱(섬유) 仁川(전자부품) 등에서 특정산업의 침체로 평균 취업자수가 각각 9천명(△1.5%), 1만9천명(△4.1%), 4천명(△1.3%)씩이 줄었다.

이에 반해 大邱가 가장 높은 3.3%의 실업률을 기록했고 다음이 울산(3.1%), 서울과 大田(각 3.0%), 광주(2.7%), 仁川(2.5%) 순이었다. 6개 도시의 실업률의 전 기간 평균치를 모두 웃돌았다.

서울의 경우 취업자수가 4백76만9천명(↑0.1%)

9백6만8천명(↑0.1%)로 전년 동기보다 56만6천명이 늘었다. 2.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기간 중 취업자수 40만1천명(↑0.2%)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서비스업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는 농업의

統計廳 「3분기 고용동향」

서비스업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수의 절반을 넘긴 55.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3.4분기보다 5.1%(18만7천명)가 줄어든 3백47만5천명(↓0.1%)의 취업자수에 18.2%의 증가분을 보였다.

이 기간 중 취업자수의 4백97만8천명(전체의 26.1%)이었다.

이 중 제조업의 전년 동기 대비 3천명(0.1%)의 증가를 보였다.

이 기간 중 취업자수의 4백97만8천명(전체의 26.1%)이었다.

평균失業率 2.1%... 大邱 3.3%로 최고

이 밖에 仁川에서도 제조업 취업자수가 1.3%(4천명) 증가했고, 대전(사회간접자본)은 3만9천명(9.2%)이 늘었고, 광주(3만2천명, 10.2%), 大田(1만9천명, 6.3%) 등에서도 제조업 서비스업으로의 취업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 기간 중 취업자수의 6.4%가 서비스업으로의 취업이 눈에 띄게 늘었다.

한편 이 기간 중 여성 취업자수가 7백80만1천명(↑0.1%)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의 증가세를 보였다.

전년 동기 대비 20만2천명(4.4%) 증가했고, 이 중 평균 연령은 2만명(1.4%)이었던 취업자분류가 18만1천명(5.7%)이 늘었다.

또 울산은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수가 6만6천명(4.2%)의 증가를 보였다.

1백62만4천명(↑0.1%)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 기간 중 대전(사회간접자본)은 7만9천명(8.6%)이 증가했다.

大邱도 취업자수가 2만6천명(2.9%)의 증가를 보였는데, 전년 동기 대비 4천명(1만3천명)이 늘었다.

이 기간 중 취업자수가 4만명(7.3%)이 늘었다.

失業者 68.6% 大도시 집중

통계청 발표 3.4분기 雇傭동향

지난 3.4분기 중 실업자와 실업률은 40만 1천 명과 2.1%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만 5천 명과 0.1%포인트가 감소했으며 실업자의 68.6%가 서울하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및 신도시의 실업자가 크게 늘어난데 비해 대구가 3.3%포인트가량 높은 실업률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울산의 3.1%도 조사됐다.

또 서울과 대구의 3.0% 광주 2.7% 仁川 2.5%의 순이었다. 또 道別로는 慶南의 1.7%로 9개道지역 중 가장 낮은 실업률을 나타냈고 江原 忠南 全南이 0.8%로 가장 낮았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3.4분기 중 지역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에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는 1천 9백 46만 9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만 1천 명

(2.5%)이 증가했고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에 참가한 비율은 61.9%로 0.4%포인트가 늘었다.

취업자는 1천 9백 6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만 6천 명(2.7%)이 증가했다.

또 여성은 55세 이상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되므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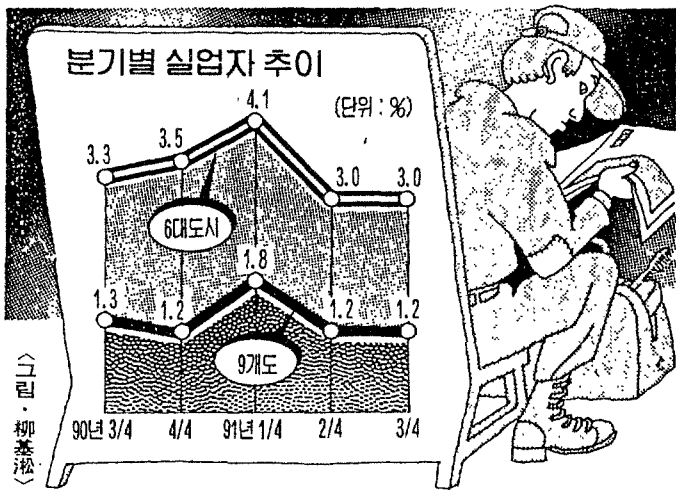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농업·어업이 3백 47만 5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만 7천 명(5.1%)이 줄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광공업은 4백 97만 8천 명으로 8천 명(0.2%)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취업한 인구는 모두 4백 9만 1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천 명의 늘었는데

특히 6대도시에서는 건설업에 11만 5천 명, 도 소매업에 10만 3천 명, 사회·개인서비스업에 16만 4천 명이 추가로 취업했고 9개道지역에서는 건설업에 11만 2천 명, 사회·개인서비스업에 15만 1천 명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3.4분기의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산업이 55.7%로 가장 높고 광공업(제조업 포함)이 26.1%, 농업·어업이 18.2%로 전년 동기 대비 2%포인트 증가했다.

이밖의 비경제활동인구는 모두 1천 1백 96만 2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지역별 경제활동인구동향(3.4분기) (단위: 천명)

지역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
전국	19,469	19,068	401	2.1
6대도	9,259	8,983	275	3.0
서울	4,916	4,769	147	3.0
부산	1,676	1,624	51	3.1
대구	945	914	31	3.3
인천	769	750	19	2.5
광주	481	468	13	2.7
대전	472	458	14	3.0
9개	10,212	10,086	126	1.2
경상	2,564	2,524	40	1.6
충청	726	720	6	0.8
전남	630	623	7	1.1
전북	907	900	7	0.8
경북	895	885	10	1.1
충북	1,205	1,195	10	0.8
충남	1,371	1,356	15	1.1
전남	1,669	1,641	28	1.7
전북	245	242	3	1.3

전국 40만명·작년보다 0.1% 감소 실업률 大邱 3.3·釜山 3.1%順

서울은 6대도시에서 2백 80만 4천 명으로 4천 명이 늘었고 9개道에서 2백 10만 6천 명으로 3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에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산업에 취업한 인구는 1천 61만 7천 명으로 70만 1천 명이 늘었는데 6대도시에서 취업자수는 6백만 8천 명, 9개道는 4백 60만 8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만 1천 명이 늘었다.

7만 8천 명(0.7%)이 늘었다.

한편 지난 3.4분기 중 서울·부산의 경제활동인구는 4백 91만 6천 명이며 이중 취업자수는 4백 76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만 2천 명이 줄었다.

실업자와 실업률은 14만 7천 명, 0%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만 8천 명, 0.9%포인트가 감소했다.

서비스産業의 異常팽창

社說

서비스産業의 계속 이창 팽창은 그 것이 일단 경제내부의 산업을 위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서비스産業의 팽창이 경제내부의 산업을 위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서비스産業의 팽창이 경제내부의 산업을 위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서비스産業의 팽창이 경제내부의 산업을 위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서비스産業의 팽창은 그 것이 일단 경제내부의 산업을 위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서비스産業의 팽창이 경제내부의 산업을 위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서비스産業의 팽창이 경제내부의 산업을 위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서비스産業의 팽창이 경제내부의 산업을 위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다. 산업내부의 팽창은 그 것이 일단 경제내부의 산업을 위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서비스産業의 팽창이 경제내부의 산업을 위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서비스産業의 팽창이 경제내부의 산업을 위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력과 국제경쟁력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實物經濟의 발전과 서비스産業의 팽창은 그 것이 일단 경제내부의 산업을 위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서비스産業의 팽창이 경제내부의 산업을 위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10% 육박한 物價, 내년이 더 걱정

계속 불어나는 국제수지적자금액을 지켜보노라면 그게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 설새없이 뛰는 물가동향에 접하면 그게 제일 큰 걱정거리로 여겨지는 등 밝은 구석은 좀처럼 찾기 힘든게 오늘의 우리 경제모습이다.

지난달말까지 9.5%가 오른것으로 집계 발표된 올해 소비자물가지수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건 아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으며 중요한 것은 물가가 이제 구조적인 오름세를 탔다는 점과 앞으로 다칠 더욱 불안한 동향에 대한 우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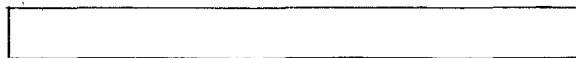
당국은 채소류와 수산물값이 지난달의 오름세를 주도했다고 설명하면서 12월중에는 김장용 채소류와 쌀 등의 출하증가로 농산물값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물가를 한자리수로 잡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9.5%는 이미 작년 한햇동안의 상승률 9.4%를 초과한 것이며 설령 연말까지 한자리수 억제목표를 지키게 된다고해도 2년연속 10%선에 육박하는 물가상승은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대변하기에 충분하다.

연말이면 으레 들먹이기 쉬운 음식값 등 각종 개인서비스요금을 얼마만큼 누를 수 있을 것이냐에 이달 물가가 좌우되겠지

만 그보다는 내년이 더 큰 걱정이다. 4대 선거로 어차피 엄청난 돈이 풀릴게 분명한데다 철도 우편 전기 학교공납금등 각종 공공요금인상이 새해 예산속에 이미 잡혀있다. 게다가 임금상승과 높은 금리 부담등 많은 코스트푸시요인을 안고있는 공산품이 언제 들먹일는지 모른다. 도매 물가가 11월말까지 2.4%상승에 머문것은 공산품값이 비교적 안정을 보여준 덕분이였다. 단지 국제기름값이 당분간 계속 안정세를 보일것같은 점이 유일한 위안이다.

무엇보다도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중요하다. 통화등 총수요관리가 중요한건 틀림없지만 한계가 있으며 팽배해있는 인플레이기대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먼저 정부가 솔선해서 절제하고 안정화시책에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의 그와같은 노력에 추가해서 기업 근로자 가계등 여타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기업은 원가절감, 근로자와 가계는 절제있는 소비생활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 요컨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는 자세가 경제난극복은 물론 물가불안을 더는 길이 될것이다.



10월 生産활동 호조... 內需는 진정

건설·設備투자 격감

통계청 제조업 가동률 82% 1월 이후 최고

지난 10월 중 국내 생산 활동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건설·설비 투자가 부진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설비 투자는 10월 중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1조 1천 500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10월 중 국내 건설 수주액과 설비투자액이 25.0%의 비전향 폭으로 증가

세를 보였는데 이는 공공 부분이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따라 13.6% 증가하고 민간비제조업도 재개발 및 주택·주택건설 등 51.9% 신장된 데 따른 것이다.

또 기계류에 대한 수요 증가로 발효율은 10월 중 4.0%가 감소, 유통여

행이나 공휴일 부분이 52.9%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0% 증가한데 10월까지 누적도 증가율이 작년 동기 40.6%에서 30.0%로 대폭 둔화됐다.

또 기계류에 대한 수요 증가로 발효율은 10월 중 4.0%가 감소, 유통여

지난 10월 중 국내 생산 활동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건설·설비 투자가 부진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4월 중점적인 발표인 「10월 중 산업조사」에 따르면 10월 중 국내 생산 활동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중 국내 생산 활동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중 국내 생산 활동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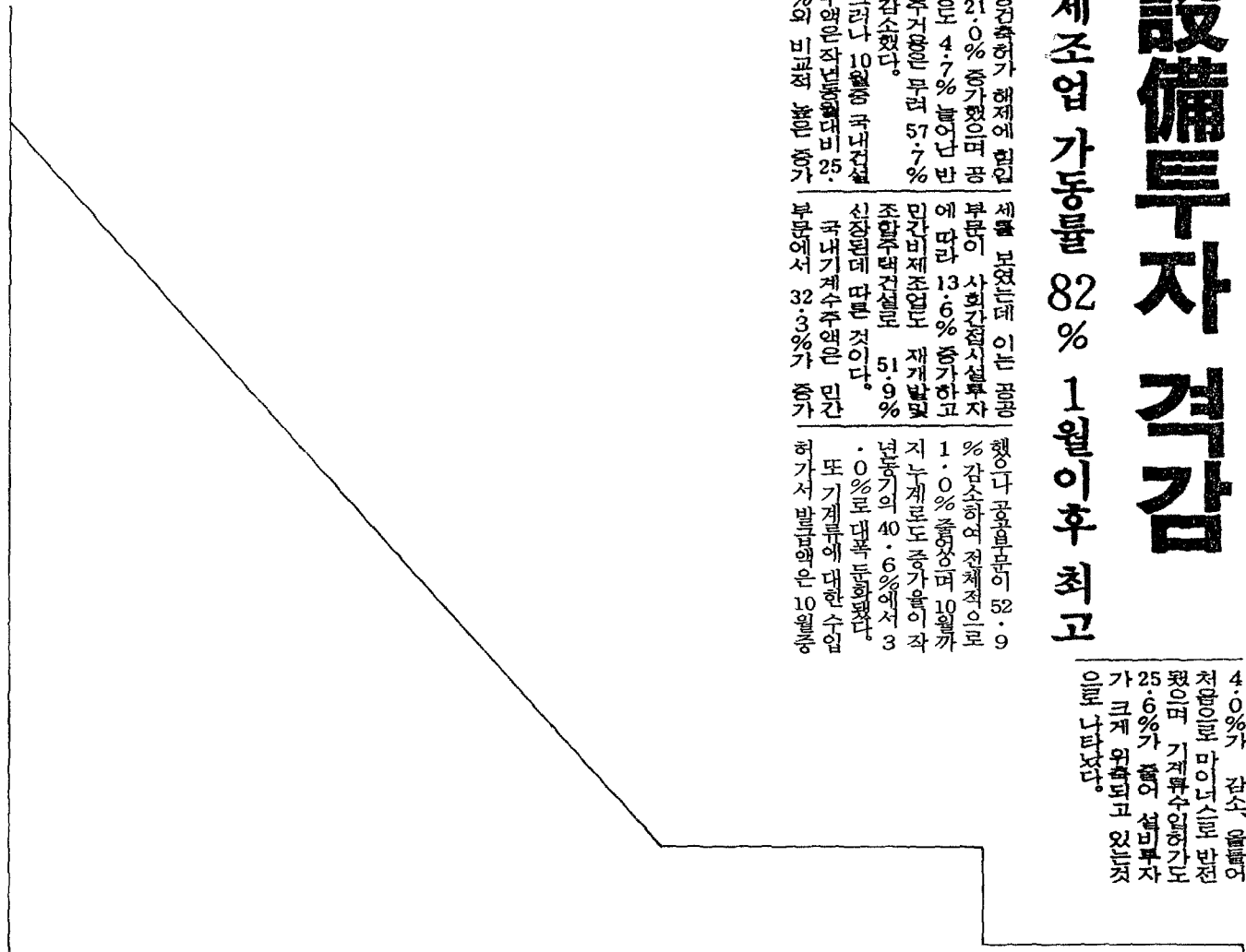
10월 중 국내 생산 활동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중 국내 생산 활동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중 국내 생산 활동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중 국내 생산 활동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중 국내 생산 활동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중 국내 생산 활동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중 국내 생산 활동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중 국내 생산 활동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중 국내 생산 활동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중 국내 생산 활동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중 국내 생산 활동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중 국내 생산 활동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중 국내 생산 활동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중 국내 생산 활동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중 국내 생산 활동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종교인구는 불교가 가장 많고 다음은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순이며 연령·학력·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역적으로 부산대구 경북 경남 등 영남에서는 불교가, 광주 전북 등 호남과 서울 인천에서는 개신교가 각각 다른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통계청이 전국 3만 2천 5백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상대로 조사한 '91 사회통계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불교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많고 여자가 포교나 선교의 주 대상이 될 분포가 되었다. 다만 다불종교와 성격이 다른 유교인구가 여자보다 남자, 시보다 군에 많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종교별로는 차이를 보지 않고 불교는 나이와 상관없이 15~19세(13.8%), 20~29세(13.7%), 30~39세(13.3%), 40~49세(13.0%), 50~59세(12.7%), 60세 이상(12.7%)의 비율이 높았다. 천주교는 학

연별 신자 분포는 개신교와 비슷했고, 비수행이 21.6%였다. 천주교도 서울 인천 광주의 신자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국적인 「東亞인구」와 비수행이 21.6%였다. 천주교도 서울 인천 광주의 신자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湖南·서울 개신교 강세 선교대상 「나이 많은 도시 여자」

嶺南신자 40%가 불교

통계청 「91 종교인구 조사」

부 불교(27.7%) (개신교 18.6%) 천주교(5.7%) 유교(4.8%) 원불교(4.0%) 천도교(3.8%) 기타(1.5%)



의 종교인구와 비율이 절반을 밑돈다. 47.1%였다. 또 여자보다 남자, 도시보다 시·읍·면이 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종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천주교는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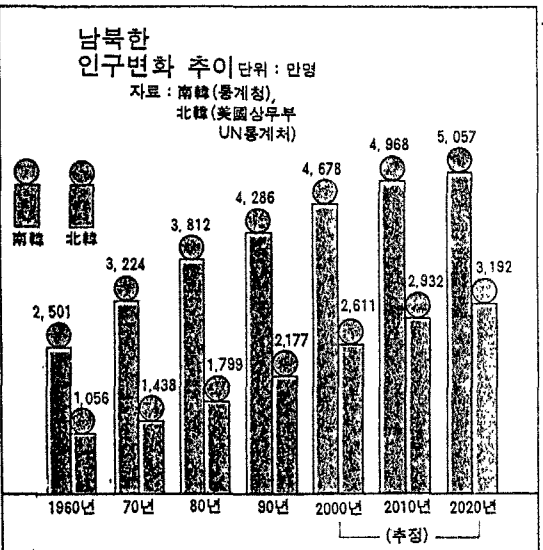
나이가 적을수록(15~19세 24.4%, 60세 이상 13.0%) 학력이 높을수록(대학이하 12.7%, 대학이상 26.0%) 신자 비율이 높았다. 천주교는 학

서울의 불교인구 비중이 21.6%였다. 천주교도 서울 인천 광주의 신자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국적인 「東亞인구」와 비수행이 21.6%였다. 천주교도 서울 인천 광주의 신자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南相均기자〉

우리의 절반...증가 열흘



北韓인구

南北韓人口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래프는 1960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남북한의 인구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이는 북한의 낮은 출산율과 높은 사망률, 그리고 남한의 높은 출산율과 낮은 사망률 때문입니다. 북한 인구는 1960년 1,056만 명에서 2020년 3,192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잔여말

남한 인구는 1960년 2,501만 명에서 2020년 5,057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높은 출산율과 낮은 사망률 덕분입니다. 남한 인구는 북한 인구의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남북한의 인구 격차를 더욱 벌여줍니다. 남한 인구는 1960년 2,501만 명에서 2020년 5,057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두백

「저녁」아리 雙천 雙백 雙천 雙百
「저녁」아리 雙천 雙百 雙천 雙百
의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총2천1백77만명 추정

영자가 남자보다 많아...日男對女 97.5%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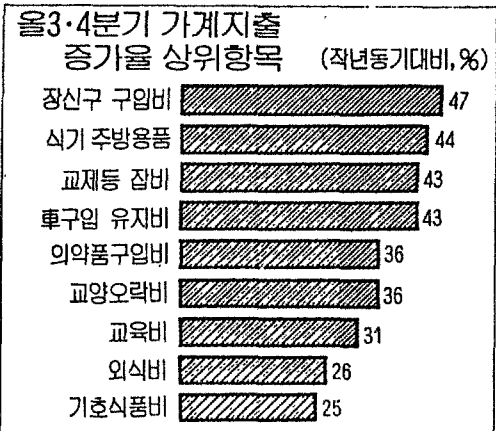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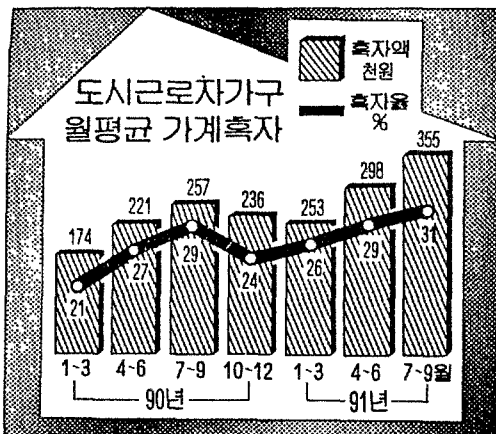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雙천 雙百

〈統計總局宣〉

소비高級化

최근 도시근로자가구의 지출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계속 밑돌아 가계 씀씀이가 점차 건실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 (올 3·4분기 월평균)

소	득	지	출
가구주근로	889,200	소비 지출	797,600
가구원근로	172,100	비소비지출	80,200
사업및부업	35,400	계	877,800
재산및이전	136,000	후자액	354,900
계	1,232,700	후자율	30.8%

註: 후자율 = $\frac{\text{후자액}}{\text{소득} - \text{비소비지출}} \times 100$

그러나 불가가 많이 올라 실업률 상승과 가용소득 증가가 10.6%포인트나 낮아졌다.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는 월평균 1백23만2천7백원으로 작년 동기(90년 1백14만8천원)보다 8% 증가했다.

이밖에 재산및이전소득이 11% 상승했고 부업소득이 3% 증가했다. 가계지출은 월평균 87만7천8백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 증가한 81만3천3백원을 초과한 것이다.

올 1·9월 월평균으로 보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은 1백23만2천7백원으로 작년 동기(90년 1백14만8천원)보다 8% 증가했다.

한달 百23만원 벌어들인 87만7천원 지출 主食費 줄고 엔겔계수 33%로 낮아져

이와따라 가계소득자구 증가율은 '나란'과 '전'의 대조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올 3·4분기(7·9월) 가계수지 총액의 14%가 비지출이었던 반면, 작년 동기(90년 1·3월)에는 16.6%에 불과했다.

가계수지 총액의 14%가 비지출이었던 반면, 작년 동기(90년 1·3월)에는 16.6%에 불과했다.

실질구매력지수로 13%가 늘었다. 지출증가율은 소득증가율보다 3.9%포인트, 실질구매력지수는 소득증가율보다 3.6%포인트 낮아진 셈이다.

이와따라 식료품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22.8%의 비중을 차지한 반면, 기호식품비(19.4%)의 비중이 주식비(14.6%)보다 2.8%포인트나 낮아졌다.

올 1·9월 월평균으로 보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은 1백23만2천7백원으로 작년 동기(90년 1백14만8천원)보다 8%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지출가용 소득의 비중이 30.8%로 낮아졌다.

올 1·9월 월평균으로 보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은 1백23만2천7백원으로 작년 동기(90년 1백14만8천원)보다 8% 증가했다.

車유지비·外食費 늘어난 3·4분기 도시家計

3·4분기 도시家計

근로자층이 "일뜩행진"

3·4분기 도시가계收支동향 분석

통계청이 발표한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은 過소비 자제 분위 기등으로 최근들어 근로자 가계의 쓸쓸이가 전반적으로 진전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소비증가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過소비가 완전히 진정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것이므로 분석된다.

지난 3·4분기 중 가구 당 월평균소득은 1백23만3천원으로, 여기서 세금을 非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은 1백15만3천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이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 가운데 소비지출은 30·8%인 35만5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처분소득 중 소비지출에 사용된 부분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31·4%로, 2·4분기 31·1%에서 3·4분기에는 69·1%로 높아져 지난 85년 이후 처음으로 70% 이하로 내려갔다.

이처럼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지고 가처분소득이 높아져진 것은 소비지출의

마이카붐영향 교통비 43% 늘어 기호·외식비 식료품費 절반 차지

특히 마이카붐의 편승, 개인소득비가 42·7%나 늘었고 VTR과 같은 엔터테인먼트의 소비가 35·9% 증가했다. 자녀교육비가 31·0%의 증가율을 보였다.

장신구 구입비(46·5%) 및 각종 회비와 교제비 등 잡비(42·8%)도 평균소비지출증가율을 크게 웃돌아 여전히 過소비 경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소비지출에 비해 가처분소득이 더욱 크게 늘어났지만 평균소비성향은 낮아졌지만 소비지출액은 계속 부푼으로 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마이카붐의 편승, 개인소득비가 42·7%나 늘었고 VTR과 같은 엔터테인먼트의 소비가 35·9% 증가했다. 자녀교육비가 31·0%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광역수도(1·4%) 피복·신발(20·4%) 및 가구·가사용품(22·2%)의 소비지출증가율은 2·4분기보다 크게 떨어져 평균 소비증가율을 밑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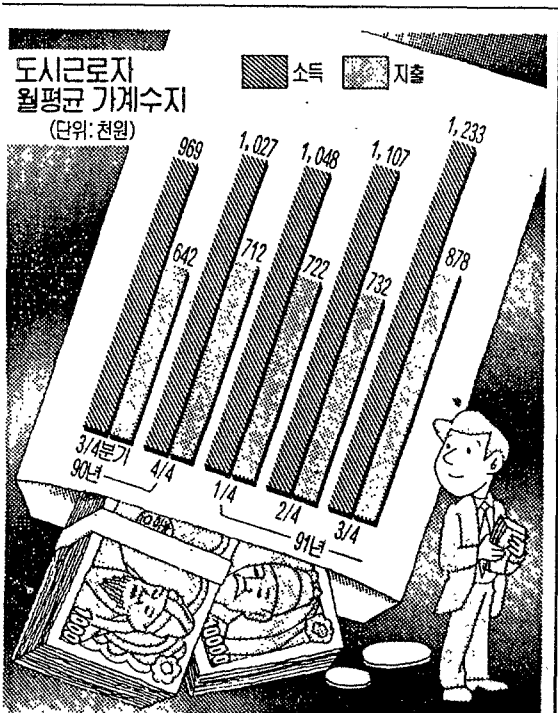
식품비는 17·4% 증가, 소비지출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엔겔계수는 지난해보다 1·9%포인트 낮아진 33·1%를 기록했다.

그러나 기호식품(25·2%)과 외식費(25·8%)의 지출비중이 식품비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소비의 고급화로 식생활패턴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鄭東植기자〉

도시家計 씬씬이 건전해졌다

月소득 123만원에 지출 87만원



〈그림: 朴春煥〉

통계청 3·4분기收支분석

과소비 자제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데 힘입어 최근들어 근로자家計의 씬씬이가 한결 건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월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지난 7~9월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33만 원, 지출은 133만 원으로

1백23만2천7백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6만9천2백원에 비해 27.9% 증가했다. 반면 지출은 87만7천8백원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13.3% 감소했다.

그러나 이 기간중 월평균 가계지출은 87만7천8백원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2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3·4분기중 근로자 가계수지의 흑자는 35만5천원으로 작년동기 대비 38.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이와 관련된 구상 「월간소비동향」은 2%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의 7.4%에 비해 2.2%포인트가 낮아졌고 합계소비선합도 61.3%로

車구입등 교통비도 34%증가 기호의식費늘어 소비 고급화

어나는데 그쳐 지출증가를 이 소득증가를 훨씬 앞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3·4분기중 근로자 가계수지의 흑자는 35만5천원으로 작년동기 대비 38.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의 △교통통신(34.1%) △교육교양 오락(32.5%) △의료(27.3%) △가구(22.2%) △피복신발(20.4%) 등의 순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한 지출증가율이 높았던 반면 △주거비(7%) △관광(1.4%) 등은 낮아진 증가율에 머물렀다.

월평균 소득중 근로소득은 1백6만1천3백원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25.5%가 증가한 반면, 기타 소득은 17만1천4백원으로 38.9%가 늘어났다.

또 근로소득 가운데 家口主의 소득은 88만9천2백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7%가 늘어났으며 家口員의 소득은 17만2천1백원으로 35.6%가 증가하

작년동기 대비 0.3%포인트가 감소했다면서 이는 최근들어 소비품목이 전반적으로 자제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여름철상품 및 가구합취업인원수의 증가에 따라 가구원의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

입금상승과 인력부족으로 인한 여성·노약자의 취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 3/4분기중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1백만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증가에 비해 소비지출은 상대적으로 별로 늘지 않아 3/4분기중 가계수지 흑자율이 역시 사상 처음으로 3.0%를 웃돌았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3/4분기중 도시근로자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소비지출은 소득증가액을 훨씬 밑돌았다.

3/4분기중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은 87만8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3%(물가상승을 감안하면 13.0%) 늘어났다.

이에 따라 소득 중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은 평균 1백15만3천원, 소비지출은 79만8천원으로, 소득에서 소비를 뺀 흑자액이 가구당 35

한편 전체적인 소비증가 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과 생활수준향상에 따라 소비의 고급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식료품비는 이 기간중 월평균 26만4천원이 지출돼 전년동기보다 17.4%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이에 따라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엔겔계수'도 1년전

소비 고급화 추세 뚜렷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백23만3천원으로 1년전에 비해 27.2%(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기준으로는 16.6%) 증가했다.

이것은 근로소득 부문에서 가장의 소득이 '88만9천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3.7%, 가구원이 17만2천원으로 35.6% 늘어났고, 사업 및 부업소득 3만5천원(44.1% 증가), 재산 및 이전소득 13만6천원 등 기타소득이 전년동기보다 38.9% 증가한 17만1천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만5천원에 달했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또 흑자비율도 지난해 3/4분기보다 2.2%포인트 높은 30.8%를 나타냈다.

통계청은 "3/4분기의 평균 소비성향이 1년전보다 2.2%포인트, 한계소비성향이 0.3%포인트씩 낮아진 것을 감안할 때 소비증가추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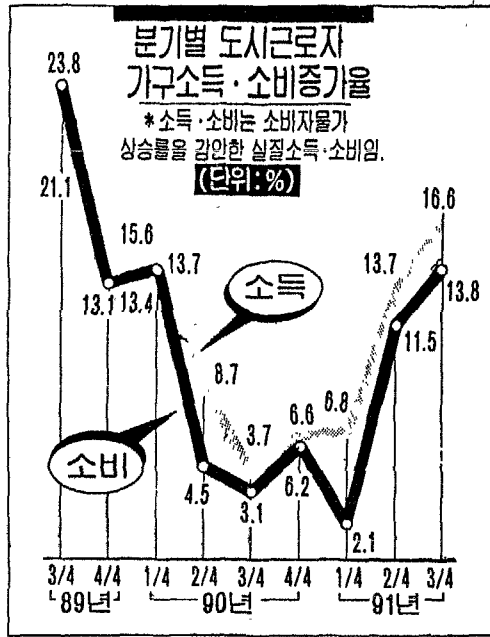
보다 1.9포인트 낮은 33.1을 나타냈다.

또 식료품비 중 주식비는 전년동기보다 4.0% 감소했고 부식비도 19.0%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기호식품비와 외식비는 각각 25.2%, 25.8%씩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각종 모임의 회비와 교제를 위한 잡비가 1년전보다 42.8%나 급증했으며, 자녀의

분기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소비증가율

* 소득·소비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소비임.
(단위: %)



엔겔계수 낮아지고 외식비·교제비 등 '썩충' 전체 소비증가율 점차 둔화 흑자율 높아져

보충교육비를 비롯한 교육비도 31% 늘어났다.

이밖에 교통·통신(34.1%), 교육·교양·오락(32.5%), 보건·의료(27.3%), 가구가 사용품(22.2%), 피부·신발(20.4%) 등이 높은 소비증가율을 보여 최근의 소비 고급화 추세를 반영했다.

그러나 집값이 안정되면서 주거비 지출은 7% 증가하는 데 그쳤고 광열·수도비도 1.4%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신현만 기자)

91.1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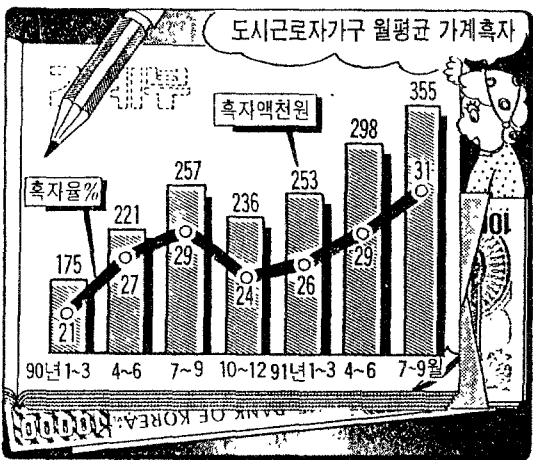
한국경제신문

도시勤勞者 月 123만원 벌어 87만원 지출

家計수지 알뜰

統計廳 3·4분기 동향 발표

黑字 35만원 38.1% 증가
소비는 계속 고급화 추세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지출증가율을 크게 웃돈다는 통계수치가 합쳐나오고 있다. 그러나 교제잡비·교육비·의식비 등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소비고급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통계청은 21일 「올 3·4분기 가계수지 동향 발표」에서 지난 7·9월중 도시근로자가구 구성원들의 월평균 소득은 1백23만2천7백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6만9천2백원에 비해 27.2%(소비자물가상승률 6%나 늘었다고 밝혔다. 반면 이 기간중 가계지출은 87만7천8백원으로 작년동기대비 23.3%씩

증가율 13%가 증가소 득증가율이 소비증가율을 훨씬 앞섰다. 이어 따라 3·4분기중 가계수지 흑자는 35만5천원으로 지난해 3·4분기 보다 38.1% 증가했다. 또 월평균 소득중 근로소득은 1백6만1천3백원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25.5% 증가한 반면 기타소득은 17만1천4백원으로 38.9%나 늘었다. 근로소득중 家口主의 소득은 88만9천2백원으로 작년동기보다 23.7% 늘었고 家口員의 소득은 17만2천1백원으로 35.6% 증가한데 비해 기타구당 취업자수의 증가에 따라 가구원의 소득증가율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가계지출면에서는 소비지출이 79만7천6백원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24.2% 늘었고 사회보장분담금 등 非소비지출은 8만2백원으로 15% 증가했다. 소비지출 가운데는 스포츠를 위한 소비비(3만4천9백원)가 42.8% 증가했고 스포츠와 교육비(1만5천1백원)가 31%(△의소비) 1만2천3백원(△의소비) 25.8% 등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 식료품비는 월평균 26만4천원으로 작년동기보다 17.4% 증가했으나 소비지출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액셀자수는 33.1을 기록, 작년동기와 견줘 1.9포인트가 낮아졌다.

경제력 향상 〇〇〇〇〇〇 사람보다 싼비

작년 광공업실태 인력 2.7% 줄고 資産 25% 늘어

수형업체 생산 더 활발

중화학비중 높아져 산업高度化 뚜렷

업체수 京畿가 서울 앞질러

우리나라 광공업업체의 총 인구는 90년 1월 1일 현재 2만 7천 9백 5십 6개 업체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 1만 7천 7백 6십 8개 업체가 수형업체로, 전체의 63.4%에 해당한다. 수형업체는 90년 1월 1일 현재 1만 7천 7백 6십 8개 업체로, 전체의 63.4%에 해당한다. 수형업체는 90년 1월 1일 현재 1만 7천 7백 6십 8개 업체로, 전체의 63.4%에 해당한다.

수형업체의 총 인력은 90년 1월 1일 현재 1,124,567명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하였다. 반면, 수형업체의 총 자산은 90년 1월 1일 현재 1,124,5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다.

수형업체의 총 매출액은 90년 1월 1일 현재 1,124,5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다. 수형업체의 총 이익액은 90년 1월 1일 현재 1,124,5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다.

수형업체의 총 인력은 90년 1월 1일 현재 1,124,567명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하였다. 반면, 수형업체의 총 자산은 90년 1월 1일 현재 1,124,5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다.

수형업체의 총 매출액은 90년 1월 1일 현재 1,124,5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다. 수형업체의 총 이익액은 90년 1월 1일 현재 1,124,5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다.

1 조국의 영웅 종사자

90년 白書 7萬업체 308萬명 종사

기계화·자동화·기계화·인력 단축·메카트로닉스

重化學주도 平均出荷증가

국내의 광공업종사자가 지난 89년부터 줄기 시작. 이같은 감소세가 작년에는 더 확대됐으며 업체들은 대규모설비투자도 신규노동인력 감소에 대처하고 있다.

또 광공업의 면용률도 1989년 69.9%에서 90년 69.7%로 0.2%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88년(3백만 8천명)보다 4% 줄어든 수급업체의 생산능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두드러진 광공업체의 57.3%가 서울(仁川京畿道)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이 큰 이유이다.

이같은 사실은 통계청이 발표한 광공업의 생산설비 7만 4천 68개를 대상으로 종사자 308만 명을 발표한 「89년 광업·제조업·서비스업」 보고서에 실려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국 광공업 5인 이상 광공업체수는 증가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작년 총 4.4%가 늘어난 7만 4천 69개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인 지난 80년(3만 2천 5백 60개)과 비교할 때 1.16% 늘어난 것이다.

한편 광공업종사자는 지난 89년 이후 해마다 늘어나다. 지난 88년 1.3% 감소한 데 이어 작년엔 2.7%가 줄어 3백 8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지난 88년(3백 20만 8천명)보다 4% 줄어든 수급업체의 생산능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두드러진 광공업체의 57.3%가 서울(仁川京畿道)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이 큰 이유이다.

이처럼 업체당 종사자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당 평균출하액은 작년 총 13.6%가 늘어 24억 8천 4백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88년(10억 9천 8백만원)보다 1.26% 늘어난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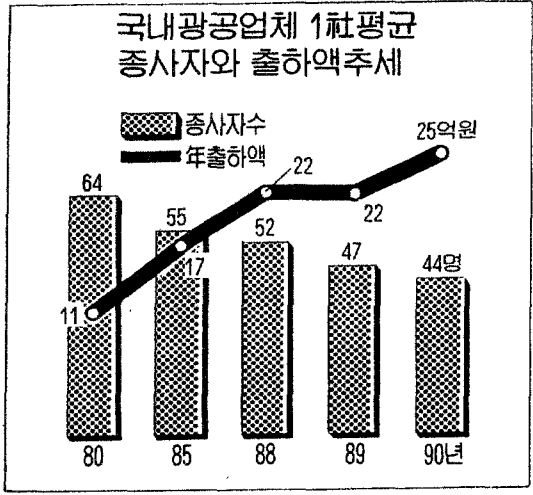
통계청 관계자는 사실은 국내 광공업체들의 설비투자 확대로 노동력 감소를 대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설비투자의 주요 지표인 유형고정자산이 △88년 22.4% △89년 25.4% 늘어난 데 이어 작년에도 25.2%가 증가, 작년말 현재 총 75조 3천 5백억원에 이르렀다.

한편 작년 총출하액전세를 기점으로 보면 1980년 1백만 사업장이 평균 24.6%로 그 이상인 사업장(평균 16.7% 증가)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한 생산활동을 보였다.

한편 중화학공업의 작년 총출하액가치가 22%로 정점(12.8%)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전체 제조업 가운데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작년엔 66.8%로 지난 80년(62.7%)보다 4.1%포인트 높아졌다. 국내 광공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15개 시도 중京畿道가 전체사업체의 26% 출하액의 24.9% 종사자의 24%를 차지해 광공업이 가장 밀집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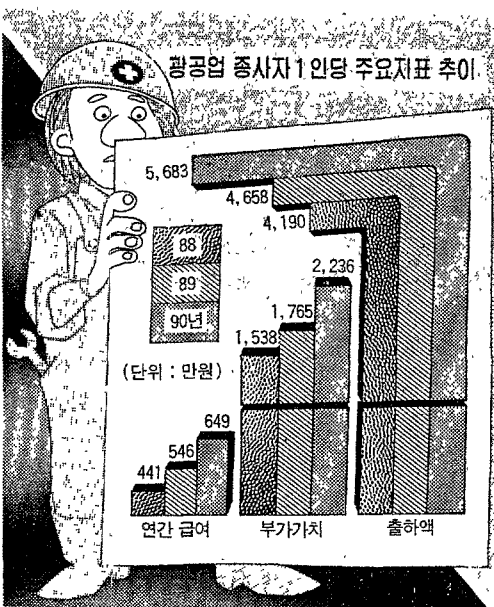
한편 작년 총출하액전세를 기점으로 보면 1980년 1백만 사업장이 평균 24.6%로 그 이상인 사업장(평균 16.7% 증가)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한 생산활동을 보였다.



鑛工業부가가치 높아졌다

통계청 90년 기준 業體조사

89년과 90년 기준의 鑛工業부가가치 5,6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7% 증가했다. 이는 90년 기준 1인당 부가가치 1,765원(89년 1,538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鑛工業부가가치는 89년 4,658억 원, 90년 5,6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8% 증가했다. 이는 90년 기준 1인당 부가가치 1,765원(89년 1,538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鑛工業부가가치는 89년 4,658억 원, 90년 5,6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8% 증가했다. 이는 90년 기준 1인당 부가가치 1,765원(89년 1,538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그림 : 鑛工業부가가치>

89년 기준 1인당 부가가치 1,538원, 90년 기준 1,765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이는 90년 기준 1인당 부가가치 1,765원(89년 1,538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鑛工業부가가치는 89년 4,658억 원, 90년 5,6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8% 증가했다. 이는 90년 기준 1인당 부가가치 1,765원(89년 1,538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京畿·서울·釜山지역에 60% 몰려

89년 기준 1인당 부가가치 1,538원, 90년 기준 1,765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이는 90년 기준 1인당 부가가치 1,765원(89년 1,538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鑛工業부가가치는 89년 4,658억 원, 90년 5,6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8% 증가했다. 이는 90년 기준 1인당 부가가치 1,765원(89년 1,538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89년 기준 1인당 부가가치 1,538원, 90년 기준 1,765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이는 90년 기준 1인당 부가가치 1,765원(89년 1,538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鑛工業부가가치는 89년 4,658억 원, 90년 5,6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8% 증가했다. 이는 90년 기준 1인당 부가가치 1,765원(89년 1,538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 광공업 주요지표

구분	단위	89	90	증감률 (%)	
				89/90	90/90
생산액	억 원	67,484	70,469	3.3	4.4
가공업	억 원	3,167	3,080	-2.8	-2.8
제조업	억 원	149,759	137,049	-8.3	-8.3
수출액	억 원	147,556	175,870	18.5	18.5
수입액	억 원	55,302	68,870	23.4	23.4
부가가치	억 원	4,658	5,683	21.8	21.8
1인당 부가가치	만 원	1,538	1,765	14.8	14.8

89년 기준 1인당 부가가치 1,538원, 90년 기준 1,765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이는 90년 기준 1인당 부가가치 1,765원(89년 1,538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鑛工業부가가치는 89년 4,658억 원, 90년 5,6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8% 증가했다. 이는 90년 기준 1인당 부가가치 1,765원(89년 1,538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89년 기준 1인당 부가가치 1,538원, 90년 기준 1,765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이는 90년 기준 1인당 부가가치 1,765원(89년 1,538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鑛工業부가가치는 89년 4,658억 원, 90년 5,6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8% 증가했다. 이는 90년 기준 1인당 부가가치 1,765원(89년 1,538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광공업 大都市편중 완화

통계청조사 서울所在업체수 3.8% 감소

중소·중화학비중 매년 늘어 설비自動化로 중공업원 감소 작년 7만469개社서 175兆 매출

산업체의 수도점 및 내도
시 평등현상이 점차 완화
되고있으며 전체 躰業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져
가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90년 광공업 통계조사」결과
에 따르면 89년에 비해 90
년에는 제조업체들의 매출
이 큰폭으로 신장세를 보
인 가운데 △산업체 지방
분산△중소기업비중 증가
△중화학공업 비중 제고△
소규모업체 활황△중공업
감소 및 설비투자증가 등의
현상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 연말 현재
1만7천5백24개의 광공
업체가 몰려있는 서울지역
은 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사업체수가 3.8% 감소를
기록, 광공업체 점유율이
27%에서 24.9%로 줄어
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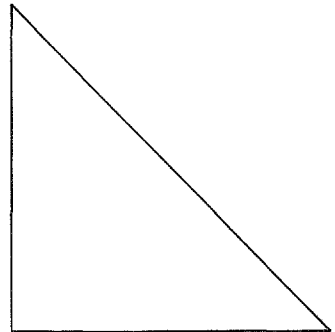
전체 광공업 매출액 중
업원 3백명 미만의 중소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85년 35.4%에서 87년 38.
1%, 89년 42.4%에 이
어 90년엔 43%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사업체수
비율도 89년 98.1%에서
98.3%로 확대됐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이전
기업과 중소기업육성을 위
해 적극적인 세제·금융지
원책을 펴는 것에 비해서
는 증가폭이 미흡한 것이
로 평가되고 있다.

90년 광공업 통계조사에
서만 이와 함께 노동규제 등
으로 기업체들이 중공업
신규투입보다는 설비자동
화에 치중, 광공업체 종사
자수는 지난 88년 3백20
만8천명을 고비로 줄어들
기 시작해 △89년 3백16
만7천명△90년 3백8만
명으로 89년부터 2.7%
감소한 반면 유형고정자산
액은 60조1천8백30억원
에서 75조3천4백90억원
으로 25.2%나 늘어난 것
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연말 현재 우
리나라의 광공업체는 모두
7만4백69개로 지난 한해
동안 1백75조4백90억원
의 매출을 기록, 업체수는
4.4%가 늘어난데 비해
출하액은 18.7%가 늘어
나 활동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창출한
부가가치는 68조8천7백
억원으로 23.2%가 늘어
나았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24.
7%증가) 석유화학(20.9
%) 나부·가구(22.3%)
1차금속(17.7%) 비철금
(19.5%) 등의 매출증가가
두드러졌고 섬유(11.9%)
3%) 음식·담배(11.9%)
는 부진한 현상을 보여 중
화학업종의 비중이 65.1
%에서 66.8%로 늘어났
다. 석탄광업과 금속광업
은 매출액이 각각 8.7%
와 8.5%의 감소세를 기
록했다. △鄭萬昊기자



<국내 광공업현황>

단위	89년	90년	증감률(%)		
			89년	90년	
사업체수	개	67,484	70,469	9.3	4.4
종사자수	천명	3,167	3,080	-1.3	-2.7
생산액	10억원	149,759	177,137	10.4	18.3
출하액	"	147,532	175,049	9.8	18.7
부가가치	"	55,902	68,870	13.3	23.2
유형고정자산	"	60,183	75,349	25.4	25.2

올 개인서비스料 18.3% 상승

전체物價선도 농수축산물·집세·공공料金順

기획원조사

올 9월의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은 12.4%에서 11.8%로 낮아졌다. 특히 서비스料의 상승률이 둔화된 반면 개인서비스料의 상승률은 18.3%나 상승했다. 전체 물가 상승률은 18.3%로 올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서비스料의 상승률은 인건비, 유통비용, 임대료 등이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인건비 상승률이 15.6%에서 18.3%로 올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반면 개인서비스料의 상승률은 18.3%로 올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농수축산물은 인건비, 유통비용, 임대료 등이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인건비 상승률이 15.6%에서 18.3%로 올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반면 개인서비스料의 상승률은 18.3%로 올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집세는 전월 대비 4.2% 상승했다. 특히 서울 집세가 4.2% 상승했으며, 부산은 3.5%, 대구는 3.8%, 광주와 대전은 4.0% 상승했다. 반면 지방 집세는 3.5% 상승했다.

공공料金은 전월 대비 3.1% 상승했다. 특히 전기料, 수도料, 도시가스料 등이 상승했으며, 특히 전기料 상승률이 3.1%로 올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지역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서울이 10.8%, 부산이 10.5%, 대구가 10.1%, 광주가 10.1%, 대전이 10.1%로 올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올 9월의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은 12.4%에서 11.8%로 낮아졌다. 특히 서비스料의 상승률이 둔화된 반면 개인서비스料의 상승률은 18.3%나 상승했다. 전체 물가 상승률은 18.3%로 올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서비스料의 상승률은 인건비, 유통비용, 임대료 등이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인건비 상승률이 15.6%에서 18.3%로 올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반면 개인서비스料의 상승률은 18.3%로 올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농수축산물은 인건비, 유통비용, 임대료 등이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인건비 상승률이 15.6%에서 18.3%로 올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반면 개인서비스料의 상승률은 18.3%로 올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집세는 전월 대비 4.2% 상승했다. 특히 서울 집세가 4.2% 상승했으며, 부산은 3.5%, 대구는 3.8%, 광주와 대전은 4.0% 상승했다. 반면 지방 집세는 3.5% 상승했다.

공공料金은 전월 대비 3.1% 상승했다. 특히 전기料, 수도料, 도시가스料 등이 상승했으며, 특히 전기料 상승률이 3.1%로 올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지역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서울이 10.8%, 부산이 10.5%, 대구가 10.1%, 광주가 10.1%, 대전이 10.1%로 올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여 백

1992 년 보 도 기 사

여 백

1/4분기 보도기사

(1월~3월)

여 백

인구증가율 감소... 경제 안정양

7차계획 「인구요인과 경제」 전망

60년대 이후 경제성장
은 인구요인(要因)과 무
관치 않다. 당시 인구성
장률이 연 1% 이하로 급
격히 둔화되면서 생산성
과 수출분배가 개선됐던
것이다. 또한 노동력의
질적면화를 불고와 생산
성을 높인 것도 인구감소
가 가져다준 「선물」이었
다. 그렇다면 7차계획의 지
변한 7차 5개년계획기
간(92~96년) 동안 인구
요인의 유리점제에 어
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최근 연세대 경제학과
최성烈교수는 이 물음에
대해 관심을 끄는 인구
증가율을 내 놓았다. 통계청
의 인구변동자료에 근거

한 이들을 향후 경제를
「어둡다」고 전망했다.
앞선 인출면에서 인구증
가율의 감소추세가 더이
상 유리점제에 불리요
인으로만 작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령·고학력 추세 산업인력難
15~19세 年 평균 1.8% 줄어

7차계획기 가용 인구
증가율은 수치상 0.89%
·9.6%에서 0.89%
로 지속적으로 떨어진다.
그리나 경제에 더욱 영
향을 끼치는 인구내부구
조가 질적변화를 맞게 된
다. 노령화·고학력화·노

시 화학가축화 등 4가지
특징이 그것이다. 이는
예년에 유례없이 유리점
제에 부담을 주는 추
세로 진행될 가용성의
높다.

비부담을 받게 된다.
인구의 도시화율도 78.
3%로 상승한다. 게다
가 「베이비붐」세대(54~
60년출생자)인 30대중
반인구가 도시로 집중하
면서 핵가족단위화 형성
한다. 개개 가족규모는

력화 측면을 살펴봤다. 출
생률의 저하로 아동인구
는 계속 감소된다. 대신
15~64세 인구중 고졸화
력이상자가 57.5%에서
62.8%로 늘어 두꺼워
진다. 특히 대학인구는
이중 20%를 차지할 것이
로 보고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지적
했다. 우선 7차계획기간
중 노령인구증가율은
6차계획기간에 비해 0.
5포인트점증 떨어져 2.
0%선에 머물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60년대 이후
낮은 출산률(15~35
세사이의 인구가 줄어들
고 있기 때문)이란 것
이다. 특히 노령층을 막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인
청소년인구(15~19세가
연평균 1.8%포인트씩 감
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산업현장에
인력난이 발생할 수지가
많다. 더욱이 인구의 고

화력화는 인력난에 상승
추대로 작용할 공산이 크
다. 농업·광공업·건설업
부문에서 제일 먼저 어
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
된다. 최교수는 분석했
다. 최교수는 노령화문제
와 관련하여 65세 이상의 노
령인구가 5.0%에서
5.7%로 늘어났다. 인
구구조변화는 사회보장
수요를 대폭 증가시킨
다. 「며」이 기간 중 노인
부양비는 전체복지예산
의 8.0%를 차지하게
된다. < 權普植 기자 >

출산율 1.6명... 하루 177명

상해가 많을수록 시벌처
출생률이 낮다. 대도시의
이러한 출생률의 감소는
도시의 인구를 감소시키
고 있다. 출생률이 낮아
고령화 사회가 된다.

출생률의 감소는 국가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국가에 대한 부담이 커
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생률을 높이
는 정책이 필요하다. 출
생률의 증가는 국가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생률을 높이
는 정책이 필요하다. 출
생률의 증가는 국가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출생률 지표

출생률 1.6명... 하루
177명. 출생률이 낮아
고령화 사회가 된다.



출생률 1.6명... 하루
177명. 출생률이 낮아
고령화 사회가 된다.

출생률 1.6명... 하루
177명. 출생률이 낮아
고령화 사회가 된다.

출생률의 감소는 국가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국가에 대한 부담이 커
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생률을 높이
는 정책이 필요하다. 출
생률의 증가는 국가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출생률의 감소는 국가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국가에 대한 부담이 커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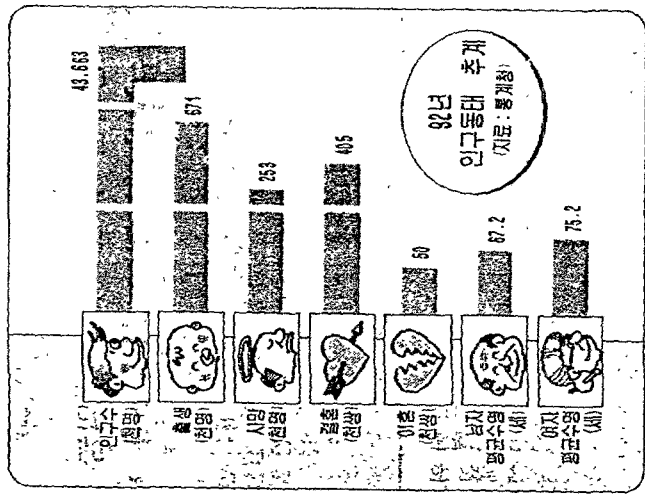
출생률의 감소는 국가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국가에 대한 부담이 커
진다.

20세기 상유권

키오

키오의 인구는 1980년 12월 31일 기준 4,000만 명으로 나타났다.

키오의 인구는 1980년 12월 31일 기준 4,000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5년 12월 31일 기준 3,800만 명에 비해 200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키오의 인구는 1980년 12월 31일 기준 4,000만 명으로 나타났다.



키오의 인구는 1980년 12월 31일 기준 4,000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5년 12월 31일 기준 3,800만 명에 비해 200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키오의 인구는 1980년 12월 31일 기준 4,000만 명으로 나타났다.

키오의 인구는 1980년 12월 31일 기준 4,000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5년 12월 31일 기준 3,800만 명에 비해 200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키오의 인구는 1980년 12월 31일 기준 4,000만 명으로 나타났다.

키오의 인구는 1980년 12월 31일 기준 4,000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5년 12월 31일 기준 3,800만 명에 비해 200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키오의 인구는 1980년 12월 31일 기준 4,000만 명으로 나타났다.

키오의 인구는 1980년 12월 31일 기준 4,000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5년 12월 31일 기준 3,800만 명에 비해 200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키오의 인구는 1980년 12월 31일 기준 4,000만 명으로 나타났다.

<출처: 통계청>

총인구 2억 8,000만 명 추산

산업경기 호조勢

작년11월 현재 경기선행지수도 7개월째 상승

전반적인 경기후퇴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까지 국내산업경기는 아직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산업활동지수」에서 지난해 11월의 국내산업생산과 출하가 전년동월대비 각각 8.5% 및 12.1%씩 증가했으며, 제조업가동률도 80.3%로 10월의 82.1%

보다는 약간 낮아졌다. 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도산매판매 및 내수용소비재출하는 전년동월대비 8.7% 및 11.7%씩 높아졌고, 실업률도 2.2%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경기동향지수는 10월보다 0.9%가 증가했으며,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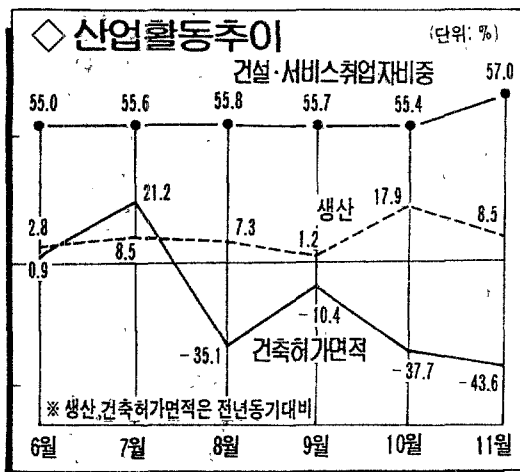
개월후의 경기를 예고해주는 경기선행지수도 0.5%가 증가,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건설경기진정대책등의 영향으로 건설투자 및 기계설비투자 등 투자는 큰폭의 감소 내지 증가세 둔화 조짐을 보였는데, 특히 민간건설조주는 전년동월대비 41.9% 진폭하가

면적은 43.6%가 각각 감소했다. 기계류수입허가도 58.3%가 줄었으며, 국내 기계수주는 2.2% 증가에 그쳤다. 제조업의 인력이 탈도 제조업에서 1만1천명 등 전체광공업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6천명이 감소한 반면 서비스 등 3차산업의 취업자는 75만4천명이 늘었다.

文炳學통계청을 제조사국장인 「황후수출」은 다소 증가될 전망이나 내수증가세 둔화 추세,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감소 등에 따라 전반적인 경기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비스관련 취업자 史上 최대



千78萬 : 1년새 75만 늘어

전설경기·기계류輸入 진정추세

통계청, 11월중 산업활동추이향

건설및서비스업계로인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11월중 현재 이들업종
취업자가 사상 최대규모
인 1천78만명을 기록했
다.

반면 제조업체 취업자수
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
해 감소세를 나타내 근로자
들의 생산현장 이탈현상이
있다.

건설및서비스업계로인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11월중 현재 이들업종
취업자가 사상 최대규모
인 1천78만명을 기록했
다.

반면 제조업체 취업자수
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
해 감소세를 나타내 근로자
들의 생산현장 이탈현상이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5만 4천명, 2.4%
포인트가 각각 증가한 것으
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부문의 취업자수는 건설
1백65만명, 서비스 2백
84만명, 도소매 4백17만
명이다.

반면 제조업체 취업자수
는 11월말 현재 4백94만 8
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6
%에 그쳤는데 이는 90
년 11월에 비해 1만 1천명
0.9%포인트가 각각 감
소한 것이다.

한편 국내경기는 수출부
진에도 불구하고, 도소매판매
증가(8.7%) 등 내수부분
에선 호조를 보이고 있으
나 건설경기가 뚜렷한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데다 경
상적자폭 확대의 주요인인
기계류 수입도 줄어들어 처음
으로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경기둔화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11월중 국내건설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17.0%가
줄어들었으며, 건축허가면
적도 주거용을 중심으로 43
%가 줄어들어 연 4개
월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또 기계류 수입허가는 무
려 58.3%가 줄어들어 1
1월중 무역증가율이 전
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
%를 기록, 줄어들어 처음
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노동 농산물 복지 환경등

地域別 통계 획정

市郡區로 세분화 작성

통계청 7차 5개년 계획 東歐圈자료도 늘리기로

정부는 제7차 5개년 계획기간(92~96년)에 지방회사의 매출액이 인구 도시가계 노동 농산물 복지 환경에 관한 통계를 市郡區로 市道별로 작성한 다음 시도의 통계를 더욱 확충키로 했다.

또 노인생활 실태조사 등 사회복지 관련 통계를 적극 개발하고 환경관련 통계의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련 통계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통계청은 11일 오후 9시 96년도의 시행을 이끈 내용의 「7차 5개년 계획기간 각종 통계부문 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안의 따르면 인구 추계의 경우 주민등록전 산화 체계가 갖추어짐에 따라 그동안 市道로 조사해 온 산출인구 조사를 내년부터 중단하는 대신, 오는 95년부터 행정기관에 신고된 주민등록 및 출생·사망 등의 내용을 토대로 시·도·구·별로

지역통계 확충案 주요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환경 보건의료를 비롯한 사회복지통계에 국민생활의 진흥을 촉진할 수 있는 통계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 지방회사의 매출액 등 각종 생산·판매액, 무역업, 기업별 통계개발을 추진하고 기업별 통계개발을 추진하고 기업별 통계에서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통계별 개발을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서의 이용 가치를 높여야 하겠다.

이 밖에 환경관련 통계 부문의 확충에 주안점을 두며, 「생활복지」 부문에 새로운 분야에 대한 복지 지표

노인·보육·아동 5년마다 조사 사망원인조사 10년주기 실시 대기·수질등 국민환경지표도

통계청은 11일 오후 9시 96년도의 시행을 이끈 내용의 「7차 5개년 계획기간 각종 통계부문 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안의 따르면 인구 추계의 경우 주민등록전 산화 체계가 갖추어짐에 따라 그동안 市道로 조사해 온 산출인구 조사를 내년부터 중단하는 대신, 오는 95년부터 행정기관에 신고된 주민등록 및 출생·사망 등의 내용을 토대로 시·도·구·별로

인구를 통계자료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전체인구로 작성되고 있는 「도시가계조사」를 93년부터 표본을 15개 시도별로 분계 자료를 작성하며, 「노인생활」 시도를 94년부터 시도별로 세부항목의 지역자료를 발표키로 했다.

정지연과 박 보민 등 주요자료의 생산·합계 파악 「7차 5개년 계획」에 따라 「노인생활」 시도를 94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해 노인복지정책수립의 확충하고 「노동대상아동실태조사」 및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등을 새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東亞간 화해분위기를 확산에 따라 東歐통계자료를 확대, 蘇聯, 中國 등 국가자료의 東歐圈자료를 확대작성키로 했다.

정부통계분야별 체계화

정부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년계획 기간 중 산업및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급속한 변화상태를 정확히 측정,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현재 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환경·교통·보건위생·사회복지과학기술·정보화산업 분야에 관한 각종 통계를 새로 개발하거나 크게 개선키로 했다.

또 지방화시대 전개에 따라 앞으로 지역계획및 정책수립에 기초가 되는 지역별 통계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전국단위의 통계 이외의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별 기초통계를 개발, 보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보화·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통계정보시스템·확장·자료제공방법개선, 해외 통계·국제협력 등을 통해 각종 통계를 많은 사람이 쉽게 이용할

통계청, 7차 5년 계획발표

수 있도록 통계서비스를 대폭 보 완키로 했다.

통계청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통계부문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 의료부문에서는 암환자·마약중독자 실태조사와 사망원인 실태조사, 국민보건의료비실태조사 등을 새로 개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부문에서는 과학인

력으로 이루어진 시·도 단위와 광역시·도 단위 시·군 단위로 확대하고 광공업·건설업·운수업 등 각종 업종별 통계도 95년까지는 시·군·구를 단위로 작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9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인구의 5.8%인 2백64만 3천명, 60세 이

환경·보건위생·사회복지 등 새로 지역별 기초자료개발·보급 함께

통계청은 내실있는 국가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환경부문에 서는 현재 정부 각 부처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환경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환경통계정보체계를 95년까지 구축하고 환경통계의 기초가 되는 상수도 오염원, 오염부하량조사와 폐기물 재활용조사 등을 실시키로 했다.

환경·보건·교통·주인들을 전산 화 체계가 갖추어짐에 따라 그동안 안·도·가 조사해온 상수인부 조사를 내년부터 중단하는 대신 95년부터는 주민등록 및 출생·사망 등 인구통계 신고자료를 토대로 시·군·구·별도 인구를 체계하

한느 경제자료를 植行면적 및 생산량조사도 현재의 시·도 단위와 작 세계에서 95년부터는 시·군 단 위까지 확대하고 광공업·건설업·운수업 등 각종 업종별 통계도 95년까지는 시·군·구를 단위로 작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9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인구의 5.8%인 2백64만 3천명, 60세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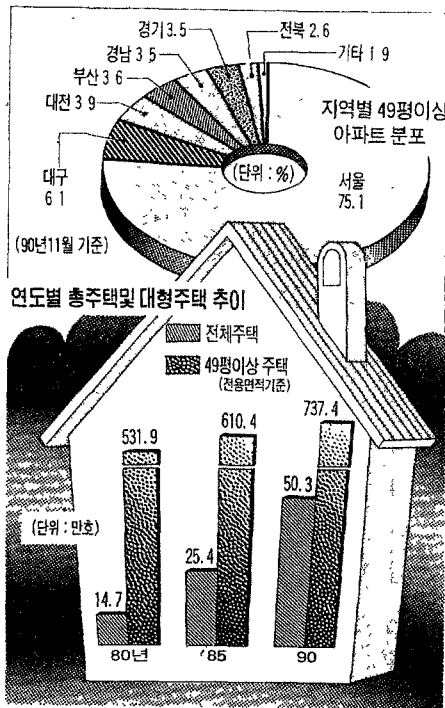
상은 9.6%에 달한다는 등 노령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94년부터 5년째기도 노인실태에 관한 통계 개발, 노인복지정책의 장·단기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장애인 실태조사」를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며 「보육대상아동 실태조사」 및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등을 새로 개발키로 했다.

통계청은 이밖에 조사통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산업생산지수 등 각종 경제지수들의 작성방법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특히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조사대상품목 조정·가중치구조개편 등을 통해 현실반영도를 크게 높일 계획 이다. 해외통계도 강화, 東歐권 통계자료도 민들 예정이다.

한편 통계청은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기간 중 통계작성심층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통계지정기관에서 제외하고 통계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일정 수준 확보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표협의를 면제해주는 등 통계작성기관 및 공표대상통계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 <盧應根기자>

專用 49坪 이상 全國에 50萬채

주택大型化 추세



<그림: 金弘烈기자>

90년 11월 기준 전국에 50만채 이상의 전용면적 49평 이상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 서울이 75.1%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경기 3.5%, 경남 3.5%, 부산 3.6%, 대전 3.9%, 대구 6.1%, 전북 2.6%, 기타 1.9%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80년 14.7만호, '85년 25.4만호, 90년 50.3만호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체 주택의 9.5%에 불과한 49평 이상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90년 11월 기준 주택조사

90년 11월 현재 전국의 월 기준으로 실시된 주택조사 결과, 전국에 50만채 이상의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 서울이 75.1%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경기 3.5%, 경남 3.5%, 부산 3.6%, 대전 3.9%, 대구 6.1%, 전북 2.6%, 기타 1.9%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80년 14.7만호, '85년 25.4만호, 90년 50.3만호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체 주택의 9.5%에 불과한 49평 이상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5년비 2배...서울이 37% 단독 아파트 연립順 많아

90년 11월 기준 서울에 46만 8천 800호의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 이는 85년 23만 4천 400호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서울의 아파트 연립 순은 37%로, 이는 85년 14%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80년 14.7만호, '85년 25.4만호, 90년 50.3만호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체 주택의 9.5%에 불과한 49평 이상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朴泰昌기자>

3만 7천 5백 44호,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1만 5천 9백 73호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80년 14.7만호, '85년 25.4만호, 90년 50.3만호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체 주택의 9.5%에 불과한 49평 이상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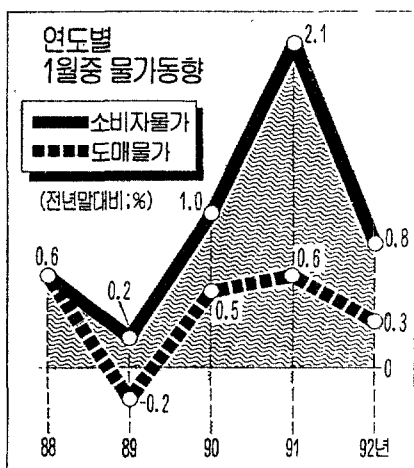
1월 소비자물가 0.8% 올라

韓銀·통계청 발표 작년同期 상승률의 절반

2월엔 公共料등 인상 물려 "불안"

1월 물가가 연초물가로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0.6%·90년의 0.5%에 는 지난 89년 이후 3년만 도매물가도 지난해 1월의 비해 상승률이 둔화했다. 에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30일 韓銀과 통계청이 발표한 「1월중 물가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중 소비자물가는 지난해말보다 0.8%·도매물가는 0.3%가 각각 올랐다. 이같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월의 2.1%에 비해 1.3%포인트나 낮아졌으며 89년 1월 0.2% 상승률 기록이



그러나 2월중에는 실질 이 깨인 데다 전월요율의 평균 6% 인상되고 시내, 시외버스 등 교통요율의 크게 오를 예정인데다 대 화동물금, 中·高수업료도 각각 5%·7.5%씩 인상 될 예정이어서 물가안정노 령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

1월중 물가상승률이 이 처럼 둔화된 것이 연말연 시를 전후한 물가안정시책 에 힘입어 중앙은행과 개 인서비스업의 요금세가 주춤한데다 농축수산물과 공산품 가격이 지난해 1

올름세가 둔화된 것을 비 롯 공산품과 집세가 각각 0.5%·개인서비스요금이 3.2%의 상승율을 나타 냈으며 지난해 0.8% 및 9.2%가 올랐던 공공요 금과 에너지가격은 지난해 12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 했다.

소비자物價 0.8% 상승

1월중 89년 이후 最低

개인서비스料 3.2%·집세 0.5%
농축수산물 0.8%·공산품 0.5%

釜山·大邱 0.9%
馬山 0.2% 올라

내달 公共料등 불안이여기 여전

1월중 소비자물가는 0.8% 도매물가는 0.3%가 올라 지난 88년 이후 3년만의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제기획원과 통계청은 30일 발표한 「1월중」 물가 동향에서 전년비 등 개인서비스요금과 공산품과 알류 등의 가격인상도 불구하고 작년말에 비해 소비자물가는 0.8%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또 도매물가도 지난해 말에 비해 0.3% 상승했다. 가계의 부담은 불안이여전하다. 1월중 소비자물가는 91년 0.6%에서 상승률이 낮아졌다. 1월중 소비자물가는 △개인서비스요금의 3.2% △수출수산물 0.8% △공산품 집세가 각각 0.5%씩의 올랐다.

특히 개인서비스요금(1만2천9백가정주인)이 1만2천9백81원에서 1만7천1백74원으로 31.7%나 올랐고 다방카피(3.1%)·갈비탕(2.3%)·저개발탄(1.4%) 등도 인상폭이 컸다. 비자물가상승률도 높았다. 또 공산품 집세는 △월간상승률이 11.1% △년 6.6% △수주 3.9% △전주 4.8%가 각각 올랐으며 과일채소류(농산물)는 22.3% 사과(9.9%) 배(7.8%) 산(13.4%)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지역별로는 釜山·大邱 濟州 등의 0.9%의 물가상승률을 보여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고 馬山(0.2%)·仁川(0.3%) 등은 거의 물가가 오르거나 오히려 떨어졌다. 그러나 1월중 이같은 물가 상승은 정부가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을 늦출 때다.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집중관리하에 가의 것이어서 물가오름세가 진정됐다.

가파른 인상은 시기가 늦춰졌다. 1월중 소비자물가는 88년 1월 1.1% 상승했다. 1월중 소비자물가는 88년 1월 1.1% 상승했다. 1월중 소비자물가는 88년 1월 1.1% 상승했다.

올 산업활동 위축 전망

건설·기계설비투자지표 계속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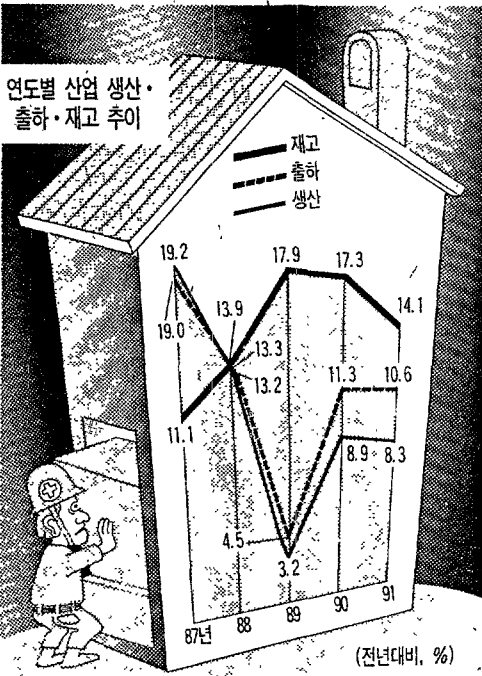
작년 실업률 2.3% 선

통계청 「12월·연간 산업동향」 발표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업 생산 및 출하와 비교적 견실한 실업률을 나타냈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3년만에 80%선에 달했으며 실업률은 연간평균 2.3%로 사상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건설 및 기계설비 투자의 각종 실행지표들이 정부의 경기진정책이 본격화된 작년 하반기 이후가 되면 하반기를 못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도 산업의 위축은 것으로 보인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91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산업활동의 위축은 12월과 91년 연간에 걸쳐 나타났다. 12월의 실업률은 2.3%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91년 연간 실업률도 2.3%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91년 12월의 실업률은 2.3%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91년 연간 실업률도 2.3%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12월·연간 산업동향」 발표에 따르면, 12월의 실업률은 2.3%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91년 연간 실업률도 2.3%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91년 12월의 실업률은 2.3%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91년 연간 실업률도 2.3%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그림 : 金弘烈〉

자활률이 크게 부진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간으로 9.7%가 감소, 85년 이후 6년만의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99년 3월말 현재 55.8%나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13.3%포인트 증가한 실정이다. 그러나 제조업은 1월의 5.5%포인트 상승을 5월말 SOC기타 서비스업의 6.5%포인트 상승이 상회했다.

서비스업이 전체활동인구 증가분을 무지크히 흡수하고 있음. 제조업 인력까지 빠져들어 13.3%포인트 하락했다. 99년 2.5%에서 2.3%로 0.2%포인트 하락했다.

자동차 생산 및 수출이 12.3% 증가했다. 전기전자(10.9%) 선두업체(31.9%)는 14%의 산장(18.1%)의 상승세를 견인했다. 반면 제조업은 8.3%가 늘었다.

철강과 석유 정제업은 10.6%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제조업은 79.6%에서 80.0%로 소폭 증가했다.

이 가운데서도 석유 정제의

投資위축

소비재 증가율 製造業 앞서

석유精製·자동차 생산 호조

전년 5.4% 전년 1.3% 감소한 반면 내수는 12.0%나 증가. 이진도내수와의 격차를 의도적으로 좁히려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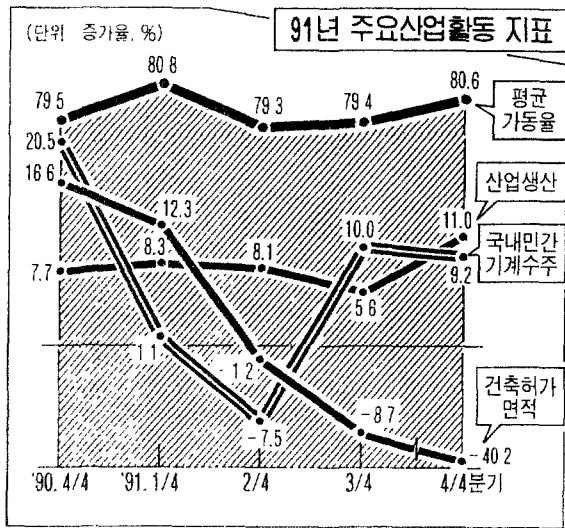
투자 우선 건설부문은 16.7% 줄어든 것을 비롯 산업은 3%가 감소했다. 다만 농업은 6.7%가 늘었는데 이는 제조업 성장 중심이 아니다. 그러나 공업부문의 건설비가 과잉의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설비투자 지표인 기계수주는 1.9% 증가에 머물러 전년 38.8%에 비해 37%포인트 감소했다. 기계류 수요가 역시 전연 하반기부터 꾸준히 증가한 탓에 99년 53.7% 증가에서 4.8% 감소로 반전됐다. 1.4%포인트 26.6% 증가한 것과는 줄어든 대

조를 보였다. 이차철부자가 투입된 것은 1차철인 설비투자를 대량으로 투입한 것이 많다는 뜻도 있으나 전반기에 비해 수출은 여전히 양호한 실정이다. 특히 수출은 12.3%나 증가했다. 이는 제조업 활황 증가

원추된 탓으로 분석된다. 작년 10월에는 0.1%의 소폭 상승을 기록한 반면 99년 5.4%로 5.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제조업 활황 증가

전체 고용은 1.4% 증가한 27%포인트로 99년 6.1%포인트(98년 6.5%)로 7.8%포인트(99년 8.3%)로 0.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7차 5개년 계획기간(92~96년) 중 제조업 고용 비중은 29%수준이던 것이 20%로 낮아졌다. 이는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를 시사한다.



건설을 전년도 대비 27%포인트로 늘린 것은 새물줄기 때문이다. 반면 SOC 기타 산업은 56.4%로 99년 54.4%에 비해 2%포인트가 높아졌는데 55%를 넘어선 것은 사상 최초의 일이다.

전체 고용은 1.4% 증가한 27%포인트로 99년 6.1%포인트(98년 6.5%)로 7.8%포인트(99년 8.3%)로 0.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7차 5개년 계획기간(92~96년) 중 제조업 고용 비중은 29%수준이던 것이 20%로 낮아졌다. 이는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를 시사한다.

99년 1.9%로 88년 20.7%에서 88년 19.5%포인트로 1.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를 시사한다.

99년 2.3%로 95년 5%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나왔던 1991년 산업활동지표에서 생산·출하 부문은 전반기에 비해 투자활동이 크게 위축되기는 했지만, 1991년 1-3월의 산업활동지표는 1990년 4-6월의 수준과 비교하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2.2%의 달해 경제성장률을 8.6%를 웃도는 12.2%의 경제성장률로 과전으로 국제수지逆轉을 심화시킨 요인이 되고 있다. 수출의 증가에 따라 다소 높아졌지만 中國·東南亞가群이 성장하면서 아시아에서 수출 재고 규모가 증가했다. 1-3월의 수출은 9.1%의 증가를 기록한 반면 1-3월의 수입은 1.0%의 증가를 기록한 반면

過消費 여진

작년 産業활동動向 내역

고무제품 등 5%의 상승이 감소했고, 선반공업은 14.6%나 감소, 극심한 불황을 겪었다. 12월중에는 재고량이 급증했다. 30.5%의 산업용 화학물질을 42.4%의 자동차 부품 64.4% 등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등 일부 제품만 수출 내수 증가에 대비한 것이나 선반공업은 수출이 과잉투자에서 비롯된 것. 수출이 전 물품 가운데 수출액

◇91 연간 산업활동지표 <단위=증감률%, 천명>

구분	90	91
생산·출하	생산 8.9	8.3
	출하 11.3	10.6
투자	건설수주 55.8	13.9
	기계수주 31.4	△9.7
소매	내수 39.6	2.7
	외수 29.4	(△4.8)
취업	경제활동인구 18,129	18,647
	취업자 17,679	18,224
실업	제조업 4,983	(4,930)
	서비스업 10,156	(10,810)
자본	실업률 450	423
	실업률 2.5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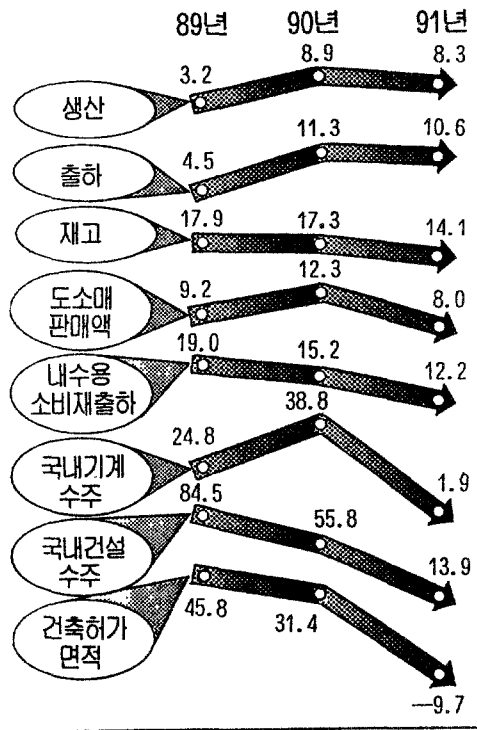
10.6%를 상회한 것이 사실인 GNP 성장률 8.6%를 3.6%나 낮추는 실적. 비내구재(11.0%보다 내구재(14.5%) 출하가 더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자동차 등 고급소비재가 잘 팔린 때문. 90년 15.9% 증가율보다 떨어지긴 했으나 우리 사회에 아직 과소비 풍조가 뿌리박히지 않았음을 나타냈다. [그림] 산업활동지표의 비 90년 88% 이후 4.1%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88년 27.7%를 정점으로 기록한

景氣후퇴조짐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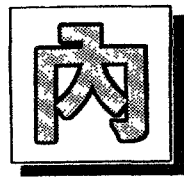
작년중 건축경기 및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도소매판매액 증가세도 둔화되는 등 국내경기가 과열에서 벗어나 본격적 침양상을 보였다. 이같은 추세는 정부의 경제안정화대책 등에 따라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업계일각에서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은 추세는 정부의 경제안정화대책 등에 따라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업계일각에서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 산업활동 증가율 (전년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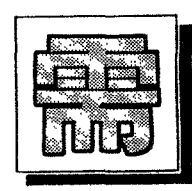


통계청 발표 91년 산업활동 동향



건축-設備투자 위축

및 공장건설을 민간부분이 맡게 되면서 위축된 정부의 발발가 위축된 정부의 13.9%의 증가에 그쳐 88년의 84.5%, 89년의 55.8%에 비해 급속히 둔화됐다.



반면 수출은 같은 기간에 1.9% 감소에서 5.4% 증가로 반전, 내수전 정면수출 회복의 구조 조정을 진행해 보였다. 제조업가동률은 80%를 기록, 90년의 79.6%보다 약간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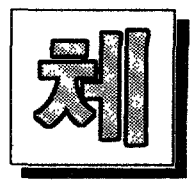
생산-出荷 급격 감소



소비부분에선 도소매 판매액 증가율이 8.0% (12.8%에서 8.0%로 7.1%포인트) 그쳐 90년의 29.4%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정부의 일단 건설경기 진정대책에 따라 건축허가면적도 90년 31.4% 증가에서 작년엔 9.7% 감소로 반전, 생활양상을 보였다.

都小賣 판매도 주춤



한편 12월을 경기先行지수인 건축허가면적 기준 수주액 등 5개지표는 감소했으나 수출액, 수입액, 인플레이션 등 4개지표가 큰 폭으로 증가, 11월의 비해 1.2%나 상승했다. 이는 지난 11월 5월의 1.6% 상승 이후 가장 큰 폭이다. 그러나 경기同行지수는 12월 0.4% 증가에 그쳐 9~11월의 0.9% 증가에 비해 둔화됐다.

고용 추이 <단위: 천명>

항목	90년말	91년말
총취업자수	17,679 (665)	18,224 (545)
농림어업	2,465 (7168)	2,415 (750)
광공업	5,057 (239)	4,999 (758)
제조업	4,983 (254)	4,930 (75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10,156 (593)	10,810 (6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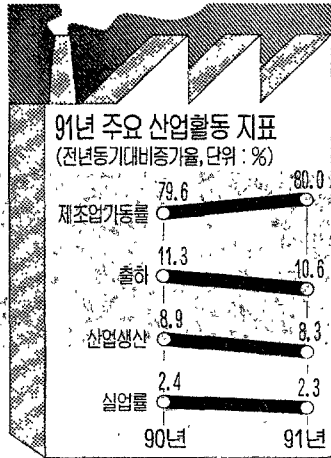
※註: 괄호안은 전년비 증감률

人力 서비스業 몰려

過消費속설비·건설투자둔화

91년 산업활동 동향

지난해 산업생산과 수출이 90년과 비슷한 수준의 호조를 보였으나 설비의 투자와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3%포인트 낮아졌다. 서비스업의 인건비의 상승이 제조업의 인건가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다. 서비스업의 인건비 상승은 제조업의 인건비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다. 서비스업의 인건비 상승은 제조업의 인건비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다.



제조업의 인건가 상승이 심화되고 이같은 인건가 상승을 반영, 실업률이 사상 최저수준인 2.3%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인건가 상승이 심화되고 이같은 인건가 상승을 반영, 실업률이 사상 최저수준인 2.3%를 기록했다.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해외기계수주를 나타내는 기계수입액이 역시 지난해 12월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수입억제책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33.5%가 감소했다.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해외기계수주를 나타내는 기계수입액이 역시 지난해 12월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수입억제책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33.5%가 감소했다.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해외기계수주를 나타내는 기계수입액이 역시 지난해 12월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수입억제책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33.5%가 감소했다.

실업률 2.3%...사상최저수준

서비스업 人力 전체 취업자의 56%

석유·철강 등 호조, 섬유는 감소

제조업의 인건가 상승이 심화되고 이같은 인건가 상승을 반영, 실업률이 사상 최저수준인 2.3%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인건가 상승이 심화되고 이같은 인건가 상승을 반영, 실업률이 사상 최저수준인 2.3%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인건가 상승이 심화되고 이같은 인건가 상승을 반영, 실업률이 사상 최저수준인 2.3%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인건가 상승이 심화되고 이같은 인건가 상승을 반영, 실업률이 사상 최저수준인 2.3%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인건가 상승이 심화되고 이같은 인건가 상승을 반영, 실업률이 사상 최저수준인 2.3%를 기록했다.

석유·철강 등 호조, 섬유는 감소

석유·철강 등 호조, 섬유는 감소

제조업의 인건가 상승이 심화되고 이같은 인건가 상승을 반영, 실업률이 사상 최저수준인 2.3%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인건가 상승이 심화되고 이같은 인건가 상승을 반영, 실업률이 사상 최저수준인 2.3%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인건가 상승이 심화되고 이같은 인건가 상승을 반영, 실업률이 사상 최저수준인 2.3%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인건가 상승이 심화되고 이같은 인건가 상승을 반영, 실업률이 사상 최저수준인 2.3%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인건가 상승이 심화되고 이같은 인건가 상승을 반영, 실업률이 사상 최저수준인 2.3%를 기록했다.

油化「투자」半導體·造船「수출」괄목

작년 産業活動 동향 <統計廳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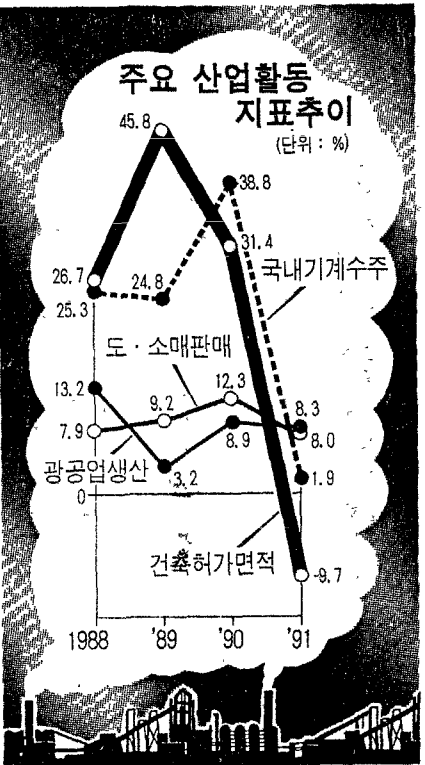
작년은 마이너스 성장률로 11.5%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1970년 11.1%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11.1%의 성장률은 1969년 11.1%의 성장률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11.1%의 성장률은 1969년 11.1%의 성장률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은 마이너스 성장률로 11.5%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1970년 11.1%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11.1%의 성장률은 1969년 11.1%의 성장률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11.1%의 성장률은 1969년 11.1%의 성장률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은 마이너스 성장률로 11.5%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1970년 11.1%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11.1%의 성장률은 1969년 11.1%의 성장률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11.1%의 성장률은 1969년 11.1%의 성장률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내수 늘어 생 신발·섬유·유류·전기·가전

작년은 마이너스 성장률로 11.5%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1970년 11.1%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11.1%의 성장률은 1969년 11.1%의 성장률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11.1%의 성장률은 1969년 11.1%의 성장률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 24%증가 업계도 고전

이런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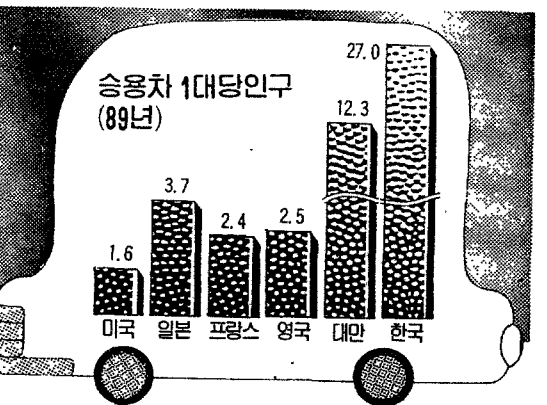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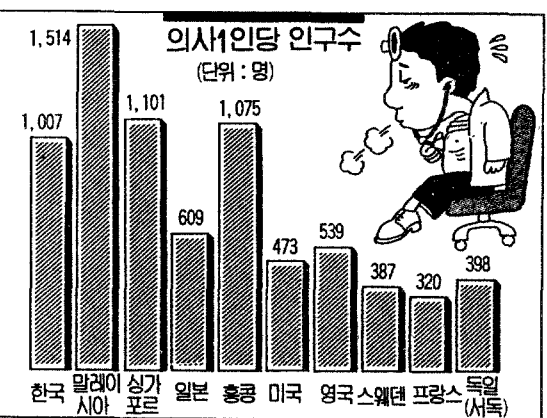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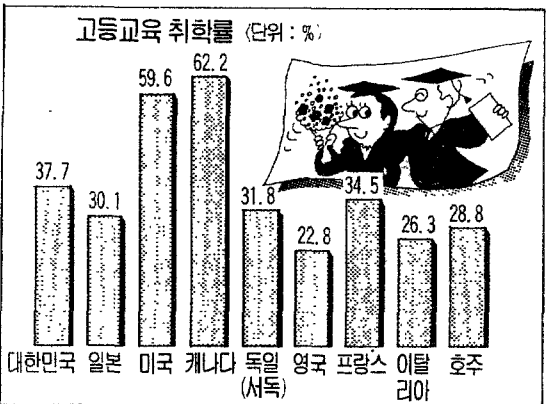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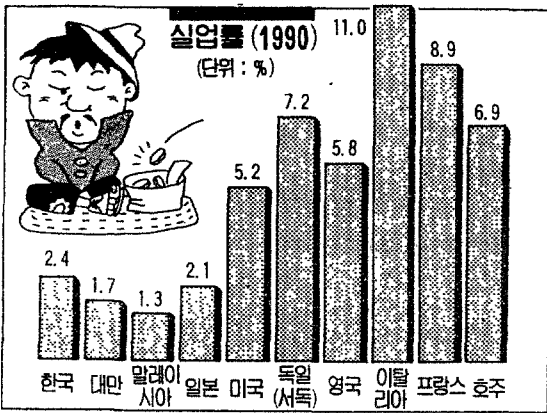
전자·전기업
업 수확은
1월 12만 1천
9백 8십 5% 증가
10.0%의
증가했다. 또
전자·전기업
업 수확은
1월 12만 1천
9백 8십 5% 증가
10.0%의
증가했다.

건설업 부문도
1월 12만 1천
9백 8십 5% 증가
10.0%의
증가했다. 또
건설업 부문도
1월 12만 1천
9백 8십 5% 증가
10.0%의
증가했다.

생산이 1조 7천 9백 9십 9억 원이
가 생산된 1.2% 감소
했다. 수출은 2.8%가
증가. 수출액은 1990년 1월 12만 1천
9백 8십 5% 증가
10.0%의
증가했다. 또
수출액은 1990년 1월 12만 1천
9백 8십 5% 증가
10.0%의
증가했다.

1월 12만 1천 9백 8십 5% 증가
10.0%의
증가했다. 또
1월 12만 1천 9백 8십 5% 증가
10.0%의
증가했다. 또
1월 12만 1천 9백 8십 5% 증가
10.0%의
증가했다.

간암-결핵-輪禍



간암, 결핵, 輪禍... 36개 주요국에서 1990년 실업률, 고등교육 취학률, 의사인당 인구수, 승용차 1대당 인구수 등 4개 항목을 비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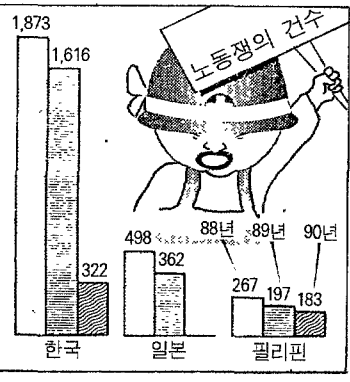
한국은 실업률 2.4%, 고등교육 취학률 37.7%, 의사인당 인구수 1,514명, 승용차 1대당 인구수 1.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일본은 고등교육 취학률 30.1%, 의사인당 인구수 609명, 승용차 1대당 인구수 3.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미국은 고등교육 취학률 59.6%, 의사인당 인구수 473명, 승용차 1대당 인구수 1.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프랑스는 고등교육 취학률 34.5%, 의사인당 인구수 320명, 승용차 1대당 인구수 2.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합성섬유 생산·선박 건조 세계 5위 이내
수출입규모 12위·한사람 수출액은 37위
의사 1인당 인구 美·日보다 2배 더 많아**



전문대 이상 취학률 日·英·

90년 기준 4천3백만 명... 4천2백86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선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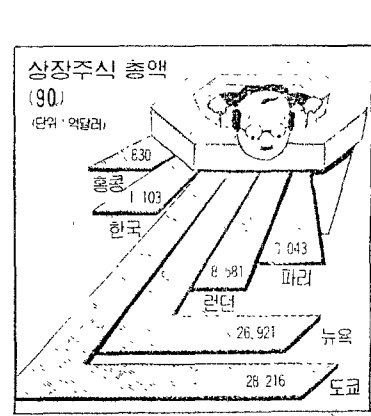
통계로 본 세계와 한국

통계청 집계

우리 국민들이 누리는 생활의 편의와 안전 정도 수준일까. 수산물 소비량 등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이나 일본 수준의 도 달했지만 주택난·교통난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전반적인 삶의 질은 선진국을

따라가려면 멀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통계로 본 세계와 한국'에서 입수가 늘면 모은 국내 몇몇 해외 물품의 분석을 통해 우리 경제·사회의 각종 지표를 세계각국과 비교했다.

사망률 세계1위



이 비교분석의 마르면 수산물 소비량 등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이나 일본 수준의 도 달했지만 주택난·교통난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전반적인 삶의 질은 선진국을

로 보기 어렵다.

의안·고혈압 2위
91
교육·보건의료화 재국
민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34.5명으로 아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을 모두 앞질렀다.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인력의 출세로 높은 교육수준을 자랑하며 유망 분야를 보여 준다.

99년 기준 의사 1인당 인구는 1천7명으로 위안(31.7명)·고혈압 6명(중은 세계 1위이며

세계 보건연맹에 사망 원인을 사망률이 나타나는 36개국 중 88년 현재 교통 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31.7명(과감사 사망률 23.8명)·결핵(2.6명) 등은 세계 1위이며

많은 부분에서 세계 상위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우선 생산총생산은 90년 기준 2천3백12만 달러로 전세계 생산량의 3%를 차지, 스웨덴을 미국 등 미국 등의 이어 세계 7위이며 1인당 생산 총생산은 88년 현재 4백33달러로 세계 13위수준이다.

자동차 5백64만대
자동차 생산량(90년 기준)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순으로이며 88년 기준 자동차 보유대수는 세계 25위수준, 91년 10월 현재 전국의 자동차등록대수는

유럽은 리베리아 파나마 일본 등의 이어 세계 12위에 그치고 있다. 삼합 선박선조설치와 선박수주량은 모두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합성유 생산량(88년)도 전세계 생산량의 8.1%를 차지, 미국 대만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국 등 동남아 후발개도국의 추진이 만만치않아 지름은 4위 고수를 장담하기 어렵다. 석유화학산물의 기준(원유)에 따른 생산량은 88년 기준으로도 전세계 생산량의 1.3%로 미국 일본 스웨덴에 이어 세계 13위수준에 이어 세계 13위수준에 있다.

년 기준 전세계 생산량의 3.8%를 차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의 이어 세계 6위이며, 이후 특히가 정유 전자기기와 전자부품 생산량도 각각 세계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독등 앞질러... 어획량 7위에 소비는 2위권

생산물량 세계 10위

수출과 수입은 90년 기준으로도 모두 세계 13위를 차지했으나 1인당 수출액은 88년 현재 1천4백72달러로 세계 37위에 그치고 있다. 작년도 수출액(인) 제타민 것 등으로 보인다. 필리핀의 물고기다 수입의 수와 유로 수출과 갖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전자공업의 시공인력, 기술개발부진, 개도국의 추격 등의 시달리고 있다.

발전량은 88년 기준 세계 20위, 원자력발전량은 세계 11위이며 증권거래소 거래 대금(90년 기준)으로 세계 36개 유망과 소중 9위이다. 90년말 기준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세계 16위이다.

수출과 수입은 90년 기준으로도 모두 세계 13위를 차지했으나 1인당 수출액은 88년 현재 1천4백72달러로 세계 37위에 그치고 있다. 작년도 수출액(인) 제타민 것 등으로 보인다. 필리핀의 물고기다 수입의 수와 유로 수출과 갖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전자공업의 시공인력, 기술개발부진, 개도국의 추격 등의 시달리고 있다.

발전량은 88년 기준 세계 20위, 원자력발전량은 세계 11위이며 증권거래소 거래 대금(90년 기준)으로 세계 36개 유망과 소중 9위이다. 90년말 기준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세계 16위이다.

이와 함께 사망률이 통계상 간암·교통사고·질병으로 인한 사망비율이 각각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6월 통계청이 분석한 「통계로 본 세계와 한국」에 따르면 東北아시아 한반도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나라가 인구·산업·경제지표·교육·보건·문화·생활·정보기술에 있어 대부분에서 세계각국 가운데 어느 정도의 위치와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부양률 주요 국내 100대 업종으로

도시화율 74.4%

◇인구·면적·부토면적 1인당 1.1㎡인 1997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74.4%로 세계평균인 45.2%보다 29.2%포인트 높았다. 산업전국수준인 72.6%를 뛰어넘은 것이다.

◇자녀 = 90년말 말 생산가능인구 7백78만6천명으로부터 나타난다. (1) 1억 8천8백40만명 (印度) (2) 1억 2백50만명 (印尼) (3) 4천4백

간암·교통사고死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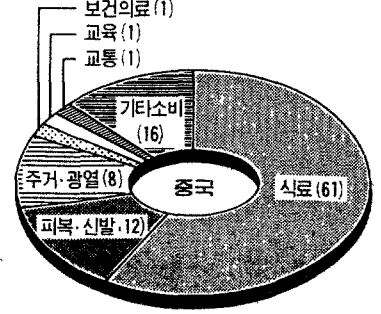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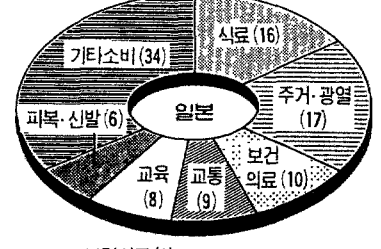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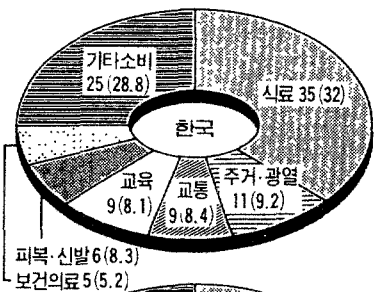
88백72만7천명(인민) (1) 천1백88만명(蘇·中·美)에 이어 세계7위수준. 86~88년 1인당 GDP 4,966달러

무역규모 12위·철강 7위 2천20년 人口 5천57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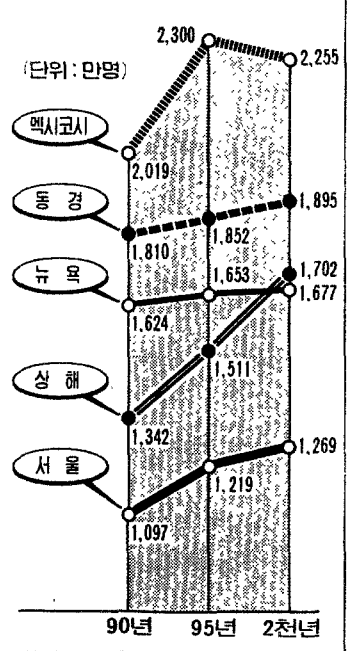
물가상승률 日·臺灣의 2배수준

한·중·일 3국 가구 소비지출 비교

(단위% 80-85년 평균)
(한국의 괄호안은 90년 통계치)



주요 도시별 인구



다 의료부분의 인력과 시설이 크게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사망원인은 간암·교통사고·질병 등에서 각각 세계 1위, 2위, 3위를 차지했다. 2000년 10만명당 8.7명꼴로 2위를 기록, 비교적 낮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柳贊봉기자】

통계청 분석 「통계로 본 세계와 한국」

지난 90년 7월 1일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4천 2백 86만 9천 5백 19명으로, 200만 9천 2백 19만 5천 명의 0.8%를 차지, 세계에서 23위를 기록했다.

남인도네시아가 1억 5천 4백 32만 9천 7백 98명으로 뒤를 이었고, 8백 3만 8천 9백 53명의 인도네시아가 세계 3위수준을 차지했다. 한편, 1천 7백 99만 9천 999명의 중국이 2위수준을 차지했다. 90년 11월 8일 현재 90만 3천 4백 29명으로, 12위의 무렵에 불과하다.

세계1위

49분의 1을 차지하고,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산액과 양을 비교하면, 미국은 7백 2만 7천 원이나 생산, 세계 12위 수준

인도 2천 2백 80억 달러(홍콩 50.9%), 세계 3위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89년 전 세계 생산 규모는 8.1%를 차지하며 세계 4위. 전 세계의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위, 전차부품은 세계 3위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90년 10월 현재 16.7만 명, 1만 4천 489명의 2위를 차지하고 있다.

1천 7백 만의 1인당 1천 7백 99만 9천 999명, 90년 11월 현재 90만 3천 4백 29명, 12위의 무렵에 불과하다.

1천 7백 만의 1인당 1천 7백 99만 9천 999명, 90년 11월 현재 90만 3천 4백 29명, 12위의 무렵에 불과하다.

살생량 10위 기록. 90년 전 세계 살생량은 1천 1백 6십 6억 6천 6백 6십 6명,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90년 전 세계 살생량은 1천 1백 6십 6억 6천 6백 6십 6명,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90년 전 세계 살생량은 1천 1백 6십 6억 6천 6백 6십 6명,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90년 전 세계 살생량은 1천 1백 6십 6억 6천 6백 6십 6명,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연결계수 평균 35%

연결계수 평균 35%. 90년 11월 현재 90만 3천 4백 29명, 12위의 무렵에 불과하다. 90년 11월 현재 90만 3천 4백 29명, 12위의 무렵에 불과하다. 90년 11월 현재 90만 3천 4백 29명, 12위의 무렵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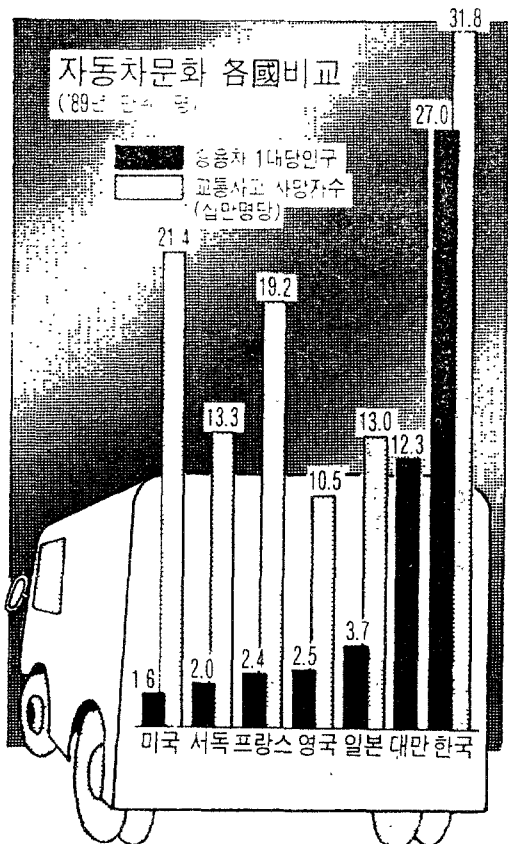
1천 7백 만의 1인당

1천 7백 만의 1인당 1천 7백 99만 9천 999명, 90년 11월 현재 90만 3천 4백 29명, 12위의 무렵에 불과하다. 90년 11월 현재 90만 3천 4백 29명, 12위의 무렵에 불과하다. 90년 11월 현재 90만 3천 4백 29명, 12위의 무렵에 불과하다.

통계로 본 세계와 韓國 통계청 분석

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점검한 보고서 내용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90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4천2백86만 9천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5.2%를 차지, 인구규모에서 세계 23위를 기록했다. 인구밀도는 일본 도시국가



20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의 4천3백여만명보다 18%가 증가, 5천558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 산업생선 --- 우리나라 「쌀 생산량」(90년)은 7백78만6천톤으로 中國 印度 등의 이어 세계 10위수 주거나 「실적면적」(2천5백59만)은 1ha당 6천2백59kg으로 세계 7위수으로 생산량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시멘트·섬유도 10위圈진입 교통사고·肝癌사망을 세계 최고

人口규모 23번째...密度로는 3위

대(90년)은 7백46억달러로 세계 36개 유망거래소중 9위로 집계됐고 90년말 현재 「상자우식」이 총액 1천1백3억달러로 세계 16위에 랭크됐다.

--- 교육·문화 --- 91년 현재 국민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34.5명으로 아시아 최빈국인 네팔(36.9명) 파키스탄(40.9명)보다도 적지만 日本(22.2명) 獨逸(17.6명)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두배나 높아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부분의 경우도 우리나라 의사의 1인당 인구가 90년(1천7명)으로 日本(6백9명, 88년) 美國(4백73명, 84년) 등 선진국보다 2배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률(인)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위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31.7명으로 日本(39.6명)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간암(23.8명, 세계 1위) △고혈압성질환(37.3명, 2위) △만성질환(30명, 2위) △뇌졸중(31.8명, 1위) △심혈관(12.6명, 1위) 등으로 인한 사망률도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鄭東植기자〉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이 된 부수였다. 그러나 자동차 부문의 수출은 50위에 머물러 생산과 보급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는 이 분야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또 선박 건조 실적은 제2위인 것을 비롯 섬유, 철강, 시멘트 등 주요 산업품의 생산량이 10위권내의 진입, 대량 생산품의 대외 수출액이 58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출액에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걸쳐 세계 각국

造船2위·自動車 생산10위

◇세계속의 韓國

부	문	실	적	세계	기준	연도	세계1위
				순위			
인구	인구	42.9	백만명	23	90		中國
인구	밀도	432	명(km)	3	90		방글라데시
국민총생산(GNP)		2,111	억달러	12	89		美國
수출		650	억달러	12	90		獨逸
자동차	총차	1.3	백만대	10	90		日本
자동차	1대당인구	15.8	명	50	89		美國 #1)
선박	건조	3.5	백만톤	2	89		日本
생철	강	23.1	백만톤	7	90		獨逸
전력	자	241	억달러	6	90		美國
산합성	섬유	1.2	백만톤	4	89		"
증권	거래대금	746	억달러	9	90		"
교사	1인당국교생	34.5	명		91		獨逸 #1)
의사	1인당인구수	1,007	명	36	90		이탈리아 #1)
간암	사망률 #2)	23.8	명	1	89		韓國
교통	사고사망률 #2)	31.8	명	1	89		韓國
건	TV 보급률 #3)	188	명	30	86		美國

註1) 낮은 순위, 註2) 10만명당, 註3) 1천명당

를 제외하면 방글라데시(80백만명), 태완(5백53만명)에 이어 3위로 1억4천4백32명이 살고 있다. 전체 인구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 74.4%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는 45.2%를 차지하고 평균인 72.6명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구의 도시 집중이 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1.0%로 獨逸(0.1%), 英國(0.2%), 香港(0.2%)보다 높지만 아시아의 서일본(0.4%), 대만(0.5%)보다 낮아 앞으로는 인구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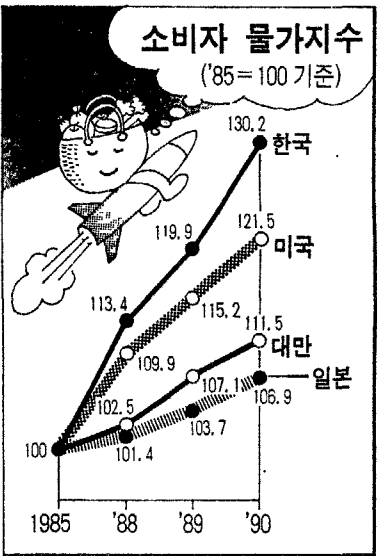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NP)은 2천111억달러로 세계 12위 수준인데 비해 합성섬유(89년) 전자부품(90년) 시멘트(88년) 철강(89년) 생산량 각각 4, 6, 7, 7위 생산품으로 부상했다. 산업시장의 발전세를 추경계 하고 「중년기」를 개

經濟 규모 선진국 문턱... 생활은 中進國

統計로 본 世界속의 韓國 <統計廳 분석>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산업력은 거의 선진국문턱에 들어섰으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NP(국민총생산)를 비롯, 각종 사회·문화

지표는 여전히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 생활의 기본이 되는 의료·보건환경은 긴급환경 선안법과 걸레환자의 인구당 비율이 세계에서 1~2위를 앗다두는 등 매우 일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지난 90년까지 유럽, 세계보건기구등의 각국 경제·사회통계자료를 비교분석, 6일 발표한 「세계와 韓國」에 따르면 우리 GNP는 89년경상가격기준 2천1백11억달러로 세계15위를 차지, 지난 80년에 비해 12계단이나 뛰어올랐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1인당 GDP가 1만 2천 2백 27달러로 80년 61억에서 89년 61억 6천 1백 11억 달러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4개국) 수준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1인당 GDP가 1만 2천 2백 27달러로 80년 61억에서 89년 61억 6천 1백 11억 달러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4개국) 수준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1인당 GDP가 1만 2천 2백 27달러로 80년 61억에서 89년 61억 6천 1백 11억 달러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4개국) 수준과도 상당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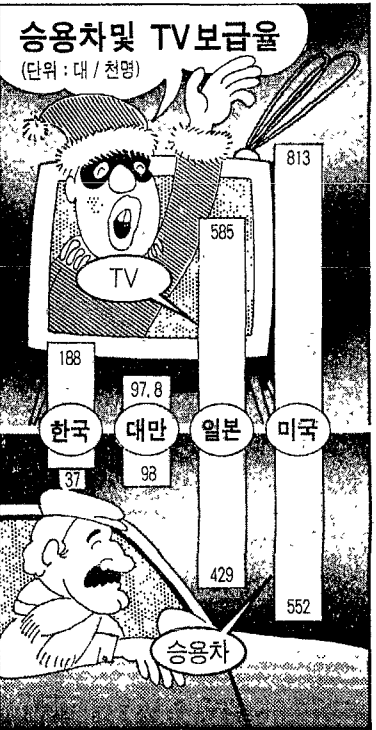
GNP 2千111億弗로 자동차 생산 10위·家電 肝癌·결핵 최고·保健후

이로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고성장률(거북 中國·印度·瀋州·브라질)에 비해 미국보다 1/3 정도 낮은 성장률(中國은 선진국(개발)의 1/3 정도)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의료·보건환경은 긴급환경 선안법과 걸레환자의 인구당 비율이 세계에서 1~2위를 앗다두는 등 매우 일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지난 90년까지 유럽, 세계보건기구등의 각국 경제·사회통계자료를 비교분석, 6일 발표한 「세계와 韓國」에 따르면 우리 GNP는 89년경상가격기준 2천1백11억달러로 세계15위를 차지, 지난 80년에 비해 12계단이나 뛰어올랐다.

위다. 인구증가율이 1%의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 한 세대가 지난 20~30년에 비해 추계인구가 5천만명 이하로 전 세계(89년 기준)의 0.6% 수준으로 낮아졌다. 국토면적은 9만 9천 9백 99km²로 전체면적의 0.7%에 불과한데도 인구가 3천만 명이 된다.

89년까지 지난 20년간 인구는 8.9%의 증가율을 보여 우리 산업의 활

1월 38만대, 日本, 美國, 獨... (Introductory text for TV sales chart)



1월... 30%... 26개... (Detailed data and analysis for the TV and car ownership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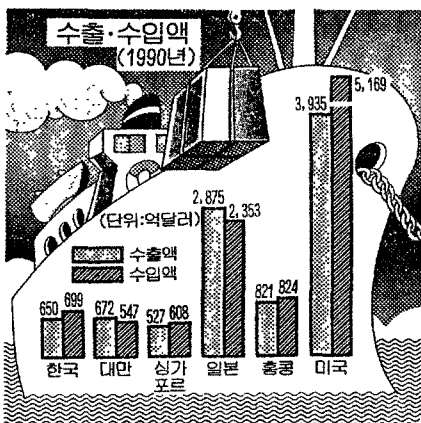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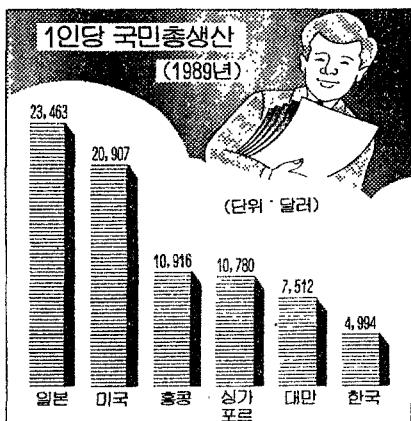
진국 15위 2위

전 세계의 자동차 보급률이 1... (Text describing global car ownership trends)

중 5배이다. (Text continuing the analysis of car ownership growth)

1월... 30%... 26개... (Text providing specific data points for the 15th and 2nd ranked countries)

電子공업 세계6위 자동차 10위



주요통계로 본 세계와 한국

	전 세계	한국	한국비율 (%)	한국순위	기준년도
인구(천명)	5,292,195	42,869	0.8	23	90년
인구밀도(㎢당)	39	432		3	//
발전생산량(천t)	518,508	7,786	1.5	10	//
자동차(대)		1,321,630		10	//
전자공업생산액(백만달러)	637,045	24,103	3.8	6	//
합성생산량(천t)	14,716	1,189	8.1	4	89
에틸렌(//)	47,863	609	1.3	13	88
시멘트(//)	1,138,000	30,474	2.7	7	89
철강(//)	769,232	23,125	3.0	7	90
상선보유량(//)		70,832		12	89
발전량(백만kw)	11,017,001	85,462	0.8	20	88
수출액(억달러)		650		12	90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90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있다. 1990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이 4,994억 달러로, 세계 23위, 자동차 생산량 10위, 전자공업 생산액 6위, 합성생산량 4위, 에틸렌 13위, 시멘트 7위, 철강 7위, 상선보유량 12위, 발전량 20위, 수출액 12위 등이다. 이는 1988년 1인당 국민총생산이 4,994달러, 자동차 생산량 100만 대, 전자공업 생산액 241억 달러, 합성생산량 118.9만 t, 에틸렌 60.9만 t, 시멘트 30.5만 t, 철강 23.1만 t, 상선보유량 70.8만 t, 발전량 85.5만 kw, 수출액 650억 달러로 집계된 것과 비교하면, 2년 동안 1인당 국민총생산이 1.5배, 자동차 생산량이 1.3배, 전자공업 생산액이 3.8배, 합성생산량이 8.1배, 에틸렌이 1.3배, 시멘트가 2.7배, 철강이 3.0배, 상선보유량이 1.2배, 발전량이 0.8배, 수출액이 1.2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 발표 「세계와 한국」

90년 현재 2백41만 명으로 집계된 우리나라 인구는 90년 현재 4.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인구밀도는 432명/㎢으로 39명/㎢의 세계 평균을 11배나 웃돌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90년 현재 42,869천 명으로 1인당 국민총생산이 4,994달러로 세계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은 1,321,630대로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공업 생산액은 24,103백만 달러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성생산량은 1,189천 t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틸렌 생산량은 60.9천 t으로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멘트 생산량은 30,474천 t으로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철강 생산량은 23,125천 t으로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선보유량은 70,832척으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발전량은 85,462백만 kw로 20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650억 달러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人口23위·수출·수입액 모두 12위 醫師 1인당 인구 美日보다 2倍

90년 현재 2백41만 명으로 집계된 우리나라 인구는 90년 현재 4.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인구밀도는 432명/㎢으로 39명/㎢의 세계 평균을 11배나 웃돌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90년 현재 42,869천 명으로 1인당 국민총생산이 4,994달러로 세계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은 1,321,630대로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공업 생산액은 24,103백만 달러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성생산량은 1,189천 t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틸렌 생산량은 60.9천 t으로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멘트 생산량은 30,474천 t으로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철강 생산량은 23,125천 t으로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선보유량은 70,832척으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발전량은 85,462백만 kw로 20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650억 달러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90년 현재 42,869천 명으로 1인당 국민총생산이 4,994달러로 세계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은 1,321,630대로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공업 생산액은 24,103백만 달러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성생산량은 1,189천 t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틸렌 생산량은 60.9천 t으로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멘트 생산량은 30,474천 t으로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철강 생산량은 23,125천 t으로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선보유량은 70,832척으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발전량은 85,462백만 kw로 20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650억 달러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90년 현재 2백41만 명으로 집계된 우리나라 인구는 90년 현재 4.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인구밀도는 432명/㎢으로 39명/㎢의 세계 평균을 11배나 웃돌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90년 현재 42,869천 명으로 1인당 국민총생산이 4,994달러로 세계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은 1,321,630대로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공업 생산액은 24,103백만 달러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성생산량은 1,189천 t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틸렌 생산량은 60.9천 t으로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멘트 생산량은 30,474천 t으로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철강 생산량은 23,125천 t으로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선보유량은 70,832척으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발전량은 85,462백만 kw로 20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650억 달러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90년 현재 2백41만 명으로 집계된 우리나라 인구는 90년 현재 4.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인구밀도는 432명/㎢으로 39명/㎢의 세계 평균을 11배나 웃돌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90년 현재 42,869천 명으로 1인당 국민총생산이 4,994달러로 세계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은 1,321,630대로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공업 생산액은 24,103백만 달러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성생산량은 1,189천 t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틸렌 생산량은 60.9천 t으로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멘트 생산량은 30,474천 t으로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철강 생산량은 23,125천 t으로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선보유량은 70,832척으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발전량은 85,462백만 kw로 20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650억 달러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삶의 질」 높여야 先進國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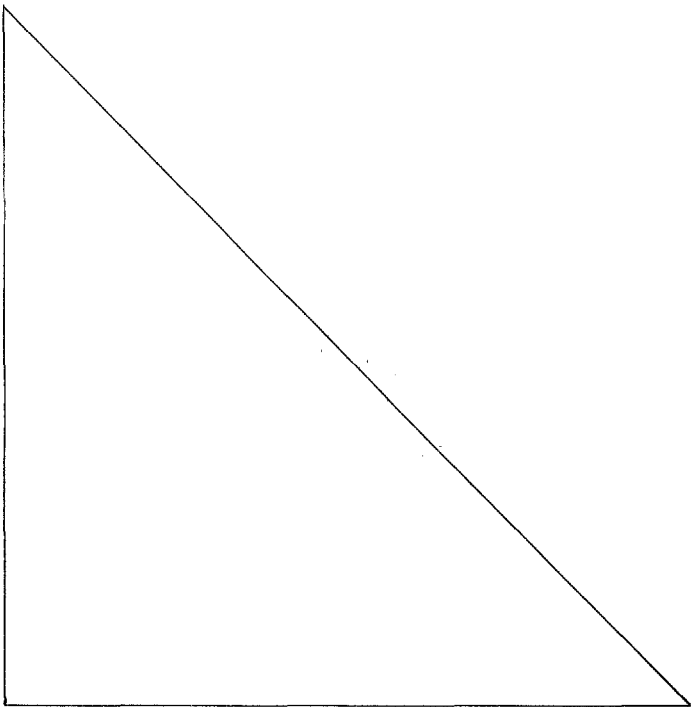
社說

우리 모두가 행복하려면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문화적 풍요를 추구해야
 한다. 경제발전의 물질적인
 성과가 그간의 발전의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
 만이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없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적 풍요를
 추구해야 한다. 문화적
 풍요는 삶의 질을 높여
 주고, 삶의 질을 높여
 주면 문화적 풍요를
 추구할 수 있다. 문화적
 풍요는 삶의 질을 높여
 주고, 삶의 질을 높여
 주면 문화적 풍요를
 추구할 수 있다. 문화적
 풍요는 삶의 질을 높여
 주고, 삶의 질을 높여
 주면 문화적 풍요를
 추구할 수 있다.

한편 食慾문화의 부패를 지적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食慾문화는
 점차 서구화되고 있다. 그러나
 서구화만으로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 「한편
 문화적 풍요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적 풍요를
 추구해야 한다. 문화적
 풍요는 삶의 질을 높여
 주고, 삶의 질을 높여
 주면 문화적 풍요를
 추구할 수 있다. 문화적
 풍요는 삶의 질을 높여
 주고, 삶의 질을 높여
 주면 문화적 풍요를
 추구할 수 있다. 문화적
 풍요는 삶의 질을 높여
 주고, 삶의 질을 높여
 주면 문화적 풍요를
 추구할 수 있다.

양아도 국제수지상차, 外債가
 늘어났다. 「최근
 양아도 국제수지상차, 外債가
 늘어났다. 「최근
 양아도 국제수지상차, 外債가
 늘어났다. 「최근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 「국민의



社說

경제성장의 虛와 實

경제성장이 활발한 「경제」의 발전은 경제의 균형, 인플레이션, 실업률, 그리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성장은 실업률의 증가와 인플레이션의 심화로 인해 국민생활의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다. 이는 경제성장의 虛와 實의 차이를 보여준다.

경제성장의 實은 국민생활의 향상을 의미한다. 이는 소득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사회적 안정을 포함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성장은 실업률의 증가와 인플레이션의 심화로 인해 국민생활의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다. 이는 경제성장의 虛와 實의 차이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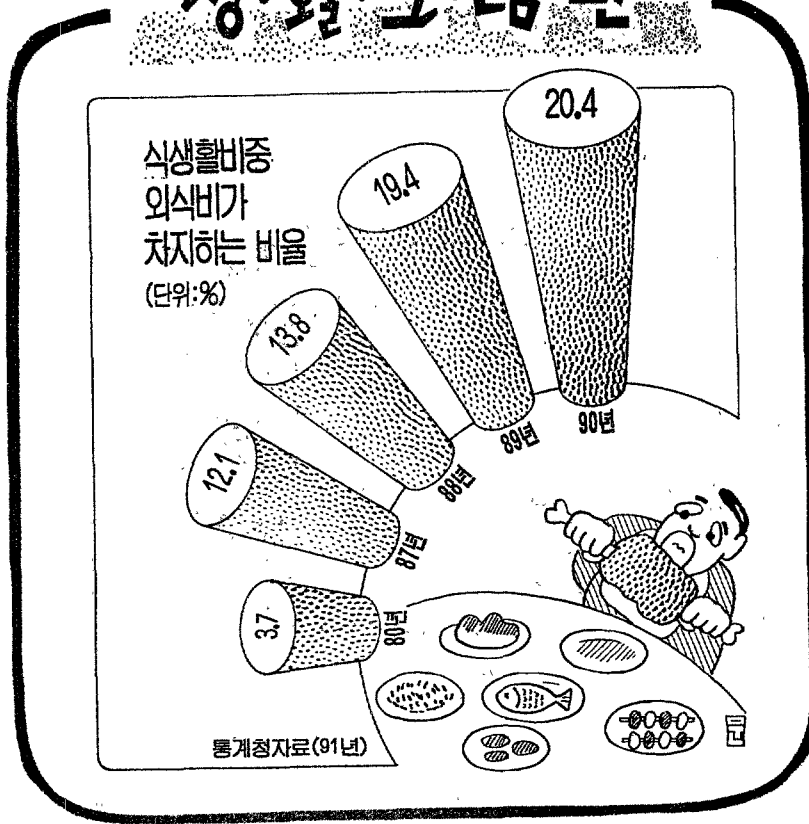
경제성장의 虛는 실업률의 증가와 인플레이션의 심화를 의미한다. 이는 국민생활의 향상을 가져오지 못하며, 오히려 국민생활을 악화시킨다. 이는 경제성장의 虛와 實의 차이를 보여준다.

경제성장의 實은 국민생활의 향상을 의미한다. 이는 소득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사회적 안정을 포함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성장은 실업률의 증가와 인플레이션의 심화로 인해 국민생활의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다. 이는 경제성장의 虛와 實의 차이를 보여준다.

경제성장의 實은 국민생활의 향상을 의미한다. 이는 소득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사회적 안정을 포함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성장은 실업률의 증가와 인플레이션의 심화로 인해 국민생활의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다. 이는 경제성장의 虛와 實의 차이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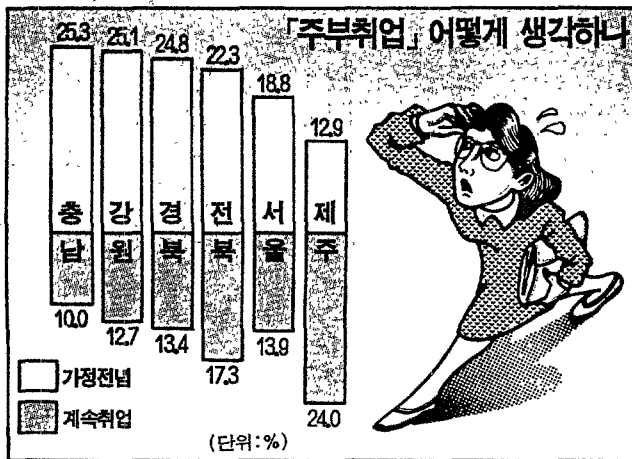
경제성장의 虛는 실업률의 증가와 인플레이션의 심화를 의미한다. 이는 국민생활의 향상을 가져오지 못하며, 오히려 국민생활을 악화시킨다. 이는 경제성장의 虛와 實의 차이를 보여준다.

생·활·그·림·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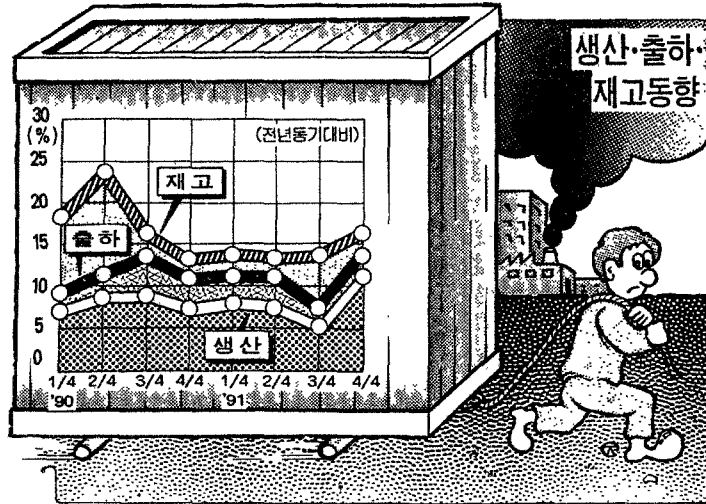
생활그림판

역척 제주여성들 취업희망 1위



통계청의 91년도사회통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성들의 취업에 대해 지역별로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강원·경북지역에서는 여성들이 가사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보수적 의견이 많은 반면 제주·경남·전북지역에서는 가정과 관계없이 계속 취업해야 한다는 진보적 의견이 많았다. 특히 제주지역은 「가사전념」 12·9%에 「계속취업」 24%로 제주여성들의 역척스러움을 반영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둔화

작년 승용차 등 耐久財는 好調

지난해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8.1%로 90년(8.6%)보다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승용차, 에어컨, 냉장고, 피아노 등 내구 소비재는 내수 호조 및 수출 회복에 힘입어 90년(1.7%)보다 크게 높인 7.3%의 증가율을 보였다.

통계청이 20일 「91년 4분기 및 연간 시도별 공공업종 중화학물 분산한결과 섬유·의복·신발류가 수출부진으로 90년에 비해 생산이 감소했으나 자동차, 전기전자·섬유류 등의 차전기전자·섬유류 등의 내수 및 수출 호조로 광공업 전체의 성장률은 8.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조업 생산이 8.3%를 올렸는데 중화학공업부분의 섬유정제·유리·철강 등의 호조로 90년(1.3%)에 이어 12%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철강업부품(음료용품)(1.3%)·식품(3.6%)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섬유·고무제품의 감소로 0.7% 증가에 그쳤다.

품목별로는 생산액

부분의 경우 제조설비 기계 감소와 건설잠미·산업용 기계 등의 둔화로 자본재는 90년(22.1%)보다 크게 떨어진 12.5%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원자재는 수출 및 내수 호조에 따라 90년(9.1%)보다 조금 높은 10.3% 증가했다.

소비재부분의 경우 비내구재는 90년보다도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내구재가 크게 증가, 전체적으로는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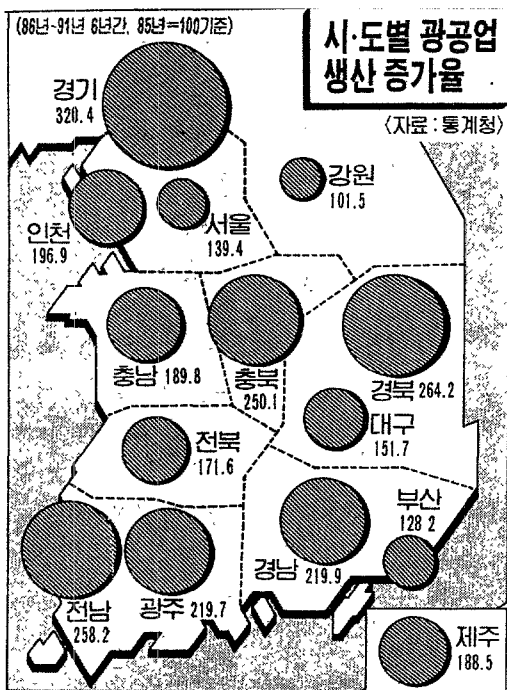
광공업 증가 全南 20% 최고

작년 市道別동향 光州 6.6% 감소 등 大도시는 침체

북부지역은 20%의 증가를 보였다고 밝혔다. 광공업은 1991년 12월 20%의 증가를 보였으며, 1992년 1월 17.1%의 증가를 보인 결과, 경기(16.1%), 전북(8.9%), 경북(8.7%), 충남(8.1%) 순으로 이월치연(전년도 대비) 0.1%의 생산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정부예산 지원이 신

그러나 광공업이 전년대비 6.6%나 광공업 생산이 감소했음을 비롯해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와 광공업 생산이 증가한 85년은 1백15를 기록, 6년 동안 제작된 광

이 기간 전국 광공업은 1백98.3을 6년간 2백가운 생산증가를 보였다. 이같이 광공업생산이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호황을 보인 중화학공업이 경기·전남·전라지역에 집중됐던 반면, 불황을 타고 있는 철강업은 대도시와 중부권에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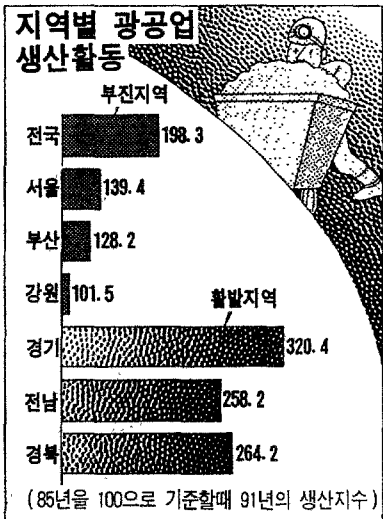


새공단 들어선 忠北·全南 두각

통계청, 91년 鑛工業 조사

중화인민공화국의 광공업의 발전은 91년 6년간 광공업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1년 6년간 광공업은 5.3배 증가하는 고성장을 보였다. 반면 서울·釜山·大邱 등 3대도시의 광공업은 제한된 신발·섬유산업 등에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의 광공업의 발전은 91년 6년간 광공업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1년 6년간 광공업은 5.3배 증가하는 고성장을 보였다. 반면 서울·釜山·大邱 등 3대도시의 광공업은 제한된 신발·섬유산업 등에



의 산업화로 광공업생산이 지난 6년간 평균치를 밑도는 1백80~1백50%의 성장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江原지역은 지난 해의 광공업생산지수(88

가에 그쳤다. 그러나 품목별로는 제조·설비기계 등 생산재보급이 100%차에 이르는 소비재의 생산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생산도 중화인민공화국의 광공업생산지수(88

합인의 산업생산이 3.2배나 성장, 江原지역(1.98배)을 훨씬 웃돌았다. 한편 서울은 사업체수가 줄면서 산업생산이 88년(4.6%)과 91년(9.5%)에 비해 감소로 전환, 1991년 현재로 1.3배 성장에 머물렀다. 慶北지역은 3低성장기

으로 나타났다. 慶南지역은 자동차·석유(蔚山), 기계(昌原)·선박 등의 활황에 힘입어 85년 대비 2.2배의 증가를 기록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釜山의 생산의 공장을 慶南의 金海市로 이전, 慶南의 많은 기업이 다 주종산업인 신발업에 급속한 성장을 견디지 못하며 지난 6년간 전국 평균성장률을 밑도는 1.3배 증가에 그쳤다.

江原은 6년동안 제자리 걸음 自動車·에어컨등 소비재 好調

보통 1백으로 기준)가 1백1.5를 기록, 산업활동이 지난 6년간 거의 제자리의 머물렀다. 통계청이 발표한 「91년 市·道별 광공업생산활동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全南산업생산의 전년 대비 8.1% 증가한 가운데 慶南지역이 12%로 신장, 광주지역은 0.7%의 증가

업의 질을 전 全南(울산·성주), 慶南(우주·장미·석유), 京畿(안산·장미차) 등의 각각 20%, 17%, 1%, 16%, 1%의 높은 성장세를 보인 반면 光州·江原·서울 등 5개市·道는 오히려 줄었다. 지난 6년간의 지역별 생산활동 추이를 보면 京畿지역은 始華(한국의 조성과 서울의 공장이전의

산업의 활성세를 보이는 산업생산이 85년에 비해 2.6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全南지역은 光陽제철과 麗川성유단지의 설비신설에 힘입어 지난 6년간 2.6배나 늘었고 光州도 2.2배 증가한 것

江原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지난 6년간 겨우 1.5% 성장에 머물렀다. 江原의 광공업 매출액도 전체의 1.6%로 濟州를 제외하면 전격 최하위다. 한편 忠北은 陰城·鎭川 등의 공단조성과 시멘트산업의 활황으로 85년 대비 2.5배 증가하는 등 두부신 신장세를 보였다.

〈團圓泓기자〉

物價 오름세 꺾였다

2월중 소비자 0.5% 올라

버스값등 공공요금 상승 주도

1월에 이어 2월중에도 물가가 예년에 비해서는 다소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제기획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2월중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2월말에 비해 0.5% 상승, 누계로는 전년 말 대비 1.3%의 신장세를 보였다.

도매물가는 포함세를 유지해 누계로는 1월말과 같은 0.3%에 그쳤다.

작년 1~2월 두달동안 소비자물 도매물가가 3.5%·1.2%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오름세가 훨씬 수그러든 셈이다.

2월중의 소비자물가는 시내버스(일반) 23.5% 등 교통요금이 주폭으로 올랐는데 한편으론 공공요금들이 평균 1% 올라 상승세를 주도했고 理·비용료, 인시화원비등 개인서비스 요금도 1.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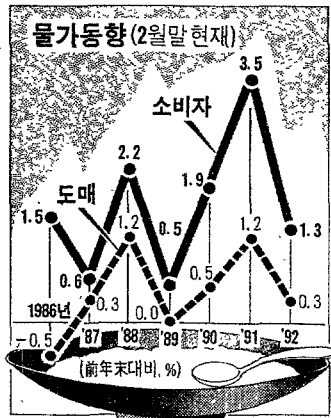
설립 성우기가 끼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축산물 가격은 0.2% 증가에 그쳤다.

품목별로는 배는 20.9% 올랐고 복어는 11.4% 올랐으며 삼투와 시금치는 각각 30.2%, 11.9%가 내렸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2월중 1%가 올라 가장 과를 올렸을 보였고 다음은 전주(0.9%), 인천과 부산(각각 0.8%)의 順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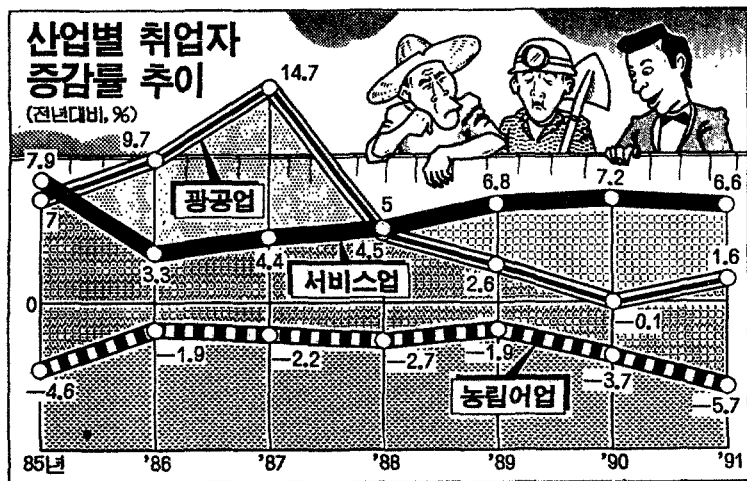
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2월중에는 교통요금이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 오름세를

가 다소 주춤했지만 신학기 등독금이 오르는 3월에는 물가가 다시 불안정해질 것으로 우려돼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조업 취업기피 뚜렷

작년 고용動向 1.8%증가에 그쳐



작년 우리나라 경제활동 참가율은 63년 조사 실시 이래 가장 높은 60.6%를 기록했으나 제조업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26.6%로 90년 26.9%보다 낮아진 반면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33.4%에서 34.4%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15.2%로 90년 15.1%에서 작년 15.3%로 높아진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90년 19.2%에서 19.3%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이 9.9%가

제조업 2.3% 줄어든 「CDD업종」 커져

트라이앵글업종은 조사된 중소기업체의 생산적인 업종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 1월 1일 기준 1만 2천 8백 57명 취업자가 1천 8백 57명(13.6%)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가 4만 9천 6백 90명(1.8% 증가)하게 되고 서비스업은 1만 46만 8천 8백 69명(0.9% 증가)했다.

이 기간 33년간 대졸인력으로부터 취업자가 4만 9천 6백 90명(1.8% 증가)하게 되고 서비스업은 1만 46만 8천 8백 69명(0.9% 증가)했다.

해 14만 1천명(1.5%)를 얻었다. 경기(3.7%) 제조업(3%) 지역별 증가율이 높은 반면 전북(0.5%) 전남(0.6%) 충남(0.5%) 충청남(0.5%) 충청북(0.5%) 취업자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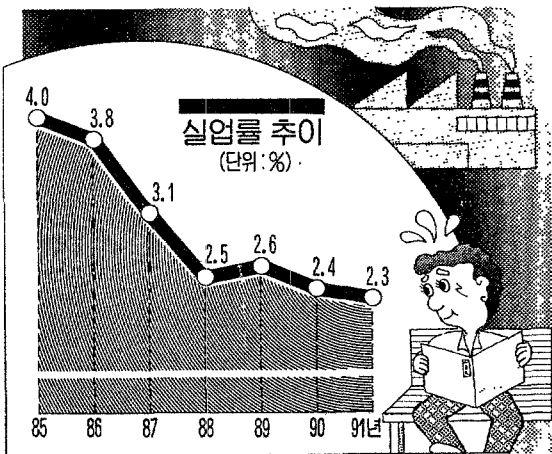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26.6%로 90년 26.9%보다 낮아진 반면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33.4%에서 34.4%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15.2%로 90년 15.1%에서 작년 15.3%로 높아진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90년 19.2%에서 19.3%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26.6%로 90년 26.9%보다 낮아진 반면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33.4%에서 34.4%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15.2%로 90년 15.1%에서 작년 15.3%로 높아진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90년 19.2%에서 19.3%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26.6%로 90년 26.9%보다 낮아진 반면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33.4%에서 34.4%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15.2%로 90년 15.1%에서 작년 15.3%로 높아진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90년 19.2%에서 19.3%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失業率 가장 낮았다

2.3% 통계시작 63년 이후 최저



취업자수 1년새 54만명이나 증가 農林漁業인력은 18만 9천명 줄어

이에 따라 실업률이 90년(2.4%)보다 낮은 2.3%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실업률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시작한 지난 6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2.3%로 집계됐다.

또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를 뺀 취업자수만 지난해 1천8백57만 6천명으로부터 전년보다 54만명이나 늘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전년보다 0.6%포인트 증가한 66.6%를 기록, 91년 63년 이후 가장 높았다.

농림어업종류가 가장 높은 실업률인 4.9%로 집계된 반면 제조업종류는 2.0%로 가장 낮았다. 서비스업종류는 2.6%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 경제활동참가율은 6대도시중 인천과 서울이 60%를 보이고 9개 도중에서는 제주와 전남이 65%를 웃돌았다. 경제활동인구증가율은 6대도시중 광주·인천이 7.6%의 증가율을 기록, 대전은 6.1%로 뒤를 이었고 9개도에서는 경기·제주가 3.1%, 3.4%로 높게 나타났다. (權赫燦 기자)

91년 지역별 고용동향 (단위: 천명, %)

지역	취업자	전년비	실업자	실업률
전국	18,576	540	436	2.3
6대도	8,866	400	301	3.3
서울	4,705	200	163	3.3
부산	1,610	68	55	3.3
대구	909	38	33	3.5
인천	739	42	22	2.9
광주	456	33	14	3.0
대전	447	19	14	3.0
9개도	9,711	141	135	1.4
경기	2,470	46	46	1.8
충청	677	7	7	1.0
강원	588	3	7	1.2
충남	834	14	8	1.0
충북	825	-4	11	1.3
전남	1,160	-11	11	0.9
전북	1,307	11	16	1.2
경북	1,607	26	27	1.7
제주	243	7	2	0.8

통계청, '91경제인구동향 발표'

통계청이 5일 발표한 '91년 전국 및 지역경제활동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수는 43만 6천명(연령별로는 90년에 비해 1만 5천명의 증감)을 기록하고, 취업자수는 1천 857만 6천명으로 전년 대비 54만명 증가했다.

지역별 실업률도 감소세를 보였다. 전국 평균 실업률은 2.3%로, 6대도시 평균은 3.3%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9개도 평균 실업률은 1.4%로, 경기(1.8%), 강원(1.0%), 충남(1.2%), 충북(1.0%), 전남(0.9%), 전북(1.2%), 경북(1.7%), 제주(0.8%)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실업률이 2.0%로 가장 낮았으며, 서비스업은 2.6%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농림어업은 4.9%로 가장 높았으며, 건설업은 4.5%로 뒤를 이었다. 도매·소매업은 3.9%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6대도시중 인천과 서울이 3.3%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은 3.0%로 가장 낮았다. 9개도중에서는 경기(3.1%), 제주(3.4%)가 가장 높았으며, 제주(3.4%)가 가장 높았다. (權赫燦 기자)

서비스부문 종사자 계속늘어... 전체산업의 56%차지

서비스업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체 산업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종은 지난해 910만 9천명에서 920만 9천명으로 10만 명 증가했다. 제조업종은 1,000만 명에서 1,050만 명으로 50만 명 증가했다. 농림어업종은 200만 명에서 210만 명으로 10만 명 증가했다.

서비스업종은 전체 산업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종은 46%를 차지하고 있다. 농림어업종은 8%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종은 지난해 910만 9천명에서 920만 9천명으로 10만 명 증가했다. 제조업종은 1,000만 명에서 1,050만 명으로 50만 명 증가했다. 농림어업종은 200만 명에서 210만 명으로 10만 명 증가했다.

서비스업종은 전체 산업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종은 46%를 차지하고 있다. 농림어업종은 8%를 차지하고 있다.

실업률

지난해 사상최저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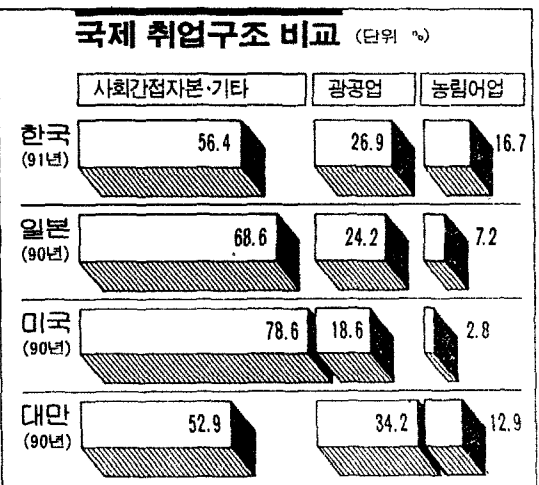
완전고용수요 需給불

기업은 완전고용인 고용을
향의 이윤을 실현한 후부터
유저를 보이기 시작했다. 10
정액에 달하는 인력수급불균
한 기록을 나타내 15.19세
인 10대 학생들의 지난해
9월 88%가 9월 9.1%의 실
업률에 9.03%에 계속
상승되고 20대(20~29세)의
실업률도 20.2%에 달했다.
(%)의 2.3%에 달한다.

59세 이하의 10대 학생들의
실업률에 10.2%에 달하는
기업의 고용수요 불균

섬유부

10·20代가 전체의 68%



한국은 전 세계의 평균 실업률 5.7%에 비해 10대(15~19세)의 실업률(20.2%)이 4배에 달한다. 20대(20~29세)의 실업률도 11.1%에 달한다. 30대(30~39세)의 실업률은 6.1%에 달한다. 40대(40~49세)의 실업률은 3.1%에 달한다. 50대(50~59세)의 실업률은 2.3%에 달한다. 60대(60~69세)의 실업률은 1.1%에 달한다. 70대(70~79세)의 실업률은 0.8%에 달한다. 80대(80~89세)의 실업률은 0.5%에 달한다. 90대(90~99세)의 실업률은 0.3%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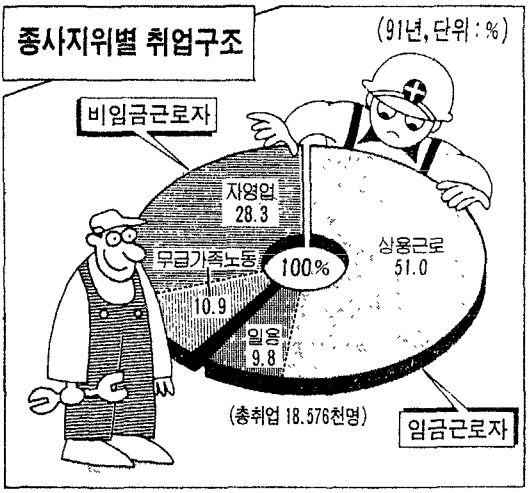
권형 심화

양적 성장과(전통형)보다(신형)의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인력 관리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인력 관리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인력 관리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인력 관리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인력 관리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인력 관리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이 91년 2.5%의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인력 관리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인력 관리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항大邱가 3.5%로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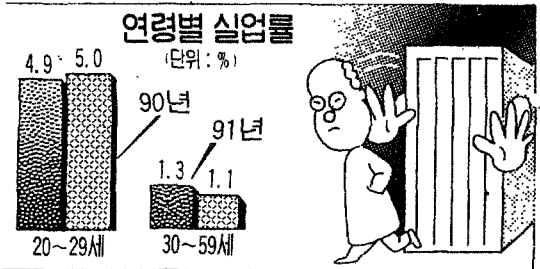


1분기에는 0.5%의 인건비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의 인건비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의 인건비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91년 2.5%의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인력 관리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인력 관리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柳韓봉 기자】

60세이상 경제활동인구 증가



단순기능인력의 부족과 평균수명의 연장등이 60세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91년 전반기 지역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60세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인구가 1970년 441천명에서 1980년 720천명, 1985년 882천명, 1990년 1,294천명, 1991년 1,361천명으로 증가했다. 또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70년 1.1%에서 1991년 2.3%로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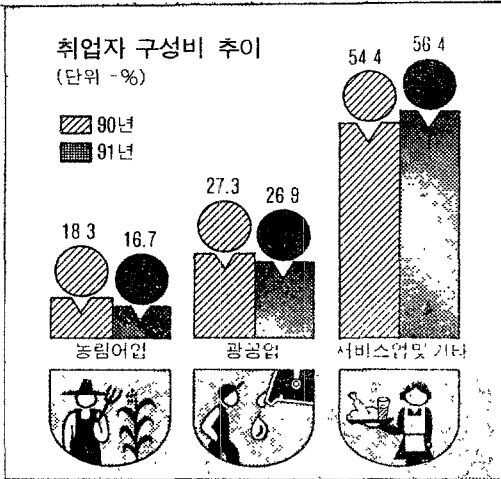
매년 늘어 작년 百36만명

20代·여성 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져

올해 15~1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인구는 88만 7천명에서 작년의 86만 6천명으로 늘었다.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는 85년 88만 2천명, 90년 1백 29만 4천명, 91년 1백 36만 1천명으로 계속 늘었다. 또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70년 1.1%에서 1991년 2.3%로 늘었다.

20대와 19세 이하의 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작년 15~19세 실업률은 43만 9천명, 실업률은 23.3%로 90년 대비 각각 1만 5천명과 0.1%포인트가 감소,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실업수준을 보였다.

통계청 「9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요약



제조업 취업자의 생산적인 활동이나 불투명한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아 3D(중고숙련인력, 중장년층, 중임금)인력 30세 미만 인력 비중이 50%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다.

또한 서비스업은 3차 산업의 취업자가 불투명한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아 전직업의 고용 비중이 계속 감소해 왔으며

◇연령계층별 실업자 추이 (단위=천명, %)

연령	성별	실업률		
		89	90	91
전체		460	451	436
15~19		53	58	59
20~29		230	229	236
30~59		175	157	138
60세 이상		3	5	4
				2.6
				2.4
				2.3
				8.0
				9.1
				9.3
				5.0
				4.9
				5.0
				1.5
				1.3
				1.1
				0.4
				0.3

실업률 2.3%... 20대 청년의 불여

다만, 90년 통계청의 발표한 「91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활동인구는 90년보다 2.8%가 늘어난 1천900만 1천 명으로 집계됐다. 1천36만 1천 명이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늘었지만 실업률도 2.3%로 전년(2.4%)보다 낮아졌다. 실업률의 추이는 1989년 2.6%, 1990년 2.4%, 1991년 2.3%로 나타났다. 이 중 15~19세 연령층의 실업률은 8.0%, 20~29세 9.1%, 30~59세 5.0%, 60세 이상 0.3%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2.6%로 전년과 같은 2.6%로 유지됐다. 1989년 2.6%, 1990년 2.4%, 1991년 2.3%로 나타났다. 이 중 15~19세 연령층의 실업률은 8.0%, 20~29세 9.1%, 30~59세 5.0%, 60세 이상 0.3%로 나타났다.

고정급여 근로자 전체의 60.8% 서비스 고용증가 전체 신규 초과

취업자率 서울·光州등 높고 全南 감소

취업자 증가율을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光州(7.8%), 仁川(6%), 서울(5.8%), 4%(충청) 등 도시지역은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全北(0.5%) 감소, 全南(0.9%) 감소(충청) 등 지방의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지역별 지난해 大邱가 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釜山(3.3%), 光州·大田(3%) 등이 전년보다 2.3%를 웃돌았으며 京畿(1.8%), 慶尙(1.7%), 全南(0.9%) 및 濟州(0.8%) 등은 비교적 저위로 집계됐다.

취업자를 지역별로 보면 고정급여를 받는 일반근로자가 전년 대비 42만 2천 명이 늘어난 1천 1백 28만 7천 명으로 전체의 60.8%를 차지한 반면, 비정규직은 5백 28만 9천 3백 3명, 無給근로자는 2백 2만 9천 100 9명, 파트타임은 7백 8만 9천 9백 33명, 32.9%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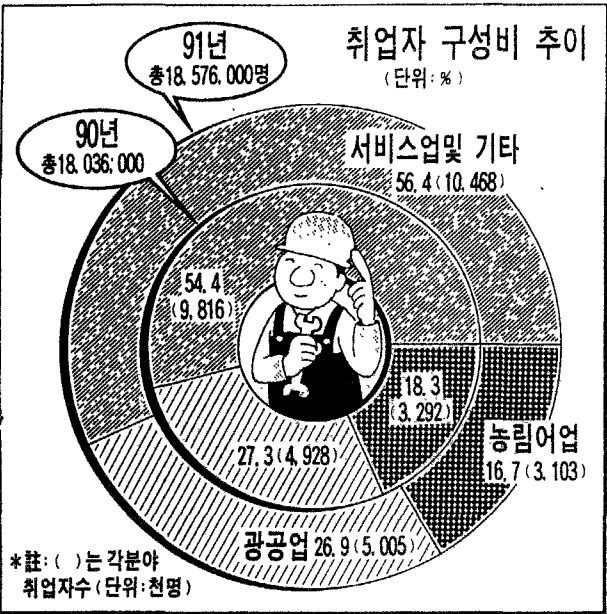
특히 비정규직은 전년 대비 1만 5천 5백 71명 증가한 48만 9천 9백 93명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43만 9천 9백 93명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 鄭東哲 기자 〉

제조업이탈·서비스업연전

지난해 경제활동인구 중 서비스업의 비중이 56.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제조업의 비중은 43.6%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신규 취업자 수를 훨씬 능가, 제조업인력의 서비스업 이동 현상까지 나타났던 것으로 분석됐다.

5만 5천 명이 탈락한 91년 3차 산업의 취업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 91년 3차 산업의 취업자 수가 18,576,000명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반면 1차 산업의 취업자 수는 1,100,000명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했다. 2차 산업의 취업자 수는 1,800,000명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전체 신규 취업자 수는 1,100,000명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지난해 經濟활동인구 동향

製造業 비중 3년

신규취업 54만명

경제활동인구 65만 2천명의 증가했다. 91년 3차 산업의 신규취업자가 54만 6천명으로 전년 대비 26.6% 증가했다. 2차 산업의 신규취업자는 18만 9천명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1차 산업의 신규취업자는 1,100명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했다. 서비스업의 신규취업자는 18만 1천명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다. 91년 3차 산업의 취업자 수가 10,468천명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2차 산업의 취업자 수는 1,800천명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1차 산업의 취업자 수는 1,100천명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했다.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8,108천명으로 전년 대비 43.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 취업자수와 실업률>
(단위:천명·%)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률	
	1991	전년대비		1991	전년대비		1990	1991
		증감	율		증감	율		
전국	19,012	525	2.8	18,576	540	3.0	2.4	2.3
6대시도	9,167	388	4.6	8,866	400	4.7	3.6	3.3
서울	4,868	177	3.8	4,705	200	4.4	4.0	3.3
釜山	1,665	70	4.4	1,610	68	4.4	3.3	3.3
山邱	942	45	5.0	909	38	4.4	2.9	3.5
仁川	761	44	6.1	739	42	6.0	2.9	2.9
光州	470	33	7.6	456	33	7.8	3.2	3.0
大田	461	19	4.3	447	19	4.4	3.2	3.0
9개道	9,846	138	1.4	9,711	141	1.5	1.4	1.4
京畿	2,516	76	3.1	2,470	88	3.7	2.4	1.8
江原	684	8	1.2	677	7	1.0	1.0	1.0
忠北	595	5	0.8	588	3	0.5	0.8	1.2
忠南	841	15	1.8	834	14	1.7	0.7	1.0
全北	836	△4	△0.5	825	△4	△0.5	1.3	1.3
全南	1,171	△11	△0.9	1,160	△11	△0.9	0.8	0.9
慶北	1,323	14	1.1	1,307	11	0.8	1.0	1.2
慶南	1,634	27	1.7	1,607	26	1.6	1.6	1.7
濟州	246	8	3.4	243	7	3.0	0.4	0.8

연속 떨어져

3차産業은 65만명 늘어

국민소득이 계속 상승하면서 3차 산업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 특히 3차 산업은 1991년 65만명 늘어 1990년 대비 3.4% 증가했다. 3차 산업은 1991년 11만명 증가한 111만명이다. 1차 산업은 1991년 11만명 증가한 111만명이다.

이 분야 성장을 보인 데 기인한 것이다. 특히 서비스업의 성장과 함께 1차 산업은 11만명 증가한 111만명이다. 1차 산업은 1991년 11만명 증가한 111만명이다.

로 빠져나가 실업률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실업률도 높아져 갔다.

특히 3차 산업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1991년 65만명 늘어 1990년 대비 3.4% 증가했다. 3차 산업은 1991년 65만명 늘어 1990년 대비 3.4% 증가했다.

또한 1차 산업은 11만명 증가한 111만명이다. 1차 산업은 1991년 11만명 증가한 111만명이다.

국민소득이 계속 상승하면서 3차 산업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 특히 3차 산업은 1991년 65만명 늘어 1990년 대비 3.4% 증가했다. 3차 산업은 1991년 65만명 늘어 1990년 대비 3.4% 증가했다.

이 분야 성장을 보인 데 기인한 것이다. 특히 서비스업의 성장과 함께 1차 산업은 11만명 증가한 111만명이다. 1차 산업은 1991년 11만명 증가한 111만명이다.

국민소득이 계속 상승하면서 3차 산업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 특히 3차 산업은 1991년 65만명 늘어 1990년 대비 3.4% 증가했다. 3차 산업은 1991년 65만명 늘어 1990년 대비 3.4% 증가했다.

<박수현기자>

青年·女性 실업률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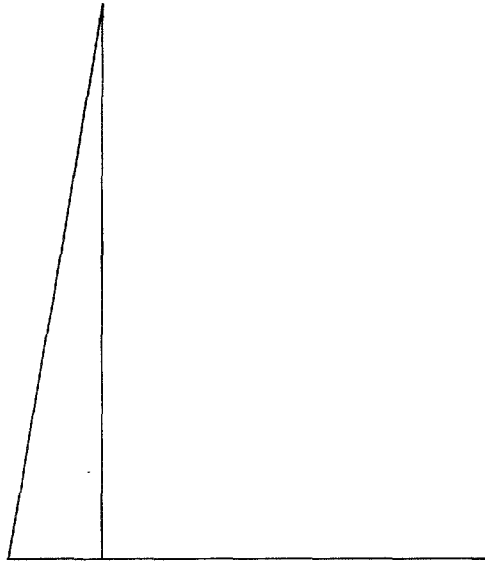
社說

통계청의 발표한 91년말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실업수급의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음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총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80.6%라는 사상 최고치의 이른 반면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인 2.3%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상당하고 부정적인 현상임에 틀림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면의 추세를 예시도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젊은세대와 여성 실업률을 유심히 관찰하여야 한다고 사설은 새로운 문제점이므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하 계층과 여성 실업률의 전년 대비 0.2%포인트나 증가했다는 것은 해외노동력 수입까지 거론되고 있는 지금의 人力難을 생각할 때 3D기피현상이나 노동집약산업의 부진등이론도 설명되지 않는다. 후면출발기고 있다고 하겠다. 적실한 인력나를 점으면서도 젊은 계층과 여성인력의 상당부분이 무용화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이들의 활용을 막는 장애요인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뜻하고 그것이 때문이다.

여성인력 활용의 장애요인으로 타아수용 제도적인 시설부족과 아직도 남아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지적할 수 있으며, 해외 실업인력의 경우와는 현행 교육제도와 병역의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행 교육제도와 사회적인 인식이 대화전화를 하나의 필수요건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19세 전후의 젊은 인력의 활용을 제한시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실업제고교는 그렇지도 않지만 인문계고졸생의 경우, 大學진학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음을 생각할 때, 현행 교육제도와 병역은 人力이 유효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남기고 있으며, 또 병역미필자에 대한 고용기피현상도 入隊前의 수많은 전령기 人力의 활용을 막는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필요인이 지금까지는 인력수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력수요가 격증함으로써 경제활동참가율이 60%를 넘어선 지금 젊은 계층과 여성인력의 유향화를 이차면 방지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는 점에서 해외인력수입을 저탄하기 전에 우선 국내인력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개선을 서두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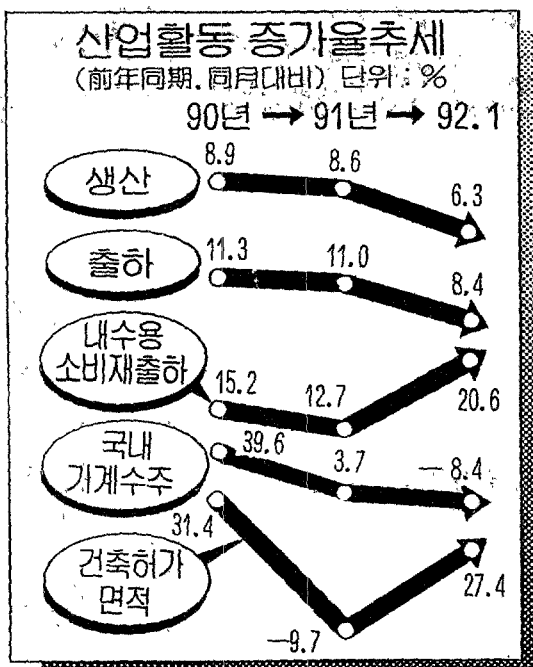


内需경기 들먹 설비투자 둔화

선거철 「경제 먹구름」

각종공사 급증... 과열조짐

기계류出荷 감소 「高물가 속 저성장」 진입 분석도



한동안 정체세를 보였던 건설투자와 민간소비 등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선거철을 맞아 일시적인 각종 공사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산업생산과 설비투자의 증가세는 뚜렷한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불가호를 세가 계속돼 경제안정기 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수급증가를 전정시키기 위해 통화긴축을 총수요관리정책이 지속적인

으로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7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중 국내 건설수주는 고속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사무실 주택 등의 건설공제로 작년 1월에 비해 무려 35.9%나 늘어났고 건축허가 면적도 27.4%나 증가하는 등 건설경기가 유행이다

이와 함께 증가율을 유호도로 보며 도소매 판매가 격이 작년 1월에 비해 10.8% 증가한 데다 내수용 소비재 출하도 무려 20.6%나

성장률은 6.9%로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를 포함한 고정투자 증가율은 7.2%에 머무는 등 성장률 및 투자 증가율이 작년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또 정부와 민간투자의 높은 소비수준이 유지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중 작년 동기 대비 9.5% 상승을 유지, 우리 경제는 성장과 부자가 둔화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에 처해 속의 고물가 현상 국면에 진입할 징후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해수주거용이 1441.3% 증가한 114.9%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생산은 건축규제 완화로 71.8% 증가한 11.8%로, 건설경기 과열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소비의 경우 지난 1월중 이산품으로 건축 자재 가격이 활발했고 백화점 등의 할인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도소매 판매가 격이 작년 1월에 비해 10.8% 증가한 데다 내수용 소비재 출하도 무려 20.6%나 늘어나는 등 원료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이 기간중 산업생산과 출하는 작년 1월에 비해 각각 6.3% 및 8.4% 증가에 그쳐 20%의 상승률은 증가세를 보였던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중가세가 현저히 둔화됐다. 또 설비투자는 국내 민간 기계수주가 8.4%나 줄어 작년 같은 기간 18.7% 증가에 비해 감소세를 보였다. 작년 1월중 20.8%나 늘어났던 기계류 내수 출하도 4.4%가 감소해 작년 하반기 이후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태에 있다. 한편 全經聯(全聯)은 韓國 경제 연구원(7월) 1.4분기(1~3월) 경제 동향 및 연구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연간 국민총생산(GNP) 성장률은 6.9%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를 포함한 고정투자 증가율은 7.2%에 머무는 등 성장률 및 투자 증가율이 작년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또 정부와 민간투자의 높은 소비수준이 유지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중 작년 동기 대비 9.5% 상승을 유지, 우리 경제는 성장과 부자가 둔화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에 처해 속의 고물가 현상 국면에 진입할 징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기와 맞물려 시정되지 않는다면 경기침체는 상당기간 깊숙이 진행될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1월의 생산은 현대自動車의 노사분규의 일시적인 영향 등을 받은 특수요인이었고, 수출증가가 이어진 두자릿수를 지키고 있던 만큼 좀더 지켜 봐야 확실한 추세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아이엠에이(한정)생산·출하가 전년동반기보다 10%나 늘어난 반면 도제조업가동률은 88.3%로 최근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이그노와 이안(조선정제)은 출하량이 10월보다 10% 이상 늘어난 반면 이그노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10% 이상 늘었다. 한편 자동차업계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은 산업생산증가율이 전년동반기 대비 6.3%를 기록, 지난해 연간증가를 8.6%나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 7.5%에 불과한 미진정인분(미정제)도 2%포인트 이상 증가한 28.4%로 2%포인트 이상 증가한 13.6%인 반면 수출증가율은 13.6%

生産·출하 낙달째

人力이탈 불구 실업률 2.8%

석유정제·산업용 화학제품업종 크게 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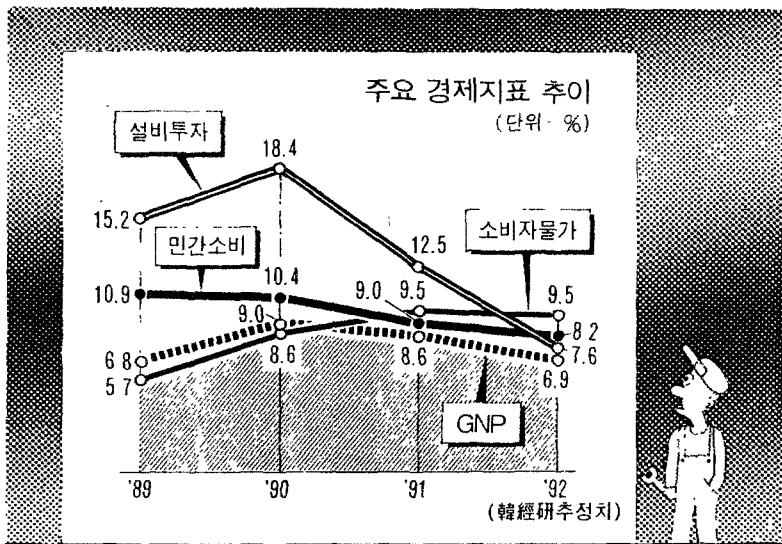
3%가 감소, 설비투자는 당분간 둔화될 전망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월총결기는 건설경기 회복과 함께 소비증가 등 내수호조에 힘입어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총생산수도 전월보다 1.5%가 올랐다. 지난해 1월(2.1%)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유지했다. 경기총생산지수는 0.3%의 소폭증가로 지난해 12월(1.3%)에 비해 크게 하락, 대조를 이뤘다.

건설업계의 실행지표인 건축업자면적은 지난해 8월 이후 지속적으론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올들어 이례적으로 27.4%의 높은 증가세로 반전했다.

이그노출하가면적의 절반의 상을 차지하는 주가용업자가 지난해 1월만 무려 10%수준에 이르렀는데다 新노자아파트 허가분량의 증가로 1백41·



으로 지난해 9월 이후의 감소세 지속으로 1월중 12만 4천명의 출근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광역경제권에서도 13만 3천명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사회서비스부문은 △석유정제(15만 3천명) △도소매(13만 7천명) △서비스업(6천명) 및 △기타(13만 1천명) 등으로 총 83만 7천명(6.3%)의 취업자가 늘었다. 특히 석유정제 부문은 고용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1월은 전년 동기 대비 5만 1천명(2.5%)이 늘었으나 지난해 4월 이래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와함께 출생연차에 부분별로는 1980년대생이 사회서비스업의 취업연령이 가장 8.2%로 11.9%의 높은 신장 반면 1970년대생은 27.9%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鄭東植기자〉

통계청 「1월 산업활동지표」 분석

국내경기(美·日·獨 등 선진국과 함께 不景氣속으로 빠진 것)이다.

7월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중 산업활동지표는 생산총액이 4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과소비·건설경기 과열이 여전히 기세를 부린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수출증가율, 해외의 대한 자선금이 살아나지 못하고 국제수지 적자가 누달만에 30억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수출 주축론의 관매부진(財界의 견해)은 타개 1호로 부상한 실정이다.

「소비·서비스경기」 고조, 제조업경기 퇴조가 總體론

내리막

내需과 열여전 「거품」안가셔

%가 감소했다.

투자심리가 냉각되면서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가 지하철차량 전차교 환기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모두 부진하여 작년 동기 대비 17.1% 감소했다. 기계류 내수출입도 지난 12월에는 8.4% 증가했으나 1월에는 4.4%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해외 기계수주를 나타내는 기계류 수입증인서(I/L)발달률도 16.3%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산업활동 감소추세가 이어져 71.8%가 줄어들었고 고용증가율도 3.3%의 소폭증가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국내건설주요역시 35.9%가 급등, 지난해 평년치인 13.9%를 크게 웃돌았다. 이 가운데 신규 주택건설이 민간제조업으로부터의 수요수는 18.1% 줄어들었으나 공공주택은 28.3% 증가했다. 사물상 주택의 민간비제조업 46.7%의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관련지표인 도소매 판매액이 이삼달째로 인한 자동차 판매액가 및 백화점의 할인판매회장은 1월중 10.8%의 비전진률 증가세를 보였다. 내수용 소비재출입도 대형수출차 등 내재 0.2%의 증가등화에도 불구하고, 외부화장품 등 비내수미재출입은 29.7%의 증가율으로 20.6%의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한편 1월중 산업활동지표는 2.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내렸지만 양적수준을 보였다. 이월한

제조업업별 감소폭 건설 등 서비스업이 2.5%가 두드러져 서비스업의 인력증가도 지수되고 있다. 1월중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는 1천 8백 2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가 증가했으며 경제활동인구는 57.7%로 0.8%포인트 높아졌다. 이 가운데 취업자수는 1천 7백 74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실업률은 2.9%로 집계됐다. 산업활동지표 제조업 부문 취업자가 1월 중의 취업률 증감

社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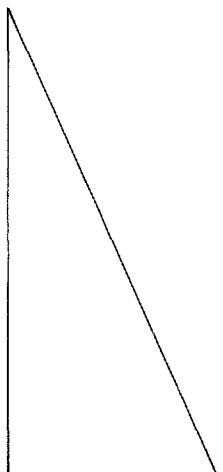
總需要「관리」의 空轉

總需要의 空轉이란 社會의 總需要와 供給의 總需要의 差를 말하며 社會의 總需要는 社會의 總供給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社會의 總供給은 社會의 總需要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社會의 總需要와 供給의 總需要의 差는 社會의 總供給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社會의 總供給은 社會의 總需要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社會의 總需要와 供給의 總需要의 差는 社會의 總供給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社會의 總供給은 社會의 總需要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 社會에서 總需要의 空轉은 社會의 總供給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社會의 總供給은 社會의 總需要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社會의 總需要와 供給의 總需要의 差는 社會의 總供給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社會의 總供給은 社會의 總需要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社會의 總需要와 供給의 總需要의 差는 社會의 總供給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社會의 總供給은 社會의 總需要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總需要의 空轉은 社會의 總供給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社會의 總供給은 社會의 總需要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社會의 總需要와 供給의 總需要의 差는 社會의 總供給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社會의 總供給은 社會의 總需要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社會의 總需要와 供給의 總需要의 差는 社會의 總供給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社會의 總供給은 社會의 總需要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 社會에서 總需要의 空轉은 社會의 總供給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社會의 總供給은 社會의 總需要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社會의 總需要와 供給의 總需要의 差는 社會의 總供給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社會의 總供給은 社會의 總需要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社會의 總需要와 供給의 總需要의 差는 社會의 總供給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社會의 總供給은 社會의 總需要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社說

內需過熱 가볍게 볼일 아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계획의 기본목표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안정과 산업경쟁력제고이다. 이를 위해 과열된 內需를 진정시키고 輸出이 성장을 주도할수 있도록 인력과 자금흐름을 내수보다 수출, 건설과 서비스업 대신 제조업쪽으로 적극 유도하겠다고 했다. 국민은 정부의 그런 목표를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지금도 약속대로 실현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은 전혀 딴 방향으로 가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 1월중 산업활동동향은 정부가 진정시키겠다고 건설과 내수가 과열양상을 띠었는가 하면 제조업의 설비투자, 생산활동, 취업자는 전반적으로 감소내지 둔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과 내수경기의 과열상은 그 정도가 지난해보다 더욱 심한데 그건 결국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1월중의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기대비 28.9%가 늘었고 국내건설수주는 2.6%가 감소했었다. 그런데도 건설경기과열을 걱정했었는데 금년 1월에는 그것이 모두 27.4%와 35.9%나 늘어났다. 특히 제조업건설수주고가 18.1% 감소한 반면 非제조업과 공공부문이 53.3%와 45.7%나 증가한 것은 결코 소망스런 현상이 아닐뿐더러 선거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내수의 과열현상도 이에 못지않다. 내수용소비재 出荷증가율이 20.6%, 그 가운데 非耐久性소비재의 그것이 29.7%나 되는데 1년전만해도 20.2%수준이었다. 또 2.6%에 불과했던 소매판매액증가율이 금년1월에는 약2년만의 최고치인 10.9%를 기록했다.

그러는 한편으로 제조업 설비투자 동향의 중요한 바로미터 가운데 하나인 국내 기계 수주가 1년전의 1.9%증가에서 17.2%의 감소로 돌아서고 산업생산 증가율은 19.9%에서 6.3%로 크게 둔화되었다. 또 인력의 제조업 이탈현상도 계속되어 1년전보다 12만4,000명이 줄었다.

이같은 1월 한달동안의 모습은 정부의 경제운용이 벽두부터 빗나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 이는 우려했던 선거영향이 일찍부터 드러난 결과로서 상당기간 지속될 경기추세로 봐야한다.

바야흐로 총선열기가 익어가는 순간이지만 최근의 내수과열을 결코 가볍게 보거나 선거를 앞둔 一過性현상으로 보면 안된다. 뭔가 잘못되어 있으며 따라서 당국은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생각해야한다. 늘 하는식으로 선거뒤에 가서 긴축을 죄면 된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과열내수를 식히면서 제조업과 수출을 활성화할 보다 확실한 대책이 없으면 안된다.

大學 입학생모집 세일즈時代 온다

人文高生 줄고 定員늘어 95년경 일부대 미달 속출

企劃院·통계청 人口추계 발표

청소년 취학인구의 감소 추세로 고등학교 졸업자수가 전년 대비 1.3% 줄 것으로 예상되고 취업률도 64.7%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오는 94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수가 37만 7천명에서 36만 7천명으로 1%포인트 줄 것으로 예상되고, 취업률도 64.7%에서 64.6%로 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95년경 일부 대학은 입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년제 일반대학의 입학생은 96년 23만 2천명에서 22만 4천명으로 0.4%포인트 줄 것으로 예상된다. 4년제 일반대학의 입학생은 96년 23만 2천명에서 22만 4천명으로 0.4%포인트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등학교 졸업자수는 96년 37만 7천명에서 36만 7천명으로 1%포인트 줄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률은 64.7%에서 64.6%로 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95년경 일부 대학은 입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년제 일반대학의 입학생은 96년 23만 2천명에서 22만 4천명으로 0.4%포인트 줄 것으로 예상된다. 4년제 일반대학의 입학생은 96년 23만 2천명에서 22만 4천명으로 0.4%포인트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등학교 졸업자수는 96년 37만 7천명에서 36만 7천명으로 1%포인트 줄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률은 64.7%에서 64.6%로 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95년경 일부 대학은 입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년제 일반대학의 입학생은 96년 23만 2천명에서 22만 4천명으로 0.4%포인트 줄 것으로 예상된다. 4년제 일반대학의 입학생은 96년 23만 2천명에서 22만 4천명으로 0.4%포인트 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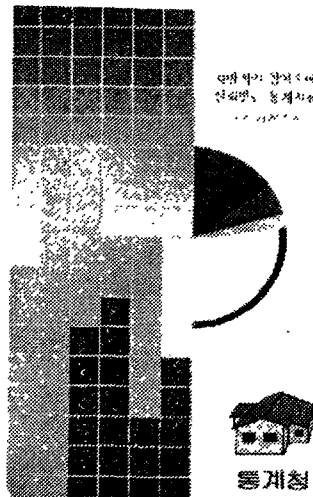
통계청 電話카드 배포

家計조사 응답자 協調을 위해 무료로

파파하게만 느껴지던
점점의 응답에도 特色이
이디어가 등장. 관심을
끌고 있다.

統計廳은 최근 公衆電
話카드의 한쪽 면에 통계

홍보단안이 인쇄된 전화
카드를 주부 제작, 4월
부터 도시가계조사 때 전
국 5천여 가구에
산출물 등으로 제공할
예정.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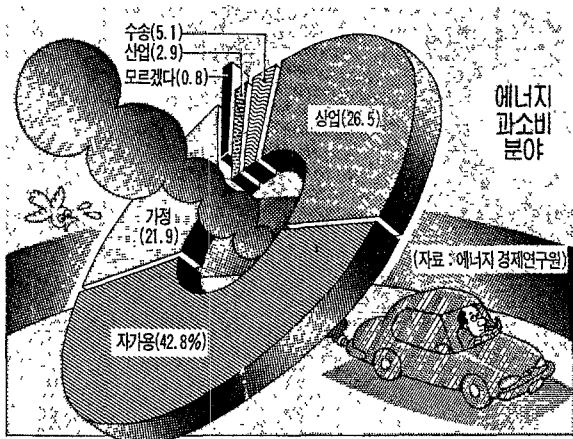
통계청의 한쪽 면에 통계

통계청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민중화익의 증대 및 개
인 집단의 비탄의
신념으로 응답자 부합을
선진한 응답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응답자
의 협조를 적극 유도한
다는 차원에서 特色전화
카드를 교환하게 됐다』
고 말했다.

전부 오느곳에서나 이
용이 가능한 이 전화카
드는 많은 점비를 들이
지 않고도 통계홍보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 <끝>

소비자物價 1.3% 상승 3월



공공·서비스료가 주도

1·2월 안정으로 1분기 으뜸폭은 낮은 편

韓銀·통계청 물가동향 발표

중앙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 올랐다. 이 중 1·2월 물가 안정을 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1.3%로 반등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 올랐다. 이 중 1·2월 물가 안정을 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1.3%로 반등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 올랐다. 이 중 1·2월 물가 안정을 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1.3%로 반등했다.

3월 물가 상승률은 1.3%로 나타났다. 이는 1·2월 물가 안정을 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1.3%로 반등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 올랐다. 이 중 1·2월 물가 안정을 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1.3%로 반등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 올랐다. 이 중 1·2월 물가 안정을 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1.3%로 반등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 올랐다. 이 중 1·2월 물가 안정을 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1.3%로 반등했다.

3월 물가 상승률은 1.3%로 나타났다. 이는 1·2월 물가 안정을 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1.3%로 반등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 올랐다. 이 중 1·2월 물가 안정을 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1.3%로 반등했다.

3월 물가 상승률은 1.3%로 나타났다. 이는 1·2월 물가 안정을 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1.3%로 반등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 올랐다. 이 중 1·2월 물가 안정을 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1.3%로 반등했다.

선거인플레 예상밖 "輕症" 3월物價 1.3% 만 올라

年初대비 2.6% 상승

작년 4.9% 감안 안정된 수준

통계청 발표

통계청이 31일 3월중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변동률을 발표하고, 연초 이후 2.6%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달은 유물세가 14년 중 최고인 4.9%로, 전월 대비 4.9% 상승했다.

이달은 유물세가 14년 중 최고인 4.9%로, 전월 대비 4.9% 상승했다.

이달은 유물세가 14년 중 최고인 4.9%로, 전월 대비 4.9% 상승했다.

이달은 유물세가 14년 중 최고인 4.9%로, 전월 대비 4.9% 상승했다.

이달은 유물세가 14년 중 최고인 4.9%로, 전월 대비 4.9%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濟州가 3.3% 水原·大邱가 각각 3.1%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2/4분기 보도기사

(4월~6월)

여 백

물가지수에 피부물가가 담는다

통계청, 이달부터 算出대상품목 470개로 확대

소비자물가지수대상 추가 및 탈락품목

	추 가	탈 락
식료품	수입쇠고기, 치즈, 명란젓, 맛살, 김, 김밥, 김치, 바나나, 건포도, 잼, 냉면, 떡볶이, 떡갈떡볶이, 녹차, 오렌지주스, 생선초밥, 김밥, 등심구이, 생선초밥, 등심구이, 비후가스, 비후가스	좁쌀, 수수, 쌀, 병어, 사스(콜렌), 들깨, 고랭우유, 다방우유, 무라이스, 나방우유
주거비	단열재(스티로폼), 보일러, 도배공임, 아파트관리비, 이삿짐운송비	기와, 창호지(2)
가구·집기·가사용품	침대, 응접세트, 에어컨, 전자레인지, 식기건조기, 정수기, 전기프라이팬, 진공청소기, 압력솥, 김치냉장고, 램프, 청소용세제, 방석, 커피, 커튼	보온밥통, 곤로, 은수저, 양문솔, 머킷, 성냥, 양초, 솔(8)
피복	기성숙녀복(여름·겨울), 원피스(여름·겨울), 코트(기성복), 바지, T셔츠(겨울), 스웨터(여자·남자), 블라우스(여름·겨울), 아동복, 실내화	맞춤코트, 광목, 양장지(여름·겨울), 재봉사
보건의료	무항청심원, 주사료	(-)
교육·교양· 오락	인시학원비(종합), 미술학원비, 참고서(중학·고교), 가정교사비, 사프렌, 앨범, VTR, 컴퓨터, 카세트, 테이프, 운동복, 운동화, 운동화, 오락시설이용료, VTR대여료	봉투, 가스버너, 라디오통, 도서관비(국·공립)(4)
교통통신	기차료(새마을), 승용차(소형), 휘발유, 엔진오일, 자동차주차료, 자동차보험료, 전화료(기본료), 전화기(무선)	기차료(비둘기)(1)
기타잡비	파운데이션, 로션, 립스틱, 헤어크림,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어, 여행용가방, 가스라이터	일반손목시계, 허리띠(2)
계	(91)	(32)

조사지역도 32개市로 늘려

기준년도 85년에서 90년이면

지수물가와 소비자가 살 제로 느끼는 「피부물가」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지수가 크게 개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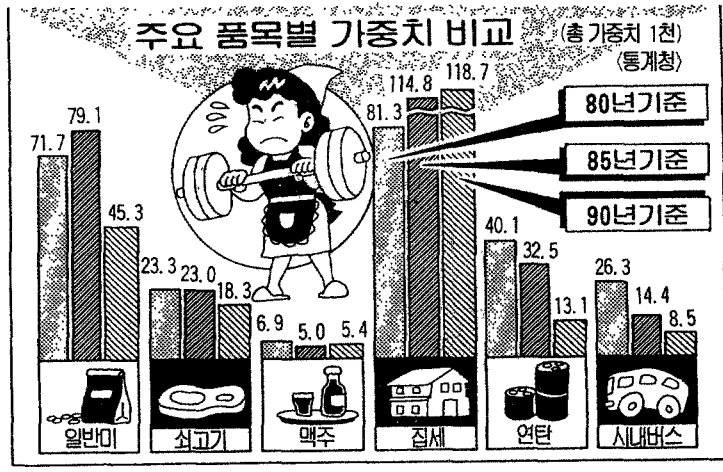
통계청이 8월 지난 85년 기준으로 4백11개 품목에 대해 조사 발표하던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 연도를 90년으로 조정하고 조사대상품목도 4백70개로 늘려 이달 소비자물가지수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지역도 종전 11개도시, 42개시장(재래시장 중심)에서 지방도시 등 32개도시, 64개시장(슈퍼마켓 과 농협공판장포함)으로 늘리고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완지수로 「新鮮식품지수」와 「구입빈도별지수」를 추가해 지수물가와 피부물가의 격차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새로 개편된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생활양식의 변화로 85년 이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진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진 수산물 선양 양초 등 32개 품목이 빠지고 소비지출 비중이 커진 바나나, 우황청심원, VTR 자가용승차 등 91개 품목이 추가됐다.

또 수입식품과 외식음료의 소비증가로 수입쇠고기 바나나 튀김튀이, 그리고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자가용보급 확대도 자가용승차와 휘발유, 자동차주차료 등이 각각 추가됐다.

는 가중치는 85년 3백80에서 3백25로 줄어든 반면 비식료품부분은 같은 기간 6백20에서 6백75로 늘어났다. 비식료품부분 가운데 지출증가가 두드러졌던 부분의 하나가 교통통신으로 공공교통은 가중치가 줄어졌으나 개인교통의 경우 추월승용차가 11.9(소형승용차) 14.4(휘발유) 8.4엔진오일 2.6(자동차주차료) 0.4(보험료) 2.6 등의 지출이 늘었다.



국민소득증가와 소비생활 고급화에 따라 국민들의 소비지출패턴이 크게 바뀌고 있다. 가령 총소비지출가중치를 1천으로 했을때 지난 85년 92.4이던 쌀의 가중치는 90년 53.4로 격감했다.

所得증가로消費양상 크게 변화

統計庁 90년 기준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개편

이제 비해 지금까지 가중치가 없었던 승용차 휘발유, 퍼스컴, VTR, 우형청신원 등에는 높은 가중치가 새로 매겨지고

있다. 그러나 수요가 거의 없었던 수수쌀, 들기름, 양초, 광목, 양잠지 등은 이제 물가 조사대상

에서조차 제외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통계청이 8월 5일만에 실시한 '90년 기준 소비자물가 조사수계결과'를 통해

드러난 것. 이번 개편으로 지난 85년 이후 4백 11개였던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중 32개가 탈락된 반면, 9개 품목은 새로 추가돼 조사대상 품목은 4백70개로 늘었다. 조사대상지역도 11

개이던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중 32개가 탈락된 반면, 9개 품목은 새로 추가돼 조사대상 품목은 4백70개로 늘었다. 조사대상지역도 11

개대도시에서 32개 도시로 확대됐다. 통계청은 빠른편이달을 가부터 신지수체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소비지출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부문은 식생활 고급화, 수입식품비율의 상승, 승용차의 현상이 어우러진 식료품부문에 있다. 그러나 식료품 전체의 가중치는 85년 3백79.9에서 90년 3백24.9로 42.9포인트나 감소했다.

와 관련된 변화는 빠졌다. 또 친대 응전체트 에어컨 전자레인지 식기건조기 정수기 진공청소기 압력솔 김치통 카펫 커튼 등이 새로 추가됐다.

여가생활 선호경향과 지난해 5년간 자가용이 크게 늘어난 영향을 받아 교육교양 오락비와 교통통신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입시학원비, 미술원비, 가정화습지, 스포츠 클럽비, VTR, 퍼스컴, 텔레비전, 낚시대, 운동복, 비디오 테이프, 대우(승용차 대체제외) 휘발유 엔진오일 자동차 주차료 무선전화료 등이 일제히 조사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된 것.

쌀 가중치 격감... 車·PC·VTR 등 급증

에어컨·진공청소기·카펫 등 새로 포함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주요 추가 품목 및 탈락 품목

기준연도	조사대상 품목 수	주요 추가 품목	주요 탈락 품목
1986년	10	쌀, 콩, 쇠고기, 계란, 소금, 설탕, 청주, 쌀, 간장	-
1985년	285	들기름, 양배추, 수박, 포도, 고등어, 아이스케키, 복수임, 검	민어, 낙지, 유부
1970년	338	고속버스료, 항공료, 피아노, 전축, 냉장고, 보리쌀(알맹), 고추장, 맛초(신사, 숙녀), 병어, 당근, 밀갑	옛, 된장, 판재, 브로크, 명주, 모시, 탈지면, 은팔찌, 연색약, 구두약, 베니어판, 펜촉
1980년	394	컬러TV, 전철료, 도시가스, 세탁기, 가스레인지, 손목시계, 카세트테이프, 마요네즈, 케첩, 경유, 한방약, 위스키	채종유, 건빵, 약주, 흑색필름, 인크, 포마드, 밀, 외산약(머큐롬)
1985년	411	피아노하원비, 인시하원비, 풀, 주산하원비, 전산하원비, 햄, 생맥주, 케이크, 과실네타, 붓고추, 시내버스로(좌석), 시외전화료, 병원검사료, 미용료(컷트)	혼합미, 카라멜, 재분말, 합석, 꽃, 슬레이트, 비닐화, 포폴린, 고무신(여자, 남자), 양재하원비, 만년필, 사과(국광)
1990년	470	승용차(소형, 중형), 휘발유, 퍼스컴, 에어컨, 진공청소기, VTR, 전화기(무선), 맛김, 기차료(새마을), 김치, 바나나, 오렌지주스, 휘질담, 보일러, 명동만두, 우형청신원	수수쌀, 사과(플렌), 오무라이스, 들기름, 기와, 초지, 양초, 광목, 양잠지, 봉투, 재분, 국광, 도서, 판, 허리띠, 기차료(비둘기)

수입쇠고기 치즈 맛살 맛김 제조김치 바나나 건포도 잼 냉동만두 녹차 오렌지주스 등 신분이 생선조밥 튀김떡 햄버거 등이 새로 물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외산비의 전체 가중치는 85년 21.2에서 58로 무려 36.8포인트나 높아졌다.

주거비용에서 는 아파트 위주로의 주거생활 변화 반영, 단열제(스티로폼) 보일러 도배공 일당 아파트 관리비 이삿짐 운송비 등이 새로 조사 대상 품목이 된 데 비해 기와

조사대상 품목 470개 - 지역 32도시로 확대

그러나 그동안 피부를 가와 지수를 가간 피리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어 오던 주먹구비비 등이 이번에도 물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계속 시비 처리가 될 전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조사자가 어렵고 새로 추가할 경우 지수체계의 일대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金光顯기자〉

소비자物價指數 체계 바뀐다

스용차등 91개項 추가

성냥·양초·기와 등 32개는 제외

4월부터, 기준도 90년으로 변경

4월부터 소비자물가지수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소비고급화와 생활패턴 변화를 반영, 그동안 지수 물가에 잡히지 않았던 승용차, 휘발유, 김치, VTR, 우

화장수인 이산(인공비닐 등) 91개 품목이 가격조사대상 품목에 추가된다. 반면 소비가 줄어 중요도가 떨어진 산삼, 양초, 기와, 짚살뿔 등 32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신료품의 비중이 4백11개 품목에서 4백

에 줄어든 품목은 85년 기준

◇기준연도별 주요 추가품목

연도	품목수	추가 품목
36년	10	쌀, 콩, 쇠고기, 계란, 소금, 설탕, 술
65년	285	아이스케이크, 목수입, 껌, 고등어 수박, 포도
70년	333	고속버스료, 항공료, 냉장고, 전축, 피아노
80년	394	컬러TV, 전철료, 도시가스, 세탁기, 가스레인지, 위스키, 한방약, 카세트테이프, 마요네즈, 케첩
85년	411	피아노, 입시학원비, 꿀, 주산화원비, 생맥주, 햄, 케이크, 과실네탈, 풋고추, 좌석버스료, 시외전화료, 병원검사료, 미용료(커트)
90년	470	승용차, 휘발유, PC, 에어컨, VTR, 김치, 진공청소기, 무선전화기, 맛김, 바나나, 냉동만두, 새마을기차료, 우항청심환, 튀김닭

※품목수는 전체대상 품목

70개(90년기준)로 59개가 늘어난다.

이번에 불가지수 산출대상에 추가된 품목은 ▲에어컨, 전자레인지, VTR, 퍼스컴(PC) 등 신제품 및 고급품 ▲수입최고기 바나나 등 수입식품 ▲블로그기 튀김닭 햄버거 등 외식품 ▲승용차 주차료 등 개인교통관련 품목 ▲미술학원비가 정화습지 등 교육비이다.

통계청(소득수준상승으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를 감안, 품목별 가중치도 조정했다. 가중치가 85년 기준보다 하락한 품목은 쌀 등 穀類(1백77.7↓62.1), 보건의료(72.4↓53.5), 연료(48.6↓25.6) 등이

통계청은 이번 개편 작업에서 가중치와 조사지역도 종전의 서울·釜山 등 11대도시에 馬山, 全州, 春川 등 21개 도시를 추가, 32개 도시로 늘리기로 했다.

物價조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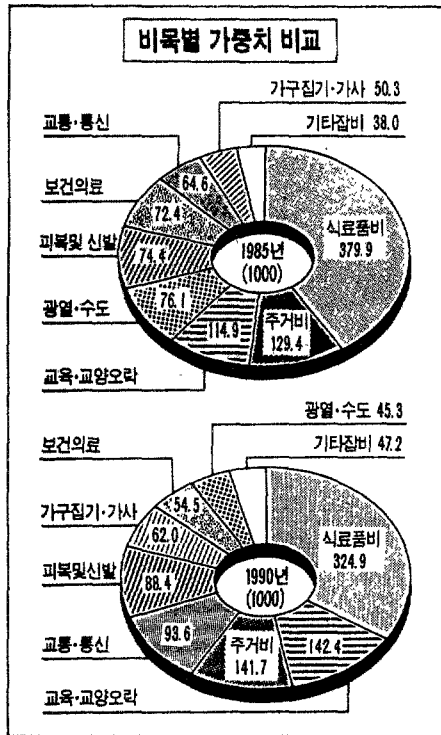
통계청, 조사방법

통계청은 8일 소비자물가지수 조사대상품목을 4백11개에서 4백70개로 늘리고 조사지역도 11개도시에서 32개도시로 확대, 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연도가 현행 85년에서 90년으로 바뀌면서 가장 두

높고 기와 상당·양초·향
호지 등 32개 품목을 제외,
전체 조사대상품목을 4백
11개에서 4백70개로 59개
늘렸다.
이와 함께 조사지역도 서
울릉 11개도시에서 32개도
시로 늘렸는데 새로 포함
된 21개시는 경위 城南議
政府·黃川, 강원 原州江
陵, 충주 忠州, 충북 天安·

90년 기준...消費성향 변화 반영

품목 4백70개...주거·교통費 비중 높아져
쓰임새 줄어든 좁쌀·광목 등 32 품목은 제외



◇基準年度別 主要追加品目 및 脫落品目

基準年度	品目數	主要追加品目	主要脫落品目
36年	10	쌀, 콩, 쇠고기, 계란, 소금, 설탕, 청주, 술, 간장	
65年	285	블기름, 양배추, 수박, 포도, 고들어, 아이스케이크, 목수입, 껌	민어, 나지, 유부
70年	338	고속버스료, 항공료, 피아노, 전축, 냉장고, 보리쌀(압맥), 고추장, 맞춤복(신사, 숙녀), 병어, 담근, 밀갑	엿, 된장, 판재, 불록, 명주, 모시, 탈지면, 은팔찌, 염색약, 구두약, 베니어판, 펜촉
80年	394	컬러TV, 전철료, 도시가스, 세탁기, 가스레인지, 손목시계, 카세트테이프, 마요네즈, 케첩, 경유, 한방약, 위스키	채종유, 건빵, 약주, 흑색필름, 잉크, 홍차, 포마드, 밀, 외상약(머큐르토크롬)
85年	411	피아노학원비, 입시학원비, 꿀, 주산학원비, 전산학원비, 햄, 생맥주, 케이크, 과일, 네타, 풋고추, 시내버스료(좌석), 시외전화료, 병원검사료, 미용료(커트)	혼합미, 캐러멜, 자불봉, 합석, 못, 슬레이트, 비닐화, 포플린, 고무신(여자, 남자), 양재학원비, 만년필, 사과(국광)
90年	470	승용차(소형, 중형), 휘발유, 퍼스컴, 에어컨, 진공청소기, VTR, 전화기(무선), 맛김, 기차료(새마을), 김치, 바나나, 오렌지주스, 튀김닭, 보일러, 냉동만두, 우황청심원	수수쌀, 사과(골덴), 오므라이스, 들기름, 기와, 창호지, 양은술, 성냥, 양초, 광목, 양장지, 봉투, 재봉사, 국공립도서관, 허리띠, 기차료(비둘기)

먼저 신제품 출현과 소비고급화에 따라 에어컨(가중치 0.5), 진공청소기(0.5), VTR(3.6), 퍼스컴퓨터(3.2) 등이 추가됐다. 또 의식이 바뀌는 풍조에 따라 의식의 전체비중이 85년 21.2에서 90년 두배이상인 58.0으로 대폭 높아지면 서 불고기(3.2), 등갈구이(2.9), 햄버거(1.9) 등이 대거 포함됐다.
또 건강유지에 관심이 높아져 유동강아미(1.7), 무농약시일이용료(2.8) 등도 앞으로 물가지수에 적잖은 비중을 차지케 됐다.
한편 자가용승용차보험에 따라 소형(1000원)차 14.4, 중형(2000원)차 11.9, 대형(3000원)차 8.4, 엔진오일(2.6), 자동차보험료(2.6) 등이 개인보험비관련 비중의 주력(합계 40.6)에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반면 월평균 지출액이 1만원의 1이하(90년 기준 68원)로 쓰임새가 크게 줄어든 좁쌀·기와·성냥·양초·광목 등 32개 품목은 물가지수대상에서 제외됐다.

【柳 鶴 基 기자】

역 21곳추가

대폭보완 이달부터 적용

드러진 변화는 식료품의 가중치(총지수 1천)가 종전 3백79.9에서 3백24.9로 55포인트 낮아진 것. 이는 지난 85년 도시기계의 식료품비 지출 비중(엔겔계수)이 전체 소비지출의 37.5%에서 90년엔 32%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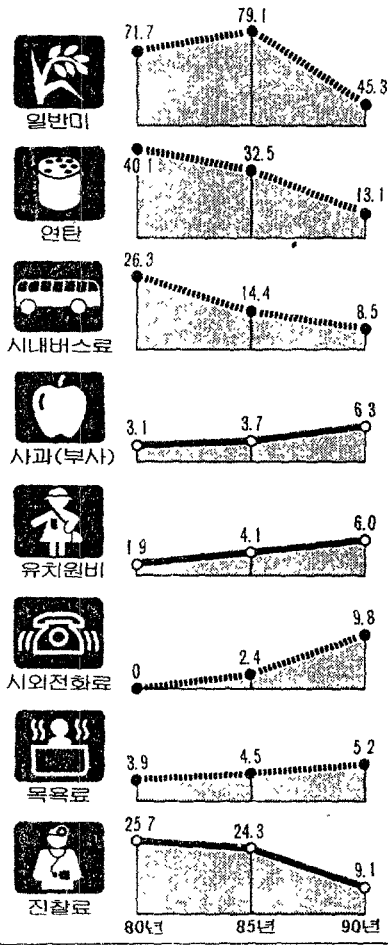
또 소수항상에 다른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 바나나, 딸기, 휘발유, VTR 등 91개 품목을 새로 추가

경북 公州, 大川, 大邱, 浦項, 龜尾, 慶州, 安東, 경남 蔚山, 晉州, 제주

가중치 변화 추세를 지출 비중별로 보면 소수항상에 다른 소비구조 변화를 잘 알

수 있다. 식료품비는 80년 4백11.3에서 85년 3백79.9, 90년 기준인 이번 개편에선 3백24.9로 계속

주요품목별 가중치 변화 (단위: 1천분의)



낮아지고 있다. 또 의료비 항목대실시에 따라 보건의료비 비중이 85년 72.4에서 90년 54.5로 낮아졌다. 반면 주택 전월세가 격상됨에 따라 주거비는 85년 96.5에서 90년 1백29.4, 90년 1백41.7로 급상승했다. 한편 가구집기, 가사용품, 피복, 신발, 교육, 교양 오락 비용은 각각 가중치가 높아졌으며 특히 승용차보험료, 대도교통통신투입비 비중이 85년 64.6에서 90년 93.6으로 대폭 높아진 점도 특색. 또 대폭 높아진 조경내역을 보면 지난 5년간 소비패턴 변화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社說

소비자 물가지수의改編

생활패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더욱 개편된 새로운 편제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이달부터 적용된다. 5년마다 기준연도를 바꾸기로 돼 있는 규정의 따라 85년에서 90년으로 기준연도를 변경하면서 물가지수에 잡히는 품목과 품목별가중치를 조정하고 조사대상지역을 늘린 것이다.

도시가구당 소득이나 소비지출이 85년에서 90년사이 두배이상 증가한 사실이나 그동안 출생률 감소가 돼온 지수물가와 피부물가의 괴리를 생각할때 개편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회적 가중화되고 있는 소비행태의 변화를 직접히 반영하는데는 개편의 빈도를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어쨌든 문제는 개편된 물가지수가 물가의 實相을 어느 정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가에 있다. 물론 개인이 일상적인 가격변화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피부물가는 체계적으로 반영이 안된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수물가를 피부물가에 맞추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간 적어 왔던 생활패턴의 변화정도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새로운 물가지수가 지나치게 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둔 나머지 「지수조각」이라고 비난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예컨대 기존 지수에 의한 지난해의 물가상승률을 9.5%로 노동계 및 소비자단체 등에 의해 지나치게 낮게 잡혔다는 시비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개편된 지수로는 8%대로 떨어지게 되었다니 정부의 물가지수에 대한 신뢰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만 서민가계의 영향이 많은 농축산물과 생필품의 가중치를 떨어뜨린 반면 외식비의 가중치를 높이고 승용차 등 내구소비재를 추가한 편입일 것이다. 물품의 식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몫이 증가하고 있고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대부분의 가계의 경우 여유적인 경우의 해일도 되지 않는다. 가계지출중 식료품비의 비중을 나타내던 「생활계수」가 그동안 급속히 높아진 것인 사실. 물품소득의 증가에 크게 기인하고 있음을 감안

할 수 없다.

이왕 그럴바에는 새로운 지수편제에서도 주택가격을 제외한 사실은 낫다 하기 어렵다. 비록 소비자적 성격의 지출이라고는 하나 우리 국민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집념과 장은 주거이전전도 및 집안상반기까지의 주택가격변동을 고려하면 그 타당성의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통계청의 주장대로 가중치의 개념이 배제된 피부물가와 지수물가는 근본적으로 구분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기본생활물가지수」등 새로 개발해 발표키로 한 5종의 보조지수에서나마 피부물가가 제대로 반영돼 본 지수와 함께 물가의 實相이 보다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家口 작년 月收평균 115만원

(단위 : %)

구분	한국		일본			대만	
	85년	91년	77년	85년	91년	88년	90년
소비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품	37.7	31.8	29.3	25.7	24.0	33.4	30.9
주거	4.7	4.4	4.9	4.7	5.3	23.2	24.6
광열수도	7.4	4.1	4.5	5.9	5.1		
가구가사용품	4.9	5.8	4.6	4.2	4.0	4.7	4.3
피복신발	7.8	8.1	8.4	7.0	7.1	6.1	5.9
보건의료	5.4	5.4	2.4	2.4	2.5	5.2	4.8
교육양육	10.3	12.3	7.8	9.7	10.0	8.4	8.8
기타소비지출	6.5	8.8	11.4	12.9	14.5	11.7	13.4
1인당 GNP (US \$)	2,194	6,498	6,052	10,987	23,965 (90년)	6,302	7,928

한국 일본 대만 소비지출 구성비

90년보다 22.8% 늘어

지출 86만원... 車구입·교육비 큰 증가

작년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백15만 8천6백원으로 90년의 94만3천3백원에 비해 22.8%(21만5천3백원)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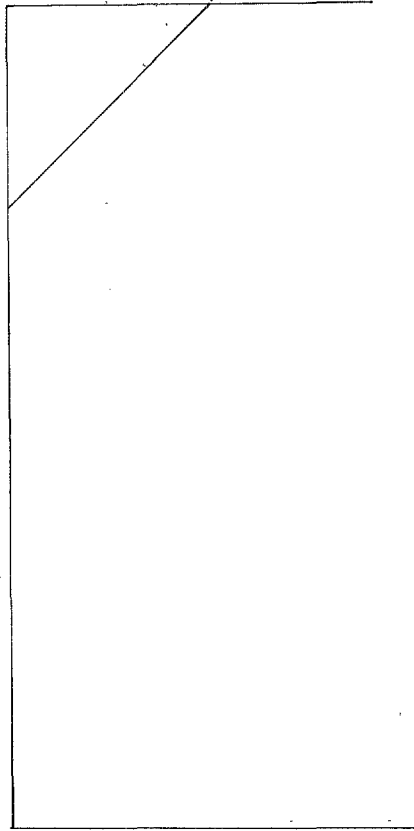
작년중 소비자물가상승률 9.7%를 감안한 실질소득으로는 11.9% 증가한 것이다.

도시근로자가구란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증가한 것은 지출이 아니라 일당소득을 받아 꾸려 가는 도시지역가구로 법인체의 이사이상 임원이나 자기사업체를 가진 자영업자가구들은 제외된다.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가구주소득뿐 아니라 다른 가구원들의 소득도 포함된다.

통계청은 전국 4천3백 도시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15일 발표한 91년 도시근로자가구수지동향에서 이월평균 60만원이 넘는 것 중 자가용을 구입한 것은 34.6% 증가했다. 자가소비지출중 특히 많

작년도가구당 월평균가계지출은 85만9천원으로 90년보다 13만5천9백원(18.8%)이 늘어났으며, 가구당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월평균 29만9천6백원으로 전년 대비 36.1%가 증가했다.

증가(각종보험의 회비와 교제를 위한 잡비) 26.4%, 대학교육비(38.1%), 자녀보육교육비(27.1%), 교통통신비(25.2%), 외신비(24.2%) 등이다.



늘고있다

「알뜰살림」

썸썸이 자제 : 매달 30만원씩 "黑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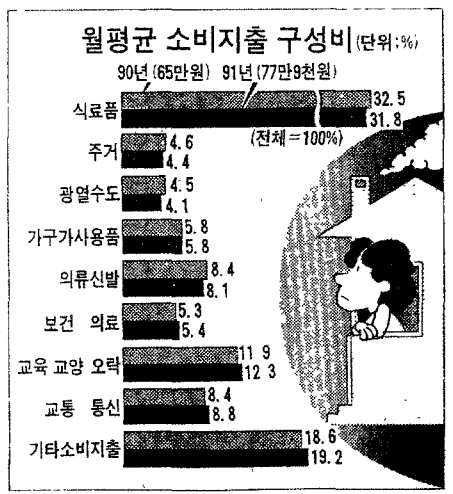
통계청, 91년 家口소득 조사

통계청이 전국 4천3백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91년 15월 말 기준 91년 1분기 15개월 동안의 소득조사 결과, 91년 1분기 15개월 동안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특히, 1인 가구의 소득이 2.2% 증가한 반면, 2인 가구는 1.1% 증가했다. 3인 가구는 0.8% 증가했고, 4인 가구는 0.5% 증가했다. 5인 이상 가구는 0.2% 증가했다.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임금 상승과 연금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임금 상승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인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연금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인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임금 상승과 연금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인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연금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연금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 116만원... 1년새 23% 늘어

통계청이 전국 4천3백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91년 15월 말 기준 91년 1분기 15개월 동안의 소득조사 결과, 91년 1분기 15개월 동안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특히, 1인 가구의 소득이 2.2% 증가한 반면, 2인 가구는 1.1% 증가했다. 3인 가구는 0.8% 증가했고, 4인 가구는 0.5% 증가했다. 5인 이상 가구는 0.2% 증가했다.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임금 상승과 연금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임금 상승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인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연금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인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임금 상승과 연금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인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연금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연금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한 「91년도 국민소득조사」에 따르면, 91년 1분기 15개월 동안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특히, 1인 가구의 소득이 2.2% 증가한 반면, 2인 가구는 1.1% 증가했다. 3인 가구는 0.8% 증가했고, 4인 가구는 0.5% 증가했다. 5인 이상 가구는 0.2% 증가했다.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임금 상승과 연금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임금 상승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인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연금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인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임금 상승과 연금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인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연금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연금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전국 4천3백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91년 15월 말 기준 91년 1분기 15개월 동안의 소득조사 결과, 91년 1분기 15개월 동안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특히, 1인 가구의 소득이 2.2% 증가한 반면, 2인 가구는 1.1% 증가했다. 3인 가구는 0.8% 증가했고, 4인 가구는 0.5% 증가했다. 5인 이상 가구는 0.2% 증가했다.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임금 상승과 연금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임금 상승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인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연금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인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임금 상승과 연금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인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연금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연금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전국 4천3백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91년 15월 말 기준 91년 1분기 15개월 동안의 소득조사 결과, 91년 1분기 15개월 동안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특히, 1인 가구의 소득이 2.2% 증가한 반면, 2인 가구는 1.1% 증가했다. 3인 가구는 0.8% 증가했고, 4인 가구는 0.5% 증가했다. 5인 이상 가구는 0.2% 증가했다.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임금 상승과 연금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임금 상승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인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연금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인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임금 상승과 연금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인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연금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연금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生産職 임금올라 「分配구조」 개선

통계청이 전국 4천3백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91년 15월 말 기준 91년 1분기 15개월 동안의 소득조사 결과, 91년 1분기 15개월 동안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특히, 1인 가구의 소득이 2.2% 증가한 반면, 2인 가구는 1.1% 증가했다. 3인 가구는 0.8% 증가했고, 4인 가구는 0.5% 증가했다. 5인 이상 가구는 0.2% 증가했다.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임금 상승과 연금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임금 상승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인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연금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인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임금 상승과 연금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인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연금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연금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社 說

도시가계 더 전전해지려면

통계청이 발표한 91년 도시근로자가계동향은 세태의 변화와 함께 우리가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점들이 드러나 있다. 도시근로자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22.8%가 소비지출은 19.9%가 증가, 한달동안 벌어서 쓰고 남은 돈이 30만원 수준으로 흑자율의 63년 이래 가장 높은 27.8%로 나타나 있다.

가계의 흑자율이 이처럼 높게 나타난 것은 임금의 상승이 높았다는 것과 함께 씹음을 줄이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보여진다. 가계운영의 건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계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첫째 소득의 증가보다는 씹음을 줄이는 것이 가계를 살찌우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새로운 형태의 소비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 가계의 대응이므로 아직도 소비지출을 줄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지방정부의 물가정책 등이 이같은 가계의 변화에 따라 움직여 주어야 할

다는 것이다.

과 소비 열풍이 시작된 지난 88년과 89년의 경우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웃돌거나 같은 수준이었다. 89년의 소득증가율은 24.5%인데 비해 소비증가율은 26.7%에 이르렀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다면 건전가계를 기대할 수 없다. 90년의 경우 소득증가율은 17.2% 소비증가율은 15.7%로 소비증가가 소비 증가를 앞서기 시작, 지난해에는 이같은 추세가 정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다 엄밀한 분석을 한다면 지난해 소비증가율 19.9%는 90년 보다 높아진 것이며 소비할 줄 수 있는 가용성도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90년과 91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다. 따라서 가계가 수입보다 지출 증가를 줄이는 노력을 보며 소비성향은 낮아졌다 해도 물가와 소비증가율의 관계에서 아직도 절약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 하나 외식비·교육비·교육비의 증가는 신규 소비행위에 대해 가계가 경이려 대응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

는 것으로 이해된다. 생활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소비처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구성비도 커질 것이다. 건전가계 유지를 위해서는 신규 소비처에 대한 현명한 소비행태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20%가 늘었다. 이에 반해 가구주 아닌 가구원의 소득은 32.4%나 증가했다. 이는 주부의 맞벌이 형태가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다. 가정주부의 경제활동 참여는 人力難 해소차원이나 흑자가계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나 가구주 이외의 근로행위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이해나 뒷받침은 부족한 상황이다.

타아소의 설치, 비가구주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정책의 확대 등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물가안정 시책도 가계 씹음이 커가는 외식비·교육비·잡비 등 쪽에 비중을 옮겨주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될 것이다.

社說

過消費의 鎮靜을 위한 對策

작년에도 도시家의 消費규모가 큰 폭으로 늘었다. 그 消費額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統計廳 발표에 따르면 도시인 1 자가구의 작년 總消費額은 1백5만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85만 원의 消費額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消費額이 도시인 1 자가구의 消費額을 조사하기 시작한 지난 63년 이래 가장 높은 27.8%를 기록했다.

이런 통계는 보이고 우리가 먼저 받은 느낌이 있다. 곧 국민생활의 소비행태 바뀌어 말하면 「부의 솜이끼」가 그만큼 절제되고 있고, 따라서 지난 몇 년 사이 한국사회를 휩쓸었던 過消費의 풍조도 이로써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 점이 우리의 生活觀으로 바뀌었다. 물론 生活觀의 變遷은 소위 「전대비」 28.8%나 높여나간 것이다. 그러나 消費의 증가율이 그보다 현저하게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消費額이 10% 이상 증가한 것은 이번 해에 있다.

요소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가령 주거비와 조세 부담 등의 상대적인 안정을 들면 된다. 전자의 경우 부동산가격의 안정세에 힘입어 15.7% 증가에 머물렀고 세금은 비소비지출도 0.9% 신장의 그쳤다. 그렇긴 하지만 이보다 더 주의할 것은 개인소비성향의 감소이다. 가처분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 들고 있는 점 이런 현상의 더 많은 이유의 원인이 있다.

소비품조각 300여종의 모습이 이로써 더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家計에 이러한 소비행태 바람이 일기 시작한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아마도 국민생활의 질의 나란 경제 행태와 관련이 있는 것일 수 있다. 특히 「부의 솜이끼」가 그만큼 절제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生活觀이 바뀌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다. 「부의 솜이끼」가 그만큼 절제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生活觀이 바뀌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다.

을 특히 더 절제해 나간 것이다. 가령 消費에 追從의 傾向은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압축이 꼭 지켜져야 한다. 京釜고속전철사업 같은 것도 반드시 消費행태에 차이를 일으키는 지도가 시점에서 한번쯤 재검토해 보라는 것이 우리의 충고이다. 때가 되면만큼 재정수요의 충만한 필요는 있는 대로 회피해야 할 수 없다. 기업도 經營경비의 축소에 한층 더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家計의 진출만에 기대어 정부와 기업이 生活의 負擔을 지지 않는다. 生活의 負擔을 지지 않는다. 生活의 負擔을 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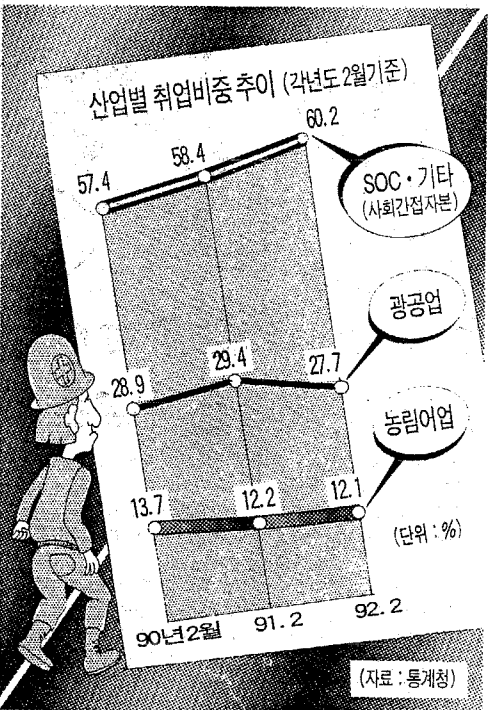
바람도 부위로 돌아가고 말 것이 아닐까 한다.

서비스 산업 취업자 60% 넘었다

인력 개발을 위한 취업자의 60% 이상이 서비스업 취업자라고 나타났다.

제1차 산업 취업자의 계속 늘고 있는 반면 서비스·산업 부문에 취업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취업자의 60% 이상이 서비스업 취업자(서비스업)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취업자의 비율은 57.4%에서 60.2%로 증가했다. 서비스업 취업자의 비율은 57.4%에서 60.2%로 증가했다. 서비스업 취업자의 비율은 57.4%에서 60.2%로 증가했다.

서비스업 취업자의 비율은 57.4%에서 60.2%로 증가했다. 서비스업 취업자의 비율은 57.4%에서 60.2%로 증가했다. 서비스업 취업자의 비율은 57.4%에서 60.2%로 증가했다.



<그림: 金弘烈기자>

서비스업 취업자의 비율은 57.4%에서 60.2%로 증가했다. 서비스업 취업자의 비율은 57.4%에서 60.2%로 증가했다. 서비스업 취업자의 비율은 57.4%에서 60.2%로 증가했다.

올 1~2월 취업비중

1.8% P 높아져

4% 91년 58.4% 92년 60.2%로 나타났다. 91년 2월 기준 취업비중은 58.4%였으나 92년 2월 기준 60.2%로 상승했다. 이는 서비스업 취업자의 비중이 27.7%로 낮아졌고, 제조업 취업자의 비중이 29.4%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서비스업 취업자의 비중은 27.7%로 낮아졌고, 제조업 취업자의 비중은 29.4%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도소매·건설업에

인력유입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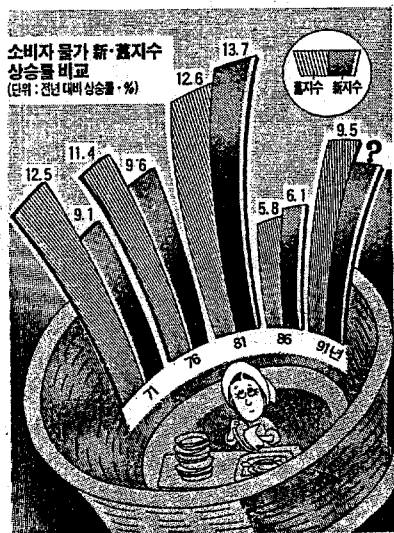
제조업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의 비중은 29.4%로 높아졌다. 이는 서비스업 취업자의 비중이 27.7%로 낮아졌고, 제조업 취업자의 비중이 29.4%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서비스업 취업자의 비중은 27.7%로 낮아졌고, 제조업 취업자의 비중은 29.4%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賃金 관련 새統計지수개편

한국 산업조사연구소가 발표한 4월 물가통계에서 소비자물가지수(1980년 1월 100)가 126.6으로 전년 대비 상승률이 1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1980년 1월 100)가 126.6으로 전년 대비 상승률이 1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1년 1월 100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통계를 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6.6으로 전년 대비 상승률이 1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1년 1월 100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림: 韓甲鐵기자〉

소비자物價 노동생산성

한국 산업조사연구소가 발표한 4월 물가통계에서 소비자물가지수(1980년 1월 100)가 126.6으로 전년 대비 상승률이 1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1980년 1월 100)가 126.6으로 전년 대비 상승률이 1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1년 1월 100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5년마다 조정: 食料品 비중 낮아져

사업체 노동실태 기준 時間別 계산

한국 산업조사연구소가 발표한 4월 물가통계에서 소비자물가지수(1980년 1월 100)가 126.6으로 전년 대비 상승률이 1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1년 1월 100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통계를 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6.6으로 전년 대비 상승률이 1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1년 1월 100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노동생산성

연월	노동생산성
81년 1월	10.4
81년 2월	8.0
81년 3월	7.0
81년 4월	4.6

통계청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노동생산성(1980년 1월 100)가 10.4로 전년 대비 상승률이 1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1년 1월 100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통계를 보면 4월 노동생산성은 10.4로 전년 대비 상승률이 1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1년 1월 100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통계청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1980년 1월 100)가 126.6으로 전년 대비 상승률이 1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1년 1월 100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통계를 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6.6으로 전년 대비 상승률이 1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1년 1월 100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기업設備투자크게 위축

1·4분기 기계류受注 1.8% 증가 그쳐

建設부문 인력유입역전 통계청 산업동향

1·4분기중 생산및 수출부담은 경조한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설비투자부담은 예년에 비해 급격히 줄어 성장잠재력이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건설부담은 소비증가 등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수증으로 늘고 내수과열 현상도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부담은 주택·상업용 등 민간부문의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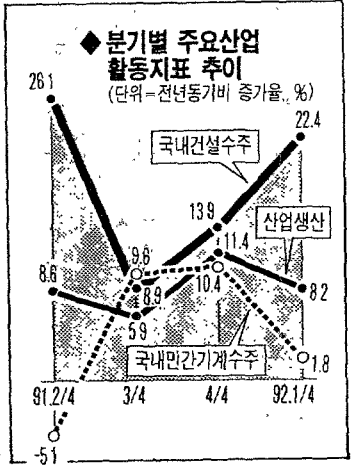
폭진정된 반면 총생산의 영향으로 공공부문의 수주 증가율이 46·4%에 달해 건설경기 과열을 정부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월 통계청이 발표한 1·4분기 산업동향은 한에 따르면 국내 기계수주가 전년동기대비 4%를 늘려 14·4%의 감소율을 기록했고 기계류수입은 계속 6개월간 감소했으며

1·4분기 감소폭도 46%에 달했다.

이같은 기계류 설비투자의 급격한 부진은 경기전망이 밝아지고 내수 경기과열에 따라 자금의 흐름이 개선되지 않았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4분기중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동기대비 22·4%의 증가율을 기록지만 해 3·4분기 이후 증가율을 이 계속 높아져 과열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46·4%)이 선거용 건설공사 및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관련해 민간부문(11·6%)보다

다 4배이상의 신장세를 기록, 건설경기를 주도했다.

1·4분기중 산업생산과 출하는 각각 8·2% 및 10·9%의 증가율을 기록, 91년

연간(8·6%, 11·0%)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비교적 호조를 보였다.

수부담은 도소매판매(7·9%)와 내수용소비재출하(11·0%)등 소비과열이 해소되지 않아 성장잠재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 고용의 경우 건설업 인력이 3월말 현재 1백63만명으로 1년전에 비해 19만명이 늘어난 반면 제조업은 4백87만명으로 8만명 감소, 제조업으로부터 건설서비스업으로의 인력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建設·내수둔화 뚜렷

통계청「1분기동향」輸出회복세...生産·출하 호조

설비投資는 격감...成長잠재력 위축 우려

올들어 건설투자와 내수 둔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수출이 회복세를 보며 생산과 출하가 작년 동기 대비 11.0% 증가, 작년 동기의 13.5% 증가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1·4분기 동향」에 따르면 지난 1~3월 중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전년 동기 대비 11.0% 증가, 작년 동기의 13.5% 증가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재 판매도 작년 1~4분기에 비해 7.9% 증가했으나 유통업체가 10.8%(1월), 6.9%(2월), 6.2%(3월)에 이르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증가세를 보였으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건설수주액은 공공부분은 22.4%의 증가를 보였으나 민간건설수주액은 11.6%로 둔화하면서 수출증가율은 2.8%에서 7.9%로 높아졌다.

산업생산과 출하의 호조에 따라 제조업생산과 출하도 81.3%를 기록, 작년 동기 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설비투자는 선행지표인 민간기계수주가 1.8% 증가에 머무르다가 4분기에는 46%가 감소해 뚜렷한 위축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용면에서는 제조업 취업자수가 1·4분기 중 월

<연도별 1·4분기 산업활동동향>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91년	92년
총생산	8.4	8.2
총출하	10.5	10.9
내수	12.7	11.6
수출	2.8	7.9
내수용 소비재	4.0	22.4
수출용 소비재	12.3	△15.5
제조업	1.4	1.8
건설업	3.0	2.9

이와관련, 통계청의 金景中통계조사과장은「최근 국내경기는 생산및 출하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는 내수를 위주로 둔화할것」으로 내다봤다.

1분기중 「설비투자부진」 의미

올해의 1분기중 설비투자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1분기중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지만, 1분기중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0.2%로 감소했다.

설비투자의 위축은 1분기중 설비투자의 위축을 의미한다. 설비투자의 위축은 1분기중 설비투자의 위축을 의미한다.

주요기계의 수입감소는 우려해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1분기중 주요기계의 수입감소는 우려해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올해 4월까지 무역수지적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도 수출진척의 향상보다는 이

기업들의 입찰로 치부하기는 어렵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진이 너무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용부가 조사한 5대 수출업종의 의사조달내용을 보면 총소도 28억 8천 5백만 달러에 자체자금 조달가액이 11억 9천 5백만 달러로 부족액이 16억 9천 3백만 달러에 이르렀다.

내년 이후 성장에 '暗雲'

반도체 등 주력수출업종 타격 우려

반도체 등 주력수출업종의 타격 우려는 1분기중 설비투자의 위축을 의미한다. 반도체 등 주력수출업종의 타격 우려는 1분기중 설비투자의 위축을 의미한다.

반도체 등 주력수출업종의 타격 우려는 1분기중 설비투자의 위축을 의미한다. 반도체 등 주력수출업종의 타격 우려는 1분기중 설비투자의 위축을 의미한다.

반도체 등 주력수출업종의 타격 우려는 1분기중 설비투자의 위축을 의미한다. 반도체 등 주력수출업종의 타격 우려는 1분기중 설비투자의 위축을 의미한다.

반도체 등 주력수출업종의 타격 우려는 1분기중 설비투자의 위축을 의미한다. 반도체 등 주력수출업종의 타격 우려는 1분기중 설비투자의 위축을 의미한다.

반도체 등 주력수출업종의 타격 우려는 1분기중 설비투자의 위축을 의미한다. 반도체 등 주력수출업종의 타격 우려는 1분기중 설비투자의 위축을 의미한다.

반도체 등 주력수출업종의 타격 우려는 1분기중 설비투자의 위축을 의미한다. 반도체 등 주력수출업종의 타격 우려는 1분기중 설비투자의 위축을 의미한다.

社說

內需진정과 설비投資

통계청이 발표한 4월 1·4분기 경상내需의 지표는 1·4분기 경상내需이 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이는 1·4분기 경상내需이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이는 1·4분기 경상내需이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4분기 경상내需은 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이는 1·4분기 경상내需이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이는 1·4분기 경상내需이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다만 1·4분기 수출은 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이는 1·4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이는 1·4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1·4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이는 1·4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이는 1·4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는 1·4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이는 1·4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이는 1·4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다만 어떤 것보다도 정부는 내수 진정과 설비 투자에 힘써야 한다. 이는 1·4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이는 1·4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이는 1·4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소비자物價 새指數 발표

「피부經濟」와 큰 차이

4월까지 3% 상승...舊지수보다 되레 낮아

과일류 12% 올라 최고

소비자물가지수를 99년 기준으로 개편한 결과, 4월말까지의 소비자물가는 舊지수(88년기준)를 3.0%보다 0.2%포인트 낮아진 3.0%에 불과하다. 99년 4월말 소비자물가지수는 99년 4월말 기준 3.0%에 불과하다. 99년 4월말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99년 4월말 기준 3.0%에 불과하다.

신제품이 9월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연도를 85년에서 96년으로 바꾸고 조식대상품을 증정, 4월 11개에서 4월 70개로, 조사지역을 11개 도시에서 32개 도시로 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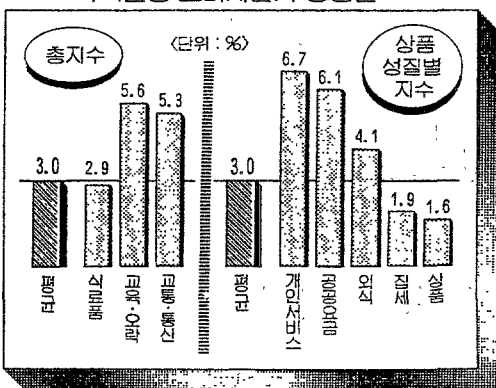
신제품 조사대상상품을 2천 9백개에서 5천 8백개로 각각 늘린 99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결과를 발표했다. 새 기준을 적용한 4월말 소비자물가지수는 99년 4월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3.0%에 비해 0.2%포인트 낮아진 3.0%에 불과하다.

과일류는 12% 올라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신제품을 증정한 4월 70개 조식대상품을 99년 4월 11개 도시에서 32개 도시로 늘렸다.

신제품 조사대상상품을 2천 9백개에서 5천 8백개로 각각 늘린 99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결과를 발표했다. 새 기준을 적용한 4월말 소비자물가지수는 99년 4월말 기준 3.0%에 불과하다.

신제품 조사대상상품을 2천 9백개에서 5천 8백개로 각각 늘린 99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결과를 발표했다. 새 기준을 적용한 4월말 소비자물가지수는 99년 4월말 기준 3.0%에 불과하다.

1-4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조사품목 4백70개로 늘려... 신제품指數 처음

신제품을 증정한 4월 70개 조식대상품을 99년 4월 11개 도시에서 32개 도시로 늘렸다. 새 기준을 적용한 4월말 소비자물가지수는 99년 4월말 기준 3.0%에 불과하다.

신제품을 증정한 4월 70개 조식대상품을 99년 4월 11개 도시에서 32개 도시로 늘렸다. 새 기준을 적용한 4월말 소비자물가지수는 99년 4월말 기준 3.0%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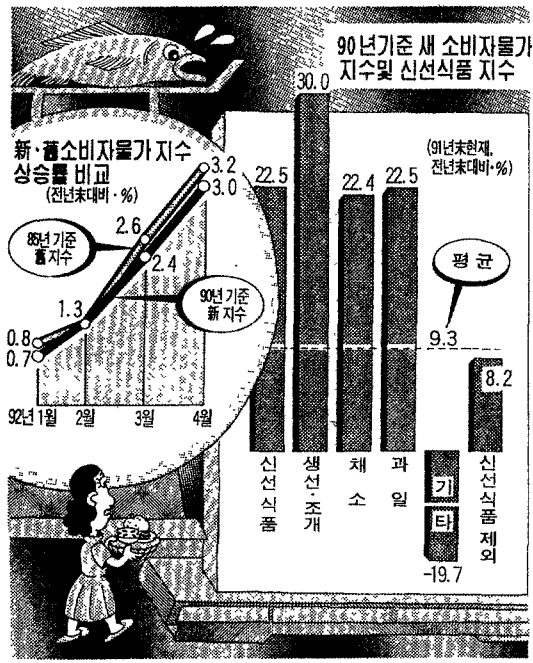
신제품을 증정한 4월 70개 조식대상품을 99년 4월 11개 도시에서 32개 도시로 늘렸다. 새 기준을 적용한 4월말 소비자물가지수는 99년 4월말 기준 3.0%에 불과하다.

신제품을 증정한 4월 70개 조식대상품을 99년 4월 11개 도시에서 32개 도시로 늘렸다. 새 기준을 적용한 4월말 소비자물가지수는 99년 4월말 기준 3.0%에 불과하다.

〈洪權〉

새 소비자물가지수 보조지표

「피부物價」에 근접한다



지난해 채소등 신선식품 22.5% 상승

지수의도적이라고 낮춘다기 어행노

소비자물가지수를 90년 기준으로 따져보니 물가가 4월까지 3%가 올랐다. 지금까지 써온 85년 기준보다 0.5%포인트가 낮아졌다. 지수물가와 피부물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새로 낸 채소·과일·생선등 신선식품지수로만 2.7% 매달 하락률이

상구입하는 물가는 3.7%가 올랐다. 통계청은 90년 90년 물가 상승률로 새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이같이 발표했다. 새 지수 조사가 선 조사대상물과 지역이 늘어났다. 작년 한해 물가의 상승률도 9.3%로 나타났다. 80년 85년 기준

지수개편 때는 새 지수가 옛 지수보다 각각 1.1%, 0.3%포인트씩 높게 나타났다. 이번 90년 기준 개편에서는 거꾸로 새 지수가 옛 지수보다 0.2%포인트나 낮게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주로 농수산물중 신선식품이 올라 높아졌

데, 전체 조사대상물중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년 기준 개편에서 낮아져 평균 상승률도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4월 30일자 7면 보도 참조. 통계청은 「국민생활」 새 지수가 이번에는 낮아져 자축시만도 의도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고를 기를했다. 평균 상승률 9.3%보다 두배이상 높다. 다만 신선식품을 빼면 식품의 상승률은 8.2%였다. 『국민생활』 「과나올까」에선 생선·채소가 내린다고 피인양양 11.8% 올랐다고 써서 신선식품지수만 평균 지수상승률 2.7%로 낮추었다.

농수산물 지수를 개편했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고민 끝에 두가지 새로운 보조지표를 함께 발표했다. 농수산물과 비농수산물로 나눠 지수를 계산하는 신선식품지수와 구인양양수에 따라 나눠 산정한 구인양양물 지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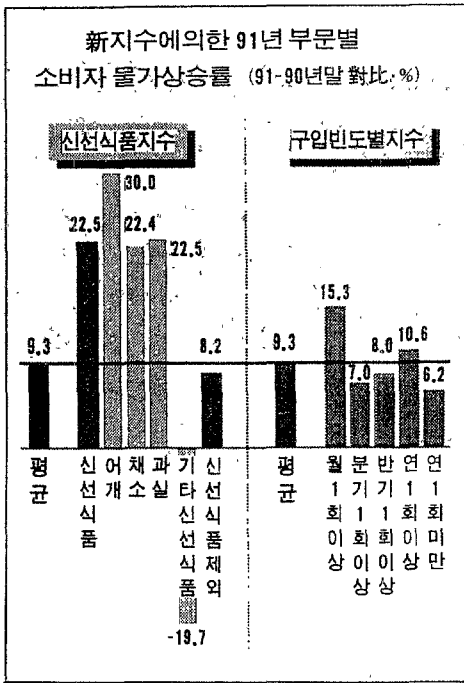
지난해 신선식품지수를 보면 명파·갈치·상추·배추·무·수박등 농수산물 비중이 90%인 신선식품(전체 4백90개 조사품목 중 44개)은 평균 22.5%나 올랐다. 반면 신선식품 중에서도 명파·갈치와 같은 생선·조개류는 상승률이 30%보다 높지 않

부가가 정부 발표 물가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이같이 농수산물이다. 자주 사는 생선·채소·과일도 1달 동안 상승률이 15.3%로, 전년 대비 물가가 15.3% 올랐을 때 1.6% 상승에 그쳤다. 이같은 상승률엔 지수로 보면 정부가 올해 중반 한 차례 물가 상승률 조정을 소비자물가지수 8.2%로 제한 후선 개인서비스업 평균 상승률을 억제하는데서 장의 의미가 있다. (梁在燦기자)

작년 「體感물가」 15% 이상 뛰었다

통계청, 보조지표인 57개 생활필수품지수 첫 발표

통계청이 현행 소비자 물가지수를 90년 기준으로 개편하면서 「體感물가」를 알아보기 위해 보조지표를 새로 도입, 생활필수품지수를 지



舊통계지수 9.3%와 큰 차이 新鮮식품 44품목은 22% 올라

회 이상 구입하는 「생활필수품지수」라고 볼 수 있는 57개 품목은 15.3%나 올랐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소고기, 달걀, 우유, 채소, 과일류, 설탕, 탕, 비빔밥, 다방카피 등 44개 품목이 포함돼 있는데, 품목에 따라서는 50% 이상 올랐다는 것도 있다.

지난해 무려 22.5%나 뛰었다. 이 가운데는 魚介類, 채소, 과일류 등 44개 품목이 늘어났다. 이제까지의 지수들이 가 피보물가와 큰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9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결과에 따르면 지난 1~4월중 식료품은 2.9% 올라 舊지수

상의 2.4%보다 다소 높아진 반면 식료품 이외의 품목은 3% 상승하여 증전지수상의 3.8%보다 크게 떨어졌으며 전체 소비자물가는 舊지수상의 3.2%보다 0.2%포인트 낮은 3% 상승에 머물렀다.

△개인서비스요금 6.7% △외식비 4.1% 등으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전북 32개 도시 가운데 公州가 올들어 4월말까지 4.5% 올라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全州(3.8%) △大川 慶州(3.7%) △仁川 安東(3.6%) △濟州(3.4%) △光州(3.3%) △釜山 群山(3.2%) △大邱 大田(3.1%) △江陵 淸州 龜尾(3%)의 순이었다. 본월은 2.2% 상승에 그쳐 전역에서 소비자물가가 가장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해 평균 15.3%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9.3% 올랐지만 월 1

다. 또 장바구니 물가의 성격을 지닌 신선식품지수도 새로 개발했는데

하락한 정부가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연도를 85년에서 90년으로 바꾸면서 조사지역을 11개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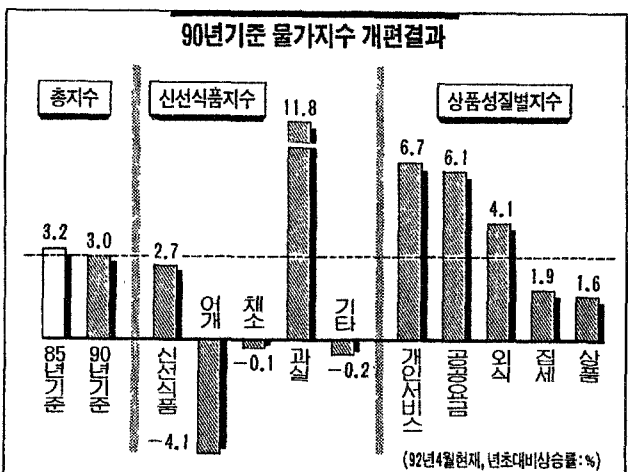
새로 도입된 채소과일어개류 등 신선식품지수는 올들어 2.7%를

통계청은 내달부터 전 체 소비자물가지수 외에 신선식품과 월 1회 이상 구입품목, 외식비 등을 포함하는 생활필수품지수도 발표할 방침이다.

〈朱泰기 기자〉

物價 4월까지 3%상승

통계청 新소비자물가지수 발표



통계청은 9일 소비자물가지수편제를 시행 85년 기준에서 90년 기준으로 개편한 결과 올들어 지난 4월까지의 상승률이 단조 3.2%에서 3.0%로, 지난해의 연간 상승률은 9.5%에서 9.3%로 각각 수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새 물가편제는 조사대상 품목수를 현행 4백11개에 통계청은 이번 편제 개편 과정에서 추산한 올해와

舊指數보다 0.2% 낮아
 지난해 新鮮식품 22% 올라 오름勢 주도

지난해 70년과 75년 개편 때 는 당초 지수보다 각각 3.4%, 1.8% 포인트씩 낮아진 반면 80, 85년 개편 때의 경우 각각 1.1%, 0.3% 포인트씩 높아져 기준연도의 품목별 가중치 변화와 가중수에 따라 통계기술상 약간의 편차가 수반된다는 설명이다.

통계청은 이번에 피부물가와 지수상 물가와 의과 리감을 달기 위해 신선식품 및 구입단별 지수를 보조지표로 처음 발표했다. 명태 고등어 무 배추 사과 배 마늘 등 4개 신선식품 가격을 별도 지수로 집계한 결과 지난해 연간 상승률은 무려 22.5%에 달해 피부물가 오름세를 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의 신선식품 지수는 2.7% 올라 전체 물가 3.0%보다 약간 낮은 안정세를 보였다.

이 중 과실류는 평균 11.8%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단별 지수는 신선식품을 포함, 전기 상승도 버스 전차 무 역류 등 전국민이 매일 한번 이상 구매 구입하는 57개 품목의 값이 지난해 연간 15.3% 올랐으며 4월까지의 연간 11.2% 구입하는 기선류, 각종학교 납입료, 고속버스, 기차료 등이 평균 4.1% 올라 전체 물가보다 오름률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柳哲基 기자】

社說

새 물價指數、민을만 한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指數를
가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物價
물가의 엄청난 괴리를 어떻게는
좁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국가
정책의 기초자료인 물가지수가 지
나친 不償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
기 때문이다. 그런 배경을 두고 방
계청은 최신편제에 따른 새 물가지
수를 내놓았다.

새 지수가 과연 체감불가와의 거
리감을 효과적으로 줄일수 있을지
어떨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우선 소비자들로서는 새 지
수에 의한 4월까지의 물가 상승률
과치가 불만스럽다. 개편된 소비자
물가지수에 의한 상승률은 3%
로 舊지수 보다 오히려 0.2%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 지
수가발에 정부의 恣意性이 작용
된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

고 있다.

새 지수는 물론 나름대로의 합리
성을 갖고 있다. 90년기준인 새 지
수가 85년기준인 舊지수에 비해 훨
씬 더 현실적인 것이다. 물가조사
대상을 종전 4백11개 품목에서 4
백70개로 늘리는 한편 조사지역도
11개도에서 32개 도시로 확대했
다. 각 조사품목의 비중인 加重值
도 최근의 소비행태에 가깝도록 조
정했다. 말하자면 새 지수물가는
보다 많은 자금을 포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새지수가 과연 물
가지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감
을 씻어줄 수가 있겠는가. 소비자
단체들이 주장하는 지수물가對피
부담가는 적게는 2~3배에서 5
배까지 차이가 난다. 소비자마다 선
택과 구매빈도가 다른 장바구니를

가와 포괄적 표본조사 결과인 지
수물가가 딱 맞아 떨어지거란 현실
적으론 어렵은 일이다. 그러나 양자
의 차이가 소비자의 불만이 폭발한
만큼 벌어진다면 중대한 문제가 아
닐수 없다.

새 지수에도 여전히 그런 현상이
야기될 약점이 보인다. 우리생활과
밀접한 집값이 계속 빠져있는 등 비
소비적 범주의 지출이 반영되지 않
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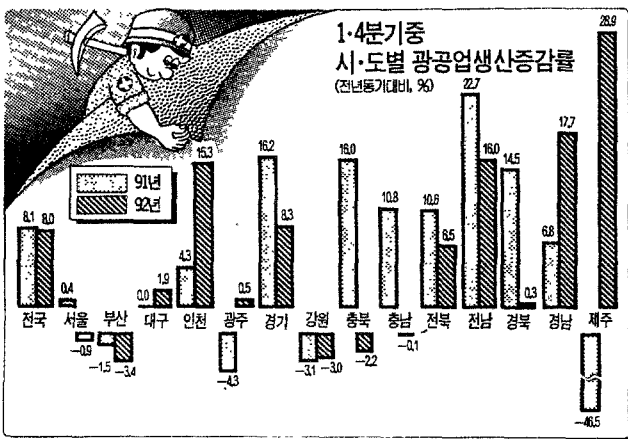
소득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비지출비중이 변화되는 것은 당
연하다. 그럼에도 농축수산물의 현
저한 비중축소, 高價공산품의 비
중제고는 보다 여유있는 계층중심
의 물가편제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정부가 장바구니물가 수준을 과
압하기 위한 44개 품목의 「新鮮식품
지수」와 「구입빈도별지수」를 따로

개발, 발표한 것도 그런 신뢰저하를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보
조지수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한
것이 과거의 경험이다. 따라서 이같은
보조지수가 주목을 받게 하려면
정부 스스로가 물가관리의 상당한
무게를 이들 지표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지수개편이 완결한 것일 수
는 없다. 때문에 물가당국은 객관
적으로 평가받을수 있는 지수 및 피
부담가와의 간격축소에 계속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生産財부문 큰폭 성장

1·4분기 광공업 동향 작년보다 11.7% 증가



산업·건설자재 등 호조 가전·소비재는 둔화

지난 1·4분기 중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생산재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큰 성장을 보였다. 소비재부문의 생산은 상대적으로 둔화했다. 또 수출입의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하다.

1·4분기 중 전국 광공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했다. 이는 1991년 동기 대비 8.1% 증가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1·4분기 시·도별 생산증감률은 전국 평균보다 11.7% 높았다. 이는 1991년 동기 대비 0.7% 증가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산업·건설자재 등 호조
가전·소비재는 둔화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 이는 1991년 동기 대비 8.2% 증가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1·4분기 시·도별 생산증감률은 전국 평균보다 10.8% 높았다. 이는 1991년 동기 대비 0.8% 증가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수출입의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하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이는 1991년 동기 대비 12% 증가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1·4분기 시·도별 수출증감률은 전국 평균보다 1.5% 높았다. 이는 1991년 동기 대비 0.9% 증가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소비가재부문의 내구재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인 5%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가전제품은 7% 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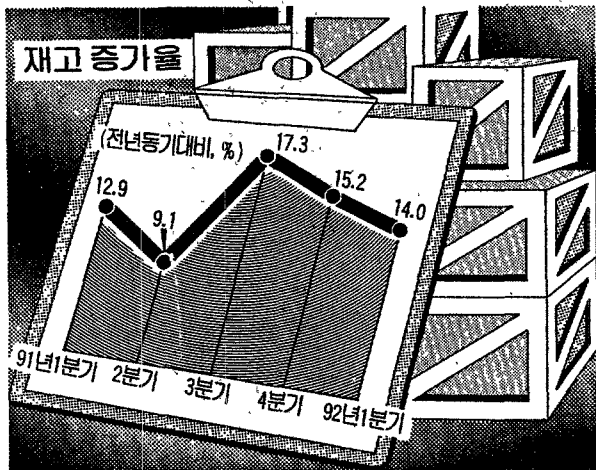
在庫증가율 9달째 두자리數

內需경기 둔화 수출부진 겹쳐

3월 운수장비업 74%나

통계청, 5월간 발표

국내 광업 및 제조업체의 생산과 출하는 여전히 전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수경기 둔화로 인해 운수장비업의 증가율을 3분기째 지속하고 있다.



통계청은 21일 발표한 5월간 광업 및 제조업체 동향에서 지난 1분기(1~3월) 중 광업 및 제조업 생산과 출하는 전유리의 부진과 운수장비업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석유정제, 산업용화학제품의 실미증진 및 수출증

가, 방한제 선박, 버스 등의 수출 증가, 승용차 철도차량, 전자제품의 내수호조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8% 및 10.8%가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년동기 대비 재고증가율도 14%에 달해 작년 3분기(7.9월) 이후 연속 3분기째 두자리수의 재고증가율을 지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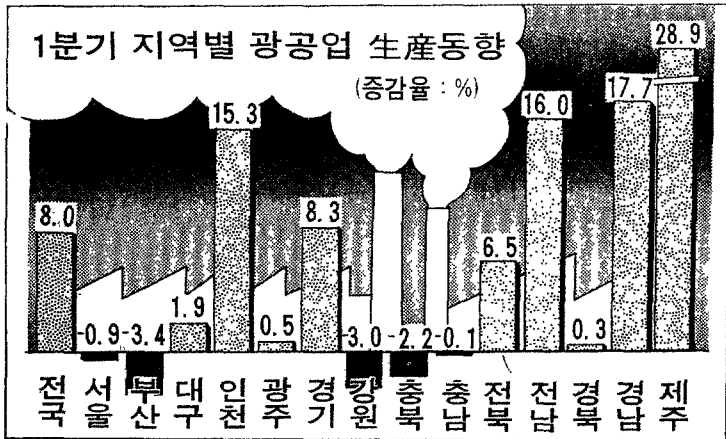
통계청은 5월간 재고증가율의 이유로 승용차, 버스의 세련화, 무연탄, 철강, 건설 장비의 내수부진, 석유화학제품의 과잉생산, 석유조립공장의 수출부진 등을 꼽았다.

지난 3월 중 전년동기 대비 재고증가율을 업종별로 보면 승용차 등 운수장비업의 경우 무려 74.8%에 달했으며 석유정제(10%), 일관기(26.5%), 전기전자(20.2%), 철강(8.6%), 식료품(14.9%), 음료품(10.8%) 등도 모두 10%가 넘었다.

재고가 감소한 업종은 유리(20.9%), 기타석유석탄(21.8%), 인쇄출판(19.3%), 의복(20.1%) 등이었다.

내需경기 둔화현상 뚜렷

올해의 제조업분야의 생산과 수출이 그만큼 둔화 현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부진과 최근의 내수둔화로 재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분기별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중 시·도별 광공업생산액에 있어 수도권은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한 반면 충청·호남·영남·제주 지역은 각각 8.2%와 11%씩 늘어 지난해와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건설·운수장비의 내수둔화와 석유화학제품의 과잉생산, 조립제품의 수출둔화 등으로 1분기 중 전국 광공업생산액이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한 반면 1분기 중 전국 광공업 재고가 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재 생산 2.7%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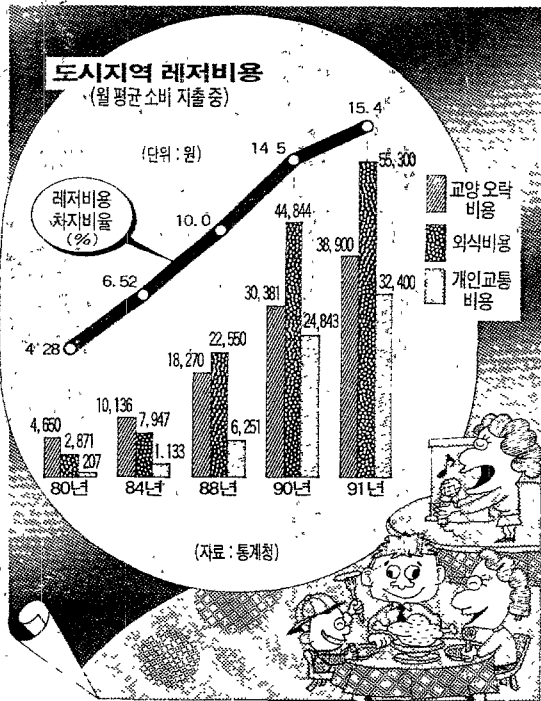
나름이나 최근의 소비재 생산이 둔화 현상을 보였다. 5월 분기별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중 소비재 생산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반면 1분기 중 소비재 재고가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분기 중 소비재 생산액에 있어 자동차가 8.8% 증가한 반면 가전제품이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중 소비재 생산액에 있어 자동차가 8.8% 증가한 반면 가전제품이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분기 중 소비재 생산액에 있어 자동차가 8.8% 증가한 반면 가전제품이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在庫 작년보다 13.9% 늘어 油化생산호조...기계는 20%나 급감

1분기 중 제조업 분야의 재고가 작년 동기 대비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1분기 중 제조업 재고에 있어 석유화학제품이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한 것이다. 한편 1분기 중 기계·장비·화학·식품·의약품·전자제품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재고는 각각 20%, 10%, 5%, 5%, 5%,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 10%, 5%, 5%, 5%, 5% 증가한 것이다.

8%나 늘어난 반면 경공업 분야의 경우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한 것이다. 한편 1분기 중 기계·장비·화학·식품·의약품·전자제품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재고는 각각 20%, 10%, 5%, 5%, 5%,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 10%, 5%, 5%, 5%, 5% 증가한 것이다.

주말 경제



5월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들고 도로산으로 나선다. 또 가족들과 외식을 할 때, 이 한 끼를 즐긴다. 레저로 칠 때 그 비용을

최근들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소들이 늘어나면서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고, 따라서 비용도 증가한다. 그러나 레저비용이라 해서 따로 분류된

통계는 국내에 없다. 따라서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는 도시가계조사 의 교양·오락·외식·외출·출퇴근비용을 뺀

고 다니는 데 드는 개인 교통비를 합친 이틀바 그 추세를 알아 보았다. 이를 보면 최근 가장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 개인교통비다. 80년에는 자가용을

개인교통비 11년새 무려 111배 증가
외식비 80년 2천원서 작년 5만원 넘어

년 이후 자가용을 차가 급격히 증가, 그에 따른 개인교통비가 11년만에 1백66배로 뛰었다. 외 식비도 80년에는 2천원 남짓하던 게 작년엔 19배 인 5만5천원으로 늘 어났다.

교양·오락·외식·개인교통비를 합친 이틀바 레저비용이 전체 월평균 도시가계소비지출중 차지하는 비율(레저지수)이 4.28%였으나, 계속 크게 증가, 88년 올림피아 열린 해 두자리수가 됐고 작년엔 15.4%로 정점을 찍었다.

物價安定가닥 잡혔다

한국은행은 5월 2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의 5.3%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 것은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 것은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한국은행은 5월 2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의 5.3%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 것은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한국은행은 5월 2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의 5.3%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 것은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한국은행은 5월 2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의 5.3%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 것은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한국은행은 5월 2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의 5.3%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 것은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한국은행은 5월 2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의 5.3%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 것은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한국은행은 5월 2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의 5.3%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 것은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한국은행은 5월 2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의 5.3%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 것은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일부 공공料金 인상의 不安요인

한국은행은 5월 2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의 5.3%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 것은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한국은행은 5월 2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의 5.3%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 것은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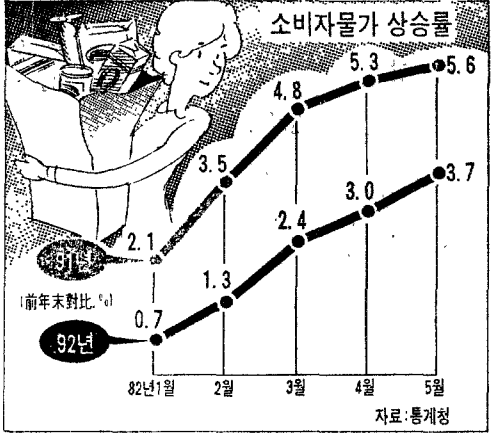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5월 2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의 5.3%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 것은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한국은행은 5월 2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의 5.3%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 것은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한국은행은 5월 2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의 5.3%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 것은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한국은행은 5월 2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의 5.3%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 것은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한국은행은 5월 2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의 5.3%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 것은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物價 5개월째 안정세

5월중 「소비자」 0.6% 상승 그쳐

5월중 소비자물가는 0.6% 상승해 그쳐 물가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5월 2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의 5.3%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된 것은 1982년 1월 이후 5월 27일 기준이다.

消費둔화...在庫积压

승용차 철강 電子제품 “산더미”

失業작년보다 42萬명증가

서비스·건설업이 1년새 1萬명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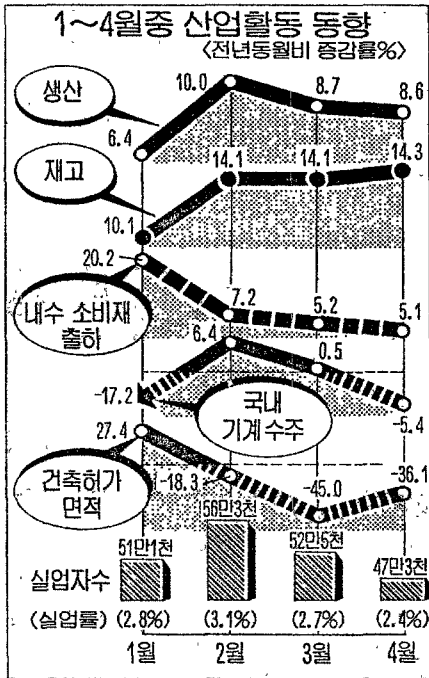
올들어 생산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중요세가 둔화됨에 따라 재고가 큰폭으로 늘고있으며 건설및설비부자는 부진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통계청 「4월 産業활동 동향」

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중 産業활동 동향」에 따르면 4월중 産業생산은 운수장비 전기전자 산업용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작년 4월에 비해 8.6% 증가 가했고 수출하노의 특 재 가구 운수장비의 호조로 9.3%의 건실한 증가세 를 보였다. 제조업가동률 은 시멘트 운반용트럭이 감소했으나 전기전자에서 증가했으며 전기전자에서 가 전체적으로 81.8%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따라 생산자제품재고는 4월중 전년동기비 14.3% 증가, 2~4월 3개월 연속 14%선의 높은수준을 기록했다. 이 기간중

통계청이 발표한 「4월중 産業활동 동향」에 따르면 4월중 産業생산은 운수장비 전기전자 산업용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작년 4월에 비해 8.6% 증가 가했고 수출하노의 특 재 가구 운수장비의 호조로 9.3%의 건실한 증가세 를 보였다. 제조업가동률 은 시멘트 운반용트럭이 감소했으나 전기전자에서 증가했으며 전기전자에서 가 전체적으로 81.8%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월중 국내 기계수주액이 작년동월비 5.4% 감소했고 기계류 내수출하는 0.9% 증가에 그쳤으며 기계류수입이 2.1% 증가, 수입은 42.3%의 감소로 최근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 왔으며 설비투자가 계속 위축될 것임을 예고했다. 건축규제지속으로 건축투자 역시 부진했는데 4월중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월비 36.1% 감소, 연속 3개월째 큰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민간아파트건설허가로 국내건설수주는 4월중 13.8% 늘었으나 1~3월중 증가율 22.4%인 미치지 못했다.

이를 반영,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同行지수는 전년보다 1.0% 감소, 9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반전됐다. 동행지수에서 추세를 제거한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1.7% 감소로 2~4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 경기가 뚜렷한 진정국면임을 드러냈다.

고용부문에선 4월중 경제활동인구 1천9백64만 5천명중 취업자는 1천9백17만2천명, 실업자는 47만3천명(실업률 2.4%)으로 나타났다.

실업자수는 지난 3월 52만 5천명(실업률 2.7%)에 비해 5만2천명이 줄었으나, 작년 4월 41만명(실업률 2.1%)에 비해 늘었다.

업종별 취업자수는 4월중 제조업이 4백85만 6천명(3월 대비 1만 8천명 줄었으며, 전년 4월 대비 9만 6천명이나 줄었다. 그러나 건설업 및 서비스업 부문은 4월중 1천1백만 3천명(3월 대비 8만 1천명, 전년 4월 대비 70만 8천명)이 증가, 제조업이 이들 부문의도 계속 인공하고있음을 보여줬다.

통계청은 향후 국내경기는 부동산거래감 금용긴축 지속적인 건축규제및 설비투자저조등을 감안할 때 내수중심으로 성장회복 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洪權>

실물경제 어떻게 돌아가나

경제 지표의 변동은 실물경제의 건강과 활력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산업생산, 수출, 내수, 투자, 고용 등 다양한 지표가 실물경제의 움직임을 나타내며, 이들의 변화는 경제의 성장과 침체를 가늠할 수 있다.

최근 경제 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실물경제가 활력을 띠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 지표가 양호하다고 해서 실물경제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경기 침체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다.

경제 지표의 변동은 실물경제의 건강과 활력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산업생산, 수출, 내수, 투자, 고용 등 다양한 지표가 실물경제의 움직임을 나타내며, 이들의 변화는 경제의 성장과 침체를 가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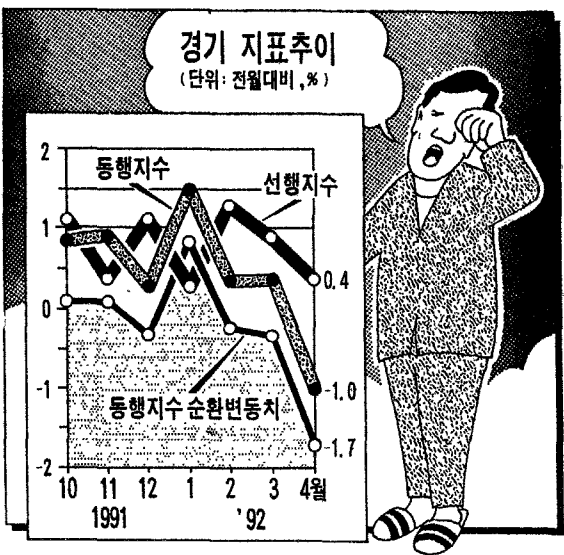
경제 지표의 변동은 실물경제의 건강과 활력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산업생산, 수출, 내수, 투자, 고용 등 다양한 지표가 실물경제의 움직임을 나타내며, 이들의 변화는 경제의 성장과 침체를 가늠할 수 있다.

景氣후퇴 뚜렷...우려 高潮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8.6% 증가로 내수 확대에 힘입어 12월(10%)의 증가(8.7%)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내수(11.3%)와 수출(12.4%)이 4%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이는 실물경제가 활력을 띠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在庫누
經濟

경제 지표의 변동은 실물경제의 건강과 활력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산업생산, 수출, 내수, 투자, 고용 등 다양한 지표가 실물경제의 움직임을 나타내며, 이들의 변화는 경제의 성장과 침체를 가늠할 수 있다.



이제야 두 달 동안의 저조한 경제 지표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경기 침체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다.

경제 지표의 변동은 실물경제의 건강과 활력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산업생산, 수출, 내수, 투자, 고용 등 다양한 지표가 실물경제의 움직임을 나타내며, 이들의 변화는 경제의 성장과 침체를 가늠할 수 있다.

정신상태인 속내를 엿볼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열광했다. 수입과외국채 순차 5월중순에 동판기중의리로 수출의 향수를 맡수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과가 설립하는 5월중순에외국인인 영사영사직인 정장이 대부분이태다 주필수출물인 전기전자 기계 조선 섬유 신발등의 수출이 계속 부진하고 특의 美·日을 우월시장이 수출이 아직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한수 5월중순에정장이 7월 중순에정장이 되고 정파와 韓鐵 5월중순에정장이 되고 정파와

정정파 부진한 향수과정판기중의 이 영안수기의 특점을 사문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과열정판 내수가 수그정판의 정장이 더욱 부진한 것이라고 인정한다.

이름마 저물정제가 가만있이면서 국민정제가 바랄정인 한 향이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崔然宗韓鐵조사단장이사는 『4월중순에정판기중의 1.4분기 GDP(7.5%성장)에 따라가정생활 국민정제가 점차 안정되면서도 정판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그런한

추세가 계속되므로 현재의 지출기준을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崔이사는 일부 업종에서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다 『정정파 생산수출물등을 통해 조정해야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2.4분기동안 산업생산과 수출물등을 살펴보면 민간경제의 평가는 한마디로 『정정파』 내부 5월중순에정판기중의 1.4분기 GDP(7.5%성장)을 보면 과열정장의 분화되고 국제수지정자가 축소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좀더 미시적인

로 볼수 보면 문제가 많은데 경제의 지경이다. 설비부자가 계속 축적되는 현상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사 정정파의 향수과외국채 순차 5월중순에정판기중의 이 영안수기의 특점을 사문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과열정판 내수가 수그정판의 정장이 더욱 부진한 것이라고 인정한다.

이름마 저물정제가 가만있이면서 국민정제가 바랄정인 한 향이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崔然宗韓鐵조사단장이사는 『4월중순에정판기중의 1.4분기 GDP(7.5%성장)에 따라가정생활 국민정제가 점차 안정되면서도 정판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그런한

적·投資부진 가속화

전반 재점점 새로운戰略 모색할 때

5월중순에정판기중의 이 영안수기의 특점을 사문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과열정판 내수가 수그정판의 정장이 더욱 부진한 것이라고 인정한다.

이름마 저물정제가 가만있이면서 국민정제가 바랄정인 한 향이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崔然宗韓鐵조사단장이사는 『4월중순에정판기중의 1.4분기 GDP(7.5%성장)에 따라가정생활 국민정제가 점차 안정되면서도 정판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그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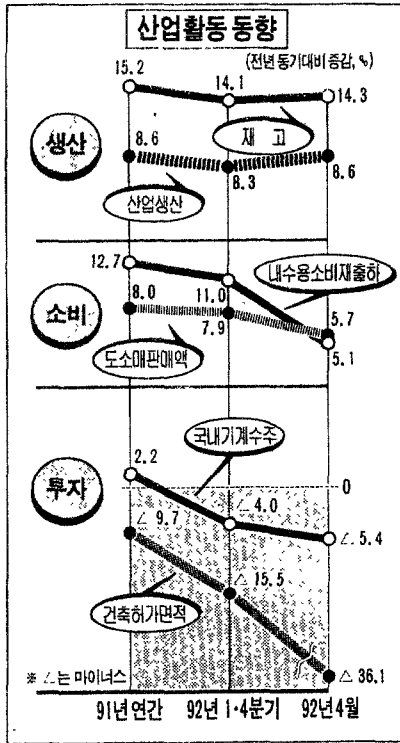
<朴永均기자>

경제 거품해소 : 內需진정세 뚜렷

민간소비 관련지표들의 증가세가 3개월째 계속 둔화되는 등 內需진정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월 이후 3개월째 계속 둔화 추세를 나타내 내수경기가 진정국면에 돌기 시작한 것

포인트를 높여진 2.4%를 기록했다. 제조업 인력이 전 설비서비스분야로 유입하



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4월 중 도소매판매액은 1년 전보다 5.7% 내수용 소비재출하는 5.1% 증가에 각각 그쳐 소비관련 지표의 증가세 둔화가 뚜렷해졌다. 소비관련 지표는 지난 2

이로 풀이된다. 지난해의 경우 연간 도소매판매액은 전년비 8% 내수용 소비재출하는 12.7%씩 각각 큰 폭으로 늘었

내수진정양상은 고용지표 등에도 나타나 4월 중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3%

는 현상만 계속되고 있다 건설투자 규제와 내수진정이 겹치면서 점차 경기 위축에 따른 마찰적 실업증진을 빚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부진은 설비투자지표인 국내기계수주가 1년 전 대비해 5.4% 기계류 수입허가가 42.3%씩 각각

감소했고 건축규제 조치에 따라 건축허가면적이 36.1%나 줄었다.

4월 0% 생산활동은 산업생산의 전년 대비 8.6% 출하는 9.3%씩 비교적 높은 증가를 나타냈다.

통계청은 『분동산거래액』을 통해

다시 말해 민간소비 둔화와 실업률 상승 등은 물가불안과 국제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 성장잠재력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진통으로, 일부 업종의 내수 판매부진 현

소비재 줄고 산업생산·수출은 활기 되 찾아 同行지수 2년만에 하락... "건축 큰 효과"

또 재고는 내수진정 여파가 본격화되면서 상용차, 가전제품 출하 등 중화화업 업종은 전년 동기 14.3% 늘어났다. 제조업가동률은 81.8%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외에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지수는 전월보다 1.0% 감소, 지난 90년 5월 이후 23개월만에 첫 하락세를 나타냈고 2~3개월 뒤 경기수준을 예상 고하는 선행지수도 0.4%

각, 금융건축, 지속적 건축 허가규제와 소비둔화 등이 겹쳐 앞으로 국내 경기는 내수를 중심으로 둔화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이라고 분석했다. 경제기획원은 '성장잠재력을 목표도 금융건축 등 추후 주요 관리를 강화한 정책효과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산업생산과 수출은 견고한 증가세를 나타내 전체적으로 성장내역이 견실해 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상을 전반적인 불황국면에 진입한 것이란 확대 해석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柳栢其기자】

社說

국내경기의 明暗

통계청의 발표한 「4월중 산업활동지수」를 보면 4월중 산업활동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한 104.4%로 나타났다. 이는 4월 중 산업활동지수가 전월 대비 0.4% 상승한 104.4%로 나타났다. 이는 4월 중 산업활동지수가 전월 대비 0.4% 상승한 104.4%로 나타났다.

다. 그러나 산업활동지수 소비부분의 증가세가 둔화되어 산업활동지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4월중 내수가 또 범람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 기회의 우리는 국내 건설경기와의 관련성을 면할 수 없다. 6월 부터 중래의 각종 건설제한조치가 대폭 풀려 건설활동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가스가스로 잠아 놓았던 건설경기 가 속도시 과열의 조짐을 피하게 되고, 이제 다시 연말 무렵의 대물림 선저부위기와 맞물리면 결과론적 더 악화될 것임이 분명하다. 게다가 정부도 이 편견적인 면면을 내걸어 대기업들의 부동자금을 대폭 확대

용할 움직임인 것으로 보이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어떤 새로운 제동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난파를 볼 염려가 있다. 정부의 주의를 새삼 촉구해 본다.

4월중에도 설비투자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점과 기업들의 제품재고가 더 늘었다고 있는 사실, 이런 현상들은 물론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지만 단지 고면면 불가피한 측면이 더 많다. 지금 내수를 진정시키자면 정부정책의 이점과 부호를 띠고 있는 마땅한 이런 「가장」 분위기에 선 어찌해 볼 수 없는 현상인 지도 모른다. 그렇긴 하지만 정부마저 이에 대해 계속 뒷받침하고 있어선 안된다. 경제의 안정성을 높여

모하면다가 자칫 성장의 잠재력을 파괴해 버리고 말 염려가 배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지를 정부가 금융제정의 지원에 힘입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인력의 서비스업으로의 이동이 멈추지 않고 있는 점도 큰 문제거리이다. 정부가 그 방지대책 마련에 한층 적극적이므로 달란들이 불필요가 있을 듯하다. 우선 서비스업의 이직도 평균의 상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란 믿음이 있다.

30세 미만 「노는 사람」 많다

힘든일 기피...제조업취업 격감

통계청 「1분기 고용동향」 발표
 1.4분기 중 산업별 고용동향은
 을 본면 이기간 중 시설투입액과
 중기본 투자인원수가 많아지자
 중기중요업종 취업이전률 또한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3.2%증
 어 2백37만명의 탈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4백9만4천명(0년 작
 년 동기)에 비해선 10만6천명 작
 년 4.4분기)에 비해선 5만4천
 명이 각각 줄었다.
 산업별 취업자별 1.4
 분기 중 취업자는 6.1% 증가했
 는데 그중 제조업과 건설업이 주
 12.1%의 사회적 개인서비스업
 8.7%의 취업 증가세를 보였다
 나 도소매업(3.2%)농수축산업
 다. (2.0%)의 취업 증가세가 두드러졌

건설-서비스업부문 크게증가

통계청 「1분기 고용동향」 발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1.4분
 기 지표 발표 결과 「1」의 따르면
 지난 1.4분기(1~3월)의 파견
 내실업자는 53만3천명(0년 동기)을
 기록한 반면 동기간 2.9%증
 기록했다.
 1.4분기 중 △15~24세의 젊은
 층이 9.2%포인트 증가했다. 0.
 2%포인트 높아졌고 △25~29세
 는 3.8%포인트에서 4.4
 %로 0.6%포인트 증가했다. 반
 면 △30~49세는 1.7%에서
 1.5%로 △50세 이상은 1.1%
 에서 0.7%로 각각 낮아졌

점진적 失業率 9.2%

1분기 3D기피심화... 노년층이 줄어

지난 1.4분기 중 전체 실
 업률(1분기)은 전년 동기와
 2.9%포인트 내수침체에도
 불구하고 0.1%포인트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통계청이 발표한
 「1.4분기 고용동향」에 따
 르면 1~3월 중 경제활동
 인구는 1천8백60만명이
 토지다해 동기의 비해 3.
 6%(64만명), 경제활동참
 가율은 58.8%로 1.2%
 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실업률(1분기)은 전년 동기
 수율을 나타냈다.
 15~24세 연령층의 실
 업률은 9.2%로 전체 실
 업률에 크게 웃돌고 있는
 데 이른 일자리를 구하는
 신기술업자가 많기 때문
 일 것으로 보인다. 3D업종이
 50세 이상층의 실업률
 의 실업률은 0.7%로 지
 단 해동기의 비해 0.4%
 포인트 줄었다.
 이같은 추세는 국가의
 인력 수요가 100만명 증고령
 여성 취업자수가 일시적으
 로 증가한 때문이므로 해
 산업을 취업자 수가 늘어
 2백37만명(0년 동기)에
 0.2%포인트 증가했다. 3.2%
 4천명(동기간)만큼 판
 의 실업률은 0.7%로 지
 단 해동기의 비해 0.4%
 포인트 줄었다.
 이같은 추세는 국가의
 인력 수요가 100만명 증고령
 여성 취업자 수가 일시적으
 로 증가한 때문이므로 해
 산업을 취업자 수가 늘어
 2백37만명(0년 동기)에
 0.2%포인트 증가했다. 3.2%
 4천명(동기간)만큼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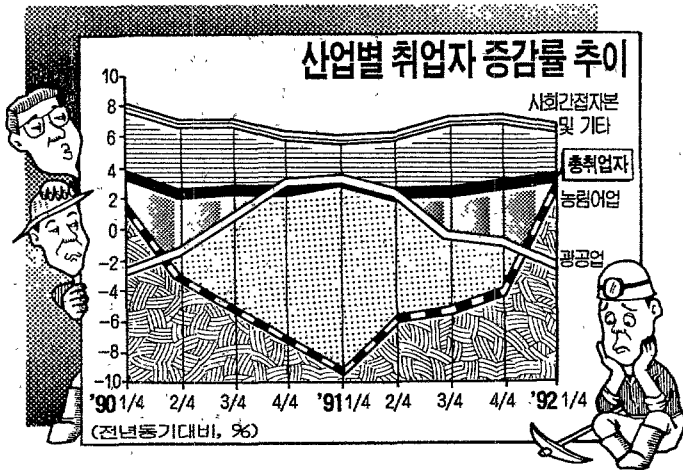
점진적 失業率 늘어난다

15~24세 9.2% 가장 많아

통계청 「1분기 고용동향」 발표
 지난 1.4분기(1~3월)의 파견
 내실업자는 53만3천명(0년 동기)을
 기록한 반면 동기간 2.9%증
 기록했다.
 1.4분기 중 △15~24세의 젊은
 층이 9.2%포인트 증가했다. 0.
 2%포인트 높아졌고 △25~29세
 는 3.8%포인트에서 4.4
 %로 0.6%포인트 증가했다. 반
 면 △30~49세는 1.7%에서
 1.5%로 △50세 이상은 1.1%
 에서 0.7%로 각각 낮아졌

24세이하 실업률 9.2%

3D현상 반영...전체론 2.9%



지난 1·4분기중우리나라 실업률은 2.9%로 90년 이후의 낮은 수준이 지속됐으나 24세이하의 저

건설취업자 12% 증가 제조업은 2.1% 감소

1분기 고용등향 大邱·大田 4.3%로 으뜸

다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을 해야 하는 3D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시외간접직분 및 기타 부문의 취업자 증가율은 작년동기와의 비해 12% 증가, 작년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도 산매업과 운수·숙박업은 3% 안팎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통계청)은 1992년 1·4분기 지역별 고용증감률

을 분석한 결과 1·3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1천 8백 60만 명으로 작년 동기와의 비해 3.6%(64만 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감률은 58.8%로 1.2%포인트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농가와 비농가, 영농준비농과 비농가 및 중고령층의 증가의 경

제화향상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취업자는 1천 8백 6만 8천 명으로 작년의 비해 3.7%(63만 7천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농림업은 2백 37만 명으로 작년동기와의 비해 3.2%(7만 4천 명) 증가했다. 이를 저를 평가하기 위하여, 모종의 주기파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 채배의 증가로 인하여 수요가 증가, 일시적으로 50세 이상의 중고령 여성 취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87년과 90년에도 1·4분기 중 영농준비농 취업자가 일시적 현상이었으나 이번 경우는 영농준비농이 감소 추세다. 광공업 취업자는 4백 93만 8천 명으로 작년의 비해 2.2%(11만 2천 명) 줄었으며 작년 1·4분기 이후

취업자는 1천 8백 6만 8천 명으로 작년의 비해 3.7%(63만 7천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농림업은 2백 37만 명으로 작년동기와의 비해 3.2%(7만 4천 명) 증가했다. 이를 저를 평가하기 위하여, 모종의 주기파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 채배의 증가로 인하여 수요가 증가, 일시적으로 50세 이상의 중고령 여성 취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87년과 90년에도 1·4분기 중 영농준비농 취업자가 일시적 현상이었으나 이번 경우는 영농준비농이 감소 추세다. 광공업 취업자는 4백 93만 8천 명으로 작년의 비해 2.2%(11만 2천 명) 줄었으며 작년 1·4분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광업을 뺀 제조업의 경우 취업자는 4백 87만 4천 명으로 작년의 비해 2.1%(10만 6천 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6대 도시가 9개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6대 도시 중의 서는 대구(4.3%) 대전(4.3%)이 높았고 광주(2.9%)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9개 도 예산은 경기(2.5%) 충청(2.3%)이 높았고 경북(1.3%) 제주(1.1%)가 낮은 편이었다.

中高齡층 노동참여 增加분구

제조업인력우회력감소

젊은층 生産職 기피 失業늘어

50대 이상 인력 1천 2백 40만 명으로 1991년 1천 1백 40만 명보다 80만 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50대 인력은 1천 1백 40만 명으로 1991년 1천 1백 40만 명보다 80만 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50대 인력은 1천 1백 40만 명으로 1991년 1천 1백 40만 명보다 80만 명 증가했다.

이 기간 중 실업자가 1천 2백 40만 명으로 1991년 1천 1백 40만 명보다 100만 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50대 인력은 1천 1백 40만 명으로 1991년 1천 1백 40만 명보다 80만 명 증가했다.

제조업 인력 분포는 4월 이후 5개의 1차 산업체가 연달아 부도를 낸 데 이어 상당수 업체가 계속 부도를 기록하고 있다. 부품업체들의 어떤 한 자 동차메이커들이 재고품까지 감산에 들어가 부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량 도매 업체는 여전히 호황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젊은층은 특히 지난 3월부터 대우자동차가 야간근로자에게 임금삭감에 따라 자취산업을 탈락시키며, 대우기전 등 대우 계열사와 동양이화학공업(주), (주)전산대우를 산음 대우산업체들이 대부분 60% 이하의 가동률에 처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산업체들이 1차 산업체 1천 2백 40만 명

중 2, 3차 하청업체를 합하면 모두 7천 5백 4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10%가 말을 끊어 자취산업을 떠났으며, 연쇄부도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社說

大都市 젊은이들의 高失業

구택의 통계를 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높고 있는 일손이 많은데 人力難이 심하다는 점이다. 특히 高學歴인수록 실업률이 높고 대도시일수록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이이다. 서울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실업자가 만 명이나 된다. 그러나 이 실업률도 사실이다.

통계청의 1·4분기 지역별 雇傭 통계를 발표했장만 그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 다만 통계로 보았을 때 대도시와 지방의 실업률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이중에서 20대 젊은이들의 실업률은 15세 이상에서 24세미만의 실업률보다 9.0% 높았다. 이 계층

이 高校나 大學을 졸업한 취업준비생인 것이다.

또한 25세 이상 29세미만의 젊은이들도 평균 실업률 2.9%보다 훨씬 높고 4.4%의 실업률을 나타냈다. 이 계층은 대학을 졸업하고 병역 의무도 마쳤을 나이에 취업할 만한 아무런 장벽이 없다가 볼 수 있다.

왜 이들 20대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높을까 말이다. 일차적으로는 실업률의 높이가 아니라 실업률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계층은 실업률의 7%만 지방에 집중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곳곳에 일손이 넘치나 이 계층의 도시 집중도가 갈수록 높고 있다. 자신을 대학을 보내 줄 준비를 시키고 구직의 기회를 때까지 기다렸는데 아직도 일손이 넘치나 실업률도 높고 있다. 재취업한

경우도 많았지만.

製造業종사자가 빠져나가고 건설업이나 숙박업과 같은 서비스업분야의 종사자가 늘어나는 추세도 마찬가지이다. 제조업은 물론 건설업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11만명의 공장에서 일한 한다면 서비스업에는 6만명이나 불어났기에 말이다.

지역별 실업률 통계에서도 큰 일이 없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대도시와 大田과 인천은 실업률이 4%를 넘었다. 서울과 부산도 3.9%로 전국 평균치를 크게 넘었다.

그러나 대도시에는 살고 있는 사람이 모자라 경제에 주름이 가건 말건 대도시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공천이 많아 있다는 말이다.

왜 도시에는 살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겠는가. 보더라도 地價經濟圈 관도 주변의 일출태고 무용민수외로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정작 큰 인력만 에도 정당한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편저 문물을 아끼지 않고 일하고자 해도 일자리가 없으면 고생이던 시절을 경험한 세대로서의 기가 만만치 않다. 職業을 가릴 이유가 어디 있을까.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해서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공짜마다 사랑을 찾고 있고 사보살인도 비자가 많다. 도시의 젊은이들의 열정을 찾아 나서지만 하면 무리의 열정이 해결될 수 있겠는가. 확실히 그렇다.

6월 소비자물가 0.2% 상승

올 상반기 3.8% 올라 최근 3년중 가장 安定

서비스요금진정이 主因... 하반기지속은 불투명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8%를 기록, 최근 3년중 가장 安定된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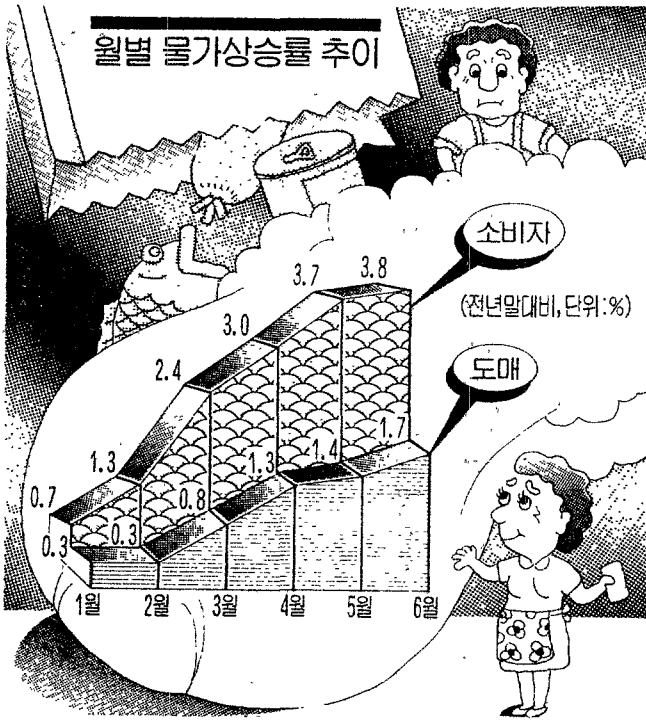
그러나 지난 25일자로 대폭 오른 油價가 7월부터 물가지수에 본격 반영되는 데다 장마철을 앞둔 농산물의 수급차질과 원자재값 및 환율상승 등 물가불안요인도 적지 않아 하반기 물가관리여건을 어렵게 하고 있다.

29일 통계청과 韓銀이 발표한 「6월 및 상반기 중 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6월 한달동안 0.2%가 도매물가는 0.3%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따라 올 상반기 6월

말까지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말보다 3.8% 도매물가는 1.7%가 각각 올랐으며 특히 소비자물가는 90년과 91년 상반기 6.9% 6.2%와 비교해 반기물가로는 최근 3년중 가장 安定된 모습을 나타냈다.

상반기 소비자물가가 정부목표치(5%)를 밑돌며 이처럼 安定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12.2%나 오른 면서 물가상승률 주도했던 개인서비스요금이 올하는 6.4%로 상승률이 크게 떨어진 데다 농축수산물도 작황호조로 지난해 상반기 9.0%에서 3.7%로, 집賃 역시 지난해 5.9%에서 3.6%로 올름세가 꺾



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상반기중 新鮮식품 지수(2.1%)와 월1회이상 구입품목 지수(4.0%), 20개 기본생활물가적(4.0%)이 전체 소비자물가와 비슷한 올름세를 보여 피부물가와 지수들간의 괴리도 좁혀진 것으로 분석됐다.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0.2%로 안정세

통계청 조사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소비자물가연동지수(이하 소비자물가)는 지난 5월 유가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0.2%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나타났다. 이는 6월을 삼반기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3.8%로 나타났다. 90년의 6.9%, 91년의 6.2%와 비교할 때 최근 3년 중 가장 안정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6월 하반기 들어 유가인상에 따른 파급효과와 인플레이션 재연 우려 ▲국제원자재 가격 및 환율 상승에 따른 공산품 원가 압박 ▲삼파 파시찰 증가 ▲인플레이션 시점 수급차질 등 불안요인이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재연의 우려를 시사하고 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1.7% 상승률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연동지수는 6월 100.2%로 나타났다. 이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3.8%로 나타났다. 90년의 6.9%, 91년의 6.2%와 비교할 때 최근 3년 중 가장 안정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6월 하반기 들어 유가인상에 따른 파급효과와 인플레이션 재연 우려 ▲국제원자재 가격 및 환율 상승에 따른 공산품 원가 압박 ▲삼파 파시찰 증가 ▲인플레이션 시점 수급차질 등 불안요인이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재연의 우려를 시사하고 있다.

삼반기 평균 대비 3.8%로 안정세 유지... 3년사이 최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1.7% 상승률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연동지수는 6월 100.2%로 나타났다. 이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3.8%로 나타났다. 90년의 6.9%, 91년의 6.2%와 비교할 때 최근 3년 중 가장 안정세를 나타냈다.



92. 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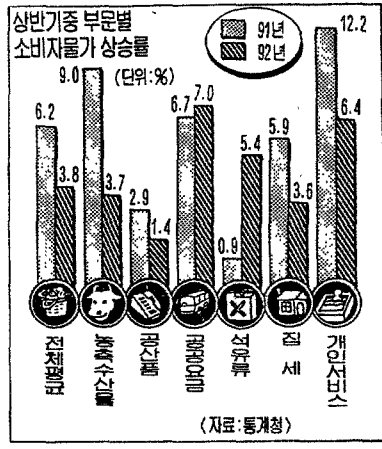
삼반기 물가 3.8%로 안정

소비자물가가 6월 중 0.2% 상승에 그쳐 올해 삼반기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삼반기 평균 대비 3.8%로 나타났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1.7% 상승률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연동지수는 6월 100.2%로 나타났다. 이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3.8%로 나타났다. 90년의 6.9%, 91년의 6.2%와 비교할 때 최근 3년 중 가장 안정세를 나타냈다.

6월 0.2%... 3년래 최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1.7% 상승률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연동지수는 6월 100.2%로 나타났다. 이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3.8%로 나타났다. 90년의 6.9%, 91년의 6.2%와 비교할 때 최근 3년 중 가장 안정세를 나타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1.7% 상승률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연동지수는 6월 100.2%로 나타났다. 이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3.8%로 나타났다. 90년의 6.9%, 91년의 6.2%와 비교할 때 최근 3년 중 가장 안정세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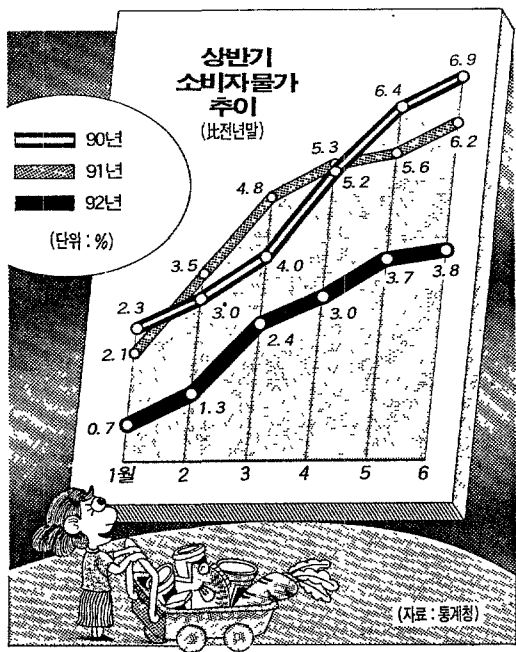
하반기 물價 불안

上半期엔 소폭 상승·비교적 안정

올 상반기엔 소비자물가는 작년말에 비해 3.8% 상승,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냈으며 집계됐다. 6월엔 연평균 소비자물가가 0.2% 도매물가가 0.3%가 각각 올랐다고 발표했다. 6월중 소비자물가는 유가와 집세가 각각 0.12% 올랐으며, 평균요율과 개인서비스요율도 0.3%씩 상승했다. 반면 농축수산물과 공산품은 0.3%와 0.2%가 각각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고추(16.7%)와 고춧가루(12.1%)가 가장 많이(11%) 감소된 수박(10.9%) 등이 10% 이상 크게 올랐으며, 풋고추(34.9%)와 감자(29.9%) 등은 내림세를 보였다. 한편 하반기 물가는 ▲유가인상의 파급효과 ▲국제 원자재 가격면 ▲환율상승의 따른 공산품의 증가압박 ▲장마 및 휴가철의 따른 농산물수급불균형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불안한 상황이다.

상반기 소비자 물價 3.8% 상승에 그쳐

6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말에 비해 0.2%의 소폭 상승에 그침에 따라 올 상반기 전체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로 새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3년 새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3년 새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그림: 金龍吉기자>

여 백

3/4분기 보도기사

(7월~9월)

여 백

生産·소비·투자 부쩍 줄어

5월중 산업활동동 제로임稼動率 78.2%

在庫만 작년同月比 16.4%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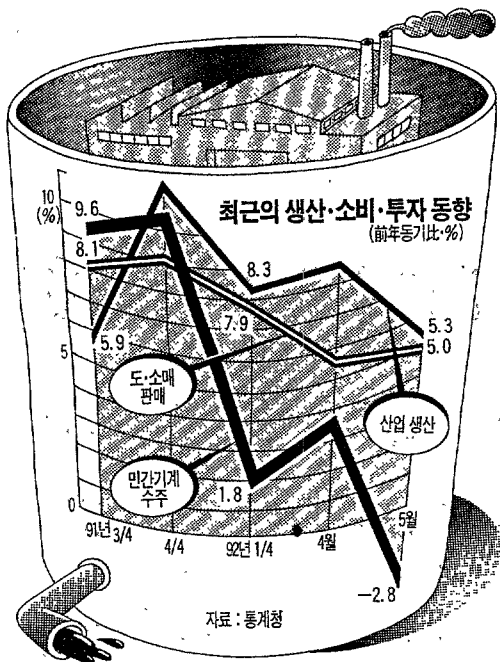
국내경기가 5월들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부진하고 경기지표도 현저한 폭락을 보이는 등 4월의 이어 2개월 연속으로 두달째 침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 조사에 따르면 5월중 산업활동동 제로임稼動率은 78.2%로 작년 4월 이후 13개월만에 처음으로 80%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1980년 11월 이후 1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4월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은 5.3%, 소비는 5.0%, 투자는 5.3%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4월보다 각각 0.3%, 0.5%, 0.3%포인트 줄었다.

경기지표 중 제조업 생산은 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월보다 0.5%포인트 줄었다. 이는 4월보다 0.5%포인트 줄었다.

제조업 생산은 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월보다 0.5%포인트 줄었다. 이는 4월보다 0.5%포인트 줄었다.



<그림: 張甲鎭기자>

제조업 생산은 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월보다 0.5%포인트 줄었다. 이는 4월보다 0.5%포인트 줄었다.

제조업 생산은 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월보다 0.5%포인트 줄었다. 이는 4월보다 0.5%포인트 줄었다.

제조업 생산은 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월보다 0.5%포인트 줄었다. 이는 4월보다 0.5%포인트 줄었다.

자민수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고·중·저소득층의 소비지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월보다 0.5%포인트 줄었다. 이는 4월보다 0.5%포인트 줄었다.

자민수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고·중·저소득층의 소비지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월보다 0.5%포인트 줄었다. 이는 4월보다 0.5%포인트 줄었다.

자민수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고·중·저소득층의 소비지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월보다 0.5%포인트 줄었다. 이는 4월보다 0.5%포인트 줄었다.

건설비가 3.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월보다 0.5%포인트 늘었다. 이는 4월보다 0.5%포인트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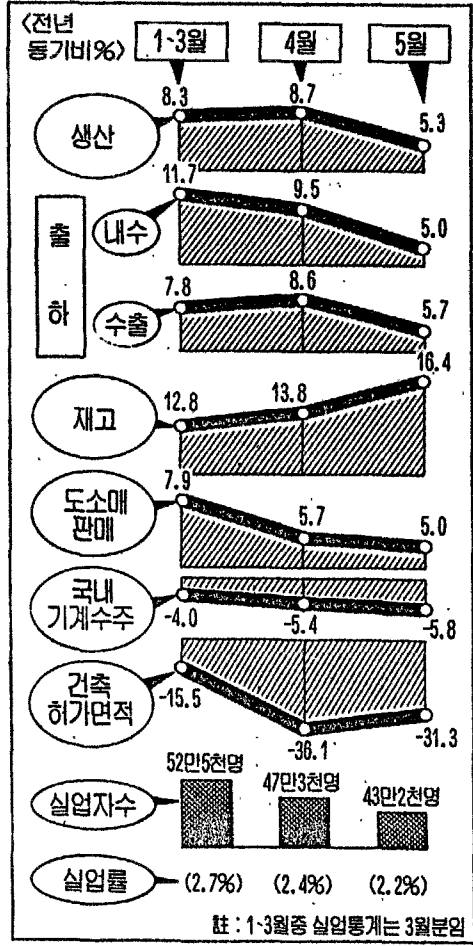
건설비가 3.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월보다 0.5%포인트 늘었다. 이는 4월보다 0.5%포인트 늘었다.

건설비가 3.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월보다 0.5%포인트 늘었다. 이는 4월보다 0.5%포인트 늘었다.

산업활동 기은 「어름잡」

통계청 5월동향조사 생산 출하 투자 둔화 뚜렷

5월중 산업활동 동향



점부의 감축한 내수진정 시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생산출하 및 투자 등 주요 물량지표들이 작년동기에 비해 큰폭의 둔화추세를 보여 뚜렷한 침체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

경기先行지수를 첫감소... 침체 계속될듯

5월중 산업생산은 설비

내수진정 시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생산출하 및 투자 등 주요 물량지표들이 작년동기에 비해 큰폭의 둔화추세를 보여 뚜렷한 침체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

생산자제품재고는 5월 중 16.4%로 높아졌고 제조업가동률은 80%아래로 떨어졌다. 향후의 설비투자증가를 예고하는 기계투자는 5월 중 5.8% 감소, 4, 5월 연속감소세를 나타냈고 기계투수입이 각각 45.3%, 21%의 감소세를 기록

경기先行지수 올 첫감소... 침체 계속될듯

재고 16.4%로 높아지고 가동률도

7개월만의 최저증가율

산업심리문위주... 향토특색 제품 부명

통계청 발표 5월 동향 분석

통계청이 발표한 5월 동향 분석에 따르면, 5월 산업심리문위주... 향토특색 제품 부명... (text continues with economic indicators)

한국의 경제인. 산업심리문위주... 향토특색 제품 부명... (text continues)

한국의 경제인. 산업심리문위주... 향토특색 제품 부명... (text continues)

한국의 경제인. 산업심리문위주... 향토특색 제품 부명... (text continues)

관련指數 일제히下落... 「침체론」 뒷받침 "일시적 현상일뿐"... 反轉 가능성 기대도

관련指數 일제히下落... 「침체론」 뒷받침... (text contin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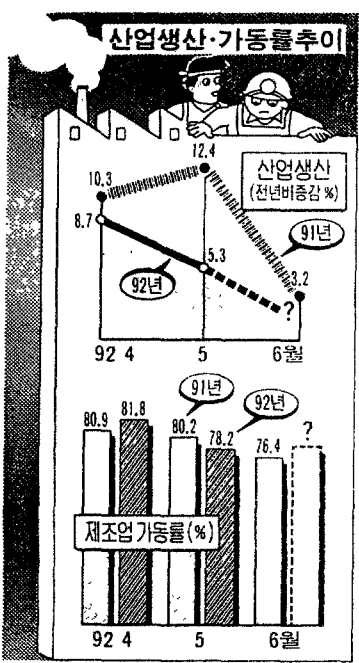
관련指數 일제히下落... 「침체론」 뒷받침... (text continues)

관련指數 일제히下落... 「침체론」 뒷받침... (text continues)

관련指數 일제히下落... 「침체론」 뒷받침... (text continues)

관련指數 일제히下落... 「침체론」 뒷받침... (text continues)

관련指數 일제히下落... 「침체론」 뒷받침... (text continues)



社說

기업의 內實다지기 부추겨야

지난 몇해동안 경기과열과 둔화를 겪으면서 우리도 경기동향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였는데 통계청이 지난 3일 발표한 「5월중 산업동향」을 빌미로 한동안 잠잠하던 경기논쟁이 되살아날 것 같다.

5월중 동향은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함께 떨어졌고 생산 출하 가동률등의 증가세가 모두 크게 꺾인데 비해 재고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6.4%나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그러나 총수요 관리를 통해 내수진정 물가안정 국제수지 개선등을 어느정도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고통이 전혀 의미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할수 있다.

다만 지금의 경기국면이 업계의 주장대로 경기침체로 가속화되고 있느냐 아니면 정부측 말대로 경기가 진정되는 조정국면이냐는 판단은 여전히 쉽지 않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내수경기는 당분간 어려울것 같으며 수출전망은 해외경기 와 환율움직임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연말이나 적어도 다음해 상반기중에는 회복되리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수출이 회복된다 해도 내수둔화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회복될지는 알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정부가 선택할수 있는 정책의 폭이 매우 좁다는 사실이다. 따라

서 다음의 몇가지 점을 강조하면서 기업과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는 민간자율경제를 정착시키는 과도기의 경제에 충격을 주는 예상외의 돌발사태가 없어야 한다. 정부개입은 개입시기, 개입강도, 개입방법에 따라 다르나 계획, 결정, 집행의 단계마다 時差가 있어 때맞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러므로 차라리 경제환경의 불확실성만이라도 낮추어주기 위해서도 자의적인 정부개입은 자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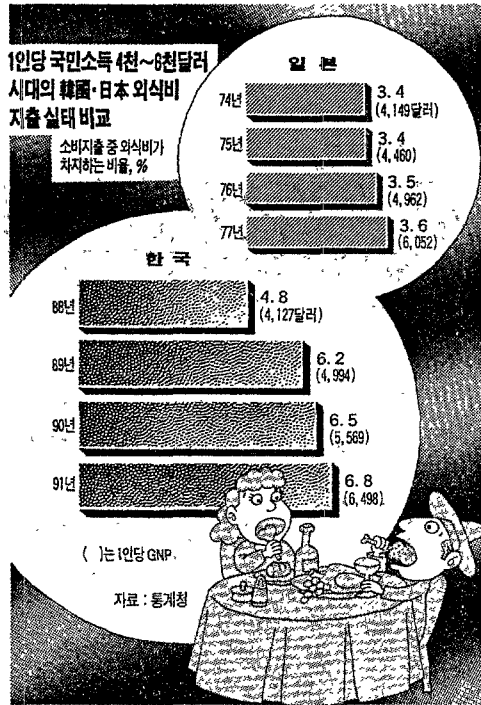
둘째로 불특정다수의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수 있는 제도개선에 힘써야겠다. 특히 금융관행의 개선과 효율향상이 자율적인 경기회복노력에 매우 긴요하다.

셋째로 경기둔화속에서도 생산성을 높이고 內實을 다지는 설비개선및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촉진해야겠다. 경기침체를 벗어나려는 기업의 노력은 경기회복으로 접어드는 밑거름이며 革新(innovation)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업의眞面目이다.

이러한 노력없이 정부지원에만 기대려 할때 지금의 어려움을 피할수는 있을지 모르나 민간기업의 「홀로서기」, 나아가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소득은 증진국 먹는건先進國

작년 가구당 外食費 총지출의 6.8% GNP 4배인 日보다 2.9%나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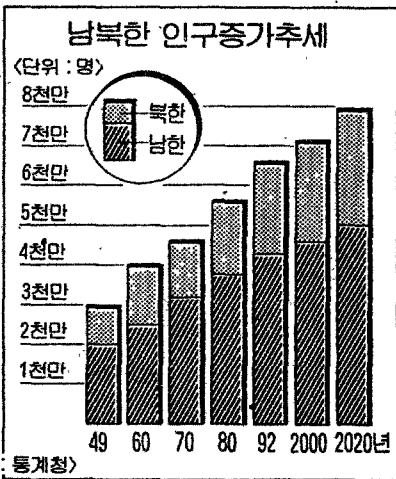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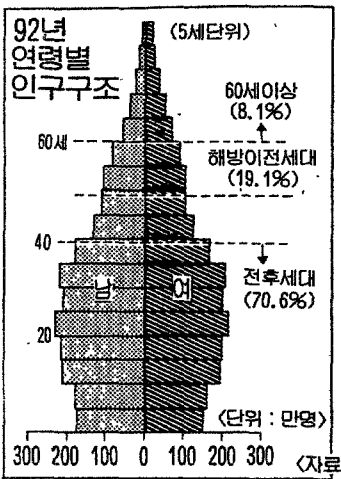
<그림=朴春奭기자>

우리민족은 소득수준에 비해 외부에서 먹고 마신다. 우리나라의 외식비 지출은 미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데, 대도시에서는 '자카' 등 고급 레스토랑을 타는 급사한 음식점의 증가로 도시민의 虛勢가 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가 1인당 도시 외식비(외식비/총지출) 8천 원(총지출 11만 원)을 지출한 반면, 미국은 3만 원(총지출 11만 원)에 비해 외식비가 6.8%인 7만 5천 원(총지출 11만 원)에 불과하다. 90년의 비해 외식비가 1만 원이 늘고 1만 5백

원 소비지출의 4.3%에 불과하다. 1인당 외식비 지출이 4천 원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미국의 88%에 불과한 소비지출의 외식비 비중인 4.8%에 불과하다. 이 비추어 일본의 74년과 비교할 때 1.4%포인트가 높았으며 6천 원에 불과한 91년까지 4천 원이었던 외식비 비중이 8.8%포인트나 높아진데 비해 일본의 비추어 보면 1.8%포인트나 높았다. 91년 4만 4천 원(총지출 11만 원)에 비해 외식비가 0.8%인 3천 5백 원(총지출 4만 4천 원)에 불과하다. <7월 1일자>

또 91년 현재 소비지출 외식비 비중을 보면 90년 6천 4백 88원(총지출 11만 6,880원)에 비해 6.8%에 이르렀다. 91년 6만 4,980원(총지출 95,280원)에 비해 6.8%에 이르렀다. 91년 6만 4,980원(총지출 95,280원)에 비해 6.8%에 이르렀다. <梁在燦기자>

南韓인구 4,367萬명



통계청 「세계인구의 날」 현황 발표

11일 0시 현재 우리나라 인구규모는 세계 23위 수준인 4천3백67만4천1백17명이다. 이는 1990년 3천7백만 명에 비해 17.1% 증가한 것이다. 인구증가율은 1990년 1.1%에서 1992년 0.8%로 낮아졌다. 이는 1990년 1.1%에서 1992년 0.8%로 낮아졌다. 이는 1990년 1.1%에서 1992년 0.8%로 낮아졌다.

남한 인구는 2천1백17만4천117명으로, 북한 인구는 2천2천50만 명으로 추산된다. 남한 인구는 1990년 1천9백만 명에서 1992년 2천1백17만4천117명으로 11.7% 증가했다. 북한 인구는 1990년 2천1백만 명에서 1992년 2천2천50만 명으로 7.1% 증가했다.

남한 인구는 1990년 1천9백만 명에서 1992년 2천1백17만4천117명으로 11.7% 증가했다. 북한 인구는 1990년 2천1백만 명에서 1992년 2천2천50만 명으로 7.1% 증가했다. 이는 1990년 1.1%에서 1992년 0.8%로 낮아졌다.

南北韓 합치면 6,600萬...세계 14위
戰後세대 71%...남녀 性比 101.4

밀도 세계 3위... 1km² 4百40명

1km²에 440명이라는 인구밀도는 세계 3위이다. 이는 1990년 390명에서 1992년 440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1990년 390명에서 1992년 440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1990년 390명에서 1992년 440명으로 증가했다.

1km²에 440명이라는 인구밀도는 세계 3위이다. 이는 1990년 390명에서 1992년 440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1990년 390명에서 1992년 440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1990년 390명에서 1992년 440명으로 증가했다.

1km²에 440명이라는 인구밀도는 세계 3위이다. 이는 1990년 390명에서 1992년 440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1990년 390명에서 1992년 440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1990년 390명에서 1992년 440명으로 증가했다.

세계인구 54億 넘어

2025년엔 85億 전망

세계인구는 1992년 54억을 넘어섰다. 이는 1990년 52억에서 1992년 54억으로 증가했다. 이는 1990년 52억에서 1992년 54억으로 증가했다. 이는 1990년 52억에서 1992년 54억으로 증가했다.

세계인구는 1992년 54억을 넘어섰다. 이는 1990년 52억에서 1992년 54억으로 증가했다. 이는 1990년 52억에서 1992년 54억으로 증가했다. 이는 1990년 52억에서 1992년 54억으로 증가했다.

세계인구는 1992년 54억을 넘어섰다. 이는 1990년 52억에서 1992년 54억으로 증가했다. 이는 1990년 52억에서 1992년 54억으로 증가했다. 이는 1990년 52억에서 1992년 54억으로 증가했다.

人口증가를 2021년엔 "0"

5천60만 頂點 내리막

젊은층 이미 감소세... 노동력 不足 심화

통계청 발표

우리나라는 앞으로 20년 동안 30년 후인 2021년에는 5천60만 명으로 인구가 2천만 명을 밑돌고 감소추세로 발전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5~19세의 청년층 인구가 1990년부터 2024년까지 95년부터 인구가 50만 명 감소, 2024년에는 10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2021년에는 30년 동안 여자 1백만 명의 비율이 계속 높아져 결혼 행태의 변화도 예상된다.

11년째 세계인의 수가 50억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2021년에는 50억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에는 50억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35년 동안 인구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1년에는 50억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6월 22일 발표된 통계청의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에는 50억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구증가가 멈추는 시점이

로 예상된다. 전체 인구가 70~75년 1.8%, 80~85년 1.4%, 90~95년 0.9%, 95~2000년 0.8% 등으로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南韓) 인구는 이날 현재 4천3백67만 4천1백17명, 北韓은 지난 1일 현재 2천2백33만 6천명의 탈북자를 포함해 모두 6천5백99만 9천9백99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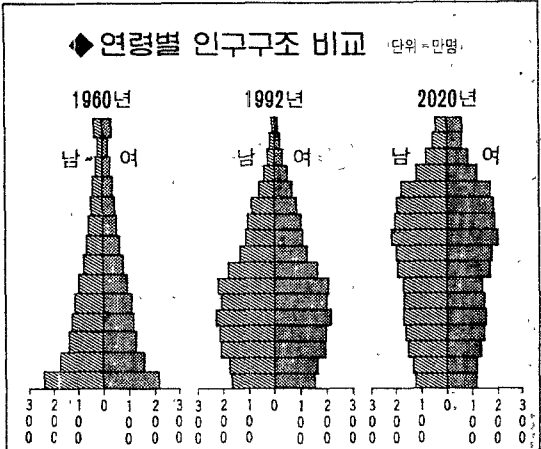
이상은 南韓의 인구가 23년째로 많은 것으로 세계인구(지나 10일 현재 54억 8천 8백1만명)의 0.8% 그리고 北韓을 합하면 세계인구의 1.2%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인구밀도의 있어서는 南韓이 4백40명으로 도시국가 및 소규모 도시를 제외하면 발라르 시 南韓의 인구가 3위의 고밀도 국가이다.

92년 현재의 인구구조를 보면 53년 후의 출생한 後세대와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0.6%, 해안 이후세대는 80.9%를 차지하고 있고 60세 이상 및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은 각각 8.1%, 5.2% 등으로 선진국의 평균치인 17.1%, 12.1%보다 크게 훨씬 낮은 수준이다.

남자 1백1.4명, 여자 1백13.2. 59세는 1백8.5를 나타내 최근 출산자녀수가 적어지면 더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扶養比(14세 인구의 65세 이상인구를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비율)는 43.2%로 지난 60도의 82.6%에 비해 출산율저하에 따라 급속한 감소세를 나타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노후생활보장 등에 적잖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60년의 전례적인 후진국형인 피라미드형(출생률 高 사망률 高)에서 92년에 중이형(출생률 中 사망률 中)으로 변형되고 있다.



의 1.2%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밀도의 있어서는 南韓이 4백40명으로 도시국가 및 소규모 도시를 제외하면 발라르 시 南韓의 인구가 3위의 고밀도 국가이다. 92년 현재의 인구구조를 보면 53년 후의 출생한 後세대와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0.6%, 해안 이후세대는 80.9%를 차지하고 있고 60세 이상 및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은 각각 8.1%, 5.2% 등으로 선진국의 평균치인 17.1%, 12.1%보다 크게 훨씬 낮은 수준이다. 남자 1백1.4명, 여자 1백13.2. 59세는 1백8.5를 나타내 최근 출산자녀수가 적어지면 더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扶養比(14세 인구의 65세 이상인구를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비율)는 43.2%로 지난 60도의 82.6%에 비해 출산율저하에 따라 급속한 감소세를 나타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노후생활보장 등에 적잖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60년의 전례적인 후진국형인 피라미드형(출생률 高 사망률 高)에서 92년에 중이형(출생률 中 사망률 中)으로 변형되고 있다.

한편 현재 55억명의 달하고 있는 세계인구는 2천억 60억 명으로 25년 85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戰後세대가

南韓 인구

「세계인구의 11%를 차지하는 후진국체인 南韓인구는 4천3백만명의 이르고 있다. 지난 49년(2천18만9천2백명)에서 84년(4천3백만명)까지 14년간의 인구가 2천4백만명 증가했다.

연령별 인구구조를 보면 戰後세대(53년 이후 출생) 비율이 전체의 70.6%, 解放 이후세대가 80.9%에 달하고 60세 이상 및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비율이 8.1%, 5.2%로 증가세에 있다. 물론 이같이 고령인구비율은 선진국의 평균치(17.1%, 12.1%)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또 남자(2천1백97만9천명)가 여자(2천1백68만5천명)보다 약간 많고 여자 1

세계인구의 11%를 차지하는 62억이 넘는

유엔 보고서

4분의 3 이상이 後進國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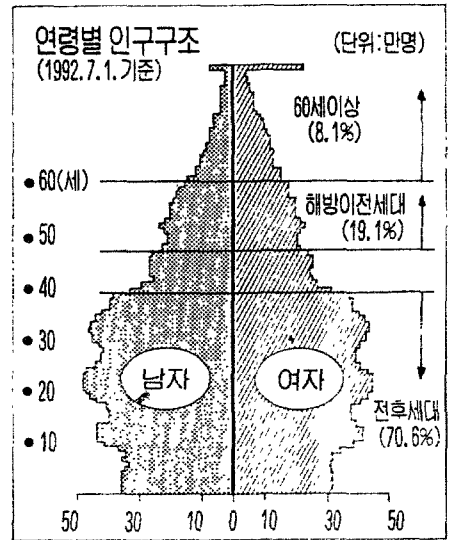
【유엔개발계획(UNDP) 전 세계의 인구는 현재 55억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2000명의 국가가 고령인의 10%를 차지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는 2025년에 현재의 2.5배로 증가하며 그 비율도 현재의 12%에서 19%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유엔의 비효율 9%에서 4%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아프리카의 경우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로 인해 앞으로 25년간 1천3백만명이 손실 것으로 보이나 유엔은 이 손실을 통해 인구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견된 것이나 그 때에 대해 다다오 전의 변모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현재 세계 인구의 4분의 3 이상이 후진국에 살고 있으며 2025년까지의 인구가 가운데



결혼행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47초마다 1명이 태어나고 1백25초마다 1명이 사망, 75초에 한명꼴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계정으로는 연간 1억3천8백만명이 태어나고 5천만명이 사망해 8천8백만명정도가 증가하고 있다.

〈權赫燦기자〉

인구규모

순위	국명	인구수 (천명)
1	중국	1,139,060
2	인도	853,094
3	미국	288,595
4	인도네시아	249,224
5	브라질	184,283
6	인도네시아	150,368
7	인도네시아	123,460
8	인도네시아	122,626
9	인도네시아	115,593
10	인도네시아	108,542
11	인도네시아	88,598
12	인도네시아	77,563
13	인도네시아	66,693
14	인도네시아	62,413
15	인도네시아	57,237
16	인도네시아	57,061
17	인도네시아	56,138
18	인도네시아	55,868
19	인도네시아	55,702
20	인도네시아	54,607
21	인도네시아	52,426
22	인도네시아	49,240
23	인도네시아	42,869
24	인도네시아	41,675
25	인도네시아	39,187

70.6% 차지

統計廳 발표본 「세계人口의 變遷」

統計廳이 발표한 「세계人口의 變遷」에 따르면, 2000년 5천만명의 이 인구중의 5천만명(5천만)은 2001년 5천 58만6천명(5천 58만6천명)을 고비로 인구 성장의 궤를 정점으로 보았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지난 90년을 기중해 세계 23위이지만 인구에 비해 국토면적이 작아 세계 3위의 인구稠密國 이다.

백령당 남자수인 性比는 1백1.4. 그러나 0~4세의 性比는 1백13.2, 5~9세가 1백8.5로 男兒先登의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불균형이 심화돼 2000년대의 자서는 산부수가 매우 兪를 짓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구조는 지난 60년대 후진국형인 피라미드형(高出生率, 高 사망率)에서 현재는 「鐘形」로 바뀌고 있고 2020년쯤에는 출생은 적고 노령층과 장애인층이 많아지는 「인구」형이 될 때 「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증가율은 지난 70~75년중 1.8%에서 90~95년 0.9%, 95~2000년 0.8%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세 이하 젊은 연령층의 인구증가는 급격히 둔화돼 향후 신규노동인력의 공급부족현상이 초래될 전망이다.

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2001년에 7%수준에 진입하고 2010년에는 9.4%, 2021년에는 13.1%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돼 老人문제에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결혼포령인구의 남자 25~29세, 여자 20~24세 연령층의 性比는 지난 80년에는 78.6으로 여자가 많아들었다. 90년에는 1백4.7을 기록, 남자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2000년에는 1백19.4, 2010년 1백28.6으로 여자가 크게 부족해

고령인구 증가세... 밀도 세계 3位
남녀 性比 101.4... 扶養比 43.2%로

아프리카인 □인원과 추세

110만 유인이지만 87만 0
 000명이거나 50만명도 불
 만 조세 체계로 인구가 무
 리하게 증가할 수 있다. 인
 구가 증가하면 「세계 인
 구의 1/3」.

아프리카의 인구는 2000년
 0.220억명, 1990년 0.170
 0.644억명, 1980년 0.303
 0.303억명, 1970년 0.241
 0.241억명, 1960년 0.170
 0.170억명이다.

아프리카의 인구는 2000년
 1.170억명, 1990년 0.87만
 1.170억명, 1980년 0.644
 0.644억명, 1970년 0.303
 0.303억명, 1960년 0.170
 0.170억명이다.

아프리카의 인구는 2000년
 1.170억명, 1990년 0.87만
 1.170억명, 1980년 0.644
 0.644억명, 1970년 0.303
 0.303억명, 1960년 0.170
 0.170억명이다.

아프리카의 인구는 2000년
 1.170억명, 1990년 0.87만
 1.170억명, 1980년 0.644
 0.644억명, 1970년 0.303
 0.303억명, 1960년 0.170
 0.170억명이다.

아프리카의 인구는 2000년
 1.170억명, 1990년 0.87만
 1.170억명, 1980년 0.644
 0.644억명, 1970년 0.303
 0.303억명, 1960년 0.170
 0.170억명이다.

아프리카의 인구는 2000년
 1.170억명, 1990년 0.87만
 1.170억명, 1980년 0.644
 0.644억명, 1970년 0.303
 0.303억명, 1960년 0.170
 0.170억명이다.

2010년엔 新婦가 모자란다

중가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2002년의
 9.9%로 6.6%로 떨어졌
 5.9%로 떨어졌. 1990년
 5.9%로 떨어졌. 1980년
 5.9%로 떨어졌. 1970년
 5.9%로 떨어졌. 1960년
 5.9%로 떨어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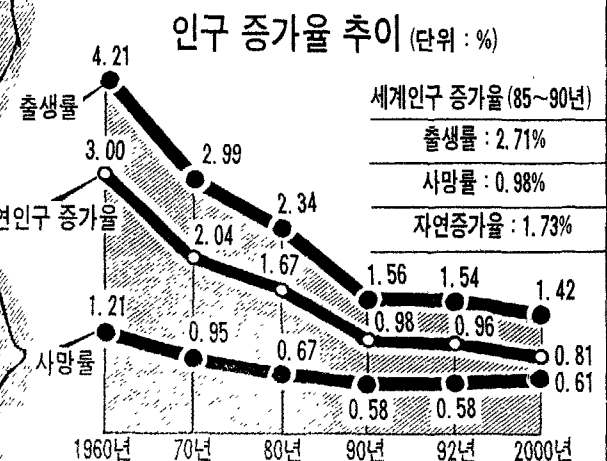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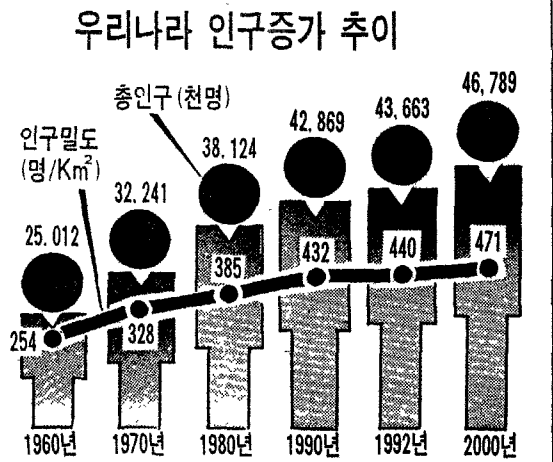
아프리카의 인구는 2000년
 1.170억명, 1990년 0.87만
 1.170억명, 1980년 0.644
 0.644억명, 1970년 0.303
 0.303억명, 1960년 0.170
 0.170억명이다.

7~8년뒤엔 「大入籍」 密度 세계 3위 하루에

일본(3백만명), 미국(3백24만명)
 25만명, 영국(3백24만명)
 25만명, 프랑스(3백24만명)
 25만명, 독일(3백24만명)
 25만명, 이탈리아(3백24만명)
 25만명, 캐나다(3백24만명)
 25만명, 호주(3백24만명)
 25만명, 뉴질랜드(3백24만명)
 25만명, 아르헨티나(3백24만명)
 25만명, 브라질(3백24만명)
 25만명, 콜롬비아(3백24만명)
 25만명, 칠레(3백24만명)
 25만명, 페루(3백24만명)
 25만명, 에콰도르(3백24만명)
 25만명, 볼리비아(3백24만명)
 25만명, 파라과이(3백24만명)
 25만명, 우루과이(3백24만명)
 25만명, 아르헨티나(3백24만명)
 25만명, 브라질(3백24만명)
 25만명, 콜롬비아(3백24만명)
 25만명, 칠레(3백24만명)
 25만명, 페루(3백24만명)
 25만명, 에콰도르(3백24만명)
 25만명, 볼리비아(3백24만명)
 25만명, 파라과이(3백24만명)
 25만명, 우루과이(3백24만명)

아프리카의 인구는 2000년
 1.170억명, 1990년 0.87만
 1.170억명, 1980년 0.644
 0.644억명, 1970년 0.303
 0.303억명, 1960년 0.170
 0.170억명이다.

아프리카의 인구는 2000년
 1.170억명, 1990년 0.87만
 1.170억명, 1980년 0.644
 0.644억명, 1970년 0.303
 0.303억명, 1960년 0.170
 0.170억명이다.



출생률	2.71%
사망률	0.98%
자연증가율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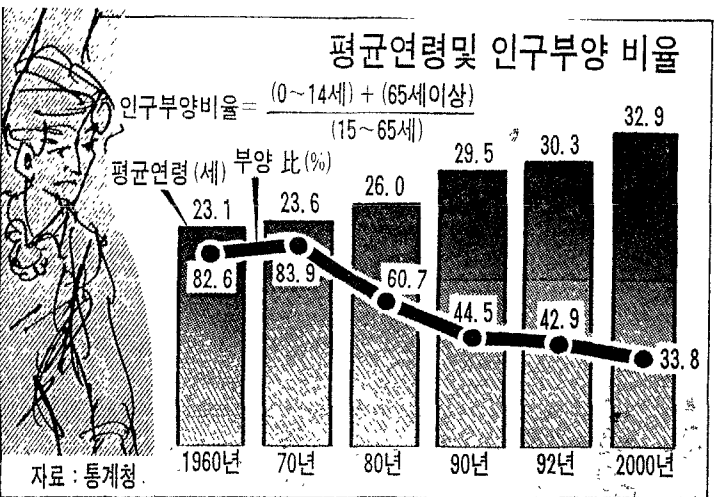
평균연령 29.2세, 부양비 28.7%이다. 60세이후의 인구는 2000년 1억 4,700만 명으로, 2010년 1억 5,000만 명으로, 2020년 1억 5,200만 명으로, 2030년 1억 5,30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정부는 2000년 1월 28일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26.7%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2010인구정책'을 발표하고, 2010년 인구가 2억 7,800만 명, 2020년 2억 9,000만 명, 2030년 2억 9,8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정부는 2000년 1월 28일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26.7%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2010인구정책'을 발표하고, 2010년 인구가 2억 7,800만 명, 2020년 2억 9,000만 명, 2030년 2억 9,8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정부는 2000년 1월 28일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26.7%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2010인구정책'을 발표하고, 2010년 인구가 2억 7,800만 명, 2020년 2억 9,000만 명, 2030년 2억 9,8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문 「크게 好轉」 千145명씩 늘어난



<그림-宋秀甲기자>

2千年엔 「60세이상」 10% 넘어 對策 서둘러야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정부는 2000년 1월 28일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26.7%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2010인구정책'을 발표하고, 2010년 인구가 2억 7,800만 명, 2020년 2억 9,000만 명, 2030년 2억 9,8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정부는 2000년 1월 28일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26.7%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2010인구정책'을 발표하고, 2010년 인구가 2억 7,800만 명, 2020년 2억 9,000만 명, 2030년 2억 9,8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정부는 2000년 1월 28일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26.7%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2010인구정책'을 발표하고, 2010년 인구가 2억 7,800만 명, 2020년 2억 9,000만 명, 2030년 2억 9,8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정부는 2000년 1월 28일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26.7%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2010인구정책'을 발표하고, 2010년 인구가 2억 7,800만 명, 2020년 2억 9,000만 명, 2030년 2억 9,8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金鍾秀기자>

통계청 발표 '우리나라의 인구현황과 전망'

우리나라의 인구는 오는 2021년을 고비로 증가에서 감소로 뒤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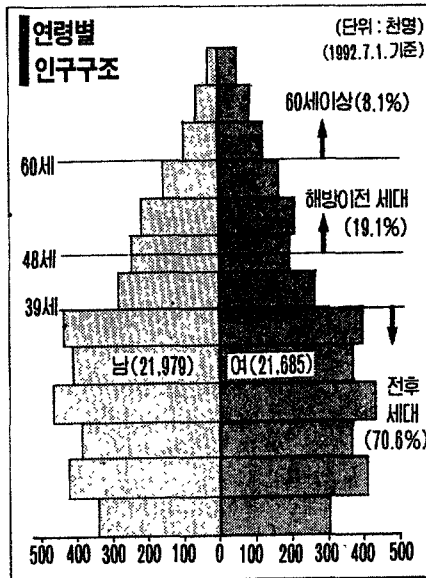
특히 15~19살의 젊은층 인구증가율은 이미 90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20~24살은 오는 95년께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3년 정도 뒤에는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앞으로 30여년 동안은 여자보다 남자 인구가 계속 남아들 것으로 추정돼 결혼형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통계청이 세계인구의 날을 맞아 발표한 '우리나라와 세계의 인구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이날 현재 4천3백66만3천명으로 추산됐다.

또 북한은 지난 1일 현재 2천2백33만6천명에 이르러 남북한을 모두 합한 인구는 6천5백99만9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인구 규모로 볼 때 남한만으로는 세계 23위이며, 남북한을 합할 때는 14번째로 전세계 인구의 1.2%에 이른다. 남한의 인구는 92년 현재 47.6초마다 1명이 태어나고 1백25초마다 1명씩 숨져 결국 77.4초마다 1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하루 1천1백45명, 한해 41만8천명씩 증가하는 것이다.

또 남한의 인구밀도는 km²당 4백40명으로 홍콩



2021년 고비 감소로 돌아서

젊은층 증가율 줄어 3년뒤 노동력 부족 심화 2000년 결혼적령기 남자, 여자보다 19% 많아

필리핀 등 도시국가나 모나코 등 작은 섬나라를 제외하면 방글라데시 대만에 이어 세계 3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60년에 3.0%였던 평균 인구증가율은 70년에 2.0%로 낮아졌으며, 90년대는 0.93%로 1%를 밑돌았고 올해는 0.91%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인구증가율이 오는 2000년에는 0.77%로 낮아져 2021년을 고비로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인구구조도 크게 바뀌고 있다.

92년 현재 인구구조를 출생시기별로 보면 53년 이후에 출생한 전후세대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6%에 이르고 있으며 해방이후 세대는 80.9%나 되고 있다. 나이별로는 60살 이상, 65살 이상의 고령인구비율이 각각 8.1%, 5.2%로 60년대의 2.9%, 5.0%보다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선진공업국의 평균치인 17.1%, 12.1%보다는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고령인구비율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14살 이하의 나이가 적은 계층의 인구비율은 60년의 42.3%에서 올해는 24.8%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에 따라 0~14살 인구나 65살 이상 인구를 15~64살의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부양비율은 43.2

%로 60년(82.6%)보다 역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통계청은 이처럼 출산율이 낮아지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구조도 60년에는 전형적 후진국형인 피라미드형에서 올해는 중형으로 바뀌었고 2020년께는 선진국형인 함아리형으로 다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구조가 아직까지는 경제활동인구가 많아 경제개발에 지장이 없지만 앞으로 30년 뒤에는 노인층 비율이 많아지면서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성별인구구조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여자 1백명당 남자 1백1.4명이지만 최근 들어 남아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0~4살의 경우 여자 1백명당 남자가 1백13.2명으로 남자가 훨씬 많고, 5~9살도 여자 1백명당 남자가 1백8.9명이나 돼 성별인구구조가 기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이 결혼 적령기에 이르게 될 15~20년 뒤부터는 현재와 같은 나이의 결혼상대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결혼 연령 등 결혼형태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은 현재 결혼 적령기에 있는 남자(25~29살)와 여자(20~24살)는 균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2000년에는 결혼 적령기의 남자 인구가 여자보다 19.4%나 많아지고 2010년께는 남자가 무려 28.6%나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신현만 기자>

社說

통계청이 발표한 92년 7월 1일 현재에 이르렀다. 총인구는 4천 3백 67만 9천 명이다. 또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1평방킬로 4백 40명이며, 남자를 1평방킬로 2백 26명, 여성의 5백 65명이다. 이 통계는 92년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70%가 1평방킬로 이하인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 30%가 1평방킬로 이상인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 이 통계는 92년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70%가 1평방킬로 이하인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 30%가 1평방킬로 이상인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 이 통계는 92년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92년의 인구증가율이 0.9%로 예견된다. 이 것이 인구증가율의 84%에 해당된다. 1% 이하로 감소한 이래 8%에서 0.9%로 감소한 것이다. 이 수치를 의미한다. 이 수치는 2%에서 1%로 떨어진 것이다. 71년에서 83년 사이의 13년간이었다. 이 사이의 인구는 1억 1천 1백만 명 이상이다.

이런 불균형한 추세가 계속되면 인구증가가 정지된다. 2001년부터 그 무렵부터는 인구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치를 의미한다. 이 수치는 2%에서 1%로 떨어진 것이다. 71년에서 83년 사이의 13년간이었다. 이 사이의 인구는 1억 1천 1백만 명 이상이다.

해 43.2%로 80년의 60.7%에 비하면 훨씬 감소했다. 또 이 추세는 92년 2000년이면 33.8%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 수치를 의미한다. 이 수치는 2%에서 1%로 떨어진 것이다. 71년에서 83년 사이의 13년간이었다. 이 사이의 인구는 1억 1천 1백만 명 이상이다.

종종 인력이 2백 40만 명이다. 이 수치를 의미한다. 이 수치는 2%에서 1%로 떨어진 것이다. 71년에서 83년 사이의 13년간이었다. 이 사이의 인구는 1억 1천 1백만 명 이상이다.

人口增加率 둔화와 고용대책

「전년 증가율 0.9%를 기록한 인구증가율이 벌써 8년째 0.9%대에서騰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불균형한 인구의 구조를 의미한다. 92년과 93년은 0.9%에서 0.9%로 기록한 것이다. 71년에서 83년 사이의 13년간이었다. 이 사이의 인구는 1억 1천 1백만 명 이상이다.

불균형한 인구증가율의 대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인구구조변동에 대처하는 일이다. 이 수치를 의미한다. 이 수치는 2%에서 1%로 떨어진 것이다. 71년에서 83년 사이의 13년간이었다. 이 사이의 인구는 1억 1천 1백만 명 이상이다.

齡化가 진행중인 것이다. 따라서 성장률의 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인구를 줄이는 대책 못지않게 여성인력·고령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수치를 의미한다. 이 수치는 2%에서 1%로 떨어진 것이다. 71년에서 83년 사이의 13년간이었다. 이 사이의 인구는 1억 1천 1백만 명 이상이다.

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비전문직 인력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수치를 의미한다. 이 수치는 2%에서 1%로 떨어진 것이다. 71년에서 83년 사이의 13년간이었다. 이 사이의 인구는 1억 1천 1백만 명 이상이다.

都市가구
살림살이

月 129만 3천원 벌고

쓰고 남은건 月31만원

작년同期比 소득23.4%늘어

外食·교양· 오락비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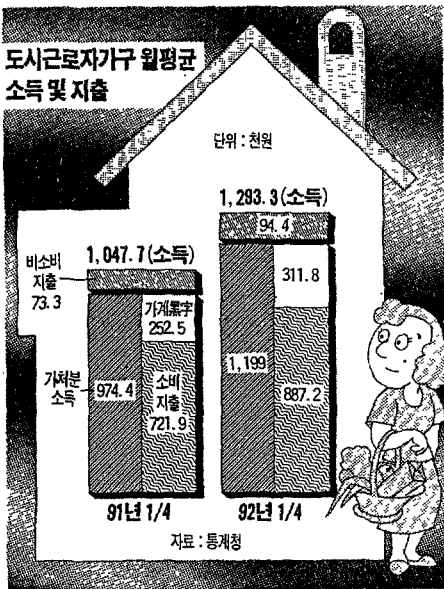
통계청 발표 「1.4분기 家計收支동향」

1.4분기 가계소득은 1.4분기 1.293.3천원(소득)으로 작년 동기보다 23.4% 늘었다. 이는 1.4분기 가계소득이 1.4분기 1.047.7천원(소득)에서 1.293.3천원(소득)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득증가는 1.4분기 가계소득이 1.047.7천원(소득)에서 1.293.3천원(소득)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득증가는 1.4분기 가계소득이 1.047.7천원(소득)에서 1.293.3천원(소득)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1.4분기 가계소득은 1.293.3천원(소득)으로 작년 동기보다 23.4% 늘었다. 이는 1.4분기 가계소득이 1.047.7천원(소득)에서 1.293.3천원(소득)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득증가는 1.4분기 가계소득이 1.047.7천원(소득)에서 1.293.3천원(소득)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1.4분기 가계소득은 1.293.3천원(소득)으로 작년 동기보다 23.4% 늘었다. 이는 1.4분기 가계소득이 1.047.7천원(소득)에서 1.293.3천원(소득)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득증가는 1.4분기 가계소득이 1.047.7천원(소득)에서 1.293.3천원(소득)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1.4분기 가계소득은 1.293.3천원(소득)으로 작년 동기보다 23.4% 늘었다. 이는 1.4분기 가계소득이 1.047.7천원(소득)에서 1.293.3천원(소득)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득증가는 1.4분기 가계소득이 1.047.7천원(소득)에서 1.293.3천원(소득)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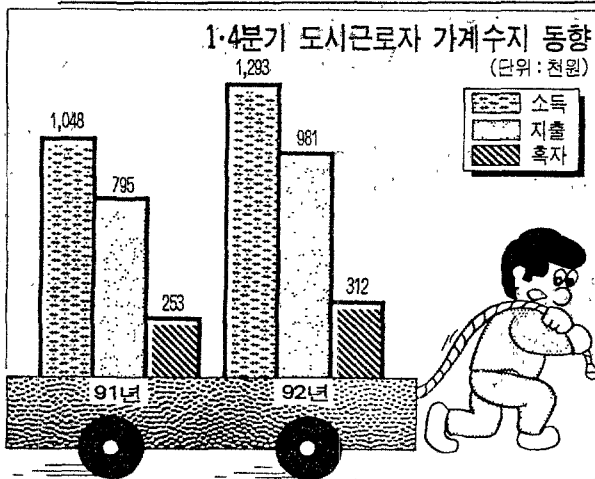


<그림: 朴春奘기자>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단위: 천원)

구분	91 1/4		92 1/4		증가율 (%)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소비지출	721.9	100.0	887.2	100.0	22.9
식료품	214.6	29.7	252.2	28.4	17.5
주거	28.1	3.9	31.6	3.6	12.5
유희·문화·여가	41.4	5.7	44.7	5.0	8.0
교육	38.8	5.4	45.6	5.1	17.5
의료	54.7	7.6	73.0	8.2	33.5
교통	39.8	5.5	48.3	5.5	21.4
오락	98.4	13.6	130.0	14.7	32.1
기타	60.3	8.4	72.8	8.2	20.7
합계	145.8	20.2	188.9	21.3	29.6

이와 함께 1.4분기 가계소득은 1.047.7천원(소득)에서 1.293.3천원(소득)으로 증가했다. 이는 1.4분기 가계소득이 1.047.7천원(소득)에서 1.293.3천원(소득)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득증가는 1.4분기 가계소득이 1.047.7천원(소득)에서 1.293.3천원(소득)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1.4분기 중 우리나라에 평균 1백28만3천원 도시근로자 가구의 생활비를 벌어들인 98만1천원

도시들자각 赤字 23.3% 늘었다

통계청 1.4분기 收支동향조사

순소득을 감안한 실질증가율은 14.9%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3%로 전년보다 9천%가 늘었다. 통계청은 13일 발표한 「92년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증근로소득은 가구수가 84.2%(1백8만8

月百29萬원벌어 31萬원남겨

외식비 지출 31% 늘어
租稅 등 「非소비」 급증세
주거費는 증가폭 둔화

등 이전소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99만7천원, 나머지 9.6%(9만4천원)은 세입 등 비소비지출로 나타났다. 작년에 산출액에 따라 12.5%

쓰고 31만2천원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비해 소득은 24만5천원 늘어났고 지출은 18만5천원 증가했다. 그러나 증가율은 23.4%로 같았다. 불가산

천원), 나머지 15.8%(20만5천원)은 부양가족소득이다. 근로소득은 전년 1.4분기에 비해 22.2%, 기타소득은 30.3% 각각 증가했다. 기타소득에서는 부조금

이 차지하는 비중은 71.3%로 전년보다 조금 낮아진(1.2%포인트) 낮아진 반면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비중은 높아졌다. 지출중 소비지출은 90

비해 소비지출은 22.9%, 비소비지출은 28.8% 각각 증가했다. 비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소득증가에 따라 조세부담액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비지출 증가추세를 분야별로 보면 피복·신발이 33.5%(1만8천원)로 가장 높게 증가했고 다음으로 교육·교양(32.1%, 3만2천원), 보건 의료(21.4

% 증가한데 그쳤다. 식료품비(17.5%, 3만8천원) 증가율은 소비지출 중 차지하는 비율인 영월계수는 28.4%로 작년의 비에 1.3%포인트 낮아졌다. 여가선용 및 물가 상승으로 외식비 지출은 31.4%나 증가한 반면 주식인·과류는 식생활 형태변화로 작년에 비해 9.1%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은 1백19만9천원으로 작년(97만4천원)에 비해 23.1%(22만5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74%로 작년에 비해 0.1% 낮아졌다. 그러나 가처분소득 증가분에 대한 소비지출 증가분의 비중인 한계소비성향은 73.6%로 작년(51.8%)보다 크게 높아졌다.

▲ 盧應根 기자 ▼

도시가계 한달평균소득 129만원

소득 23% 증가에 稅金은 37%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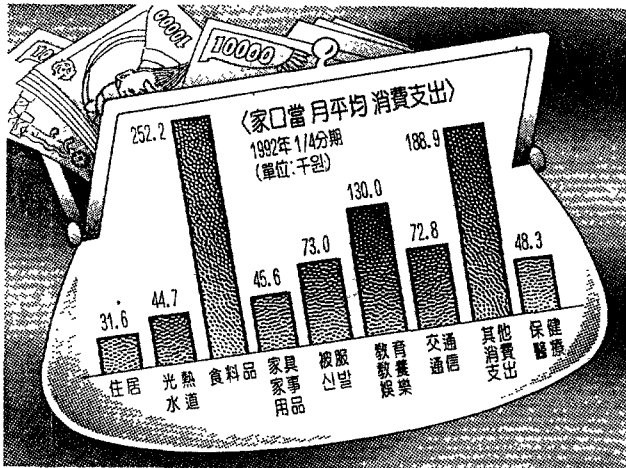
稅 부담 늘어 收支 압박

소비고급화·의식비등 급증 黑字 31만원... 증가율 제자리

소득이 늘어난다는 것보다 세금이 더 무뎠을 수도로 늘어나는 가계수지를 압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1·4분기중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부담증가율이 3년만에 처음으로 소득증가율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가산

통계청, 1분기 가계수지동향 발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백29만3천3백4원(실질)로 작년 동기 1백4만



가계소득을 원천별로 보면 근로소득중 가구주소득이 8만8천4백원으로 작년 대비 21.4% 증가에 달했다. 반면, 공적연금의 취업가구원소득은 27.2% 증가했다. 그러나 비가구원소득은 1.4% 감소했다. 소득증가율은 13.8%였으나 취업가구원소득은 27.2% 증가했다. 소득증가율은 13.8%였으나 취업가구원소득은 27.2% 증가했다. 소득증가율은 13.8%였으나 취업가구원소득은 27.2% 증가했다.

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소비부담증가율은 평균 28.8% 높았고, 소비지출(88만7천2백원)은 22.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전체 소득증대에 도 불구하고 가계소득(전체 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나머지) 1백19만9천원(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가계수지흑자액은 31만1천8백원으로 흑자율이 작년(25.9%)과 비슷한 26%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4분기중 소비지출 가운데 식료품비의 비중을 나타내는 영끌계수는 28.4로 작년 동기보다 1.3포인트 낮아졌으며 식료품비중의 식비 지출은 작년보다 31.4% 증가, 소비의 고급화 추세를 반영했다.

月 129만원 벌어 98만원 썼다

올 1·4분기중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백29만3천3백원으로 작년동기의 1백4만7천7백원에 비해 2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7.4%)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14.9%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소득증대에도 불구하고 물가불안 및 소비급화로 인해 가계의 씹씀이 또한 큰폭으로 늘어나 지난 1·4분기중 월평균 지출은 98만 원

所得·支出

도시근로자가구

23.4% 증가

백원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23.4% 증가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 1·4분기중 가계소득은 원천별로 보면 △근로소득이 평균 1백8만8천4백원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22.2%(실질 13.8%) 늘어났고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등 기타소득은 20만4천9백원으로 30.3%(실질 21.3%) 늘어났다.

統計廳, 1·4분기 가계수지 작년과 비교

와 비교하면 3.7% 늘어난 것이다. 또 이 기간중 월평균 가계 지출 가운데 소비지출은 88만7천2백원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22.9% 증가한 반면 서비스비지출은 9만4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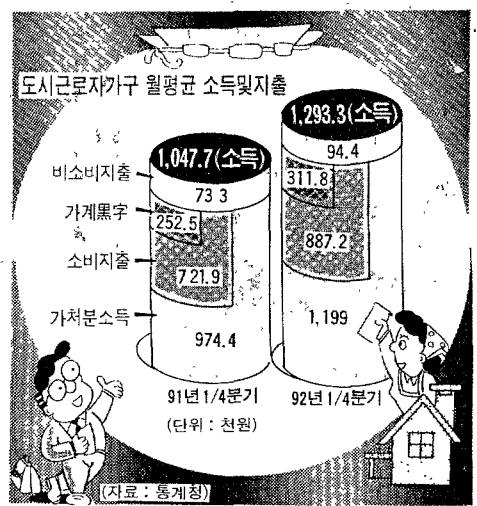
租稅 부담은 37.7%나 늘어 엔젤계수 하락·外食費 급증

1·4분기중 도시가계소득을 전분기인 작년 4·4분기

보다 소득 가운데 가구주의 소득은 21.4%의 증가에 그친 반면 가구원의 소득은 이보다 높은 27.2% 늘어났으며 기타소득은 사업 및 부업소득이 22.3% 재산 및 이전소득이 32.1%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계소득에서 가구주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1.3%로 작년동기에 비해 1.2%포인트 감소한 반면 △재산 및 이전소득(13.2%) △가구원 근로소득(12.9%) △사업 및 부업소득(2.6%) 등은 모두 약간씩 비중이 높아졌다.

4백원으로 28.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조세 부담은 작년동기에 비해 무려 37.7% 늘어나 이 기간중 전체 소득 증가율(23.4%)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4분기중 가구 당 월평균 가처분소득 전체 소득에서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나머지 소득(은 1백19만9천원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23.1% 늘어났으며 이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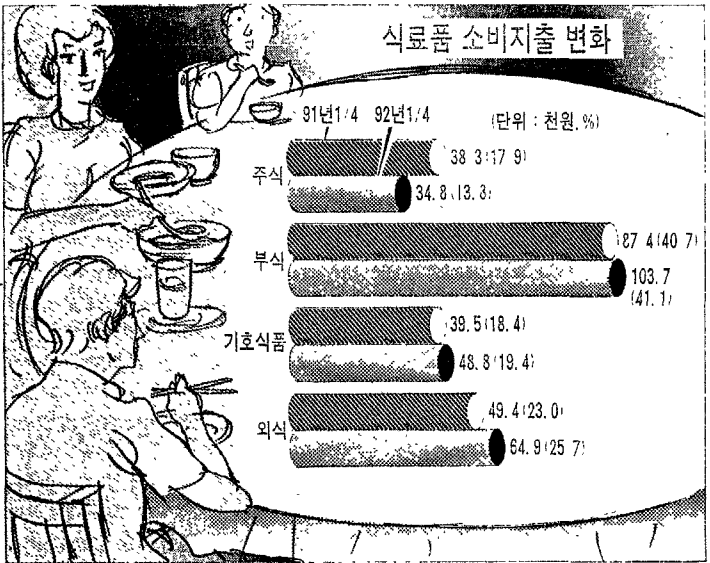


이와 따라 소비지출중 신품목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 보면 「엔젤계수」는 기간중 28.4로 작년동기에 비해 1.3포인트 높아졌다. 신품목비가운데는 외식지출이 31.4%나 증가 소비고급화 추세를 반영하고 기호식품과 패션은 각각 23.5% 18.6%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主食인 곡류류는 신선품목의 변화에 따라 오히려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石▼

평균 소비성향은 74%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74.1%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또 기간중 가계수지 흑자액은 31만1천8백원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23.3% 늘어났으며 흑자율은 26%를 기록, 작년동기보다 0.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지출을 항목별로 보면 신품목비는 25만2천2백원으로 17.5%의 증가에 그친 반면 △피복 신발(33.5%) △교양 교양 오락(32.1%) △기타 소비지출(29.6%) 등의 비교적 큰폭으로 늘어났으며 △광학 수동비(8%) △주거비(12.5%) △가구사용품(17.5%) 등도 각각은 증가율이 머물렀다.

이와 따라 소비지출중 신품목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 보면 「엔젤계수」는 기간중 28.4로 작년동기에 비해 1.3포인트 높아졌다. 신품목비가운데는 외식지출이 31.4%나 증가 소비고급화 추세를 반영하고 기호식품과 패션은 각각 23.5% 18.6%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主食인 곡류류는 신선품목의 변화에 따라 오히려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石▼

가라앉던 過消費 蓬조 다시 "꿈틀"



도시근로자 1分期 加계 분석

▶ 1분기 중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 그의 소비지출은 규모에서 소득증가보다 낮은 비율로써 소비지출세가 한 줄 쫓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지출은 작년 같은 88년 7월을 전후로 前年同期對比 22.9% 늘었다며 그쳤다. 증가율만 보면 소득이 늘었다며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지출이 떨어

옷·신발·外食費 稅부담 증가율

▶ 그러나 실제로 줄 수 있는 최저소득층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아직 과소비 열풍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러나 전체소득 가운데 세금을 非소비지출을 제외한 최저소득이율 1분기에 1백 19만 9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1%밖에 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소비증가세가 부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1분기 중 도시근로자가구가 벌어들인 평균소득이 1백 28만 3천 3백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3.4% 증가했다. 이 가

특히 소비유구를 나타내는 한계소비성향(가처분소득증가분중 소비지출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분기중 73.6%로 작년 1분기의 51.8%에 비해 21.8%포인트나 높아진 사실인 과소비 경향이 여전의 잔폭해 있음을 보여준다. 한계소비성향이 73.6%라 그것은 가처분소득의 1만 원 씩이나면 이 가운데 7천3백60원을 소비하는데 쓴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소비지출의 용도별 내역을 들여다 보면 소득의 증가에 따라 소비의 폭도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의 질이 더욱 빠를 수도라고 말할만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작년의 7.6%, 13.6%에 각각 8.2%와 14.7%로 증가했다.

신용회비율 합계에 25만2천2백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5%가 늘었는데 그 차액액수는(전체 소비지출중 신용회비가 차지하는 비중)가 지난해보다 1.3포인트포인트의 28.4를 기록했다. 그러나 여가를 밖에서 즐기는 생활패턴의 변화와 불가사의의 영향으로 외식비와 기호식품에 대

등크게 늘고 고급화와

소득신장을 앞질러

특히 이같은 수치가 지난해 89년의 91.1%나 90년의 80.4%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지난해 한계소비성향이 50%대로 특 별이 저명해서 과소비경향이 가라앉을 조건을 보인 이후 다시 수직상승으로 돌아섰다는데 문제가 오히려 생긴다.

나해 1분기중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와 5.7%에서올 1분기에 는 각각 3.6%와 5.0%로 떨어졌다. 반면에 피복·신발비율과 교통·관광·오락·편익·1분기에 전체 소비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33.5%와 32.1%씩 늘면서 비중이

한 지출은 31.4%의 비중을 차지해 보였다. 반면에 이처럼 생활화패턴이 바뀌면서 主食인 쌀·보리등 부들류 소비는 前年同期 대비 9.1% 감소했다. 이밖의 식품·주방용품의 고급화 추세와 高價수입품사회의 빈번해져 30.4% 높아졌고 정부 인건비의 상승이며 家事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52.9%의 폭으로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편 非소비지출은 소득증가에 따라 조세부담액이 37.7%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는 소득증가세보다 폭이 28.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非소비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음 따라 전체소득에서 非소비지출을 빼고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둔화됐고 이것이 한계소비성향을 높이는 데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收入면에서는 근로자가구의 主收入源인 家長의 근로소득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재산소득이나 부업소득등 기타소득의 비중이 늘어나고 현상이 두드러졌다. 국민 1분기중 家長의 평균근로소득은 92만1천7백원으로 전체인구소득(1백20만3천3백원)의 71.3%에 그쳐 작년 1분기 72.5%에 비해 1년새 1.2%포인트 떨어졌다. 반면에 근로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인 재산및 移轉소득의 증가에 힘입어 前年同期 대비 30.3%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소득비중도 15%에서 15.8%로 높아졌다.

(金鐘秀기자)

건설업大好況 누렸다

통계청 집계 발표

작년도 국내건설공사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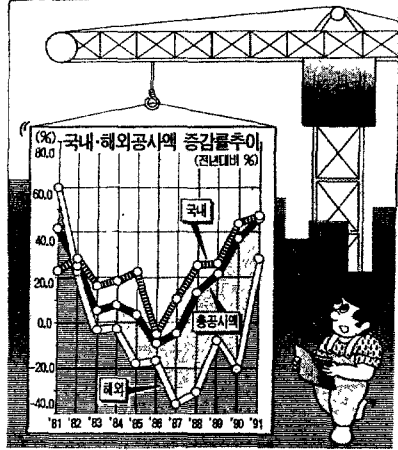
은 38조 1천 6백 91억 원으로 90년(27조 5천 9백 24억 원)에 비해 47.2%나 증가

가, 80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해외건설공사액은 2조

통계청 14일 발표한 「91년도 건설업동태조사 잠정집계결과」에서 이같이

회복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91년말 현재 건설업 관련업종을 갖고 건설업총생산은 한사업체는 1만 9천 4백 70개로 이들 업체에서는 7월말 1백 7만 8천명의 종사자와 6조 5천 3백 70억원의 유흥고정자산으로 작년 한해동안 모두 40조

각각 46.1%, 45.5%, 49.8%나 크게 증가했다. 국내건설부문에서 사업체 1개당 평균 공사액은 19억 6천 41만원으로 90년(14억 3천 4백 62만원)에 비해 36.7% 부가가치는 10억 62만원으로 38.5% 각각 증가했다. 한편 80년 이후 해외건설공사액의 추이를 보면 82년까지는 계속 큰 폭으로 증가, 총공사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81년(5.6%), 82년(5.4%)은 절반의 상이었다. 그러나 그후 국내건설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해외건설은 총공사액에서의 수부추진비율이 80년 3.1%, 81년 3.4%, 82년 3.7%, 83년 4.5%, 84년 5.8%, 85년 7.7%, 86년 8.8%, 87년 10.3%, 88년 13.7%, 89년 16.1%, 90년 17.1% 증가했으나 공사액공사비용 부가가치는



작년공사액 38兆 : 47% 늘어

海外부문도 증가 : 부가가치 창출 50%나

1천 3백 87억 원으로 90년(1조 6백 46억 원)에 비해 28.5% 증가하면서 83년 이후의 계속된 감소세에서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총공사액중 해외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낮아져 작년엔 5.3%에 불과했다.

「91년도 건설업동태조사 잠정집계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건설공사액은 주택, 사무실 등 건축부문과 도로, 항만 등 토목부문에서 크게 증가, 90년 44%의 이어 2년 연속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 해외건설공사액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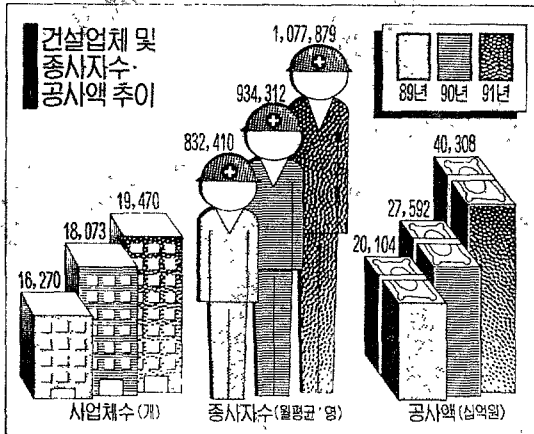
3천 80억원의 공사실적을 올린 19조 9천 8백 8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90년에 비해 사업체수 증가 7.7%, 15.3%, 27.1% 증가했으나 공사액공사비용 부가가치는

각각 46.1%, 45.5%, 49.8%나 크게 증가했다. 국내건설부문에서 사업체 1개당 평균 공사액은 19억 6천 41만원으로 90년(14억 3천 4백 62만원)에 비해 36.7% 부가가치는 10억 62만원으로 38.5% 각각 증가했다. 한편 80년 이후 해외건설공사액의 추이를 보면 82년까지는 계속 큰 폭으로 증가, 총공사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81년(5.6%), 82년(5.4%)은 절반의 상이었다. 그러나 그후 국내건설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해외건설은 총공사액에서의 수부추진비율이 80년 3.1%, 81년 3.4%, 82년 3.7%, 83년 4.5%, 84년 5.8%, 85년 7.7%, 86년 8.8%, 87년 10.3%, 88년 13.7%, 89년 16.1%, 90년 17.1% 증가했으나 공사액공사비용 부가가치는

〈盧應根기자〉

건설업 작년 최대好況 누렸다

공사액 40조 78년이후 증가율 최고기록



부가가치만 20조... 50% 증가

海外부문도 「大水路」수주 영향 활황

이달부터 건설업체주의 이익률이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체주의 이익률이 2백만 가구 주택 건설에 의해 80년대의 이익률과 비교하면 80% 정도 높아졌다. 특히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91년도 1분기 건설업 실적조사 잠정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만9천4백여 건설업체가 올린 공사액가 상승기(5.4조) 전(78)에 원으로 전년도보다 46.1%가 증가했다.

이달부터 증가율 70% 건설업 실적(인) 78년(87.3%)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2백만 가구 주택 건설의 2조가량에 달하는 해외수주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한편 '91년 1분기' 건설업 실적조사 잠정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만9천4백여 건설업체가 올린 공사액가 상승기(5.4조) 전(78)에 원으로 전년도보다 46.1%가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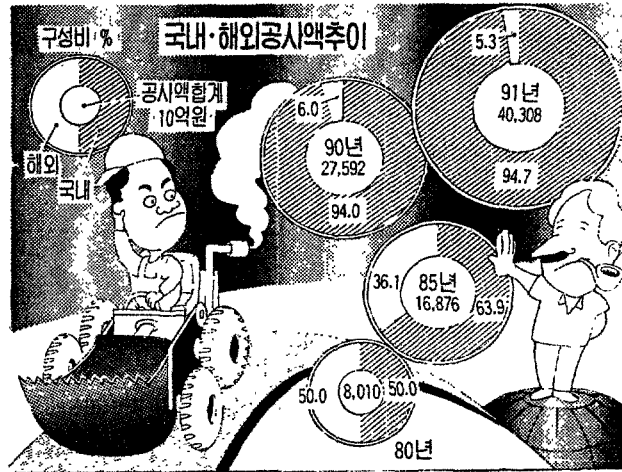
이달부터 증가율 70% 건설업 실적(인) 78년(87.3%)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2백만 가구 주택 건설의 2조가량에 달하는 해외수주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부가가치만 20조... 50% 증가

건설업 실적(인) 78년(87.3%)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2백만 가구 주택 건설의 2조가량에 달하는 해외수주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한편 '91년 1분기' 건설업 실적조사 잠정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만9천4백여 건설업체가 올린 공사액가 상승기(5.4조) 전(78)에 원으로 전년도보다 46.1%가 증가했다.

이달부터 증가율 70% 건설업 실적(인) 78년(87.3%)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2백만 가구 주택 건설의 2조가량에 달하는 해외수주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内需건설 최대 호황

작년 공사액 38兆... 47% 증가

지난해 해외건설 공사액은 지난 83년 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국내공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채, 81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는 해외공사 비중은 5.3%에 그치지만 81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14일)의 건설업동계조사 결과(발표)에 따르면 국내공사액(표고기준)은 88조1천6백91억원으로 89년에 비해 47.2%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80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 중 정부의 주택 2백만 가구가 건설되고 민간 건설경기 호황에 따른 것으로, 건물-토목-중공업-전선-기계-보안 분야로 전방위적으로 전개됐다.

해외건설 공사액은 2조1천3백87억원으로 전년 대비 28.5%의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이 중 지난 83년 이후 처음 증가세를 보인 것은 이 분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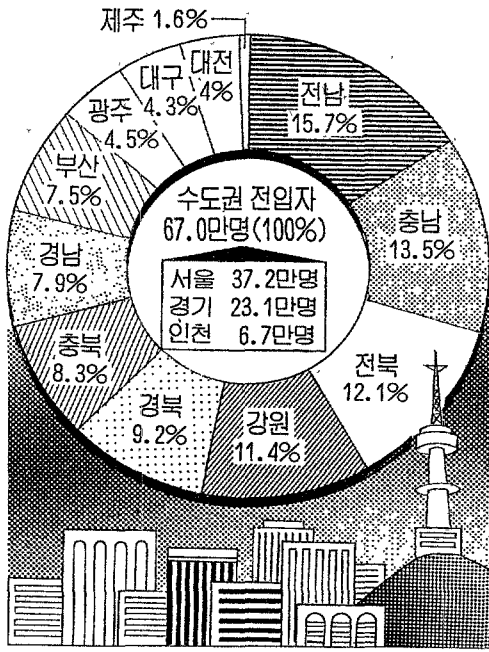
서울-釜山人口 줄었다

작년 전국 8백98萬명 이동... 衛星도시로 몰려

집값비싸 脫大도시 현상 뚜렷

부동산경기와 직결된 인구이동의 예년보다 훨씬... 특히 서울-부산에서는

91년 수도권 전입자의 前거주지



의 인구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대도시가 팽어나는 광역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또 충청인구가 이미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도시로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부산에서는 람수가 줄어들지만 도시집 중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91년 인구이동 집계 결과」 주된 특징은 전출인구를 대도시로 전출하는 인구의 증가를 넘어 주거지를 옮긴 총인구가 8백98만1천명으로 지난해의 9백45만9천명의 비해 47만8천명(0.5%)의 줄었다.

이 중 작년에 인구 1백만명 20.6명이 이동한 것으로 지난해 이후 가장 큰 인구수축을 기록했다.

인구이동규모가 줄어든 것은 부동산경기 침체, 전체 계약기산연장, 이사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수도권 인구 이동의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총이동자 가운데 △市道 간 정체를 넘어 이동한 사람도 △郡지역에서 市지역으로 전체의 32.9%인 2백95만9천명으로 인구 1백만명 6.8명뿐이고 △市道 내에서 주거지를 옮긴 사람은 6백2만9천명으로 1백만명 13.8명뿐이었다.

또 △郡지역에서 市지역으로 이동한 사람은 1백11만4천명 △市지역에서 郡지역으로 이동한 사람은 76만2천명을 기록, 결과적으로 市지역인구가 35만2천명이 증가하고 인구의 도시집중양상이 계속됐다.

이 예 따라 서울에선 90년 9만1천명의 줄었는데 이 여 작년의도 3만4천명의 줄었고 부산도 작년엔 3만6천명이 줄었다.

또 작년엔 수도권으로 이동한 67만명의 前거주지는 全南이 10만9천명(15.7%)으로 가장 많았고 全南 全北 江原도 10% 이상의 비중을 나타냈다.

이 인구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대도시가 팽어나는 광역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또 충청인구가 이미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도시로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부산에서는 람수가 줄어들지만 도시집 중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91년 인구이동 집계 결과」 주된 특징은 전출인구를 대도시로 전출하는 인구의 증가를 넘어 주거지를 옮긴 총인구가 8백98만1천명으로 지난해의 9백45만9천명의 비해 47만8천명(0.5%)의 줄었다.

이 중 작년에 인구 1백만명 20.6명이 이동한 것으로 지난해 이후 가장 큰 인구수축을 기록했다.

인구이동규모가 줄어든 것은 부동산경기 침체, 전체 계약기산연장, 이사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수도권 인구 이동의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총이동자 가운데 △市道 간 정체를 넘어 이동한 사람도 △郡지역에서 市지역으로 전체의 32.9%인 2백95만9천명으로 인구 1백만명 6.8명뿐이고 △市道 내에서 주거지를 옮긴 사람은 6백2만9천명으로 1백만명 13.8명뿐이었다.

또 △郡지역에서 市지역으로 이동한 사람은 1백11만4천명 △市지역에서 郡지역으로 이동한 사람은 76만2천명을 기록, 결과적으로 市지역인구가 35만2천명이 증가하고 인구의 도시집중양상이 계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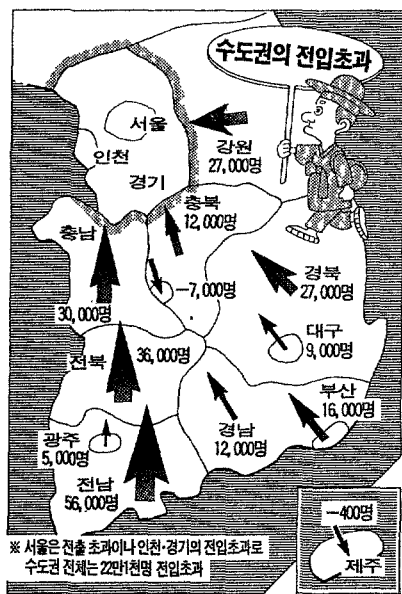
이 예 따라 서울에선 90년 9만1천명의 줄었는데 이 여 작년의도 3만4천명의 줄었고 부산도 작년엔 3만6천명이 줄었다.

또 작년엔 수도권으로 이동한 67만명의 前거주지는 全南이 10만9천명(15.7%)으로 가장 많았고 全南 全北 江原도 10% 이상의 비중을 나타냈다.

서울로 이사 湖南이 최다

통계청 人口이동 조사 작년 轉入者중 35% 차지

서울·釜山「떠나」는 사람「많다



<그림—金弘권기자>

지난 한해동안 수도권에 이주한 인구는 22만1천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서울로 이주한 인구는 27,000명, 부산으로 16,000명, 경북으로 27,000명, 경남으로 12,000명, 충북으로 12,000명, 충남으로 30,000명, 전북으로 36,000명, 전남으로 56,000명, 광주로 5,000명, 제주로 400명이었다. 수도권 전체는 22만1천명 전입초과

사람이 떠나는 서울만을 보더라도 서울로 이주한 인구는 27,000명, 부산으로 16,000명, 경북으로 27,000명, 경남으로 12,000명, 충북으로 12,000명, 충남으로 30,000명, 전북으로 36,000명, 전남으로 56,000명, 광주로 5,000명, 제주로 400명이었다. 수도권 전체는 22만1천명 전입초과

수도권 이외의 인구는 27,000명, 부산으로 16,000명, 경북으로 27,000명, 경남으로 12,000명, 충북으로 12,000명, 충남으로 30,000명, 전북으로 36,000명, 전남으로 56,000명, 광주로 5,000명, 제주로 400명이었다. 수도권 전체는 22만1천명 전입초과

수도권 이외의 인구는 27,000명, 부산으로 16,000명, 경북으로 27,000명, 경남으로 12,000명, 충북으로 12,000명, 충남으로 30,000명, 전북으로 36,000명, 전남으로 56,000명, 광주로 5,000명, 제주로 400명이었다. 수도권 전체는 22만1천명 전입초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9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여전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서울현상에도 불구하고 서울주변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집중은 갈수록 심화하고

91년 인구이동 통계청 집계

있어 수도권집중 완화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게다가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는 계속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계속되고 있다.

시골→大都市→위성都市

17일 통계청이 수도권에 전출한 인구를 보면 91년 1월~5월 17일 기준 전국 전출인구 191만 9천 600명 중 수도권에 전출한 인구는 113만 1천 400명으로 전출인구의 58.9%에 달했다. 서울에서 전출한 인구는 87만 6천 600명으로 전출인구의 45.7%에 달했다. 서울에서 전출한 인구가 수도권으로 전출되는 데는 67만 3천 700명(45.7%)이 차지하고 나머지 16만 2천 900명(9.7%)은 수도권 밖 지역으로 전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는 주로 경기·인천지역으로, 부산에서는 전남·전북으로, 충청·대구가 전출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에서 타지역으로 전출한 사람 중 65.6%가 경기·인천으로, 주수를 뺀다고 부산은 47.9%가 경남·전남으로 나타났다.

전 8백 23명)과 90년(9만 9백 92명)은 10% 이상 증가했다. 부산은 90년(6만 4천 8백 60명)에 이어 지난해 다시 3만 5천 5백 48명의 인구를 추가로 끌어들였다.

66% 京畿 仁川 유인

인구 J커브 현상

이와 마찬가지로 인천·경기 지역의 경우 25만 7천 4백 60명의 인구증가를 기록한 반면 8백 56명만이 증가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金東壽 통계청 인구정책조정관(인천)은 수도권의 저출생율사회의 추방에서 서울주변에서 인구의 증수의 집과 확산의 공기를 찾기 때문이라며 「수도시설에 따른 지방의

확충과 수도권 내외로 전출이 현상과 대도시주변으로의 인구집중을 촉발하는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도권에서 전출하는 인구의 대도시로 몰려온 인구가 다시 대도시 주변 전출의 흐름이 일어나는 현상(이유)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수도권에서 고교였다. 그러나 이렇게 수도권과 수도권은 대도시 문제를 수도권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 수도권 중심도시로 새로운 도시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 전체문제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들 전문가들은 각종

지역별 시도간 인구이동 추이

	90년		91년		순이동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서울	754,071	845,063	673,187	710,066	△ 36,879
釜山	183,977	219,837	170,591	206,139	△ 35,548
大邱	139,089	140,566	136,226	133,762	2,548
仁川	249,092	132,407	214,021	133,623	80,398
光州	121,111	92,634	118,443	82,406	36,037
大田	102,219	68,756	104,827	68,212	36,615
京畿	767,411	516,900	663,011	485,949	177,062
江原	81,765	129,402	78,674	116,704	△ 38,030
忠北	84,646	102,225	85,848	96,979	△ 11,131
忠南	110,568	164,314	107,913	153,357	△ 45,444
全北	87,513	140,853	79,909	122,207	△ 42,298
全南	139,766	239,836	124,053	224,623	△ 100,570
慶北	169,187	219,140	164,861	212,169	△ 47,308
慶南	218,222	199,832	214,904	193,048	21,856
濟州	22,491	19,363	21,374	18,598	2,776

註:순이동이란 전입자수에서 전출자수를 뺀 것으로 91년 서울의 경우 3만 6천 8백 79명이 줄어 들었음을 의미한다.

화포·체육시설, 문화시설, 도매·유통·숙박업,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이 이들 인구를 수도권에 유치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한편, 통계청은 수도권 내외로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이유)을 수도권 전체를 놓고 보면 90년도의 인구는 95만 8천 400명, 이 같은 인구는 90년도의 인구는 45만 8천 400명, 47만 8천 400명 등이다. 47만 8천 400명이 수도권으로, 47만 8천 400명이 수도권 밖 지역으로 전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이동 898만명... 전국민의 20%가 이사 공해 住宅難 서울 부산 7만여명 빠져나가

전해 시·도별 인구가 이동하는 양상을 보면 수도권 인구가 70%에 달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가 70%에 달하는 것은 87년 이래 해당 10만명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의 70%에 달하는 것은 87년 이래 해당 10만명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의 70%에 달하는 것은 87년 이래 해당 10만명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의 70%에 달하는 것은 87년 이래 해당 10만명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林 雲 攝 機 子 〉

작년 5명꼴로 이사

우리나라의 인구가동률(인구이동률)은 70년대 후반 이후 계속 20%를 넘지 않았으며, 지난 88년 23.6%로 최고를 기록한 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서울 집값 때문에 경기도 부근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구에 서울을 떠나 경기 지역 등으로 빠져나가는 「脫서울 현상」이 지난해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수그러든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인구 이동 조사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구이동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점이다. 지난해 자신이 살던 읍-면-동을 넘어 다른 곳으로 이사한 사람은 모두 8백98만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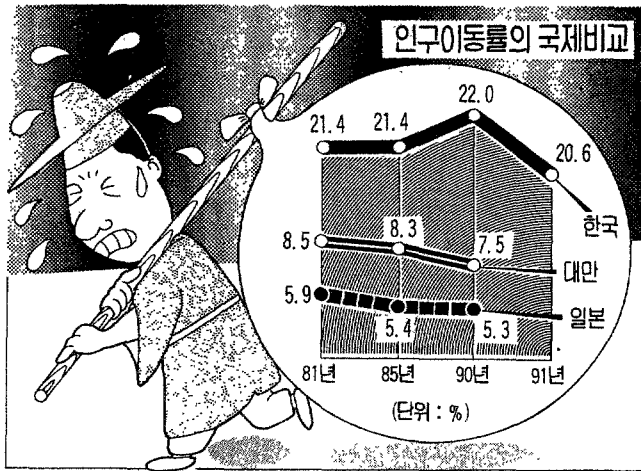
천명으로, 총인구중 이동인구가 차지하는 인구이동률이 20.6%를 기록했다. 5명중 1명꼴로 이사를 한 셈이다. 이같은 이동률은 지난 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인구이동 감소 추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는 지난해 1백만 명이 증가한 5033만 7천 5백 명에 비해 작년의 인구는 5027만 7천 5백 명으로 5천 명 줄었다.

이같은 인구의 변화는 인구의 감소가 아니라, 인구의 이동률의 감소 때문



인대차보통법 시행에 따른 전세계약기간의 연장과 이사비용의 증가도 이동률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지난해 인구이동률의 또 다른 특징은 수도권지역으로 몰려오는 인구가 줄어 들었으며, 특히 서울로의 전입인구가 크게 감소한 점이다.

지난해 수도권으로 들어온 사람은 총 67만 명으로 90년보다 8만 명의 감소했다. 대도시의 인구는 4년째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로의 전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 전체 수도권 전입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90년의 57.2%보다 크게 낮아진 55.5%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로 전입된 인구가 경기도 인천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 부산 등 2대 도시의 인구는 서울보다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로 이

80년 이후 최저... 서울전입 줄어 집값진정-전세계약 연장등 영향

일본-대만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

떠난 사람이 더 많아 인구 집중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년째 계속 들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로 이

사한 사람이 67만 3천 명,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사람은 71만 명에 달해 전체적으로 3만 7천 명이 감소했다.

부산도 89년 이후 3년 연속 전출증과를 기록했는데 인구의 지역인정태도로의 인구유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시도간 인구이동률 보면, 다른 시도로부터 전입 인구가 많은 지역은 인천(11.2%), 경기(10.8%), 광주(10.3%), 대전(9.8%)등으로 수도권 지역 및 최근 직할시로 승격된 지역으로의 인구 집중이 계속되고 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장 많이 한 지역은 충청남도 장흥군 지역은 전담으로 10명중 1명꼴인 9.4%나 됐으며 다음으로 충남(8.1%), 경기(7.9%)가 많았다.

지난해 수도권으로 이사를 한 사람들을 전자주별로 보면 전담이 10만 5천 명(15.7%), 10만 5천 명(15.7%), 10만 5천 명(15.7%), 10만 5천 명(15.7%) 순이었다. <承仁접기자>

地自體

統計 전문인력부족

경력 1년 미만 57% 90년보다 13%P 높아져

본지체적인 지방자치체 실시 시를 앞둔 91년도 지방통계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맡아 할 통계인력의 전문성이 크게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의 전문인력 개개 통계작성기관별 상대부족률에 대한 분석을 보면, 시·도·군·구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7월 31일 현재 통계작성인력 1만 4천 1백 13명 중 13.1%인 1,854명만 전문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에서 5만 이상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 4,400명 중 51.6%인 2,268명만이 통계작성기관에 배치되어 있다.

이와 함께 통계청의 전문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며, 90년 대비 통계작성인력 90만 3백 18명(43.5%)에서 4백 14만 1천 1백 13명(13.1%)으로 13%포인트 낮아졌다.

통계작성인력 부족의 원인은 각 지자체에서 통계담당관실이나 통계계를 운영하면서 통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거나, 기존에 배치된 인력도 전문인력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계청 김민희 기획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양질의 지방통계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계 전문인력 91개 전체 조사기관의 통계담당인력 5천 3백 13명 중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2천 30명(4.3%)인데, 박사 22명 중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만 한 명도 없고 석사 학위 소자도 2백 88명만 6명만 있다.』

이와 함께 통계청의 전문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며, 90년 대비 통계작성인력 90만 3백 18명(43.5%)에서 4백 14만 1천 1백 13명(13.1%)으로 13%포인트 낮아졌다.

통계작성인력 부족의 원인은 각 지자체에서 통계담당관실이나 통계계를 운영하면서 통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거나, 기존에 배치된 인력도 전문인력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계청 김민희 기획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양질의 지방통계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계 전문인력 91개 전체 조사기관의 통계담당인력 5천 3백 13명 중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2천 30명(4.3%)인데, 박사 22명 중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만 한 명도 없고 석사 학위 소자도 2백 88명만 6명만 있다.』

◇ 통계업무 경력별로 본 통계인력현황

(단위: 명, 괄호안은 구성비, %)

구분	90년			92년		
	1년 미만	1~5년	5년 이상	1년 미만	1~5년	5년 이상
계	852 (16.6)	1,854 (36.0)	2,442 (47.4)	1,067 (20.1)	1,728 (32.5)	2,518 (47.4)
정부기관	651 (14.7)	1,494 (33.6)	2,300 (51.7)	868 (19.3)	1,309 (29.1)	2,325 (51.6)
중앙행정기관	333 (9.0)	1,106 (29.7)	2,275 (61.3)	454 (12.0)	1,024 (27.2)	2,293 (60.8)
지방자치단체	318 (43.5)	388 (53.1)	25 (3.4)	414 (56.6)	285 (39.0)	32 (4.4)
민간기관	201 (28.6)	360 (51.2)	142 (20.2)	199 (24.5)	419 (51.7)	193 (23.8)

全經聯·商議·貿協등 주요단체 발표

통계조사

不實 많다

통계청, 올들어 百63건 조정조치

全經聯 大韓商議 貿易 협회 등 대표적인 국내 경제 단체들이 공식 발표한 일 부 주요통계조사 결과와 조사방법상 차이나 잘못된 표현구성이므로 현실을 왜곡한 부실통계에서 부당기부 당부의 시정조치를 발의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시정조치를 받은 내용이 경기동향, 수출산업실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인데, 그중 기업의 근로의욕실태, 인력부족실태 등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주요 영역에 관한 것들

이어서 이들 부실통계도 인 한 여론 조작과 부정부실책 왜곡 등 후유증도 적지않은 것으로 우려된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이후 지난 6월 현재까 지 각종 통계기술훈 미비 점이나 통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조정조치를 받은 통계는 모두 1백6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건 은 조사방법상 대표성이나 신뢰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 통계법 위반으로 통계청이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정도로 밝혀졌다. 지난 해 말 국내 기업경영 자 가운데 60% 이상이 고속 성장과 신성장산업의 재검 토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판 심을 모은 大韓商議의 1사 회간접자본 애로 실태 조 사는 조사표 회수비율이 태조사 결과는 수출액이 큰 업체만 대상으로 실시 도에 문제가 있는데도 마 치 통계법상 적법절차를 거친 공식통계인양 발표해 뒤늦게 내용을 수정하고 사유서를 제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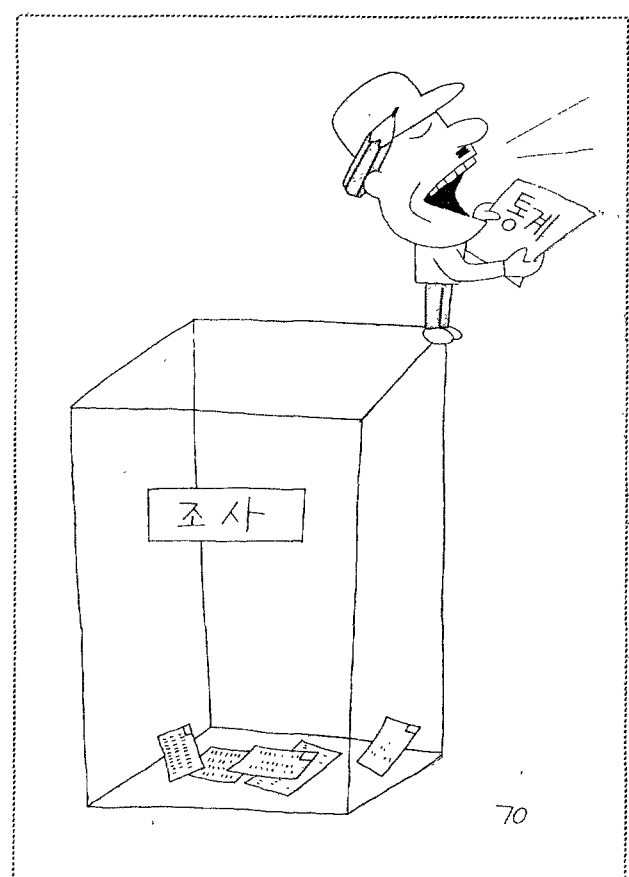
인위적 표본조작등 현실왜곡 경제관련 현안 여론誤導 우려

위반조사자 실질규제 法規 없어 문제

한데다 조사표 회수율도 낮았으나 통계청 승인없이 발표, 시정조치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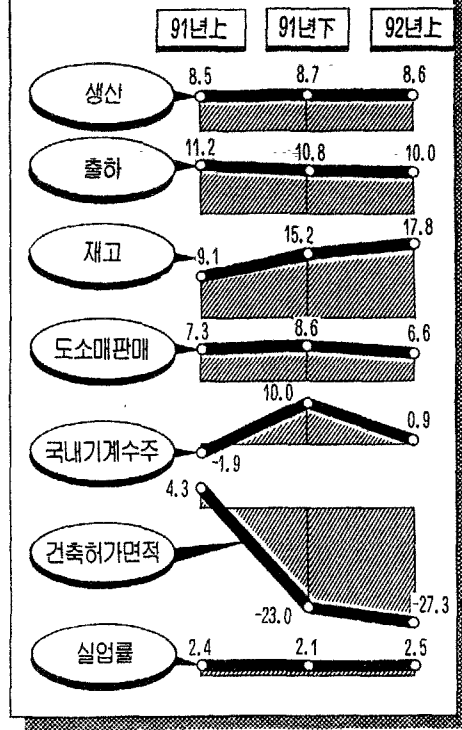
全經聯은 지난해 2월 통계청의 사전승인없이 마 음대로 조사대상업체를 늘 리고 조사기간 및 조사항 목 바꾸려다 적발됐다.

大韓商議는 올들어 ▲ 서 울지역 임대료동향(6월) 조사에서 건물의 층별·위 치별 임대료 차이를 무시 했고 ▲ 산업내 근로행태 변화 및 노동의 질 제고방 안(6월) 조사에서 조사대 상을 개별근로자가 아닌 사 업체 단위로 설정하여 회 수율을 낮추고 ▲ 임대료 동향(수요조사) 1월)에서는 전국의 불과 5백개 업 체만을 대상으로 표본을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지난 상반기중 국내 산업의 생산과 출하는 작년 상반기에 비해 각각 8.6%와 10%가 증가, 안정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특히 소비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내수는 둔화되고 수출이 회복세를 보여 산업활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비투자가 부진해 이기간중 설비투자의先行지표인 기계류 수주는 오히려 작년 상반기보다 2.9% 감소했고 기계류수입허가도 43.1%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 「상반기 산업활동 동향」

소비진정

내需둔화

수출회복

국내産業 「內實」

생산 9·출하

在庫 18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상반기중 산업활동동향 「상반기중 이기간중 산업생산은 前年同期對比 평균 8.6% 증가한 10%, 재고는 17.8%가 각각 증가했다. 재고가 이처럼 크게 증가한 것은 내수소비둔화에 따른 것으로 기업의 생산활동에 계속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부문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은 상반기중 생산과 출하가 각각 12.2%와 13.4%씩 늘었다. 특히 제조업은 보인 반면 정관업과 건설업은

이 0.7% 증가하고 0.1% 증가에 머물러, 자본집약산업이 전체 산업활동의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은 內需둔화로 나뉘어 보았을 때 10.3%가 증가, 작년동기의 13.5%에 비해 증가율이 낮아진 반면 수출은 9.3%가 증가, 작년동기의 4.2%에 비해 큰 폭의 회복세를 나타냈다. 부문별로는 제조업은 상반기중 생산이 작년동기 대비 36.8%나 늘어난 것을 비롯, △선유업(20.7%) △수주(20.3%) △인쇄(12.9%) △기타(12.1%) △비금속광물(12.1%) △기

다진다

10% 늘어

자년 同期 비교

% 증가 企業 「가장 큰 부담」

다화학제품(11.1%) 등이 호조를 보인 반면 △의복(4.4% 감소) △음료제품(2.8% 감소) △고무제품(2.7% 감소) 등은 부진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가운데 올 상반기 중 평균 80.6%를 기록, 작년 상반기의 79.9% 하반기의 80.1%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반해 올 상반기 중 설비투자도 매우 부진, 국내 기계수주는 평균 60%로 발전설비 등의 감소로 인해 작년 동기보다 23.8%나 줄어 들었다. 민간부분에서는 제조업이 3.5% 증가한 반면 비제조업은 1.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건설경기 진정 대책 등에 따라 건축업가면적은 작년 동기에 비해 27.3%가 감소한 반면 국내 건설수주는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등으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가 증가한 가운데 건축(9.1%) 부문보다는 토목(37.8%) 부문

이 활기를 띠었다.

수리부분은 경제안정화 시책에 따라 뚜렷한 진정세를 나타내 상반기 중 도시매판액은 6.6%가 증가하는데 그쳤고 내수용 소비재 출하도 7.1%에 머물러 작년 동기(14.4%)에 비해서는 크게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경기총합지수는 지난 6월 중 선행지수가 1% 동행지수가 0.6%씩 각각 증가한 가운데 추세를 저지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보합수준을 나타냈다.

투자·消費 둔화

내需경기 진정

통계청 分析 을 상반기 産業활동 동향

수출용 생산·出荷 6월들어

건설受注額은

올 상반기중 국내 산업은 생산·출하가 수출을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투자와 소비가 둔화의 징후를 보여 해안지역 투하와 내수경기가 진정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92년 6월 및 상반기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6월은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상반기 전체로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한 10.1%가 각각 증가했다.

특히 출하를 내수·수출로 나뉘어 보면 상반기 전체로는 내수출하(10.1%)

景氣지표로 본 우리經濟

解説

올 상반기 산업활동동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내수경기가 진정되고 투하가 바빠진 반면 수출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6월은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생산은 8.6% 증가한 11.4%로, 수출용 생산은 11.4%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다.

내수출하(10.1%)는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수출용 생산(11.4%)은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다.

기계설비류 내수출하(17.8%)는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했다.

재고(17.8%)는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했다.

내수용 소비재 출하(10.5%)는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기계설비류 내수출하(17.3%)는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했다.

재고(9.1%)는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다.

내수용 소비재 출하(10.2%)는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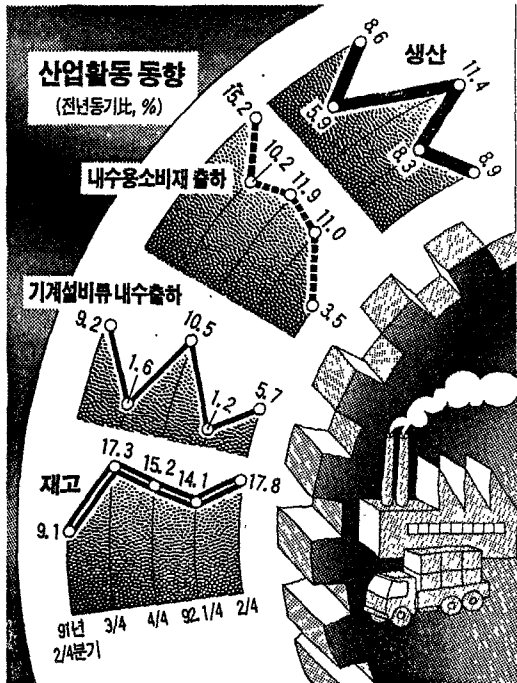
기계설비류 내수출하(15.2%)는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했다.

재고(14.1%)는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했다.

내수용 소비재 출하(11.9%)는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했다.

기계설비류 내수출하(11.0%)는 전년 동기 대비 11.0% 증가했다.

재고(3.5%)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그림 : 박춘奭기자>

큰폭증가

감소로 反轉

가수출(9월)의 (9.2%)보다 높지만 5월 이후 수출액이 감소한 것을 보면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수출액이 17.6% 증가한 반면에 수입액이 17.6% 증가한 것으로 보아 수출이 수입보다 높고 있다.

에 대한 반등이므로 전년 동기 대비 17.8%의 폭이 증가했다. 수출액이 17.8% 증가한 반면에 수입액이 13.2% 증가한 것으로 보아 수출이 수입보다 높고 있다.

6% 감소)로 반등했다. 소비관련 지출액이 2.4% 증가한 반면에 투자지출액이 1.1%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수출이 수입보다 높고 있다.

10%의 폭이 증가한 것을 보면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수출액이 10% 증가한 반면에 수입액이 10% 증가한 것으로 보아 수출이 수입보다 높고 있다.

수출액이 10% 증가한 반면에 수입액이 10% 증가한 것으로 보아 수출이 수입보다 높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출이 수입보다 높고 있다.

수출액이 10% 증가한 반면에 수입액이 10% 증가한 것으로 보아 수출이 수입보다 높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출이 수입보다 높고 있다.

「침체」우려속 先行지수 증가세 內需안정 輸出쪽 호전 “청신호” 본격적인 구조조정기로 진입

최근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내수는 안정되고 있다.

내수는 안정되고 있다.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내수는 안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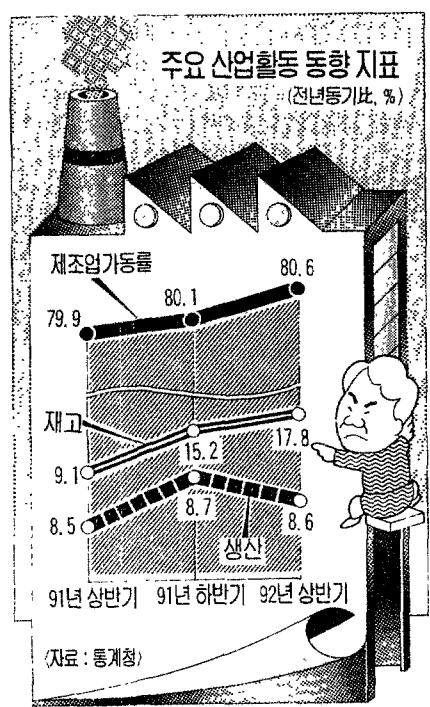
내수는 안정되고 있다.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내수는 안정되고 있다.

올 상반기중 각종 지표로 본 국내 산업활동 동향은 우리경제가 「거품」을 걷고 서서히 안정케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산업생산과 출하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내는등 안정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과열경기를

대표하는 내수소비와 건설투자가 눈에 띄게 줄어 들었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부진, 국내 기계수주와 기계류 수입허가가 지난해보다 줄어 들었으며, 재고가 여전히 높고 쌓여있어 기업의 생산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품」 걷고 안정케도 진입

올상반기 산업활동 동향



생산·출하등 호조... 수출 회복세 내수소비·건설투자도 진정국면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올 상반기중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올 상반기중 산업생산은 지난해 동기 대비 평균 8.6% 증가했고, 출하는 10% 늘어나는 성장세를 보였다. 주요 산업별로는 석유화학은 7%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데 반해, 섬유·화학은 2%·13.4% 늘었다.

수출비율 증대와 화공·기계 등 산업과 출하가 각각 12.2%·13.4% 늘어나는 호조를 보인 반면, 음식료품·섬유·화학·수피·관련 경공업 업종은 생산이 0.7%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데 반해, 석유·화학은 4.2%에 비해 큰 폭의

업종이 산업활동 전체를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또 내수용 출하는 10.3% 증가, 지난해 동기의 13.5%에 비해 증가율이 낮아졌으나, 수출은 9.3% 증가해, 전년동기의 4.2%에 비해 큰 폭의

정부의 건설허가 집행액에 따라 건축허가면적은 작년 동기 대비 27.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상반기중 재고는 17.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중화학·업종의 상승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회복세를 나타냈다. 제조업가동률은 상반기중 평균 80.6%를 기록, 지난해 동기의 79.9%·하반기의 80.1%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3% 감소했으나 국내 건설수주는 도로·화력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등으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 증가했다. 소비부품도 경제안정화 시책에 따라 뚜렷한 진정세를 보여 상반기중 도산매 판매는 6.6% 증가하는데, 그쳤고 내수소비재 출하도 7.1%에 그쳐 전년동기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지난 5월 감소세로 돌아서 경기침체의 조짐으로 해석됐던 경기선행지수도 6월에는 다시 1% 증가로 돌아섰고, 4~5월 연속 감소했던 동행지수도 6월에 0.6% 증가했다. 경제기획원의 女許錫 동향분석과장은 「상반기중 우리경제의 모습은 소비와 건설투자, 설비투자가 크게 둔화된 반면 생산과 출하가 호조를 보이고 비교적 높은 제조업가동률을 유지하는 등 점차 안정케도로 돌아서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선거를 앞두고 불안정 요소가 많아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의 경우, 선거를 앞두고 음식·숙박 등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고가제품이 늘어난 반면, 건설투자가 역시 근린시설과 관광호텔, 다세대주택의 지난 6월말 건축규제 해제로 다시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상반기중 국내 기계수주는 지난해 동기보다 2.9% 감소했으며, 기계류 수입허가는 무려 43.1%나 줄어 들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외화채권과 외화대출 한도를 확대 조정했기 때문에 기계류 수입허가는 늘어날 것이라고 경제기획원은 전망했다. <承仁培기자>

재고폭 증가-하반기 선거등이 불안요인

상반기중 국내 기계수주는 지난해 동기보다 2.9% 감소했으며, 기계류 수입허가는 무려 43.1%나 줄어 들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외화채권과 외화대출 한도를 확대 조정했기 때문에 기계류 수입허가는 늘어날 것이라고 경제기획원은 전망했다.

社說

下半年가 더 문제

물론정의를 올산반기중 산업을
 동조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나타난
 각종 지표도 보면 국내경제가 이제
 그정도면 그정도의 과잉구조 상황
 에 중정부를 찍고 일단 안정책으로
 들어간다고 옹기북보이다. 무엇보다
 뇌마에올 비비하게 행주구세 산업
 생산과 출하의 호조이다. 아무런 거
 품이 걸렸나. 또 안정기반을 보충하
 였나. 여기서도 부수입을 보충했다
 다만 기동성이보 생산활동이 정제
 상태에 빠져 있었다면 그정도의 의
 미를 얻게되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생산과 출하가 다행해 안전산업을
 일단 확보할 만큼 안정면 전이 고
 부조이다.

이런 가운데 안정책으로 중화한공
 업의 생산이그 출하가 두드리지계
 호조를 얻어가고 있다. 반면 소비성
 재(消費재)의 경우 미미한 호조에 그치
 고 있다. 안정면이 다행이 생산
 반기안정재의 비율을 이루는 것
 이다. 한편으로는 "이러저 자부안정
 이나기 생산정적인 안정이 보류 산
 업(消費)의 전면에 투여되어 비로
 소가 있다.

자신 생산이 국내산업을 어떤
 저 소비관련 안정의 好況의 과잉정
 안정정제가 저임으로 불행이 안

정를 생각하면 수출의 그림이 완연
 하다. 경제안정화도 그 내실의
 충진에 기여요 안 정부정책이 드디
 어 원인을 實效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내수용 출하
 가 좀 부활된 가안데 수출의 회복
 세를 보인 대북도 안이런 "안정
 성장"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
 을 믿었다. 이밖에도 나쁜정치의 제
 조업 가동률과 진취적기업의 감
 소, 소비부문의 뚜렷한 진정세로의
 유년정제를 계속 관망한 방향이로
 이 될 것 같 유망한 요소들이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장미빛이며 가쁜 가운
 데도 한편으로 을 하반기 경제의
 「미구들」의 잔파 불면 있기모 한
 현상도 유의해야 한다. 크게 우리의
 총거이다. 다행 얘기가 아니다. 영달
 깨어 있을 때 불행정사를 영부구 달
 써부터 「안정」을 두 배나 더 보아야
 수들의 고개를 넘어야 있다. 사실
 이다. 그렇부정면이나 유래로 해 보
 이르게 정부정책 자체의 불어이다.
 가질 재(消費)의 비비한 好況의
 긴박한 안전 의지 好況의 好況의
 을 거는 안전의 好況의 好況의
 라 할 것이다. 정부가 이렇듯 비를 거
 리면 어떤 면의 好況이다.

진정되었던 소비가 선거를 앞무
 고도 출출 추게 될 것이 확실하고
 건설부지도 행정의 弛緩을 타우
 후추순차림 들이달 가음성이 있다.
 요약하자면 정부, 더 출출 얘기해서
 행정부가 정치부리의 合을리지 않
 도를 각어를 단언히 해 들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의 「불」이 부조자면

그나마 좀 안정된 경제의 提防도
 금방 와해되어 버리고 말게 될 것
 다. 또 한가지는 안정정치의 好況의
 在(在)가 너무 많은 점도 문제거리이
 다. 저출해소 과정의 일면이므로만
 아세우지 말고 정부가 기업들애로
 사향의 귀를 기울여 줄 필요가 있
 다.

社說

경쟁력 강화안된 산업활동 好轉

통계청이 발표한 上半期산업활동동향과 상공부가 집계한 7월중 수출입실적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정부가 의도한대로 건설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소비 건설등 內需가 진정되면서 수출은 회복되어 무역적자가 줄어드는등 거품해소와 安定정착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적어도 指標만으로는 그렇다. 또한 6월중 경기선행지수도 전월비 1.0%의 증가로 반전되어 향후 경기가 완만하나마 성장세를 보일것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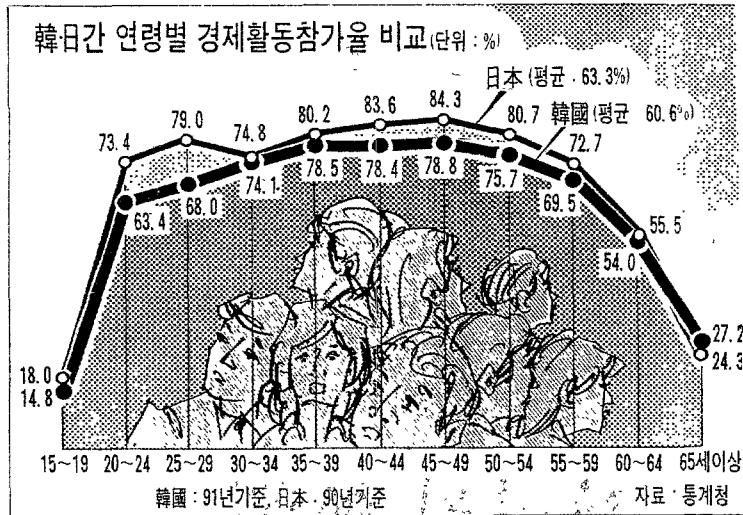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상반기중 산업생산과 出荷는 작년상반기보다 8.6%와 10.0%가 각각 늘어났으며 특히 출하는 내수용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둔화된 반면 수출용 출하증가율은 4.2%에서 9.3%로 늘어나 수출부문의 회복세를 엿볼수 있게 한다. 7월중 수출이 작년동기보다 15.2%나 증가한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고무적 현상이다.

內需에서의 過熱이 진정된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다. 이와함께 수출이 늘어난 현상도 아주 소중하다. 과연 이같은 지표상의 호전이 어느정도 眞實이냐는데 문제가 있다. 內需의 진정은 정책의지가 주요한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그러나 수출이 늘어난 것이 경쟁력이 강화된 소산이라고

볼수 없는데에 안타까움이 있다. 앞으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수 있는 잠재력이 커가고 있으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수 밖에 없다.

첫째로 수출이 늘것은 內需부진으로 허덕이고 있는 업체들이 出血수출에 나선데 따른 일시적 효과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국내 민간기계수주가 작년 하반기의 10%증가에서 올上半期에는 0.9%증가로 둔화되었고 기계류수입허가도 43.1%나 감소된것이 향후의 수출경쟁력을 제약할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셋째는 아시아 4개新興工業國중 우리의 수출증가율이 아직도 가장 낮으며 미국 일본등 주력시장에서 시장占有率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점이다.

더욱 경계해야 할 점은 상반기중 석유 화학 자동차 반도체등 자본 기술집약산업은 수출이 호조를 보인반면 섬유등 경공업부문은 부진을 면치못한 것을 산업구조 조정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지금 한국에선 선진국의 경공업제품, 심지어 지우개에서 연필까지도 잘 팔리고 있다. 말하자면 衣類를 잘못 만들면 자동차도 잘 만들수 없다는 점을 산업고도화의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 표면적 지표의 호전에 현혹되어 현실경제의 고통과 경쟁력 저하 현상을 외면해선 안된다.



「노는 젊은이」 日보다 많다

취업 20~24세 남자는 줄고 여자는 늘어

이상의 연령층을 제외하고는 취업률에서 여전히 일본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못미치고 있다. 경제활동연령단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현재의 취업자 수와 직업을 구하고 있는 실업자 수(구직자)를 합친 것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을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인구중에 실제로 일할 의사를 가진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統計廳 90년조사

지난해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의 63.3%가 90년(보다 2.7%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 80년(한국 59%, 일본 63.3%)보다 낮은 것이지만 65세 이상 인구의 63.3%에 불과했다. 이는 일본의 63.3%가 90년(보다 2.7%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 80년(한국 59%, 일본 63.3%)보다 낮은 것이지만 65세 이상 인구의 63.3%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인력이었던 해외인력까지 수입해다 쓰는 마땅한 환경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기업의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이미 선진국에 거의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이었던 해외인력까지 수입해다 쓰는 마땅한 환경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20~24세의 경제활동인구를 보면 80년 63.1%에서 지난해에는 63.4%로 다소 늘어났지만 남자는 76.5%에서 59.5%로 10년새 17%포인트나 감소한 반면 여자는 53.5%에서 65.9%로 12.4%포인트 늘어나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통계란 묘한 마력이 있다. 무엇이든 섞여치 않은 대박이 있더라도 통계수치를 보면 이만대 공박해오면 반박을 펴기가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따가운 햇살보다 수은주의 높이를 확인해야 더위를 실감하는게 현대인들의 체질이기도 하다. 일종의 통계중독현상이다.

이때문에 통계는 정확성을 생명으로 한다. 그래야만 숫자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이를 기초로 한 정책이 실효를 거둘수 있기 때문이다. 부실 통계의 폐해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실용사만큼이나 크다고 할수 있다.

최근 정부는 민간연구소나 각종 경제단체들이 발표하는 통계가 미덥지 않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통계작성의 기본이라고 할수있는 표본설정이나 설문조사표작성이 전문

統計와 統制

가들 눈에 서둘러 비쳐진듯 싶다. 특히 그결과가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와 차이가 생기니 정책수립에 혼선을 가져올만도 하다.



상종이라고 한다. 민간단체의 통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각종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기술도 전수시킬 계획인것 같다. 요컨대 통계는 이렇게 만드는데 것이라고 한수 가르쳐주겠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다. 보다 정

확한 통계를 생산해내기 위해 정부가 의당 해야 할일이기도 하다. 통계 전문인력이 부족한 민간기관으로부터 이를 공급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민간단체를 통계지정기관에 포함시켜 통계작성에서부터 발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민간단체들의 통계가 엉터리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부가 구미에 맞는 통계만을 골라 발표할생각이라는 의심을 사기 십상이다. 특히 지금은 大選을 앞둔 때이다.

〈經濟部〉

기업生滅통계 94년부터 만든다

기획원 규모·업종별 도산·창업실태 파악

어디까지나 도출통계도 내년부터 세분화

정부가 산업발전 전략을
정리하고 있다. 기업생태
과 관련하여 기업의 생존
태를 연구하는 데 있어
내부 기업 「기업생태통계」
를 새로 작성하기로 했다.
이 통계는 기업의 창업과
폐업, 도산, 합병, 분
사, 분점, 인수를 포함
한 기업생태의 전반적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로, 「기업생태통계」
작성을 위한 「기업생태
조사·발표기준」도
내년 1월 19일 현재
의 통계작성의 시책에
따라 내년 1월 19일
부터 작성된다는 방침
이다.

산업발전의 일환으로
어디까지나 기업생태
통계의 작성은 「기업
생태통계」를 통해
기업생태의 전반적
모습을 파악할 수
있고, 「기업생태통계」
작성을 위한 「기업
생태조사·발표기준」
도 내년 1월 19일
현재의 통계작성의
시책에 따라 내년
1월 19일부터
작성된다는 방침
이다.

한편, 「기업생태통계」
작성을 위한 「기업
생태조사·발표기준」
도 내년 1월 19일
현재의 통계작성의
시책에 따라 내년
1월 19일부터
작성된다는 방침
이다.

를 새로 작성 발표하기로
했다.
기업생태의 의미와 관련, 현
재 통계청의 「기업생태통계」
작성을 위한 「기업
생태조사·발표기준」
도 내년 1월 19일
현재의 통계작성의
시책에 따라 내년
1월 19일부터
작성된다는 방침
이다.

기업생태통계의 작성
태를 새로 작성 발표하기로
했다.
기업생태의 의미와 관련, 현
재 통계청의 「기업생태통계」
작성을 위한 「기업
생태조사·발표기준」
도 내년 1월 19일
현재의 통계작성의
시책에 따라 내년
1월 19일부터
작성된다는 방침
이다.

기업생태통계의 작성
태를 새로 작성 발표하기로
했다.
기업생태의 의미와 관련, 현
재 통계청의 「기업생태통계」
작성을 위한 「기업
생태조사·발표기준」
도 내년 1월 19일
현재의 통계작성의
시책에 따라 내년
1월 19일부터
작성된다는 방침
이다.

성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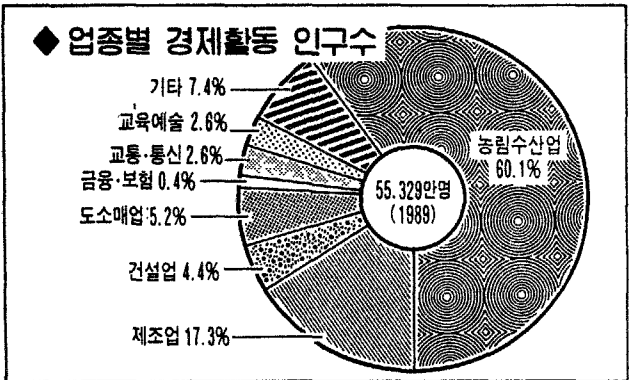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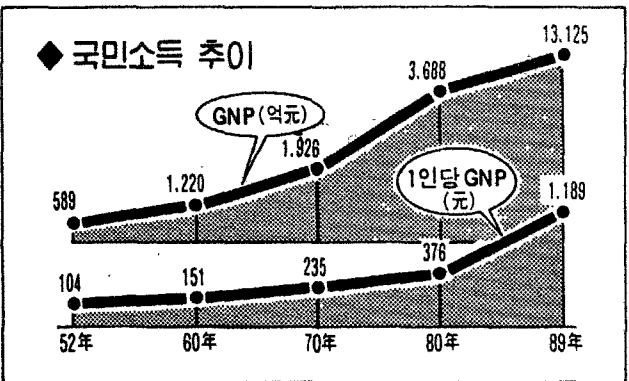
이제까지는 국세청이 6
개월단위로 부가가치세 사
업자 신고를 토대로 후·폐
업업체를 집계해왔으나 공
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
다.

정부가 「기업생태통계」
작성을 위한 「기업
생태조사·발표기준」
도 내년 1월 19일
현재의 통계작성의
시책에 따라 내년
1월 19일부터
작성된다는 방침
이다.

통계로 본 中國 경제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달과 성장의 원동력 작용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서 중공업의 발달과 성장이다. 중국은 1952년 중공업이 전체 산업의 13.2%를 차지했으나, 1989년에는 60.1%로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중공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으며, 이는 중국 경제의 성장에 크게 공헌하였다.

1인GNP 韓國의 16분의1



中國의 국민소득 추이와 1인당 GNP 추이를 보면, 1952년부터 1989년까지 37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중공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으며, 이는 중국 경제의 성장에 크게 공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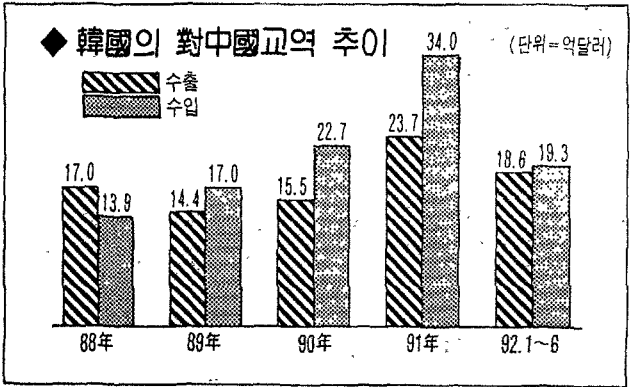
87년 이후 年평균 경제활동인구 産業생산 工業

이러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중국 정부의 개혁 개방 정책 덕분이다. 중국 정부는 1978년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한 후,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였다. 이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중공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으며, 이는 중국 경제의 성장에 크게 공헌하였다.

한편, 중국 경제의 성장에 따라 인구의 증가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성장에 크게 공헌하였다.

◇ 주요 경제지표

지표	단위	80년	89년
△ 인	인명	98,705	111,191
△ 경제 활동 인	인명	42,361	55,329
△ 국민 총 생산	억 원	10,444	13,742
△ 재	억 원	4,470	15,789
△ 지	억 원	1,085.2	2,919.2
△ 소	억 원	1,212.7	3,014.6
△ 물가	지수 (전년 가격 1백)	106.0	117.8



◇ 국제수지개황 <단위 = 억달러>

항목	86년	87년	88년
△ 경상항목차액	-70.34	3.16	-38.02
- 수출입액	257.56	347.34	410.54
- 무역교역차액	348.96	363.95	463.69
- 관공수입액	15.31	18.62	22.47
- 투자수지차액	-0.23	-2.15	-1.61
- 자금의 동포송금수입액	3.79	2.24	4.19
- 해외 동포 송금지출액	2.08	1.66	1.29
- 해외 동포 송금지출액	0.04	0.03	0.04
△ 자본항목차액	59.43	60.02	71.32
- 장기자본유입액	82.38	57.90	70.56
- 단기자본유입액	113.94	97.40	111.14
- 단기자본거래차액	31.56	39.50	40.58
- 은행의 자산환차액	-22.95	2.12	0.76
- 은행의 자산환차액	-32.90	2.19	4.37
△ 비축자산증감액	12.75	-48.52	-22.36
- 외국의 자산증감액	13.99	-47.22	-23.12
- 국제화폐기금비축액	-0.38	-0.59	0.22
- 특별인출권	-0.86	-0.71	0.54

주도 : 農業의 3.4 배

5억5천만명 넘어

18%線 高速성장

△ 孫顯禧기자

부문의 3.4 배나 높았다. 인구는 30억을 넘어 3.4 배나 늘었다. 인구는 30억을 넘어 3.4 배나 늘었다. 인구는 30억을 넘어 3.4 배나 늘었다.

정부는 1988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의 기간 동안에 18%의 고속 성장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위	86년	87년	88년
△ 금중의 양물화일기품의 양물지탕고VV기기기탄유랑강트랑도로송프공지랑량액의액	762	1,935	1,935
△ 금중의 양물화일기품의 양물지탕고VV기기기탄유랑강트랑도로송프공지랑량액의액	227	700	700
△ 금중의 양물화일기품의 양물지탕고VV기기기탄유랑강트랑도로송프공지랑량액의액	1,923	6,535	6,535
△ 금중의 양물화일기품의 양물지탕고VV기기기탄유랑강트랑도로송프공지랑량액의액	32,056	40,755	40,755
△ 금중의 양물화일기품의 양물지탕고VV기기기탄유랑강트랑도로송프공지랑량액의액	270.7	378.8	378.8
△ 금중의 양물화일기품의 양물지탕고VV기기기탄유랑강트랑도로송프공지랑량액의액	679.3	1,831.9	1,831.9
△ 금중의 양물화일기품의 양물지탕고VV기기기탄유랑강트랑도로송프공지랑량액의액	1,205.4	2,326.2	2,326.2
△ 금중의 양물화일기품의 양물지탕고VV기기기탄유랑강트랑도로송프공지랑량액의액	450	1,152	1,152
△ 금중의 양물화일기품의 양물지탕고VV기기기탄유랑강트랑도로송프공지랑량액의액	5,154	22,017	22,017
△ 금중의 양물화일기품의 양물지탕고VV기기기탄유랑강트랑도로송프공지랑량액의액	134.7	189.2	189.2
△ 금중의 양물화일기품의 양물지탕고VV기기기탄유랑강트랑도로송프공지랑량액의액	535	1,333	1,333
△ 금중의 양물화일기품의 양물지탕고VV기기기탄유랑강트랑도로송프공지랑량액의액	257	501	501
△ 금중의 양물화일기품의 양물지탕고VV기기기탄유랑강트랑도로송프공지랑량액의액	4.9	670.79	670.79
△ 금중의 양물화일기품의 양물지탕고VV기기기탄유랑강트랑도로송프공지랑량액의액	249.20	766.54	766.54
△ 금중의 양물화일기품의 양물지탕고VV기기기탄유랑강트랑도로송프공지랑량액의액	3.2	940.02	940.02
△ 금중의 양물화일기품의 양물지탕고VV기기기탄유랑강트랑도로송프공지랑량액의액	24.5	825.4	825.4
△ 금중의 양물화일기품의 양물지탕고VV기기기탄유랑강트랑도로송프공지랑량액의액	74.3	2,418.1	2,418.1
△ 금중의 양물화일기품의 양물지탕고VV기기기탄유랑강트랑도로송프공지랑량액의액	37.28	245.18	245.18
△ 금중의 양물화일기품의 양물지탕고VV기기기탄유랑강트랑도로송프공지랑량액의액	6.2	10.54	10.54
△ 금중의 양물화일기품의 양물지탕고VV기기기탄유랑강트랑도로송프공지랑량액의액	10,595	13,764	13,764
△ 금중의 양물화일기품의 양물지탕고VV기기기탄유랑강트랑도로송프공지랑량액의액	3,006	5,848	5,848
△ 금중의 양물화일기품의 양물지탕고VV기기기탄유랑강트랑도로송프공지랑량액의액	3,712	6,159	6,159
△ 금중의 양물화일기품의 양물지탕고VV기기기탄유랑강트랑도로송프공지랑량액의액	7,986	21,029	21,029
△ 금중의 양물화일기품의 양물지탕고VV기기기탄유랑강트랑도로송프공지랑량액의액	12,026	25,591	25,591
△ 금중의 양물화일기품의 양물지탕고VV기기기탄유랑강트랑도로송프공지랑량액의액	5,717	1,039.4	1,039.4
△ 금중의 양물화일기품의 양물지탕고VV기기기탄유랑강트랑도로송프공지랑량액의액	764	3,375	3,375
△ 금중의 양물화일기품의 양물지탕고VV기기기탄유랑강트랑도로송프공지랑량액의액	5,053	11,187	11,187
△ 금중의 양물화일기품의 양물지탕고VV기기기탄유랑강트랑도로송프공지랑량액의액	491	629	629
△ 금중의 양물화일기품의 양물지탕고VV기기기탄유랑강트랑도로송프공지랑량액의액	1.4	6.9	6.9
△ 금중의 양물화일기품의 양물지탕고VV기기기탄유랑강트랑도로송프공지랑량액의액	63,735	101,639	101,639
△ 금중의 양물화일기품의 양물지탕고VV기기기탄유랑강트랑도로송프공지랑량액의액	60,275	96,934	96,934
△ 금중의 양물화일기품의 양물지탕고VV기기기탄유랑강트랑도로송프공지랑량액의액	2,140.0	8,101.4	8,101.4
△ 금중의 양물화일기품의 양물지탕고VV기기기탄유랑강트랑도로송프공지랑량액의액	181.2	525.4	525.4
△ 금중의 양물화일기품의 양물지탕고VV기기기탄유랑강트랑도로송프공지랑량액의액	200.2	591.4	591.4



제조업 취업자 10萬 감소 서비스부문 6.4% 늘어

통계청 2·4분기 고용동향 발표

제조업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자의 취업추진율이 계속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취업추진부의 고용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또 건설업·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서비스부문의 취업이 증가했으며, 취업자는 1천 9백 34만 7천 명으로 36만 1천 명(1.9%)이 늘어났다.

9백 78만 3천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만 7천 명이 증가했으며, 취업자는 1천 9백 34만 7천 명으로 36만 1천 명(1.9%)이 늘어났다.

산업별 취업부조를 보면 △중공업은 3백 39만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5.3%가 감소했고 △광공업은 4백 88만 1천 명으로 2.2%가 줄었다. 반면 △서비스업은 1천 1백 7만 7천 명으로 6.4%가 증가

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충청·경남·전남·전북·제주도 등 12개 지역이 취업자 수를 늘렸으며, 서울·경기·충청·경남·전남·전북·제주도 등 12개 지역이 취업자 수를 줄였다.

20代 초반층 失業 늘었다

통계청 조사 2分期 고용동향

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건설업·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의 취업이 늘었다. 3차 산업업의 인력이 팽창되고 있다.

또 제조업의 인력난이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만원 전 1000기피 현상이 일부 20대 초반층 이하 실업률의 팽창을 야기하고 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4분기 지역별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취업추진율이 1천 9백 82만 3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했다. 이 중 취업자 수는 1천 9백 34만 7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충청·경남·전남·전북·제주도 등 12개 지역이 취업자 수를 늘렸으며, 서울·경기·충청·경남·전남·전북·제주도 등 12개 지역이 취업자 수를 줄였다.

전년 동기 6.4%에서 6.6%, 15~19세는 8.8%에서 10.3%로 높아져 최근 청년층의 취업난과 인력수급 불균형을 반영했다.

점진적 고용률 상승

2분기 고용률 향상 - 농업·광업·제조업 취업 증가

제조업이 앞장서고 있다. 2분기에는 제조업의 고용률이 1.3%포인트 상승한 42.7%에 이르렀다. 특히 2분기에는 제조업의 고용률이 1.3%포인트 상승한 42.7%에 이르렀다.

반면, 이 기간 동안 서비스업의 고용률은 0.1%포인트 하락한 34.1%에 머물렀다. 특히 서비스업의 고용률은 0.1%포인트 하락한 34.1%에 머물렀다.

특히 2분기에는 27일 발표된 통계청의 2분기 중 지역별 고용률에서 지난 4.6월 중 경제활동인구가 모두 1천 9백78만 3천명으로 증가했다.

로 1.9%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산업별로는 농업·광업이 3.3%포인트 상승한 5.3%, 제조업이 1.3%포인트 상승한 42.7%, 서비스업이 0.1%포인트 하락한 34.1%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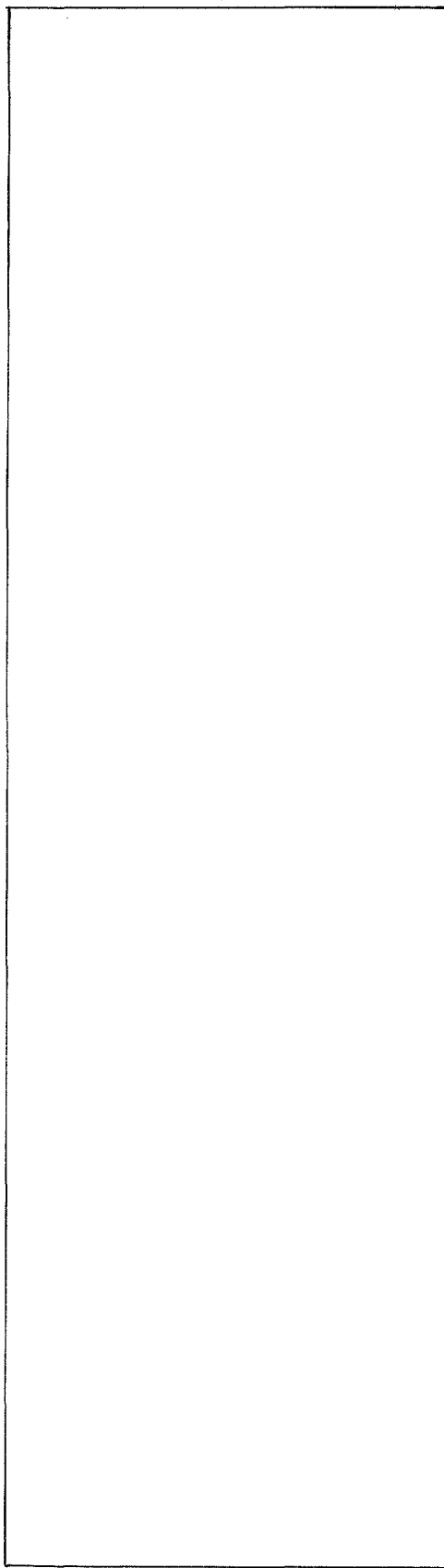
제조업 취업자수는 4백 82만명으로 2.2%(10만 6천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4백 82만명으로 2.2%(10만 6천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비스업 취업자수가 1천 1백 7만 7천명으로 6.4%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4백 82만명으로 2.2%(10만 6천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비스업 취업자수가 1천 1백 7만 7천명으로 6.4%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4백 82만명으로 2.2%(10만 6천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비스업 취업자수가 1천 1백 7만 7천명으로 6.4%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4백 82만명으로 2.2%(10만 6천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비스업 취업자수가 1천 1백 7만 7천명으로 6.4% 증가했다.



여성일터가 줄고있다

2분기 고용동향 **섬유등 勞動集約산업** 침체로

여성失業 증가율 12.9%

전체失業률 2.2% ... 3년만에 첫上昇

輕工業인력줄고 조립품수등 증가 ... 고용구조변화

섬유 등의 부용신표 가구 등 노동집약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장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업기회가 줄어든 여성실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또 이들 산업이 몰려오는 대구 대전 등지의 실업률이 다른 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 지역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역별의 취업비율이 높았던 섬유업의 취업비율도 2.4분기

반면 건설업 등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부문에선 작년 동기보다 66만 4천명(6.4%)이 증가한 1천 1백 7천 명이 취업,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 다른 여성실업률은 2.0%로 작년 동기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또 전반적인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전체 실업률은 2.2%로 3년만의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보면 2.4분기 중 섬유업의 부가공업종의 취업자수가 작년 동기 대비해 5.1% 감소한 것을 비롯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4.9% 감소) 유신료(3.2% 감소)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1.1% 감소) 등 10개 산업종목이

업 부문에서 많은 인력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포장 기계, 자동차용 기계 등 조립품 생산 및 기계장비 제조업의 취업자수는 2.1%가 증가하고 중의 인쇄 출판업도 1.7%의 취업자 증가를 나타내고 고용구조의 변화가 진이나 나타나고 있다.

광공업 전체 취업자수는 4백 88만 1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1만 2천명 줄었다. 2.4분기보다 5만 9천명이 각각 감소해 지난해 1·4분기 이후 감소추세가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설업 등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부문에선 작년 동기보다 66만 4천명(6.4%)이 증가한 1천 1백 7천 명이 취업,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社說

산업구조조정과 女性失業증가

고용구조가 바뀌면서 女性들의 失業이 늘어나 주목되고 있다. 輕工業으로부터 출발한 경제개발 초기부터 지금까지 女性들의 손길이 우리의 산업에서 큰 몫을 해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노동 집약적 경공업이 구조적 不況에 휩싸이면서 女性들의 일터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일부 高度산업부문에선 여전히 人力難을 겪고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 고용동향에 따르면 섬유 의복 가죽등 노동집약산업에서 女性취업자수가 크게 줄어들어 女性실업자증가율이 12.9%로 늘어났으며 남자 실업자증가율 6.9%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앞으로도 로봇투입 증가등 공장자동화의 진전으로 단순여성인력의 수요는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자동화투자가 활발한 대기업들의 공장에선 10% 가까운 인원을 감축했으며 여기에는 많은 女性인력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한국의 고용구조를 보면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소위 3D직종과 기술직에서 人力難을 겪고 있는데 비해 人文系 大卒者는 공급과잉상태이며 단순직 노동력도 점차 남아돌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사무직 감축도 추진되고 있다. 산업구조 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이같은 人力難과 就業難 공존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 틀림없다. 이것이 人力면에서 산업구조조정에 지장을 주게 될 것이며 사회문제까지 야기할 소지가 있다.

인력의 수급불균형을 바로잡아 쓸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재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산업구조의 高度化는 바로 고용구조의 고도화라고 할수 있다. 그러자면 공급과잉부문의 인력을 人力難 부문에서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과제이다. 심블리 모자라는 부문의 인력을 해외인력으로 보충하려고 하면 우리는 거대한 失業群을 만들게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에서의 인력양성구조를 산업구조고도화에 발맞춰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理工系출신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대학에선 과잉상태의 人文系를 계속 양산하면 인력수급 불균형은 시정될수 없을 뿐더러 국가적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닐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단순직 인력의 재교육을 통해 산업계의 기술인력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산업발전에 막대한 공헌을 한 女性인력을 새로운 훈련을 통해 고도산업에서 흡수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女性인력활용은 전체적 人力難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 방안이다.

前月比해 安定 추세 뚜렷

소비자 5년來 최저 10월 들어 처음 내려



92. 8. 31

內需지정되고 過소비 억제때문 통계청·韓銀 발표

매도 0.2% 하락

8월 物價

소비자 0.2% 상승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 추이 (비년전·%)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0년	9.2	9.2	10.1	8.6	8.5	8.7	8.7	9.4	9.4	9.3	9.4	9.3
91년	7.7	7.4	7.3	7.3	5.9	5.9	5.9	5.9	5.9	5.9	5.9	5.9
92년	7.4	7.4	7.4	7.4	7.4	7.4	7.4	7.4	7.4	7.4	7.4	7.4

(자료: 통계청)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 추이 (비년전·%)

90년 9.2, 9.2, 10.1, 8.6, 8.5, 8.7, 8.7, 9.4, 9.4, 9.3, 9.4, 9.3

91년 7.7, 7.4, 7.3, 7.3, 5.9, 5.9, 5.9, 5.9, 5.9, 5.9, 5.9, 5.9

92년 7.4, 7.4, 7.4, 7.4, 7.4, 7.4, 7.4, 7.4, 7.4, 7.4, 7.4, 7.4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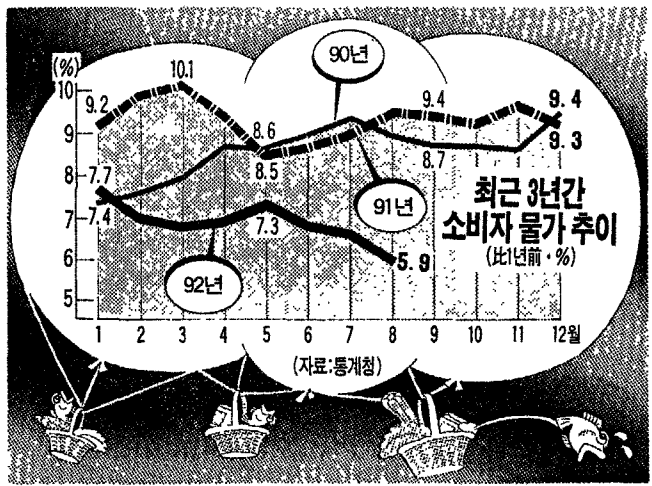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 추이 (비년전·%)

90년 9.2, 9.2, 10.1, 8.6, 8.5, 8.7, 8.7, 9.4, 9.4, 9.3, 9.4, 9.3

91년 7.7, 7.4, 7.3, 7.3, 5.9, 5.9, 5.9, 5.9, 5.9, 5.9, 5.9,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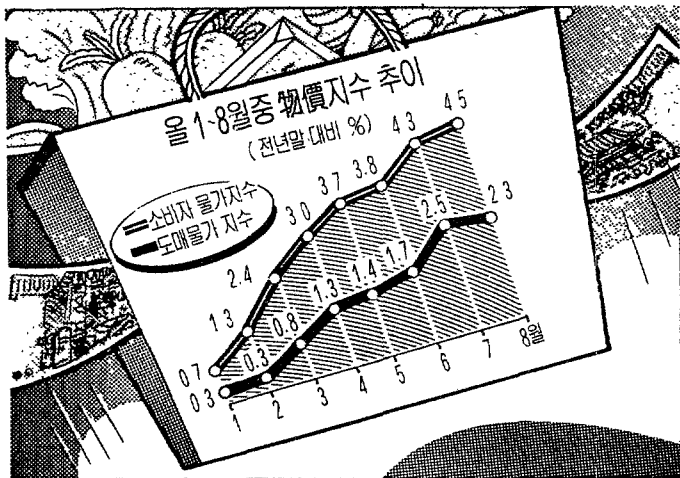
92년 7.4, 7.4, 7.4, 7.4, 7.4, 7.4, 7.4, 7.4, 7.4, 7.4, 7.4, 7.4

(자료: 통계청)



物價 잡혀간다

8월 도매지수 올 첫 0.2%내려



올 「소비자」 4.5%로 안정

內需진정책 효과...大選이 변수

지난 8월중 소비자물가는 여름장마철의 수습난 등 여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달보다 0.2%가 오른는 데 그쳤으므로 나타났다. 또 8월중에는 도매물가가 0.2% 하락을 보였고, 처음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31일 경제기획원과 통계청이 발표한 「8월중 물가」 동향에 따르면 이같은 안정세에 힘입어 올들어 8월 말까지의 소비자물가는 4.5%가 상승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 1년전과 비교한 8월 말의 소비자물가는 5.1%

9%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9년 12월 이후 2년 8개월만에 처음으로 소비자물가의 年率상승률이 5%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또 장마구니 물가를 말해 주는 채소 과일 생산량 등 新鮮식품은 올들어 8월 말 현재까지 0.9%가 오른는 데 그쳤고 쌀 최고기 배추 등 20대 기본생활품의 4.7% 올 1회이상 구입품목도 4.8% 상승에 머물렀다.

8월중 물가상승률 부문별로 보면 △중추수산물 0.3% 올 첫 것을 비롯 △공산품은 0.1% △개인서비스요금은 0.4% △공공요금 0.2% △집세 0.5%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삼추(62.2%)를 비롯 포도(50%) 파(11.3%) 배추(7.8%) 닭고기(8.3%) 등이 많이 오른 반면 고추(12.8%) 수박(17.2%) 고등어(10.8%) 달걀(3.1%) 토마토(10.4%) 미술품(0.4%) 등은 내렸다.

이처럼 물가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내수진정책 등 경제안정화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온 데다가 최근 업계의 판매부진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社 說

안정과 신뢰를 찾은 物價

올바른 정책선택과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여기에 응당한 국민적 공헌과 협조가 없이는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밖이 없다.

그 한 예로서 최근 물가안정세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 열거될 수 있다.

통계청과 한미은행의 발표한 8월 중 물가동향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물가상승률은 0.2%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낮아졌다. 또 8월까지 1년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1%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낮아졌다.

다양 부문이 균형 있게 안정을 이루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수출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각종 선저 물이 수출에 유리하게 있어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한 것이 바로 물이었다.

정부는 물이 여러 각종 연료기관기, 정유, 열전발전기 등에 최근까지도 해동 심상치 않아 물이 부족을 지적했다.

정부가 공적 보유했던 물가정책선 9%가 저가저조 수반으로 정수리 비관여였다.

4월까지만 해도 삼만기까지 물가 상승률을 5% 이내로 안정시킨다면 안정적이라기엔 부족이 없다. 그러나 삼만기를 훨씬 지난 8월까지 5%의 내의 안정을 지키고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한 최근 1~2년 사이 신뢰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해만 해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3%였으나 과일·생선류·채소 등 생활물가 상승률이 15%에 이르러 정부의 물가통제의 대한 불신이 팽배했다. 그러나 올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5%, 20개 기본생활물가를 대상으로 한 생활물가 상승률이 4.8%로 나타나 이같이 국민의 해소가 물가신뢰를 회복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물가가 이처럼 안정을 찾고 있는 것은 믿어지지 않으나, 해동 안정된 물가대책이 주요한 때문이다. 成接을 희생시켜서라도 물가를 잡았다. 안정정책의 선택의 결과인 것이다. 추수안정정책과 이민안정정책이 물산들이 두루 번성하고 소비경제 부흥을 이루는 데 있어 정 책수단이므로 동원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 그러나 물가안정 정책이 부흥산가적인 사상적이며,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의 패행적인 거부의 수반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동과 안정된 인플레이션의 體性이 빠

지면서 경제가 內賣을 되찾고 있는 증거들이다. 이제 우리의 관념의 대동형선거와 정부안정을 앞두고 안정정책의 지수성 여부도 모른다. 대동형선거를 전후한 사회부위기의 이완이나 경제정책의 선회되지 않는 공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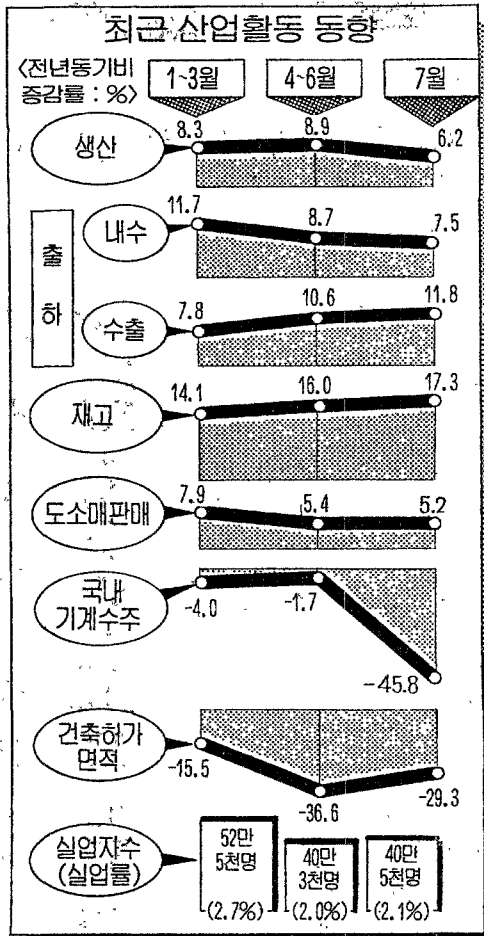
물가안정업은 선장이 바로 우리가 최근 경험했던 거품경제다. 지금의

물가수준은 과거에 비해 많을 수 있고 당초 걱정했던 것보다 좋아졌다는 의미의 현수준의 만족한다. 그러나 물가는 특정 시점의 단기적 안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안정되어야 진정한 안정의 의미가 있다. 모처럼 안정기만을 다지고 있는 물가가 그리고 신뢰를 회복하고 있는 물가정책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産業활동이 갈수록 둔화

통계청 분석

7월 6.2% 증가 그쳐 의류 신발 등 뒷걸음... 중화학 호조



註: 분기별 실업통계는 분기말월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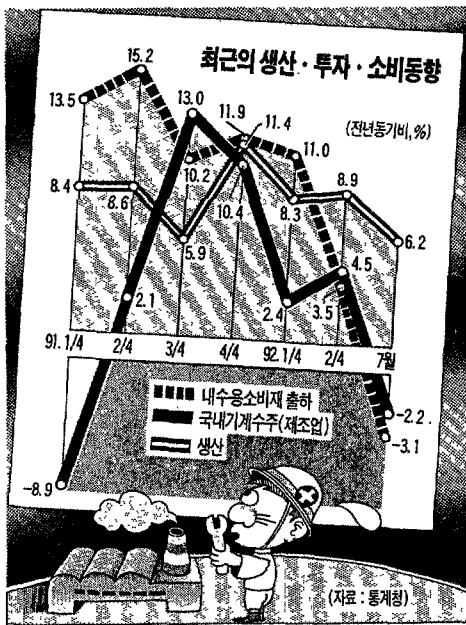
최근들어 산업생산율비
 록 소비 투자활동은 전반적
 인 국내경기가 둔화추세를
 보이고있다.

경제안정화시책을 추진
 해온 정부관계자는 이와관
 하여 초기상승국면이 나타

날 것으로 전망되고있어
 연말의 대통령선거등을 의
 시해 상당한 경기부양책을
 퍼서는 안된다. 또 감소, 현
 재의 안정화시책을 견지할
 방침임을 밝혔다.

생산·투자·소비 둔화

7월중산업동향 前年比 생산 6.2%증가 그쳐



<그림: 金龍吉기자>

정부 경기 진정策 효과 화학·석유·고무는 활기

올해 7월중 산업동향은 정부의 경기 진정策 효과로 내수용 소비재 출하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반면, 투자와 소비는 각각 4.5%와 -2.2%로 둔화했다. 특히 화학·석유·고무 등 수출주력 산업은 10월계를 기점으로 생산이 8.4% 증가하며, 수출도 8.4%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전자, 기계 등은 2.4%와 3.5%로 둔화했다. 이는 정부의 경기 진정策 효과가 내수용 소비재 출하를 자극한 반면, 투자와 소비는 여전히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수용 소비재 출하의 경우, 자동차, 전자, 기계 등 내수용 소비재 출하가 10월계를 기점으로 8.4% 증가하며, 수출도 8.4%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전자, 기계 등은 2.4%와 3.5%로 둔화했다. 이는 정부의 경기 진정策 효과가 내수용 소비재 출하를 자극한 반면, 투자와 소비는 여전히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중 산업동향은 내수용 소비재 출하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반면, 투자와 소비는 각각 4.5%와 -2.2%로 둔화했다. 특히 화학·석유·고무 등 수출주력 산업은 10월계를 기점으로 생산이 8.4% 증가하며, 수출도 8.4%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전자, 기계 등은 2.4%와 3.5%로 둔화했다. 이는 정부의 경기 진정策 효과가 내수용 소비재 출하를 자극한 반면, 투자와 소비는 여전히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중 산업동향은 내수용 소비재 출하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반면, 투자와 소비는 각각 4.5%와 -2.2%로 둔화했다. 특히 화학·석유·고무 등 수출주력 산업은 10월계를 기점으로 생산이 8.4% 증가하며, 수출도 8.4%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전자, 기계 등은 2.4%와 3.5%로 둔화했다. 이는 정부의 경기 진정策 효과가 내수용 소비재 출하를 자극한 반면, 투자와 소비는 여전히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91년수입 통계조사」

정부가 전반기적으로 가
라앉는 가운데서도 지난
해 우수입력의 증가로
이러가장 높음의 성장
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 집중전
계 발표된 「91년 우수
입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우수입력을
이끌어준 수입은 18조
원을 초과하여 前年對比
20%를 보였다. 우수수
입의 이월효과도 수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조사(지역별) 15.
3%, 향간 23.9%, 파수
출입 11.1%, 파수출
13.8%, 수입 23% 파
수입이 30%로 분포되고
있다.

특히 8월 집중전 계 발표된 「91년 우수입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우수입력을 이끌어준 수입은 18조 원을 초과하여 前年對比 20%를 보였다. 우수수입의 이월효과도 수입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조사(지역별) 15.3%, 향간 23.9%, 파수출입 11.1%, 파수출 13.8%, 수입 23% 파수입이 30%로 분포되고 있다.

윤수업 10년來 최대好況

수출입 物動量증가·요금리노등 힘입어
업종별수입比重 육상·水上·항공順높아

상(20.7%), 항공(12%)의 비중이 90년의 비해 상대적으로

육상(81.1%)의 비중이 90년의 비해 상대적으로

차량대량생산은 우수입력(고속버스가 1억1천여대)을 기록해 제일

세버스(3천6백67만 대), 택시(1천9백51만 대)가 이어 올전 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항공의 경우 7천5백88만 대에 가장 많고 다음이 ▲버스(7천1백71만 대), ▲노선화물(3천8백11만 대), ▲구외화물(3천3백1만 대)

▲선박(1천6백73만 대), ▲항공화물(1천5백46만 대) 등의 순이었다.

한편 우수입력 서비스업종에서는 수입의 파수입의 비중이 88년 72.3% 증가율을 보인 이후 계속 71.4%, 71.7%를 기록했다.

▲우수입력, ▲우수수출, ▲우수입출, ▲우수수출의 증가로 전년 대비 7.7% 증가수준에 81.1%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조사 발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91년 우수입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내수 및 건설경기 호황과 해상수출입 물동량 확대로 4천63억 원으로 추계됐다. 항공화물도 전년비 27%

運輸業 금신장 18兆7천億 벌었다

작년 20%나 늘어 10년來 최고치 기록
고속버스 18萬수입 1억1천만 원線

이 1년전보다 20% 늘어난 18조 7천 4백 77억 원에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적은 지난 81년 이후 10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또 90년 차량 1대당 수입이 고속버스가 4억 1천 33만 원, 일반가장 2억 6천 원, 화식택시 2천 28만 원, 차량차 1천 6백 73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우수입력 서비스업종에서는 수입의 파수입의 비중이 88년 72.3% 증가율을 보인 이후 계속 71.4%, 71.7%를 기록했다.

▲우수입력, ▲우수수출, ▲우수입출, ▲우수수출의 증가로 전년 대비 7.7% 증가수준에 81.1%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柳赫根기자】

작년運輸業 10年來 최고 急성장

작년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1,020,000톤에 달하는 물량을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1,020,000톤에 달하는 물량을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32.8%)의 증가를 보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1,020,000톤에 달하는 물량을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1,020,000톤에 달하는 물량을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1,020,000톤에 달하는 물량을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1,020,000톤에 달하는 물량을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賣出 18兆 7천억...前年比 20%

地下鐵이 용객·輸出入물동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1,020,000톤에 달하는 물량을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1,020,000톤에 달하는 물량을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1,020,000톤에 달하는 물량을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1,020,000톤에 달하는 물량을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1,020,000톤에 달하는 물량을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림세를 보였다.
 ◇사상공업업종 중 1차 업종은 전월 대비 14.2% 증가한 반면 2차 업종은 7.7% 증가했다. 3차 업종은 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공업업종은 9.7% 증가한 반면 기계업종은 11.9% 증가했다. 철강업종은 11.9% 증가했다. 조선업종은 11.9% 증가했다. 기계업종은 11.9% 증가했다.

增 好調영향

주요 업종별 실적은 8월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업종은 7.7% 증가했다. 3차 업종은 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업종은 14.2% 증가했다. 2차 업종은 7.7% 증가했다. 3차 업종은 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실적>

구분	단위	90년	91년	구성비 (%)	전월 대비 (%)
총계	개	135,537	146,038	100.0	7.7
1차 업종	개	132,022	142,390	97.5	7.9
2차 업종	개	373	416	0.3	11.5
3차 업종	개	5	6	0.0	20.0
서비스업	개	3,137	3,226	2.2	2.8
총계	명	655,901	662,723	100.0	1.0
1차 업종	명	522,064	532,981	80.4	2.1
2차 업종	명	23,922	23,617	3.6	△1.3
3차 업종	명	15,450	16,045	2.4	3.9
서비스업	명	94,465	90,080	13.6	△4.6
총계	10억원	15,623.5	18,747.7	100.0	20.0
1차 업종	10억원	9,002.5	10,492.4	56.0	16.5
2차 업종	10억원	3,057.7	3,896.6	20.7	27.4
3차 업종	10억원	1,824.2	2,244.0	12.0	23.0
서비스업	10억원	1,739.1	2,114.7	11.3	21.6
총계	10억원	13,312.1	15,836.5	100.0	19.0
1차 업종	10억원	7,455.1	8,586.2	54.2	15.2
2차 업종	10억원	2,784.6	3,552.0	22.4	29.2
3차 업종	10억원	1,749.2	2,048.2	12.9	17.1
서비스업	10억원	1,359.2	1,650.1	10.4	21.4
총계	10억원	9,063.9	10,980.1	100.0	21.1
1차 업종	10억원	5,842.1	6,954.6	63.3	19.0
2차 업종	10억원	1,133.9	1,412.1	12.9	24.5
3차 업종	10억원	717.3	956.2	8.7	33.3
서비스업	10억원	1,370.6	1,657.2	15.1	20.9

91년 1~9월 실적은 90년 1~9월 실적에 비해 20.0% 증가했다. 1차 업종은 16.5% 증가했다. 2차 업종은 27.4% 증가했다. 3차 업종은 23.0%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21.6% 증가했다.

運輸業 81년 이래 최대 호황

작년 수입 20% 증가 지하철 29% · 市内버스 27%

지난해부터 수도권은 도로교통과 지하철의 발달로 대중교통이 발달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지하철의 증가와 버스 수입의 증가로 지난해 90년에 비해 수입이 20%나 증가, 81년 이후 최대의 호황을 누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중교통인 교통수입은 올해도 25.6% 증가했다.

그리고 유류수입 서비스업은 18.7% 증가했다. 특히 유류수입은 18조 7천 4백 77억 원으로, 90년에 비해 20% 증가했고, 운수비율은 15조 8천 9백 65억 원으로 19% 증가했다. 유류수입을 유류비율로 보면, 육상운송은 10조 4천 9백 24억 원으로, 16.5% 증가에 그친 반면, 수상운송은 3조 8천 9백 66억 원으로 27.4% 증가했다. 항공운송은 2천 4백 40억 원으로 23% 증가했고, 해운운송은 2천 1백 47억 원으로 21.6% 증가했다. 지하철이 3천 9백 29.4% 증가했고, 시외버스는 1조 2천 6백 48억 원으로 27.6% 증가했고, 시내버스는 4천 633억 원으로 25.6% 증가했다. 유류비율은 21.1%로, 1천 7백 6천 3백 21억 원으로, 11.7% 증가했다. 유류비율은 1천 7백 6천 3백 21억 원으로, 11.7% 증가했다.

26.4% 증가했다. 여객운송의 차량 1대당 수입은 고속버스가 전년 대비 8.1% 증가한 1억 1천 9백 3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시외버스 5천 9백 16만원(15.4% 증가), 시내버스 5천 2백 6만원(15.5% 증가), 전세버스 3천 6백 67만원(1.8% 증가), 택시 1천 9백 51만원(6.2% 증가) 등의 순이었다.

◇차량1대당 운수수입 및 운전기사수

	운 수 수 입 (만원)			운전기사수 (명)	
	90년	91년	증가율	90년	91년
고속버스	10,295	11,133	8.1	1.51	1.49
시외버스	5,128	5,916	15.4	1.30	1.29
시내버스	4,508	5,206	15.5	1.86	1.82
택시	1,837	1,951	6.2	1.47	1.42
(회사택시)	(2,007)	(2,028)	(1.1)	(1.94)	(1.90)
전세버스	3,601	3,667	1.8	1.04	1.01
노선화물	3,169	3,811	20.3	1.03	1.05
특수화물	6,616	7,171	8.4	1.10	1.06
구역화물	5,974	7,598	27.2	0.99	0.97
달화물	3,029	3,301	9.0	1.02	1.01
장화물	1,332	1,546	16.1	1.00	1.00
화물	1,600	1,673	4.6	0.87	0.84

<자료: 통계청>

91년도 운수업 통계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해 말 현재 운수업 관련 업체수는 총 14만 6천 38개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으며, 종사자수는 66만 2천 7백 23명으로 1% 증가했다고 밝혔다. 운수업체의 지난해 수입은 18조 7천 4백 77

억 원으로, 90년에 비해 20% 증가했고, 운수비율은 15조 8천 9백 65억 원으로 19% 증가했다. 유류수입을 유류비율로 보면, 육상운송은 10조 4천 9백 24억 원으로, 16.5% 증가에 그친 반면, 수상운송은 3조 8천 9백 66억 원으로 27.4% 증가했다. 항공운송은 2천 4백 40억 원으로 23% 증가했고, 해운운송은 2천 1백 47억 원으로 21.6% 증가했다. 지하철이 3천 9백 29.4% 증가했고, 시외버스는 1조 2천 6백 48억 원으로 27.6% 증가했고, 시내버스는 4천 633억 원으로 25.6% 증가했다. 유류비율은 21.1%로, 1천 7백 6천 3백 21억 원으로, 11.7% 증가했다. 유류비율은 1천 7백 6천 3백 21억 원으로, 11.7% 증가했다.

高학력 사무직 과소비 추동

로 분석됐다. 이들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비교적 여유있는 계층 이상의 사람들로, 주로 부동산이나 증권등 財테크를 통한 소득증가가 과소비를 부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근로자 소비성향 분석

부동산투기와 고임금등 한국 경제의 거품현상이 극에 달했던 80년대 후반의 과소비를 주도한 것은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을 갖추고 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30대후반과 50대초반의 연령층이었던 것

30대 후반-50대 초반 중류 이상 계층 財테크로 소득급증... 거품현상 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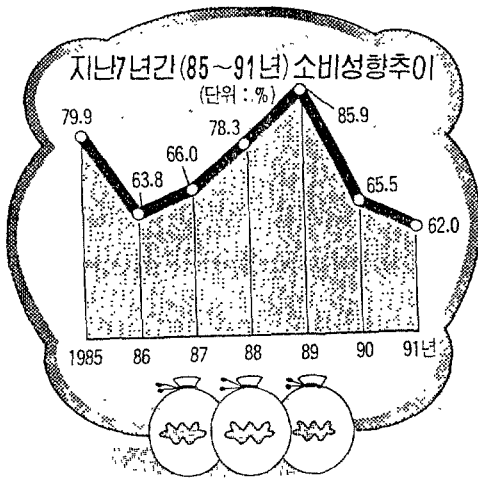
산직 이력이나 노사분규등의 영향으로 임금이 크게 올라, 지난 89년의 경우 도시근로자구의 소득증가가 24.5%로 8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과소비 품종가 사회에 만연하면서 소비지

출 증가율이 26.7%로 소득증가율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해는 근로자

동화와 과소비품종 비중이 10%로 소비증가율이 10%의 낮은 수준으로 돌아서 정상을 되찾았다. 지난 10년간 도시근로자

품으로 불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50~59세 연령층의 소비성향이 높았던 것은 자녀들의 성장해 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부동산, 증권등 재산형소 유한 계층이었기 때문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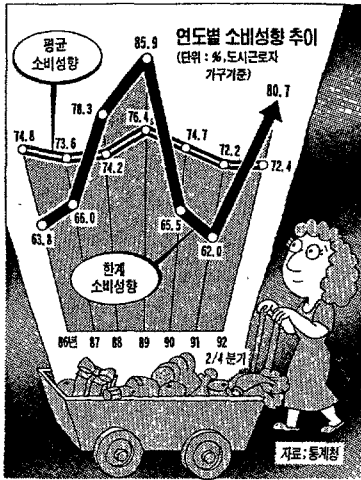
통계청은 23일 발표한 「지난 10년간(81~91년) 도시 근로자구의 소비성향 추이」 분석자료를 통해 도시 근로자들의 평균 소비성향은 지난 81년 이후 경제성장률 다른 국민소득 증가로 낮아지는 추세로 보여왔다면서 그러나 지난 88~89년은 처우전반에 퍼진 과소비 풍조의 영향으로 소비성향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異常현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아진 것은 생



소비성향이 일반층으로 높은 계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45~49세의 연령층에서 평균 소비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수가 많아 (평균 4.48명) 생계비가 많이 들고, 동시에 교육비 부담이 평균 12만 2천원으로 과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88~89년의 과소비를 주도한 연령층은 35~39세와 50~54세의 연령층이었다. 이들은 주사내 일반직인 주체와 다른 현상을 보였다. 35~39세 연령층은 직장 이 안정되고 자녀들이 여러 생활의 여유가 생기는 시기면서 동시에 생활을 즐기려는 「신세대」에 속해 이 기간중 소비성향이 큰

89년 최고조... 작년부터 증가율 진정추세

고 통계청은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 연령층의 소비성향을 소비성향이 낮았던 지난 87년과 소비성향이 높았던 시기인 88년으로 비교해 보면, 89년 연령층의 비해 현저하게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할 때면 소비성향을 보면 생활의 여유가 있는 자가 수유자가 전체나 월세 임차자보다 높을 반면, 때때로 전체를 내는 월세자가 전체사는 사람보다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88~89년중에도 마찬가지였다. 가구의 확장이 없을 수록 평균소득도 높은 소비성향도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일반적인 현상. 그러나 지난 88~89년은 처우전반에 퍼진 과소비 풍조의 영향으로 소비성향이 평균 증가율을 웃돌아, 특히 중류 이상 계층, 특히 고학력 사무직, 특히 고학력 사무직이 과소비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이 기간중 저소득층은 전년대와 사무직의 소비성향이 성장직과 판매직, 서비스직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承仁接기자 >



〈그림 : 박춘환기자〉

都市가구소비동향분석서 통계청

89년과 88년과 비교하면 평균 소비성향을 30% 이하로 낮추고, 전년도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8년과 89년 사이에는 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事務職 씬 씬이 헤 퍼 졌다

88-89년 證市·부동산경기 活況영향 35~39세, 50~54세층 소비성향 "으뜸"

전문·事務職 씬 씬이 헤 퍼 졌다. 88-89년 證市·부동산경기 活況영향 35~39세, 50~54세층 소비성향 "으뜸". 이는 전년도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35~39세, 50~54세층 소비성향이 전년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 중 월평균 가계지출은 96만 5천 2백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 1분기의 23.4%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했다.

한편 이 기간 중 월평균 가계지출은 96만 5천 2백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 1분기의 23.4%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했다.

합계 발표한 「도시근로자 가구」 가계소비동향」에 따르면 2분기 중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백 19만 4천 5백 원으로 전년 동기(1백 10만 6천 6백 원)에 비해 8.2% 증가했다.

이와 함께 35~39세, 50~54세층 소비성향이 전년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가진 40代가 消費 淸조 주도

내 집 가진 40代가 消費 淸조 주도. 이는 전년도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35~39세, 50~54세층 소비성향이 전년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 중 월평균 가계지출은 96만 5천 2백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 1분기의 23.4%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했다.

한편 이 기간 중 월평균 가계지출은 96만 5천 2백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 1분기의 23.4%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했다.

합계 발표한 「도시근로자 가구」 가계소비동향」에 따르면 2분기 중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백 19만 4천 5백 원으로 전년 동기(1백 10만 6천 6백 원)에 비해 8.2% 증가했다.

이와 함께 35~39세, 50~54세층 소비성향이 전년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大卒 전문·사무직- 교육비등 부담 원인 87-89년 過消費 30대 후반·50대 초반 으뜸

내 집 가진 40代가 消費 淸조 주도. 이는 전년도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35~39세, 50~54세층 소비성향이 전년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 중 월평균 가계지출은 96만 5천 2백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 1분기의 23.4%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했다.

한편 이 기간 중 월평균 가계지출은 96만 5천 2백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 1분기의 23.4%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했다.

합계 발표한 「도시근로자 가구」 가계소비동향」에 따르면 2분기 중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백 19만 4천 5백 원으로 전년 동기(1백 10만 6천 6백 원)에 비해 8.2% 증가했다.

이와 함께 35~39세, 50~54세층 소비성향이 전년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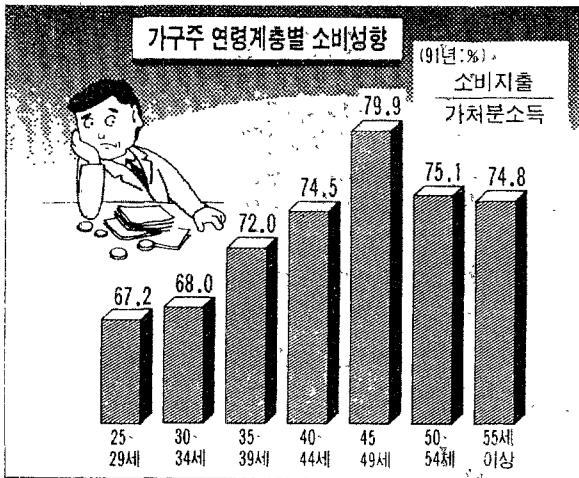
과소비풍조 주도

40대 이상 1인 가구 증가
다주택·신도시 집중

家長의 나이가 40대 이상이고 대졸이상, 고학력자이면서 자기 집을 소유한 전문·사무직 종사자(소위 화이트칼라 계층)가정이 최근 몇년간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과소비 풍조를 주도한 것으로 23일 통계청 분석결과 밝혀졌다.

통계청, 도시근로자 소비성향 분석

87~89년 투기·증권으로 번돈 86% 탕진
90년 거품해소되며 다시 "전전"



특히 이들 계층은 주소득 원인이 일임이 높은 상층 계층을 지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주소득이 하위 하 계층에 비해 90년 이후부터는 한계 소비성향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계 소비성향이 90년부터 크게 낮아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87~89년 부동산 투기와 증시 활황 등 우리 경제에 거품 현상이 만연했을 무렵 소비를 급격히 늘려 왔던 현상이다. 가처분 소득이 커지면서 90년부터 소

특수층에 걸맞은 정량 소비 패턴을 되찾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87~91년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성향 분석에 따르면 전체적인 평균 소비성향(가처분소득 가운데 소비지출액 비중)은 소득향상에 따라 대체로 낮아지는 추세다. 반면 새로 늘어난 소득을 얼마나 소비에 더 쓰느냐를 나타내는 한계 소비성향은 과소비풍조가 만연한 지난 89년부터 85.9%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는 62%로 폭 떨어졌다. 이는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 수입이 증대되었다고 해서 씀씀이를 그만큼 늘리는 식의 방만한 경제영양태에서 벗어나 종전보다 저축을 늘리는 등 건전한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가주주의 특성별 소비성향을 보면 91년 현재 家長나 이가 45~49세인 가정이 79.9%의 소비성향(평균 72.2%)을 기록, 자녀들이 성장한다. 특히 교육비 부담이 커져 지출이 많음을 반영했다. 소비성향이 낮았던 87년과 가장 높았던 89년을 비교할 경우 35~39세(가주주 소비성향)!

09배 증가)와 50~54세(1.07배 증가)에서 과소비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30대 초반의 경우 자녀가 어릴 때다. 부자정 저축을 늘리기보다 생활 자체를 즐기려는 풍조 탓으로, 50대 초반만 부동산 수익 등 자산보유가 많지 않게 출이기 때문에 각각 소비 수준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자기 집 소유층은 평균 소비성향이 77.7%로 가장 높았고 월세임대층이 72.1%, 전세임대층이 64.8%로 각각 조사됐다. 통계청은 월세 가구가 전 세 가구보다 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난 것은 소득 절대액이 적은 반면 매월 주거비 부담이 크고 신도시 입주 등 기본 지출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過소비自家소유·高學歷層 주도

통계청조사 88·89년 피크 : 50~54세 층 씹씹이 헤쳐

2分期근로자家計 소비진정률구 所得증가율 둔화

자기집을 소유한 대졸이 상고학력자일수록 소비성향이 높고, 또 과소비가 만연했던 88·89년층이 통계청의 소비성향의 상대적인 피크로 높아져 과소비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근로자 가구의 가구주 소득성향」에 따르면 지난 81년 이후 소득

증가율에 따라 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88·89년에는 과소비를 조율하는 단계로 소비성향이 각각 78.3%, 85.9%로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89년은 고졸의 인력상승으로 소득증가율이 81년 이후 가장 높은 24.5%로 상승했고 소비지출증가율

은 26.7%로 소득증가율을 상회했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40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가구원수가 많고 교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과소비를 조율만 했던 89년층엔 자녀연령이 낮은 35~39세 연령층과 교육비 부담이 적고 부동산 증권을 재산소유 비중인 50%

54세층의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을 보며 과소비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해 자가소유자의 평균 소비성향이 77.7%로 전세(64.8%)보충부월세(72.1%)보다 상대적으로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89년층 자가소유자들의 소비성향은 10%가량 높아진 반면 전세 또는 월세자의 경우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성향이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보면 고학력인수록 소비성향이 높아졌다.

특히 88·89년층 고졸이하의 소비성향은 크게 높아지지 않았으나 대졸이상은 한계 소비성향이 1백% 이상으로 높아지는 등 대졸이상 고학력층이 과소비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 2·4분기 중 도시근로자 가계는 소비진정률도 불구하고 소득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돼 생활형편이 더욱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 중 도시근로자 가계수지증향(통해 지난 4~6월 중 도시가계의 월평균소득은 1백29만4천5백원의로 전년 2·4분기보다 17% 증가에 그친 반면 소비지출은 86만3천2백원으로 18%가 늘어나 소득증가세를 앞질렀다고 밝혔다.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상회하기는 지난 90년 1·4분기 이후 2년여만에 처음이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단위: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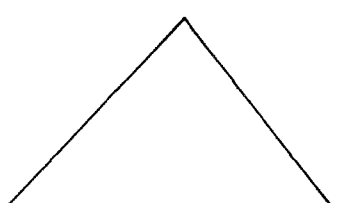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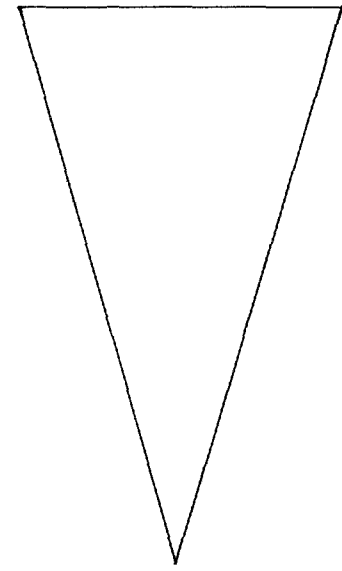
구분	91년 2/4분기		92년 2/4분기		증가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소비지출	731.7	100.0	863.2	100.0	18.0
식료품	233.6	31.9	260.9	30.2	11.7
주거	34.7	4.7	40.4	4.7	16.4
광열·수도	24.6	3.4	31.5	3.7	28.0
가구·가사용품	47.1	6.4	51.3	5.9	8.9
피복·신발	62.5	8.6	71.7	8.3	14.7
보건·의료	39.1	5.3	48.1	5.6	23.0
교육·교양	86.3	11.8	107.3	12.4	24.3
교통·통신	61.3	8.4	81.9	9.5	33.6
기타 소비지출	142.5	19.5	169.9	19.7	19.2

소비지출증가는 전년 동기 대비로 1.4분기의 22.9%에서 18%로 둔화됐으나 소득증가율은 같은 기간 중 23.4%에서 17%로 크게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가계소득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노동집약형 산업의 불황을 반영, 업종인력의 취업이 2.4분기 중 5.9% 감소해 가구원들의 근로소득증가율이 11.8%에 그친 때문으로 분석됐다.

2·4분기 중 소비지출을 비목별로 보면 자가용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교통통신비가 33.6%의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광열·수도 28%(교육·교양·의료비) 24.3%(보건·의료비) 23% 등도 크게 늘었다.

식료품비 지출은 26만9천9백원으로 11.7% 증가했으며 이중 주식비는 4.7



4/4분기 보도기사

(10월~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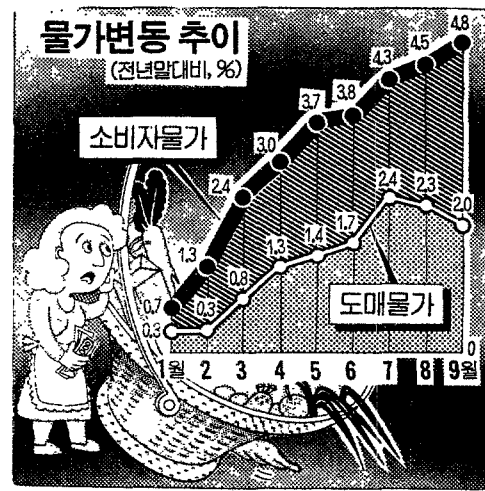
여 백

추석·태풍영향에도 불구하고

9 월物價 안정세 「소비자」0.3% 상승

추석·태풍 영향에도 불구하고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 상승했다.

경제기획원과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로 작년말 대비 0.3%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대비 0.2%포인트 낮아진 9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의 0.5%를 기록하며, 9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로 나타났다. 9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의 0.5%를 기록하며, 9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로 나타났다. 9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의 0.5%를 기록하며, 9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로 나타났다.



0.3% 상승했다. 또 지난 4월 이후 상승세를 보던 집값이 9월을 정점으로 하락양상을 띠면서 9월에는 0.3%포인트 낮아졌다. 한편 작년말 대비 물가가 많이 오른 도시는 광주(6.2%), 전주(6%), 부산(5.9%), 대전(5.0%), 대구(4.9%)나 타지역이다.

「秋夕물가」 4年來 가장 안정

9월 소비자물가 0.3% 상승에 그쳐

韓銀 발표

지난 9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로, 이는 9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다. 9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로, 이는 9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다. 9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로, 이는 9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로, 이는 9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다. 9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로, 이는 9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다. 9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로, 이는 9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다.

9월 物價도 안정

소비자 0.3% 상승
도매는 0.3% 내려

정부 연내 공공요금 추가 인상 안해

물가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30일 통계청과 韓銀이 발표한 9월중 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전월보다 0.3% 상승에 그치고 도매물가는 0.3% 하락했다. 이로써 올해 9월까지 소비자물가는 4.8%, 도매물가는 2%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같은 기간의 8.4%에 비해 크게 안정된 수준이다. 도매물가의 경우 8월에 0.2% 내린 데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했다. 물가가 이처럼 안정세를 보인 것은 추석과 대동(대드)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증진으로 상승 속력이 크게 둔화된 데 따른 것이다. 피부물가를 나타내는 신상품은 작년말보다 4.1% 올라 작년 같은 기간의 21.5%보다 크게 진정됐으며 1회 이상 자주 구입하는 품목도 같은 기간 중 15.5%에서 6.2%로 둔화했다. 9월 한달동안은 신상품이 3.2%(작년 9월 1%)/월 1회 이상 구입 품목 1.3%(0.3%)/20개

기본생활품 0.6%(0.3%)/월이던 다소 높은 영향을 보였다. 부동산은 농축·수산물이 전월보다 0.9% 올랐고 집세가 0.3% 상승과 개인서비스 요금이 각각 0.2% 상승했으며 공공요금도 연달아 상승세를 나타내 8월과 같은 수준이었다. 한편 경제기획원의 바스모를 통해 9월중 물가 추가인상 여지는 양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92.10. 1

서비스料 큰폭인 줄라

소비자物價는 0.3%로 안정유지

9 월 중

통계청·韓銀조사

정부의 총수요관리정책과 과소비 지정추세, 농산물가격의 호진 등으로 물가계속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과소비인공, 신장, 화원비등 개인서비스料의 상승이 물가안정세를 주도하고 있다. 9월중 통계청과 韓銀이 내놓은 물가동향에 따르면 9월중 소비자물가는 추석·대동「대드」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8월에 비해 0.3% 오른데 그쳐 작년말 대비 4.8% 상승을 나타냈다. 도매물가는 8월중 물가를 처음으로 0.2% 내린 데 이어 9월중에도 0.3% 하락, 작년말에 비해서는 2.0% 상승에 머물렀다. 그러나 물가안정세도 과소비(27.6%)·미용(18.1%)·개인서비스料(10.4%)·칼류수(12.5%) 등 개인서비스료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가운데 생활물가(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지수도 추석의 영향으로 다소 상승세를 보였는데 작년말 대비

신상품은 4.1%▲월 1회 이상 구입 품목 6.2%▲20개 기본생활품은 5.3%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기업 設備 투자 부진

國內 기계受注 30% 감소

작년比 內需 진정으로 産業生産 저조

통계청, 8월중 産業동향 발표

수출이 회복되고 내수가 제의 구조조정 이후 계속 진
진정되면서 물가와 금리가 행되는 가운데 유동 기업
압정된 모습을 보이는 경 의 투자활동이 점차 이상
고요화되면서 내수기계가

이론 부진함을 면치 못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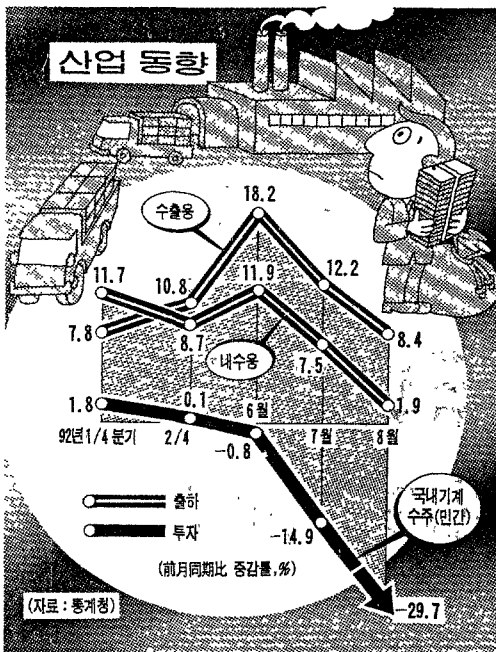
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는 내수 증 策을 추진
주제로 경제정책회의를 열

解説

지산 8월 8월 신로 이끄는 경제현상이
은 경상수지 지만 따지고 보면 다양한
적자가 23개 결과다. 내수로 뒷받침된
은 상대적인 하락세를 면
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활동이 1년
월만에 흑자로 돌아선 달 4월을 제외하면
이기도 하고, 그만큼 하면 된 적정성장으로 바꾸어가
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제조업 가동률 크게 하락

산업생산활동이 부진해 제 자는 것이 그간의 극심해
중요의 가동률이 지난 89 월이었고, 이제 70% 선
7월 이후 40개월만에 과가 나타나는데 가운데 수
70%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鄭鐵根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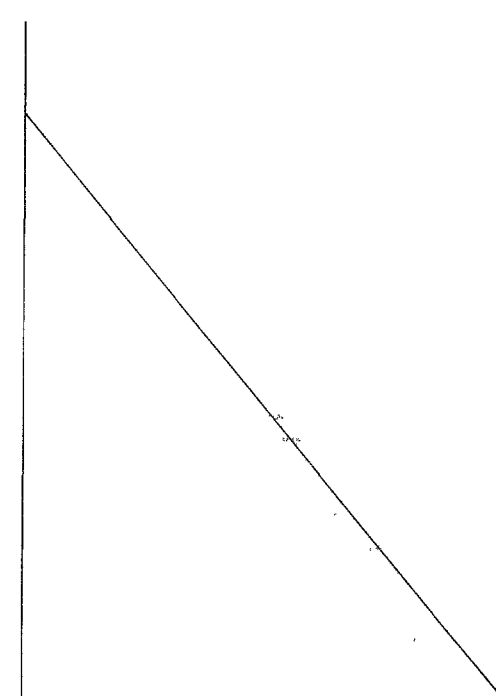


<그림: 박춘환기자>

8월중 産業生産(1년전
에 비해 1.9% 증가)는
나올 때 그쳤고, 이에 따라
제조업의 평년 가동률은
74.4%로 지난 89년 5
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처럼 産業生産이 비교적
적활할지 못했던 것은 주
로 내수가 진정되고 있기
때문으로, 8월중 내수용
수출은 1년전比 1.9%
늘어나는데, 그중이다 수출
증가율은 8.4%의 비
교적인 폭으로 늘어나 두
의수지 흑자를 뒷받침했
다.

한편 産業設備의 8월중
1년전比 0.3%로
인해 부진했다. 여타의
2.3%에 달하는 수출의
머물렀고, 도수때 함께
1년전比 3.2% 늘
어났으나,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3.4% 감소해, 여
시 내수가 진정되고 있을
을 나타냈다. 이같은 산
업을 반영하여 8월
중 경기연동 同行지수는
합달전과 비해 0.5%
감소하고 동행지수 수확면
동치도 1.2% 감소했
다. 2,3개월 후의 경기
동향을 예고해주는 先行지
수는 0.7% 상승해, 일
들어 지난 5월 단 한차례
의 마이너스를 제외하고는
매달 계속 경기 상승세를
예고해오고 있다.



「8월 산업활동동향」과 전문가 진단

生産·소비·投資 동반 침체

국내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8월의 산업활동지수를 보면 99.3으로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가 언제쯤 회복될지 전문가들은 불확실하다. 8월의 산업활동지수는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8월의 산업활동지수는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8월의 산업활동지수가 99.3으로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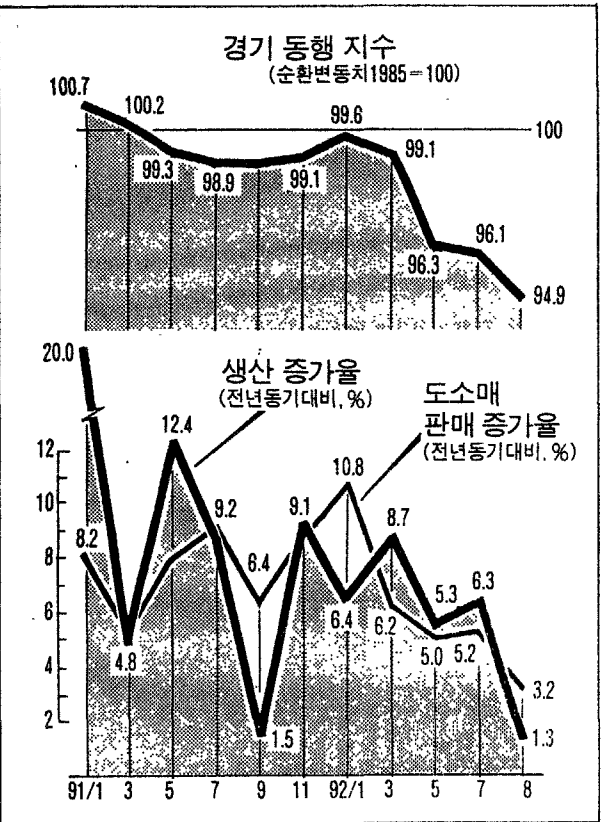
8월의 산업활동지수는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8월의 산업활동지수가 99.3으로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8월의 산업활동지수는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8월의 산업활동지수가 99.3으로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8월의 산업활동지수는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8월의 산업활동지수가 99.3으로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8월의 산업활동지수는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8월의 산업활동지수가 99.3으로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8월의 산업활동지수는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8월의 산업활동지수가 99.3으로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각종指標바다 景氣논쟁앞서

후 6개월의 경제 전망이 가장 밝은 증가율이다. 이반영 기업활동지수가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더 하락의 경향을 보일 전망이다. 8월의 산업활동지수는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8월의 산업활동지수가 99.3으로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8월의 산업활동지수가 99.3으로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8월의 산업활동지수가 99.3으로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8월의 산업활동지수가 99.3으로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8월의 산업활동지수가 99.3으로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8월의 산업활동지수가 99.3으로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분명
이름표』이다며 『최근 몇몇
지역을 비롯해서 가장 중요
한 지역까지 대체했다.

지역에서 도입했다. 더불어
경기부상형 타력 재건축가
가운데서도 중요한 시사
했다가 증가하고 그구 발
고 있다.

수미자들의 구조조정 역시
관측이 진행되고 있다. 수미
자들의 출점이 줄어가는
상, 비록 수미자들이 매년 수
미전과 마찬가지로 전자
제품에서 100%의 비중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특히 8.0월 들어 수출이
주목히 회복되고 있는 것도
향후 경기를 밝게 하는 요인
이라 전망하고 있다며 경제
기획위원회가 밝혔다.

경기상업은행은 전경향에
서 발표한 경기실사지수(B
S-1)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
다. 상업은행은 발표한 4

4분기 B-1이 1백69.1
며 전년동의 10%의 B-1
는 1백11을 기록, 향후 경
기가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
으로 전망하고, 기말이 많
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은행과 부업 등과

지향했다며 『아직까지 산업
들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점
은 기획위의 구조조정요
방안 제출을 저울질 중인
고 있다고 밝혔다.

8월의 산업은행은 2.3%
로 전년 동기대비 비핵자
는 0.3%포인트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전경향 집계
이런가운데 경제위원회
다 통계청의 한림대학교
후 경기 지름이다. 다수
가지졌지만 산업은행의 5
%이상 증가하기가 힘들 것
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은행과 은행은 경기

향후 전망도 불투명 경쟁력提高 힘쓸때

대기업들이서서 VTR 세
달기 등 전자제품과 디지털
음자의 소비가 줄어들기 시
작했다고 것이다.

물론 현재의 경기 상황이
단 몇달만이라도 치해 있다고
해서 오히려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이란 단정할 수
가 없다.

한국은행은 『8월의 산
업은행은 1.3% 증가, 그
전 전기 북수입이 1.1%인
데 불구하고 『전자 및 기
술제품 판매의 위약과 유
수입이 10% 이상 뛰었다. 전
체 유동 자산과 부채에 대해
기판이 0.1% 늘었다.

전국 전기의 경우 1.4%인
데도 불구하고 북수지가 개
선되며, 특히 1.2%인 1.1%
전국에 대한 수출이 1.1%
1.1%인 1.1%인 1.1%
1.1%인 1.1%인 1.1%

불투명한 경기 상황
침체나 회복 여부가
것이란 전과나 전지향의
향이다.

한국은행은 『기획위의 재
조정 방안 재고가 줄어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적인 수출과 북수입
했다. 8월의 재고(1.1%)

17.3%이다. 8월의
15.2%인 1.1%인 1.1%
여과다. 한국은행은 아직
아직까지 1.1%인 1.1%
이므로 계속될 것으로
고다.

한국은행은 『8월의 산
업은행은 1.1%인 1.1%
1.1%인 1.1%인 1.1%
1.1%인 1.1%인 1.1%

8월의 산업을 북수출
여과다. 기획위의
이므로 전과나 전지향의
향이다.

한국은행은 『8월의 산
업은행은 1.1%인 1.1%
1.1%인 1.1%인 1.1%
1.1%인 1.1%인 1.1%

<孫顯德기자>

不況심화... 관련指標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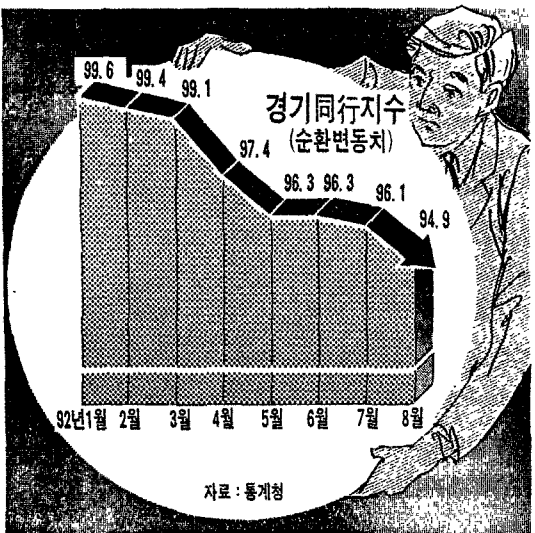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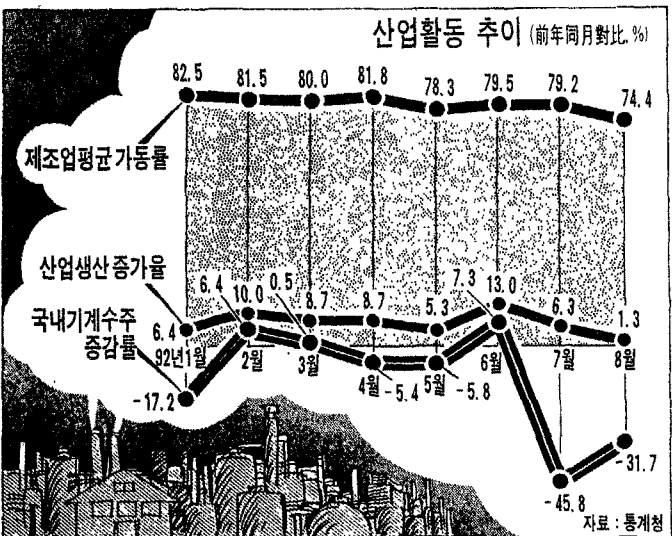
8월 「産業활동動向」 파악

7월 8월의 산업활동지수(前年同月對比, %)는 79.2로 7월 79.5에 비해 0.3%p 하락했다. 8월 74.4로 7월 79.2에 비해 5.8%p 하락했다. 8월 74.4는 1992년 1월 82.5에 비해 7.1%p 하락했다. 8월 74.4는 1992년 1월 82.5에 비해 7.1%p 하락했다. 8월 74.4는 1992년 1월 82.5에 비해 7.1%p 하락했다.

제조업평균가동률(前年同月對比, %)은 7월 79.5에 비해 79.2로 0.3%p 하락했다. 8월 74.4로 7월 79.2에 비해 5.8%p 하락했다. 8월 74.4는 1992년 1월 82.5에 비해 7.1%p 하락했다. 8월 74.4는 1992년 1월 82.5에 비해 7.1%p 하락했다.

산업생산증가율(前年同月對比, %)은 7월 7.3%에 비해 6.3%로 1.0%p 하락했다. 8월 1.3%로 7월 6.3%에 비해 5.0%p 하락했다. 8월 1.3%는 1992년 1월 6.4%에 비해 5.1%p 하락했다. 8월 1.3%는 1992년 1월 6.4%에 비해 5.1%p 하락했다.

경기동행지수(前年同月對比, %)은 7월 96.3에 비해 96.1로 0.2%p 하락했다. 8월 94.9로 7월 96.1에 비해 1.2%p 하락했다. 8월 94.9는 1992년 1월 99.6에 비해 4.7%p 하락했다. 8월 94.9는 1992년 1월 99.6에 비해 4.7%p 하락했다.



제조업평균가동률(前年同月對比, %)은 7월 79.5에 비해 79.2로 0.3%p 하락했다. 8월 74.4로 7월 79.2에 비해 5.8%p 하락했다. 8월 74.4는 1992년 1월 82.5에 비해 7.1%p 하락했다. 8월 74.4는 1992년 1월 82.5에 비해 7.1%p 하락했다.

정부선 「構造조정」 판단 대책 處方도 구구각각... 업계 무방

社 說

製造業을 더욱 부추겨야 한다

통계청의 발표한 최근의 산업활동지수(중공업 제외)가 1년 전보다 1.3% 증가한데 그치고 제조업의 활동지수가 7월보다 4.8%포인트 낮아 74.4%로 나타났다.

8월의 산업생산 증가율이 9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것이며 제조업 활동을 보시 40개월래 최저수준이다. 출하증가율도 7월의 8.5%에서 8월에는 3.2%로 둔화되고 다만 재고수준은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활동지수 관련된 거의 모든 지표가 경기의 둔화를 나타내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의 물가와 국제수지 등巨視的인 경제지표들이 개선내지는 好轉을 보이고 있고 때를 같이해서 大韓商議를 경제단체나 산업이행위원회를 열까지의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경기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침울'이라 할 수밖의 없다.

정부는 아직도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진단, 경기 대책의 불발요인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업측은 국내경기가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경제가 회복되기 어렵단 단제로까지 가지 않았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경기의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어렵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명백히 해를 두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는 구조조정의 한계다. 경기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구조조정이든바 저물제의 과정이고 어느 단계부터가 불황인가 하는 점이다.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이라든가 이점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경기수정의 계속될 것이며 잘못된 판단이론 이해 경제정책을 수립할 공산마저 없지 않기에 따른다. 두 번째는 아무런 구조조정의 과정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같은 산업

동향의 예측된 것이냐 아니면 예측의 선을 넘은 것이냐의 판단이다.

상반기중 GNP 관련통계결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관련경제부처가 의의 판단을 인정을 했다기 보다는 있었다. 우리의 상황의 어떠한 전개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정책목표상의 도출이나 예측이 불충분한 결과라면 현 상황은 우려하지 않아도 좋다고 본다. 그러나 8월의 산업활동지수의 예측면수 밖에서 나인 결과라면 문제는 전연 달라진다.

같은 통계치의 결과라든가 예측의 범주에 있었다면 경제전반이 정책목표의 틀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므로 별도의 대응책은 필요치 않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하다면 조어도 예측이 빚나간 만큼의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의 대응책은 8월의 산업활동지수 관련통계와 병행하여 자료를 제시한다고 보겠다. 재고수준의 다소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가동률을

충진시켜 재고를 조절하고 있다면 해석이 많다. 또 최근 무역회계의 실적과리가 내림가고 자금사정의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현재의 경기나 양이론 상황을 여하히 판단하고 있는 간에 기점으로서는 정부의 대한 불확실성의 증대로 실부자를 꺼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구조조정이든 전연하든 관련정책의 추진이든 조건의 대의 체질 변화가 아니라서 못하든 조도 문제이지만 정책의 노후를 지나치게 강조하든 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경기의 대한 전면적인 부분조각 판단, 정확한 예측이 오히려 조도 절실하다.

社說

침체景氣突破力에 없다

산업활동과 관련된 기간중 지표가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충분치 않다. ...

정파내부 제수지정자간선의 불협화음적인 ...

최근의 산업활동지수 일부 지표가 회복 ...

제조업의 회복지표를 보면 8월의 산업활동지수 ...

같은 품목가격을 상승한다. ...

5월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이 ...

社說

「安定」에 가리어진 심각한 經濟침체

국내경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아무래도 단순한 沈滯국면을 넘어 不況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것 같다. 정부는 계속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8월중 산업활동동향」은 그런 심증을 굳혀준다.

발표에서 드러난 내용들은 한결같이 전형적인 불황징후를 완연하게 가리키고 있다. 소비가 줄고 생산이 위축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조업가동률과 투자가 갈수록 저하되고 있고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선 지난 8월의 전년同月대비 산업생산증가율 1.3%는 6월과 7월 증가율의 10분의1과 5분의1 수준이며 91년2월(1.2%)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음은 74.4%로 집계된 제조업가동률로서 한달전보다 4.8%포인트나 더 낮아졌을뿐 아니라 89년4월(73.2%)이후 40개월만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제조업설비의 4분의1 이상이 쉬고 있는 셈인데 그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물건이 안 팔리고 재고가 쌓이는등 불황탓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내수용 출하가 전반적으로 크게 둔화된 가운데 특히 내수 소비재출하는 3.4%가 감소되고 재고증가율은 지난달(17.3%)에 이어 여전히 높은 수준(15.2%)을 기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8월의 景氣實狀을 가장 단적으로 전해주는 지표인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4.9로 곤두박질했는데 이것은 72년3월(94.4)이후 무려 20여년만의 최저수준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걱정되는 사태는 역시 投資위축 현상이다. 기업의 투자심리가 갈수록 더 냉각되고 있음을 8월중 동향은 확인시켜준다. 지난 7월중 전년대비 각각 2.2%와 40.9% 감소했던 국산기계제작주문과 기계류 수입허가가 8월중에는 다시 각각 29.7%와 59%나 감소되어 투자위축현상이 실로 심각한 국면에 와있음을 말해준다.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로는 높은 금리부담등 여러가지를 꼽아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최근의 어려운 경제동향과 함께 장래에 대한 질은 不確實性 때문이다. 3개월이후의 경기를 예고하는 先行지수가 8월중에 0.7% 올랐다고 하나 同行지수가 크게 감소되고 大選이라는 커다란 정치경제 사회적 變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물론 안정은 중요하다. 계속 추구해야 할 정책과제이다. 그러나 안정과 불황은 다르다. 최근의 경기내용과 흐름을 좀더 분명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더 늦기 전에 제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할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61년 82달러

91년 6,498달러

1인당 국민소득

단적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소득은 61년 82달러에서 91년 6,498달러로 79.2% 증가했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이 1961년 82달러에서 1991년 6,498달러로 79.2%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이 1961년 82달러에서 1991년 6,498달러로 79.2%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65, 91년 중 소비자가 늘어난 16배가 늘었다. 지난 65년부터 91년까지 국민총생산(GNP)은 1,100조 원에서 6조 4천 980억 원으로 5.8배 증가했다. 이는 국민총생산이 1,100조 원에서 6조 4천 980억 원으로 5.8배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統計로 본 韓國의 발전」 統計廳 崔氏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NP)은 지난 65년 1,100조 원에서 91년 6조 4천 980억 원으로 5.8배 증가했다. 이는 국민총생산이 1,100조 원에서 6조 4천 980억 원으로 5.8배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국민생활관련 통계

항목	단위	71	81	91년
총인구	명	32,883	38,723	43,268
도시인구	명	4,210	8,195	8,981
시간	시간	52.0	53.7	49.3
국민총생산	천원	289	1,734	6,498
국민총생산	천원	1,868	22,054	91,023
국민총생산	천원	29.7	439.9	2,276.7
국민총생산	천원	2,628.0	9,835.4	21,110.6
국민총생산	천원	270	915	2,412
국민총생산	천원	655	1,245	1,597
국민총생산	천원	3,199	12,121	3,091
국민총생산	천원	16,207	23,742	45,496
국민총생산	천원	5,990	6,961	12,240
국민총생산	천원	77.8	73.7	74.2
국민총생산	천원	173	264	372
국민총생산	천원	17.7	29.2	60.4
국민총생산	천원	1.0	5.0	58.7
국민총생산	천원	77	436	1,889
국민총생산	천원	3,420	5,804	13,429
국민총생산	천원	52,976	115,289	331,610
국민총생산	천원	512	2,958	8,421
국민총생산	천원	56.0	45.5	34.4
국민총생산	천원	61.3	49.8	40.6

外債 1인3달러서 9百달러로 3百배늘어
 物價 16배올라 萬원가치 6百22원이되폭락
 2千5百萬人구 30년새 4千3百萬명으로
 대학취학률 5.4배 농가소득은 36배증가

76년 6천 명에서 67.9%가 늘었다. 인구 증가율은 이 기간 중 3.01%에서 0.92%로 감소했다. 평균수명은 66년 67세 59.7세, 여자는 64.1세에서 90년 72.4세, 75.4세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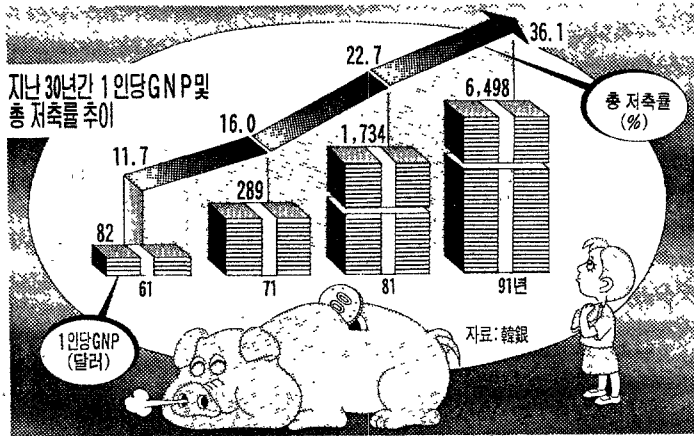
저축잔액과 미결제 외채는 91년 11.7%에서 91년 38.1%로 높아졌고 1인당 저축잔액도 1971년 1천 원에서 2백 27만 원으로 227배 증가했다.

인구수준은 30년 전 3천 66명에서 91년 9백 55명으로 줄어 그 만큼의 토해비를 가까이 하게 되고 1인당 하위부류는 100만 30년 전 13.2%에서 64.7%로 4.1배, 피상층은 18.1%에서 79.5%로 4.4배 늘었다.

국민총생산은 1971년 289천 원에서 1981년 22,054천 원으로 76.3% 증가했다. 이는 국민총생산이 289천 원에서 22,054천 원으로 76.3%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총생산은 1971년 289천 원에서 1991년 91,023천 원으로 315% 증가했다. 이는 국민총생산이 289천 원에서 91,023천 원으로 315%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洪權權〉



1인당소득 79배 증가

30년새

통계로 본 국민생활 발자취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소득은 작년 현재 6천4백98달러로 61년 82달러에 비해 79배 늘어났다.

통계청은 6일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변화와 정을 들여다보고 국민들

은 4천3백26만8천명으로 30년전에 비해 67.9% 늘어났다.

인구정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인구증가는 30년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0.1%

난 것을 비롯해 총저축률은 11.7%에서 36.1%로 증가했다.

수출증대정책과 국제화영향으로 수출의 대GNP 비율은 30년전에 20.3%에 불과했으나 81년에는 84.9%까지 높아졌고 이후 내수확대의 영향으로 점차 낮아져 91년 현재 63.1%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 68% 늘어 주택보급·치안 후퇴

지난해 萬원은 65년의 6백원 가치

높으며 상수도·전화·자기용수 등 복지·환경상황이 과거보다 크게 나아졌다. 그러나 물가는 65년 6백원대의 것의 살 수 있던 것이 이제 6만 원대의 것이어야 하는 1만 원대의 것이어야 하는 맥도날드를 구입하여 주 뒷길에 걸린 것이라 나

의 통계이용을 확산시킨 다는 취지에서 총 2백4개분야에 이르는 각종 사회경제지표를 다룬 「통계로 본 한국의 발전」이란 자료를 펴냈다.

◇인구

91년 우리나라의 인구에 비해 1백34배 늘어

9%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남·여별 인구 밀도는 66년엔 각각 59·7세, 64·1세였으나 90년에는 67·4세, 75·4세로 높아졌다.

◇국민경제

국민총생산이 30년전에 비해 1백34배 늘어

◇산업

전산업평균 총화확률업을 위주로 한 제조업 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 20년전의 비해 총생산은 48배, 전자공업생산은 2백40배, 자동차생산량은 2백가 각각 늘어났으며 시멘트

생산업은 30년전보다 7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환경

30년전에 비해의사 1인당 인구가 3.2배 가량 감소하고 상수도 보급률은 17.3%에서 81.2%로, 국민 1인당 전

서 40·9대로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복지수준이 높아졌다.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0년전 하루 3·2명에서 91년엔 36·8명으로, 강력범죄는 20년전보다 61%가량 늘어나는 등 산업화로 인한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鄭鐵根 기자)

◇연도별 국민생활 각부문 변천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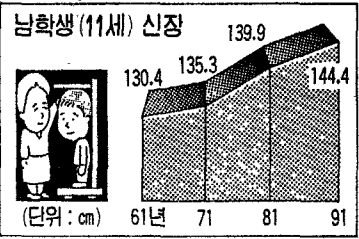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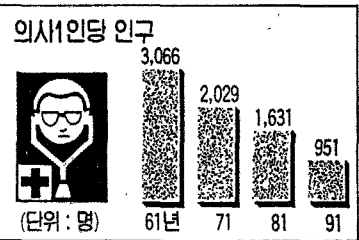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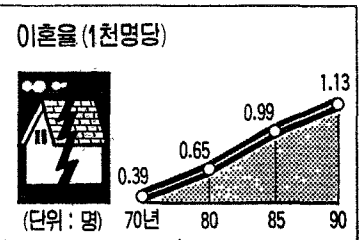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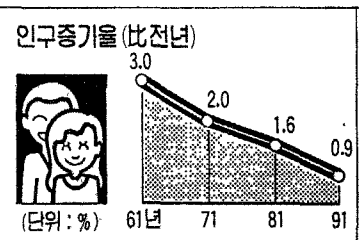
항목	단위	71년	81년	91년
총인구	명	32,883	38,723	43,268
인당 GNP	달러	289	1,734	6,498
인당 저축액	달러	1,868	22,054	91,023
인당 생활비	달러	29.7	439.92	2,276.7
인당 전도	명	2,628	9,835.4	21,110.6
인당 주택보급률	%	270	915	2,412
인당 자동차보급률	대	655	1,245	1,597
인당 의료보급률	명	16,207	23,742	45,496
인당 교육보급률	명	5,990	6,961	12,240
인당 문화보급률	명	77.8	73.7	74.2
인당 주택보급률	%	173	264	372
인당 교육보급률	%	-17.7	29.2	60.4
인당 문화보급률	%	1.0	5.0	58.7
인당 주택보급률	명	77	436	1,889
인당 교육보급률	명	3,420	5,804	13,429
인당 문화보급률	명	512	2,958	8,421
인당 주택보급률	명	56.0	45.5	34.4

1인 GNP 79배 증가

통계로 본 한국 30年

승용차 보유대수 5백87배 이혼율·교통사고등 급증부

한국은 지난 30년간 (61~91년) 1인당 GNP가 80배 가까이 높고 승용차 보유대수도 1천명당 0.1대에서 58.7대로 증가했다. 또 경제발전 전에 따라 취업자수가 늘고 취업구조도 제조업 중심으로 탈바꿈했으며, 전반적인 사회복지 수준도 크게 향상됐다. 그러나 사회 발전과 함께 각종 범죄와 교통사고가 늘고, 이혼율이 급증추세에 있으며 제조업 이직률이 높아지고, 외채규모가 늘어나는 등 명암이 엇갈렸다.



경제발전 5월 발전한 [물가]도 본 한파의 발자취란 제국의 책자를 통해 지난 30년간 한국의 탈바진 모습들 각종 사회지표 등 통계를 통해 다각도로 조명했다.

인구증가율 0.9%

인구증가율은 해마다 낮아져서 61년 3%에서 91년 2%, 81년 1.6%, 91년에는 0.9%에 그쳤다. 단, 61년 3.0%, 66년 2.9%, 71년 2.0%, 76년 1.7%, 81년 1.6%, 86년 1.4%, 91년 0.9%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제조업이직률이 취업자를 앞지르거나, 특히 최근 5년간

구는 25년전의 비해 2배 가까이 늘고, 취업자수도 2.2배 증가한 반면, 실업률은 66년 7.1%(68만명)에서 2.3%(44만명)로 낮아졌다.

한정수준도 크게 변해, 66년 당시 농업·농림·수산업은 전체의 57.8%에 달했으나, 91년 현재 16.7%로 크게 낮아진 반면, 광공업은 10.8%에서 26.9%로,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종에서는 31.4%에서 56.4%로 각각 높아졌다. 이와 함께 제조업이직률이 취업자를 앞지르거나, 특히 최근 5년간

나타내듯 급속한 사회발전 91년 현재 1백37만달러로 30년전의 비해 66배 높아졌다.

1인당외채 9백4弗

이와 함께 국민1인당 외채규모는 61년 3달러에서 9백4달러로 불어났으며,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액도 1천1백원에서 90년에는 76만7천2백원으로 늘었다.

국민1인당 주부소비량은 83년 55.0에서 91년 65.0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71년 75에서 1백14가, 80년 1백44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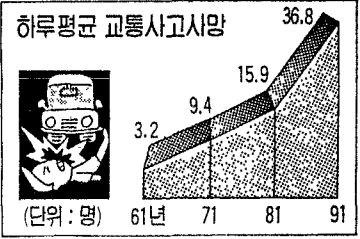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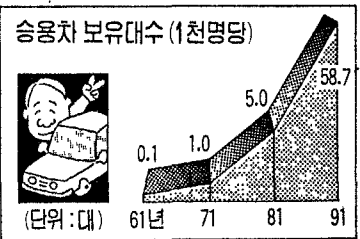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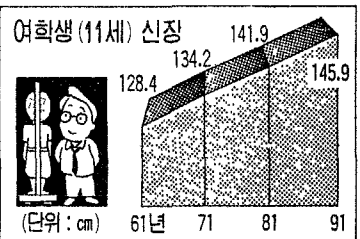
주요사망원인(90년 기준)은 노년자의 질병, 노년질환, 환, 교통사고, 만성질환 및 심장질환, 위암, 고혈압, 심질환, 간암 등이었으며, 여자간암, 만성질환, 고혈압, 위암, 뇌졸중, 교통사고 순으로 조사됐다.

소기업은 3분의1로

고용 15세 이상인 경제활동인구인

은 구직자수보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구직자수가 오히려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생활 30년 전 국민생활은 불과 하던 국민생활은 91년 현재 2천8백89달러로 1백34배 늘었으며, 이에 따라 1인당 GNP도 82달러에서 6천4백98달러로 79배 증가했다. 저소득층의 비율



의사1인당 인구는 1인당 인구의 1/3 수준으로

30년전 3천66명에서 91년 현재 9백51명으로 3.2배가량 감소했으며, 1개 병상당 인구수도 2천5백 14명에서 4백4명으로 6.2배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년전만 해도 홍역과 백일해 등 전염병의 확산을 우려했으나, 의료 보건환경이 크게 좋아졌다.

경총 작용

의 환경이므로 현재가 당시의 1.5~1.5%수준으로 평가됐고, 소아마비환자의 경우 지난 81년 이후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었다. 보건지표의 하나인 학생 신장 및 체중 증가 추이를 보면, 62년 당시 11세 국민학교 6학년) 남학생 신장은 1백30.4cm, 여학생은 1백28.4cm였으나, 91년 현재 1백44.4cm, 1백45.9cm를 기록, 남녀 각각 14.0cm, 17.5cm 커졌다. 체중 역시 11세아동은 27kg에서 37.6kg, 여학생은 27.0kg에서 38.3kg으로

의사1인당 인구 3,066명서 951명으로 男女 국민학생 신장도 14~17cm 커져

로 늘었다.

인구 1천명당 자동차보유대수는 승차증기준으로 62년 1.2대에서 91년 현재 98.2대승용차만으로 늘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하루평균 3.2명, 인구10만명당 4.5명수준이었으나, 91년 하루평균 36.8명, 인구10만명당 31.0명으로 급증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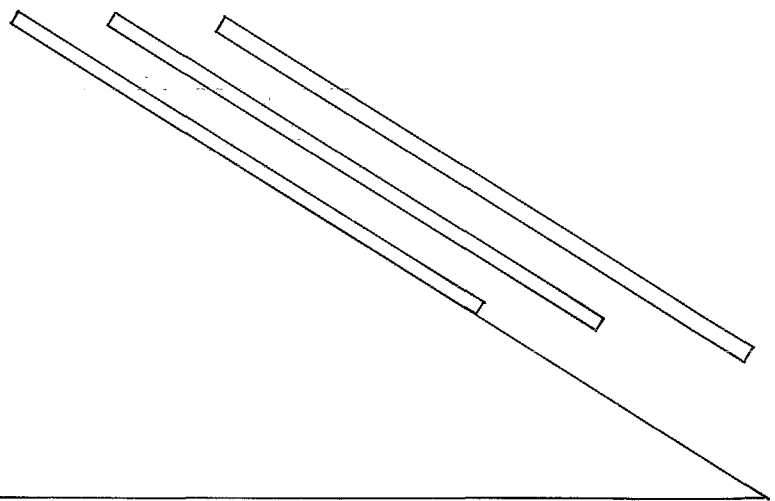
강법범죄 해마다 증가

범죄는 점차 줄어들고 추세이나,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학교 교육문화

국민학교 학생 수는 30년전 62.9명에서 현재 40.6명으로 줄어들이며, 교사 1인당 학생수도 61.2명에서 34.4명으로 줄어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전국의 급장수는 30년전 3백2개소에서 7백62개소로 2.5배 늘어났으나 1인당 연간 관람회수는 2.3회에서 1.2회로 오히려 2배 정도 줄었다. 이밖에 인구 1천명당 유아교육기관 변화가 없었던 반면, 이종종교 70년의 0.38명에서 1.13명으로 높아졌다.

〈承仁培기자〉



1인 GNP 30년새 79배 늘고 1만원 화폐가치는 622원으로

통계청 발표 「한국의 발자취」

4인당 국민소득 1인당 국민총생산(GNP)의 61년 82%였던 62년은 6천4백98원이며 79배가 늘어났고 수출입의 4천1백만달러에서 7백18억7천만달러로 1천7백57배가 늘었다. 또 1인당 국민총생산은 59.7세와 64.1세에서 67.4세와 75.4세로 높아졌다. 그동안 1만원의 화폐가치가 6백22원으로 평가되고 인플레이션과 물가·교환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5인당 국민총생산 1백50억 원으로 2천8백80억 원으로 23배 늘었다. 30년 전 30원인 국민총생산은 9백43억 원으로 31배 늘었다. 1인당 국민총생산은 6천4백98원으로 622배 늘었다.

79년 1인당 국민총생산은 622배 늘었다. 62년 1만 원이었던 화폐가치는 622원으로 평가되고 인플레이션과 물가·교환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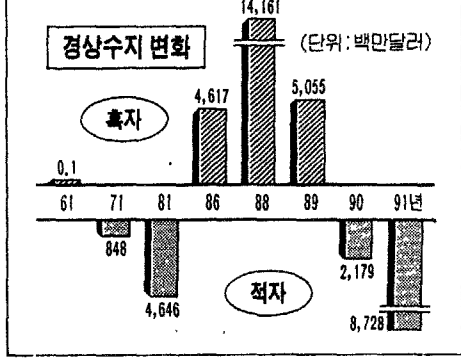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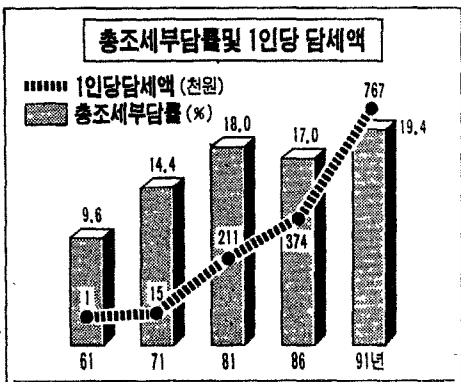
79년 1인당 국민총생산은 622배 늘었다. 62년 1만 원이었던 화폐가치는 622원으로 평가되고 인플레이션과 물가·교환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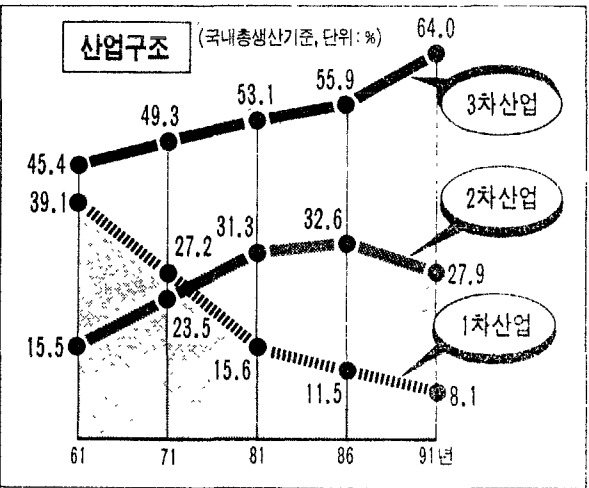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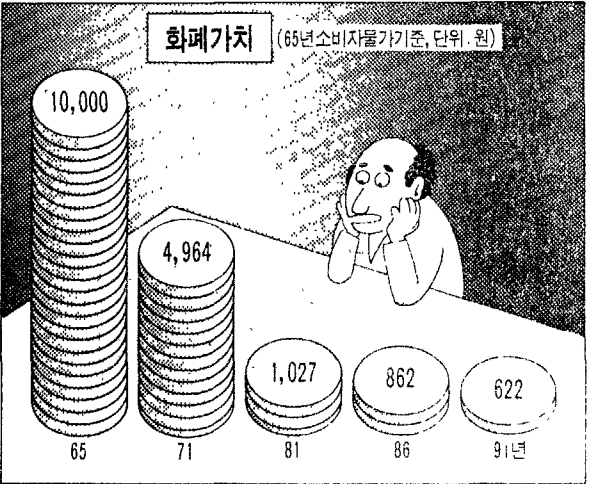
중산자가 91년 현재 16.7%로 크게 줄었다. 반면 광업·채굴업이 10.8%에서 26.9%로,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중산자는 31.4%에서 56.4%로 늘었다. 부동산업과 서비스업은 5시간 전 산업의 경우 54.7시간이었다. 지난해의 전 산업은 47.9시간, 제조업 48.8시간으로 줄었다.

79년 현재 1인당 국민총생산은 622배 늘었다. 62년 1만 원이었던 화폐가치는 622원으로 평가되고 인플레이션과 물가·교환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79년 1인당 국민총생산은 622배 늘었다. 62년 1만 원이었던 화폐가치는 622원으로 평가되고 인플레이션과 물가·교환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총생산 1백34배로... 이항열·김진·극복... 주변기반시설...





1인純외채 2백76弗 사고발생율을 금중추세 電話모니터링 80배로

사회관련지표들은 현저히 개선됐다. 62년 82.4%에서 91년 74.2%로 떨어졌고 전화모니터링도 전화모니터링이 80배로 늘었다. 또한 규제완화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지표 (△은 적자)

구분	61년	71년	81년	86년	91년
총인구(천명)	25,766	32,883	38,723	41,184	43,268
1인당GNP (달러)	82	289	1,734	2,505	6,498
경상수지 (백만달러)	0.1	△ 847.5	△ 6,446.0	4,617.0	8,727.7
총외채 (백만달러)		2,245	32,433	44,510	39,135
무역의존도 (%)	21.2	42.6	84.9	76.9	63.1
1인당세금 (천원)	1.1	15.0	211.0	374.3	767.2
화폐가치(65년 1만원기준)		4,964	1,027	862	622
농가민구비율 (%)	56.3	44.7	25.8	19.9	14.0
52이이상 제조업체수	15,928	23,412	33,431	50,063	68,872
발전능력(kw)	367	2,628	9,835	18,060	21,111
고속도로 (천km)		655	1,245	1,415	1,597
전화가입자 (인구백명당)	0.4	1.7	8.4	18.3	33.7

라 내국인 출자수가 1만 4천 명에서 4만 4천 4백 36명으로 30년간 4배 36.6배 증가했다. 특히 89년 2만 2천 87백 명을 넘어섰다.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수는 61년 1억 3천 320만 원에서 91년 36.8억 310만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인건비 상승률도 평균 20.5%에서 61%로 10년간 3배 26.5% 상승했다. 4%의 인건비 상승률도 51%로 10년간 5배 12.5% 상승했다. 특히 89년 1만 1천 300만 원에서 3만 240만 원으로 3배 24% 상승했다. 【종합】

통계청 발간 '통계로 본 한국의 발전취'

통계청은 5일 '통계로 본 한국의 발전취'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의 인구, 고용, 산업, 교육, 기술 등 통계로 잡히는 경제·사회 전반을 연도별로 분석해놓고 있다. 주요 부분을 요약해 소개한다.

인구 억제정책으로 출생률이 3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낮아지면서 인구증가율도 61년의 30%에서 지난해는 0.9%로 떨어졌다. 그러나 절대인구는 같은기간 동안 67.9%나 증가해 지난해 7월1일 현재 4천3백27만명에 이르고 있다.

연령별 인구구성도 크게 달라졌다. 0~14살의 유년인구는 30년전 총인구의 42.9%에서 91년에는 25.3%로 낮아졌다. 반면 15~64살의 경제활동인구는 54.2%에서 69.6%로, 65살 이상의 노령인구는 2.9%에서 5.1%로 높아져 인구고령화 추세가 뚜렷해졌다. 경제활동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인구비중인 총부양비(0~14살 및 65살 이상 인구 비중)도 84.7%에서 43.7%로 낮아졌다.

으나 91년에는 84.9로 나타나 사무직·생산직간 임금격차는 많이 개선됐다. 그러나 행정 관리직 및 전문기술직과의 생산직의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고졸학력자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대졸자는 20년전 175에서 76~86년에는 222~230까지 확대된 뒤 91년에는 179로 좁혀졌다. 남·여간 임금격차는 76년 100 대 44에서 91년에는 100 대 54로 좁혀졌으나 아직까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계정·금융·재정·대외거래 30년전 21억달러에 불과했던 국민총생산은 91년 2천8백8억달러로 1백34배 늘었고 1인당 국민총생산도 82달러에서 6천4백98달러로 79배 증가했다.

30년전 11.7%에 그쳤던 총저축률은 지난해 36.1%로 높아졌고, 총투자율 역시 12.0%에서 39.3%로 늘었다.

대의지불능력을 나타내는 금·외환보유고는 91년 1백37억달러로 61년보다 66배 늘었고 국민 1인당 부담능력도 48달러에서 3백17달러40센트로 40배 가까이 증가했다.

만7천2백원으로 늘어났다. 산업 농가인구비율은 61년 총인구의 56.3%였으나 91년에는 14.0%로 크게 낮아졌다. 농촌인구 가운데 50살 이상 인구비율은 71년 16.3%에서 지난해는 39.1%로 높아져 농촌인구의 고령화추세가 뚜렷해졌다.

농림수산물 수출은 70년 2억1천8백만달러에서 91년 29억8천6백만달러로 13.7배 늘었다. 수입은 4억6천9백만달러에서 69억3천1백만달러로 14.8배 증가했다.

83년 주류출고량은 2백18만9천·로 국민 1인당 소비량이 55ℓ였으나 91년에는 출고량이 2백79만3천·, 1인당 소비량은 65ℓ로 각각 늘었다.

담배생산은 71년 24억8천만갑에서 지난해는 46억7천만갑으로 늘었다. 1인당 흡연량은 75갑에서 1백14갑으로 증가했는데, 18살 이상만을 기준으로 하면 1백47갑에서 1백65갑으로 늘어났다.

종이생산은 91년 4백92만t으로 60년전보다 89.8배 늘었다. 국내소비량도 57.8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종이소비량은 30년전보다 33.1배 증가한 1백12.

무려 2만6천8백배 늘었다. 의료·사회복지·환경 의사 1인당 인구수는 30년전 3천66명에서 91년 9백51명으로 줄었다. 61년만 해도 홍역·백일해 등 전염병이 극성을 부렸으나 현재는 당시의 1~1.5% 수준으로 감소했고, 신규 소아마비환자는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 66년 영아 1천명당 사망자가 60명이었으나 지난해는 13명으로 줄었다. 5살 이상 인구 1백명당 결핵환자는 4.2명이었으나 90년에는 1.8명으로 감소했다.

인구 천명당 자동차보유대수는 62년 1.2대에서 지난해는 98.2대로, 자가용 승용차는 0.1대에서 58.7대로 늘었다.

30년전 해외출국자는 1만명당 4.4명이었으나 지난해는 4백36.6명으로 늘었고 외국인 입국자수도 2백87배 증가했다.

범죄는 72년에 비해 26% 늘었으나 10년전 보다는 12% 줄었다.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는 20년전보다 61%나 급증했다.

교육 문화 30년전에 비해 유치원과 유아원수는 각각 26배, 2

커진 덩치 걸맞게 문제도 복잡다단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성 1명이 가입기간(15~49살) 동안 낳는 자녀수는 60년 6.0명이었으나 90년에는 1.6명으로 대폭

30년새 GNP 79배 한사람당 저축 2백27배
인플레 극심 25년전 6백원짜리 지금 1만원
10년전비해 이혼재판2.5배 협의'파경' 1.6배

9배씩 늘어 취원율도 1백명당 0.8명(4~5살 기준)에서 33.0명으로 증가했다.

국민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줄었다. 인구 천명당 이혼율은 70년의 0.39명에서 90년에는 1.13명으로 높아졌다.

인구밀도는 30년전 1km² 당 62명에서 91년 4백36명으로 높아져 인구과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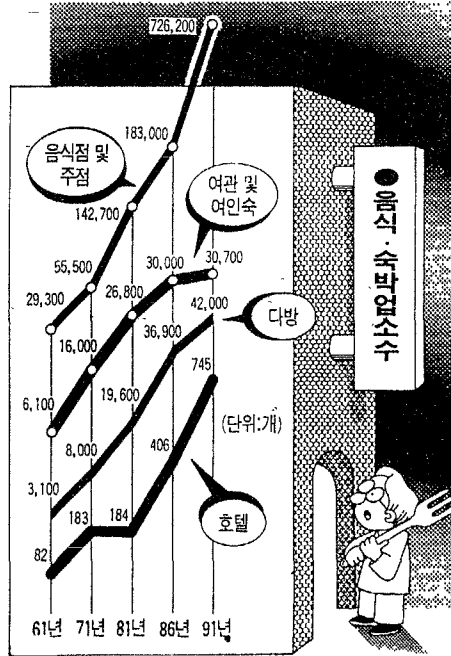
고용·임금·근로 경제활동인구는 25년전보다 2.1배 늘었고 취업자수도 2.2배 증가했다. 실업자수는 66년 63만명을 웃돌면서 실업률이 7.1%였으나 91년에는 실업자수가 44만명으로 줄고 실업률은 2.3%로 낮아졌다.

66년 농림어업 종사자수는 전체 취업자의 57.8%였으나 91년에는 16.7%로 낮아졌다. 이에 반해 광공업 취업자수는 10.8%에서 26.9%로,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종사자는 31.4%에서 56.4%로 늘었다. 직업별로도 농림수산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8.1%에서 16.6%로 준 반면, 생산관련 종사자는 16.7%에서 34.9%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여성의 취업이 늘면서 남녀별 취업자 구성비는 66년 65.2% 대 34.8%였으나 91년에는 59.6% 대 40.4%로 바뀌었다.

전산업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은 71년 50.6시간에서 86년 52.5시간까지 늘어났으나 지난해는 47.9시간으로 크게 줄었다. 제조업도 71년 53.7시간에서 86년에는 54.7시간으로 세계 최고를 기록한 뒤 91년에는 49.3시간으로 낮아졌다.

사무직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생산직의 임금은 20년전 51.5였



인플레이가 극심해 65년 1만원으로 살 수 있던 화폐가치는 91년 6백22원어치 물건 밖에 살 수 없게 됐다.

국민 1인당 저축성예금(예금은행 기준)은 30년전 1천원에서 91년 2백27만7천원으로 늘었다. 총재정규모는 91년 현재 25년전보다 2백56배 늘어난 59조2천5백억원이다.

조세부담률은 61년 국민총생산대비 9.6%에서 지난해 19.4%로 대폭 높아졌다. 1인당 담세액도 1천1백원에서 90년 현재 76

%로 높아졌다.

음식점 및 주점은 91년 현재 27만6천개소로 30년전보다 9.4배 늘었다. 다방은 4만2백개, 여관 및 여인숙은 3만7백개로 각각 1.36배, 5.0배씩 증가했다.

주식상장회시수는 20년전보다 13.7배, 상장종목수와 주주수는 각각 16.3배, 17.5배씩 늘었다. 상장주식수는 30.0배 증가했으며,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6백72.7배, 주식거래량은 81.0배 늘었다.

보험업의 신장세도 두드러졌는데, 수입보험료는 30년전보다

5kg에 이르고 있다. 폐지회수율은 30년 전의 8.9%에서 43.0%로 높아졌으나 아직도 폐지사용량의 43.0%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자동차생산량은 20년전보다 52배 늘어 91년 현재 1백49만8천대에 이르고 있다.

에너지 공급원의 국내생산은 30년전보다 2.6배 늘어났으나 수입에너지는 1백13배 증가해 수입의존도가 8.6%에서 지난해는 80.3

61년 62.9명에서 지난해는 40.6명으로 줄었고 교사 1인당 학생수도 61.2명에서 34.4명으로 감소했다.

고등학교 학생 취학률은 30년 전의 19.8%에서 지난해는 88.4%로 높아졌고 여학생 비율도 20년전의 37.8%에서 47.3%로 올라갔다.

전국의 극장수는 소극장을 포함해 61년 3백2개에서 지난해는 7백62개로 늘었으나, 1인당 연간 관람회수는 2.3회에서 1.2회로 줄었다.

91년 현재 프로선수는 2천2백13명으로 82년보다 37.7% 늘었다. 야구(3.3배), 축구(4.8배), 골프(8.7배) 선수 등은 늘었으나 권투선수만 유일하게 55.7% 줄었다.

기타 10년전보다 협의 이혼건수는 64.1% 늘었고 재판에 의한 이혼도 2.5배 증가했다. 이름을 바꾸는 개명처리건수는 33.0% 증가했다. <신현만 기자>

주당 평균근로시간

	전산업	제조업
71년	50.6	51.4
81년	51.9	53.7
86년	52.5	54.7
91년	47.9	49.3

직업별 취업자구성(%)

	사무직	생산직
66년	4.8	16.7
71년	6.9	19.8
81년	9.0	28.2
86년	11.6	31.6
91년	13.3	34.9

통계청, 標本 전면 손질

家口·사업체 조사 등 현실에 맞도록 조정

내년부터

통계청은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보다 현실에 맞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표본을 완전히 교체키로 했다.

통계작성의 기초라 할 수 있는 표본의 과잉과 과소 문제가 심각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26일부터 조사에 착수, 내년부터는 △경제활동인구 △도시가계수치 △인구주택 △판공업 및 도소매업 등의 각종 통계가 새로 추출된 표본에 의해 작성될 예정이다.

통계청은 그동안 통계의 신뢰성을 다스려 왔던데다, 지점이 너무 적고 이질적인 표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표본을 바꾸기로 했다.

특히 통계청의 이번 표본교체 작업은 현실과 거리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 이를 바로잡는 한편 통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을 더욱 확대했다. 특히 그 특징이 있다.

우선 사업체 조사에서 생산비용이 떨어진 △재생 기업의 증가, 일련주택의 감소와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의 증가, 농림어업취업자의 감소와 서비스부문 종사자의 확대 등 경제사회의 구조변화를 표본에 반영시켰다.

특히 도시가계조사에 있어서는 지역별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표본의 크기를 대폭 확대했다. 지금까지 서울 등 6개 도시에 국한해 조사해왔던 것을 15개 市道로 그 범위를 넓히고 가구수도 4천 6백가구에서 5천 5백가구로 늘렸다.

영, 도소매 실태조사대상 사업체도 4천개에서 5천개로 확대됐다.

통계청은 이와 함께 현재 청사를 江南구 驛三동으로 옮겨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통계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孫顯德기자△

이외에 인구 26일부터 조사에 착수, 내년부터는 △경제활동인구 △도시가계수치 △인구주택 △판공업 및 도소매업 등의 각종 통계가 새로 추출된 표본에 의해 작성될 예정이다.

통계청은 그동안 통계의 신뢰성을 다스려 왔던데다, 지점이 너무 적고 이질적인 표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표본을 바꾸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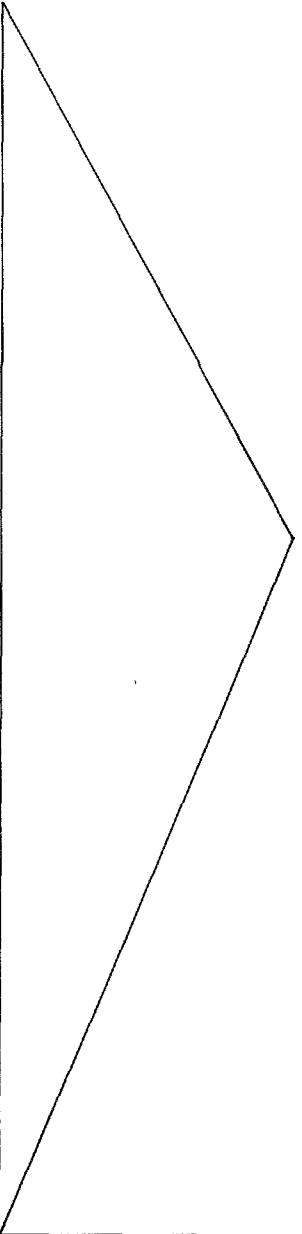
특히 통계청의 이번 표본교체 작업은 현실과 거리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 이를 바로잡는 한편 통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을 더욱 확대했다.

우선 사업체 조사에서 생산비용이 떨어진 △재생 기업의 증가, 일련주택의 감소와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의 증가, 농림어업취업자의 감소와 서비스부문 종사자의 확대 등 경제사회의 구조변화를 표본에 반영시켰다.

특히 도시가계조사에 있어서는 지역별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표본의 크기를 대폭 확대했다.

지금까지 서울 등 6개 도시에 국한해 조사해왔던 것을 15개 市道로 그 범위를 넓히고 가구수도 4천 6백가구에서 5천 5백가구로 늘렸다.

서비스부문의 확대를 반



經科委 통계청감사에서
의원들이 이구동성
으로 소비자물가·실업률의 통
계의 신뢰성문제를 지적하자, 통
정부의 각종 통계기준과 방
식을 점검하는지 모함.

金珠謙·李明博의원(民自)
이 먼저 『週1시간 일해도 취
업자로 통계를 잡는데, 사실상
실업자가 아니다』며 현실성있
는 통계조사를 촉구하자, 閔泰
후청장(民自)은 통계는 비과학적
이냐, 한기때문에 ILO(국제
노동기구) 기준을 따르다보니
그렇다』고 답변. 이에 趙世衡
의원(民主)의 나서는 통계를 유
연해 보다가 위해 만났다. 『
먼저 『과거 편입수의 시대에 국
내 경제선진국이로 통계를 왜
곡하면 산재를 탈피한다』고 추
구. 또 趙洪錫의원(民主)은
『ILO기준의 따르면 30%에



안 구조활용을 하지 않을 경우
비경제활용이므로 각종, 실업
자에서 제외하는데 취업이 안
돼 들고있는 사람을 실업자가
아니라느것 아니다』며 가세.

통계 -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재산입니다

- 통계청에서는 정확한 통계를 만들기 위하여 조사대상 가정과 사업체를 새로이 선정 하였습니다.
-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신 분은 우리나라 전체 가정과 사업체를 대표하게 됩니다.
- 대표로 선정되신 여러분의 답변에 따라 정확한 통계도, 부실한 통계도 만들어 집니다.
- 조사내용은 법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 됩니다.

통 계 청 •문의전화: 720-2573

도시家計조사 統計포본 개편

4천600가구서 5천500·도소매 4천500개로
통계청, 가구특성·산업·취업구조 변화 반영키로

통계청은 도시가계조사
의 지역별 통계를 새로 만
들기 위해 표본을 5천5백
개로 늘리는 등 주요 통계의
표본을 대폭 개편해 이달부
터 적용하기로 했다.

22일 통계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
중안의 가구특성과 산업 및
취업구조 등이 변화됨에 따
라 도시가계조사의 표본을
기존의 4천6백가구에서
5천5백가구로, 도소매업
동태조사는 4천개 사업체
에서 4천5백개로 각각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관계자는 이와관
련, 『도시가계조사의 지역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표
본을 늘리고 지역별 조
정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최근

도시가스와 아파트 다세대
주택 및 3차산업종사자들
이 늘고 농가와 일반주택
농업·업종업자들이 감소
해은 추세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은 광공업동태조
사의 경우 표본수는 9천
개사업체로 동일하지만 생
산비용이 줄어든 재성타이
어 농업농수산물 발표기 등
은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
고 농업수산물 캘코더 산업
용농수산물 등을 새로 추가시
켰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
본은 기존의 3만4천가구
에서 3만3천가구로 지역
별로 조정해 1천가구가
줄어들었다.
신규표본 1개의 대표도
를 보면 도시가계조사는
1천3백가구, 경제활동인
구는 3백50가구들이다.



통계청 「江南시대」 열망

통계청이江南에 새삼스럽게 차렸다.
 통계청이 28일 지난 30여 년간 국가통계의 산실이었던 서울 중구본부 청사(30층)를 떠나 강남구 영등포구 소재 「한국현대인」의 9천여 평 부지를 개시했다.

새청사로 이전하기 시작한 11월 신축된 이래 7차례에 걸친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회를 비롯, 각종 기중통계의 산실이 되었으나 최근 10여 년 인형과 시설을 수용하기에 한계와 노후 문제를 염두에 둔 계획된 것이다.

새청사는 그동안 입찰을 통해 얻었던 통계청 수임과 서울을 제1사무소로 수용하게 됐다.

그러나 현재 통계청인 3월 16일과 11개 지방통계 사무소, 5개 출장소로 구성된 3백88명의 인원은 1천 3백여 평만 차지하고 있다. 또 통계청의 전체 인원은 10만여 명에 이르렀다.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수용하기 위해 서는 청사 이전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과 청사 이전을 담당하는 기관의 확대를 위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 통계청의 업무가 이전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들 우려는 통계청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驛三洞 이전 統合체제 구축

통계청이 28일 강남구 영등포구 소재 새청사로 이전한다. 통계청이 28일 강남구 영등포구 소재 새청사로 이전한다. 통계청이 28일 강남구 영등포구 소재 새청사로 이전한다.

〈孫顯德기자〉

통계청 江南시대 개막

통계청이 28일 강남구 영등포구 소재 새청사로 이전한다. 통계청이 28일 강남구 영등포구 소재 새청사로 이전한다. 통계청이 28일 강남구 영등포구 소재 새청사로 이전한다.

〈盧顯根기자〉

경운洞서 역삼洞으로 廳舍 옮겨 「선진통계」로의 재도약 계기돼야

통계청이 28일 강남구 영등포구 소재 새청사로 이전한다. 통계청이 28일 강남구 영등포구 소재 새청사로 이전한다. 통계청이 28일 강남구 영등포구 소재 새청사로 이전한다.

통계청이 30여년간의 중립추진정책을 청사사태를 마감하고 28일 강판구속을 종결시켜 한달반정"으로 청사를 이전한다.

통계청이 1991년 舊청사에 터전을 잡은 것은 정부통계업무가 내무부에서 경제기획원으로 이관(61년 7월)된 직후인 61년 11월.

현명진후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속해 새로 출발한 경제기획원 통계국의 당시 조직은 불과 4개 과에 인원수도 2백 50명을 넘지 못했다.

현재 통계청조직이 3국 1원 16과에 11개 지방

통계사무소, 5개 출장소로 확대되고 근무인원도 1천 3백 88명에 이르는 사실과 비교하면 수확의 감을 갖게 한다.

도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통계청이 작성하는 통계종류만도 38종에 이르고 발간간행물도 54종이나

종인 IBM 3090, IBM 43801와에 1분에 B, 용지 1백 50장을 관독 검색할 수 있는 광학관독기 시스템과 16만

통계청 '경운洞30년' 막내려

오늘 청사이전... '역삼洞시대' 열려

업무량도 61년 당시는 인구센서스 자료처리까지의 전담였고 발간간행물도 통계연감 통계월보 노동력조사결과보고서 등 한 줄 손만으로도 끝낼 정

된다. 경운동 시절을 거치면서 통계청의 장비현대화 도 큰 발전이 이루어져 61년 당시 단순 전자계산기 수준에서 지금의 주기

가지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매킨토시 그래픽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 덕분에 60년 인구센서스 때는 3년이 소요됐던 센서스 자료처리를 이제

기획원局으로 출발 廳승격

계산기 수준이던 장비 "첨단준비"

30년 근속직원 惜別아쉬움

는 2년만에 증결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통계청직원중에는 경운동청사 근무 당시부터 근속하고 있는 인원이 국·과장을 합쳐 4명이다. 그중 한 사람인 金景中 통계조사국장(은)은 "보다 좋은 근무환경을 찾아 떠나는 것이긴 하지만 30년간 정든 곳을 떠나 자기 서운함이 앞선다"고 '舊청사'와의 惜別을 아쉬워했다. 한편 '舊청사'에는 그동안 다른 건물에 새들어 지내온 통계연수원과 서울통계사무소가 입주하게 된다. <林革기자>

통계청廳舍 이전

통계청(청장 閔泰亨)이 현재의 중앙구 慶雲洞 청사를 31년만에 이전, 28일부터 강남구 驛二洞 한타빌딩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지난 61년 건립된 慶雲洞 청사는 양면 통계연수원 과 서울통계사무소로 쓰일 예정이다.

정부의 공식 통계기구인 통계청(청장 閔泰亨)은 지난 48년 당시 공무원 처 산하 통계국으로 첫 출발, 내무부 통계국(55년 2월)을 거쳐 61년 7월 경제기획원 통계국으로 개편, 발족됐고 지난해 1월부터 청사도 이전된 후 행정 기관으로 승격했다.

61년 기획원 통계국으로 발족할 당시 조직은 인구 통계과 등 4개課, 직원 2백50여명에 그쳤으나 현재는 3동 1院 16課 1담당관, 지방통계사무소 11개, 출장소 5개 등 총 인원 1천3백88명의 거대 기구로 성장했다.

통계청 새 청사의 위치는 덕해단로 특허청청사 맞은편이며 대표전화는 222-1901-15.

物價·失業率 등 통계 信頼性 제고 노력

「통계는 사실상의 국민들의 믿음을 얻는다. 통계청장인 권기환의 말에 따르면, 통계가 나라를 수호하고 강조한다.」

지난 28일 서울鍾路구 慶雲洞을 떠나 江南구驛三洞소재 「한타빌딩」이로 통계청이 청사 이전을 계기로 통계제정자는 물론 이 용자들과 보다 친숙해 지겠다는 야기다. 이같은 노력이 하나로 최근 도시가계조사, 표본가구를 찾아 전화카드를 배포하기도 했다.

통계청장 閔泰亨 씨



통계청이 옮겨가면서 옛청사는 통계연수원과 서울통계사무소를 새 주인으로 맞게 됐다. 그동안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통계청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우선 인력면에선 지난 61년 2천500여명의 하던 당시 2백50여명의

需要늘어 조직도 확대... 산파역 보람

불과하던 것이 지금은 1천3백88명00토 5백 이상 늘어났다. 조직면에서도 4개課에서 3국 1원16과 1담당관과 11개 지방통계사무소 5개 출장소를 거느리게 됐다. 그동안 경제기획원 산하의 「조사통계국」으로 지내다 지난 90년말 「통계청」으로 승격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명칭이 커진 만큼 할 일도 많다. 늘어나는 통계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눈앞이 되관하는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의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만드는 임무가 바로 그것이다. 초대 통계청장인 기도한 閔청장(80년)은 「앞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 있는」 태도를 반영, 더욱 신뢰성 있는 통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孫熙植기자>

내需 둔화 3分期 輸出 호조

제조업가동률 3%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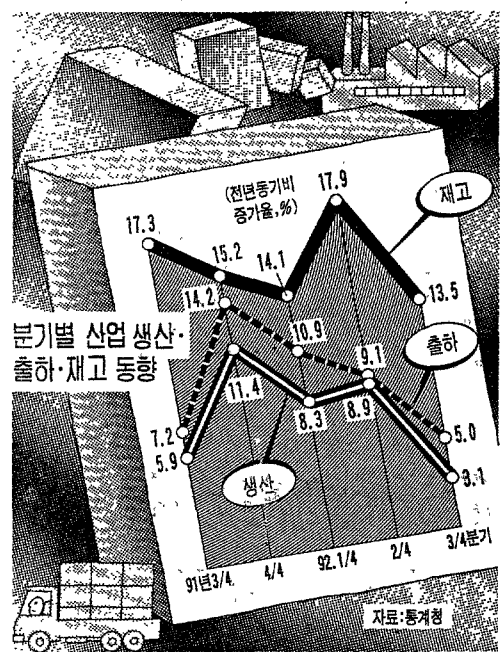
전년동기비 重化學부문은 6%증가

통계청·산업연구원 발표
 수출이 국내총생산의 1.5%포인트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수 둔화로 제조업가동률이 3%p 하락했다. 전년동기비로는 중화학부문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제조업가동률은 92년 3/4분기 13.5%로 전년동기비 17.9%에서 4%p 하락했다. 이는 92년 1/4분기 14.1%에서 0.6%p 하락한 것이다. 4분기 전분기는 13.5%로 전년동기비 17.9%에서 4%p 하락했다.

제조업가동률의 하락은 내수 둔화와 수출 호조에 따른 것이다. 수출 호조는 92년 3/4분기 17.3%로 전년동기비 15.2%에서 2.1%p 증가했다. 그러나 내수 둔화로 제조업가동률이 하락했다.

제조업가동률의 하락은 내수 둔화와 수출 호조에 따른 것이다. 수출 호조는 92년 3/4분기 17.3%로 전년동기비 15.2%에서 2.1%p 증가했다. 그러나 내수 둔화로 제조업가동률이 하락했다.



<그림 : 박춘영기자>

統計廳 발표 「3·4분기 산업動向」 분석

통계청이 3·4분기 산업동향 분석을 발표하고, 3·4분기 산업동향은 전분기 대비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3·4분기 산업동향은 전분기 대비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3·4분기 산업동향은 전분기 대비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3·4분기 산업동향은 전분기 대비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3·4분기 산업동향은 전분기 대비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3·4분기 산업동향은 전분기 대비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3·4분기 산업동향은 전분기 대비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3·4분기 산업동향은 전분기 대비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3·4분기 산업동향은 전분기 대비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3·4분기 산업동향은 전분기 대비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3·4분기 산업동향은 전분기 대비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3·4분기 산업동향은 전분기 대비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3·4분기 산업동향은 전분기 대비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3·4분기 산업동향은 전분기 대비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3·4분기 산업동향은 전분기 대비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3·4분기 산업동향은 전분기 대비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景氣급랭.. 最低點 어디냐

3·4분기 산업동향은 전분기 대비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3·4분기 산업동향은 전분기 대비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3·4분기 산업동향은 전분기 대비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3·4분기 산업동향은 전분기 대비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선 "産業구조

輸出입업어 "4분기형

"주거경정 9%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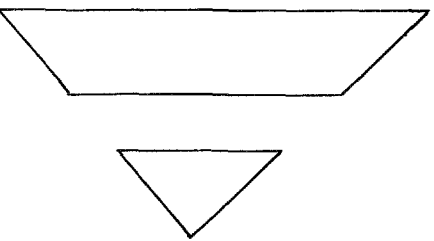
3·4분기 산업동향은 전분기 대비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3·4분기 산업동향은 전분기 대비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3·4분기 산업동향은 전분기 대비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3·4분기 산업동향은 전분기 대비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3·4분기 산업동향은 전분기 대비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3·4분기 산업동향은 전분기 대비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3·4분기 산업동향은 전분기 대비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3·4분기 산업동향은 전분기 대비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3·4분기 산업동향은 전분기 대비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3·4분기 산업동향은 전분기 대비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
연구기관별로는 내년경기를
7.4%전망으로 보는
기관과 0%전망으로 보는
기관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6%대의 저성장세를 예
측하고 경정의 현재로서는
양호적 같다.
한편 현재의 경기상태를
해소하는 데는 기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그동안 韓銀(韓銀) 현재의
경기는 노동조합의 생산성이 위
축되고 자본주의 생산성이 여
전히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업구조조정과정」이
라느 실명을 수개월째 내놓
고 있다.
산업구조조정과정이 다소
빠르기는 하지만 올바른 방
향으로 가고 있다고 현재 경

연대로 수출되며金利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전체적인
모양이 좋아지지 않고 있으나
는 낙관적이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10.20
실비투자대책을 마련했어도
최근의 경기하향락면이 성장
잠재력을 끌어 내지않도록
예비투사를 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생산이 증가하기는
커녕 뒷걸음질치고 있는 음
신금융과 그 제품인 특 신탁
연계관계자들의 「정부가 숨
모양만 생기고」 「부채는
사정의 감춰지고 있다」고
울었다.
이들은 특히 산업구조조정
도 좋지만 나라경제가 중화
한정임에도만 영위할수는 없
는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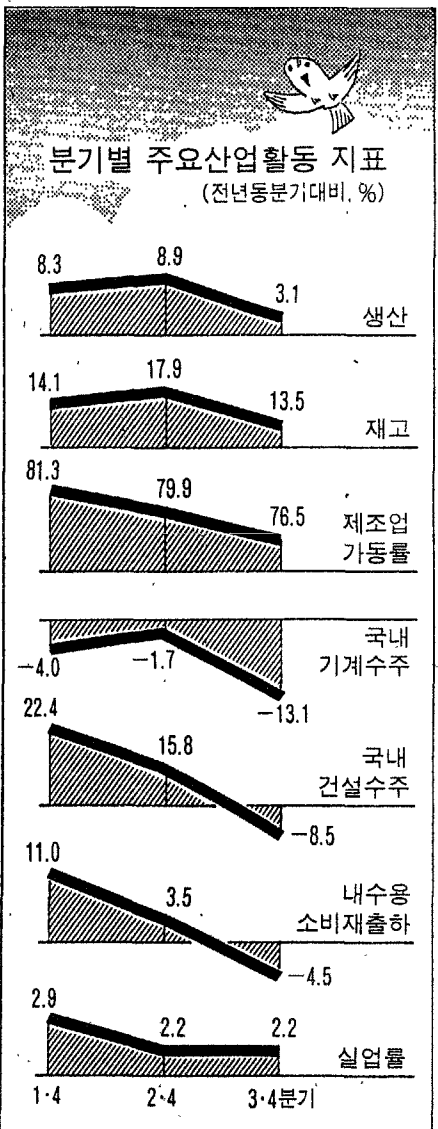
조성과정 "되풀이"

다소 나아질것 기대도

低速성장 "지배적"

제외의 실명이다.
특히 이들의 내수와 소비
가 출현세를기가 5%대의
안정성이 높을만큼이고 국제수
지赤字도 작년보다 40억
45억달러나 개선된 35억~45

이전 호수의도 불구하고, 현
경제정의 안정화의지가 강해
달라진 경기부양책이 등장
할 분위기는 거의 영묘이지
않는 것 같다.
〈張容誠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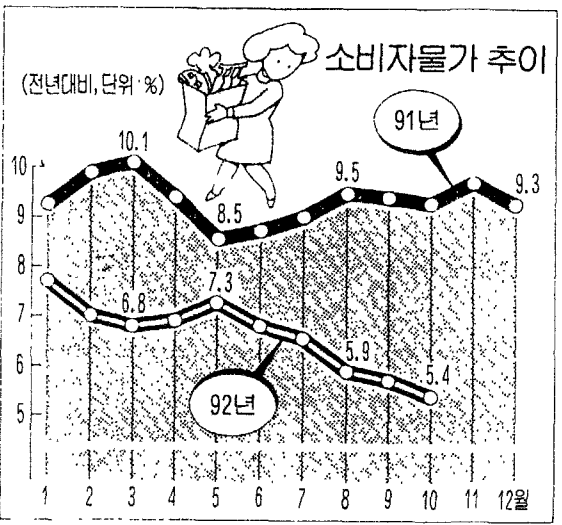


1~10월 물가가 5% 이내 상승의 의미

올해 물가가 안정된다는 것은
물가안정이란 것은 물가 상승률이
1%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안정이란 것은 물가 상승률이
1%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물가가 안정된다는 것은
물가안정이란 것은 물가 상승률이
1%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안정이란 것은 물가 상승률이
1%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물가가 안정된다는 것은
물가안정이란 것은 물가 상승률이
1%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안정이란 것은 물가 상승률이
1%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低物價시대 진입 청색신호

농수축산물 값 안정에 「총수요 관리시책」 주효
80년대末 실패 경험 살려 더욱 고삐 죄어야

사실이다.
그런데 저시정체차원으로서
부가 가치의 후진국 특성을
전반적으로 반영한 시책은
안정된 물가안정을 위한
투자가치가 파멸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물가안정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1%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안정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1%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안정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1%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안정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1%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안정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1%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안정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1%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안정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1%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안정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1%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社說

低物價기반 계속 다지라

최근의 物價안정추세는 파소비어제와 긴밀결기진전에 內需진정율 목표추진해은 정부의 總需관리정책이 주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간소비와 기업투입 투자등의 증가로 수요가 급격한데 반해 한편으로 이를 따르지 못해 물가가 상승하자 정부는 91년부터 安定化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0월경 소비자물가가 89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0.1%가 내렸고 도매물가는 월중 0.3%가 하락한 지난 8월 이후 연속 3개월째 내린 것을 보이고 있다. 이를 가추세는 89~88년까지 14.9%인 반면 파소비어

율은 價金상승율이 10% 무너졌던 安定基礎의 회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過熱성장을 성장잠재력 수준으로 끌어 내림으로써 수요면에서 초과수요 압력을 크게 완화시켰다. 일부에서 異氣찬채를 우려할 정도로 총수요관리를 중시함으로써 內需안정화시책을 강요해 추진한 것이 다. 수요가 공황을 초과하여 일어나는 需要적인 인플레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수요억제가 필요했다.

정부가 安定化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자 6.29선언 이후 고개들은 각 경제주체들의 자기무책기 또한 안정되고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록

측면의 인플레이 요인인 價金인상폭이 줄어들어 둔화되었고 首都圈신도시 건설에 따라 집값과 전세값이 하향안정세로 돌아선 것도 물가안정에 큰 몫을 했다.

물가안정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무리상환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을 부추긴다. 사회적으로는 민생물의 안정을 비롯한 民生안정의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安定기조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經濟主體들의 부담이 요구된다. 기업자들은 지난 몇해 동안 높은 價金인상에도 불구하고 전세값과 生必需品서비스값이 크게 인상됨으로써 실질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던 것을 경감해야 한다.

개인서비스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같은 체험을 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를 경제주체가 價金인상요구를 자제하고 서비스업의 인건비에 합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비자들 또한 過消費가 수요적인 인플레이의 主因을 짚이 인식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모처럼 되찾고 있는 安定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安定화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바란다. 특히 大選을 전후한 물가관리와 내년도 公井料金인상의 각별한 유의하기를 당부한다.

常住인구조사 82년만에 폐지

통계청 주민등록상 인구統計로 대체

그동안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던 常住인구조사가 폐지되고 전산화된 주민등록상 인구통계가 정부의 공식통계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상 주민구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진 행정구역의 조정이나 공무원정원, 지방교부세의 산정 등이 앞으로는 모두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

그러나 5년마다 실시하던 주민구조사(총조)는 앞으로는 인구주택센서스(총조사)는 그대로 시행된다. 통계청은 11일 현행 상 주민구조사의 정확도가 낮아 정부통계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는 전산망의 갖추어 진 주민등록인구통계로 대체하여 공식통계로 활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민등록인구통계는 매년 12월 31일 24시를 기준 시점으로 하여 주민등록표 등재돼 있는 인구와 가구를 작성대상으로 하되 1개월간의 補正기간을 두어 신고미비 등의 사유로 작성대상에 포함 또는 제외되어야 할 인구를 가감 조정하여 작성된다.

올해의 정수에는 1990년 이후 읍·면·동지역의 의회 실시된 상 주민구조사는 82년만의 작성이 중단되게 됐다.

통계청은 이처럼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사용할 경우 구간에 차이가 나 정확한 인구 파악에 다소 문제가 있으나 향후 내부부서에서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 실대정비를 강화하여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常住인구조사 안한다

올해부터 주민등록電算化 통계로 대체

통계청이 올해부터 인구조사가 폐지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주민등록이 전산화될 경우, 주민구조사도 폐지된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민구조사(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던 주민구조사(총조사)는 앞으로는 인구주택센서스(총조사)는 그대로 시행된다. 통계청은 11일 현행 상 주민구조사의 정확도가 낮아 정부통계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는 전산망의 갖추어 진 주민등록인구통계로 대체하여 공식통계로 활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5년마다 실시하던 주민구조사(총조)는 앞으로는 인구주택센서스(총조사)는 그대로 시행된다. 통계청은 11일 현행 상 주민구조사의 정확도가 낮아 정부통계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는 전산망의 갖추어 진 주민등록인구통계로 대체하여 공식통계로 활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민등록인구통계는 매년 12월 31일 24시를 기준 시점으로 하여 주민등록표 등재돼 있는 인구와 가구를 작성대상으로 하되 1개월간의 補正기간을 두어 신고미비 등의 사유로 작성대상에 포함 또는 제외되어야 할 인구를 가감 조정하여 작성된다.

올해의 정수에는 1990년 이후 읍·면·동지역의 의회 실시된 상 주민구조사는 82년만의 작성이 중단되게 됐다.

통계청

常住인구조사 폐지

주민등록人口 공식통계 활용

그동안 각市·道·道庁하에 매년 실시되오던 상주인구조사가 폐지되고 주민등록簿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상주인구조사를 토대로 이루어

진행중이던 조영이나 공무위원, 지방교부세 산정 등이 영인되는 등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

통계청은 11일 『행정상 주민구조사는 매년 막대한 인력 및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반해 각市·道가 예산을 많이 파기위해 실제보다 인구를 과다하게 부풀려 집계하는 등 정부통계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앞으로는 전산망이 갖추어진 주민등록인구조사로 대체해 공식통계로 활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10년 최초로 실시된 이후 5년마다 인구추태조사(센서스)가 실시되는 해를 제외하고 해마다 실시되던 상주인구조사는 82년만에 작성이 중단되게 됐다.

주민등록인구조사는 매년 12월 31일 24시를 기준으로 시점으로 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인구가 구를 작성대상으로 하되 1개월간의 보정기간을 두어 신고미비 등의 사유로 작성대상에 포함 또는 제외되어야 한 인구를 가감 조정하여 작성된다.

또 올해의 주민등록통계는 내년 3월말에 최종 집계되며 발표될 예정이다.

상주人口조사 폐지

82년만에 주민등록인구 공식통계로

그동안 해마다 실시되던 상주인구조사가 폐지되고 대신에 주민등록인구조사가 실시돼 정부의 공식통계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행정구역 조정 공무위원산정 지방교부세액 산정 등에 주민등록상 인구가 기준으로 쓰이게 된다.

통계청은 11일 5년마다 인구추태조사가 실시될 때를 제외하고는 매년 각市·道별로 실시해오던 상주인구조사가 82년만에 30만명의 조사인원이 투입되고 조사원수가 100명 정도가 80명 이하로 줄어들며, 정확도가 낮아지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전산망이 갖추어진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대체 공식통계로 활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10년 처음으로 실시된 상주인구조사는 82년만에 폐지된다.

閔泰亨 통계장관

【연말의 통계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할지 불확실하다.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어선다면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될 수 있다. 통계청이 인플레이션을 10%로 설정하는 기준은 1980년대 초반이다.】

80년대 초반의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기 때문에 통계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통계를 조정하는 것은 통계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 통계를 조정하는 것은 통계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 통계를 조정하는 것은 통계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



【통계청의 통계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할지 불확실하다.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어선다면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될 수 있다. 통계청이 인플레이션을 10%로 설정하는 기준은 1980년대 초반이다.】



나 정부의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에 1시간 이상만 머물면 취업자로 간주한다. ILO 기준에 따르면 취업자의 비율을 따르지만

“失業率지표 보완... 논란소지 없애겠다”

전문인력확보가 관건... 「지역소득」도 곧 공개
민을수 있는 統計로 위상강화 노력

민통 장관은 오늘 열린 1992년 11월 11일 19시 30분부터 19시 45분까지 취재자의 비율을 따르지만

를 썼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 86년 이후 지역별 실질총생산(GRP)을 공개하지 않던 것이 이번 통계청의 위상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연말의 통계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할지 불확실하다.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어선다면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될 수 있다. 통계청이 인플레이션을 10%로 설정하는 기준은 1980년대 초반이다.】

【金光賢기자】

30年代 여성

19세 이전 結婚 80%

통계청, 朝鮮총독부 기록 입수

日帝의 식민통치체제가 중화강을 넘긴 사람이 2공이저가던 30년대 우리 평양도밖에 안됐던 것으로 나타난 여성의 80%이상이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19세 이전(19세 이전)에 부 통계청이 18일 고서송장가 婚했어 퍼 죽은 사람 10명 루부터 최근 일수한 당시

총독부 산하 朝鮮통계협회의 협회지 「朝鮮통계시보」 11월을 토대로 30년대의 경제·사회적 시대상을 조명한 자료에서 밝혀진 것이다. 다음은 주요내용이다.

높아졌다. 특히 출도가 비육한 전북·경기·충남지방은 소자종의 비율이 90%에 육박했다.

◇출가·입원
이때 조선인근로자들을 남자의 경우 하루 평균 9.5시간 일하고 월 22원정도를 벌였는데 이는 일본인들에 비해 하루 1시간 이상 더 일하면서 일본인 임금의 45%정도를 받던 것이다.

구는 현재의 4%에 불과한 44만명이었으며 그중 30%는 근로자주 임원들을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가 2백56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제주포함) 1백91만명으로 가장 적었다.

당시 근로학교 교직원수 1천명, 보물학교의 경우 조선인교사가 64.6%를 차지했다. 중등학교는 8.1%밖에 안됐다. 한편 보통학교 조선인교사의 비율은 51%정도였고 그때까지는 가마를 살수 있었을 때 타 지방보다는 높지만 일본인 교사의 50~60%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평균 수명 男 36.3 女 38.5세

75%가 농사 : 3분의 2는 소작

근로자賃金 日人の 45%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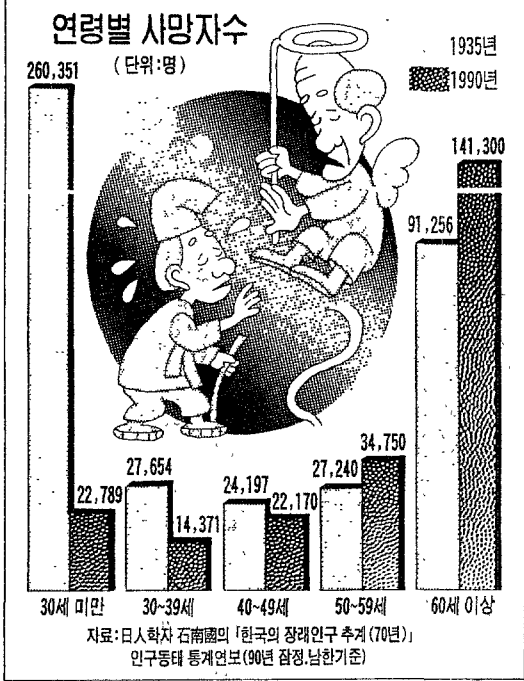
들이 많이 살았다. 이 당시 평균수명(1935년)은 남자 36.3, 여자 38.5세로 지금보다 30년 이상 수명이 짧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후진성과 양면이 특징으로 10명 중 4명(40%)은 5세도 안된 영·유아였다.

◇잔업
이때 우리나라의 공산품 생산액은 5억6천8백만 원(당시 살아가마 17.6원) 정도로 주산업인 농업(전도로) 생산액의 40%에 불과했다.

또 총독부 실업조사에 의하면 당시 일본의 실업률(1.0%)에 비해 조선인 실업률은 5.4%로 조선인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렵음을 보여준다.

주요 수출품은 쌀로 총수출액의 44.3%를 차지했다.

〈鄭鐵根기자〉



<그림: 金弘烈기자>

서울인구 44萬... 전국 2%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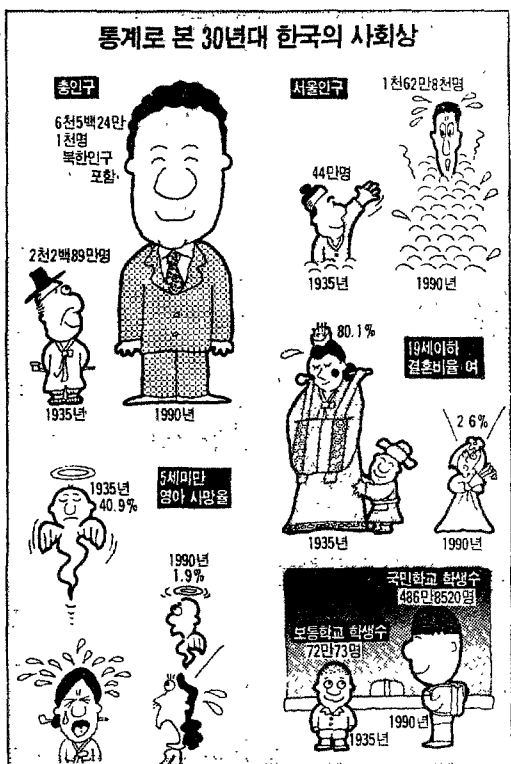
35년발간 統計誌가 밝힌 資料

日帝강점하인 지난 1935년에 서울(當時京城府)인구는 현재의 44만4천명에 불과했고 당시 총인구는 6백53萬에 비해 17배 정도 증가했다. 또 京京城府의 면적은 36.2㎢로 90년 서울의 면적은 6백53㎢에 비해 17배 정도 증가했다.

부의 1에 불과했다. 특히 당시 서울인구의 30%는 일본인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식민지조립 수도인 서울의 위상을 보여준다. 19일 통계청이 최근 실시한 국내최초의 인구조사 결과 서울의 인구는 44만4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935년 1천62만8천명에 비해 36% 감소한 것이다. 서울의 인구는 1935년 1천62만8천명에서 1990년 44만4천명으로 줄었다. 이는 1935년 1천62만8천명에서 1990년 44만4천명으로 줄었다.

한정수도는 85만9천명에 불과했고 전라남도도 2백50만9천명으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았다. 35년 당시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47.7세로, 1990년 72.1세로 늘었다. 이는 1935년 47.7세에서 1990년 72.1세로 늘었다.

평균수명男 36女 38세... 현재의 절반



통계청이 발표한 1990년 인구조사 결과, 서울의 인구는 44만4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935년 1천62만8천명에 비해 36% 감소한 것이다. 서울의 인구는 1935년 1천62만8천명에서 1990년 44만4천명으로 줄었다. 이는 1935년 1천62만8천명에서 1990년 44만4천명으로 줄었다.

農家 3백만호... 전체가구 75% 차지

농가수는 3백1만가구로 당시 전국가구수 4백1만가구의 75%수준이었다. 이는 1935년 1천62만8천명에서 1990년 44만4천명으로 줄었다. 이는 1935년 1천62만8천명에서 1990년 44만4천명으로 줄었다.

〈林奎振기자〉

통계청, 30년대발간 「조선통계시보」 분석 발표

서울(당시 京城府) 인구는 불과 44만 4천명. 처녀 10명 가운데 8명이상이 19세가 못돼 결혼했다. 아가들이 숨지는 일이 잦아 연간 총사망자중 40%가 4세이하 영아였다. 농가 4가구중 3가구는 소작농의 면서도 쌀이 총수출액의 44%·對日수출의 절반을

단체의 기관지인 조선통계시보에는 30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의 실상은 통계자료들이 수록돼 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도 이중 일부를 통계청이 분석·정리한 것이다.

◇인구 35년 국세조사 때 우리나라 총인구는 2

35년 혼인연령조사에 따르면 여자는 81%가 19세 이하에 결혼했고 15세 미만 비율도 8.8%나 돼 무혼 비율이 일반적. 남자도 19세 이하가 44%·17세 미만은 11.6%에 달했다.

영양부족과 의술 미발달로 영아 사망이 많아 35년 당시 연간 전체 사망자 48만여명 가운데 4세 이하가 41%인 17만 6천여명에 달했다. 인구 1천명당 조사

35년 혼인연령조사에 따르면 여자는 81%가 19세 이하에 결혼했고 15세 미만 비율도 8.8%나 돼 무혼 비율이 일반적. 남자도 19세 이하가 44%·17세 미만은 11.6%에 달했다.

영양부족과 의술 미발달로 영아 사망이 많아 35년 당시 연간 전체 사망자 48만여명 가운데 4세 이하가 41%인 17만 6천여명에 달했다. 인구 1천명당 조사

가구중 3가구할인 75.9%가 소작농이었다.

공산품 생산액은 5억 6천 8백만 원으로 농업·공업의 40%에 그칠 정도로, 농업·공업은 두 부문은 식량공급이 29.8%·화학 26%

◇농가·고용부 38년 일제의 만주침략이 개시되자 전시체제 아래 물자부족 현상이 생기기 시작, 38년의 전곡 9개도시 소매물가는 전년비 18.2%나 뛰었다. 특히 선양(현)의 기준은 전년 36년에 비해 무려 1백50%나 상승했고 목면이 89%·소금 66%씩 가격이 올랐다.

37년 총독부 내무국이 실시한 실업조사에 따르면 총실업자는 5만 7천 6백 73명으로 이중 97%가 조선인. 실업률(인구 1%로) 5.4%·일본인의 1%로 발표돼 조선인 취업이 어려워졌음을 반영했다.

35년 연간 대외교역액의 12억 1천만 원이 수출·對日교역이 86%를 웃돌았다. 주요 수출품은 쌀·비료·구리·염화수소·철·총수출액 44%·대인수출의 50%를 차지했다. 수입품목은 일본에서 직물·철강기계를, 기타지역에서 쌀·유제품이 늘었다.

사망자중 40% : 평균수명 37세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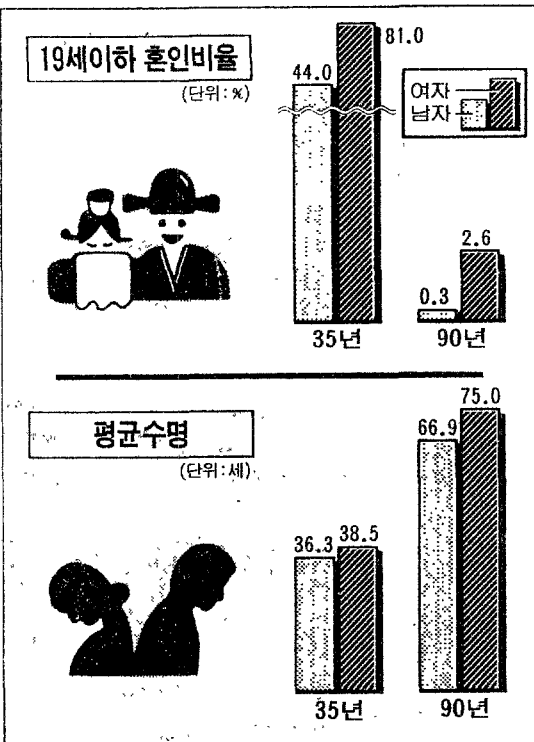
통계청에 따르면 1935년 당시 일제하 우리나라의 모습이다.

통계청은 지난 30년대 조선통계협회가 발간한 「조선통계시보」 11권을 입수, 인구·산업·교육·고용 및 물가·무역 등 5개 분야의 통계자료를 분석해 18일 발표했다.

조선통계협회는 일제의 조선총독부가 지난 35년 국세조사(현행 인구주택총조사)를 처음 실시하면서 근대적 통계의 대중화를 위해 총독부 관공서에서 과산하에 설치한 단체. 이

1935년 당시 우리나라 모습

전 2백 89만 8천명(일본인 61만 9천명 포함)으로 90년 3백 60만 6천 5백 24명에 비해 3분의 1



혼인연령 19세이하 女81·男44%
 農家 4가구당 3家口가 소작농
 실업률 조선인 5.4... 日人은 1%

◇교역 35년 14.5%의 손실. 인스턴트 30년대 들면서 신식교역에 급속히 밀리기 시작했다. 한일합방 초기인 12년 서당학풍은 14만 1천명으로 농촌학교와

【柳菴基자】

지금으로부터 약 60년전, 日帝치하였던 1930년대의 한국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동안 口伝이나 단편적인 기록에만 의존해왔던 1930년대 한국사회의 모습이 각종 사회-경제통계를 통해 실증적으로 재현됐다. 통계청은 일제하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조선통계시보」 창간호(1936년 3월刊)부터 제13호(1939년 5월刊)중 11권을 입수, 이를 토대로 당시의 한국사회상을 입체적으로 조명한 통계자료를 18일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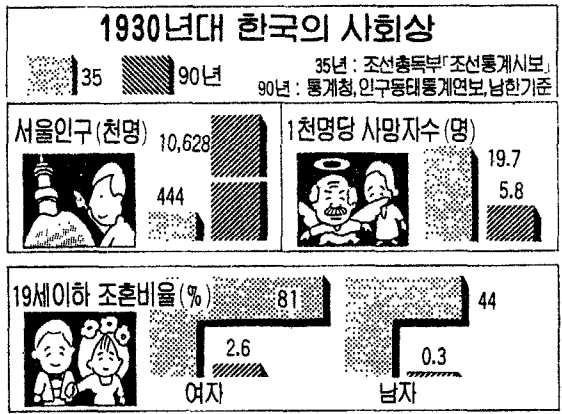
조선총독부 자료

1935년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국세조사(현재의 인구주택총조사)는 당시의 서울京城(인구를 44만4천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90년 현재 남북한 총인구의 2% 남짓한 인구의 2.9%에 불과하다. 그나마 서울인구의

1930년대 한국사회

30%는 한일합방과 함께 이주한 국내거주일본인들이었다. 35년 당시인구는 총 2천2백88만8천명(일본인 61만9천명 포함)으로, 지난 90년 조사된 남북한 총인구의 3분의 1 수준. 지역별로는 경남(전남)제주 포항(경남)경기도 지역에 2백만명 이상이 거주했고, 합북(충북)등연인구가 1백만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총인구 2,200만...서울 44만명



지 못했다. 또 당시 한남여자 10명중 8명(81%)은 19세 이하에 결혼했으며, 15세미만의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여자도 8.8%나 됐다. 이같은 현상은 부부의 풍습이 일부 남아 있었으며, 일본의 중부지방부터 전라 지역의 전근대적 관습이 아직 남아 있어, 남녀의 결혼을 서둘렀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여성 81% 19
평균수명 男

35년 당시 한국 농가는 총 3백1만가구로 전국 총가구의 75%에 달했으며 이중 소작농이 75.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순수자작농은 18%에 불과했다.

사망 40% 5세미만

조선총독부 사망률 인구동태 조사에서 드러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사망자 10명중 4명(40.9%)이 5세미만의 자란이와 어린이들이었다는 점이다. 조사당시 총사망자는 연간 43만6백98명으로, 인구 1천명당 19.7명의 사망률로, 이는 1990년 현재의 5세미만 嬰幼兒사망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또 1981~1983 5년간 평균수명(남자) 36.3세, 여자가 38.5세였다. 총사망자중 60세 이상 노령인구는 21.2%에 불과했다.

공산품생산액의 산업은 55.6천8백만원이라, 주산업인 농업·임업·축산업의 40%수준이었으며, 임업·축산업은 1979년 이후 부채조동신분류중임업이 주류를 이뤄 전체의 8.8%, 제조업·서비스업은 35.3%나 차지했으며 35.3%나 돼 영세성을 면치 못했다.

1985년 당시 교역액 12억1천만원. 이중 86.3%가 일본과의 교역이었다. 무역적자는 150원의 탈렸는데 일본과의 교역에서 전체의 61.1%가 발생, 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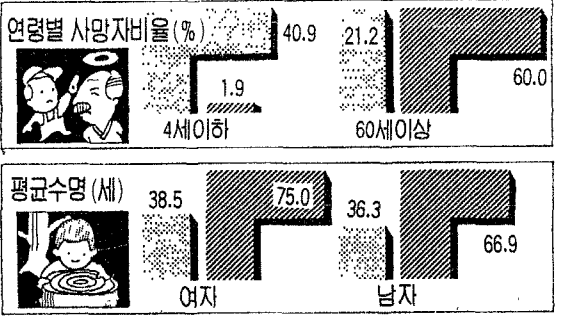
국민경제의 불수성을 감당하던 차기 무역역조가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정인임을 보여준다. 당시 주요 수출품목은 쌀·비료·銅·大豆 등이었는데 쌀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50%에 달했다. 주요수입품목은 면직물·전선·철강 등을 주로 일본에서 들여왔으며,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는 특히 쌀(1천9백62만원)을 많이 수입했다.

35년 서망 6천여곳

우리의 고유의 전통교육기관인 교육은 로 볼 수 있는 서망의 1920년대 초 반까지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일본의 조선교육령선포로 보통학

세이전 결혼

36.3-女 38.5세



교가 공식 초등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출가시작, 1922년 2만4천1백93개이던 서망수가 1935년의 이르러서는 6천8백34개로 크게 감소했다.

1936년 당시 공립학교교직원연구회를 보면, 보통학교(현재의 국민학교)는 한국인 교사가 64.6%로 비교적 많았으나, 보통보통학교(현재의 중학교)에는 8.1%에 불과해 학년이 높아질수록 일제의 식민지교육이 침투했음을

35년 교역액 12억여원... 무역적자 1억원

을 보여준다. 한국인 교사의 월급은 일본인교사의 50~60% 수준인 51원인데, 당시 쌀 3가마를 살 수 있는 수준이었다.

물가 및 소득

일제의 침략은 독립전쟁이 본격화되던 1938년 당시 조사한 소비자물가를 보면, 전자의 물자부족으로 공산품가격이 큰 폭 상승을 보이 고 있다. 당시 정전대전무후행양·신의주 등 9내도시를 대상으로 94개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이 전년 대비 18.2%의 물가 상승을 기록했는데, 주로 의류·장식품·연료 등의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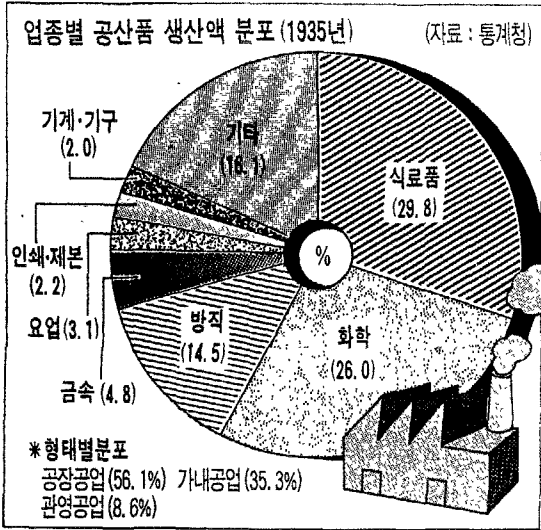
당시 근로조건을 보면, 한국인의 일본인에 비해 임금이 더 많이 하던 서도, 임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했다. 1937년 2분기의 공장일당주사(50인이상) 46개업종 대상)는 한국인 숙련공의 경우, 남자는 하루 평균근로시간이 일본인보다 1시간 많았, 9.55시간이었으나, 하루 평균 임금은 절반수준인 0.87원에 불과했다.

통계청관계자는 '조선 통계시보가 총독부관리들에 의해 전횡해 일제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도 없지 않지만 당시 경제·사회 각 분야의 통계를 해설자료와 함께 수록하고 있어史料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承仁培기자〉

1935년 평균수명 男 36·女 38세

30年代「朝鮮통계시보」발견 화학제



193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상을 재현해 볼 수 있는 통계자료가 공개돼 관

심을 끌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한 고서소장으로부터 인수한 「朝鮮통계시보」 1930년 3월 항간호부터 1933년 12월호의 13회 간행된 2권짜리 정인한 11부의 『경제통계』 18호에 1930년도의 「사회조사」인 「대한의 자립을 위한 사회조사」가 실려 있다. 193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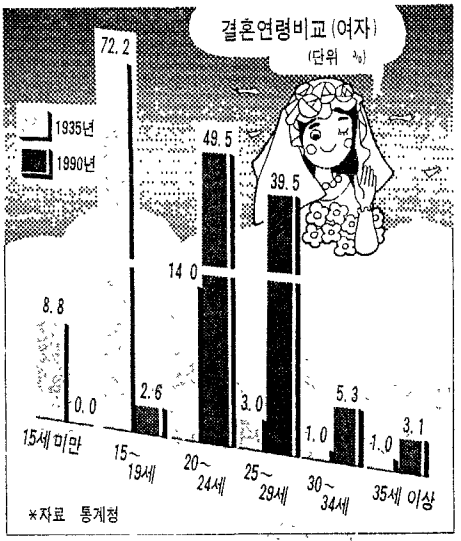
南北 인구 2천 289万

연국세조사(현재의 인구조사)를 계기로 조선총독부 관방문서과산하에 설치된 조선통계협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통계자료라고 할 수 있다. 조선통계시보에 나타난 1

제한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가 2백 56만 9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함경북도가 85만 3천명이로 사람이 가장 적은 지역이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 여자의 81%가 19세이전에 결혼한

930년대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개해 준다. 인구 1933년 9월 1일 기준으로 2백 289만 2천 289명이로 9월 1일 현재의 인구가 9백 60만 1천 4백 4백 명의 3분의 1이 증가했다(약 2배)이다. 인구의 48%인 44만 9천 명이 「대한의 자립을 위한 사회조사」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8·8%인 14세이전의 어린이는 한 것이었다. 「대한의 자립을 위한 사회조사」를 할 수 있었다. 최초의 경제통계자료로 1930년대 48%의 증가폭과 1933년 48%의 증가폭이 일치한 점이 특징이다. 1933년의 사회조사의



연과 순수자녀율이 18%로 떨어진 것이 눈에 띈다. 특히 1990년 15~19세의 순수자녀율은 0.0%로 떨어졌다. 1935년 15~19세의 순수자녀율은 2.6%로 나타났다. 1990년 20~24세의 순수자녀율은 49.5%로 나타났다. 1935년 20~24세의 순수자녀율은 14.0%로 나타났다. 1990년 25~29세의 순수자녀율은 39.5%로 나타났다. 1935년 25~29세의 순수자녀율은 3.0%로 나타났다. 1990년 30~34세의 순수자녀율은 5.3%로 나타났다. 1935년 30~34세의 순수자녀율은 1.0%로 나타났다. 1990년 35세 이상의 순수자녀율은 3.1%로 나타났다. 1935년 35세 이상의 순수자녀율은 1.0%로 나타났다.

이같은 통계는 출생률의 감소와 사망률의 증가로 인한 인구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 특히 1990년 15세 미만의 인구는 0.0%로 나타났다. 1935년 15세 미만의 인구는 8.8%로 나타났다. 1990년 15~19세의 인구는 2.6%로 나타났다. 1935년 15~19세의 인구는 8.8%로 나타났다. 1990년 20~24세의 인구는 49.5%로 나타났다. 1935년 20~24세의 인구는 14.0%로 나타났다. 1990년 25~29세의 인구는 39.5%로 나타났다. 1935년 25~29세의 인구는 3.0%로 나타났다. 1990년 30~34세의 인구는 5.3%로 나타났다. 1935년 30~34세의 인구는 1.0%로 나타났다. 1990년 35세 이상의 인구는 3.1%로 나타났다. 1935년 35세 이상의 인구는 1.0%로 나타났다.

賃金은 日人の 절반

1977년 9월의 5.0%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특히 1990년 15~19세의 월임금은 8.8%로 나타났다. 1935년 15~19세의 월임금은 0.0%로 나타났다. 1990년 20~24세의 월임금은 49.5%로 나타났다. 1935년 20~24세의 월임금은 14.0%로 나타났다. 1990년 25~29세의 월임금은 39.5%로 나타났다. 1935년 25~29세의 월임금은 3.0%로 나타났다. 1990년 30~34세의 월임금은 5.3%로 나타났다. 1935년 30~34세의 월임금은 1.0%로 나타났다. 1990년 35세 이상의 월임금은 3.1%로 나타났다. 1935년 35세 이상의 월임금은 1.0%로 나타났다.

자 66.9세(여자 75세)과 비교할 때 평균수명이 짧다. 1990년 15~19세의 평균수명은 75.0세로 나타났다. 1935년 15~19세의 평균수명은 75.0세로 나타났다. 1990년 20~24세의 평균수명은 75.0세로 나타났다. 1935년 20~24세의 평균수명은 75.0세로 나타났다. 1990년 25~29세의 평균수명은 75.0세로 나타났다. 1935년 25~29세의 평균수명은 75.0세로 나타났다. 1990년 30~34세의 평균수명은 75.0세로 나타났다. 1935년 30~34세의 평균수명은 75.0세로 나타났다. 1990년 35세 이상의 평균수명은 75.0세로 나타났다. 1935년 35세 이상의 평균수명은 75.0세로 나타났다.

1990년 15~19세의 월임금은 8.8%로 나타났다. 1935년 15~19세의 월임금은 0.0%로 나타났다. 1990년 20~24세의 월임금은 49.5%로 나타났다. 1935년 20~24세의 월임금은 14.0%로 나타났다. 1990년 25~29세의 월임금은 39.5%로 나타났다. 1935년 25~29세의 월임금은 3.0%로 나타났다. 1990년 30~34세의 월임금은 5.3%로 나타났다. 1935년 30~34세의 월임금은 1.0%로 나타났다. 1990년 35세 이상의 월임금은 3.1%로 나타났다. 1935년 35세 이상의 월임금은 1.0%로 나타났다.

1990년 15~19세의 월임금은 8.8%로 나타났다. 1935년 15~19세의 월임금은 0.0%로 나타났다. 1990년 20~24세의 월임금은 49.5%로 나타났다. 1935년 20~24세의 월임금은 14.0%로 나타났다. 1990년 25~29세의 월임금은 39.5%로 나타났다. 1935년 25~29세의 월임금은 3.0%로 나타났다. 1990년 30~34세의 월임금은 5.3%로 나타났다. 1935년 30~34세의 월임금은 1.0%로 나타났다. 1990년 35세 이상의 월임금은 3.1%로 나타났다. 1935년 35세 이상의 월임금은 1.0%로 나타났다.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단위:개, 명, %)

	사업체수				종사자수			
	1986년	1991년	구성비	증감률	1986년	1991년	구성비	증감률
전 산업	1,676,609	2,118,247	100.0	26.3	8,856,648	11,356,078	100.0	28.2
농림업·수렵업·임업	702	1,120	0.1	59.5	19,694	25,891	0.2	31.5
광업	2,655	2,650	0.1	-0.2	92,777	62,933	0.6	-32.2
제조업	218,952	298,493	14.1	36.3	3,290,035	4,231,080	37.2	28.6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971	929	0.0	-4.3	36,738	41,209	0.4	12.2
건설업	23,384	49,820	2.3	113.1	598,630	780,297	6.9	30.3
도·산·해 및 숙박업	1,005,331	1,210,114	57.1	20.4	2,452,759	3,074,863	27.1	25.4
운수·창고 및 통신업	22,401	24,850	1.2	10.9	456,250	548,611	4.8	20.2
금융·보험·부동산업	80,670	102,920	4.9	27.6	614,881	918,614	8.1	49.4
서비스업	321,543	427,351	20.2	32.9	1,294,884	1,672,580	14.7	29.2

統計廳 91년産業センサス 발표

事業體 전국 2백11만 8천여개

전국에 있는 사업체수는 지난 9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2백11만 8천 2백47개로 나타났다. 86년 이후 5년간 44만 1천 6백 38개(26.3%)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기간중 사업체종사자수는 8백85만 6천 6백48명에서 1천1백35만 6천78명으로 2백49만 9천4백30명이 늘었다. 91년 통계청은 지난 91년 7월 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면접조사를 통해 전국 모든 사업체들에 대한 산업별 지역별 부문별 고용상태를 조사 분석한 「1991년 총사업체통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1년 이후 5년주기로 실시되는 제3회 91년 총사업체통계조사는 국내 사업체관련 통계조사의 근거자료가 되고 있으며 법인사업체가 아닌 農家 및 漁家, 국가직영의 사업체, 국제 및 외국기관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따르면 국내사업체들은 지난 5년간 큰 대외대규모화를 나타냈고 산업구조도 고도화와 서비스화 현상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됐다.

91년의 산업별 사업체수 현황을 보면 도산매트를 제외하고 보면 59.5%, 제조업(36.3%), 서비스업(3.2%) 등도 30% 이상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광업 및 전기·가스·수도업이 각각 0.2%, 4.3%씩 감소, 대조를 보였다. 농업업, 사업체수의 증가는 휴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위탁영농회사 가 증가한 데다 임업개발 회사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5년새 26% 증가 : 建設業 가장 많이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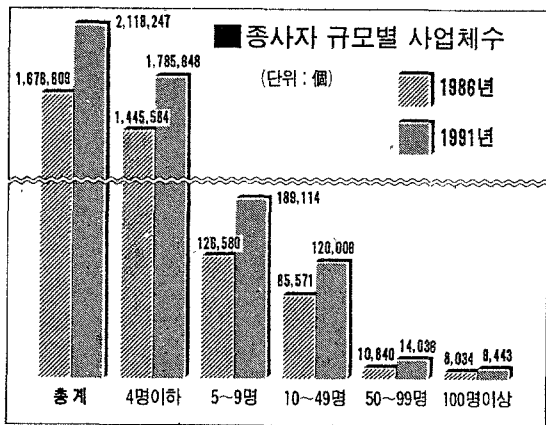
종사자수는 1천1백35만명 제조업 37% 증

7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면접조사를 통해 전국 모든 사업체들에 대한 산업별 지역별 부문별 고용상태를 조사 분석한 「1991년 총사업체통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1년 이후 5년주기로 실시되는 제3회 91년 총사업체통계조사는 국내 사업체관련 통계조사의 근거자료가 되고 있으며 법인사업체가 아닌 農家 및 漁家, 국가직영의 사업체, 국제 및 외국기관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따르면 국내사업체들은 지난 5년간 큰 대외대규모화를 나타냈고 산업구조도 고도화와 서비스화 현상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됐다.

91년의 산업별 사업체수 현황을 보면 도산매트를 제외하고 보면 59.5%, 제조업(36.3%), 서비스업(3.2%) 등도 30% 이상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광업 및 전기·가스·수도업이 각각 0.2%, 4.3%씩 감소, 대조를 보였다. 농업업, 사업체수의 증가는 휴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위탁영농회사 가 증가한 데다 임업개발 회사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사업체규모별로는 4인 이하 규모인 사업체수는 91년 기준으로 1백78만 5천 6백48개로 84.3%를 차지했고 1백명 이상 사업체는 9천4백43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종사자수만 놓고 보면 1백명 이상 사업체가 3백57만 7천4백66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4명 이하 사업체는 2백26만 5천 8백25명(8.0%)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수와 종사자수의 증가율을 보면 5~9명 규모 사업체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49.4%, 49.8%로 가장 높고 다음은 10~49명 규모(40.2%), 38.2%이다.

▲林振奎 기자 ▼



91년 5명 미만 사업

「91년 총사업체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사업체 수(농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개인택시·개인용달차량·제인)는前回조사시점

57%가 사업체

인 86만(1백67만6천6백9개)에 비해 26.3%가 증가(전년 4.8%의 증가)를 보였으며 총사업체 수는 86만(85만9천9백89개)보다 28.2%가 늘어난 110만 5천 1백 개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산업체 사업체(제조업)는 2백 2천 4백 7개(전년 1백 13.1% 증가)에 이르고, 서비스업은 1백 13.1%의 증가로 16.1%의 비중을 차지하며, 농림수산업은 9.3%의 비중을 차지

91년 7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는 2백11만8천2백47개이며 이들사업체의 종사자는 총 1천1백35만6천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전체인구 중 58.3%가 5명 미만의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사업체 수는 5.69%의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증가가 1%가 도소매업·숙박업·제조업의 전체 사업체의 44.6%의 증가를 차지하는 등 전체 사업체의 50.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통계청 발표 「91년 총사업체 통계調査」

산업별 사업체수

	사업체 수(개)				종사자 수(명)			
	86	91	구성비(%)	증감률(%)	86	91	구성비(%)	증감률(%)
전 산업	1,676,609	2,118,247	100.0	26.3	8,856,648	11,356,078	100.0	28.2
제조업	702	1,120	0.1	59.5	19,694	25,891	0.2	31.5
건설업	2,655	2,650	0.1	-0.2	92,777	62,933	0.6	-32.2
서비스업	218,952	298,493	14.1	36.3	3,290,035	4,231,080	37.2	28.6
농림수산업	971	929	0.0	-4.3	36,738	41,209	0.4	12.2
도매업	23,384	49,820	2.3	113.1	598,630	780,297	6.9	30.3
소매업	1,005,331	1,210,114	57.1	20.4	2,452,759	3,074,863	27.1	25.4
숙박업	22,401	24,850	1.2	10.9	456,250	548,611	4.8	20.2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80,670	102,920	4.9	27.6	614,881	918,614	8.1	49.4
서비스업	321,543	427,351	20.2	32.9	1,294,884	1,672,580	14.7	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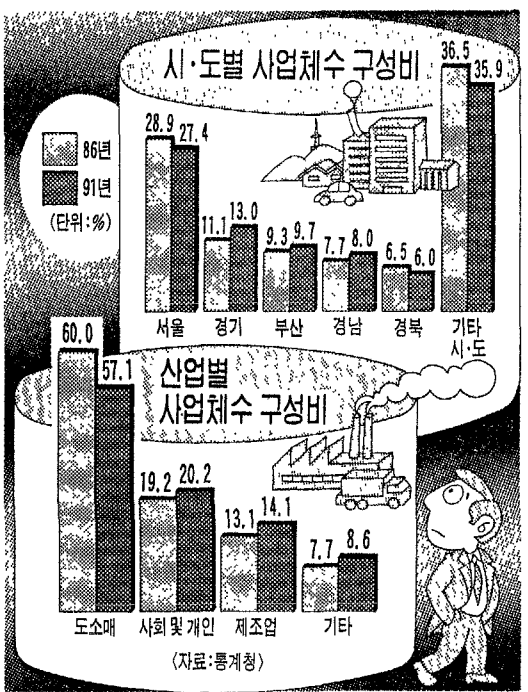
體 84%

4%의 비제조업 부문 중
가운데 나타났다.
종사자수로 보면 금
공·보험·부동산업 사
업서비스업종이 5년간
49.4%의 증가(8.4%)
평균 5.36명으로 86

본의 5.29명(86년 5.15명)보다 25.6% 증가한 6.4명(86년 5.1명)으로 14.2명(15.0명)으로 9.7% 증가했다. 3.2명(86년 2.5명)으로 27.7% 증가했다. 2.4명(86년 2.0명)으로 20.0% 증가했다. 1.1명(86년 0.9명)으로 22.2% 증가했다. 0.8명(86년 0.7명)으로 14.3% 증가했다. 0.6명(86년 0.5명)으로 20.0% 증가했다. 0.4명(86년 0.3명)으로 33.3% 증가했다. 0.3명(86년 0.2명)으로 50.0% 증가했다. 0.2명(86년 0.1명)으로 100.0% 증가했다. 0.1명(86년 0.0명)으로 무한정 증가했다.

본의 84.8%(86년 82.2%), 5.9%(86년 8.9%), 7.6%(86년 10.0%)로 2.3%포인트(2.8%)의 증가를 보였다. 이 중 제조업의 비중은 38.3%(86년 38.5%)에 불과한 반면 1백명 이상 사업체는 전국에 9천4백43개(86년 8천34개)로 전체 사업체의 0.4%(86년 0.5%)에 불과하지만 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5%에 이른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종 몰려 증가율은 건설·제조업順 높아



<그림 : 朴春奘기자>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중소기업의 27.4%, 충청사자의 32%가 몰려 있으며 다음으로 경기·부산 등의 순이다.
5년간에 비해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증대된 점이 인접한 수도권과 함께 제조업 비중이 13.1%에서 14.1%로 7.6%포인트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86년 43.5%에서 91년 44.6%로 1.1%포인트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 49.4%에서 50.9%로 1.5%포인트 증가했다. 1.1%포인트 증대된 반면 도평균

사업체가 전체의 6.7%에 그쳐 대부분이 비법인 형태며 지역별로는 상용종사자가 69.5%, 자영업주 및 無給가족종사자가 23.2%임시 및 일일고용자가 5.8%에 달한다. 전체 사업체 종사자 중 남자가 61.5%, 여자가 38.5%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종과 판매자보다 영자의 비중(12%)이 더 높다. <朴春奘기자>

87~91년 全國사업체 26% 증가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91년)
 <단위=개, 명, %>

산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업	2,118,247(26.3)	11,356,078(28.2)
농림어업	1,120(59.5)	25,891(31.5)
제조업	2,650(△0.2)	62,933(△32.2)
건설업	298,493(36.3)	4,231,080(28.6)
서비스업	929(△4.3)	41,209(12.2)
건설업	49,820(113.1)	780,297(30.3)
제조업	1,210,114(20.4)	3,074,863(25.4)
서비스업	24,850(10.9)	548,611(20.2)
제조업	102,920(27.6)	918,614(49.4)
서비스업	427,351(32.9)	1,672,580(29.2)

※()는 86년 대비 증감률

호황 "建設業 2배 늘어" 종사자數도 28% "경중"

통계청 발표

총 2백11만 8천개 91년 현재
 지난 87년부터 91년 사이 전국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각각 30% 가까이 증가했으며, 특히 건설업은 113% 증가한 49,820개의 업체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조업은 0.2% 감소한 2,650개의 업체를 형성했으며, 서비스업은 4.3% 감소한 929개의 업체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취업자 수의 28%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86년 대비 6.3%가 증가한 것이다.

부러 5만 개다. 실시한 조사 결과, 건설업은 113% 증가한 49,820개, 제조업은 0.2% 감소한 2,650개, 서비스업은 4.3% 감소한 929개, 기타업종은 11.5% 증가한 1,300,858개, 총 2,118,247개다. 종사자수는 28% 증가한 1,135만 6,078명이다. 이는 86년 대비 6.3%가 증가한 것이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취업자 수의 28%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86년 대비 6.3%가 증가한 것이다.

또 이를 사업체와 종사자 수를 비교하면, 86년 대비 1천 35만 6천 명(28.2%) 증가한 1,135만 6천 명이다. 이는 86년 대비 6.3%가 증가한 것이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취업자 수의 28%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86년 대비 6.3%가 증가한 것이다.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은 113% 증가한 49,820개, 제조업은 0.2% 감소한 2,650개, 서비스업은 4.3% 감소한 929개, 기타업종은 11.5% 증가한 1,300,858개, 총 2,118,247개다. 종사자수는 28% 증가한 1,135만 6,078명이다. 이는 86년 대비 6.3%가 증가한 것이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취업자 수의 28%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86년 대비 6.3%가 증가한 것이다.

업종별 사업체수 증가율을 보면, 건설업은 113%, 제조업은 0.2%, 서비스업은 4.3%, 기타업종은 11.5% 증가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취업자 수의 28%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86년 대비 6.3%가 증가한 것이다.

社說

91년 총사업체統計와 수도권集中

정부가 막대한 비용과 인력, 그리고 특히 최근에 와서는 컴퓨터등 각종 최신의 장비와 기재까지 동원해서 사회현상에 관한 여러가지 統計를 조사·분석해서 공개하는 목적은 그로부터 뭔가 배우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노력하자는데 있다. 통계가 단지 통계를 위한 통계에 불과하여 별 쓸모없이 발표와 동시에 그냥 파일속에 묻혀버리곤 한다면 그런 통계는 차라리 조사할 가치가 없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91년 총사업체 통계조사」결과는 역시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중요한 몇가지 점을 示唆한다. 입장과 시각에 따라 여러 갈래의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내용은 사업체의 과도한 수도권 集中현상과 규모의 零細性 등 두가지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수도권집중문제로서 당국은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뭔가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하고 싶다.

每5년마다 실시되는 이 조사는 지난 81년에 처음 한 이래 86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가 되는데 최근 5년사이 전국의 사업체수는 26.3%, 종사자수는 28.2%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총211만개가 넘는 사업체의 44.6%와 1,135만 종사자의 50.9%가 서울 인천 경기

에 몰려 있다. 게다가 5년전과 비교해서 더욱 심해졌다. 86년7월1일 현재 조사때는 그 비율이 각각 43.4%와 49.4%였다.

정부가 지금까지 수도권집중억제, 지방분산이다, 혹은 지방화시대니 하며 별의별 소리를 다하고 정책도 그 방향으로 돌아가는것 처럼 말해왔으나 정책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말과 행동이 달랐다. 최근에만 해도 서울에 超고층빌딩건축을 무더기로 허가한걸 보면 정책과 言行 두가지에 다 문제가 있다.

종사자수로 파악된 사업체규모의 영세성은 정책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필요성을 환기한다. 통계는 종사자가 단 1명뿐인 사업체만도 전체의 36.2%나 되고 5명미만까지가 84.3%, 10명미만 93.2%, 100명미만까지 치면 99.6%라고 밝히고 있다.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가 5.4명인데 8.7명인 이웃 일본과 비교해볼직 하다.

정부는 먼저 그동안의 수도권인구및 경제활동 집중억제 내지 분산정책이 완전 실패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야 한다. 집중을 막을 재간이 없다면 그런 속에서 사람이 살고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 공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통계조사가 쓸모가 있게 된다.

오락·문화서비스業 급증세

91년 도산매·서비스 통계조사

유단사업의 도산매업 및 음식·숙박업종도 도산매업과 식음료의 사업체수 구성비 늘었다. 반면 산매업과 숙박업의 구성비도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서비스업종에서는 영화·전자오락·실비디오·테이프·대요일 등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체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민중영화·문화영화

과에서 밝혀졌다.

통계청이 전국의 도산매업 및 음식·숙박업과 각종 서비스업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7월 1일 현재 전국의 도산매업 음식점·숙박업 전체 사업체수는 1백19만7천여개에 달한다. 이 중 사업체수는 이전 조사 당시(86년)의 99만5천

도산매업 및 음식·숙박업소에 그나마 전체 종업원수는 86년의 2백37만3천여명에서 91년의 2백0만여명으로 2백96만7천여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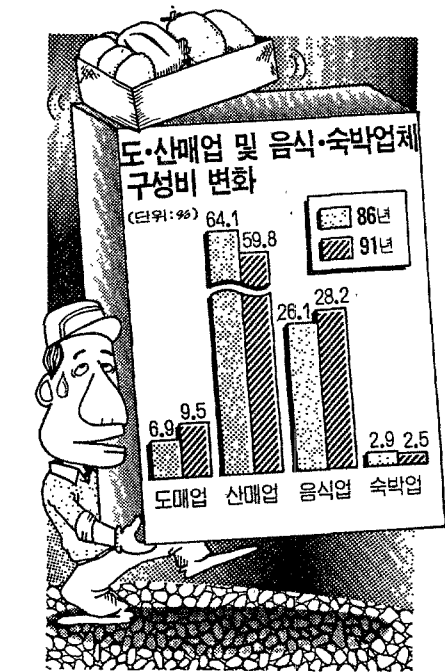
이 부문의 총판매액은 91년 1백19조6천6백여원으로 조사돼 86년도보다 1백43%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판매액은 도산매업 52조7천여원(44.1%), 산매업 52조3천여원(44.6%), 음식업 12조3천여원(10.6%)을 보였다.

5년새 72.6% 늘었다

도매·식당 비중늘고 산매·숙박업소 줄어

개인서비스업은 사업체수의 증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한 통계청의 23일 발표한 '91년 도산매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결과'

전역개보다 20% 증가한 것이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전국 의 서비스업 사업체수는 34.5% 늘어난 41만4천여업체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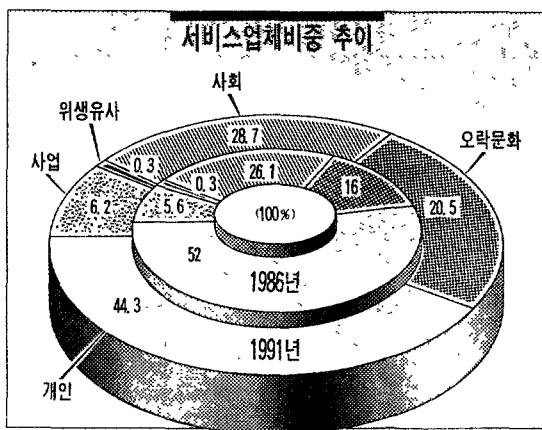
에 1백68.8%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86년과 91년사이의 도산매 및 음식·숙박업의 업종별 사업체수 구성비 변화를 보면 도매업(6.9→9.5%)과 음식업(21.6→28.2%)이 늘어난 반면 산매업(59.8→26.1%)과 숙박업(2.9→2.5%)은 줄어 들었다. 산매업의 사업체수 증가율은 12.4%로 도산매 및 음식·숙박업의 사업체수 증감률을 20%를 크게 밑돌았다.

산매업체 대형화...백화점·슈퍼 88%증가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의 증가는 비디오 테이프 대여업체의 대표적인 증가로 서비스업의 구성비도 점차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의 사업체수 증가율은 34.5%로 나타났다. 이는 86년 3만4천여개에 불과했던 것이 91년 4만5천여개로 늘어난 것이다. 서비스업 사업체를 조사자가 규모별로 보면 총사업체가 1명인 사업체가 18만4천여개(44.5%), 2~4명인 사업체가 17만5천여개(42.4%)를 차지해 증가자 규모가 4명 이하인 업체 사업체가 86.9%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朴熙均기자>

서비스업종사자 180만명

統計廳, 작년조사 업체 34% 증가 41만개



「오락·文化」伸張率 최고

정보산업등 事業서비스종사자 83% 급증

국민들의 소비패턴이 다양화되면서 비디오·레이프 대요양 등 오락 및 문화 서비스업체가 크게 늘고 정보산업 등 사업서비스종사자가 급증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종근 대학과 함께 백화점 슈퍼마켓들이 늘어나 소매업체들이 점차 대량으로 추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91년도 소매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작년 7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체수는 41만 4천 6백 19개로 지난 86년 조사 때보다 34.5%인 10만 6천 3백 33개(늘어났다).

이들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수는 86년의 1백 33만 8천 1백 26명에서 1백 79만 6천 7백 84명으로 3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업체가 벌어들인 수입은 32조 1천 3백 18억 1천 9백 40만원으로 18조 5천 9백 40만원(1백 36%) 증가했다.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치면 사업체 수와 종사자수는 6.1%씩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매년 21%가 늘어난 셈이다.

업종별로는 보건, 국장, 박물관, 도서관 등 오락 및 문화 서비스업체가 비디오 테이프 대여업체 등이 크게 늘었다.

문화서비스업체가 비디오 테이프 대여업체 등이 크게 늘었다. 86년보다 72.6%나 증가, 가장 큰 폭의 신장세를 보였다.

또 종사자수는 변호사, 회계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발명품 사업서비스업은 조 사 및 정보관리업종의 증가세가 가장 많이(83.1%) 늘어났다.

이와 반해 세탁 미용, 유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은 사업체 수와 종사자수가 14.5%와 14.7%의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업종별 연간 수입액은 사업서비스업과 오락 문화 부문

화 서비스업이 6조 2천 7백 62억 4천 2백 41원 4조 1천 1백 93억 3천 8백 41원으로 각각 2백 44.8%와 2백 44.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작년 7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소매 및 음식 숙박업체는 1백 19만 7천 5백 17개로 86년에 비해 20만 2천 1백 62개 20.3%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수는 2백 96만 7천 96명(100%)으로 59만 3천 3백 1명(가) 증가했으며 판매액은 86년보다 70조 5천 9백 40원 1백 43.8%가 늘었다.

1백 19조 6천 6백 50억 원이 늘었다.

특히 소매업체는 86년보다 12.4% 늘어나 1백 19조 6천 6백 50억 20.3%의 매출을 올렸으며 합소매점이 88.1%나 증가해 소매업체들이 갈수록 대량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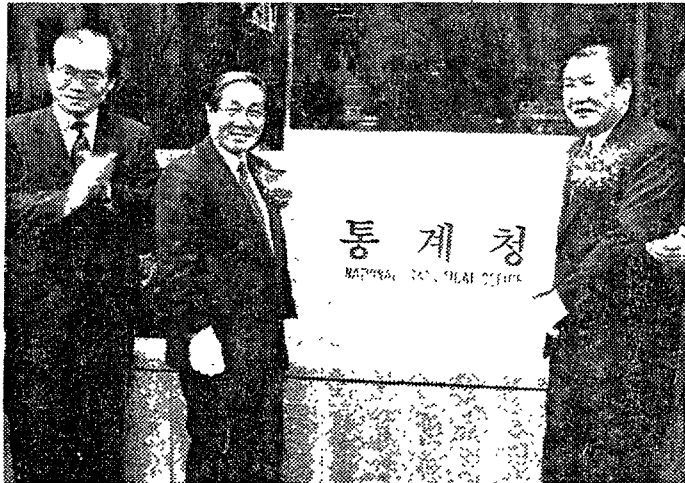
〈孫熙植기자〉

92.1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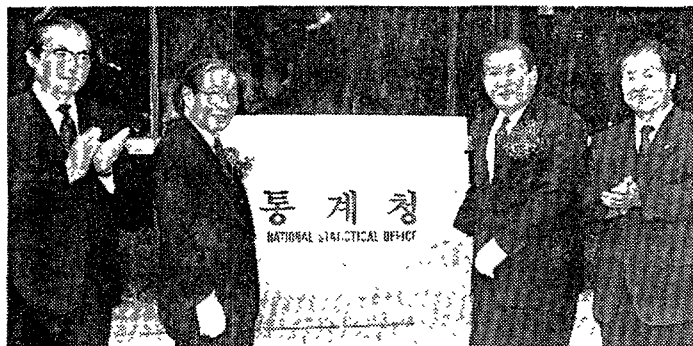
새廳舍 입주 통계청은 24일 서울역삼동 한타빌딩으로 이전한 새청사에서 崔珥圭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왼쪽 두번째)과 閔泰亨통계청장(오른쪽 두번째)등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가졌다. <吳承桓기자>

92.11.25



통계청 역삼동 이전 30년동안 있었던 서사에서 강남구 역삼동 한타빌딩으로 이사한 통계청이 24일 하오 崔珥圭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왼쪽 서두번째)·閔泰亨통계청장(오른쪽 세번째)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청사 현판식을 가졌다. <李皓禎기자>

92.1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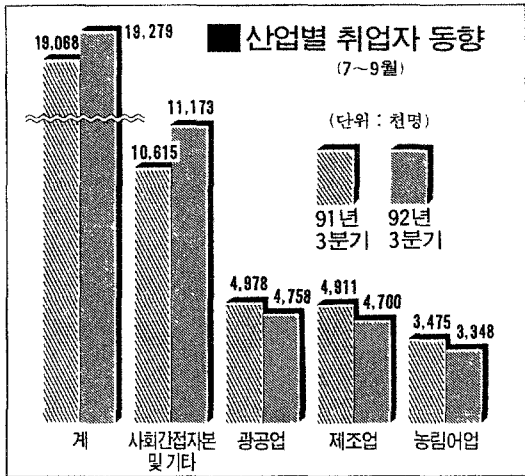


통계청, 새청사 入住 통계청은 24일오후 새로 입주한 강남구 역삼동소재 「한타빌딩」청사에서 崔珥圭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왼쪽두번째)과 閔泰亨통계청장(왼쪽세번째)등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辛景勳기자>

經濟활동인구

4년만에減少

3분기 0.1% 不況심화 失業8.5% 늘어



지난 3분기중 15세이상 인구가운데 경제활동의 참여한 인구(경제활동참여자)의 비율이 88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기대비 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의 실질경제성장률 3.1%와 함께 韓國經濟가 어려운 국면에도 접어들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또 3분기중 경제활동인구가운데 취업자수는 1천 9백27만9천명으로 지난 해 동기대비 1.1%(21만 1천명)증가에 그친 반면, 실업자수는 43만5천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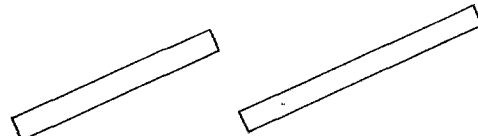
로 8.5%(3만4천명)나 증가, 우리경제가 산업활동의 부진에도 고용흡수력을 상실해가지 않나하는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92년도 3.4분기(7~9월)지역별 고용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중 경제활동인구는 1천9백71만4천명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1.3%(24만5천명) 증가했으나, 경제활동인구참가율은 61.8%로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했다.

이같은 경제활동인구참가율의 하락은 섬유및 신발업계의 불황으로 여성노동인력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출된데다, 15세이하 인구의 감소도 신규경제활동인구의 참여가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취업자 동향을 보면 농림어업취업자의 경우 3분기중 3백34만8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7%(12만7천명)감소하고 광공업도 4백75만8천명으로 4.4%(22만)나 줄어든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는 1천1백17만3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3%(55만8천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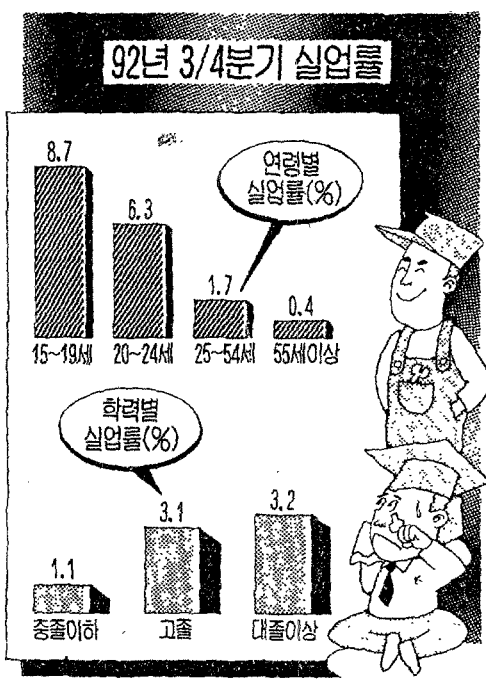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반영, 3분기중 실업률이 늘어난 가운데 연령이 낮을수록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19세의 경우 전체실업률 2.2%보다 훨씬 높은 8.7%를 보였다.

반면에 25~54세의 실업률은 1.7%, 55세이상은 0.4%를 보여 연령별 실업률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대 이하 취업난을 반영, 大卒 이상의 실업률이 3.2%인 반면 中卒이하인 1.1%에 불과해 고학력일수록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젊은층失業 여전히 높다

20세미만 실업률 8.7%... 평균의 4배



산업활동부진에 따라 실업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고학력 자제층과 저연령층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있다.

또 광주 부산 대구 지역의 업체가 심각한 불황을 맞고 있어 실업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의 27일 발표한 「3.4분기 광역경제협력체」에 따르면 15~19세 학연대별 실업률은 8.7%로 27만 1천 9백 27명(1천 9백 27만 1천 9백 27명)이 증가했다. 이는 21만 1천 명(1.1%) 이하로 고졸 이하가 각각

제조업종사자 21만명 감소

3분기 고용동향 서비스업취업자 5% 늘어

1%이 증가한 반면 실업자는 43만 5천 명(8.5%)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만 4천 명의 늘었다. 실업률도 1.1%, 3.1%인데 비해 대졸 이상은 3.2%로 나타났다. 고학력층수록 실업률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업률 증가와 관련,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제조업 취업자 수가 21만 1천 9백 27명(1.1%) 감소했다. 이는 21만 1천 9백 27명(1.1%) 이하로 고졸 이하가 각각

1.1%, 3.1%인데 비해 대졸 이상은 3.2%로 나타났다. 고학력층수록 실업률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업률 증가와 관련,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제조업 취업자 수가 21만 1천 9백 27명(1.1%) 감소했다. 이는 21만 1천 9백 27명(1.1%) 이하로 고졸 이하가 각각

실업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 동안 국내 노동시장은 제조업 취업자가 4만 700명(0.7%)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취업자가 1만 700명(0.3%) 증가했다. 이는 21만 1천 9백 27명(1.1%) 이하로 고졸 이하가 각각

1.1%, 3.1%인데 비해 대졸 이상은 3.2%로 나타났다. 고학력층수록 실업률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업률 증가와 관련,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제조업 취업자 수가 21만 1천 9백 27명(1.1%) 감소했다. 이는 21만 1천 9백 27명(1.1%) 이하로 고졸 이하가 각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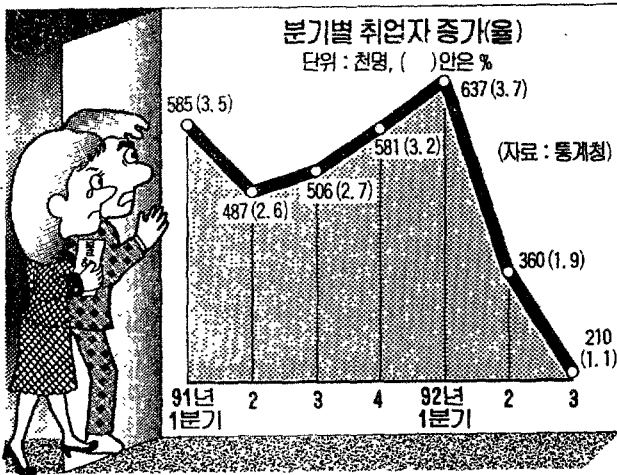
3.4분기 중 평균 실업률과 출하액 지난해 동기 대비 2.7%와 4.7%가 증가하는 데 비해 제조업은 15.5%나 떨어졌다.

1~9월 누계로만 지난해 동기 대비 생산이 6.4% 줄었다. 8.2% 채고 13.5%의 이익을 올렸다.

이 기간 생산총액의 81%가 수출로 이뤄졌고 88%의 2.9%의 이익을 올렸다.

부동산시장도 8월 말 현재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의 매매가격이 6.0%의 비모전률로 생산총액의 4.4%가 감소했다.

성장 둔화... 실업자 8% 증가



3분기 고용둔화
올들어 실업률 둔화와 함께, 취업자 증가율이 낮아지고 실업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제조업 취업자가 줄어 들고 서비스업 부분이

비대해지는 고용구조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특히 15~24세의 자연령증과 대졸이상 고학력자 계층이 높은 실업률을 기록, 산업인력 공급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통계청은 27일 발표한

자연령·고학력 더 심각

경제활동 참가율 61.8%... 4년만에 감소

「3분기 지역별 고용둔화」
을 통해 「지난 759천명 경제활동인구는 1천9백71만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만5천명(1.3%) 증가했다」면서 이에 따라 15세이상 전체 인구(3천1백91만6천명)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인 61.8%가 4년만에 감소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난해에 비해 0.1% 포인트가 낮아진 61.8%를 기록, 지난 88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경제활동인구가운데 취업자는 1천9백27만9천명으로 작년 동기(1천9백11만1천명)에 비해 21만1천명(1.1%) 증가한 반면, 실업자는 43만5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3만4천명(8.5%) 줄었다. 경제실업률 둔화에 따라 고용률수익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난해에 비해 0.1% 포인트가 낮아진 61.8%를 기록, 지난 88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경제활동인구가운데 취업자는 1천9백27만9천명으로 작년 동기(1천9백11만1천명)에 비해 21만1천명(1.1%) 증가한 반면, 실업자는 43만5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3만4천명(8.5%) 줄었다. 경제실업률 둔화에 따라 고용률수익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社說

고용정책의 주목해야 한다

고용정책이 심상치 않다. 취업자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 및 농업의 취업자수가 줄고 서비스업의 취업자수가 늘고 취업구조가 불안정하고 젊은층 특히 대학생이 고용시장의 실탈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3·4분기 중 취업자가 작년 동기 대비 21만명 1.1% 증가한 데 그친 반면 실업자가 43만 5천명 0.9% 증가한 데 비해 3·4분기 중 8.5%나 늘었다. 특히 실업자수의 증가속도가 훨씬 빨랐다. 그 부분이다. 이 외에도 실업률의 구조적 변화가 0.1% 포인트 높아진 2.2%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년 고용수용은 소폭이지만 실

업률 지역별 또는 연령별 고용정책이 또한 심상치 않다. 지역별로는 대구 지역의 실업률이 3.5%인 것을 비롯해서 서울과 울산이 2.9%,仁川이 2.8%,光州가 2.7%, 대전이 2.5% 등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아 대도시의 노인 인구가 모두 27만명에 이르렀다.

산업별로는 농업의 취업자수가 작년보다 3.7%나 줄고 광공업은 0.9% 증가한 데 4.4%나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연령별로는 17세 이하의 청년 20~24세의 실업률이 6.3%로 화력발전과 대중이상의 실업률이 3.2%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용정책의 불행 일차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경기변동의 파급효과에 따라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3·4분기는 경제성장률이 3.1%로 떨어진 특수한 기간이다. 4·4분기 들어 성장수치가 다소 개선되고 경기회복되리라는 분석이고 보면 고용상태도 호전되리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3·4분기의 고용정책의 변화는 다른 일차적 현상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성장전략 하에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인 아날지 갈증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용률안과 실업률상승이 농업과 광공업의 취업감소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 특별한 주의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제조업부분의 성장률은 지난 89년 이후 한자리수로 떨어져 있으며 3·4분기 제조업의 생산가동률은 74.4%로 89년의 73.2% 이후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수치가 제조업의 경쟁력과 관계있는 것이라면 제조업부분의 취업감소는 구조적인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고용인근로자의 입장에서는 所得의 원천이자 생산참여의 방편이며 사회적 의무부담의 수단이자 안정의 기반이다. 고용의 불확실성과 고용구조의 국민경제의 생산성과 생산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용안정성 확보 후 하고 고용에서 불안정하다면 국민의 삶과 국민경제의 활력과 사회의 안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 기업근로자 모두가 고용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社說

올해 3·4분기 경제성장률이 3.1%로 크게 떨어져 적지않은 충격을 준데 이어 失業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7일 발표한 「3·4분기 지역별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이상의 인구중에서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인 경제활동참가율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0.1%포인트 떨어진 61.8%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진 것은 88년 3·4분기이후 4년만의 일로서 경기침체가 일정한 時差를 두고 고용사정에 반영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용사정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1%포인트 높아진 2.2%로 여전히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이어서 과연 고용사정이 나빠졌는지 의심할수도 있다. 그러나 실업률통계의 작성기준을 살펴보면 사태파악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경우 일주일에 한시간 이상만 일하면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는 기준자체에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일용직근로자, 自營業의 가족근로자, 시간제근로자(part-timer) 등이 직장을 잃으면 실업자대신 경제활동의 뜻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실제보다 낮아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비록 지금은 비경제활동 인구일지라도 경기회복이 되거나 고용조건이 나아지면 언제든지 경제활동인구로 돌아설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부근로자들이 대표적인 예이며 경제활동인구에는 포함되나 노동인구에서 제외되는 노인들도 많은 경우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식적인 실업률에 관계없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교해서 올해 3·4분기중에 취업자증가율이 1.1%에 그쳐 84년 3·4분기이후 8년만에 가장 낮았으며 실업자수가 8.5% 늘어난 43만5,000명에 이르렀다는 사실만으로 고용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할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고용사정이 좋지못한 까닭은 무엇인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으나 경기침체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은 역시 통계청이 발표한 「3·4분기 시·도별 광공업 활동동향」을 봐도 알수 있다. 이기간의 제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9% 늘어난데 그쳐 지난해 3·4분기의 9.7%는 물론 올해 상반기의 8.6%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에 머물렀다.

업종별로 보면 조선이 31.1% 성장한데

이어 석유정제, 산업용화합물, 승용차등의 호조로 중화학공업은 6%의 견실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섬유, 의복, 신발등 경공업생산액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4.4%나 줄었다.

재화용도별로 보면 자본재와 원자재의 생산은 각각 3.9%, 8%씩 늘었으나 소비재생산은 3.9%가 줄었다. 특히 같은 자본재라도 건설경기외의 위축에 따라 건설장비생산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9%나 줄어들었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경공업부문의 마이너스성장은 제조업부문의 고용감소로 이어져 제조업취업자수는 2·4분기보다 4.3%가 줄어든 470만 명에 그쳤다.

고용사정이 나빠진데는 경기침체에다 설비자동화및 고용형태의 변화등에 따른 영향이 겹쳐진 탓도 있다. 지난 87년이후 급증하는 노사분규와 임금상승에 대비하여 기업의 설비자동화 투자는 꾸준히 이어졌으며 상당수의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바꾸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따라서 경기침체가 악화되면 일용직근로자부터 일자리를 잃기 쉽다는 분석은 3·4분기중 제조업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가 약 4%정도 준데 비해 일용직 근로자는 16.8%나 준데서도 뒷받침된다고 하겠다.

전반적으로 사무직에 비해 생산직이,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이,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사정이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제조업과 생산직 근로자의 고용이 줄었다는 것은 생산성향상 때문이라기 보다는 생산기반의 해외이전과 경기침체의 탓이 큰것으로 보이며 자칫 「산업의 空洞化」 현상까지 걱정된다.

또한 제품의 품질향상과 관계없는 자동화투자는 경기침체에 따라 고용감소의 측면만 커진다는 점도 주목해야겠다.

이밖에 정규직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된것은 다행이지만 전체 취업자수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상당하며 앞으로도 계속 커진다는 점에서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취업정보센터를 크게 확장하고 재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실업보험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특히 정책수립과 대책마련에 기초가 되는 통계작성기준및 정확도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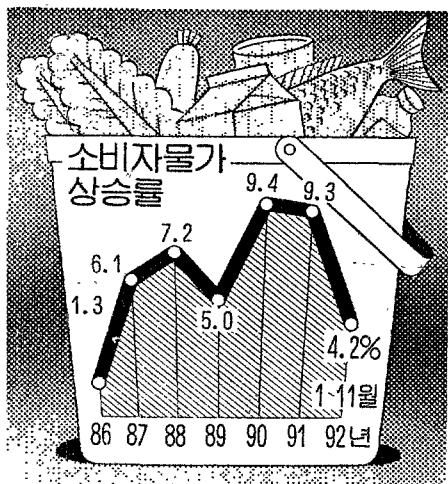
경기가 좋을때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치며 값싼 해외노동력을 불법으로 마구 들여온 뒤편에는 엄청난 수의 불완전 취업자, 잠재실업자가 있다는 사실을 꼭 바로 알아야겠다.

鑛工業생산둔화와 失業증가현상

소비자物價 두달째下落

11月 0.5%내려 올 4.5%상승...6年만의 最低 전망

도매물가도 2%線서 安定될듯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86년 이후 가장 낮은 4%선에 그칠 전망이다. 2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중 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지난 10월중을 처음으로 0.1% 내린 데 이어 11월중에도 0.5%가 내렸고 도매물가는 11월중 0.3%가 하락, 지난 8월 이후 연속 4개월째 내림세가 계속됐다.

이로써 소비자물가는 올들어 4.2%, 1년전에 비해선 4.4%의 하락세를 각각 기록하며 올해 인

간은 4.5% 안팎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서 최근 6년사이엔 최저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9.4%, 91년 9.3% 상승에 비해 절반수준에 해당한다.

또 도매물가는 올들어 11월까지 1.5%, 1년전에 비해 2.1%포인트 상대로 연간으로는 최근 3년중 가장 낮은 2%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11월중 소비자물가가 이처럼 큰폭 내린 것은 농축수산물(3.5%)나 하락한데다 工産品(0.2%)은

공요금(0.2%) 집세(0.4%) 개인서비스요금(0.5%) 등의 상승률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장바구니물가를 말해주는 채소과일 생선류 등 新鮮식품물가는 11월중 8.4%가 내려 작년말에 비해 8.1%의 하락세를 나타내었고 쌀 식고기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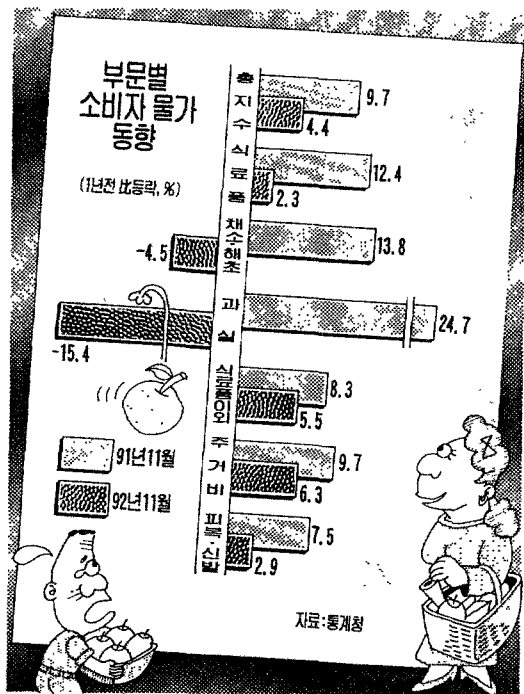
추등 20개 기본생활물품값은 올들어 11월말까지 5.5%상승에 머물렀다. 품목별로는 사과 밀감 상추 등이 30%이상, 시금치 당근 감 등이 20%이상의 내림세를 나타냈고 반면에 수입쇠고기는 가격인상으로 인해 12.4%가 올랐

소비자 물價 두달째 하락

싸진 농산물 값 덕분

都賣는 6년來 최저... 年4%線 가능할 듯

통계청·韓銀 발표 1월 합락세를 보이면서 1월 처음으로 4%선에 진입했다. 소비자물가가 연속 2개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년전과 비교한 상승률이 4%도 안 되는 4.4%로 떨어졌다.



<그림=金龍吉기자>

1년전과 비교하면 4.4% 상승했다. 11월은 11월 중 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0.5% 하락, 11월까지 4.2% 하락했다.

4% 상승하는데 그쳤다. 11월 중 소비자물가 하락률은 11월 중 35.9%, 사과(부사) 34.7%, 감 23%, 배는 13.7%가 떨어지는 등 과일류 가격이 전월비 평균 19.7%(1년전비 15.4%) 떨어진 것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 이같은 과일류의 가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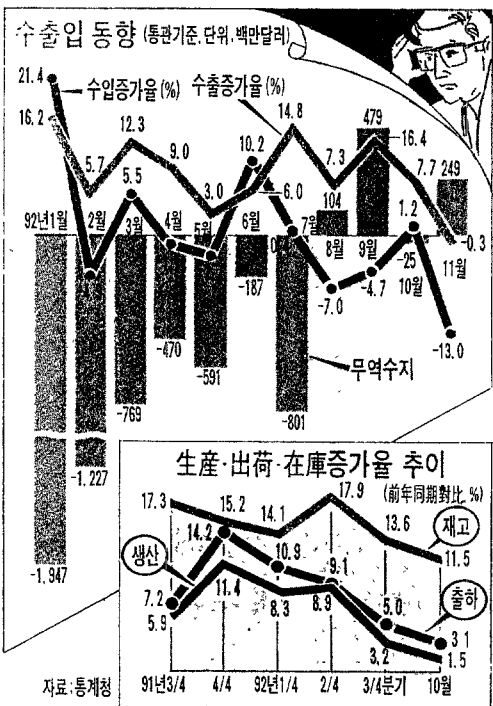
락으로 농산물 가격은 전월비 5.7%가 떨어졌고 이는 소비자물가를 0.6%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11월의 소비자물가 하락폭이 0.5%였으므로 농산물 가격하락이 없었다면 소비자의 물세를 보였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11월 중 다른 부문의 소비자물가는 연평균이 전월비 1.3%, 개인서비스 요금이 0.5%, 집세가 0.4% 올랐지만, 비탄해 공산품(0.2%), 공공요금(0.2%), 농도소품의 물세를 보였다. 한편 11월 중 도매물가도 농산물값이 전월비 6.4%(기여도 0.75%)

景氣 회복 기미 안 보인다

11월 輸出 0.3% 감소... 生産·出荷 둔화

최근 産業 동향
 11월 수출이 지난해 9월 이후 1년 2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고, 10월 생산과 出荷, 설비투자 등이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 하는 등 4분기에도 경기가 후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수출이 내수경기의 급속한 둔화 속에서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왔던 수출마저 가라앉고 있어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1일 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수출은 66

억 5천 4백만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0.3% 감소했고 10월 생산과 出荷 역시 前年同期 對比 1.5%와 3.1%에 그쳐 산업활동의 둔화가 오수출시장에서 밀리고 있다.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부진은 家電과 情報機器 등 미국의 주력수출품이 美國·EC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밀리고 있다.
 기 때문으로 이같은 추세가 12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또 설비투자의 선형이다. 또 설비투자의 선형 지표인 설비투자계수(총생산액 대비)가 20.6%로 감소한 것을 비롯, 기계류



내수출하(선박제외)와 기계류 수입액이 각각 8.4%와 41.9%씩 줄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투자 부진이 이어졌다.
 이 외에도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산업동행지수)가 93.0을 기록, 연초(99.6) 이래 내리 10개월째 하락하고 있는 등 4분기 중에도 경기가 쉽사리 살아나기는 어렵울 전망이다.
 다만 10월 중 在庫가 前月에 비해 0.7% 줄어 기업들이 경기 부진에 따른 재고조정을 끝내고 있는 데다 제조업 평균가치가 76.7%로 지난 8월의 74.4%를 마이너스 상승 추세를 보이는 점이 경기 회복에 대한 한가닥 희망을 갖게 한다.

또 2~3개월후의 경기 상황을 예고하는 경기선형지수는 前月보다 1.4% 높아진 1백 84.5를 기록, 내년 초부터는 경기가 서서히 회복세로 접어들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한편 11월 중 수출이 감소세로 반전한 것과 함께 수입 역시 10월 중 1.2% 증가에서 11월에는 13%의 감소로 크게 줄어 무역수지(수출입분)는 2억 4천 9백만 달러의 흑자를 보였

구조적「축소均衡」우려

우리경제가 일시적인 경기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인 「축소均衡」이며 안정되고 있는가, 아니면 구조적 위기가 제기되고 있는가.

유제수지구 출자를 내외 통근비 안정세를 보장 전체적인 균형의 안정을 위한 것이냐, 생산과 부자 수출을 신장시키기 위한 자가 출자를 먼저 추진해나가는 것이냐, 신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을 촉진하는 것이냐, 이 세 가지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의 물가에 보면 11월 중 수출이 증가되자 생산자물가도 증가되나 수입이 늘면 수입이 늘자 생산자물가도 증가된다. 이는 생산자물가 상승과 수입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는 구조적 불균형을 나타내 준다. 이는 수출이 늘고 수입이 늘고 생산자물가가 상승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나타내 준다. 이는 수출이 늘고 수입이 늘고 생산자물가가 상승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나타내 준다.

輸出入·산업활동 동향 분석

11월 중 수출이 8.4분기 실적에 비해 11.1% 증가한 11.1억 달러로, 수입은 11.1% 증가한 11.1억 달러로, 수출이 수입을 초과한 구조적 불균형을 나타내 준다.

11월 중 수출이 8.4분기 실적에 비해 11.1% 증가한 11.1억 달러로, 수입은 11.1% 증가한 11.1억 달러로, 수출이 수입을 초과한 구조적 불균형을 나타내 준다.

11월 중 수출이 8.4분기 실적에 비해 11.1% 증가한 11.1억 달러로, 수입은 11.1% 증가한 11.1억 달러로, 수출이 수입을 초과한 구조적 불균형을 나타내 준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2월에도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에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物價안정·收支개安定化시책이經

최근의 물가 상승은 구조적인 불균형에 기인한다. 수입이 늘고 수출이 늘고 생산자물가가 상승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나타내 준다.

필요제(반도체) 등의 다른 차질보다 中國과 대한 조출수 확보(4천만 달러) 확보가 관건이다. 수출이 늘고 수입이 늘고 생산자물가가 상승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나타내 준다.

도제를 첨단제품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심해지고 있다. 수출이 늘고 수입이 늘고 생산자물가가 상승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나타내 준다.

용이 1.3%로 6분만에 가장 큰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올 연간이론도 수출증가율이 당초 전망(10.6%)의 크게 못미쳐 2%이내로 「결정」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적자 개선도 예상외로 미흡하다. 그러나 수출촉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중론이다.

망인 일단 빛나길 공산이 커진 셈이다. 경제기획원은 10월 산업생산이 1.5%증가에 그친데 대해 「정기가 향상 추세에 있는 것임」 사설이나 전월 대비해 부분적으로 회복조짐이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선 10월중 산업생산과 수출이 8·9월의 비례와 간 회복되는 기미를 나타내는데는 긍정적 분점되고 있다. 산업생산과 수출이 전월보다

선불구 外形 위축 濟전체 「발육」 저지

5%에 그친 것은 국내경기가 여전히 전체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내수 위축이 반영된 것이다.

각각 3.2%, 4.8%증가했으며 작년 동기 대비해 1.5%증가의 그친 것이 지난해 10월의 18.4%만 수출 증가액의 대항 反縮減인 반면 해외수입도 전월보다 2%이상 증가했다. 또 전월 대비해 1.5%증가한 수출은 전월 대비해 1.5%증가한 수입을 초과한 것이다. 그러나 수출증가의 폭이 전월 대비해 1.5%증가한 수입을 초과한 것이다. 그러나 수출증가의 폭이 전월 대비해 1.5%증가한 수입을 초과한 것이다.

제조업가동률이 9월의 76%에서 10월중 76.7%로 높아진 점도 「재고조정이 끝나면서 가동률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풀이하고 있다.

< 92년 산업활동 동향 추이 >
(단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1분기	2분기	3분기	8월	9월	10월
제조업가동률	8.3	8.9	3.2	1.4	1.8	1.5
수출	10.9	9.1	5.0	3.3	3.2	3.1
수입	14.1	17.9	13.6	15.3	13.6	11.5
수출액	7.9	5.4	3.9	3.2	3.4	4.2
수입액	11.0	3.5	-4.6	-3.4	-7.2	-3.9
수출액/수입액	-4.0	-1.7	-13.1	-31.7	62.8	-5.4
수출액/수입액	-15.5	-36.6	-25.4	-19.0	-25.1	45.8

제조업가동률이 9월의 76%에서 10월중 76.7%로 높아진 점도 「재고조정이 끝나면서 가동률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풀이하고 있다.

경기침체 계속...4분기回復전망 빛나

8월의 3.7%증가로 반전한데 이어 9월과 10월도 3.3%대의 폭이 증가세를 보였다. 주택건설업가동률도 4.4분기중 증가폭이 추가돼 전월전 동기보다 85.6%나 증가했다.

이와 함께 민간부분의 설비투자 감소세도 다소 완화됐고 소비감소폭도 약간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회원의 분점이다.

한마디로 현재 경기사이클 상저점에 있거나 초반간 상승곡면이로 진입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회복국면이 언제부터 시작될지에 대해서는 기획원측도 자신있게 단정하지 못하는 처지다.

더욱이 일부 전출규제를 해제한 조치와 같은 정부측에서 전망까지 별다른 정책변화를 내 놓지 않음 등으로 반경기가 개선될지 불확실한 경기가 회복에 일단 기대하기 어렵다. 大體로 12월의 경제정책의 동태상태가 지속되는 한 경기회복을 점치기 어렵다. <朴永均기자>

生産・輸出 큰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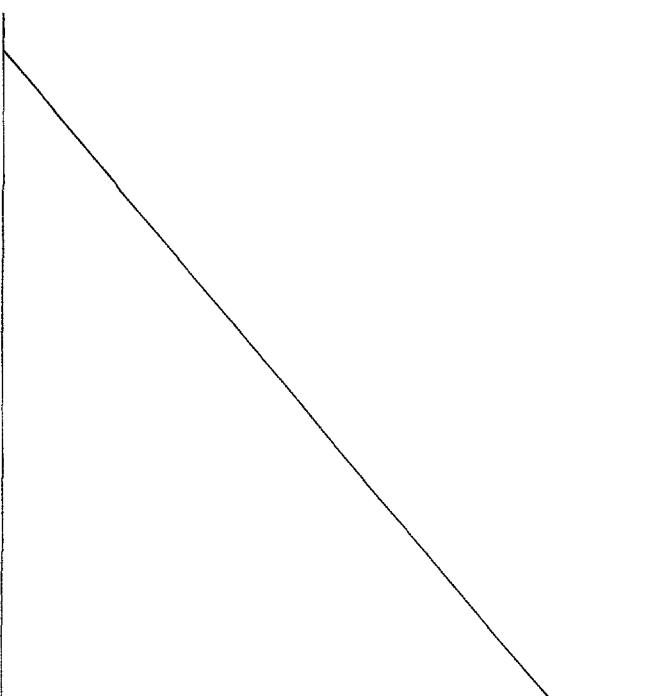
社說

우리경제의 현상
 화를 볼 때, 정부와
 업체가 커다란 시차
 차이를 보이고 있다
 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성장률의
 급격한 저하가 빠지
 는 기쁨의 환호나
 타대는 것이라 하지
 만, 과잉 추세가
 지속되어 있는 것은
 의 기조를 바꾸지 않
 겠다는 것이 의
 부를 강조한다. 한편
 3.4분기 2.4분기 이후
 80%의
 성장률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한편, 기업은 아직
 이렇다. 기업은
 한 수백억 원의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은
 10% 이하의
 이익을 올리고
 있다.

태환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정부가 경제정책회의의
 7%의 성장률 목표를
 3.4분기까지 평균
 5.5%의 성장
 률을 기록한 데다
 4.4분기의 전
 반까지 회복세를
 정부수반부처가
 발표한 10월 중
 10월 중 1.5%
 에 대한 3개월
 평균 1%대의
 2.4분기 이후
 80%의
 성장률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것이다.
 신진기구의
 제정, 다만
 의 성장률
 이한 자세
 것이다.
 정부가
 는 사이에
 갈 수밖에
 리를 들



란도 大選을
 최 보기도
 경제개혁
 기업의 투
 여건을 개
 노력을 추
 업계와 정
 職의 차이
 는 시점

30년만에 廳숨아전
통계청장 閔泰亨씨

인터뷰



통계청이 지난 30년간 국가 통계 산실이었던 서울 종로구 경운동청사를 떠나 강남구 역삼동 한타빌딩으로 이사했다. 비록 남의건물에 전세든 것이

말했다. 경운동청사는 61년에 지어졌고 입주당시의 직원도 2백50여명. 직원수가 지금은 1천3백여명으로 늘어났다. 통계청은 한타빌딩으로 옮기면서

의 통계자료가 생산되고 있고 인구주택총조사 총사업체통계조사등 3~5년주기로 하는 통계가 있다. 통계청이 없으면 경제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을 세울수 없을 정도다.

『통계는 국가정책수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인데도 국민들에게 잘알려지지않아 통계조사과정에서 협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통계가 부정확하면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마련이고 그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閔청장은 현재의 국가통계업무는 좀더 전문화되고 조사기관이 통일되어야한다고 말했다. <金榮晚기자>

새분위기서 더정확한 통계 기대

조사때 국민 적극협조 절실

긴하지만 통계청직원들은 새분위기에서더 정확한 통계업무를 약속하고 있다.

閔泰亨청장(54)은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진만큼 더 정확한 통계를 대해도 좋습니다』라고

경운동청사는 전산실과 연수원으로만 쓰도록했다.

통계청이 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중요하다. 통계종류만 38종에 이르고 있다. 월별로 10종, 연간별로 8종

100세 생활 4명 5명

여자가 90%로 4백14명 최고령 1백13세 박할머니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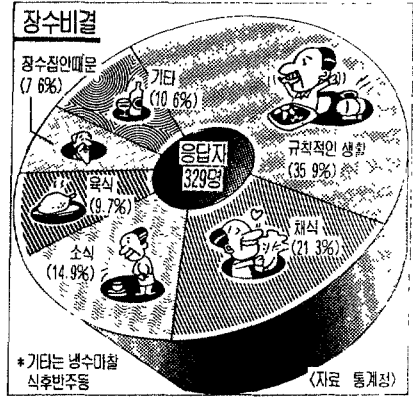
성경 벗삼아 113세 여릴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나라 최고령자 박할머니(113)는 지금도 머리맡에 성경과 찬송가책을 두고 음송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노환으로 눕기전까지만 해도 수색감리교회 명예권사로 전도활동을 해왔다. 손자 2명과 증손자 8명, 현손자 11명을 두고 있으며 현재 큰 손자 황문주씨(62·서울상암동419)와 함께 살고 있다. <尹汝弘기자>

85년보다 62% 1백77명 늘어
우리나라에서 1백세의 타였다. 상록수를 누리고 있는 사람도 현재 생존해 있던 우리 4백59명의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령자는 서울마

90년 11월 통계
포구상암동에 살고 있는 박씨 할머니도 올해 만 1백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3일 통계청이 지난 90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실제 나이를 조사한 1백세 이상 고령인구 현황에 따르면 1백세 이상 고령인구는 4백59명으로 5년 전인 지난 85년보다 62% (1백77명) 증가했다. 특히 고령인구는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기술 발달과

거주지 서울 80·전남 67·경기 62명 순
전남 무안·북제주 각 9명 長壽村
禁酒 61% 禁煙 70% 菜食 위주 21%



합계 1백세 이상 인구는 10만명의 0.6명에서 85년의 0.7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90년 조사에서는 1.06명으로 나타났다.

1백세 이상 고령자를 남녀별로 보면 여자가 4백14명으로 전체의 90.2%를 차지했고 남자는 45명으로 9.8%의 비율이었다. 이들 중 1백세 이상 고령자로 집계된 전체의 88.3%인 46명(51.5%)은 1백세 이상인 10%인 1백10세 이상인 5명(11.7%)이었다. 거주지별로 보면 서울 80명(20.0%), 경기 62명(15.5%), 전남 67명(16.5%), 전북 33명(8.1%), 부산 22명(5.5%), 대구 10명(2.5%), 광주 7명(1.7%), 강원 4명(1.0%)이었다.

다만 전남(전남)은 267명 전(전남)은 11명(4.1%)이었다. 또 시군구별로 보면 전남 무안과 제주 북제주의 각각 9명이 가장 많았고 순천·영암·무안·북제주·곡성·담양·영암·무안·북제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전체인구의 1.1%인 285명이다. 전남의 88.3%인 46명(51.5%)은 1백세 이상인 10%인 1백10세 이상인 5명(11.7%)이었다. 거주지별로 보면 서울 80명(20.0%), 경기 62명(15.5%), 전남 67명(16.5%), 전북 33명(8.1%), 부산 22명(5.5%), 대구 10명(2.5%), 광주 7명(1.7%), 강원 4명(1.0%)이었다.

또 1백세 이상 고령인구의 54.7%는 과거와 다르지 않다. 출생 전 연령이 가장 높았고 14.8%는 과거와 비교된다. 지방간염과 당뇨병의 36.5%는 아직도 출생 후 얻었다. 장수비결을 보면 전체의 35.9%가 규칙적인 생활이라고 응답했고 이어 △채식(21.3%) △소식(14.9%) △육식(9.7%) 등의 순이었다. 또 장수 장인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6%로 그밖에 병수미할 식후만주음이란 대답도 0.9%와 0.6%였다.

식사는 대부분 86.4%이 하루에 세 번씩 정식으로 하고 있었고 전체의 89%가 아를 태면 면을 먹는다. 약물을 이용하지 않았다. 박 할머니는 1백세 이상 고령자 중 1백12세의 일부로서 (성기도 선남시수정)의 1백10세의 이산부(전남 순수군 해동면)에 고령자 12명까지가 모두 여자였다. 또 전남 순천·영암·담양·곡성·담양·영암·무안·북제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전체인구의 1.1%인 285명이다. 전남의 88.3%인 46명(51.5%)은 1백세 이상인 10%인 1백10세 이상인 5명(11.7%)이었다. 거주지별로 보면 서울 80명(20.0%), 경기 62명(15.5%), 전남 67명(16.5%), 전북 33명(8.1%), 부산 22명(5.5%), 대구 10명(2.5%), 광주 7명(1.7%), 강원 4명(1.0%)이었다.

5년새 62% 증가... 90%가 여자

통계청, 「고령인구 현황」 발표

통계청은 3일, 지난 90년의 인구추계 센서스를 기준으로 조사한 「1백세 이상 고령인구 현황」을 발표, 90년 11월 현재 1백세 이상 고령인구는 25,900명(모)로, 85년 11월 현재 15,900명(모)보다 62.8% 증가했다.

이들 고령인구는 1백세 이상 고령인구 1만 4,599명(모)과 1백세 이상 고령인구 1만 1,301명(모)로 나뉘었다. 1백세 이상 고령인구는 1백세 이상 고령인구 1만 4,599명(모)과 1백세 이상 고령인구 1만 1,301명(모)로 나뉘었다.

지난 90년말시 1백세 이상 인구가 3천2백23명으로, 인구 10만명당 비율은 2.61명에 달해, 한국(1.06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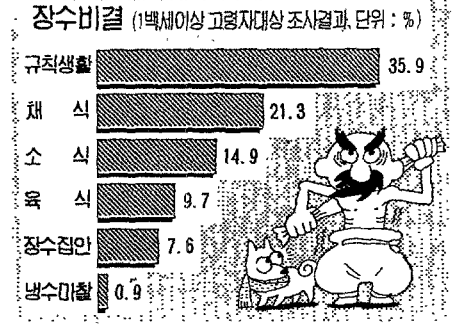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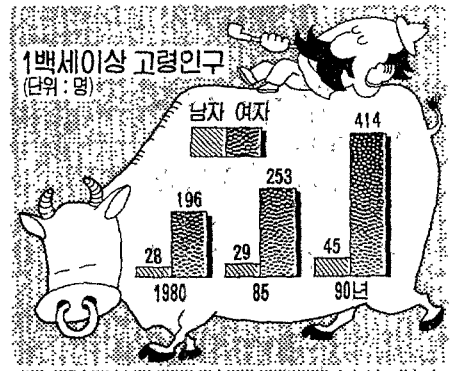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1백~1백4세가 최근 수년사이 급증했다. 1백세 이상 고령인구가 많은 일본은 지난 90년말시 1백세 이상 인구가 3천2백23명으로, 인구 10만명당 비율은 2.61명에 달해, 한국(1.06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들의 장수비결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규칙적인 생활」이 전체의 35.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체식(21.3%), 소식(14.9%), 육식(9.7%) 등이 꼽혔다. 육식(9.7%)은 육식을 많이 하는 것이 장수비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7%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의 노령화가 진전되면서 1백세 이상 장수를 누리는 고령인구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국내 고령자중의 90%는 여자이며, 1백세 이상 노인이 많이 사는 「장수마을」은 제주 북제주군과 전남 무안군. 이들의 장수비결은 규칙적인 생활과 菜食-小食등의 식생활 습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百세 이상 고령 인구

북제주-무안郡 9명씩 "장수마을" 비결은 규칙생활-채식-小食 꼽아



졌는데, 국민 생활수준과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명당 1백세 이상 고령인구도 80년 0.60명, 85년 0.70명, 90년 1.06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1백세 이상 고령자중에는 여자가 4백14명(90%)으로 대부분(92%)을 차지, 평균수명이 높고, 장수확률도 여자가 훨씬 높았다.

가장 많은 「장수 마을」은 제주 북제주군과 전남 무안군이었는데 각각 9명씩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서울 서대문구와 전남 고흥군(각 8명), 서울 강남구, 광주 서구, 전남 영광군(각 7명), 서울 성동구, 충청남도 홍성군, 전남 여천군, 제주 제주시(각 6명)의 순이었다.

이들의 장수비결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규칙적인 생활」이 전체의 35.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체식(21.3%), 소식(14.9%), 육식(9.7%) 등이 꼽혔다. 육식(9.7%)은 육식을 많이 하는 것이 장수비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7%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령자 女 113-男 106세

최고령자 113세(女)와 106세(男)는 전남 무안군에 거주하는 노인이다. 이 노인들은 1백세 이상 고령인구가 많은 「장수마을」인 무안군에 거주하고 있다. 이 노인들은 1백세 이상 고령인구가 많은 「장수마을」인 무안군에 거주하고 있다.

百歲이상 高齡者 국내 223명

지역별 현황과 長壽비결

우리나라에서 현재 내외가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麻浦區 上洞의 거주하는 박씨 할머니는 올해 만 1백3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1백세이상 고령인구의 長壽비결은 90세이상 노인층에서 조사한 1백세이상 高齡인구 현황에 따르면 90세이상 노인층에서 1백세이상 인구는 4백50명이며 이 가운데 2백50명이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1백세이상 인구의 비율은 지난 80년 0.6명에서 85년 0.7명, 90년에는 1.06명으로 크게 올랐다.

여자가 90%... 최고령 113세 할머니

서울이 最多... 술·담배 피하고 菜食

1백세이상 인구를 성별로 보면 여자가 90.2%를 차지, 남자에 비해 長壽한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0명(17.4%)으로 가장 많고 전남 67명(14.6%), 경기 62명(13.5%) 등의 순으로 長壽연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고 인구 10만명당 1백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제주도가 4.1명, 경북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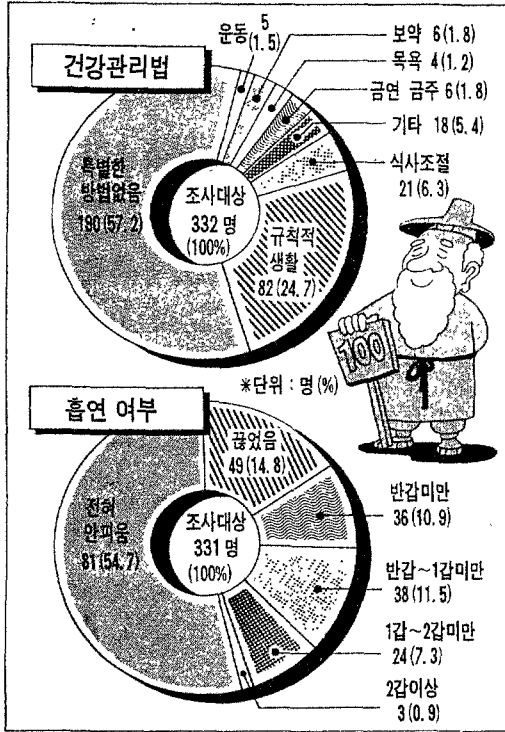
주요 특징적인 장수촌으로 서울의 구로구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3마을을 보면 조사된 3백50명중 60.8%인 2백20명이 전연 술을 마시지 않는 반면 매일 마시는 사람이 19명, 일주일에 2~4회 마시는 사람이 17명, 2~4회씩 마시는 사람이 2명이었다.

8%)의 과자 등이 피웠으나 술은 전혀 조사됐다. 전연 피우지 않는 사람이 57.2%가 조사된 유행했다. 지방이 되었다고 알려졌다. 24.7%는 구로동에서 생활하면서 6.3%가 식사조절을 통해 건강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1백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오래 사는 비결은 규칙적인 생활 때문이라고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았고 菜食이 21.3%, 小食이 14.9%로 나타났다.

이밖의 장수비결은 육식을 피한 사람이 9.7%, 원래 장수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이 7.6%였고 병사(2명) (6%)와 과식(2명) (2%) 등을 여러 가지로 비결이로 소개한 경우도 있었다.

전국 2백71명의 전체의 88%가 술을 피한 생활인 것으로 밝혀졌다. 과음은 10% 이하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음은 2.4%로 조사됐다.



특히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 가운데 전연 무연인 (9명)·제주 북제주군 (9명)·전남(9명)·충남(9명)·전북(9명) 등 1백세이상 고령인구가 많이 우리나라에서 전담·제주인생의 장수지역인 것 이라고 나타났다.

또 술·담배·육식을 피하는 생활양식은 장수인생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조사됐다.

조사대상 331명중 1백1명(33.5%)은 1백1명 이하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331명중 1백1명(33.5%)은 1백1명 이하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 金鐘秀 기자 >

社 說

대체없이 찾아온 「百壽시대」

백세장어의 수가 두백조식백만명 중 만
 명만 조사된 사실은 8월 11일 현재 1
 백세를 넘어 조사된 수만 45만·9
 자 4백1천이므로 모두 4백50만·9
 자 1만·9천·2백·8천명의 2·5%에
 5만·9천·2백·8천명의 1·5%에
 불과하다. 이와는 조사중 1백살 1
 백살은 조사된 8월 11일 현재 1백
 살이던 조사 수인 2백·8천·9백·9
 살까지 확대 한데 비하면 1백살인 1
 백살은 현재 1백살 1백·9천·9백·9
 살인 1백살 1백·9천·9백·9살이
 되었다.

백세 장수의 증가에 비하면 1백살은
 1백살 1백·9천·9백·9살이 1백
 살 1백·9천·9백·9살이 되었다.
 1백살 1백·9천·9백·9살이 1백
 살 1백·9천·9백·9살이 되었다.
 1백살 1백·9천·9백·9살이 1백
 살 1백·9천·9백·9살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1백살 장수의 증가에
 비하면 1백살은 1백·9천·9백·9
 살이 되었다. 1백살 1백·9천·9
 백·9살이 1백·9천·9백·9살이
 되었다. 1백살 1백·9천·9백·9
 살이 1백·9천·9백·9살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1백살 장수의 증가에
 비하면 1백살은 1백·9천·9백·9
 살이 되었다. 1백살 1백·9천·9
 백·9살이 1백·9천·9백·9살이
 되었다. 1백살 1백·9천·9백·9
 살이 1백·9천·9백·9살이 되었다.

1971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이 3.1%로 떨어졌지만 이 해인 3.1%로 떨어졌던 1970년 8월 3.4분기 이후 4연달로 경제성장률이 증가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71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이 1천9백71만 4천 명이며 전연평균 대비 24만 5천명(1.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12월 9천 2백 9천 3백 50명(0.3%)이 감소하였으나 전연평균 대비 19.8%로 전연평균 대비 0.1%포인트 증가하였다.

간접생산액에 보면 1971년 11월 1천 1백 9천 2백 9천 3백 50명이 증가하여 전연평균 대비 2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가 15백 5천 9백 90명에서 15백 6천 6백 90명으로 증가하여 전연평균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해 12월 15백 6천 6백 90명이었으며 전연평균 대비 1.1%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가 15백 5천 9백 90명에서 15백 6천 6백 90명으로 증가하여 전연평균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經濟活動人口 증가율 감소

1971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이 3.1%로 떨어졌지만 이 해인 3.1%로 떨어졌던 1970년 8월 3.4분기 이후 4연달로 경제성장률이 증가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1971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이 3.1%로 떨어졌지만 이 해인 3.1%로 떨어졌던 1970년 8월 3.4분기 이후 4연달로 경제성장률이 증가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張秉澆
(경제기획원 인력개발계획과장)

국가生産力 雇用力제고

이 비핵 경제의 2.5%로 더욱 높아졌다. 비경제활동인구가 이 해에 크게 줄어든다는 뜻이다. 경제활동인구가 15백 5천 9백 90명에서 15백 6천 6백 90명으로 증가하여 전연평균 대비 1.1% 증가하였다.

이 한편이며, 부수했기 때문
이러 하였다.

이런 현상은, 경제의 정
제활동참가율에서 보아 타
년 90년 47.0%에서 91년
에 47.0%로 돌아섰고 작년
10월 49.8%까지 올라갔던
경제의 정제활동참가율이, 11
월중의 지니코에의 49.3%
를 넘어 제 49.5%로 올라선 9월
중의 48.4%로 전년도에의
49.1%에 비해 0.7%포인트

떨어지고 계속 떨어졌으나
일정장 단로자가 전년 3-
5월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
속 떨어지지 않아, 이면 이런 추
세가 6월 이후 더욱 심화되
고 있다.

이처럼 일관되게 떨어졌
지만, 실업률에서 탈퇴한 경제인
의 수가 실업률의 증가로 연
결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
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 것
은 경제활동인구를 추가하고

인구로 집계되고 있어, 가 많
아도, 이를 반영할만한 정
정할 수 있을 것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인구 현실 실
업률이 과소 추계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짐작을 사
해진다.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의 발
화 현상이 장기적으로 정
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장기적으로 보면, 0.9
점적인 인구가 증가세가 0.9

은 경제의 생산활동 생산정
정정활동의 증가한, 여섯달의
정정생산률의 정정생산
정정생산률의 정정생산
정정생산률의 정정생산
정정생산률의 정정생산
정정생산률의 정정생산

이들은, 금융시장의 정정
정정생산률의 정정생산
정정생산률의 정정생산

정정생산률의 정정생산
정정생산률의 정정생산
정정생산률의 정정생산
정정생산률의 정정생산
정정생산률의 정정생산

주요요소 縮小의 미 위한 적정 성장 필요

미국 정부는 지난
경제수출의 가장 큰
내수증진을 위한 정책은, 주
중 소비 증가를 유도하는 데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수출을 늘리고, 가
속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 경제의 변화
다.
아merican 달러의 정정
OPEC의 정정 수출을
정정 수출을 늘리고, 가
속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수출을 늘리고, 가
속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수출을 늘리고, 가
속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男 73%
女 6%
男 85%
女 33%
흡연 飲酒
20세 이상

통계청 「92년 社會조사」

우리나라 20세 이상 남자의 84.7%, 여자의 33%가 술을 마시고 있으며 20세 이상의 남자의 73.2%, 여자의 6.1%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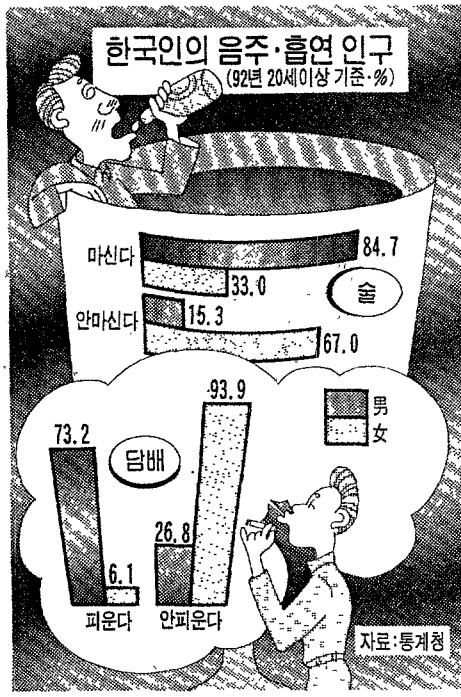
또 전국 가구의 76.5%가 풍요사만, 정수기에 갈라 마시는 아진도수 도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으며 16.5%는 약수를 마시며 2.3%는 생수를 마

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8월 통계청이 전국 3만 4천가구의 만15세 이상 전가구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매우 건강'이라고 한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의료·보건=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사람 중 86%는 1~1천원, 57.5%는 1~1만 원, 19.7%는 1~10만 원, 1.1%는 10만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환경=농사철의 농약 사용에 대해서는 46.2%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농약을 직접 쓰는 농민보다 도시지역이 더 높아 도시사람들이 이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나타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오염을 평가했을 때 63.9%가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과반수를 넘는다.



<그림=張甲鎭기자>

건강관리는 운동·食事조절·補藥으로

대상으로 조사한 「92 사회통계조사결과」에서 밝혀졌다. 다이어트, 주요 영양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흡연>=아파트와 아파트 인구는 86.6%, 48.3%에서 올해 57.9%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 2~4회」 「주간」의 패턴 「마지막」의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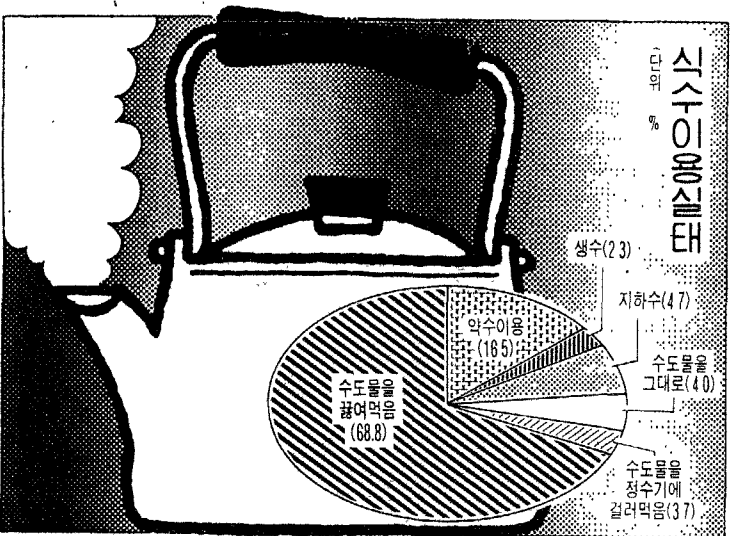
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3년 전 29.7%에서 올해엔 44.9%로 늘었다. 건강관리를 위한 방법으로는 운동(7%), 식사조절(7%), 보양(6.5%), 약(5.1%), 흡연(3.1%) 순으로 나타났다. 불면증의 유병률은 33.1%로 나타났다. 「소파기」를 사용하는 인구는 48.6%로 나타났다.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44.1%는 3년 전보다 증가해 1%포인트 상승했다. 「의류」에 대한 만족도는 4.5%포인트 상승했다. 「의류」에 대한 만족도는 4.5%포인트 상승했다. 「의류」에 대한 만족도는 4.5%포인트 상승했다.

원인이 의료비용과 다에서 불친절, 시설 부족, 치료비 상승으로 서비스의 질은 높아가는 경향을 보였다. <환경>=농사철의 농약 사용에 대해서는 46.2%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농약을 직접 쓰는 농민보다 도시지역이 더 높아 도시사람들이 이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나타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오염을 평가했을 때 63.9%가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과반수를 넘는다.

<鄭鐵根기자>

「吸煙」 「졸고」 「飲酒」 「늘었다」



92년 保健·환경부문 통계

우리나라의 흡연인구 비율은 조만간 줄고 있으나 을주 인구 비율이 높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그런데 흡연의 담배를 한

의 15세 이상 소아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밝혀졌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92년도 사회동

禁煙확산속「하루 거의 매일 마시는

국민의 건강과 생활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에 술에 거의 매일 마시는 주류도 흡연과 흡연과 흡연이다.
그런데 흡연의 담배를 한

제조사들과(보건·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흡연 인구는 86만 48,033명(88.57%)에서 92년은 87만 9,000명(89.6%)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그런데 흡연중 담배종류는 술에 마시는 것과 같은 88년 29.1%에서 92년 80.1%로 92년 담배종류의 비율 마시는 것과 같은 10.1%

국민 53.5%가 "건강의식"

統計廳, 국민 保健·환경분야 인식조사

우리국민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분야에 대한 인식은 과연 어떨까. 통계청은 지난 5월 전국 의 3만 4천개 표본가구의 15세이상 가구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보건·환경분야의 실태를 조사했다. 우선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46.5%가 건강하다(매우 건강 5.8%, 건강하면 40.7%)고 응답, 지난 89년의 54.8%에 비해 11.2%포인트, 건강하면 43.6%에 비해 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람은 지난 89년 29.7%에 불과했으나 92년에는 그 비율이 44.2%로 늘어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했다. 건강관리법으로는 운동이 1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식사조절(11.8%) ▲보약(7.8%) ▲목욕(6.9%) ▲담배·술 절제(2.8%) 등의 順이었다.

20세이상 성인가운데 흡연인구는 38.5%로 지난 89년의 39.3%에 비해 떨어졌고 특히 담배를 피우다가 끊었다는 사람이 89년의 5.9%에서 92년에는 6.5%로 늘어나 금연운동에 호응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89년보다 줄어드는 추세인데 각각 89년 75.4%와 7.6%에서 92년에는 73.2%와 6.1%로 감소했다.

흡연비율을 주요선진국과 비교하면 남자는 美國(31.5%), 英國(36%), 日本(61.2%)에 비해 크게 높은 반면 여자는 美國(27%), 英國(32%), 日本(14.2%)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음주인구는 지난 86년 48.3%에서 89년 57%, 92년 57.

수도물不信
남자 흡

9%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나 술을 마시는 횟수는 줄어들고 있어 술마시는 풍토가 바뀌고 있음을 반영했다.

남자의 84.7%와 여자의 33%가 평소 술을 마신다고 응답했으나 여성음주인구의 대부분(62.3%)이 한 달에 한 번 이하인 반면 남자들은 절대다수(83.4%)가 월 2회이상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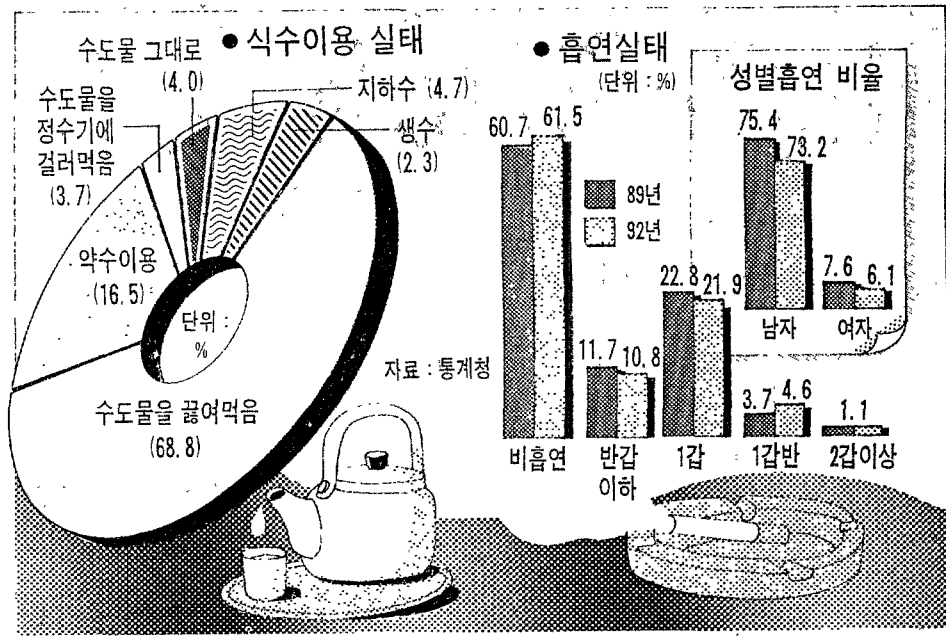
시고 있으며 이가운데 28.1%는 주 2~4회, 11.7%는 거의 매일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서비스가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지난 89년 15.3%에서 92년에는 9.1%로 줄어들어 의

한다고 응답했고 약수이용이 16.5%, 지하수 4.7%, 생수 2.3%등으로 나타났다.

수도물을 먹는 경우는 끓여 먹는 가구가 68.8%로 대부분이었고 3.7%는 정수기에 걸러 먹는다고 응답했으나 그냥 마

실제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오염정도에 대해서는 전체의 63.9%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역시 도시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59.1%로 농어촌(87.8%)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늘고 있으며 주요 불만이유로는 ▲불친절 (32.1%) ▲비용과다 (23.5%) ▲치료미흡 (20.8%) ▲시설미비 (11%) ▲지역편재 (10.8%)

신다는 응답도 4%였다. 도시지역에서 약수나 생수를 먹는 비율(19.7%)이 높은 반면 농어촌에서는 수도물을 그대로 마시는 경우(11.1%)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람은 54.6%인 반면 「노력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16.5%에 불과, 다수의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방법(복수 응답)으로는 ▲합성세제 줄이기(68.8%) ▲아외 쓰레기 안버리기(55.2%) ▲하천·바다 오물 안버리기(49.2%) ▲쓰레기 분리수거(48.6%) ▲소음 억제(35.1%) ▲비닐봉지 사용자제(19.9%)등을 꼽았다. <金鍾秀기자>

... 68%가 "끓여먹는다" 연率は 73.2%로 줄어

등이 꼽혔다. 지난 89년 조사 당시에는 비용과다(32.2%)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던데 비해 불친절과 치료미흡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비용보다는 서비스의 질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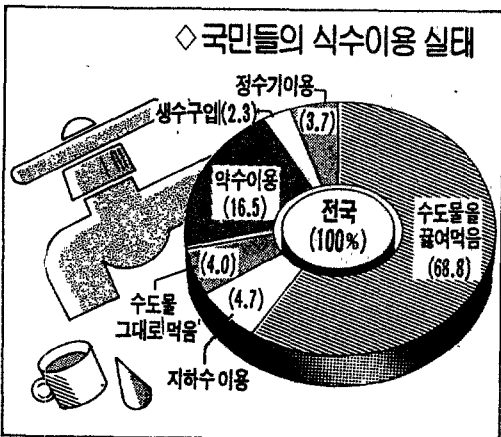
집에서 마시는 물은 전체가구의 76.5%가 수도물을 이용

지하수이용비율(10.4%)이 높았다.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전체의 과반수인 53.8%가 불안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나 농어촌지역이 불안도가 31.2%인데 비해 도시지역에서는 51.3%가 불안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도시지역의 환경오염이 상대적으로 심각함을 반영했다.

成人남자73%·여자6% "흡연"

92년 사회통계 과반수이상 하루 한갑정도



8월 8일 통계청이 발표한 「92년 사회통계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89.5%가 하루 한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흡연 마시는 사람들의 73.2%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는 91년의 73.2%에서 2.0%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자신을 건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건강관리와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이 8.9%에 불과하다.

남아저 흡연을 절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2년 91년 대비 88%의 60.7%에서 92년 61.5%로 0.8%포인트 상승한 반면 흡연 인구의 과반수 이상의 하루 한 갑 이하로 낮아졌으며 92년 현재 92년 73.2%에서 73.2%로 0.1%포인트 상승했다.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91년 15.5%에서 92년 15.5%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우리나라 성인남자의 73.2%가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흡연 마시는 사람들의 73.2%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는 91년의 73.2%에서 2.0%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자신을 건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건강관리와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이 8.9%에 불과하다.

“매일 술 마신다” 8.9%

수돗물 食水이용 全家口 76% 의료서비스 不滿 점차 높아져

5.8%로, 「건강보험법」의 89%의 43.6%에 비해 40.7%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 가스공급의 전장이 이뤄졌다고 느끼고 있다.

세 이상 인구의 80% 이상이 자신의 건강을 보충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매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9%의 11%에서

그러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89년의 15.3%에서 92년 9.1%로 낮아졌고 불만족은 38.3%에서 44.1%로 높아졌으며 89년의 절반 이상만 불만족이 「마지막」이다. 92년 「불만족」은 37.2%로 나타났다.

한편 전라각구의 76%가 수돗물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지만 그 방법으로 82%가 가열한 4%의 불쾌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88.8%가 수돗물을 끓여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藥水를 더한다면 가열도 16.5%나 됐으며 「정수기이용」과 「생수구입」의 각각 3.7%·2.5%를 차지했다.

아직 건강보험의 46.2%가 불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건강보험」은 소외하는 도시가운데선 과반수가 51.9%가 건강보험을 만족했다. 「건강보험」은 31.2%만이 건강보험을 불만족으로 생각하고 있어 건강보험의 만족도가 전보다 높아졌다.

주택가격의 63.9%가 상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지방에서는 82%가 상승했다고 느끼는 비율이 33.3%에 달했다.

【종합기자】

85년 이후 우리나라 이렇게 변했다

통계청 90년 인구주택조사

지난 90년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는 4천 341만 632명으로, 85년의 3천 889만 960명의 비해 2배 5천 752만 672명이 증가한 것이다. 이 증가율은 14.4%로, 전 세계에서 23번째로 많은 것이다.

또 전국 가구수는 1천 1백 37만 7천 700가구로, 85년의 1백 18만 5천 900가구의 비해 18.5% 증가한 반면, 주택은 7백 16만 1천 173호로, 85년의 6백 17만 3천 900호보다 16.4%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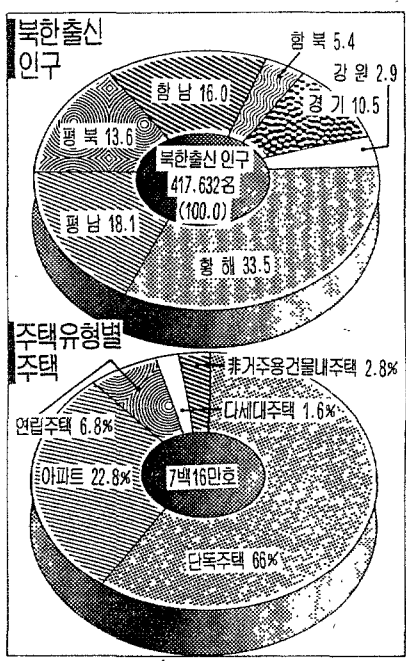
특히 1인 가구의 비중이 42.8%가 되면서, 1인 가구의 비중이 42.8%로, 85년의 37.3%보다 5.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인 가구의 비중이 42.8%로, 85년의 37.3%보다 5.5%포인트 상승했다.

1인 가구의 비중이 42.8%로, 85년의 37.3%보다 5.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인 가구의 비중이 42.8%로, 85년의 37.3%보다 5.5%포인트 상승했다.

현제 주택인구 중 남자가 50.2%, 여자가 49.8%로, 성비(100명당)는 100.7로 나타났다. 이는 85년의 100.7보다 0.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특히 1인 가구의 비중이 42.8%로, 85년의 37.3%보다 5.5%포인트 상승했다.

총인구 4,341만명... 42.8% 수도권 집중

296만명 7.3% 증가... 인구밀도 세계 3위



수도권(서울·경기)은 1천 786만 3천 2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1.1%를 차지했다. 이는 85년의 1천 786만 3천 200명보다 7.3% 증가한 것이다.

수도권(서울·경기)은 1천 786만 3천 2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1.1%를 차지했다. 이는 85년의 1천 786만 3천 200명보다 7.3% 증가한 것이다.

수도권(서울·경기)은 1천 786만 3천 2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1.1%를 차지했다. 이는 85년의 1천 786만 3천 200명보다 7.3% 증가한 것이다.

아파트 2배 증가... 12세 이상 절반이 통근·통학

남녀 선호 뚜렷 4세 이하 11.2%나 많아

핵가족 추세 가속화... 노령 23.5%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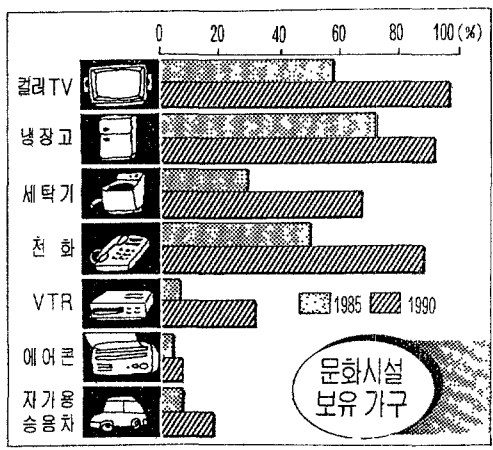
〈시·도별 인구추이〉 (단위: 천명, %)

시·도	1985	1990	증감률
전국	40,448	43,411	7.3
서울	9,639	10,613	10.1
부산	3,515	3,793	8.1
대구	2,030	2,229	9.8
인천	1,387	1,818	31.1
광주	906	1,139	25.7
대전	866	1,050	21.2
경남	4,794	6,156	28.4
충남	1,725	1,580	-8.4
충북	1,391	1,390	-0.1
전북	2,135	2,014	-5.7
전남	2,202	2,070	-6.0
경북	2,843	2,507	-11.8
강원	3,011	2,861	-5.0
제주	3,517	3,672	4.4
합계	489	515	5.3

현재 화교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1천 1백 37만 7천 700가구의 37.3%가 아파트를 거주하고 있다.

남녀 선호 뚜렷 4세 이하 11.2%나 많아. 4세 이하 인구는 489만 515명으로, 전체 인구의 11.2%를 차지했다.

핵가족 추세 가속화... 노령 23.5% 늘어. 노령 인구는 1,013만 3천 2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3.5%를 차지했다.



문화시설 보유 가구. 1990년 기준, 문화시설을 보유한 가구는 29.5%로, 1985년의 23.5%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시·도의 미혼 단독가구 증가와 농촌지역의 노인단독가구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不在連거〉. 1990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이 42.8%로, 85년의 37.3%보다 5.5%포인트 상승했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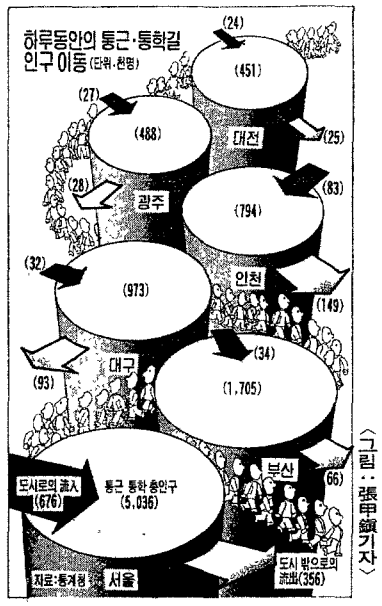
인구의 증가로 인해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대도시의 주택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男 100명에 女

혼자사는 家口 54.6% 늘어

인구밀도 세계 3위, 常駐외국인은 줄어

아파트 98% 증가, 신용차보급률 13.5%



13만 8천 명(38.4%)가 더 늘었다. 주거 형태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어가고 있다. 아파트는 98% 증가했다. 신용차보급률은 13.5%로 올랐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대도시의 주택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거림·張甲鎭기자〉

13만 8천 명(38.4%)가 더 늘었다. 주거 형태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어가고 있다. 아파트는 98% 증가했다. 신용차보급률은 13.5%로 올랐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대도시의 주택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도시 거주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대도시의 거주자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도시 거주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구당 평균 3.7명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대도시의 인구밀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인구밀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거주자가 줄어가고 있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대도시의 외국인 거주자 비중이 더욱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파트가 98% 증가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대도시의 아파트 비중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신용차보급률이 13.5%로 올랐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대도시의 신용차보급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신용차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鄭維植기자〉

가구당 평균 3.7명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대도시의 인구밀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인구밀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거주자가 줄어가고 있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대도시의 외국인 거주자 비중이 더욱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파트가 98% 증가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대도시의 아파트 비중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신용차보급률이 13.5%로 올랐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대도시의 신용차보급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신용차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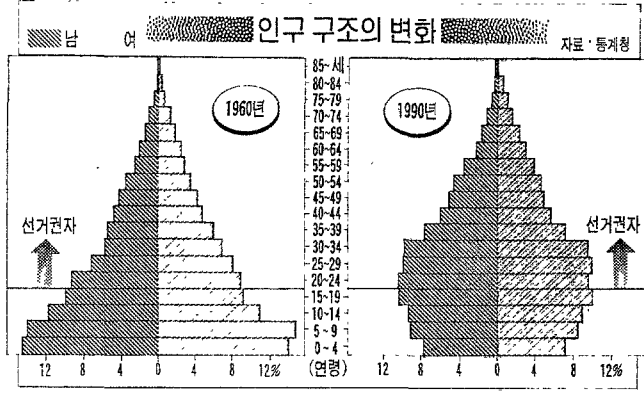
5年前과 비교한 90人口·주택센서스

▲5年前의 인구는 90만 7천 9백 7명으로, 5年前에 비해 1.1% 증가했다. ▲주택은 10만 9천 9백 99호로, 5年前에 비해 1.1% 증가했다.

▲인구는 5年前에 비해 1.1% 증가했다. ▲주택은 5年前에 비해 1.1% 증가했다. ▲인구는 5年前에 비해 1.1% 증가했다. ▲주택은 5年前에 비해 1.1% 증가했다.

111.2명꼴 0~4세

나이	남자	여자
0~4	108.2	100.0
5~9	107.7	100.0
10~14	106.6	100.0
15~19	106.6	100.0
20~24	106.6	100.0
25~29	99.9	100.0
30~34	104.2	100.0
35~39	106.6	100.0
40~44	102.8	100.0
45~49	99.9	100.0
50~54	99.9	100.0
55~59	99.9	100.0
60~64	99.9	100.0
65~69	99.9	100.0
70~74	99.9	100.0
75~79	99.9	100.0
80~84	99.9	100.0
85~89	99.9	100.0



인구센서스패치를 조사했기 때문에 추이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1960년 인구는 90만 7천 9백 7명으로, 5年前에 비해 1.1% 증가했다. ▲주택은 10만 9천 9백 99호로, 5年前에 비해 1.1% 증가했다.

85년 주택 「유리주택」이 열거 변했다

85년 주택 열거가 유리지향으로 바뀌었다. 유리지향 주택이 85년 85.5%로 84년 81.5%에서 4%포인트 상승했다. 유리지향 주택의 비중이 85.5%로 84년 81.5%에서 4%포인트 상승했다. 유리지향 주택의 비중이 85.5%로 84년 81.5%에서 4%포인트 상승했다.

유리지향 주택의 비중이 85.5%로 84년 81.5%에서 4%포인트 상승했다. 유리지향 주택의 비중이 85.5%로 84년 81.5%에서 4%포인트 상승했다. 유리지향 주택의 비중이 85.5%로 84년 81.5%에서 4%포인트 상승했다.

유리지향 주택의 비중이 85.5%로 84년 81.5%에서 4%포인트 상승했다. 유리지향 주택의 비중이 85.5%로 84년 81.5%에서 4%포인트 상승했다. 유리지향 주택의 비중이 85.5%로 84년 81.5%에서 4%포인트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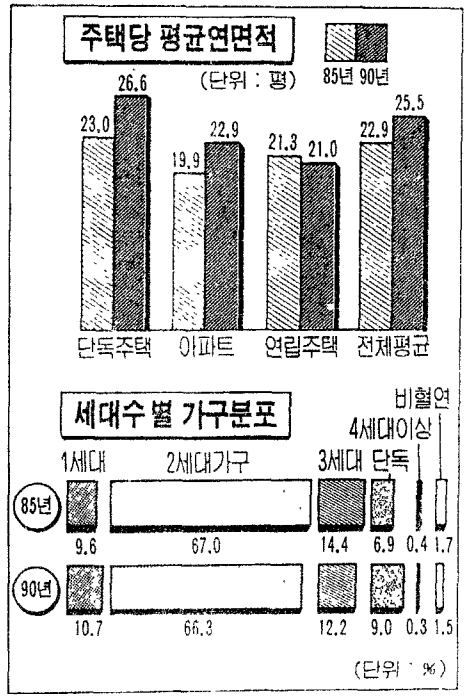
유리지향 주택의 비중이 85.5%로 84년 81.5%에서 4%포인트 상승했다. 유리지향 주택의 비중이 85.5%로 84년 81.5%에서 4%포인트 상승했다. 유리지향 주택의 비중이 85.5%로 84년 81.5%에서 4%포인트 상승했다.

유리지향 주택의 비중이 85.5%로 84년 81.5%에서 4%포인트 상승했다. 유리지향 주택의 비중이 85.5%로 84년 81.5%에서 4%포인트 상승했다. 유리지향 주택의 비중이 85.5%로 84년 81.5%에서 4%포인트 상승했다.

4세이하 남녀성비 111.2對100



인구 74%가 市집중 老人가구 42만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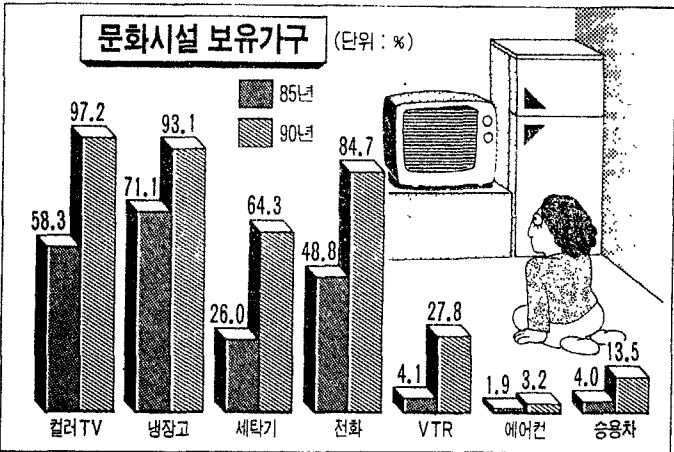
1월 68.2로 낮아졌다. 유리지향 주택의 비중이 85.5%로 84년 81.5%에서 4%포인트 상승했다. 유리지향 주택의 비중이 85.5%로 84년 81.5%에서 4%포인트 상승했다. 유리지향 주택의 비중이 85.5%로 84년 81.5%에서 4%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여가시간을 문화생활의 유익(의미)과 오락(취미)과 가족(친구)의 2대 5백25명(남자 1만1천2백35명, 여자 9천2백90명)으로 85년도와 8천3백9명(8.8%)이 늘었다. 이 가운데 여가시간을 6천명 이상이 문화생활로 활용하며 5천명 이상이 문화생활로 활용하며 4천명

세종파로 65세이상 노인의 단독가구나 노부부만의 가구가 5.1%로 61.7%나 늘어난 42만2천여에 달했다. 이중 할머니 후손들이 버지용차 생활의 사는 가구도 19만3천여나 돼 양부모 중대한 사회문제 부각될 전망이다.

90년엔 10.3%인 1백16만명만 살고있어 도시가스등의 보급이 매우급속도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양 하향세를 걱정했던 시설 보급이 불면서 신도시대를 중심으로 부양이 전체 가구의 52.5%로 수혜시화정진(51.3%·양주북부시시설) 34.1%가

늘어나는 추세다. <주말> 90년 11월1일 현재 전국의 주말 추수는 7백16만3백86호로 5.7%인 1백16만5천6천호(17.3%) 늘어났다. 주말교통량(85년의 71.7%에서 72.4%로 다소 높아졌다. 사람이 많이 왕복하는 전주전부에서 9만7천여호 증가했다. 주말전방수의 전후 변화 4.0개로 85년 3.6개보다 높아져 주말이 점차 더 여유로워진 것이다. 밤이 3시간 7분이 전체의 30%인 3만3천호를 차지하며 7개 이상인 1만7천호를 차지한 85년 4만1천호에서 90년엔 1만3천호로 늘었다.



주요생활지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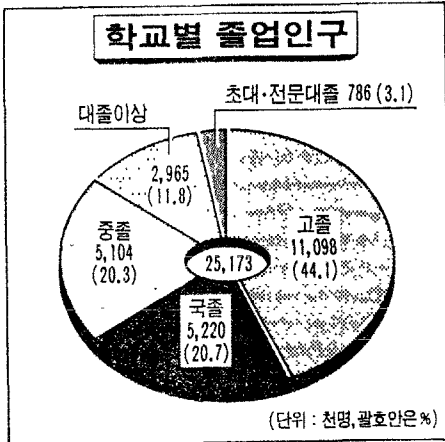
취사연료 82% 가스사용... 2.7배 늘어
344만명이 통근·통학 1시간이상 소요

6%가 늘어 편리경이 추세

다. 가정내부의 집단 생활(다세대)이 9천8백2명(0.1%)로 전체의 47%를 차지했고 미주 4천1백44명(20%)·일본 2천3백28명(11.5%)에 이른다.

각국의 집단 생활(13.3%)으로 85년의 42.6%보다 약간 높아졌다. 가구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상승에 따라 0.3개 증가해 한 개당 1.5명(1985년 1.9명)에서 1.5명(1990년)로 줄었다. 반면 4개 이상 사는 가구수가 5.9%로 1.5%로 줄었다. 주택 대량화 추세를 반영했다. 취사연료로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전체의 82%인 9백20만호로 5년간 2.7배 가량 늘어났다. 반면 85년 조사 때 총가구의 절반인 48%가 사용하던 연료의

사태이다. 그리고 행정지역인 郡에서 주택시 부양의 전체의 71%로 재화정설이 85%를 차지하고 주택시 시설이 없는 가구는 78%로 도시와 농촌간 주거환경 격차가 여전히 심각해졌다. 각종 문화시설 보급도 컬러TV가 전체 가구의 97%로 보급되고 83%로 전파기 84%로 각각 보급된 가구만 한 대의 유휴화하고 있다. 또 세탁기는 64%로 VTR 27%로 자가용 승용차 13.5%·개성 컴퓨터 4.5%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VTR은 85년에 비해 7배, 자가용 승용차는 3배 가까이 급속도로 보급이



늘어나는 추세다. <주말> 90년 11월1일 현재 전국의 주말 추수는 7백16만3백86호로 5.7%인 1백16만5천6천호(17.3%) 늘어났다. 주말교통량(85년의 71.7%에서 72.4%로 다소 높아졌다. 사람이 많이 왕복하는 전주전부에서 9만7천여호 증가했다. 주말전방수의 전후 변화 4.0개로 85년 3.6개보다 높아져 주말이 점차 더 여유로워진 것이다. 밤이 3시간 7분이 전체의 30%인 3만3천호를 차지하며 7개 이상인 1만7천호를 차지한 85년 4만1천호에서 90년엔 1만3천호로 늘었다.

92.12.12
한겨레신문

지역은 역시 서울로 1만7천5백32명이고 江原이 94명으로 가장 낮았다.

도시지역의 인구비중은 74.4%로 지난 85년의 65.4%에 비해 9%포인트 높여졌고 수도권인구비중 역시 42.8%로 5년 전에 비해 3.7% 높아져 인구의 도시집중과 수도권 집중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성비(여자 1백명당에 대한 남자수)는 1백·7로 85년보다 0·5가 증가했다.

특히 0~4세의 성비가 85년 1백8에서 90년에는 1백11·2로 31%포인트 높여졌고 5~14세의 성비도 2000년 이후에는 신부각구가 거의 평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6백32명이던 전체인구의 1%수준이던 1만7천5백32명이다.

서울 "포화상태"

구(18·8%) ▲2인가구(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혼자사는 단독가구가 1백2만2천가구로 85년에 비해 54·6%나 늘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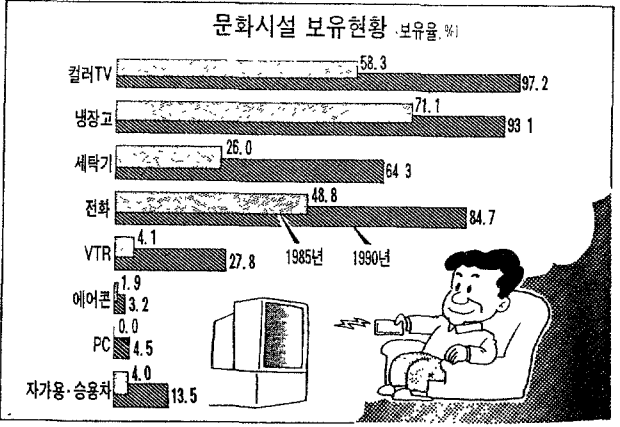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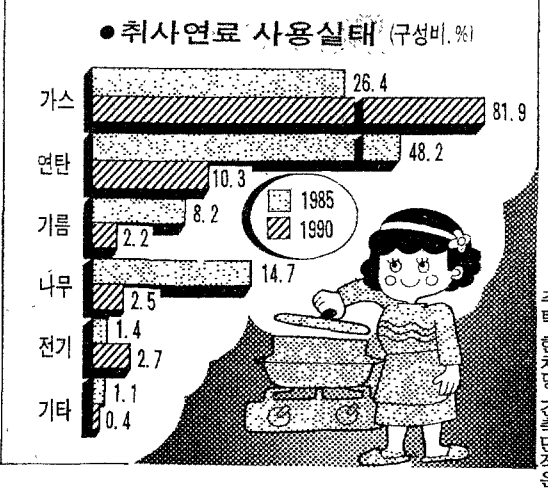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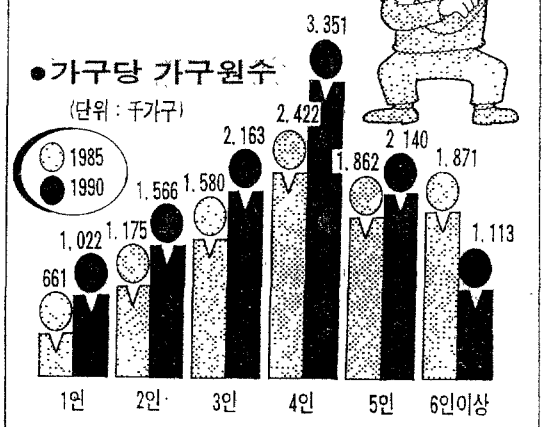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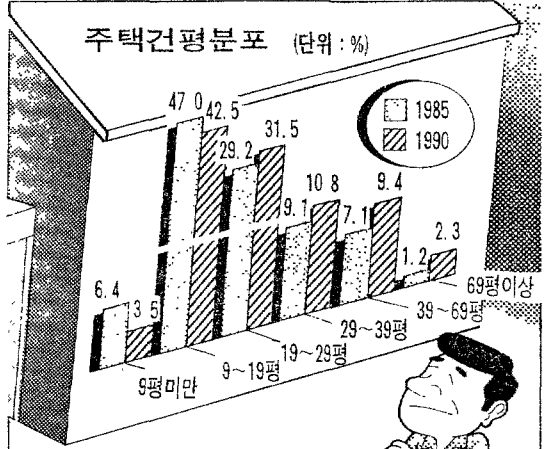
이같이 핵가족화와 단독가구의 증가에 따라 가구당 평균가구원수도 3·7명으로 85년의 4·1명에 비해 0·4명이 줄었다.

10·7%였으며 4대이상 함께사는 경우는 0·3%(3만5천가구)에 불과했다.

65세이상 노인만 사는 가구도 42만2천가구(3·0%)였는데 85년에 비해 2칸

에서 90년에는 81·9%로 크게 늘어난 반면 연탄과 기름·나무를 때는 가구는 모두 감소해 취사형태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말해주

24만1천채가 늘었고 월리는 줄었다. 서울이 살지않는 빈집도 19만7천채로 늘어나 도시지역의 주택난과 대주주를 보이고 있다.



문화시설 보유현황은 1985년 대비 1990년 38.9%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컬러TV는 58.3%에서 97.2%로 38.9%포인트 증가했고, 전화는 48.8%에서 84.7%로 35.9%포인트 증가했다. 자가용·승용차 보유율은 4.0%에서 13.5%로 9.5%포인트 증가했다.

▲9평미만 연탄가 3·5% ▲19~29평 31·5% ▲29~39평 10·8% ▲39~49평 7·1% ▲49~59평 1·2% ▲69평이상 1·2%

▲취사연료 사용실태 (구성비, %) 1985년 대비 1990년 가스 55·5%포인트 증가, 연탄 37·9%포인트 감소, 기름 6·0%포인트 감소, 나무 12·2%포인트 감소, 전기 1·3%포인트 증가, 기타 0·3%포인트 감소

▲가구당 가구원수 (단위: 천가구) 1985년 대비 1990년 1인 359천가구 감소, 2인 1,391천가구 증가, 3인 1,583천가구 증가, 4인 2,329천가구 증가, 5인 1,862천가구 감소, 6인 이상 1,113천가구 감소

▲주택건평분포 (단위: %) 1985년 대비 1990년 9평미만 29%포인트 감소, 9~19평 45%포인트 감소, 19~29평 12%포인트 증가, 29~39평 17%포인트 증가, 39~49평 23%포인트 증가, 49~59평 22%포인트 증가, 69평이상 1%포인트 증가

<金鐘秀기자>

90년 인구·주택센서스 주요내용

통계청이 지난 90년 1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조사한 인구·주택센서스 결과가 2년간의 자연변에 발표됐다.

이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및주택에 관한 통계조사로 인구는 지난 1985년 이후 14만 7천 9백 9십 9명(0.1%) 증가, 주택은 33개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인구 90년 11월 1일 현재 총인구는 4천 3백 41만 1천 9백 85명(0.1%) 증가, 5년간 2백 96만 3천 명(7.3%) 증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인구는 85년의 4천 1백 42만 9천 9백 85명(0.1%) 증가했다.

1km²에 17,532名

독신가구 102萬 : 85년比 54% 급증

農村지역 빈집 19萬 7千 채로 늘어

0.4세 男女兒 111대 100으로 "男超"

이들은 서울에 43.8%가 살고 京畿에 20.1%, 仁川에 11.3%가 사는 등 대부분이 휴전선에 가까운 지역에 모여 살고 있다.

총가구수는 1천 1백 37만 7천 9백 9십 9명(9백 59만 9천 9백 9십 9명)에 비해 1백 77만 9천 9백 9십 9명이 늘었다.

이들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추세에 따라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가구가 늘었다.

가구의 세대 구성은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사는 2세대가 66.3%로 가장 많고 3대가 한집에 사는 경우가 12.2%로 나타났다.

가정의 세대 구성은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사는 2세대가 66.3%로 가장 많고 3대가 한집에 사는 경우가 12.2%로 나타났다.

취사연료는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85년 26.4%로 늘었다.

7%나 됐는데 이는 인구의 노령화와 핵가족화가 진행됨에 따라 3대가 한집에 사는 경우가 12.2%로 늘었다.

취사연료는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85년 26.4%로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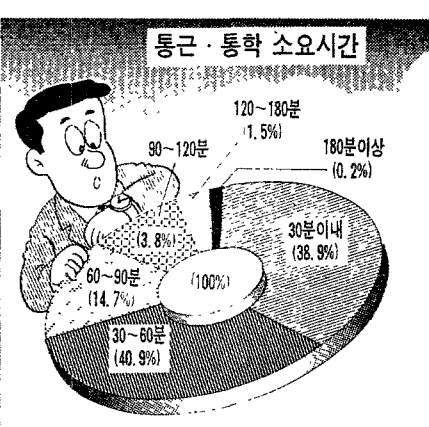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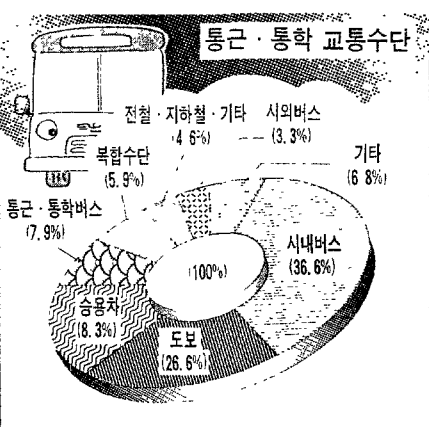
취사연료는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85년 26.4%로 늘었다.

취사연료는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85년 26.4%로 늘었다.

주택 90년 11월 1일 현재 전국 주택수는 모두 7백 16만 5천 9백 85명(0.1%) 증가했다.

주택 90년 11월 1일 현재 전국 주택수는 모두 7백 16만 5천 9백 85명(0.1%) 증가했다.

주택 90년 11월 1일 현재 전국 주택수는 모두 7백 16만 5천 9백 85명(0.1%) 증가했다.



社說

先進國型 인구 구조에의 對應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90년 인구 주택총조사」의 최종결과를 보면 몇가지 흥미있는 사실이 눈에 띈다.

첫째는 인구의 고령화 및 핵가족화가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14세이하의 어린이 수가 85년보다 96만명이나 줄어든 1,113만5,000명인데 비해 65세이상의 노인수는 41만명이 늘어난 216만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구 구성비에서 어린이와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5.7%와 5.0%로 변화했다.

둘째는 수도권인구수가 1,582만명에서 1,858만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그 비중도 39.1%에서 42.8%로 커지는 등 수도권 집중현상이 계속 심화됐다.

셋째는 전체주택에서 단독주택의 비중이 66%로 여전히 가장 높으나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비중이 19.2%에서 31.2%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지난 몇해동안 급격하게 추진된 200만호 주택건설에 따른 영향때문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단독가구수가 66만가구에서 54.6%나 늘어난 102만가구로 핵가족화에 따른 영향이 큰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계조사에서 밝혀진 사실들의 사회경제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의 고령화와 핵가족화는 우리사회도 이제 노령화사회에 대비하는 본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가족이나 사회복지제도가 갖춰져 있지 못한 현실에서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자칫하면 이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노인들이 정년퇴직뒤에도 각자의 경력과 능력에 맞춰 새로운 직업을 갖고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급격한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조정으로 산업별 부문별 인력수급이 불균형을 일으키기 쉬운 지금 풍부한 경험을 갖춘 노인들은 자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의 안정에도 긴요한 일이다.

다음으로 그동안 수도권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논의와 제안이 있었지만 수도권집중현상이 완화되기는 커녕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겠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교통 환경 주택 교육등에서 우리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임에도 마땅한 억제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남북통일에 대비해야 하는 지금 수도권에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집중해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장래에도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제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독가구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핵가족의 영향도 있지만 주택청약을 위해 눈가림으로 단독가구를 구성한 탓도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주택·토지보유 가구합산제를 서둘러야 하며 부동산투기 방지책을 보완해야 한다.

인구구성과 분포, 주택 및 가구조사는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의미가 있으므로 정책입안자의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社 說

都市集中化현상의 심각성

지난 주말 발표된 「90년 인구주택센서스」의 조사결과는 우리 사회의 力動的 변화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주택사정의 호전, 문화시설들의 倍加는 희망적인 발전을 뜻하고 있고 晩婚이나 獨身化현상의 현저한 증가는 우리의 삶의 양식도 世界의 흐름에 크게 다가가고 있음을 알게 한다.

그러나 火急한 懸案들도 두드러진다. 무엇보다 都市化현상의 심각성은 얼마쯤 두려움까지 준다. 서울 24.4%를 비롯, 부산·대구·인천·광주등 5개도시에만 47.5%의 인구가 살고 있다. 한국인의 절반이 이 5개도시에만 살려고 하는 경향은 우리 국토의 전반적 균형발전에 실은 대단한 장애일 수 있다.

都市의 巨大化는 세계 어디서나 피할수 없이 도로·교통·하수체계의 부족과 공공서비스의 악화를 가져온다. 주택공급에서도 부족사태만이 아니라 지역별 불균형을 만들고, 해결 불가능한 밀집에 의해 환경황폐지구까지 만들어 낸다. 이렇게 되므로 도시주민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생활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미 「중병 앓는 수도권」을 체감하고 있는 중이긴 하나 이 문제가 얼마나 심화돼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이번 조사에서 좀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巨大都市가 제기하는 문제들의 어려움은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특정한 모델이 없다는 것에도 있다. 한 국가안에서도 도시마다 그 극복책은 각기 다를수 밖에 없는것이 그동안 경험의 결론이다. 간단한 예로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홍콩의 경우 세계의 1백대도시중 살인사건 사망률은 가장 낮다. 이 때문에 인구밀도와 도시의 사회적 질병은 본질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하지 못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 독일에서는 베를린과 뮌헨은 대중교통수단을 지지하지만 뒤셀도르프나 토로이스도르프는 이를 반대하고 승용차교통을 지지한다. 결국 각자가 자신의 전통과 문화인류학적 양식까지를 포괄하여 도시경영방안을 창출해 낼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측면에서 정책적대응의 미숙함을 갖고 있다. 위성도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으면서도 연계수송의 접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울의 범죄발생률은 전국 평균의 2배이고 年 14%씩 증가하고 있으나 치안력은 담보이다. 물과 공기의 오염이나 녹지의 보호등은 정책원칙마저 분명치 않다. 한국적 도시집중화에 대한 진지한 정책적 접근이 이제는 잔정으로 시작돼야 한다.

통계청 有權者 나이별 推計

이번 대통령선거는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20~24세 「신세대」 유권자들이 전체 유권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 30대 유권자만으로도 전체의 절반을 훨씬 넘고있기 때문이다. 또 평균수명이 늘어오면서 노년 유권자층도 그만큼 두터워 이들의 영향이 무시 못할 변수가

특히 이번 대선에서 처음 대통령을 뽑아보게 되는 72년 12월 19일 이전에는 20~24세 유권자는 4백 60여만명(15.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대부분도 시지역에서 자랐고 중·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어 본 경험이 많은 자를 포함해서 대략 2점에서 선거에의 참여율, 투표성향 등이 판권을 모으고 있다.

大統領 투표 첫 참가 24세 이하가 15.7%

이제 시·도별 유권자 수도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전국으로 보면 1천 3백 23만 9천 명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校服 着用화세대 性向 관심 65세 이상도 8%로 비증커져

대부분가 학생 발판이란 14대 대통령선거의 총 유권자 수(2천 9백 42만 9천 명)에다 통계청이 작성한 유권자 추계인구를 근거로 유권자를 연령별로 추계한 바에 따르면 20, 30대의 젊은 유권자들이 전체의 57.4%인 1천 3백 23만 9천 명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87년 대선 때 이 연령층을 포함한 20대 유권자들의 투표는 물론 선거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가 하면 유권자 자신의 생활 양식에 있어도 선거결과에 어떤 선에서든 5년 전과 마찬가지로 선거판에 바뀔 줄을 고를지 고민된

◇연령별 유권자수

	87년		92년	
	유권자수	유권 비중(%)	유권자수	유권 비중(%)
20~24	4,326,070	16.7	4,604,646	15.7
25~29	4,318,308	16.7	4,230,980	14.5
30~34	3,604,196	13.9	4,407,515	15.0
35~39	2,763,303	10.7	3,571,910	12.2
40~44	2,341,562	9.1	2,677,461	9.0
45~49	2,256,180	8.7	2,259,660	7.7
50~54	1,893,949	7.3	2,197,872	7.5
55~59	1,402,350	5.4	1,812,435	6.2
60~64	1,081,517	4.2	1,306,366	4.1
65세 이상	1,883,600	7.3	2,342,043	8.0
계	25,873,624	100	29,422,658	100

※92년도 유권자수는 통계청 인구통계에 의한 추계치

34만여명(8.0%)으로 비중이 차지하고 있다. 90년 인구센서스를 보면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5백 23만 3천 5백여명(23.3%)으로 나타났다. <鄭鐵根기자>

大學街의 탈정치화 경향을 고려했을 때 아직 미지수다. 한편 인구의 노령화 현상을 반영, 65세 이상 유권자들이 5년 전보다 46만 명 정도가 늘어난 2백 34만 2천 435명(8.0%)으로 늘어난다는 서울·仁川·京畿를 포함한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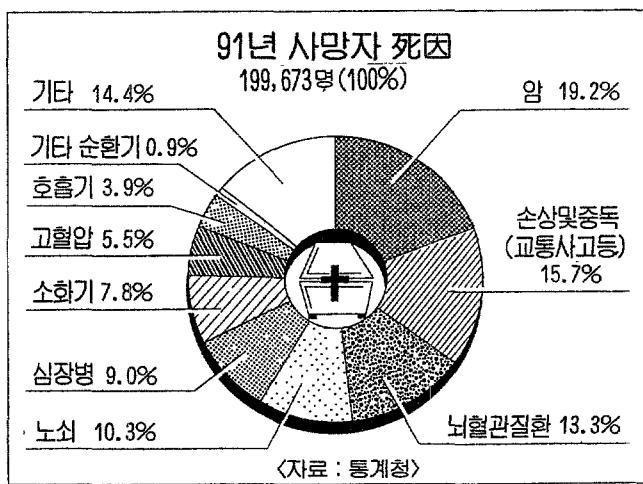
우리나라 사람의 3대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질환(뇌졸중), 각종사고(교통사고)이며, 이 중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인연 사망률이 세계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이 작년 사망자 23만 7천 1백 38명을 사망원인별로 가늠한 19만 9천 6백 73명을 대상으로 서부 및 발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암이 원인 사망자 3만 9천 3백 51명으로 전체의 19.2%를 차지했다.

통계청 작년 사망자 분석

死亡 원인 癌이 으뜸

우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보면 암이 1백 53명, 뇌혈관질환이 1백 53명, △외상사망 28.5명, △가장 높고 다름이 △간암 33.7명, △폐암 15.2명, △자궁암 7.3명, △대장암 4.4

△간암 33.7명, △외상사망 28.5명, △가장 높고 다름이 △간암 33.7명, △폐암 15.2명, △자궁암 7.3명, △대장암 4.4



뇌졸중 교통사고 2, 3位 肝癌 사망률은 세계 최고

비교가 가능한 32개국 중 29위로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폐암, 결장암 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암의 발병 사실을 알고 난 뒤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다 낮은 편이었고, 사인 중 암이 전체의 51.1%나 됐다.

우리가 전체의 51.1%나 됐다.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환은 뇌혈관질환으로 10만명당 72.6명꼴로 기록됐는데 이는 다른 나라보다 낮은 편이었고, 사인 중 암이 전체의 51.1%나 됐다.

세 번째인 각종사고사망률은 세계 최고수준인 교통사고사망률 38.2명을 포함해 72.2명 정도에 이르렀다. 뇌혈관질환은 72.6명, 암은 72.2명, 교통사고는 38.2명, 기타는 15.2명, 순환기 질환은 10.3명, 심장병은 9.0명, 소화기는 7.8명, 고혈압은 5.5명, 호흡기는 3.9명, 기타 순환기는 0.9명, 기타는 14.4명이다.

환 심질환은 단정사망률의 10%에 불과한데, 그 중 단정사망률 중 30~50대의 특이 현상이고 우리나라 전체로는 세계 3위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자의 경우 70대 이하 뇌혈관질환 사망률의 10%에 불과한데, 30대 이하의 선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가 40~60대 이상, 70세 이후에선 노년기에 비해 뇌혈관질환이 가장 많았으며 자살의 경우 불의의 가장 많았다고 분석.

한편 자택사망자 비율이 74.8%로 요양원, 복지관 방문사망자 비율이 82.9%로 8.2%에서 91년 15.3%로 늘었다. 사망자의 매장비율은 84.3%로 화장비율이 15.7%였다. <洪權濤>

1991년 주요死因의 계절별 분포 (단위:명, %)

	계 (비율)	봄	여름	가을	겨울
전체사망	199,673 (100.0)	50,551 (25.3)	47,820 (23.9)	48,129 (24.1)	53,173 (26.6)
결핵	4,002 (100.0)	1,078 (26.9)	906 (22.6)	937 (23.4)	1,081 (27.0)
각종암	38,351 (100.0)	9,250 (24.1)	9,744 (25.4)	9,704 (25.3)	9,653 (25.2)
고혈압성질환및 뇌혈관질환	37,376 (100.0)	9,765 (26.1)	8,004 (21.4)	9,049 (24.2)	10,558 (28.2)
심장병	18,052 (100.0)	4,962 (27.5)	4,230 (23.4)	3,999 (22.2)	4,861 (26.9)
당뇨병	4,526 (100.0)	1,244 (27.5)	1,087 (24.0)	1,028 (22.7)	1,167 (25.8)
폐렴·기관지염· 천식	5,080 (100.0)	1,299 (25.6)	1,079 (21.2)	1,105 (21.8)	1,597 (31.4)
교통사고	13,936 (100.0)	3,558 (25.5)	3,413 (24.5)	3,791 (27.2)	3,174 (22.8)
자살	3,069 (100.0)	903 (29.4)	892 (29.1)	703 (22.9)	571 (18.6)
연탄가스 ²⁾	696 (100.0)	213 (30.6)	63 (9.1)	145 (20.8)	275 (39.5)
농약중독사 ²⁾	1,118 (100.0)	290 (25.9)	385 (34.4)	267 (23.9)	176 (15.7)
의사 ²⁾	2,490 (100.0)	443 (17.8)	1,306 (52.4)	461 (18.5)	280 (11.2)

註:1)봄(3,4,5月), 여름(6,7,8月), 가을(9,10,11月), 겨울(12,1,2月)
2)연탄가스, 농약중독사, 의사에는 순수한 불의의 중독 및 불의의 의사 외에 자살·타살 등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음.

통계청 91년死亡원인分析

작년 한해동안 우리나라 사망원인 분석 결과 고혈압과 심장질환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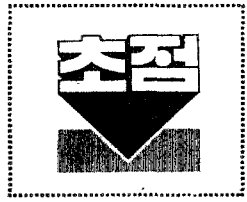
交通사고 肝癌 사망 세계 1위

세계질병과 각종 암 사망률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통사고와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추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통계청이 호적법에 의한 사망신고서와 실시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91년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신고된 사망자는 총 23만7천1백38명으로 총인구수와 비교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5백48.1명을 나타냈다. 이중 死因분류가 가장

높은 것은 ▲각종 불의의 사고(72.2명) ▲심장병(49.5명) ▲고혈압성 질환(29.9명) ▲만성간질환 및 심장병(28.8명) 등의 순이었다. 사망원인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통계에 수록된 32개 주요가들과 비교해보면 교통사고와 간암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차지

순환기질환-당뇨병도 늘어나



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이 사망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 1991년 9월 6백73명을 대상으로 사인구조(死因)를 분석한 결과 순환기계 질환이 28.7%, 각종 암이 19.2%, 사고사로 인한 사망이 15.7%로 이들 3대死因群에 의한 사망이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사망자의 사인구조를 보면 ▲암으로 인한 사망이 인구 10만명당 1백5.8명으로 가장 높고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구 10만명당 1백5.8명으로 72.6%

지었고 위암은 세계 4위, 만성간질환은 세계 3위를 각각 기록하고 있으며 고혈압성질환 및 뇌혈관질환은 세계 19위, 폐암은 세계 29위, 심장병은 세계 32위를 차지하고 있다. 두병기간별로는 ▲투병기간 1년미만 사망이 전체의 51.1%로 가장 많고 ▲다음이 ▲1~4년 35.8%, ▲5~9년 10.3%, ▲10년이상 6.6%의 순으로 질병사망자

23만7천여명 숨져... 10만명당 548명꼴

의 절반이 사인을 알지 못한 채 사망했다. 5년미만 투병기간 비율이 전체의 86.9%를 차지했다. 특히 암의 경우 투병기간 1년내 사망이 54.9%, 1~4년 37.9%로 5년내 사망하는 비율이 92.8%를 나타냈다. 간암은 투병기간이 가장 짧아 1년미만 사망률이 65.8%를 차지했고 폐암도 5년내에 거의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연령별로는 ▲84.3%의 환자가 15.5%로 ▲매장률이 높고 ▲높은 가운데 市 지역이 79.4%, ▲화장 20.4%로 ▲도시 지역(매장 90.4%, 화장 9.6%)의 매장률이 높았으며 ▲시도별로는 光州(95.3%)의 매장률이 가장 높았다.

肝癌·교통사고死亡率 "세계 1위"

지난해 死因조사 公害영향 肺癌환자 계속늘어

우리나라 사망률의 3대 사망원인인 각종 암·교통사고·심장질환을 수반·심한·불의의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교통사고·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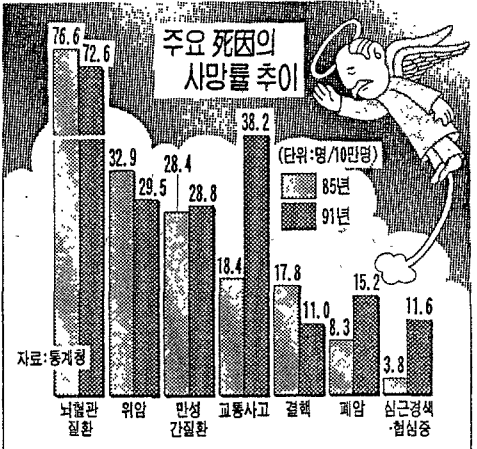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91년도 사망원인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5백48·1명(남자 6백22·4명, 여자 4백72·7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낮아 노년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 (72·0명), 심장질환(49·5명), 고혈압(29·9명)의 순위로 나타났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에는 간암의 사망률(23·7명)이 제일 높았고 폐암(15·2명)·자궁암(7·3명)

순이었던 위암·간암 증가율이 주목해진다. 반면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꾸준히 늘고 있다.

수술기질환자로 인한 사망률은 조금 나아졌지만 이중 심근경색·협심증으로 인한 사망률도 계속 늘고 있다. 관상동맥 질환 사망률은 38·9명에서 90명으로 비례간격이 50%로 나타났다. 투병기간을 보면 투병기간이 1년 미만 사망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에 불과한 반면 200~400일 투병기간 1일도 사망 54·0%의 5일도 사망 92·0%에 달한다.

전체 사망자 74·0%가 자택에서 15·3%는 병



원에서 사망했는데 병원에 사망하는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합계 사망자 74·0%는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4·0%는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의 5%는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의 5%는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지출이 소득 증가 앞질러

통계청 최근 10년간 변화조사

도시근로자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소득 증가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 교육비 지출은 가구주 나이가 45~49세일 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4일 「최근 10년간 교육비 지출 추이」의 「91년도 도시근로자」에서 91년도 도시근로자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5만7천8백원으로 전체 소비지출(77만9천6백원)의 7.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88년 1만3천7백원(5.8%)에 비해 4.2배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소득은 3.7배, 소비지출은 3.3배 각각 늘어났다.

또 교육비 중 대학의 비율은 낮아지는 데 반해 보충교육비 비중이 증가세를 보였다. 보충교육비의 비중은 88년부터 급속히 높아져 90년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가구원수별로 보면 가구원이 3인 이하인 가구의 교육비 부담이 88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 45세 이하의 경우 유아원입학이나 피아노대

10년새 4.2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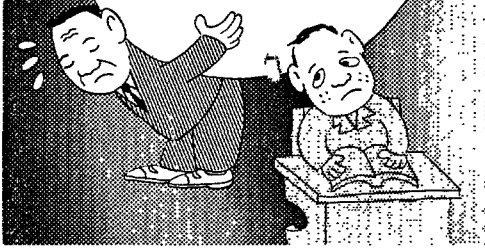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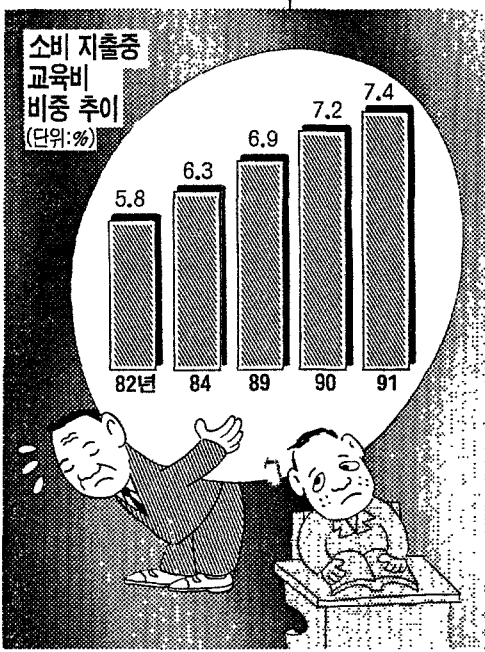
家長 45~49세 때 최다... 소득 수준과 비례

아원수업 각종 학원비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많고 보충교육비 지출이 35~39세와 40~44세에 50~54세에서 각각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교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고 보충교육

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 한편 작년도 전 도시가구 중 5.5%가 입학원비를 지출했으며 액수는 월평균 8만6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12만6천5백원인데도 전 도시가구의 1.5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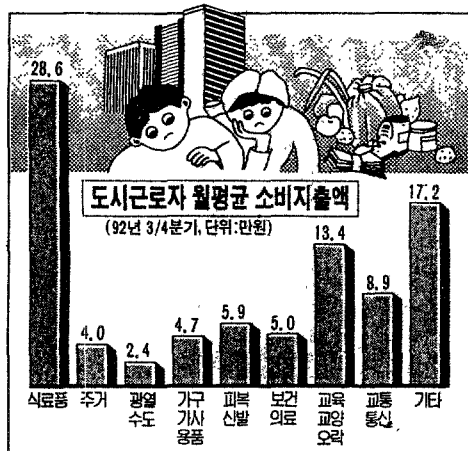
연세대학교가 5만5천3백원(서울 6만6백원), 서울대학교가 3만7천7백원(서울 4만2천3백원), 전신학원비는 5만1백원(서울 5만7천8백원), 부기추신학원을 사부계학원비는 3만9천5백원(서울 4만8천8백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盧應植기자>



고용 부진... 3分期들어 "둔화"

도시근로자 所得증가세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지난 3·4분기(7~9월) 중 가구별 월평균소득은 1백40만6천2백원으로 1년전보다 14.1%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2·4분기 증가율 17%에 비해서는 2.9% 포인트가 낮아져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발표 家計수지동향

경기침체의 여파로 도시근로자의 소득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가계의 실질소득을 나타내는 흑자비율도 소폭 감소했다.

黑字 비율도 소폭감소

2분기 증가율보다 2.9% P 낮아져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지난 3·4분기(7~9월) 중 가구별 월평균소득은 1백40만6천2백원으로 1년전보다 14.1%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2·4분기 증가율 17%에 비해서는 2.9% 포인트가 낮아져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도시근로자 가계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1년전에 비해 7.3% 늘어났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이같이 소득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가구원 구성에 비해 불과 1.6% 증가하는 등 가장을 제외한 일반가구원의 소득증가를 이시실상 정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3·4분기 중정기부진에 따른 고용감소로 제조업종사자와 임용

근로자의 수는 각각 4.3%·4.6%씩 줄었다. 한편 중소득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가구 비중은 1백29만9천원 이하로 전년 동기보다 12.7%포인트(6.0%)·소비지출은 90만1천4백원으로 14.9%(8.1%)·(중

【金卿赫기자】

稅金等 非消費性 支출 작년보다 33.6% 증가

통계청 3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발표

월소득 140만 6천 2백원 한달지출 첫 100만원대 진입

한달지출 첫 100만원대 진입

지난 3분기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백40만6천2백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백23만2천7백원에 비해 14.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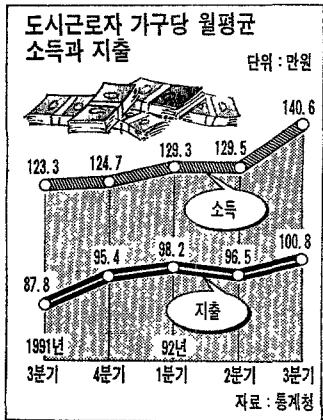
반면에 지출은 한달 평균 1백만8천6백원으로 前年同期の 87만7천8백 원보다 14.9% 늘어 소득에 비해 지출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전반적인 경기부진에 따라 소득과 소비지출의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세금과 이자 부담 등 비소비지출은 크게 늘었다. 3분기 월평균 소득 증가율 14.1%는 지난 1

분기의 23.4%와 2분기의 17.0%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특히 가구당 취업자수의 감소에 따라 家口主의의 근로소득 비중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家口主의 근로소득은 그 동안의 임금인상에 따라 16.5% 늘어났으나 家口主의 근로소득은 취업인원이 가구당 1.48명에서 1.43명으로 줄었음을 면서 1.6% 증가에 그쳤다.

이는 경기부진에 따라 기업체의 고용이 감소, 각 가정의 2차 취업자인 주부·자녀들의 취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1인 전력사용량 仁川 1위

지난해 인구 1만명당 병원의 병상수는 大田이 42.5개, 인구 1천명당 공공도서관 장서수는 濟州가 2백95권, 인구 1만명당 대중음식점수는 관광지가 많은 江原이 74.6개로 각각 해당 분야에서 전국 최고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釜山 인구流出현상 농촌 노령인구 7% 넘어

통계청이 28일 발표한「지역별·연도별 인구동향」에 따르면 90년 기준 인구출입이 서울의 경우 1만 7천 5백 32명으로 가장 많고 釜山 7천 1백 75명(仁川 5천 7백 31명, 大邱 4천 8백 92명 등)으로 대도시지역이 단연 높았으며 강원(24만), 충청(1백 87만)의 인구가 인구유출이 가장 많은 지역을 보였다.

市道간 인구의 이동은 보편적으로 시·도간에 진출보다 전입이 많았다. 서울·釜山을 제외한 대도시지역과 제조업체가 밀집한 경기·충청·영남이 유출대도시지역에 따라 생활여건이 어려워져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천 명 이하의 시·도로는 서울 1천 7백 40명, 부산 1천 600명, 대전 1천 500명, 광주 1천 400명, 대구 1천 300명, 울산 1천 200명, 인천 1천 100명, 목포 1천 100명, 전주 1천 100명, 창원 1천 100명, 대전 1천 100명, 광주 1천 100명, 대구 1천 100명, 울산 1천 100명, 인천 1천 100명, 목포 1천 100명, 전주 1천 100명, 창원 1천 100명 등 6대도시 지역은 전입률이 높았다. 특히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울산 등 6대도시 지역은 전입률이 높았다. 특히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울산 등 6대도시 지역은 전입률이 높았다. 특히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울산 등 6대도시 지역은 전입률이 높았다. 특히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울산 등 6대도시 지역은 전입률이 높았다.

우리고장 생활수준 얼마나 되나

주요 지표

설문부진 大邱 실패율 3.5%...전부 최고
서울 부산 給水량, 충남·전남의 2배수준
17세 날 학생 체중 서울 64·제주 59·5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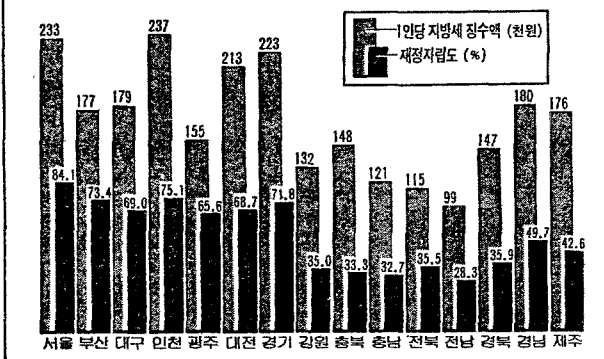
65세이상 노년인구 비율 (서울) 3.4%, 釜山 (3.3%), 大邱 (3.7%) (光州) 4%, (충청) 7.5%, (전북) 7.5%, (경남) 7.5%, (제주) 7.5%	지난해 실업률(설문부진) 대도시 3.5%, 大邱 3.5%, 釜山 3.5%, 仁川 3.5%, 光州 3.5%, 大邱 3.5%, 釜山 3.5%	1인당 전력사용량(원) 서울 233, 부산 177, 대구 179, 인천 237, 광주 155, 대전 213, 경기 223, 강원 148, 충북 121, 충남 115, 전북 99, 전남 147, 경북 180, 제주 176
인구출입률(%) 서울 1.75%, 釜山 1.75%, 大邱 1.75%, 光州 1.75%, 大邱 1.75%, 釜山 1.75%	인구유출률(%) 서울 1.75%, 釜山 1.75%, 大邱 1.75%, 光州 1.75%, 大邱 1.75%, 釜山 1.75%	1인당 지방세 징수액(천원) 서울 233, 부산 177, 대구 179, 인천 237, 광주 155, 대전 213, 경기 223, 강원 148, 충북 121, 충남 115, 전북 99, 전남 147, 경북 180, 제주 176
도시지역 제조업체가 밀집한 경기·충청·영남이 유출대도시지역에 따라 생활여건이 어려워져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64kg, 부산 64kg, 대구 64kg, 인천 64kg, 광주 59kg, 대전 59kg, 경기 59kg, 강원 59kg, 충북 59kg, 충남 59kg, 전북 59kg, 전남 59kg, 경북 59kg, 제주 59kg	전남의 2배수준 서울 64kg, 부산 64kg, 대구 64kg, 인천 64kg, 광주 59kg, 대전 59kg, 경기 59kg, 강원 59kg, 충북 59kg, 충남 59kg, 전북 59kg, 전남 59kg, 경북 59kg, 제주 59kg

인구유출률(%)은 서울 1.75%, 부산 1.75%, 대구 1.75%, 인천 1.75%, 광주 1.75%, 대전 1.75%, 경기 1.75%, 강원 1.75%, 충북 1.75%, 충남 1.75%, 전북 1.75%, 전남 1.75%, 경북 1.75%, 제주 1.75%로 나타났다.

전남의 2배수준을 기록한 서울은 64kg, 부산은 64kg, 대구는 64kg, 인천은 64kg, 광주는 59kg, 대전은 59kg, 경기 59kg, 강원 59kg, 충북 59kg, 충남 59kg, 전북 59kg, 전남 59kg, 경북 59kg, 제주 59kg로 나타났다.

전남의 2배수준을 기록한 서울은 64kg, 부산은 64kg, 대구는 64kg, 인천은 64kg, 광주는 59kg, 대전은 59kg, 경기 59kg, 강원 59kg, 충북 59kg, 충남 59kg, 전북 59kg, 전남 59kg, 경북 59kg, 제주 59kg로 나타났다.

1인당 지방세 징수액 및 재정자립도



소비자물가 서울·충남

실업률 大邱·지방세 부담 仁川가장높아

전세값 상승 京畿·인구 대비 도서관장서 濟州이름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91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서울(100)을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 소비자물가지수는 1월 1일 전월 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은 0.4% 상승한 100.4, 부산은 0.3% 상승한 100.3, 대구는 0.2% 상승한 100.2, 인천은 0.1% 상승한 100.1, 광주와 대전은 0.0% 상승한 100.0, 경기와 강원은 0.0% 상승한 99.9, 충북은 0.0% 상승한 99.8, 충남은 0.0% 상승한 99.7, 전북은 0.0% 상승한 99.6, 전남은 0.0% 상승한 99.5, 경북은 0.0% 상승한 99.4, 제주도는 0.0% 상승한 99.3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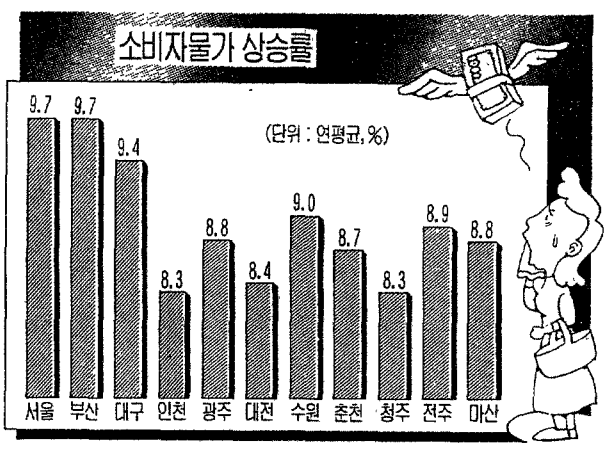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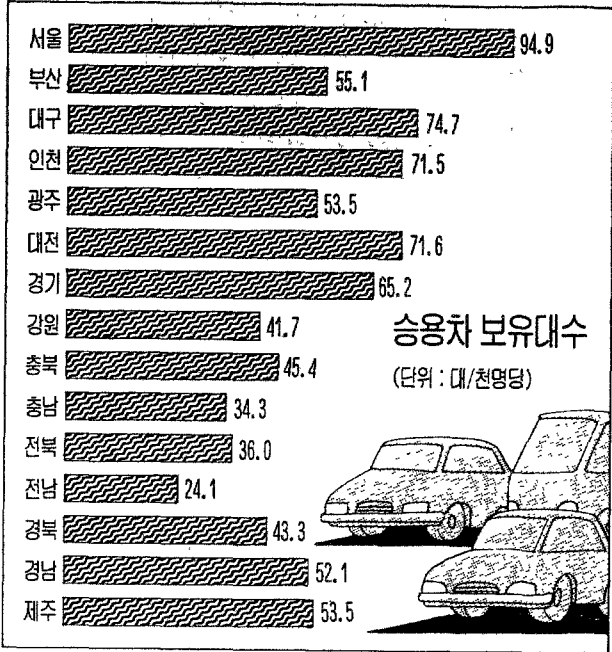
충남은 1월 1일 전월 대비 0.0% 상승한 99.7로, 서울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대전은 0.0% 상승한 100.0, 광주와 대구는 각각 0.0% 상승한 100.0과 0.2% 상승한 100.2로 나타났다. 경기와 강원은 각각 0.0% 상승한 99.9로, 충북은 0.0% 상승한 99.8, 전북은 0.0% 상승한 99.6, 전남은 0.0% 상승한 99.5, 경북은 0.0% 상승한 99.4, 제주도는 0.0% 상승한 99.3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1월 1일 전월 대비 0.0% 상승한 99.7로, 서울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대전은 0.0% 상승한 100.0, 광주와 대구는 각각 0.0% 상승한 100.0과 0.2% 상승한 100.2로 나타났다. 경기와 강원은 각각 0.0% 상승한 99.9로, 충북은 0.0% 상승한 99.8, 전북은 0.0% 상승한 99.6, 전남은 0.0% 상승한 99.5, 경북은 0.0% 상승한 99.4, 제주도는 0.0% 상승한 99.3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1월 1일 전월 대비 0.0% 상승한 99.7로, 서울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대전은 0.0% 상승한 100.0, 광주와 대구는 각각 0.0% 상승한 100.0과 0.2% 상승한 100.2로 나타났다. 경기와 강원은 각각 0.0% 상승한 99.9로, 충북은 0.0% 상승한 99.8, 전북은 0.0% 상승한 99.6, 전남은 0.0% 상승한 99.5, 경북은 0.0% 상승한 99.4, 제주도는 0.0% 상승한 99.3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1월 1일 전월 대비 0.0% 상승한 99.7로, 서울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대전은 0.0% 상승한 100.0, 광주와 대구는 각각 0.0% 상승한 100.0과 0.2% 상승한 100.2로 나타났다. 경기와 강원은 각각 0.0% 상승한 99.9로, 충북은 0.0% 상승한 99.8, 전북은 0.0% 상승한 99.6, 전남은 0.0% 상승한 99.5, 경북은 0.0% 상승한 99.4, 제주도는 0.0% 상승한 99.3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1월 1일 전월 대비 0.0% 상승한 99.7로, 서울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대전은 0.0% 상승한 100.0, 광주와 대구는 각각 0.0% 상승한 100.0과 0.2% 상승한 100.2로 나타났다. 경기와 강원은 각각 0.0% 상승한 99.9로, 충북은 0.0% 상승한 99.8, 전북은 0.0% 상승한 99.6, 전남은 0.0% 상승한 99.5, 경북은 0.0% 상승한 99.4, 제주도는 0.0% 상승한 99.3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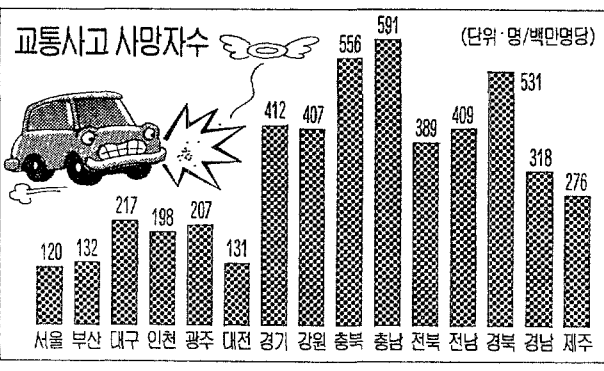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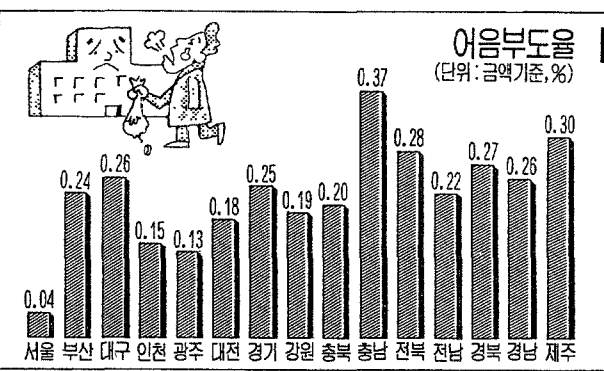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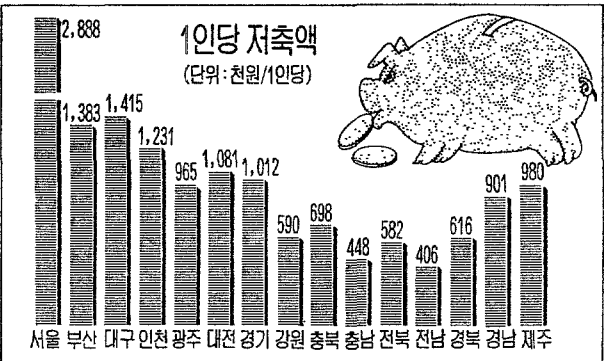


충남은 1월 1일 전월 대비 0.0% 상승한 99.7로, 서울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대전은 0.0% 상승한 100.0, 광주와 대구는 각각 0.0% 상승한 100.0과 0.2% 상승한 100.2로 나타났다. 경기와 강원은 각각 0.0% 상승한 99.9로, 충북은 0.0% 상승한 99.8, 전북은 0.0% 상승한 99.6, 전남은 0.0% 상승한 99.5, 경북은 0.0% 상승한 99.4, 제주도는 0.0% 상승한 99.3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1월 1일 전월 대비 0.0% 상승한 99.7로, 서울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대전은 0.0% 상승한 100.0, 광주와 대구는 각각 0.0% 상승한 100.0과 0.2% 상승한 100.2로 나타났다. 경기와 강원은 각각 0.0% 상승한 99.9로, 충북은 0.0% 상승한 99.8, 전북은 0.0% 상승한 99.6, 전남은 0.0% 상승한 99.5, 경북은 0.0% 상승한 99.4, 제주도는 0.0% 상승한 99.3으로 나타났다.

9.7%로 공동1위

百만명당 輪禍사망 忠南 5백91명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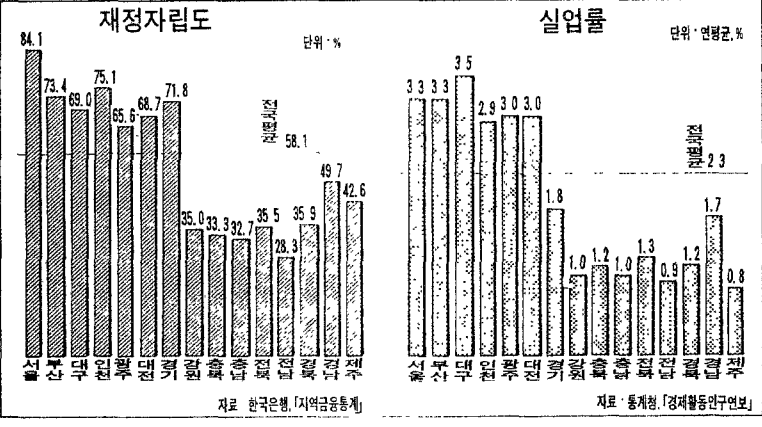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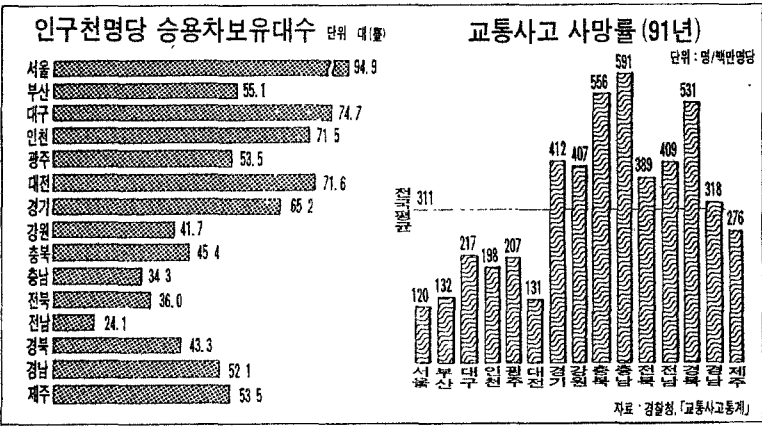


통계청 발표 '91년 지역통계연보

서울시민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생활 수준 높다는. 반면 경기도는 인구를 늘리는데 역사가 가장 짧다. 반면 경기도는 인구를 늘리는데 역사가 가장 짧다. 반면 경기도는 인구를 늘리는데 역사가 가장 짧다.

지방세 부담이 가장 많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수도권 대도시의 전세임대주택이 가장 많이 늘고 있다. 수도권 대도시의 전세임대주택이 가장 많이 늘고 있다. 수도권 대도시의 전세임대주택이 가장 많이 늘고 있다.

전기사용량도 서울이 가장 높고, 충청남도가 가장 낮다. 전기사용량도 서울이 가장 높고, 충청남도가 가장 낮다. 전기사용량도 서울이 가장 높고, 충청남도가 가장 낮다.



친원칙을 내 지방세부담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88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역별 세외부담(인구 1인당 기준)의 내용을 보면 대

인당 생계보조금액, 국민연금가입비용, 1인당 생활안정자금, 승용차보유대수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지, 경제력과 문화·복지수준에

오히려 높은 경제력과 생활수준을 보여 수도권 전철 건설이 광역화되고 있을 때만 이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항목별 최고·최저지역

항목	최고	최저
인구(千명)	서울(10,613)	제주(515)
인구밀도(명/km ²)	서울(17,532)	제주(94)
노동인구비율(%)	경북(8.1)	부산(3.3)
실업률(%)	대구(3.5)	제주(0.9)
소비자물가(%)	서울(9.7)	부산(8.3)
전세임대수령률(%)	경기(8.7)	대전(-4.4)
전세임대주택(천호)	경기(143)	제주(7)
중·중형주택보급률(대/천명)	인천(7.5)	경기(4.8)
1인당전력사용(㎾)	인천(554)	전남(344)
1인당승용차보유대수(대/천명)	서울(452)	충남(268)
1인당승용차보유대수(대/만명)	서울(94.9)	전남(24.1)
1인당저축액(천원)	강원(74.6)	전북(44.6)
1인당생계보조금(백만원)	서울(2,888)	전남(406)
1인당생계보조금(백만원)	서울(15.4)	충남(5.8)
1인당부도율(%)	충남(0.37)	서울(0.04)
재정자립도(%)	서울(84.1)	전남(28.3)
1인당지방세부담(천원)	서울(237)	전남(99)
고사1인당학생수(국민학교, 명)	인천(42.0)	전남(22.7)
17세남학생체중(kg)	서울(64.2)	제주(59.5)
1인당영양판공회수(회)	서울(2.41)	충남(0.16)
공공도서관장서(권/천명)	제주(295)	경기(83)
국민연금가입비율(%)	서울(17.4)	전남(2.7)
빈곤수(개/만명)	대전(42.5)	경북(26.6)
대기오염도(아황산가스, ppm)	수원(0.046)	경남(0.017)
1인당생활쓰레기발생량(kg)	서울(2.9)	충남(1.1)
자동차사고사망률(명/백만명당)	대구(2.9)	충남(1.1)
자동차사고사망률(명/백만명당)	충남(591)	충남(120)

친채로 이 가운데 6대 도시가 25만 4천채로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수도권 시외시외 건설에 따라 경기지역이 전체를 23%인 14만 3천채가 건설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전세사용량(주거용)은 인천이 연간 5백 54㎡로 가장 많은 것을 비롯, 서울(5백 4㎡), 경기(4백 99㎡) 등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

◇금융: 1인당 저축액은 서울이 2백 88만 8천원으로 전국평균(1백 40만 7천원)의 두배가 넘고, 광역의 서울 집권지역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가운데, 대전에서 2백 40만 원이 가장 적었다. 이 중 수도권은 대도시보다

대구-失業, 仁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충청이 인구 1백만명당 5백 91명으로 가장 많고, 충북(5백 56명), 경북(5백 31명) 등 승용차 보유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사망률이 높고, 반면 서울이 1백 21명으로 가장 적은 것을 비롯, 6대 도시가 2백명 안팎의 낮은 사망률을 기록했다.

〈金鐘秀기자〉

物價 상승률 서울-釜山 으뜸

통계청 발표 「작년 지역통계연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과 부산으로 각각 9.7%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섬유산업의 부진이 계속된 대구가 3.5%로 가장 높았다. 또 서울과 부산은 총내역이 0.37%(금액 기준)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천이 1인당 연간 23만 7

도시와 도지역, 또 대도시 및 도지역간에 경제력과 생활환경·복지수준 등에 여전히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은 1인당 저축액·재산자립도·1인당 일일수령·1

서울보다도 면모를 보였으나 일부면도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게 높고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많은 등 환경·주택 등의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을 끼고 있는 경기도 지역은 다른 도지역과 달리 대도시에 버금하거나

〈주민생활〉 도시지역의 주택전세값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 인구유입이 많았던京畿가 8.7%로 가장 크게 올랐고 서울(6.1%), 인천(5.0%)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신중주택수는 모두 61만 3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급수량 역시 서울 4백 52ℓ 등 대도시 지역이 대부분 4백ℓ를 넘는 반면道 지역은 3백ℓ 안팎으로 대도시보다 4분의 1 가량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 보유대수는 서울이 인구 1천명당 94.9대로 10명당 1대를 보유하는 수준에 달하고 대구·인천·광주·대전 등이 1천명당 70대 이상의 승용차를 보유한 반면道 지역은 대부분 35~45대수준인 가운데 전남이 24.2대로 가장 적었다.

교통事故 사망-어음不渡 忠南 1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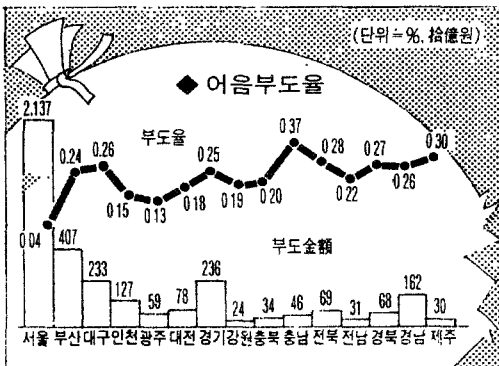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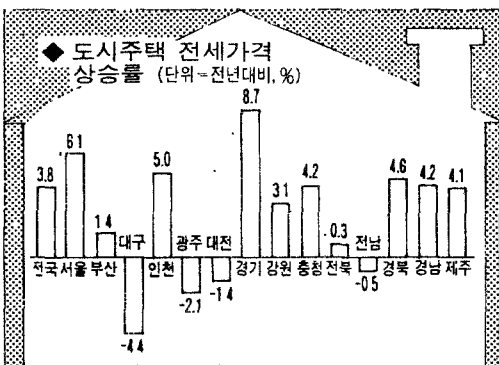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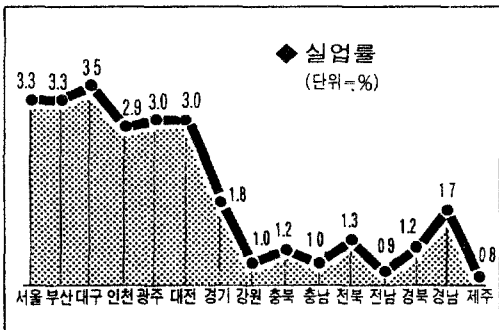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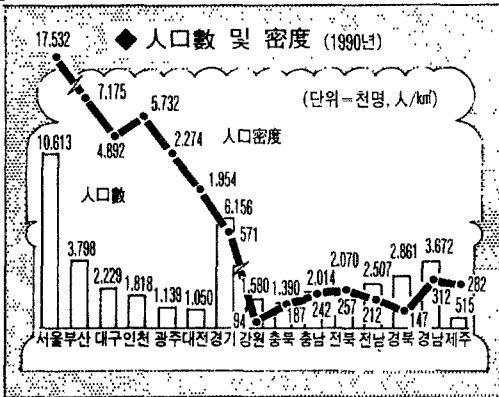
川-지방세부담 가장 높아

평균 0.37%로 가장 높았으나 나머지 지역은 0.25~0.3%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만이 0.04%로 유일하게 전국평균(0.06%)보다 낮게 나타났다. 〈문화·환경〉 주민 한 사람당 영유아관할수는 서울이 연간 2.4회로 가장 많고道 지역에서는 모두 1년에 1편미만의 영화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주요도시의 대기오염도(아황산가스 기준)는 모두 허용기준치(0.05ppm)보다는 낮지만 수원(0.046ppm), 서울(0.043ppm), 대구(0.041ppm), 인천(0.041ppm)은 허용치에 육박하고 있어 대기

통계청 「지역統計연보」 발표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지역統計연보」에 따르면, 1990년 전국 인구는 4,882만 명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 1,954원(1달러 1,195원)으로, 5개 도시의 평균이 4만 3,782원(1달러 4,372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532원(1달러 17,532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282원(1달러 282원)으로 가장 낮았다. 서울의 인구는 1,060만 명으로, 1인당 GDP는 17,532원(1달러 17,532원)으로, 5개 도시의 평균이 4만 3,782원(1달러 4,372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도시 전세값 안정... 수도권만 크게 올라 주택 61만채 건설... 京畿道가 23%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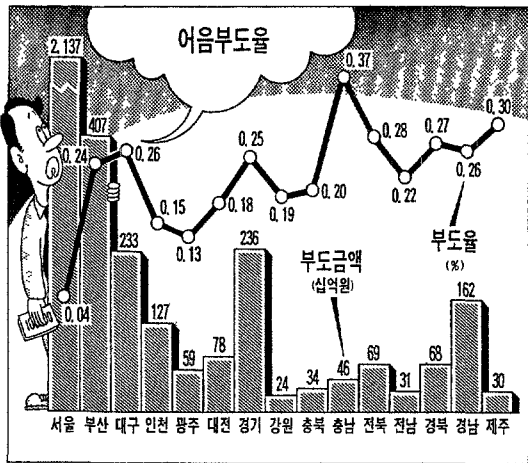
주택건설은 지난해 실적 추이만 8천여 가구로 대폭 감소했다. 수도권은 2만 8천여 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서울의 주택건설은 1만 2천여 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2만 8천여 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서울의 주택건설은 1만 2천여 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전날은 40만여 원으로 7분의 1 정도 못미쳤다. 전국 평균은 58·1%를 나타내며, 서울은 84·1%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5만 5천여 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서울의 주택건설은 1만 2천여 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수출을 기록했다. 1990년 수출은 1,0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수출은 1,0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수출은 1,0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不渡1위충남 失業1위대구

지역별 전국에서 불가차 부문유대수나 1인당 저축액 등도 서울을 앞섰지만, 서울(소매)의 0.55%, 대구(소매)의 0.33%에 불과하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 1인당 저축액과 불가차 부문유대수 등이다.



통계청, '91년 지역統計연보' 발표

또 1인당 지방세는 인천이 23만7천원으로 서울보다 가장 높았고 인구수와 비교한 교육예산은 전수가 100%로 가장 높았다. 서울(소매)의 0.55%, 대구(소매)의 0.33%에 불과하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 1인당 저축액과 불가차 부문유대수 등이다.

가상승률(서울부산이 9.7%로 가장 높고 대구가 9.4%로 가장 낮음)은 전국의 8.3%로 가장 높게 올랐으며, 가장 낮게 올랐던 대구(7.7%)는 전년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서울(6.1%), 인천(5.8%), 광주(5.5%), 대전(5.4%), 경기(5.3%), 강원(5.2%), 충북(5.1%), 충남(5.0%), 전북(4.9%), 전남(4.8%), 경북(4.7%), 경남(4.6%), 제주(4.5%) 순이었다.

1인당 저축액(서울이 298만 원으로 가장 높고 충남전남이 111만 원으로 가장 낮음)는 전년도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서울(298만 원), 부산(290만 원), 대구(285만 원), 인천(280만 원), 광주(275만 원), 대전(270만 원), 경기(265만 원), 강원(260만 원), 충북(255만 원), 충남(250만 원), 전북(245만 원), 전남(240만 원), 경북(235만 원), 경남(230만 원), 제주(225만 원) 순이었다.

서울 釜山 물가상승률 9.7%로 가장 많이 올라 仁川市民稅부담 으뜸·강원도 대중음식점最多 승용차보유·財政자립·給水量 등 서울 단연 수위

다양이든 대구 인천 대전 등 대도시지역은 70대를 넘었으며, 전국의 24.1대로 가장 낮다. ▲의류부도율=도지역의 상대적으론 높고, 충청(0.37%), 경북(0.31%), 경남(0.30%), 제주(0.30%) 순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0.24%)이 가장 낮았다.

▲인구밀도=90년 기준인 구밀도(1인당 인구가 1만 7천5백32명)로 가장 높고, 다동(인천)이 7천1백75명(1인당 5천7백31명), 대구(4천8백89명), 서울(1만 7천5백32명) 순이었다. ▲도시지역의 인구는 1천만 4백만 명(87%)로, 전국의 87%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1천 4백만 명(11.4%)로, 전국의 11.4%를 차지했다. ▲불가치지나해 소비자를 위한 지원책은 인천이 5백 4천만 원(1.1%)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1인당 전액 사용은 지난해 인천이 5백 4천만 원(1.1%)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1인당 전액 사용은 지난해 인천이 5백 4천만 원(1.1%)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1인당 전액 사용은 지난해 인천이 5백 4천만 원(1.1%)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1인당 전액 사용은 지난해 인천이 5백 4천만 원(1.1%)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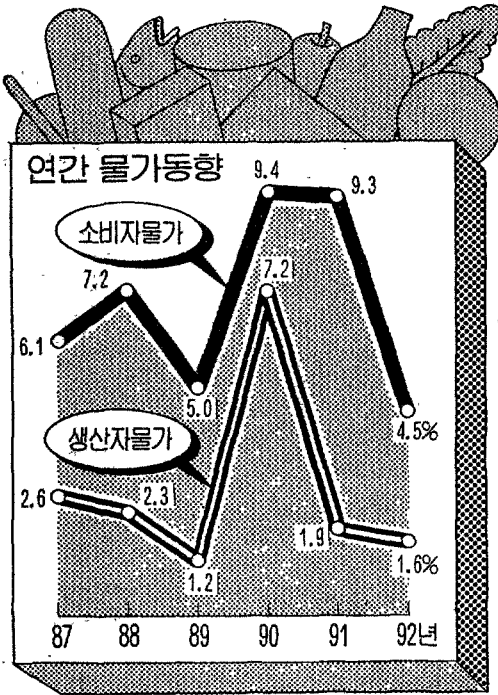
▲전국 평균 1인당 전액 사용은 지난해 인천이 5백 4천만 원(1.1%)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1인당 전액 사용은 지난해 인천이 5백 4천만 원(1.1%)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1인당 전액 사용은 지난해 인천이 5백 4천만 원(1.1%)로 가장 높았다.

△孫熙植기자

올 소비자물가 4.5% 상승

6년만에 최저...水原 全州 가장 많이 올라

올해 소비자물가는 연간 전체인 9.3%의 상승을 보였으며 생산자물가 역시 4.5% 상승에 그쳐 최근 6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내년에는 소비자물가가 4.5%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0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각각 발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2%포인트 낮아진 것은 작년 하반기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안정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30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각각 발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포인트 낮아진 것은 작년 하반기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안정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잠바꾸니를 가도 안정세를 나타내 작년 22.5%나 올랐던 채소파일 생산품(新鮮식품)은 올해 8.3%가 하락했고 양파, 김, 들깨, 호박, 고추, 감 등 20개 기본생활품은 5.7% 상승에 머물렀다.

부동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중중수산물(1.0%) △내렸고 △공업품(2.6%) △공공요금(7.8%) △개인서비스요금(8.6%) △석유류(16.1%) △집세(6.6%)가 각각 올랐으며 △주택임대료(10.5%) △고추(17.9%) △시내버스료(14.8%)가 하락했다.

(23.5%) 사탕과 달걀(17.6%) 택시료(10.7%) 파출부임(8.9%) 푸유료(14.3%) 주산화원비(10.6%) 생산품(20.3%) 등이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부동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중중수산물(1.0%) △내렸고 △공업품(2.6%) △공공요금(7.8%) △개인서비스요금(8.6%) △석유류(16.1%) △집세(6.6%)가 각각 올랐으며 △주택임대료(10.5%) △고추(17.9%) △시내버스료(14.8%)가 하락했다.

반면 내림세를 보인 품목은 사과(34.5%) 밀감(31.7%) 돼지고기(12.3%) 수박(33.3%) 시멘트(16.7%) 퍼스널컴퓨터(2.3%) 인삼(21.3%) 잡부(0.2%) 등이며 일반미(3.8%)의 상승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水原 全州가 5.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어 大田 公州가 5.4% 大邱 5.0% 등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0.3%)에 그쳤다.

제조업 가동률

63개월만에 최저

산업생산 90년 1월 이후 첫 감소

11월 산업활동 동향

최근 산업활동 동향 <단위: %>

항목	7~9월	10월	11월
생산지내(실)	3.2	1.5	-1.4
제조업(제조업)	76.6	76.4	72.3
건설업(건설업)	13.9	14.0	15.9
서비스업(서비스업)	11.9	11.2	12.2

註: 가동률과 실업률을 제외한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다.

월간 산업생산이 2년 10개월만에 첫 감소세를 보였다. 제조업가동률은 5년 전인 72.3%로 전방위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3개월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한 제조업가동률은 72.3%로 전방위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3개월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한 제조업가동률은 72.3%로 전방위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11월 제조업가동률은 72.3%로 전년 동기 대비 4.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1988년 11월 이후 3년 10개월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1988년 11월 이후 3년 10개월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11월 산업활동 동향
7% 증가한데 그쳤으며, 그중 내수용 소비재 출하량은 4.5% 증가했다. 수출용 소비재 출하량은 5.7% 증가했다.

실내수용 소비재 출하량은 4.5% 증가했다. 수출용 소비재 출하량은 5.7% 증가했다. 이는 1988년 11월 이후 3년 10개월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고용부문의 선진 경제활동 참가율이 61.1%로 전년 11월에 비해 0.2%포인트 낮아진 가운데 실업률은 2.3%를 기록해 전년 11월에 비해 0.1%포인트가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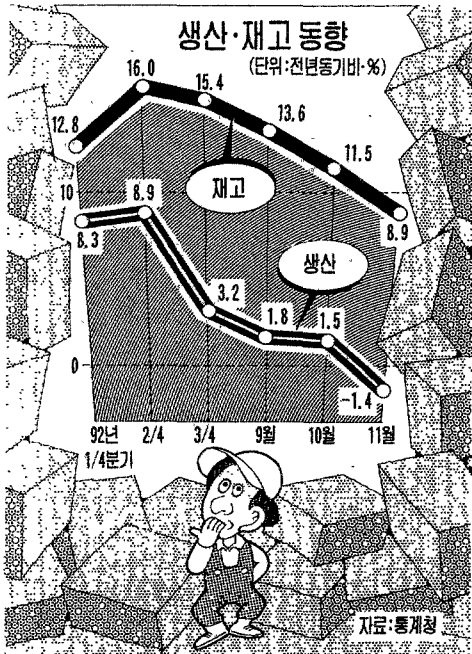
11월 산업활동 동향
고용부문의 선진 경제활동 참가율이 61.1%로 전년 11월에 비해 0.2%포인트 낮아진 가운데 실업률은 2.3%를 기록해 전년 11월에 비해 0.1%포인트가 높아졌다.

11월 산업활동 동향
고용부문의 선진 경제활동 참가율이 61.1%로 전년 11월에 비해 0.2%포인트 낮아진 가운데 실업률은 2.3%를 기록해 전년 11월에 비해 0.1%포인트가 높아졌다.

2.3%를 기록해 전년 11월에 비해 0.1%포인트가 높아졌다. 경기침체지수는 향후 2~3개월후의 경기침체지수를 말해주는 선지수가 전월에 비해 1.8% 증가했고, 동행지수도 0.7% 증가했다.

제조업稼動率 5년만에最低

11월産業동향 生産 前年比 1.4% 감소



<그림 : 金弘烈기자>

在庫증가율은 한자리수 景氣지수 회복국면으로

11월 중 산업생산이 2년10개월만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가동률도 5년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재고증가율이 한 자리수로 떨어진 등 재고가 크게 줄고 있어 앞으로 생산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고, 건설투자 관련지표들도 급락중, 경기선행지수가 전월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월 중 산업생산이 전년 동기비 1.4% 감소해 지난 90년 1월 마이너스 0.1%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을 4·4분기 경제성장률인 3·4분기(3·1%)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재고증가율은 지난 6월의 17·9%를 고비로 계속 줄어들어 11월에는 전년동월비 8·9% 증가하는데 그쳐 재고조정이 마무리되고 생산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고증가율은 지난 6월의 17·9%를 고비로 계속 줄어들어 11월에는 전년동월비 8·9% 증가하는데 그쳐 재고조정이 마무리되고 생산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중 산업생산이 2년10개월만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가동률도 5년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재고증가율이 한 자리수로 떨어진 등 재고가 크게 줄고 있어 앞으로 생산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고, 건설투자 관련지표들도 급락중, 경기선행지수가 전월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월 중 산업생산이 전년 동기비 1.4% 감소해 지난 90년 1월 마이너스 0.1%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을 4·4분기 경제성장률인 3·4분기(3·1%)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재고증가율은 지난 6월의 17·9%를 고비로 계속 줄어들어 11월에는 전년동월비 8·9% 증가하는데 그쳐 재고조정이 마무리되고 생산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産業活動動向 분석

「不況터널」 예상외로 두텁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11월 중 산업활동동향은 우리 경제의 현주소가 불황의 긴 터널인가 우데와 있음을 새삼 확인하고 있다.

산업활동이 가늘어지는 여러 지표 가운데 재고수준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설비투자의 후진을 재해해 외계투입 증가율이 다소 상회되긴 했지만 그 이외에

전자 일반기계 운송장비 산업용 화학품 등 대부분 업종이 11월중에도 심각한 부진 양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로 1.4% 감소, 전월 대비로는 4.4% 감소란 이례적인 상황까지 연출하고 있다.

올해 지난 7월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동기 대비

가성장이 4%대에 머물렀던 것을 보면 올해 예상해 주고 있던 것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

또 제조업과 소비재 산 업생산과 유사하게 극히 저조한 모습을 나타냈다.

대통령 선거주비에 따른 반지후과 기대도 불구하고 수출은 0.7%가 늘었으나 데그쳤고 소비부문에선도 소매 판매를 제외하면 내수 소비재 및 비내수 소비재의 출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수주가 크게 늘어나는 등 건설활동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으며 지난 10월에 내 놓은 설비투자추진책의 효과도 이제 나타내기 시작한 것 이란 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 경기침체지수에서 향후 5~6개월의 경기동향을 말해주는 선형지수가 전월에 비해 1.8% 증가했고 동행지수도 0.7% 증가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외부세로 바뀐 하더라도 그 후를 자체 매우 저조할 것이라는 경제기획원과 통계청의 솔직한 진단이다.

거의 모든 指標 적색경보 年間성장률 4% 臺 兪 小 販 大 減 縮

소매제의 소비재 출하 큰폭 감소

국민총생산이 5~6%의 증가율을 유지해왔으나 그 이후 8월 4%, 9월 1.8%, 10월 1.5% 등으로 계속 부진한 양상을 나타내다가 11월에는 결국 마이너스를 기록함으로써 4.4분기 경제성장이 저조할 것임은 물론 올해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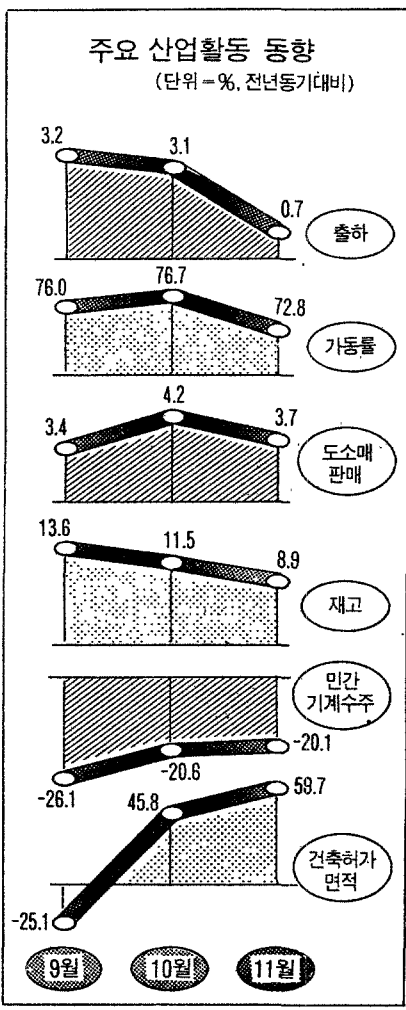
5~6%의 증가율을 유지해왔으나 그 이후 8월 4%, 9월 1.8%, 10월 1.5% 등으로 계속 부진한 양상을 나타내다가 11월에는 결국 마이너스를 기록함으로써 4.4분기 경제성장이 저조할 것임은 물론 올해 연

경제기획원은 大 減 縮 的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내수 소비재가 11월을 고비로 서서히 회복세에 접어들 것 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할 근거로 이월된 재고수준이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내

이러한 부진기조 일부의 불 때 양호한 경기회복은 경기의 最低點이 이따기 무렵에 서서 점차 안정세 유지를 위한 적절한 성장책이 무엇 이냐가 중요해 올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것이 큰 전망이다.

〈徐廷禧기자〉



은달에 비해선 1.4% 감소했다. 3.4분기중 2.4분기에 비해 2.6% 줄어든 10월의 산업생산이 10월중엔 3.3% 늘어난다. 그러나 기업의 생산활동이 다소 회복될 기미가 보이더니 다시 11월중엔 10월보다 생산활동이 줄어드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자꾸만 줄어나가고 있다. 이는 국민총생산(GNP)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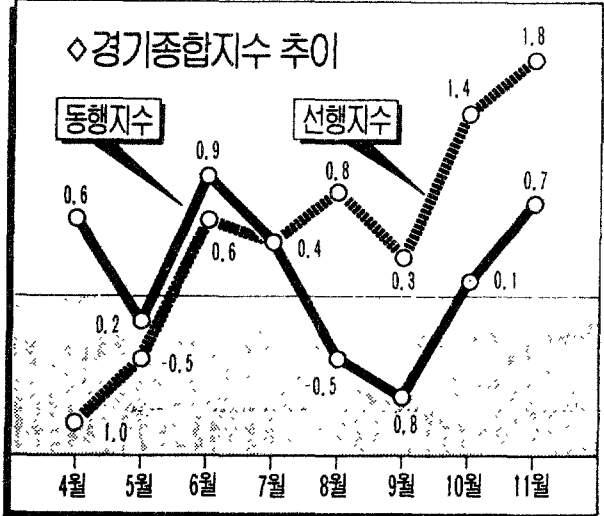
특히 4.4분기중 GNP는 3.4분기 못지않게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생산활동부진은 제조업가동률에서 잘 나타난다. 제조업가동률은 72.8%에 그쳐 80년 이후 최저수준을 나타냈다. 기업들이 공장가동률을 가급적 줄이면서 제품생산을 감축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연구소도 보면 전야철 산업에 일부 기업들 제외하곤 대부분의 산업의 부진

경기전망 赤色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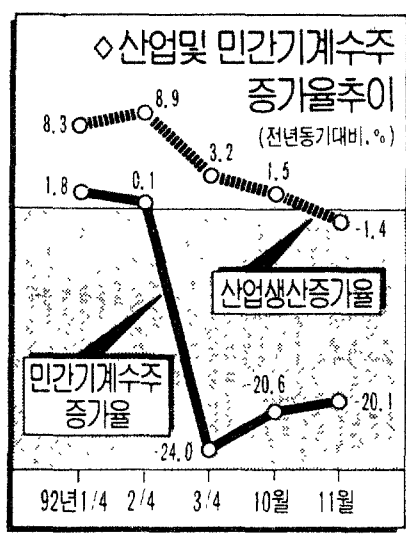
기계연착의 생산감소가 두드러졌으며 중점업종기



않았다. 기업의 출하가 감소하거나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이 기업들의 매출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미로 파악할 수 있다.

영했다. 반면 기업들의 재고는 줄어들고 있다. 11월중생 산자재품재고는 前월에 이어 3.3% 감소했다.

민간기계受注도 7월 고비로 증가세로



진정세를 편 이후 계속 줄어들지만 하던 건줄하다가 10월에 45.8% 늘어 나더니 11월중에도 59.7%나 늘었다. 특히 산업용건물의 경우 지난 7월중 건축규제가 일부 완화된 이후 건축허가면적이 96.9%나 증가했으며, 주택 건축허가면적도 4.4분기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는 있으나 민간기계수주액은 지난 7월을 바탕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또 기계류 수입액도 9월을 고비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소외국기업의 실비투자지원자금의 집행될 경우 실비투자는 본격적으로 되살아 날 것으로

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앞으로의 경기를 말해주는 '경기선행지수'는 지난 10월에 1.4% 증가한 이후 11월중엔 1.8%로 높아졌다.

다시 말해서 경기가 내려 가는 추세는 일단 멈추었고 앞으로의 경기전망이 「赤신호」에서 「黄色신호」로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경기침체현상이 워낙 심각해 경제지침이 나와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 왔기 때문에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11월이 경기순환 곡선의 轉換點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앞으로 경기회복의 속도는 차기 정부가 내놓을 국정공약과 경제정책의 방향이 얼마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을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崔性範기자】

11월 산업활동동향이 뜻하는 것

「산업경기는 최악의 상 태이지만 회복기미가 서 서 경기의 침체를 반영, 일반 히 보인다.」

11월중 우리경제의 상황 은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말해 당초 3·4분기로서 예 상했던 경기의 저점이 10 월 11월까지 길게 늘어져 있지만 水南위로 부상할 준비는 돼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워낙 심플경제가 나빠져 있는 상태라 경기 가 상승국면에 진입하더라도 그 회복의 속도는 매우 더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산업경기는 침체 의 차원에서 벗어난 최악 의 상태다. 11월중 산업생 산은 前月에 비해 4.4% 나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

黄色 신호로

不況터널底點： 지표回復기미

전축허가면적늘어 건설景氣호전예고

타지 않은 신품종을 비롯 한 생산물출액 불황이 기업 자들에게까지 불고후 확산 돼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생산을 하지 않았으니 내놓을 제품도 줄어들게 마련이다. 11월중 出荷는 前月에 비해 3.3% 줄어 들었으며, 지난해 11월에 비해선 0.7%밖에 늘지

않았다. 11월중 도소매판 매액에서도 잘 드러난다. 11월중 도매판매액은 前月에 비해 3.1% 줄어 들었으며, 지난해 11월에 비해선 0.4% 줄어 들었다. 소위 연말경기가 완전히 실종돼 기업은 물

류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다. 그러나 방금 언급한 대로 우선 앞으로의 건설경기 를 예고하는 건축허가면적 이 크게 늘었다. 건축규 제를 골자로 한 건설경기

지표는 11월중 기업들 은 불건이 워낙 안팔리는 데다 앞으로 잘팔릴 전망 도 뚜렷치 않음으로 공장 은 쉬면서 창고에 쌓아 두 었던 재고처리에만 매달려 연명해 나갔다는 얘기다. 기업활동이 두말할 나위도 없이 최악의 상태를 보이 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방금 언급한 대로 우선 앞으로의 실비투자 동향을 예고하는 기계수주 및 기계류수입허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이를 어서의 심각한 설비투자부 진현상을 반영, 지난해 같 은 기간에 비해선 감소세

한마디로 11월중 기업들 은 불건이 워낙 안팔리는 데다 앞으로 잘팔릴 전망 도 뚜렷치 않음으로 공장 은 쉬면서 창고에 쌓아 두 었던 재고처리에만 매달려 연명해 나갔다는 얘기다. 기업활동이 두말할 나위도 없이 최악의 상태를 보이 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방금 언급한 대로 우선 앞으로의 실비투자 동향을 예고하는 기계수주 및 기계류수입허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이를 어서의 심각한 설비투자부 진현상을 반영, 지난해 같 은 기간에 비해선 감소세

현 경기 상황은 극도로 나쁘지만 회복의 조짐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기종합지수에서도 이 점은 잘 나타난다. 현재의 경기를 말해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지난해 2월 이후 6월을 제외 하곤 계속 前月比 「마이너 스」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데 이어 11월중엔 0%를 나타냈다. 이는 그동안의 경기침체현상이 11월중에 도 계속됐으나 더 이상 하

통계보도기사모음집

발행일 : 1994년 11월

발행인 : 이 강 우

발행처 : 통 계 청(T. 222-1829~30)

Ⓣ 135-08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15

인쇄처 : 강문인쇄사(294-6651~3)